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81
2021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1981 ——— 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1981 — 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81
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Daegu Korea

위원장	이세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부위원장	송대규 학장, 오희종 의과대학 동창회장		
자문위원	황재석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김상표(병리학교실), 배재훈(생리학교실), 서성일(미생물학교실)		
총괄간사	정성원 입학 및 대외협력실장		
행정간사	최삼희 행정팀장		
집필위원	이재호(해부학교실)	정혜라(병리학교실)	이혜원(병리학교실)
	김미경(내과학교실)	김진영(내과학교실)	이현아(신경과학교실)
	이호준(정신건강의학교실)	안근수(외과학교실)	박의준(외과학교실)
	장태규(산부인과학교실)	김동은(이비인후과학교실)	류영욱(피부과학교실)
	하지용(비뇨의학교실)	정인성(직업환경의학교실)	김해원(핵의학교실)
	지민규(학생회장)		
검토위원	권선영(병리학교실)	이미영(예방의학교실)	이중정(예방의학교실)
	정우진(내과학교실)	장병국(내과학교실)	김예림(내과학교실)
	강선희(외과학교실)	전종화(안과학교실)	김진영(영상의학교실)
	하정숙(진단검사의학교실)	김도훈(진단검사의학교실)	박승규(방사선종양학교실)
	박문희(동산의료원 홍보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81
2021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제1장

○	008	발간사
○	010	축사
○	037	교육체계도
	039	의과대학 사명과 비전
	039	의과대학 교육체계도
	040	의과대학 졸업성과
○	041	조직 및 행정
	042	의과대학 조직도
	044	역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046	역대 의과대학장
	048	역대 학무위원
	052	교수연구지원센터
	058	교육지원센터
	060	학생지원센터
	061	의학정책실
	062	입학 및 대외협력실
	063	행정팀
	065	의학도서관
	070	의과대학 시설 현황

제2장

071 연혁 및 역사

- 072 의과대학 연혁
- 076 의과대학의 설립 정신
- 078 동산캠퍼스 시대(1981~1989)
- 081 동산캠퍼스 시대(1990~2010)
- 083 성서캠퍼스 시대(2010~현재)

제3장

087 교수

- 088 연도별 교원 현황
- 090 기초의학교실
- 132 임상의학교실

제4장

277 교육

- 278 의과대학 교육목표 변천사
- 280 의과대학 교육과정 변화
- 296 의사국가시험 제도 변화

제5장

299 연구

- 300 계명의학대 학술지
- 302 의과학연구소
- 304 뇌연구소
- 305 암연구소
- 306 신장연구소
- 307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 309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

제6장

311 학생

- 312 학생회 활동
- 317 동아리 현황
- 318 동아리 소개
- 325 동아리의 추억

제7장

337 국제교류

- 338 교원 국외연수
- 340 국외연수 교원 명단
- 348 학생 국제교류 활동

제8장

355 동창회

- 356 역대 동창회장
- 357 동창회 활동
- 363 동창회 회칙
- 366 동창회 행사

제9장

369 에세이

- 370 의과대학의 과거 에세이
- 373 의과대학의 현재 에세이
- 377 의과대학의 미래 에세이
- 381 동문 에세이

제10장

525 졸업생 현황

- 526 대학원 의학과 졸업생 현황
- 527 의과대학 졸업생 현황
- 528 의과대학 졸업생 명단

우리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지침서가 되었으면



122년,

1899년 존슨 선교사님께서 지구 반대편 미지의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오셔서 인술을 베풀기 위해 제중원을 설립한 지 2021년까지 흐른 시간입니다. 1세기가 넘는 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우리나라는 경술국치로 나라마저 잃었고,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오신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세균과의 전쟁에서 일단 승리한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독감, 홍콩독감을 겪었고, 이어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SARS) 이후로는 거의 5년마다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 가난을 겪지 않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지금 젊은이들 역시 옛날보다는 잘살게 되었지만, 행복을 만끽하기는 커녕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된, 정말 힘들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원은 이런 힘든 긴 세월 동안 곳곳이 버티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인 사랑을 실천하고 한 줌의 행복이라도 생명의 빛 삼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포기하려 할 때, 우리의 선각자들은 늘 희망을 이야기하였으며, 기도와 실천과 희생으로, 이 기관과 우리나라와 우리와 우리의 지역민을 지켰습니다.

40년,

계명대학교 이공대학 의예과에 1979년 입학한 신입생들이 의학과 1학년으로 1981년 진입한 지 흐른 시간입니다. 그 당시 처음 생긴 의과대학에 대한 의학과 사정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80명의 신입생 중에 의학과를 통과한 졸업생은 3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후발 의대로서의 설움, 그로 인한 주니어 콤플렉스와 자격지심으로 힘들어했을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에 대한 체념과 안주보다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노력을 선택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믿어주셨던 선배, 스승들의 격려를 발판 삼아 한 걸음씩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발간사

달란트로서 제증원, 동산기독병원을 어리석은 하인처럼 그냥 두지 않고 발전시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및 경주동산병원으로 구성되는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환자 중심의 최첨단 의료시설뿐 아니라, 세계적 권위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자연 친화적 의료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물론 수련 받는 전공의들의 근무 만족도 및 환자만족도도 지역 최고를 자랑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자 2009년 준공된 의과대학 신축 교사를 기반으로 교육 기자재 구입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우수 교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학생 상담 기능 강화 등 질적인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자 연구 인프라와 연구 인센티브 제도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의대생이 된 순간부터 전문 의료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의사 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범국가적 융합형 의사 과학자 양성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를 실천하였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40년을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함께한 우리의 40년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 진정 소중한 세월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알의 밀알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40년, 그리고 100년 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과 선배들이 이루어 놓으신 이 기관을 더욱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우리나라, 나아가 전 인류를 향해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기획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사업은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귀중한 옥고가 나오기까지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성원 입학 및 대외협력실장님과 학무위원님들, 최삼희 행정팀장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외 집필위원으로 검토위원으로 또한 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또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 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 송대규

의과대학의 사명이 모든 의료진들이 의술을 행하는데 하나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올해는 우리 의과대학이 개교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의과대학의 어느 곳에서는 학생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의사가 되기 위해 잠을 설치며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곳에서는 더 나은 행정과 교육, 연구를 위해 교직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서양 의술을 펼친 제중원에 뿌리를 두고, 1980년 동산기독병원과 계명대학교 두 기관이 통합하여 오늘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는 바, 1981년 제1회 의학과 신입생이 입학한 이래로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실상부 건실한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214명의 교수와 행정팀, 교육지원센터 등과 매 순간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동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40년 동안 우리 의과대학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정재홍 학장님을 비롯한 전임 학장님들 모두가 우리 대학의 성장을 위해 성심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현재 '계명 의대 2025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하여 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인문학을 비롯한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 참된 의사상 구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교수님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신 연구 통합 모니터링 등 지원 방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행정 분야에서도 모바일 학습기기 지원 등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 구축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하여 교육과 연구, 비전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의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이 이전한 후, 학생들은 여타 의과대학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첨단 교육 환경과 의료 인프라를 경험하며 질 높은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2019년부터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성서캠퍼스로 이전 개원하며 가장 앞서가는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받고, 의학과 간호학, 약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이 어우러지는 배움의 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사

이번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통해 우리 대학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는 동시에,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귀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한 의료의 발전과 인류의 안녕에 기여한다' 입니다. 의학계는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치료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기술과 치료에 적용되는 도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칫 의사로서의 초심을 잃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이 모든 의료진들께서 의술을 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Pro vobis et pro multis',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우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빛을 열고 확장하는 '계명(啓明)'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연구, 진료로 바쁜 가운데서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세엽 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의과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미션을 정립하고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찾는 큰 나침반이 되기를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봄소식처럼 들려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40년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 지 어느덧 40여 년, 이공대학에 의예과가 설치된 것이 지난 1979년이었으니 사람의 나이로 불혹(不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온 의과대학이 이제는 세상일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역량을 갖춘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899년 대구·경북 최초로 서양의술을 펼친 제증원(濟衆院)의 설립이념을 이어온 의과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밝히는 의사와 의용공학자를 양성한다’라는 목표로, 교육·연구·봉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의료 발전에 기여하며 명실상부한 의학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오늘도 의학 교육의 현장에서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그리고 전국의 진료 현장에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며 모교를 빛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급변하는 교육 및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문의 발전,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10년에는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여 최첨단 스마트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였습니다.

축사

이러한 성장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오늘의 의과대학을 이끌어준 선배들과 지금도 교육과 진료 및 연구에 헌신해 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꿈을 향해 열정을 쏟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 모두가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0년간 의과대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 100년을 위한 새 청사진을 제시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의 흔적을 모으고 정리함으로써 의과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미션을 정립하고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찾는 큰 나침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문 및 전현직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송대규 학장님을 비롯한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비전을 통해 비상(飛上)하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인이 우리 의과대학을 통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이세엽

다양한 연구와 배움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도약하는 의대로 거듭나게 될 것



산과 들은 형형색색 색동옷 같아입고, 길가는 샛노란 은행잎들로 뒤덮여 있는 온 세상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개교 40주년에 즈음하여 의대 동창회장으로서 글을 의뢰받고는, 우리 계명의대가 걸어온 역사와 지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니 감동 그 자체이며, 졸업생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칩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만큼이나 우리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의 성장과 발전이 모교와 함께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위해 앞만 바라보고 씬 없이 달려온 듯합니다.

약 120여 년 전 당시 7명의 의학도를 길러낸 모교병원의 전신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의학도를 배출한 의학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성서 시대를 열면서,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현장에서 우리 계명의대는 21세기 요구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학문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병원의 최신식 시설들은 첨단 의료장비를 함께 운용하면서 더욱 수준 높은 의학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제중원을 설립한 선 교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또 다른 100년의 계명과 동산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명의대의 기초 및 임상 교수들의 뜨거운 학문적 열정과 교육열은 높이 평가하고 싶으며, 인공지능, 의용공학, 생명공학, 약학 및 간호학 등과 융합하여, 다양하고 조화로운 의학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 시스템은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선도적 시스템으로 미래의 4차 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와 배움으로 우리 계명의대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도약하는 의과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따뜻한 인간미와 공감력이 어우러진 교육이 더욱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디지털 진료까지 미래의 글로벌 시대에 앞장서는 전문 의료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밝히는 의사를 양성

축사

한다'라는 교육목표처럼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그 길을 후배들도 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뒤따를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지역 대구시에서는 메디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에서 우리 계명의대의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최고의 의학 전문인을 길러내는 우리 계명의대는 대구를 넘어, 세계에 진출하는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교 40주년을 축하하며, 또 다른 도약을 위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하는 동창회가 되겠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오희종**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재 배출에 기여해 와



생명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의학교육의 길을 걸어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개교 40주년 및 의과대학 40년사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경북 명문사학인 계명대학교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근대의학을 받아들이며 의학 발전을 이끈 동산기독병원이 1980년 통합하며 설립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의 요람으로 의료 발전을 위한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3,000여 명에 이르는 의료인재를 배출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또 지난 2010년부터 의용공학과를 신설하여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료기기, 임상 전문기구, 인공 생체 조직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등 의료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밝히는 의사를 양성한다’라는 교육목표로 개교 40년의 발자취를 이어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드리며, 모든 교직원분과 동문회원, 재학생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을 비롯한 대한민국 13만 의사회원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지역의 감염 전파 중심에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며 폭발적인 확산

축사

세를 겪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에 이바지해주신 것에 대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는 그동안 여러 현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13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수많은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으로부터는 사랑과 존경을,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는 존중을, 의사 회원들에게는 신뢰받는 단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계와 의학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이 진료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께서도 저와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의료환경 구현을 위해 따끔한 조언과 함께 따뜻한 격려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개교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연구의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학을 선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의 산실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괄목할 성장은 구성원 모두의 열망과 끈기 덕분, 더욱 높이 비상하기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899년 대구 제증원에서 시작한 동산기독병원과 함께하면서 의학교육 40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나라 의사 양성과 의학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 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처럼 훌륭하게 발전시켜오신 송대규 학장님을 비롯하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구성원 모든 분께 전국 의과대학의 뜻을 모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료계는 빠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과대학은 바른 인성을 갖추고 진료에 임하는 좋은 의사와 스스로 탐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의과학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참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생명 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최첨단 교육환경과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갖춘 성서캠퍼스에서 '계명의대 2025 프로젝트' 구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대학발전을 향한 열망과 끈기 덕분일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교수님들의 사랑과 최상의 의학교육 환경 속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계명의대 재학생 및 3,000여 명의 졸업생들은 이제 세계화와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도 글로벌시대의 뉴리더로서 당당히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그동안 탄탄히 다져 온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욱 높이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세계의 우수한 의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협회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40년간 걸어온 길을 정리·기록하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를 엄정하게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0년사에 빛나는 성과들은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어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과 개교 4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희철**

축사

‘태계’처럼 대한민국 의료를 지지하고 봉사하는 중추적 역할 하고 있음에 감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981년 동산캠퍼스에 터를 잡고 그간 많은 훌륭한 의사들을 배출하였으며 2010년에는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을 이전하고 2019년에는 동산병원이 이전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께서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으며 또한 우리나라 의료계 각계각층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는 동문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계(苔階, 이끼가 낀 섬돌)’야말로 계명의대 동문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섬돌에 낀 이끼가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듯이 계명의대 동문들은 사회 여러 곳곳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미끄러지지 않게 지지하고 봉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작년 대구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맹활약한 대구동산병원이 없었다면 지역 의료는 붕괴되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동산병원과 훌륭한 태계인들 그리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40년을 넘어 앞으로도 의과대학 교육목표인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지역 의료,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계명의대인들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에 감사 말씀을 올리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모든 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홍수

인술 펼치겠다는 열정으로 더 건강하고 따뜻한 내일 만들어 가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역사책을 발간하기 위해 자료 조사와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송대규 의과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강 이남의 의료 역사 중 가장 오래된 대구 제증원(1899년)의 개원이 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첫걸음이었고, 제증원 초대 원장인 존슨 의료선교사가 1908년과 1909년 사이 제증원 청년 7명에게 했던 현대의학 강의가 병원에 필요한 의학 전문인을 길러낸다는 의미에서 최초의 의학도 양성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렇듯 오랜 전통을 발판 삼아 성장하여 1981년 제1회 신입생 입학에 맞이한 후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대구·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역사책 발간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를 꾸려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전시켜 나갈 미래의 의료인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며 학업과 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을 것이며, 의술이 아닌 인술을 펼치겠다는 열정을 가슴에 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춰 경상북도의사회 역시 의과대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의료인으로 거듭난 후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현안 해

축사

결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의사회 제45대 집행부는 ‘모두 행복한 의사회로’를 기치로 출범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며, 행복한 의사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희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아래 이뤄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사회가 힘을 가지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은 코로나19의 막대한 피해와 위협 속에서 맞이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된 지금, 이 순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이 미증유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가장 선봉에 서서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한 주역 중 한 곳입니다. 질병과의 싸움은 의사의 숙명이나 그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기 졸업생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4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사회장 **이우석**

지역 의과대학의 협력 통해 더욱 훌륭한 의료인 양성의 장이 되길 희망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981년 1회 신입생 입학 후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우수한 지역의료인을 양성하였고 오랜 역사를 가진 동산의료원과 함께 지역의료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서캠퍼스 시대를 열고 최첨단 교육환경을 갖춘 의과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2019년 이전 개원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함께 학생들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현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어 의학교육의 질을 높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지역의료 발전에 토대가 되었으며 나아가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참담한 이야기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전국적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역 의과대학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각 대학이 지금까지와 같이 단합된 의학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지역이 더욱 훌륭한 의료인 양성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0주년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역사가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장 박태인

축사

뛰어난 지도력과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더욱더 눈부신 발전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개교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979년 의예과 신입생을 시초로 하여 그동안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2010년부터는 최첨단 교육환경의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여 지역 의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0세는 불혹의 나이로서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어떠한 난관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성숙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의과대학의 역사가 40년이라고 하나 그 뿌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899년 미국 예수교 북장로교회에서 개설한 제중원에서 출발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역사를 가진 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년이 넘는 의료원의 역사에 불혹의 나이가 된 의과대학이 합쳐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의료발전과 인류의 안녕에 기여할 튼튼한 의학교육기관의 기반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송대규 학장님의 뛰어난 지도력과 여러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앞으로 더욱더 눈부신 발전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개교 4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숙영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의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교재단과 밀접한 우리 대학으로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벌써 40주년이라니 사람으로 보면 정말 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40년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 송대규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잘되는 집안은 기록이 잘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고 후배들이 훨씬 수월하게 역사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40주년 근처에 보직을 맡은 분들의 고심은 크겠지만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의학사에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대학으로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경주동산병원이 있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이름은 친근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 있는 ‘한국 근대역사와 문화 및 의학 역사 탐방’에서 동산캠퍼스에 있는 구 의과대학과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지만 오롯이 역사의 한 자락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과 병원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한 대학이 역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구성원에게는 얼마나 큰 자산이고,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또한 성서캠퍼스에도 가본 적이 있지만 병원은 물론 의과대학도 오랜 역사에 걸맞게 지금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미래가 밝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의사의 입장, 의학교육을 하는 교수로서 생각해 보건대, 의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의사로서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특히 의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의, 사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지향하고 교육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제대로 갖추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는 이러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리더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학생교육에 힘쓰시는 여러 교수님도 훗날 잘 성장한 계명의 대인을 보면서 뿌듯한 보람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구한 한국 의학사의 한 자락에서 개교 40주년을 맞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대학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축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이관

생명 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성 갖춘 의사 양성해 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0년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교수님과 직원들, 그리고 배움에 정진하여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 학생 및 동문 모든 분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40개 의과대학 중 계명의대와 우리 연세의대는 특히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학교 모두 선교사에 의하여 의학교육이 시작되었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와 봉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하나님의 믿음 아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의과대학과 병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산의료원과 협력하여 계명의대가 보여준 수많은 의료봉사는 의료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이 어려운 상황일 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며 많은 환자에게 희망이 된 것은 오래도록 우리 국민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봉사뿐 아니라, 계명의대는 40년간 의학교육 발전에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첨단화된 의대 캠퍼스를 비롯하여 학습과 연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교수들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혼신의 노력이 현재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2019년 과감히 성서캠퍼스로 동산병원이 이전하면서 의학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킨 점도 모두가 부럽고 또 한편으로 배울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40년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 마펫(Howard F. Moffett) 두 분 선교사님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해봅니다. 선교사님께서 계명의대와 동산병원에 머무른 시간 동안 전과한 복음과 봉사정신은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는 빛이 되었으며, 계명의대가 생명 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의과대학장인 정재홍 교수님을 비롯하여 현재 송대규 학장님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계명의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헌신해오신 모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의 편에서 의업을 행할 수 있는 밑거름인 의학교육을 수행해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분께 한 번 더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그간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발전을 보여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앞으로도 무궁히 발전하여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간직한 귀한 의사 및 의학자들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유대현

격동과 경쟁의 시대를 극복하고 지방 사학으로 우뚝 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격동과 경쟁의 시대를 잘 극복하여 오늘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방 사학으로 우뚝 성장한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은 성서캠퍼스로 이전 후 크고 웅장한 모습이 타 대학병원이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40년 전 대구 중심지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대구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을 책임진 병원으로 오랜 시민들의 질병 치료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한 환자를 치료해 왔던 선행적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훌륭한 학교와 의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미래의 의사와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건학이념 하에 앞으로도 지혜와 창의성을 가르치는 의과대학이 되어 미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과대학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장 이경희

축사

의과대학 성서캠퍼스 건립은 하나님의 큰 축복, 열정적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발전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출간을 축하합니다. 동산기독병원과 계명대학교가 통합하여 1980년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당시에는 병원 측에서 다소의 갈등과 저항이 있었으나 돌이켜 보면 양기관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였고, 필연적으로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같은 해에 대구 지역에 신설된 의과대학에 비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부속 병원이 있었고 또한 모든 진료과에 유능한 의료진이 있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외관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의과대학과 동산병원이 성서캠퍼스에 신축되어 학생들의 의학 교육에 매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학사행정을 맡아 수고하신 여러 학장들과 보직자들 그리고 주역인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필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77년에 동산기독병원 내과 과장으로 취임하여 2001년에 정년퇴직하여 너무 옛날 일이기에 기억을 회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 원고 쓰기가 주저되지만 겪은 일들을 희미하게나마 회상하며 기록해 볼까 합니다.

계명의대가 설립된 초기에 내과학교실 초대 주임교수의 직책 외에도 여러 보직을 수행하였는데 그중에도 도서관장을 맡아 대학 도서관의 중요함을 알고 훌륭한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시 전반기 의료원장에게 수년간 많은 예산을 허락받아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많은 의학장서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잡지를 구입하여 교수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고, 1985년에는 신경과학교실을 창설하여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신경학 교육을 시작했으며 그후 우리 출신들이 경북의대, 대구가톨릭의대와 고신의대에 신경과를 창설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회 졸업생이 의학과 3학년 때 교학부장을 맡아 정재홍 학장님과 의사국가시험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시키기 위해서 보충수업과 합숙공부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97%가 합격하여 전국 수위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초대 대학원 의학과장을 맡아 대학원 의학과와 기초를 마련하였고, 정년퇴임 말기에는 뇌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경계 여러 교수들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번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를 발간하여 과거를 회고하고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기에 발간 작업에 관계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를 하는 바입니다.

제7대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박영춘

계명의 삼위일체적 전인의학을 드높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



전인의학(全人醫學)의 삼위일체(三位一體)를 갖춘 계명대의대(啓明醫大)

영(spirit)과 혼(soul)과 육(soma)으로 구성된 전인을 치유하는 학문을 전인의학(holistic medicin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학은 전인의학이어야 하며, 전인의학은 삼위 일체적 의학이어야 합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하고, 연구한 결과는 후진들에게 가르쳐 전수되어야 하며, 환자에게는 정성껏 시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의학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윤리적 규범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과 의술(practice)의 삼위일체가 반드시 윤리적 규범(medical ethics)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기술이라 하지 않고 인술(仁術)이라 부릅니다.

1980년 10월, 동산기독병원과 계명대학교가 통합되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될 때부터 전인의학을 실천하는 국내 유일한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의과대학장이셨던 정재홍 교수님은 의예과 2학년 교과목 중에 의학영어 교과목을 개설하여 의학과로 진급하기 전, 영어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면서 필자와 함께 엄한 영어교육을 시켰습니다. 의학과에서는 순환 호흡 생리를 위시하여 의료윤리학, 전인의학, 마취과학, 그리고 호스피스와 신학 등 다양한 과목을 접하면서 전인의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자랑스러운 병원은 122년 전 서양의학이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들어온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분기점,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여 전국적으로 손색이 없는 의료센터로 우뚝 섰습니다. 이 웅장하고 섬세한 하드웨어에 걸맞은 전인의학의 소프트웨어가 융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를 출간하게 됨은 계명의 삼위 일체적 전인의학을 드높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10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 전재규

축사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건학 40주년을 맞아 4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그 긴 세월 동안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의과대학 교수, 직원, 동문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거늘 하물며 40년의 긴 세월이 지났으니 우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가 결코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흠어져 잊혀 가던 사료들을 모아 하나의 귀중한 역사서를 집필해주신 편찬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나간 세월 동안 오로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는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수, 직원, 동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대로 된 교사도 교육기자재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개교한 이래 현재와 같은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는 어려웠던 시기마다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주셨던 역대 학장들이 계셨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적 설립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궈주신 대학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훌륭한 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취에 만족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주변 상황 속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그동안 이룬 것이 많지만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40년을 기획하여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0년사를 뿌리로 하여 앞으로의 사료를 차곡차곡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0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부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과 구성원 모두의 앞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곽춘식**

환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진료하며 지속해서 실력 쌓는 좋은 의사 배출하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40년 교수님의 헌신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명문 의과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40년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교는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감당할 좋은 의사를 교육하여야 하겠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사랑합니다. 이제 AI가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I가 진료하여도 충분한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진료하는 많은 환자는 생활 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 만성 질환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를 환자는 신뢰합니다. 의과대학은 어떻게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로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자연의 치유 능력(the healing power of nature)을 존중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물학적 의학은 자연의 치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자연의 치유 능력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의사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환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의사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몸이 가진 자연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질병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환자의 몸과 마음이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의사는 이 단순한 원칙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환자를 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지속해서 실력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평생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여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는 끊임없이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과대학은 의사가 평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좋은 의사를 교육하는 요람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1대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제11대, 12대 의과대학장 박영남

축사

더 큰 미래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더 큰 꿈을 키워가야 할 것



우리 의과대학이 마흔 돌을 즈음하여 설립 4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의과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발전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선각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으로 혼란한 시절 계명대학교가 동산기독병원과 통합하며 종합대학교로 승격될 무렵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의학교육 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의과대학이 출범한 지 엿그제 같은데 어느덧 국내외 중요한 의학교육 기관이 되었습니다.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중견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나날이 발전하는 높은 의료수준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더 큰 꿈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1회 졸업생을 필두로 졸업생들이 이 기관의 중추가 되어 운영하는 시절을 맞이합니다.

태계의 이끼 낀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은 뻔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약속과 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해내었고 더 크게 해낼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10: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윤성도

최상의 의학교육과 최첨단 연구 환경 조성돼 미래의 노벨 의학자 출현 기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과대학의 설립 당시부터 30년 이상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 한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구한말 암울한 시대에, 미국 예수교 북장로교회 선교사에 의해 1899년 약전골목 대구 선교지부에 제증원을 개원함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근대 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외국 선교사들과 선배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종합병원인 동산기독병원으로 성장하여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질병 퇴치, 국민 보건 향상, 의료인력 양성 등 근대 의료의 개척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순회 진료와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에 15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면서 질병의 치료와 더불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1980년 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의 통합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과 의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약 3,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서 의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성서캠퍼스에 최신 교육시설을 구비한 의과대학과 의과학연구동이 완공되고 최근에 최첨단 친환경 동산병원이 준공되어서 기존 간호대학, 약학대학을 포함한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상의 의학 교육과 최첨단 연구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21세기 정보 지식 생명공학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도서관 앞에 미래의 노벨 의학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미완성 석상이 있습니다. 설립 40년 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 석상의 주인공이 가까운 장래 나타나기를 꿈꾸어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캠퍼스 내에 인문학 관련 대학과 예술 관련 대학이 있음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의료선교사 배출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서 외국 의료선교사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편집위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과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4대, 17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 박우현

축사

제중원 설립이념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의학교육기관, 걸어온 40년은 백년대계 준비하는 주춧돌 될 것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의과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기까지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오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의과대학 40년사 발간에 애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1900년대 초 동산의료원의 모태인 제중원(濟衆院) 의학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경북 최초로 서양의학을 출발시킨 제중원의 초대 원장 존슨 의료선교사는 1908년경 7명의 제중원 청년을 선발하여 의학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러한 초창기 선교사들의 개척정신과 제중원의 설립이념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의학교육 기관입니다.

1979년 계명대학교 이공대학에 의예과의 신설과 이를 통한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내외의 열망에 따라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은 통합하였고, 우수 의료인 확보와 학문적 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81년 의과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2010년 1월 의과대학은 최첨단 시설과 환경을 갖춘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후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웅비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연구, 교육과 실습의 질을 높이고 각종 평가와 의사 국시에서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더욱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2019년 4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성서캠퍼스로 이전 개원하면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을 산하에 두는 동산의료원으로 발전하였고, 기관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유능한 의사, 의과학자 양성으로 연구 중심 대학병원으로의 더 큰 도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걸어온 40년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40년간 한결같이 훌륭한 연구와 의료인력 양성에 매진해 온 의과대학 모든 가족과 현재 의과대학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송대규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과대학 40년사가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흘린 값진 땀과 열정이 40년사 안에서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오래오래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7대~20대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겸 동산의료원장, 제18대 의과대학장 **김관배**

국내외 유명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으로 함께 도약하기를 기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설립될 당시 80년 이상 서양 의료기관의 역사를 가진 동산기독병원을 기반으로 1981년에 시작하여 40년이 지나는 동안 의학교육과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을 목표로 의학교육 시스템 및 제도 확립, 강의 및 실습 교육 재료 개발 추진과 의학연구소, 의학도서관, 중앙전자현미경실, 의학실험동물실 등을 신설하여 학생 교육과 의학연구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실원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이 재학 중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 후 학생 교육과 의학 연구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신 초대 정재홍 학장님을 위시한 여러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 의료원과 대학교의 지원 등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 수준의 의과대학으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 후 30년이 지나며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 이전과 함께 첨단 교육 환경과 연구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및 인공지능 의료정보에 근거한 의학교육, 연구 및 정밀 의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경쟁력 있는 의과대학과 병원 발전을 위해 의학도서관의 디지털 의료정보 센터로서 역할을 높이고 의학연구소와 인체자원은행의 역량 강화 등 연구 기반 시스템들의 보강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 의과대학과 병원에 필요한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향후 50년 및 100년을 맞이할 의과대학과 긴 역사를 가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국내외 유명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으로 함께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과대학 설립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권건영

축사

명실상부한 명문 의과대학으로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먼저 40년사 편찬을 위해 자료 수집과 편집 및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회 이세엽 위원장님과 송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와 실무진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는 의과대학 연혁 및 각종 역사, 교육과정 변화, 연구 활동,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의과대학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에세이, 동창회 역사, 계명의대 사진첩 등 다양한 과거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40여 년간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역동적이고 대장정의 과정이었기에 그 역사를 집대성한 이 편찬서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족들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 40여 년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명실상부한 명문 의과대학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선도하고 4차 혁명시대의 미래 의료를 이끌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가 계명의대의 지나간 역사를 겹쳐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빛나는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20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상표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 교육이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 교육목적

학문의 탁월성 추구

교육의 윤리성 양양

실존의 본질성 연찬

○ 교육목표

진리를 탐구하는
창의적 전문가 양성

정의를 구현하는
윤리적 지성인 육성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지도자 배출



교육체제도

사명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한 의료의 발전과 인류의 안녕에 기여한다.

교육 기본적인 진료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하는 의료인 양성

연구 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와 국제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의료인 양성

봉사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존중 원칙과 사회적 책무를 우선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는 의료봉사 실현

비전

생명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

핵심가치

도전과 열정

배려와 존중

창의성과 전문직업성

인류애와 봉사

교육전략

학습자중심 교육

문제해결력 강화

평생학습을 위한 자기개발 강화

교육의 탁월성과 교육역량 강화

의과대학 사명과 비전

○ 교육이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 교육목적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밝히는
의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진리를 탐구하는 의사

의학적 기본지식, 수기, 태도를 갖춘 의사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의사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의사

정의를 구현하는 의사

윤리적 소양을 갖춘 의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사
리더십 있는 의사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

의과대학 교육체계도



의과대학 졸업성과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1

조직 및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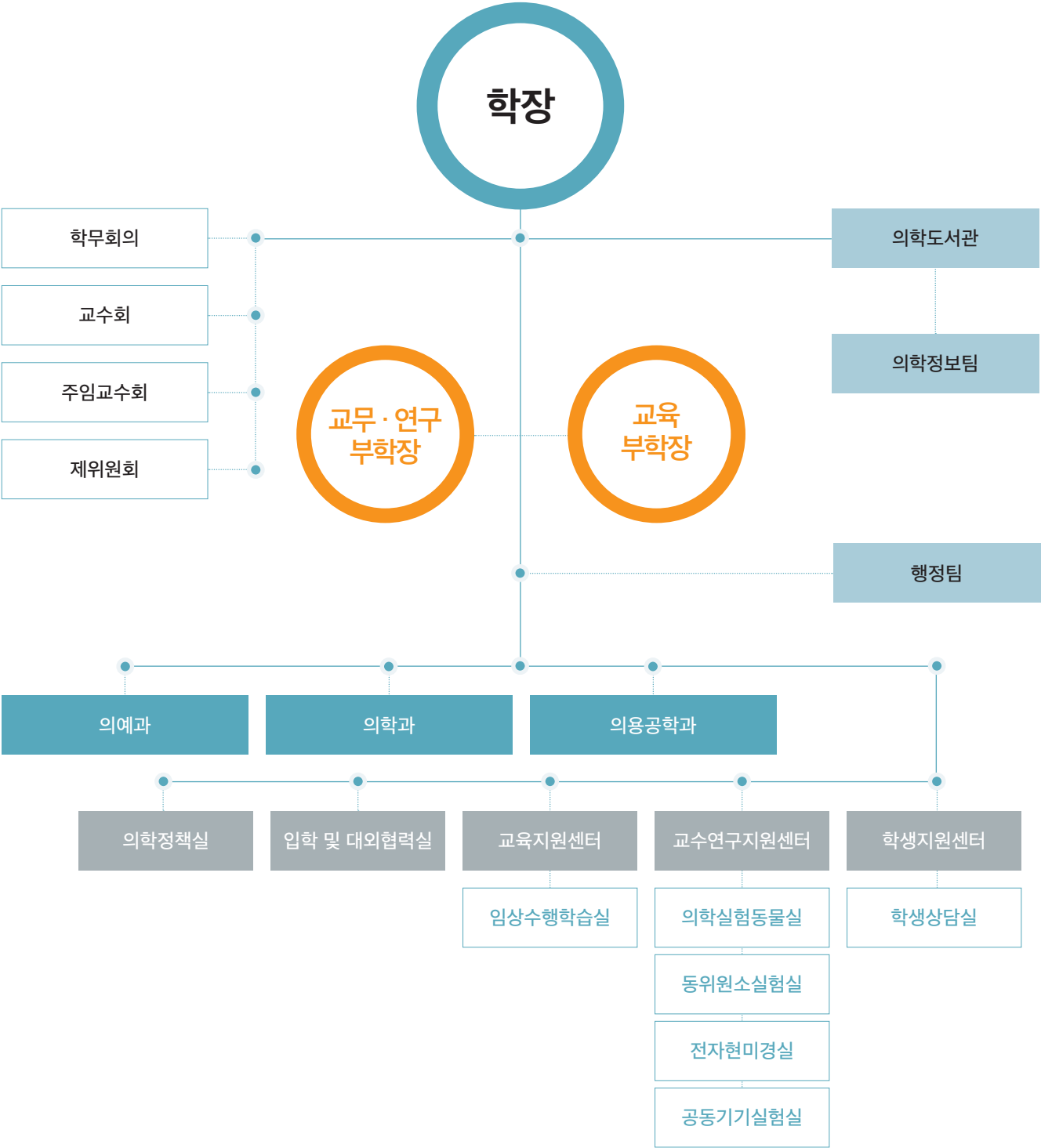
- 042 의과대학 조직도
- 044 역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 046 역대 의과대학장
- 048 역대 학무위원
- 052 교수연구지원센터
- 058 교육지원센터
- 060 학생지원센터
- 061 의학정책실
- 062 입학 및 대외협력실
- 063 행정팀
- 065 의학도서관
- 070 의과대학 시설 현황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의과대학 조직도



초대

전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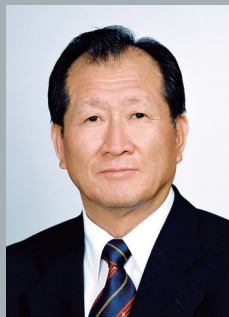
1982. 9. 1. ~ 1984. 12. 24.



2대

강중신

1985. 1. 4. ~ 1987. 2. 28.



3대

박영관

1987. 3. 1. ~ 1989. 3. 20.



4대

송준영

1989. 3. 21. ~ 1990. 5. 15.



5 · 6대

오준섭

1990. 5. 16. ~ 1994. 5. 15.



박영춘

1994. 5. 16. ~ 1996. 5. 15.

7대



박승국

1996. 5. 16. ~ 1998. 5. 15.

8대



강진성

1998. 5. 16. ~ 2001. 2. 28.

9 · 10대



박영남

2001. 3. 1. ~ 2003. 2. 28.

11대



서수지

2003. 3. 1. ~ 2007. 2. 28.

12 · 13대

역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14대

손수상

2007. 3. 1. ~ 2009. 1. 31.



15 · 16대

차순도

2009. 2. 1. ~ 2013. 6. 30.



17 ~ 20대

김권배

2013. 7. 1. ~ 2021. 2. 28.



21대

이세엽

2021. 3. 1. ~ 현재



초대

정재홍

1979. 9. 1. ~ 1981. 2. 28.



2대

전도기

1981. 3. 1. ~ 1982. 8. 31.



3대

정재홍

1982. 9. 1. ~ 1984. 8. 31.



4대

채의업

1984. 9. 1. ~ 1986. 8. 31.



5대

송준영

1986. 9. 1. ~ 1989. 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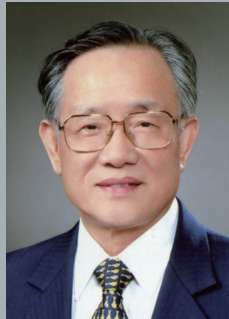
강진성

1989. 3. 21. ~ 1990. 5. 21.



김인홍

1990. 5. 22. ~ 1992. 5. 21.



강창수

1992. 5. 22. ~ 1994. 5. 21.



강진성

1994. 5. 22. ~ 1996. 5. 21.



전재규

1996. 5. 24. ~ 1998. 5. 23.

6대

7대

8대

9대

10대

역대 의과대학장

11 · 12대

박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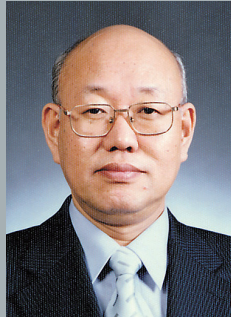
1998. 5. 24. ~ 2001. 2. 28.



13대

서수지

2001. 3. 1. ~ 2003. 2. 28.



14대

박우현

2003. 3. 1. ~ 2005. 2. 28.



15대

임만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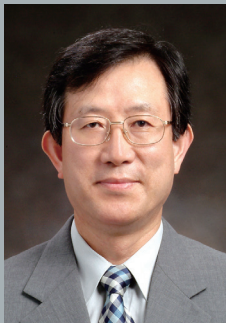
2005. 3. 1. ~ 2007. 2. 28.



16대

김현철

2007. 3. 1. ~ 2009. 1. 31.



박우현

2009. 2. 1. ~ 2011.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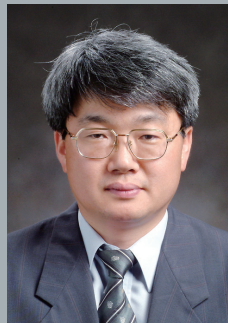
17대



김권배

2011. 2. 1. ~ 2013. 1. 31.

18대



김상표

2013. 2. 1. ~ 2017. 1. 31.

19 · 20대



이세엽

2017. 2. 1. ~ 2019. 1. 31.

21대



배재훈

2019. 2. 1. ~ 2021. 1. 31.

22대



송대규

2021. 2. 1. ~ 현재

23대

보직명	소속교실	성명	기 간
부학장 (구. 교학부장)	성형외과학교실	강진성	1981. 3. 1. ~ 1982. 8. 31.
	비뇨의학교실	이성준	1982. 9. 1. ~ 1983. 3. 14.
	신경과학교실	박영춘	1983. 3. 15. ~ 1984. 9. 30.
	정형외과학교실	편영식	1984. 10. 1. ~ 1987. 3. 3.
	영상의학교실	서수지	1987. 3. 4. ~ 1989. 3. 31.
	정신건강의학교실	박영남	1989. 4. 1. ~ 1991. 2. 28.
	해부학교실	장성익	1991. 3. 1. ~ 1992. 5. 31.
	산부인과학교실	윤성도	1992. 6. 1. ~ 1994. 5. 24.
	외과학교실	손수상	1994. 5. 25. ~ 1997. 8. 31.
	외과학교실	박우현	1997. 9. 1. ~ 1998. 12. 31.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옥배	1999. 1. 1. ~ 2001. 2. 27.
	미생물학교실	서민호	2001. 3. 1. ~ 2002. 5. 31.
	내과학교실	권기영	2002. 6. 1. ~ 2005. 2. 28.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준식	2005. 3. 1. ~ 2007. 2. 28.
	면역학교실	박종욱	2007. 3. 1. ~ 2009. 1. 31.
	미생물학교실	서성일	2009. 2. 1. ~ 2013. 7. 31.
	예방의학교실	신동훈	2013. 8. 1. ~ 2016. 2. 29.
	미생물학교실	백원기	2016. 3. 1. ~ 2019. 1. 31.
	예방의학교실	이중정	2019. 2. 1. ~ 현재
	피부과학교실	류영욱	2020. 2. 1. ~ 2021. 8. 31.
	직업환경의학교실	정인성	2021. 9. 1. ~ 현재

2020. 2. 1일자로 복수부학장(교무연구부학장, 교육부학장)

역대 학무위원

보직명	소속교실	성명	기 간
의학과장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준식	2004. 3. 1. ~ 2005. 2. 28.
	미생물학교실	서성일	2005. 3. 1. ~ 2007. 2. 28.
	생리학교실	배재훈	2007. 3. 1. ~ 2009. 1. 31.
	생리학교실	송대규	2009. 2. 1. ~ 2013. 1. 31.
	내과학교실	박경식	2013. 2. 1. ~ 2015. 1. 31.
	외과학교실	류승완	2015. 2. 1. ~ 2018. 7. 31.
	병리학교실	강유나	2018. 8. 1. ~ 2020. 7. 31.
	직업환경의학교실	정인성	2020. 8. 1. ~ 2021. 8. 31.
	내과학교실	김미경	2021. 9. 1. ~ 현재
의예과장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홍대일	1998. 3. 1. ~ 2002. 1. 17.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경찬	2002. 1. 18 ~ 2007. 2. 28
	미생물학교실	백원기	2007. 3. 1. ~ 2011. 1. 31.
	예방의학교실	이미영	2011. 2. 1. ~ 2016. 1. 31.
	병리학교실	권선영	2016. 2. 1. ~ 2020. 1. 31.
	병리학교실	황일선	2020. 2. 1. ~ 2020. 7. 31.
	내과학교실	김미경	2020. 8. 1. ~ 2021. 8. 31.
	핵의학교실	김해원	2021. 9. 1. ~ 현재
교육지원센터장 (구. 교무과장)	정형외과학교실	편영식	1984. 3. 1. ~ 1984. 9. 30.
	산부인과학교실	윤성도	1984. 10. 29. ~ 1989. 3. 31.
	정신건강의학교실	박영남	1989. 4. 1. ~ 1991. 2. 28.
	외과학교실	조원현	1991. 3. 1. ~ 1994. 5. 24.
	병리학교실	이상숙	1994. 5. 25. ~ 1995. 5. 31.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옥배	1995. 6. 1. ~ 1998. 5. 31.
	내과학교실	권기영	1998. 6. 1. ~ 1998. 12. 31.
	병리학교실	박관규	1999. 1. 1. ~ 2001. 2. 28
	병리학교실	김상표	2001. 3. 1. ~ 2002. 5. 31.
	생리학교실	박원균	2002. 6. 1. ~ 2005. 2. 28.
	예방의학교실	신동훈	2005. 3. 1. ~ 2007. 2. 28.
	정신건강의학교실	김희철	2007. 3. 1. ~ 2010. 1. 31.
	흉부외과학교실	금동윤	2010. 2. 1. ~ 2012. 1. 31.
	내과학교실	박경식	2012. 2. 1. ~ 2013.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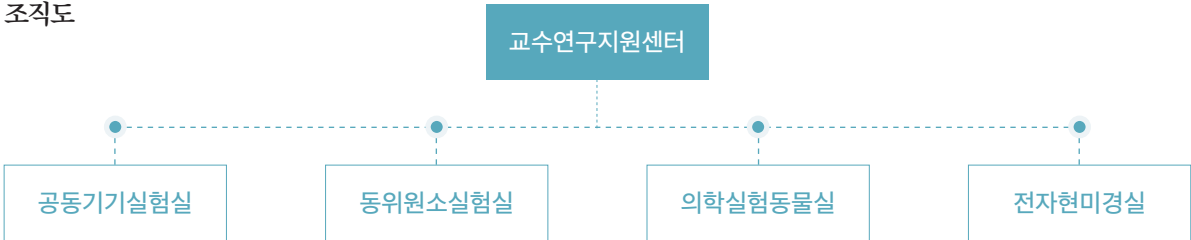
보직명	소속교실	성명	기 간
교육지원센터장 (구. 교무과장)	신경외과학교실	김 엘	2013. 2. 1. ~ 2014. 12. 8.
	내과학교실	박경식	2014. 12. 9. ~ 2015. 1. 31.
	진단검사의학교실	하정숙	2015. 2. 1. ~ 2016. 1. 31.
	내과학교실	김진영	2016. 2. 1. ~ 2020. 1. 31.
	병리학교실	황일선	2020. 2. 1. ~ 현재
학생지원센터장 (구. 학생과장)	외과학교실	임태진	1984. 3. 1. ~ 1985. 3. 8.
	핵의학교실	전석길	1985. 3. 9. ~ 1987. 3. 3.
	외과학교실	박우현	1987. 3. 4. ~ 1989. 3. 31.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옥배	1989. 4. 1. ~ 1991. 2. 28.
	산부인과학교실	이태성	1991. 3. 1. ~ 1992. 3. 31.
	내과학교실	김권배	1992. 4. 1. ~ 1994. 5. 24.
	해부학교실	이인환	1994. 5. 25. ~ 1996. 5. 31.
	병리학교실	권건영	1996. 6. 1. ~ 1998. 5. 31.
	생리학교실	박원균	1998. 6. 1. ~ 1998. 12. 31.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준식	1999. 1. 1. ~ 2001. 2. 28.
	가정의학교실	김대현	2001. 3. 1. ~ 2002. 5. 31.
	생화학교실	문교철	2002. 6. 1. ~ 2005. 2. 28.
	약리학교실	이성용	2005. 3. 1. ~ 2007. 2. 28.
	마취통증의학교실	장영호	2007. 3. 1. ~ 2008. 2. 28.
	의학유전학교실	김대광	2008. 3. 1. ~ 2010. 1. 31.
	내과학교실	김상현	2010. 2. 1. ~ 2012. 1. 31.
	이비인후과학교실	김동은	2012. 2. 1. ~ 2014. 8. 31.
	흉부외과학교실	김재범	2014. 9. 1. ~ 2015. 1. 31.
	면역학교실	김 신	2015. 2. 1. ~ 2017. 1. 31.
	약리학교실	장정희	2017. 2. 1. ~ 2020. 1. 31.
	해부학교실	이재호	2020. 2. 1. ~ 현재

보직명	소속교실	성명	기 간
교수연구지원센터장 (구. 교수연구과장)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진희	2006. 7. 1. ~ 2011. 1. 31.
	진단검사의학교실	하정숙	2011. 2. 1. ~ 2015. 1. 31.
	병리학교실	최미선	2015. 2. 1. ~ 2019. 1. 31.
	직업환경의학교실	정인성	2019. 2. 1. ~ 2020. 7. 31.
	병리학교실	정혜라	2020. 8. 1. ~ 현재
입학 및 대외협력실장 (구. 대외협력과장)	산부인과학교실	조치흠	2006. 7. 1. ~ 2008. 2. 29.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황진복	2008. 3. 1. ~ 2009. 1. 31.
	성형외과학교실	손대규	2009. 2. 1. ~ 2011. 1. 31.
	내과학교실	허승호	2011. 2. 1. ~ 2013. 1. 31.
	정신건강의학교실	정성원	2013. 2. 1. ~ 현재
의학정책실장 (구. 의학정책과장)	생리학교실	송대규	2006. 7. 1. ~ 2008. 2. 29.
	진단검사의학교실	류남희	2008. 3. 1. ~ 2010. 1. 31.
	예방의학교실	이중정	2010. 2. 1. ~ 2012. 1. 31.
	직업환경의학교실	정인성	2012. 2. 1. ~ 2014. 1. 31.
	내과학교실	황은아	2014. 2. 1. ~ 2015. 8. 31.
	병리학교실	황일선	2015. 9. 1. ~ 2018. 7. 31.
	내과학교실	김미경	2018. 8. 1. ~ 2020. 7. 31.
	비뇨의학교실	하지용	2020. 8. 1. ~ 현재
임상수행학습실장	신경외과학교실	김 엘	2014. 9. 1. ~ 2014. 12. 8.
	흉부외과학교실	김재범	2014. 12. 9. ~ 현재

○ 교수연구지원센터

교수연구지원센터는 2006년 7월 교수연구과 직제를 신설하여 김진희 교수를 초대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2014년 9월 직제개편 이후 교원역량개발, 의학 연구 지원, 연구 인재 양성, 학술활동 지원 등 의학 연구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기기실험실, 동위원소실험실, 의학실험동물실, 전자현미경실과 같은 센터 목적에 부합한 특성별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 및 최적의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2016년 12월에 교수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였다.

조직도



공동기기실험실

공동기기실험실은 2014년 9월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연구 기자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설치 되었으며, 임승순 교수를 초대 실장으로 임명하였고, 2018년 9월 하은영 교수가 실장으로 임명되어 임상 및 기초의학 연구 지원, 공동연구 기자재 선정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연 월	내 용
2014. 9.	교수연구지원센터 공동기기실험실 개설 공동기기실험실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5. 3.	공동기기실험실 사용에 대한 이용료 책정, 형광현미경 설치
2015. 11.	공동기기실험실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2016. 10.	Manual Rotary Microtome, TissueLyser II, Nitrogen Evaporator 신규 장비 설치
2017. 3.	의과대학 교수에게 장비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및 시행 Tissue Disociator, Ice maker 신규 장비 설치
2018. 2. 2018. 9.	공동기기실험실 장비 사용자 교육과 이론 및 응용 세미나 실시

연 월	내 용
2021. 5.	비만매개질환연구센터 연구 종료로 인하여 연구 장비(6점)를 공동기기실험실 공동 장비로 이관 (TIRF Laser Microscope, Chemi doc, Automated cell sorting, Microplate reader, Minispec LF50, Phenomaster)

역대 실장

소속교실	성 명	기간
생리학교실	임승순	2014. 9. ~ 2018. 8.
생화학교실	하은영	2018. 9. ~ 현재

동위원소실험실

동위원소실험실은 다양한 생물 실험에 사용되는 개방방사선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서민호 교수를 중심으로 1993년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4층에 설치하였고, 이후 김옥배, 이희정, 최태진 교수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동위원소실험실을 운영하였다.

이후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법이 시행되고 의과대학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면서 2010년 1월 의과학연구동 2층에 동위원소실험실을 새롭게 설치하여 허가를 받았고, 김혜순 교수를 실장으로 임명하였다. 2014년 9월 교수연구지원센터 동위원소실험실로 정식으로 직제가 신설되어 김혜순 교수를 초대 실장으로 임명하였고, 2018년 9월부터 김해원 교수를 실장으로 임명하여 동위원소실험실을 운영하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역대 실장(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소속교실	성 명	기간	비고
미생물학교실	서민호	1993.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옥배	1993. ~ 1994. 11.	
영상의학교실	이희정	1994. 12 ~ 1998. 9.	
방사선종양학교실	최태진	1998. 10. ~ 2009. 11.	
내과학교실	김혜순	2009. 12. ~ 2018. 8.	초대 실장
핵의학교실	김해원	2018. 9. ~ 현재	

의학실험동물실

의학실험동물실은 1986년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7층에 의용동물실로 시작하였고, 초대 실장으로 주중윤 교수를 임명하였다.

의과대학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면서 2010년 1월 의과학연구동 3층에 의학실험동물실을 설치하였다. 2014년 9월 교수연구지원센터 의학실험동물실로 직제가 신설되었고, 최미선 교수를 초대 실장으로 임명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의학실험동물실의 일반구역과 청정구역을 증개축하여 실험동물 사육실 및 실험실을 확대하였다.

의학실험동물실장의 관리감독 하에 의학실험동물실 관리자를 중심으로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청정구역(1)에서는 유전자변형 실험동물의 생산 및 사육을 담당하며, 청정구역(2)에서는 생산된 실험동물 및 구입한 청정동물을 실험하고, 일반구역은 그 외의 관련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역대 실장

소속교실	성 명	기간
기생충학교실	주중윤	1986. 3. ~ 1994. 2.
생화학교실	곽춘식	1994. 3. ~ 2000. 2.
병리학교실	박관규	2000. 3. ~ 2005. 2.
생화학교실	문교철	2005. 3. ~ 2007. 2.
생리학교실	배재훈	2007. 3. ~ 2011. 2.
약리학교실	이성용	2011. 3. ~ 2014. 8.
병리학교실	최미선	2014. 9. ~ 2016. 8.
분자의학교실	김지인	2016. 9. ~ 현재

전자현미경실

전자현미경실은 1982년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2층에 중앙전자현미경실로 시작하였고, 정재홍 교수를 초대 실장으로 임명하였다. 1983년 7월 투과전자현미경(TEM H-600)과 주사전자현미경(SEM S-520)을 도입하여 병리학교실 교직원과 2명의 전임기사(김영호, 김승필)를 중심으로 질병의 진단과 의학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실장으로 임명된 장은숙 교수와 권건영 교수가 다양한 전자현미경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중앙전자현미경실의 토대를 세웠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1996년 투과전자현미경(TEM H-7100)과 주사전자현미경(SEM S-4200)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의학 연구 및 질병 진단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서 저술, 국내외 심포지엄 개최, 특허 출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의과대학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면서 2010년 1월 의과대학 5층에 중앙전자현미경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 직제 개편에 따라 교수연구지원센터 전자현미경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중앙전자현미경실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현미경실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

연 월	내 용
1983. 7. 2.	투과전자현미경(Hitachi H-600) 설치 주사전자현미경(Hitachi S-520) 설치 초박절기(MT-5000) 설치
1984. 3. 15.	중앙전자현미경실 운영 규정 제정
1988. 10.	‘전자현미경 기본적 수기’ P.58 발간
1995. 9. 26.	제1차 ‘전자현미경의 의학적 응용’ 심포지엄 개최
1996. 12. 28.	투과전자현미경(Hitachi H-7100TEM) 설치 주사전자현미경(Hitachi S-4200, FE-SEM) 설치
1997. 3. 31.	최신 전자현미경 가동식
2000. 10. 26.	초박절기(MT-XL) 설치
2001. 8. 21.	제2차 ‘의생물학 영역에서 전자현미경의 새로운 적용’ 심포지엄 개최
2004. 7.	‘전자현미경 기법’ P.280 정문각 단행본 출판

역대 실장

소속교실	성 명	기간
병리학교실	정재홍	1982. 7. ~ 1989. 10.
병리학교실	장은숙	1989. 11. ~ 2001. 8.
병리학교실	권건영	2001. 9. ~ 2004. 8.
병리학교실	김상표	2004. 9. ~ 2005. 8.
병리학교실	권건영	2005. 9. ~ 2016. 8.
병리학교실	강유나	2016. 9. ~ 2018. 8.
병리학교실	최미선	2018. 9. ~ 2019. 8.
병리학교실	정혜라	2019. 9. ~ 2020. 7.
병리학교실	최미선	2020. 8. ~ 현재

교수연구지원센터 각 실험 사진

공동기기실험실

공동기기실험실 내부



Confocal Laser Microscope(Carl Zeiss LSM5 EXCITER)



동위원소실험실

동위원소실험실 내부



방사선 측정 장비



의학실험동물실

실험실



사육실



전자현미경실

투과전자현미경(TEM)



주사전자현미경(SEM)



○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는 1984년 3월 교무과로 직제를 신설하여 편영식 교수를 초대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2014년 9월 직제 개편으로 김엘 교수가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박경식, 하정숙, 김진영 교수에 이어 2020년 2월 황일선 교수가 임명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9월 전임교원으로 이애화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현재 전임교수 2명, 연구강사 2명, 행정직 1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지원센터는 사회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사명과 졸업성과를 달성 하도록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교육의 과정을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내 주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생평가, 교육의 질 관리 등을 포함한 의학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실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육지원센터는 교육과정 평가, 교육성과관리, 교육역량 지원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평가영역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 및 개선을 목적으로 의학교육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내용이 실제 환류되어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교육의 과정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성과관리 영역에서는 우리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 졸업성과 분석 및 환류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코호트 기반 교육성과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육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학생평가 문항개발 및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LMS), 임상실습 U-포트폴리오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교육역량 지원영역에서는 교과목CQI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교과목 단위의 수업 질 개선을 포함하여 나아가 전체 교육 과정의 질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개발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과정에 효과적인 의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학교육 뉴스레터(ME+) 발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를 위한 최신 교수학습 정보 공유 및 비대면 수업 운영 및 전략 등을 개발하고 안내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상수행학습실

2009년 제74회 의사국가시험부터 실기시험이 되면서 진료 수행 및 임상 술기 교육을 위해 2008년 6월 동산캠퍼스 2층에 임상수기센터를 설치하였다. 총 10개의 station, 2개의 lecture room, 1개의 중앙통제실을 갖추었고, 당시 교무과장인 금동윤 교수가 의학교육학교실 직원과 함께 임상수기센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4년 9월 교육지원센터내 임상수행학습실로 정식으로 직제가 신설되면서, 김엘 교수가 초대 실장으로 임명되었고, 2014년 12월 김재범 교수가 실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로 교육병원이 이전하면서 의과대학 4층에 총 10개의 station, 1개의 중앙통제실, 소모품실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 실장과 직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업무로 학생들의 진료 수행 및 임상 술기 교육과 평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 교육, 대구·경북 임상술기 및 수행평가 컨소시엄 활동, 진료 수행 및 임상 술기 문항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는 1984년 3월 학생과로 직제를 신설하여 임태진 교수를 초대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학생들의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학생지원센터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학생상담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초대 센터장으로 김재범 교수가 업무를 맡았고, 현재는 이재호 교수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학생들의 심리, 진로, 복지, 장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관리하고,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행하고 있다. 면담을 통해 학습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학습지도 방안 등을 제안한다. 또한 정기적인 면담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매년 학생생활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조사를 시행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학생생활실태조사에서는 거주형태, 출신지역, 통학방법, 학교생활, 일상생활, 자기조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 생활, 진로 지도 및 장학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신건강조사는 학생들의 상황이 바뀌는 신입생, 의학과 1학년, 의학과 3학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자기계발 프로그램, 진로탐색을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의료인을 초청하여 진로 설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의학정책실

의학정책실은 2006년 7월 의학정책과 직제를 신설하여 송대규 교수를 초대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2014년 9월 의학정책실로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초대 실장으로 황은아 교수가 임명되었다. 2020년 8월 하지용 교수가 실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의학정책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학정책실은 우리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반 업무와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의과대학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교육, 연구, 봉사 등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가 있고,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자체평가 연구 및 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학교육 환경 및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발전 관련 전략적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명과 졸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에는 ‘계명의대 교육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대학의 새로운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 등의 여러 영역에도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다.

입학 및 대외협력실

입학 및 대외협력실은 2006년 7월 대외협력과 직제를 신설하여 조치흠 교수를 초대 과장으로 임명하였다. 2014년 9월 입학 및 대외협력실로 직제가 개편되었고, 초대 실장으로 정성원 교수가 임명되어 현재까지 입학업무와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학업무는 우리 대학 인재상에 적합한 우수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형개발, MMI(Multiple Mini Interview) 계획 수립 및 실시,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모의면접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입학전형개발위원회를 운영하여 제반업무를 심의하고 있다. 본교 입학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의과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외협력 업무는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학생교환 프로그램, 동문관련 업무, 발전기금 관련 업무, 학교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일본 후쿠오카대학과 학생임상실습 교환프로그램(Bed Side Learning exchange program)을 실시하여 임상능력 향상 및 해외 의학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COPE(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Exchang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호호혜 원칙에 의거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도 외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과대학 동문관련 행사에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지원업무, 발전기금과 관련된 각종 유치활동 및 기부자 예우 등의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 행정팀

행정팀은 1981년 3월 의과대학 개교와 동시에 교학과로 시작하여 사무과, 학사행정팀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의 행정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교 초기에는 본교 소속으로 물품 구매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82년 9월 의료원 체제 발족이 되면서 학사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85년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이, 1988년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대학원 의학과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1995년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을 OMR로 채점하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 본교의 종합정보시스템 개발로 수강 신청, 성적입력, 증명발급 등 각종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0년 1월 성서캠퍼스에 신축교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으나, 동산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의학과 3, 4학년 과 임상교수들의 학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서캠퍼스와 동산캠퍼스에 각각 행정팀을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2019년 4월 15일 교육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성서캠퍼스로 새 병원을 준공하여 이전함에 따라 행정팀도 성서캠퍼스로 통합하게 되었다.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특성상 여러 교수가 한 교과목을 강의하는 팀티칭, 블록식 강의,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 운영 되고 있어 본교의 EDWARD시스템,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워 의과대학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0년 3월 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 12월에 학사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개발을 완료하여 2021학년도부터 블록식 강의시간표 입력, 강의계획서 입력, 스마트 출석, 강의만족도 조사, 강의중간진단 설문, 학습진단, 성적관리, 팀 프로젝트, 개인 과제물 업로드 및 평가, 질의응답 등 의과대학 교육 특성을 반영한 학사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학년도부터 의학과 3, 4학년 임상실습 시 각과 실습지침, 평가, 학습활동, 피드백 등을 포함한 임상실습 포트폴리오를 바인더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큰 부피로 인한 휴대의 어려움, 매년 제작에 따른 비용, 자료 분석 및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U-포트폴리오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 U-포트폴리오 개발을 시작하여 2019년 12월에 완료되어 2020학년도 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운영하였다. 2020년 12월 의학과 4학년에 대한 개발도 완료되어 2021학년도부터 의학과 3, 4학년에서 임상실습 U-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U-포트폴리오는 PC,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실시간 평가 및 피드백이 가능하여 임상실습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요업무

행정팀 주요업무는 교원인사, 교수연구지원, 수업, 학생, 교무, 입학, 대외협력, 예산, 시설, 공간관리, 기자재 관리, 서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대학원 의학과 업무 등이다.

역대 행정팀장

성 명	기간
박광열	1981. 3. ~ 1989. 1.
이승남	1989. 2. ~ 1990. 3.
지하룡	1990. 4. ~ 1990. 9.
우병현	1990. 10. ~ 1991. 6.
정한성	1991. 7. ~ 1993. 2.
이중달	1993. 3. ~ 1996. 2.
정한성	1996. 3. ~ 1998. 8.
박희국	1998. 9. ~ 1999. 7.
이명수	1999. 8. ~ 2002. 2.
송성광	2002. 3. ~ 2007. 3.
이세걸	2007. 4. ~ 2008. 7.
정한성	2008. 8. ~ 2011. 10.
송성광	2011. 11. ~ 2014. 2.
최삼희	2014. 3. ~ 현재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은 1899년 동산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이 설립된 후, 1905년 종합병원으로 발족하며 도서관 형태로 시작하였다. 1958년 듀잇 왈리스(William Roy DeWitt Wallace, 1889~1981)의 자료 및 시설 기증으로 의학도서관이 정식 기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81년 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1994년 2월 법인 정관 개정으로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으로 개칭 후 독립부서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11월 직제 개편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서관의 위치는 동산캠퍼스 병원 3층에서 1982년 10월 의과대학 6층으로 이관한 후, 2010년 1월 성서캠퍼스의 과대학 2층으로 이관하였다.

도서 분류는 의학 분야 도서는 NLMC(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 교양·참고도서는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를 사용하며 열람 방식은 완전 개가식으로 이용시간은 자료실은 08:30~22:00, 열람실은 07:00~23:00까지 개관하고 있다.

신속한 이용자 서비스 수행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1996년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TINLIB)을 도입하여 전 장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999년 의학도서관 홈페이지(<http://medlib.dsmc.or.kr>)를 개설하였고 2011년 본교 동산도서관과 공동으로 통합전산시스템(TULIP)을 도입하여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의학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자료의 전자화, 국내외 전문 DB 구축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관련 종사자 그리고 연구자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설, 장비 보수와 직원 교육에도 힘쓰며, 명실상부 의학 교육의 중심센터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연혁

1899년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제중원 설립

1905년 종합병원으로 발족하면서 도서관 설치

1958년 의학도서관으로 정식 기구 발족

1981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으로 개칭

1982년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6층으로 이관, 계명의대학술지 발간

1989년 의학도서관 Medline 검색시스템 도입

1996년 도서관 전산화 S/W TINLIB를 도입하여 전 장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작

2000년 국가 전자저널 컨소시엄(KESLI) 가입, Online으로 약 1,200여 종의 의학잡지 구독

2005년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ASP’ 시스템 도입, 온라인으로 업무처리 및 서비스 제공 시작

2010년 성서캠퍼스 의과대학 2층으로 이관

 동산병원 내 병원자료실 2관 체제 운영

2011년 (주)퓨처누리의 ‘TULIP’ 시스템 도입 및 홈페이지 Library 2.0 환경 구현

2012년 의학도서관 웹진 창간호 발간

2015년 자료실 환경개선: 복합문화공간, 그룹스터디 코너, 복합휴게 코너 등 신설

2018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으로 직제 개편

2018년 KUMeL Repository 구축: 기관 생산 지식정보 디지털화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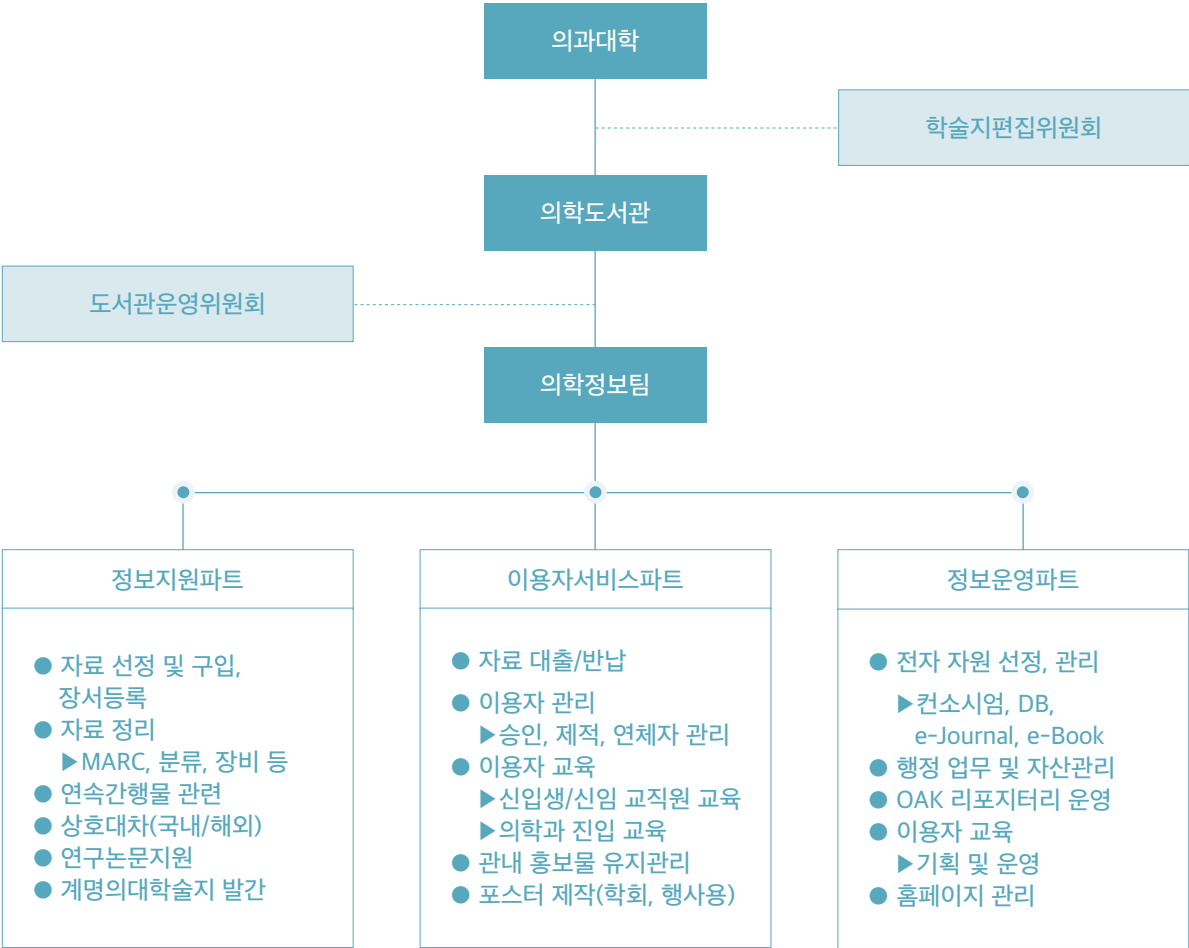
2019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서캠퍼스 이전과 함께 병원자료실 통합

역대 도서관장

구분	역대	성명	전공	기간
도서실장	초대	도상희	내과학	1958. 3. ~ 1964. 6.
	2대	정재홍	병리학	1964. 7. ~ 1979. 2.
도서관장	초대	박영춘	신경과학	1979. 3. ~ 1984. 9.
	2대	장성익	해부학	1984. 10. ~ 1986. 6.
	3대	강진성	성형외과학	1986. 7. ~ 1987. 1.
	4대	강창수	정형외과학	1987. 2. ~ 1989. 3.
	5대	서석권	예방의학	1989. 4. ~ 1990. 6.
	6대	강진무	소아청소년과학	1990. 6. ~ 1992. 6.
	7대	신동학	가정의학	1992. 7. ~ 1994. 2.
	8대	김중강	이비인후과학	1994. 3. ~ 1995. 8.
	9대	김유사	외과학	1995. 9. ~ 1998. 7.
	10대	김광세	비뇨의학	1998. 8. ~ 2001. 2.
	11대	주종윤	기생충학	2001. 3. ~ 2005. 2.
	12대	김현철	내과학	2005. 3. ~ 200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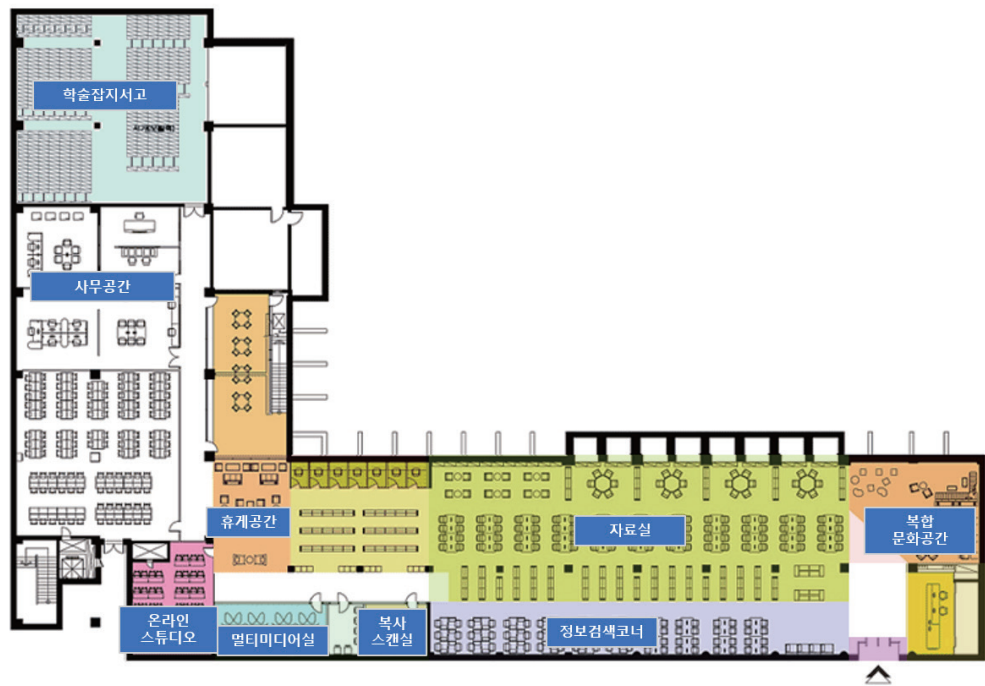
구분	역대	성명	전공	기간
도서관장	13대	서민호	미생물학	2007. 3. ~ 2009. 2.
	14대	한기환	성형외과학	2009. 3. ~ 2009. 9.
	15대	김동원	신경외과학	2009. 10. ~ 2011. 2.
	16대	박성배	내과학	2011. 3.~ 2013. 2.
	17대	송광순	정형외과학	2013. 3. ~ 2017. 2.
	18대	박철희	비뇨의학	2017. 3. ~ 2019. 8.
	19대	박원균	의학교육학	2019. 9. ~ 2021. 8.
	20대	허승호	내과학	2021. 9. ~ 현재

조직도 및 업무분장



도서관 현황

시설 현황



자료 현황

장서 현황

의학도서		제본잡지		참고도서		소 계		합 계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17,790	12,845	47,583	5,957	136	10,453	65,509	29,255	94,764

전자정보원 구독 중수 현황

e-Journal	Database	e-Book
10,883	39	12,487

의학도서관 주요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도서 대출/반납	구 분	대출권수	기간
	교수 및 강사	7책	1개월
	직원 및 대학원생	5책	2주일
	학부생	4책	1주일
전자자원 제공	e-Journal, e-Book, Database, 학위논문(원문),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다양한 전자 자원 제공		
원문복사서비스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논문 자료를 국내외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하여 제공		
서지Tool 제공	논문 작성과 연구에 필요한 서지 레퍼런스 Tool인 EndNote의 최신 버전 제공.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공		
도서구입신청	도서관 홈페이지 상단 메뉴 [My Library] > [자료 구입]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의 구입 신청 가능. 신청된 자료는 담당 사서가 검토 후 수서에 반영		
정보 활용 교육	이용자들의 학습 증진과 연구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정보 활용 교육을 시행		
온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강의 및 녹화, 세미나, 등 교내외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전자교탁, 카메라, 빔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이 구비되어 있다. 총 36석을 갖추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연구논문 지원서비스	논문을 학회나 출판사에 투고하기 전에 학술지별 투고 규정에 맞게 인용 표기 및 참고문헌 형식, Figure, Table 양식을 수정하여 제공		

○ 의과대학 시설 현황

건물

건 물 명	규 모	연 면 적(m ²)	건축면적(m ²)
의과대학	지하 1층, 지상 8층	21,274.24	8,175.2
의과학연구동	지상 3층	2,602.8	1,049.1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지하 1층	해부학실습실, 봉안당, 중앙전기실, 학생회실, 동아리실, 복사실
1층	존슨홀(대강당), 강의실1, 강의실2, 강의실3, 편의점
2층	강의실4, 강의실5, 의학교육정보실(CBT실), 의학도서관, 보안실
중 2층	자율학습실, 학생임상실습세미나실
3층	학장실, 부학장실, 학무위원실, 행정팀, 소회의실, CQI실
4층	교육지원센터, 임상수행학습실, 자기주도학습실, 의학교육학교실, 강의실6, 학생지원센터, 학생상담실, 여학생휴게실, 세미나실, 전산기기장비실, 동창회 사무실
5층	병리학교실, 해부학교실, 의학유전학교실, 전자현미경실, 학생실습실
6층	미생물학교실, 생화학교실, 분자의학교실, 학생실습실
7층	생리학교실, 약리학교실, 면역학교실, 공동기기실험실
8층	예방의학교실, 세미나실, 의료인문학교실
의과학연구동 1층	뇌연구소, 신장연구소, 의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Core Lab
의과학연구동 2층	자율학습실, 세미나실, 동위원소실험실, 의료정보학교실
의과학연구동 3층	의학실험동물실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2

연혁 및 역사

- 072 의과대학 연혁
- 076 의과대학의 설립 정신
- 078 동산캠퍼스 시대(1981~1989)
- 081 동산캠퍼스 시대(1990~2010)
- 083 성서캠퍼스 시대(2010~현재)

1899

- 1899. 10. 1.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제중원 설립

1970

- 1978. 10. 8. 이공대학에 의예과 설치 인가
- 1979. 3. 1. 이공대학 의예과 제1회 신입생 입학
- 9. 1. 초대학장 정재홍 교수 취임

1980

- 1980. 10. 2. 의과대학 설치 인가
- 1980. 10. 19. 재단법인 대구동산기독병원유지재단 해산 및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과 통합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으로 개칭
- 1981. 2. 26. 의과대학 교사 착공
 - 3. 1. 제2대 학장 전도기 교수 취임
 - 3. 2. 제1회 의학과 진입식(59명 진입)
- 1982. 6. 15. 의과학연구소 설립
 - 7. 1. 의과대학 교사 준공
 - 9. 1. 제3대 학장 정재홍 교수 취임
- 1983. 6. 1. 중앙전자현미경실 개설
- 1984. 3. 1. 중앙실험실 개설
의과대학 직제 개편(교무과, 학생과 신설)
 - 9. 1. 제4대 학장 채의업 교수 취임
- 1985. 1. 1. 임상병리학교실 개설
 - 2. 22. 제1회 학위수여식
 - 3. 1. 신경과학교실 개설
- 1986. 2. 18. 제2회 학위수여식
 - 3. 1. 의용동물실 개설
 - 9. 1. 제5대 학장 송준영 교수 취임
- 1987. 2. 17. 제3회 학위수여식
- 1988. 2. 25. 제4회 학위수여식



의과대학 연혁

1990

- 1989. 2. 21. 제5회 학위수여식
- 3. 1. 가정의학교실 개설
- 3. 21. 제6대 학장 강진성 교수 취임
- 4. 1. 치료방사선과학교실 개설
- 10. 1. 의학도서관 Medline 검색시스템 도입
- 1990. 2. 20. 제6회 학위수여식
- 3. 1. 의과대학 간호학과 신설
재활의학교실 개설
- 5. 22. 제7대 학장 김인홍 교수 취임
- 1991. 2. 19. 제7회 학위수여식
- 11. 18. 일본 나가사키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 1992. 2. 20. 제8회 학위수여식
- 5. 22. 제8대 학장 강창수 교수 취임
- 1993. 2. 23. 제9회 학위수여식
- 3. 1. 면역학교실 개설
- 9. 3.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로 개편 인가
- 1994. 2. 22. 제10회 학위수여식
- 5. 22. 제9대 학장 강진성 교수 취임
- 6. 1. 의과학연구소 실험실 개소
- 1995. 2. 21. 제11회 학위수여식
- 12. 1. 핵의학교실, 응급의학교실, 의공학교실 개설
- 1996. 2. 22. 제12회 학위수여식
- 3. 1. 의학유전연구소 설립
- 5. 24. 제10대 학장 전재규 교수 취임
- 1997. 2. 18. 제13회 학위수여식
- 1998. 2. 17. 제14회 학위수여식
- 3. 1. 의예과 소속이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변경
- 5. 24. 제11대 학장 박영남 교수 취임

- 1999. 2. 23. 제15회 학위수여식
- 3. 1. 뇌연구소 설립
- 12. 1. 법의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한의학교실 개설

2000

- 2000. 2. 22. 제16회 학위수여식
- 5. 20. 성서캠퍼스 의과대학 신축교사 착공
- 5. 24. 제12대 학장 박영남 교수 취임
- 2001. 2. 21. 제17회 학위수여식
- 3. 1. 제13대 학장 서수지 교수 취임
- 의학유전공학교실 개설
- 2002. 2. 20. 제18회 학위수여식
- 7. 1. 의료정보학교실 개설
- 2003. 2. 19. 제19회 학위수여식
- 3. 1. 제14대 학장 박우현 교수 취임
- 2004. 2. 19. 제20회 학위수여식
- 2005. 2. 16. 제21회 학위수여식
- 3. 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1주기 평가인증(6년)
- 제15대 학장 임만빈 교수 취임
- 2006. 2. 21. 제22회 학위수여식
- 7. 1. 의과대학 직제 개편(교수연구과, 의학정책과, 대외협력과 신설)
- 2007. 2. 22. 제23회 학위수여식
- 3. 1. 제16대 학장 김현철 교수 취임
- 2008. 1. 9. 신장연구소 특별연구소에서 부설(일반)연구소로 변경
- 2. 19. 제24회 학위수여식
- 2009. 2. 1. 제17대 학장 박우현 교수 취임
- 2. 17. 제25회 학위수여식
- 7. 2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의과학연구본부와 학술연구교류 협정 체결
- 12. 16. 성서캠퍼스 의과대학 신축 교사 준공

2010

- 2010. 2. 1. 의과대학 성서캠퍼스로 교사 이전
- 2. 19. 제26회 학위수여식

- 3. 1. 의용공학과 신설(신입생 30명)
- 2011. 2. 1. 제18대 학장 김권배 교수 취임
- 2. 15. 제27회 학위수여식
- 3. 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2주기 평가인증(5년)
- 2012. 2. 16. 제28회 학위수여식
- 2012. 5. 19. 의학유전연구소를 암연구소로 명칭 변경
- 2013. 1. 1. 의학유전공학교실을 분자의학교실로 명칭 변경
기생충학교실 폐지, 의학유전학교실 개설
의료인문학교실 개설
- 2. 1. 제19대 학장 김상표 교수 취임
- 2. 19. 제29회 학위수여식
- 2014. 2. 20. 제30회 학위수여식
- 9. 1. 의과대학 직제 개편(교육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교수연구지원센터, 의학정책실, 입학및대외협력실 명칭 변경)
- 2015. 2. 1. 제20대 학장 김상표 교수 취임
- 2. 24. 제31회 학위수여식
- 2016. 2. 23. 제32회 학위수여식
- 3. 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Post 2주기 평가인증(4년)
한의학교실 폐지
- 2017. 2. 1. 제21대 학장 이세엽 교수 취임
- 2. 21. 제33회 학위수여식
- 2018. 2. 20. 제34회 학위수여식
- 2019. 2. 1. 제22대 학장 배재훈 교수 취임
- 2. 19. 제35회 학위수여식
- 4. 15. 교육병원(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서캠퍼스 이전

2020

- 2020. 2. 18. 제36회 학위수여식
- 3. 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ASK2019 평가인증(4년)
- 5. 1. 직업환경의학교실 개설
- 2021. 2. 1. 제23대 학장 송대규 교수 취임
- 2. 18. 제37회 학위수여식
- 2022. 2. 17. 제38회 학위수여식

의과대학의 설립 정신

의과대학은 1899년 설립된 제중원에서 시작한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장인차(Dr. Woodbridge O. Johnson) 박사가 대구 약전골목 대구 선교지부내 작은 초가집에 제중원(濟衆院)이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중원은 1906년 현재의 대구동산병원 위치로 신축 이전하면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장인차 박사가 1908년경 7명의 의학도에게 해부학, 생리학, 약품조제, 치료학, 내과학, 산과학, 외과학, 영어 등 서양의학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의학도들이 왕진에 같이 참여하여 분만을 돕거나 가벼운 치료를 대신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의학 실습교육도 같이 이루어졌다. 비록 교육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필요한 의학전문 직업인을 육성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서양식 의학교육기관을 공식적으로 한 곳만 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성 제중원의 의학당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 제중원의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제중원은 1907년 2월 일본인들에 의해 세워진 대구동인의원(경북대학교 병원 전신)보다 약 8년이 앞선 대구 최초의



제중원 초대 원장인 장인차 박사(맨 왼쪽)가 1908년 의학도들을 선발해 서양의학 진료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장인차 박사(뒷줄 가운데 나비 넥타이)와 7인의 의학도들(1908년경)

근대 의학교육기관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장인차 박사의 서양의학 강의는 대구 최초의 근대의학교육으로 우리나라 근대 의학사에도 기록된 사건이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태동의 근간이 되었다.

1911년 제중원은 동산기독병원으로 개명되었고, 1924년 현 간호대학의 전신인 간호부 양성소를 병원 산하에 설립하였다. 또한 1958년에는 병리기술학교를 설립하여 현대식 의료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53년 미국예수교 북장로교회 대한 선교부 대구 선교지부의 대표인 안두화 선교사, 최재화 목사, 강인구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이 4년제 고등교육기관 대학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독교대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들의 노력으로 1954년 3월 20일 대학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서 현 계명대학교의 전신인 계명기독학관이 개관하였다. 그후 계명기독학관은 계명기독학교(1955년), 계명기독대학(1956년), 계명대학(1965년)으로 명칭 변경을 거쳤고, 197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계명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종합대학으로 승격 후 더 높은 수준의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동산기독병원도 의과대학 설립이 병원 발전과 지역의료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두 기관은 함께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산캠퍼스 시대(1981~1989)

의과대학의 설치 인가 및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의 통합

197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14개의 의과대학이 있었다. 14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 지방 6개의 의과대학이 있었으나, 인구 수 등을 고려하면 지방 의과대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1977년 7월 1일 시행된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법의 실시와 함께 1979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 적용 등으로 국내의 여러 대형병원들은 늘어난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병원을 증축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며 그 세를 확장하던 시기였고, 이에 발맞추어 신설 의과대학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 시기에 기독교 대구시 연합당회장 명의로 ‘의과대학 설치 건의문’이 동산기독병원으로 전달되었다. 당시 종합병원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면 우수한 교수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동산기독병원이 단독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5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동산기독병원의 신축과 의료 기자재의 도입이 대부분 마포화열(Dr. Howard F. Moffett, 1917~2013) 선교사 개인의 노력을 통해 미국 각지 교회의 기부로 이루어졌는데, 의과대학 설립은 구호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런 모금 활동이 사실상 어려웠다.

계명대학교는 종합대학 승격을 발판으로 더욱 수준 높은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이 학교 당국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부속병원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동산기독병원 이사회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다른 교육기관과 통합하는 안을 가결하였으며, 미국예수교 북장로교회에 기원을 둔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의 통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두 기관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978년 5월 26일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이 통합하기로 결의되었고, 계명대학교는 문교부의 의예과 설치인가를 받았다.

1970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5개의 의과대학이 신설되었으며, 우리 대학은 1978년 10월 8일 의예과 설치 인가를 받았고 1980년 10월 2일 의과대학 설치 인가를 받았다. 1979년 3월 이공대학(현 자연과학대학) 의예과로 시작하여

첫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9월 1일 초대학장으로 병리학교실의 정재홍 교수가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10월 19일 동산기독병원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으로 개명되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진리, 정의, 사랑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룩하기 위해 봉사와 사랑의 희생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의사상을 구현한다’라는 목표 아래 출범하게 된다.

의예과 대명캠퍼스와 성서캠퍼스 시대

1979학년도에 입학한 의예과 첫 신입생은 대학 본부가 있었던 대명캠퍼스의 대학원 건물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성서캠퍼스에서 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1983학년도부터 의예과는 성서캠퍼스 백은관(구. 자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의예과의 대명캠퍼스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백은관은 우리 대학교가 197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새로 조성한 성서캠퍼스에 처음으로 지어진 이공대학 건물로, 이공대학에 소속된 의예과도 함께 이전하게 되었다. 2010년 1월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이 이전할 때까지 의예과 학생들의 전공 강의를 위한 강의실과 학과 사무실 등이 백은관에 있었다.

의과대학의 동산캠퍼스 시대

1981년 3월 2일 59명의 의예과 학생들이 진급하여 제1회 의학과 진입식이 있었다.

1981년 3월 제2대 학장에 전도기 교수가 취임하였고,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교사는 1981년 2월 26일 착공하여 1982년 7월 1일 준공되었다. 1981학년도 의학과 1학년은 신축 중인 의과대학 교사 공사 지연으로 간호대학(전 동산간호전문대학) 1층과 지하층을 1년반 동안 사용하다가, 교사가 준공되면서 1982학년도 2학기부터 의과대학 신축교사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교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하 2층에는 해부학 실습실, 보일러실, 지하 1층에 1학년 강의실, 시청각실, 휴게실, 동아리방, 식당 등이 있었고, 지상1층에는 강의실과 행정부, 그 윗층으로 각 기초의학교실과 실습실, 교수연구실, 강당, 동물실험실 등이 있었다. 또한 병원 3층에 있던 의학도서관이 의과대학 6층으로 이관되면서 의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신설 의과대학으로 개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의과대학 전용 교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기초의학 교수진이 부족하여 타 대학 교수들이 출강하여 해당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골학을 강의해 줄 선배가 없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골학 강의에 참여하였던 일화도 있고, 해부학 실습을 위한 시신을 구하기가 어려워 서울 지역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해부학 실습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의사국가시험에서 1985년(1회) 97.1%, 1986년(2회)과 1987년(3회) 졸업생들이 100%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982년 6월 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적 견지에서 연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치료에 공헌하기 위해 의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83년 6월 중앙전자현미경실을, 1984년 3월 중앙실험실을 개설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84년 본교의 직제개편으로 이공대학이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되어 의예과의 소속이 자연과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85년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이, 1988년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1985년 2월 22일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의 학위수행식이 거행되었다. 1986년 3월 동물실험을 위한 의용동물실을 개설하였다.

동산캠퍼스 시대(1990~2010)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이 통합되면서 신설된 의과대학은 8개의 기초의학교실과 16개의 임상의학교실로 총 24개의 교실로 시작하였다. 1989년 3월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가정의학교실을 개설하였고, 1990년 3월에는 재활의학교실을 뒤이어 개설하였다. 교육부로부터 1989년 10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설치인가를 받아 의과대학내 간호학과가 신설되었다. 간호학과 설치인가를 받으면서 동산간호전문대학은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1992년 폐교되었다.

1960년 미국 제일장로교 파송 Raymond Rrovost 부부는 메릴랜드주 컴버랜드 제일장로교회의 후원, 경동노회의 대지 회사와 동산기독병원의 지원으로 경주기독병원을 설립하였다. 동산기독병원의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1988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1989년 11월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 인수하였다. 인수 후 2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와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10개의 진료과목에 78병상, 100여 명의 교직원을 구성하여 1991년 3월 의과대학 부속 경주동산병원으로 개원하였고 초대 원장으로 박영관 교수가 취임하였다.

의과대학은 다양한 국내외 의료기관과 교류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1991년 11월 일본 나가사키 의과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해부학교실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1993년 3월 번역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첨단학문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번역학교실이 개설되었다. 1994년 3월에는 의과대학 소속의 간호학과가 독립하여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12월 응급의학교실, 핵의학교실, 의공학교실이 신설되었다. 1995년부터 의과대학 성적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을 OMR로 채점하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 본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로 수강신청, 성적입력, 증명발급 등 각종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사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1996년 3월 유전공학의 발달로 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유전자 범주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높아지면서 의학유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8년 3월 의예과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9년 3월에 뇌신경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규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기초 및 임상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뇌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9년 12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자 의학교육학교실을 개설하였다. 또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법의학교실도 같이 개설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질병의 원인,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기초 및 임상적 연구를 위하여 심혈관연구소와 신장연구소를 각 질병에 대한 특별연구소로 설립하였다.

의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캠퍼스 구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1999년 3월 성서캠퍼스 서편에 종합메디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하여 기본 설계와 종합계획에는 삼원건축, 시공사는 GS 건설로 선정하였고, 2000년 5월 20일 성서캠퍼스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연구동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2001년 3월 분자유전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학유전공학학교실을 개설하였고, 2002년 7월 의료정보학교실을 개설하여 공공보건의료정보시스템 및 지역보건정보시스템 개발과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200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의과학분야사업(MRC)에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CDR)가 선정되어 9년간 총 60억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신약선도물질을 발굴하고 산업화하며, 기초의과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기초의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년 3월 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정보 및 기술분야의 첨단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기술연구소를 특별연구소로 설립하여 약 18년간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폐지되었다.

2004년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의과대학 인정평가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강의실 및 실습실, 자율학습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개보수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자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 평가를 통하여, 2005년 3월 완전인증 평가를 받았다. 2005년 국제적인 의사를 양성하고자 미국의사면허시험을 위한 카플란센터를 개설하였다. 2006년 1월 일본 후쿠오카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매년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임상실습 교육 및 대학원생 교류 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6년 7월에는 교무과, 학생과 직제에서 학사 업무에 대한 세분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교수연구과, 의학정책과, 대외협력과를 신설하는 직제를 개편하였다.

2007년 질병유전단백체연구소를 특별연구소로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활동이 미미해 2015년 10월 폐지되었다. 2009년 보건의료관리연구소도 특별연구소로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5년 10월 폐지되었다.

성서캠퍼스 시대(2010~현재)

성서캠퍼스의 시작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전 개원

2000년 5월 성서캠퍼스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연구동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3년 9월 동산의료원 장기발전계획의 투자순위 변경으로 공정률 50.86%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2008년 11월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였고, 2009년 12월 16일, 착공한 지 8년 7개월 만에 준공되었다. 의과대학은 설립 30년 만에 동산캠퍼스 시대를 마감하고 바야흐로 성서캠퍼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최첨단 교육 환경과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전체 면적이 이전 동산캠퍼스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나, 학생들의 교육 공간은 물론 교수연구 공간 및 시설 설비도 늘어나게 되었고, 첨단 강의실, 최첨단 디지털 의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의학교육정보실, 임상수행학습실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캠퍼스를 조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도 확충하였다. 2010년 2월 5일 성서캠퍼스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연구동 준공 예배가 있었고, 2010년 2월 19일 성서캠퍼스로 이전 후 첫 학위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의과대학의 성서캠퍼스 이전으로 백은관(구. 자연관)에서 공부하던 의예과 학생들이 마침내 소속대학인 의과대학 건물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3월에는 의용공학과가 신설되어 3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2010년 5월 15일 우리대학 제1회 졸업생이 졸업 25주년을 맞이하여 모교 방문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은사 초청 사은회, 학교 투어 및 동기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창시절을 추억하였고, 학교 발전기금과 태계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전달하였다. 2010년에 시작된 모교방문 행사는 후배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동산기독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와 병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던 마포화열 원장이 2010년 10월 5일에는 성서캠퍼스 의과대학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2010년 한국교육평가기원의 의과대학 제2주기 인증평가는 성서캠퍼스 이전 후 처음으로 받는 평가로 많은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2011년 3월에 인증(5년)을 받았다.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2010년 6월 통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통증연구소를 특별연구소로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아쉽게도 지속되지 못하고 2016년 5월 폐지되었다. 2011년 5월에는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회 영어프레젠테이션대회를, 2014년 11월에는 제1회 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및 전공 학문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행사는 현재에도 외국어역량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늘어나는 암환자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학유전연구소를 암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암 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기초와 임상 중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2013년 1월 의학의 인문학적 속성을 연구하고, 의학도로서 필요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및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의료인문학교실을 신설하였다. 유전 질환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의학유전학교실도 같이 신설하였고, 기존 의학유전공학교실은 분자의학교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생충학교실은 관련 질환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폐지되었고, 기생충학과 관련된 학생 교육은 미생물학교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동산기독병원 초대 병원장인 장인차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2년 5월 31일 의과대학 대강당을 ‘존슨홀’로 명명하였다.

2014년 5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사업(MRC)에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ODR)가 선정되었다. 7년간 정부출연금 70억, 정부외출연금 72억 등 142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비만성 당뇨병질환과 심혈관질환에 중요한 비만매개 호르몬에 초점을 맞추어 비만매개 질환의 병인 규명과 신규 표적 치료표적을 발굴하고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 직제를 개편하여 이전 교무과, 학생과, 교수연구과, 의학정책과, 대외협력과를 교육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교수연구지원센터, 의학정책실, 입학 및 대외협력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특히 교수연구지원센터 내에 공동기기실험실, 동위원소실험실, 의학실험동물실, 전자현미경실을 정식 직제로 신설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5년 6월 13일에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일본 후쿠오카대학교 의과대학간의 학생 임상실습 교류 프로그램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심포지움을 양국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2015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Post 2주기 인증평가를 위해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2016년 3월에 인증(4년)을 받았다. 당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가 인정하는 국제적 공인 평가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관련 심사를 받는 중이었고, WFME 인정심사단이 방문하여 우리대학의 인증과정을 참관하며 심사가 이루어졌다.

종전에 강조되어 왔던 의학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균형 있게 배양하기 위해 태도, 수기, 대인관계능력, 임상판단능력 등을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권장사항

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학 교육과정 개발하였고, 2018학년도 의예과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10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ASK2019)으로 의과대학 평가인증 결과 2020년 3월 평가인증(4년)을 받았다. 2019년 12월 각과 실습지침, 평가, 학습활동, 피드백 등을 포함한 임상실습 U-포트폴리오 개발이 완료되어 2020학년도 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운영하였다. 이전에는 바인더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큰 부피로 인한 휴대의 어려움, 매년 제작에 따른 비용, 자료 분석 및 활용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U-포트폴리오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의학과 4학년 U-포트폴리오 개발도 완료되어 2021학년도부터 의학과 3, 4학년에 모두에서 임상실습 U-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U-포트폴리오는 PC,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실시간 평가 및 피드백이 가능하여 임상실습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0년 12월 의과대학 특성을 반영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구축하여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특성상 여러 교수가 한 교과목을 강의하는 팀티칭, 블록식 강의,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교의 EDWARD시스템,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워 의과대학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였고, 12월에 완료가 되어 2021학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의과대학 특성을 반영하여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입력, 스마트 출석, 강의만족도 조사, 강의중간진단 설문, 학습진단, 성적관리, 팀 프로젝트, 개인 과제물 업로드 및 평가, 질의응답 등의 학사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0년 COVID-19로 인해 일부 실습과목을 제외하고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태계축전, 학생체육대회, 사제어울림마당, 일본 후쿠오카 의과대학 학생 임상실습 교류 프로그램 등 여러 집체 행사도 열리지 못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비대면 수업을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교육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의과대학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교육병원인 동산병원과 대학이 지리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임상교수들은 학생 수업을 위해 병원에서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동산캠퍼스에서 임상실습 교육을 받는 학생과 임상교수의 학사 지원을 위해 행정팀을 동산캠퍼스에 추가로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동산캠퍼스 동산병원 시설의 노후화 및 개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8년 5월 27일 법인이사회에서 새 병원 건립이 의결된 이후, 계명대학교 대학병원으로서 위상 강화 및 성서캠퍼스 내 의과대학과 동산캠퍼스 동산병원 간

의 거리 격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서캠퍼스에 새 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16일 성서캠퍼스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11월 30일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내부 시설을 정비한 후 2019년 4월 15일 이전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설 규모와 의료 장비 등 여러 방면에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 환경에서 교육 실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병원은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병원 4층 출입구는 의과대학 1층 출입구와 연결되고, 병원 5층과 의과대학 2층 사이에는 연결 다리를 두어 교수 및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 임상실습 세미나들을 두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밝히는 의사를 양성한다’는 교육목적 아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3

교수

088 연도별 교원 현황

090 기초의학교실

132 임상의학교실

연도별 교원 현황

연도	교수(명)	부교수(명)	조교수(명)	조교수(1) (전임강사)(명)	합계(명)
1982	24	6	13	22	65
1983	25	8	22	28	83
1984	26	9	21	37	93
1985	26	9	18	31	84
1986	30	13	28	31	102
1987	32	16	32	29	109
1988	31	19	42	19	111
1989	32	26	45	9	112
1990	37	35	41	8	121
1991	41	40	33	9	123
1992	41	40	33	9	123
1993	41	42	31	13	127
1994	49	44	17	9	119
1995	50	40	19	16	125
1996	56	36	18	19	129
1997	60	33	25	12	130
1998	68	25	25	16	134
1999	79	21	24	9	133
2000	79	22	25	5	131
2001	74	26	15	11	126
2002	74	24	18	18	134
2003	73	25	21	18	137
2004	74	27	23	16	140
2005	76	24	27	20	147

연도	교수(명)	부교수(명)	조교수(명)	조교수(1) (전임강사)(명)	합계(명)
2006	74	26	34	24	158
2007	78	26	32	22	158
2008	80	30	35	12	157
2009	76	30	44	6	156
2010	77	36	41	10	164
2011	79	37	43	8	167
2012	80	42	43	5	170
2013	84	52	35	9	180
2014	88	51	32	14	185
2015	88	55	36	18	197
2016	91	52	38	18	199
2017	92	50	44	17	203
2018	90	46	50	17	203
2019	95	43	49	23	210
2020	90	43	53	25	211
2021	89	51	49	16	205

* 2012년 7월 22일 전임강사가 조교수(1)로 변경

기초의학교실

○기생충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주종윤	1983. 7. ~ 2010. 8.	주임교수	서성일	2010. 9. ~ 2012. 12.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주종윤	1983. 7. ~ 2010. 8.

교실사

기생충학교실은 1981년 의과대학 설립과 동시에 개설되었다. 1983년 7월 경북의대에 재직하고 있던 주종윤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임용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생충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학생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였다. 경북의대 최동익 교수와 국군중앙의무시험소 홍성태 대위가 외래교수로 기생충학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였다.

주종윤 교수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의과대학 의용동물실장을 맡아 질환 모델 동물의 개발과 실험동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의과대학 동물실험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6년 우리 대학을 졸업한 백두현 선생이 조교 및 연구강사로 발령받아 교육 및 연구에 박차를 기할 수 있었다. 백두현 선생은 1991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군입대하였다.

2010년 주종윤 교수가 정년퇴임함에 따라 2011년부터 2년간 백두현 선생이 외래교수로 학생 교육을 전담하고, 당시 부학장이었던 미생물학교실 서성일 교수가 기생충학교실 주임교수를 겸직하였다. 2012년 12월 직제 개편에 따라 기생충학교실이 폐지되었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기생충학교실은 <기생충학및실습>에서 기생충학의 총론, 인체 기생 원충류, 조충류, 흡충류, 절지동물, 그리고 이들 에 의해 야기되는 병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검사수기를 습득하여 관련 질환의 진료, 예방, 관리 및 연구에 활용 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주종윤 교수가 발간한 ‘임상기생충학’, ‘기생충학개론’, ‘의용기생충학실습’ 등을 교재로 사용 하여 교육하였다.

2012년 12월 기생충학교실 폐지 후 현재는 미생물학교실에서 기생충 관련 모든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020학년 도부터 <여행의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해외여행 시 초래될 수 있는 기생충 감염에 대한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연구

주종윤 교수는 1984년부터 계명대학교 부설농원에 유문등을 설치하고 대구·경북지역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모기’의 출현을 조기에 경보하여 일본뇌염 발생 예방에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용 곤충 사육실을 설치하여 지역 내 위생 동물 연구자들에게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의용 곤충 생태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간흡충, 폐흡충, 이질아메바 및 장내 기생 원충류, 질트리코모나스의 역학, 한국에서의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역학, 말레이 사상충, 조직 기생 선충류 유충에서 분리한 단백분해효소의 특성 및 항원성 검토 등 이다.

봉사

주종윤 교수는 의과대학 의용동물실장, 대한기생충학회 평의원, 일본기생충학회와 일본위생동물학회 정회원이며, 대한기생충학회 사업부장, 감사와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 외 한국곤충학회 정회원,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자문위원 및 계명대학교 기성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평소 기생충 질환 퇴치사업과 전국 장 내 기생충 감염률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면역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최병길	1993. 9. ~ 1998. 2.	주임교수	박종욱	2014. 3. ~ 2018. 2.	주임교수
박종욱	1998. 3. ~ 2008. 2.	주임교수	권택규	2018. 3. ~ 2020. 2.	주임교수
권택규	2008. 3. ~ 2014. 2.	주임교수	김 신	2020. 3. ~ 현재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최병길	1993. 3. ~ 1998. 2.	권택규	2000. 3. ~ 현재
박종욱	1993. 5. ~ 현재	김 신	2011. 9. ~ 현재

교실사

면역학은 생체방어 시스템과 질병 제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계 조절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1970년대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초 국내에서도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면역학이 첨단학문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의과대학에서도 면역학의 교육 및 연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1993년 3월 면역학교실을 개설하였다.

1993년 박종욱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9월에 University of Illinois에 재직하고 있던 최병길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교실의 실험 연구 보조, 학생 수업 보조, 실험장비 관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배준호 임상 병리사가 임명되었다.

최병길 교수는 1994년과 1998년 의과대학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분자생물학 연구기법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면역학교실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96년 박종욱 교수가 ‘Interleukin-12/IL-2를 이용한 항 암 면역치료법과 이들의 항암 면역기전’이라는 주제로 1년간 미국 NIH 국립암연구소에서 국외연수를 하였다.

1998년 박종욱 교수가 제2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각종 분자생물학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첨단 분자면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교실로 발전하였다.

2000년 미국 NIH와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수년간 세포주기 조절 및 apoptosis 분야를 연구한 권택규 교수가 임용되었다. 2002년 9월 박종욱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초의학연구센터에 만성 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Chronic Disease Research Center, CDR)가 지정받았다. 2004년 우리 대학을 졸업한 김신 교수가 조교로 발령받았다. 권택규 교수는 2008년에 제3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김신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군입대하였다.

2010년 1월 성서캠퍼스 이전에 따라 7층 북쪽에 약 153m²(40평) 규모의 실험실과 세포 배양실, 연구원실, 실험준비실 및 암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2011년 김신 교수가 연구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월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2014년 박종욱 교수가 제4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2017년 김신 교수가 미국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에 1년간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2018년 권택규 교수가 제5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2020년부터 김신 교수가 제6대 주임교수로 봉사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면역학및실습>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였다.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인체 의구조와기능(2)>, <의학기초과질환(3)>, <기초의학통합실습(1),(2)> 통합교과목에서 병원성 미생물과 종양 세포 등에 대응하여 신체에서 나타나는 자연 면역성과 적응 면역성의 특징과 기능, 면역계에 의해 나타나는 각종 질환의 기전과 특징, 면역분자를 이용한 첨단 분자면역 실험의 원리와 응용법 등을 강의하여 면역학적 기초 지식과 면역관련 임상질환을 이해하는데 필수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의학 연구자 또는 일차 진료 의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1999년부터 면역학교실원 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4~5명의 교실원을 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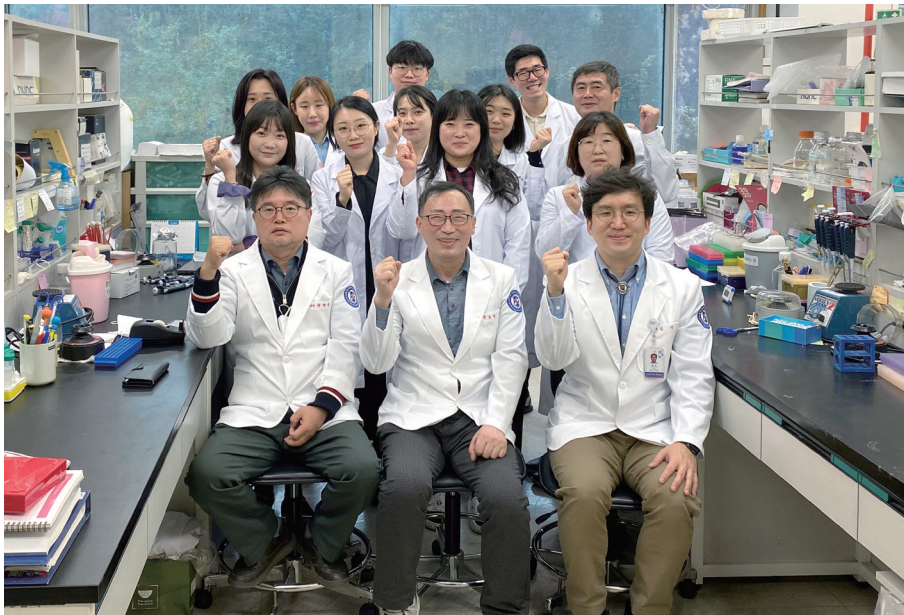
연구

면역학교실은 만성염증 제어제, 종양진단 및 치료제, 종양백신, 세포사멸 기전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매년 국제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제1기 기초의과학연구센터인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적 연구센터로 지정받아 면역학교실은 물론 의과대학 전체 연구력의 첨단화 및 고도화에 이바지하였다. 2014년에 시작된 한국연구재단 기초의과학연구센터인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에 참여하여, 비만매개질환 기전 및 치료제 연구, 종양 세포사멸 기전 연구, 항암제 및 항염증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밀 종양학 연구를 위한 생물정보학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종양면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택규 교수는 2021년도 ‘Lysosome 기반 암 제어 연구’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심화형 기초연구실 지정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봉사

박종욱 교수는 약학대학 부학장, 의과학연구소 연구부장, 대구광역시 과학발전위원회 위원 및 대한면역학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권택규 교수는 한국세포생물학회 회장, 대한면역학회 이사,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윤리위원장,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출판위원장 및 한국생명과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고,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World Journal of Medical Genetics,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Oncology Letters,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Pharmacology 및 ROS 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신 교수는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장으로 봉사하였고, Oncology Letters의 편집위원 및 Annals of Coloproctology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1년 12월 앞줄 왼쪽 권택규, 박종욱, 김신 교수

미생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전도기	1981. 3. ~ 1987. 8.	주임교수	백원기	2014. 3. ~ 2018. 2.	주임교수
채의업	1987. 9. ~ 1988. 4.	주임교수 직무대리	서성일	2018. 3. ~ 2020. 2.	주임교수
서민호	1988. 5. ~ 2010. 2.	주임교수	백원기	2020. 3. ~ 현재	주임교수
서성일	2010. 3. ~ 2014. 2.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전도기	1981. 3. ~ 1987. 8.	서성일	1994. 5. ~ 현재
서민호	1988. 5. ~ 2020. 8.	백원기	1998. 3. ~ 현재

교실사

미생물학교실은 1981년 3월 개설되어 전도기 교수가 의과대학장 및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1982년 경북의대 출신의 박병태 선생이 조교로 발령받아 교실의 제반 설비 설치와 학생실습 및 연구 활동을 도왔으며, 1982년 전도기 교수가 초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 1983년 백성덕 선생이 병리 기사로 발령받았으며, 1984년 박병태 선생이 군입대로 사직하였다. 1985년 우리대학 1회 졸업생인 박종욱 교수가 조교로 발령받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미생물학전공으로 입학하였다. 1986년 우리대학 2회 졸업생인 서성일 교수가 조교로 발령받았고 1987년 8월에 전도기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1988년 경북의대 출신의 서민호 교수가 임용되었고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1990년 우리대학 6회 졸업생인 백원기 교수가 조교로 발령받았다. 1991년 8월 박종욱 교수가 박사학위를 취득 후 군입대를 하였다. 1994년 서성일 교수가 임용되었고, 서민호 교수

는 1995년 3월부터 1년간 University of California in San Diego의 Molecular Genetic Center에서 세포주기 연구를 연수하였다. 1997년 조재위 교수는 우리대학을 졸업하고 조교로 발령받았다. 1997년 9월부터 1년간 서성일 교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in San Diego의 Aging Institute에서 세포주기조절 유전자 연구를 연수하였다. 1998년 백원기 교수가 임용되고, 1999년 9월 조재위 교수는 서남의대로 이직하였으며 이후 피부과학 전문의를 취득하여 현재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3월 서민호 교수가 의과대학 교학부장으로 임명되었다. 2003년 3월부터 2년간 백원기 교수는 Harvard Medical School의 Dana 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암 유전체 연구와 세포내 신호전달 연구를 연수하였다. 2005년 서민호 교수가 대학원 의학과 학과장에 임명되고, 서성일 교수는 의과대학 의학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07년 서민호 교수가 의학도서관장으로 임명되고, 서성일 교수는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백원기 교수는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08년 서민호 교수는 계명대학교 비사교육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서성일 교수는 의과대학 교학부장으로 임명되었다. 2010년 서성일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고, 서민호 교수는 의과학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백원기 교수는 대구광역시의사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백원기 교수는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2년 계명대학교 우수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대학을 졸업한 서인철 선생이 2012년 조교로 발령받았다. 네팔 국적의 비제이쿠마자는 2013년 연구강사로 발령받았으며, 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이직하였고 현재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4년 서성일 교수는 계명대학교 우수교육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제1회 계명의대 학생연구논문발표대회에서 미생물학 학생교실원인 최문영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서성일 교수는 의과학연구소장으로, 백원기 교수는 암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2016년 백원기 교수는 의과대학 부학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년 의료인문학교실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016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인철 박사는 2017년 대구시청으로 이직하여 대구광역시 감염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동국의대에 재직 중이다. 2020년 서민호 교수는 정년퇴임을 하였으며 명예교수로 임용되었다. 백원기 교수가 2020년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교실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실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박종욱, 서성일, 이명욱, 이경란, 백원기, 감성홍, 김수희, 박건욱, 김종욱, 윤성희, 정준아, 최홍택, 조재위, 강재구, 정태영, 박지영, 박유경, 정희정, 박창석, 서인철, 양윤이, 김수경 등이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서성일, 백원기, 우상현, 정준아, 변호영, 조재위, 서병욱, 이정은, 황석영, 황미선, 박지영, 정희정, 김현아, 서인철 등이다.

지난 40년간 교실 발전을 위해 교육, 연구, 행정을 함께한 조교 및 연구원들은 황미열, 박미숙, 박문현, 김인숙, 정준아, 김은희, 임기조, 유미향, 김경민, 김세현, 원혜영, 김도연, 정혜윤, 오현지, 성수행, 이성희, 윤보연, 박유경, 김상미, 황미선, 박지영, 정희정, 박창석, 박혜영, 신혜경, 박혜진, 이효정, 최민아, 이연주 등이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1981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미생물학및실습>과목으로 감염병의 기초의학 영역을 교육하였으며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의학기초와질병(1)>, <감염(1)>의 통합교과목에서 교육하고 있다. 교수들의 분자의학 연구의 전문성에 따라 분자생물학 관련 과목인 <유전학>, <분자생물학>, <세포학> 등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세포의분자적이해>, <인체의이해> 등 통합과목에서 분자의학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교실원 제도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미생물학 및 분자생물학 관련 심화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학생교실원들은 계명대 학생논문발표대회에서 1회 대상, 3회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다.

학생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로 서민호 교수는 ‘의학미생물학(Elsevier)’, ‘의학미생물학(한우리)’, ‘의학미생물학실습(서흥출판사)’, ‘세포학(한우리)’, 서성일 교수는 ‘의학미생물학(Elsevier)’, ‘간호미생물학(현문사)’, ‘Kuby 면역학(범문에듀케이션)’, 백원기 교수는 ‘의학미생물학(Elsevier)’, ‘간호미생물학(현문사)’, ‘한눈에 알 수 있는 병원미생물학(E-Public)’ 등을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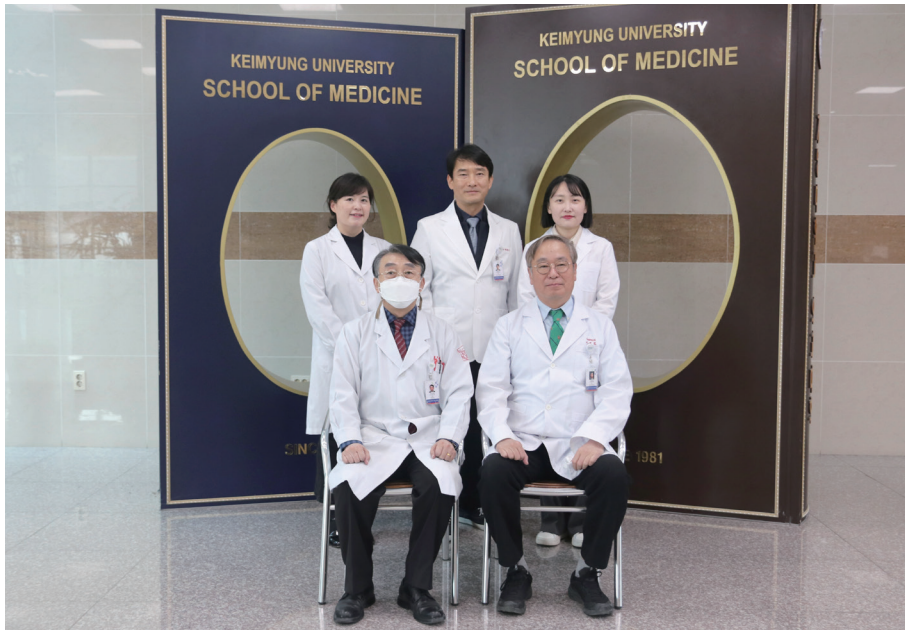
대학원교육으로 세균학, 바이러스학, 진균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을 중심으로 석박사과정 전공과목을 교육하고 석박사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연구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전통적 미생물학 연구 분야인 감염질환 원인균 역학, 항균제 감수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1989년 이후로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접목함에 따라 세균과 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및 기전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분자 세포 연구를 도입하면서 세포의 암화 과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임상 연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고, 현재의 숙주-감염체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생물학교실은 전통적으로 임상의학교실과 공동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교수로는 피부과학교실 이규석, 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 이인규, 외과학교실 배옥석,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홍식, 안과학교실 김광수, 산부인과학교실 조치흠,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정우진, 류마티스 내과 김상현, 감염내과 김현아 교수, 외과학교실 간담췌외과 안근수 교수 등이 있다.

봉사

서민호 교수는 대한미생물학회 평의원, 한국의학교육학회 전문위원, 미국미생물학회 정회원, 미국 뉴욕과학아카데미 정회원,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서성일 교수는 국군중앙의무시험소 자문위원, 바이오이종장기개발 사업단 평가위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사위원,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기초의학 종합평가 문항출제위원, 대한미생물학회 평의원과 교육위원장 등의 활동을 하였다. 백원기 교수는 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 태계장학재단 이사, 계명대학교 입학사정관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대한미생물학회 평의원, 대한암학회 이사,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2월 앞줄 왼쪽 서민호, 서성일 교수, 뒷줄 왼쪽 백원기, 김진경 교수

○ 병리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정재홍	1960. 9. ~ 1981. 3.	과장	권건영	2002. 9. ~ 2010. 8.	주임교수
정재홍	1981. 3. ~ 1983. 11.	주임교수 겸 과장	박관규	2002. 9. ~ 2004. 6.	과장
장은숙	1983. 12. ~ 1994. 5.	과장	김상표	2004. 7. ~ 2008. 2.	과장
정재홍	1983. 12. ~ 1989. 10.	주임교수	강유나	2008. 3. ~ 2010. 2.	과장
장은숙	1989. 11. ~ 1994. 5.	주임교수 겸 과장	이상숙	2010. 3. ~ 2011. 2.	과장
장은숙	1994. 6. ~ 1997. 2.	주임교수	김상표	2010. 9. ~ 2013. 1.	주임교수
이상숙	1994. 6. ~ 1997. 2.	과장	강유나	2011. 3. ~ 2013. 2.	과장
이상숙	1997. 3. ~ 1998. 8.	주임교수 겸 과장	강유나	2013. 2. ~ 2017.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상숙	1998. 9. ~ 2001. 2.	주임교수	최미선	2017. 9. ~ 2019. 8.	주임교수 겸 과장
권건영	1998. 9. ~ 2001. 2.	과장	권선영	2019.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권건영	2001. 3. ~ 2002. 8.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정재홍	1960. 9. ~ 1989. 9.	강유나	2002. 3. ~ 2020. 8.
장은숙	1972. 8. ~ 2001. 8.	오훈규	2003. 3. ~ 2004. 2.
노락균	1981. 3. ~ 1984. 12.	최미선	2005. 3. ~ 현재
이상숙	1981. 3. ~ 2017. 8.	권선영	2005. 3. ~ 현재
권건영	1983. 3. ~ 1985. 2.	정혜라	2010. 3. ~ 현재
	1988. 5. ~ 2017. 8.	황일선	2012. 3. ~ 현재
채종민	1985. 5. ~ 1988. 2.	이혜원	2017. 3. ~ 현재
박관규	1990. 9. ~ 2004. 8.	신형찬	2020. 3. ~ 현재
김상표	1992. 5. ~ 현재		

교실사

병리학교실은 동산기독병원부터 시작하여 1930년부터 근무하던 병리기사 문영복 선생이 1958년 과장을 맡으면서 병리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병리기사 양성을 위해 당시 부과장이었던 박희양 선생이 국내 최초로 미국식 병리기술학교를 설립하여 병리기사를 양성하여 병리과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60년 9월 마포화열 원장의 초청으로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수련받은 정재홍 교수가 과장으로 임명되고 병리 검사를 위한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면서 현대적인 병리과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1981년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1981년 3월 교실이 개설되었으며 정재홍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초창기 교수진은 정재홍, 장은숙, 이상숙 교수였고, 경북의대 손태중, 파티마병원 문세광 박사, 영남의대 김정숙 교수, 서울의대 지제근 교수, 미국에서 온 최성식 박사 등이 학생 교육을 위해 출강하였다. 이들 교수진이 병리 조직 표본 및 육안 조직 자료정리, 실습 및 강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동산병원 병리과의 풍부한 실습 자료는 이후 병리학실습 교과목의 학생 교육 자료로 사용되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80년 10월 정재홍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장에 피선되어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의과대학 초대 학장 및 3대 학장을 역임하면서 의과대학 기초를 견고히 다졌다. 1983년 권건영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투과 및 주사현미경과 보조 장비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춘 중앙전자현미경실을 설치하였다.

1989년 9월 14일 정재홍 교수가 계명대학교 35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된 '89 계명대학교 히말쭈리 등정'의 등반대장으로 히말쭈리 등정 도중 고산증세로 소천함에 따라 전 계명인과 각계각층 많은 이들의 깊은 애도 가운데 9월 26일 계명대학교장으로 임수되었다.

1990년 박관규 교수, 1992년 김상표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1997년 이상숙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1997년 10월 장은숙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장에 피선되었다. 2002년 강유나 교수가, 2003년 오훈규 교수가 임용되었다. 2003년 이상숙 교수가 대한병리학회 부회장에 피선되어 학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였다.

2004년 오훈규 교수와 박관규 교수가 대구가톨릭의대로 이직하였다. 2005년 최미선, 권선영 교수가 임용되었다. 2007년 권건영 교수가 동산병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 김상표 교수가 동산의료원 기획정보처장으로 임명되어 의료원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2009년 2월 동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인 체자원 지역거점은행으로 선정되어 권건영 교수가 거점은행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2010년 정혜라 교수, 2012년 황일선 교수가 임용되었다. 2013년 2월 김상표 교수가 제19대 학장으로 임용되어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였고 2015년 2월 제20대 학장으로 연임하였다. 2014년 권건영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장 및 아시아 폐병리학회장으로 취임하여 국내외적으로 학회의 위상을 높였다. 2015년 권건영 교수가 대한의학회

부회장 및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되어 의사 권익 발전에 기여하였다. 2015년 최미선 교수가 의과대학 교수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황일선 교수가 의과대학 의학정책실장으로 임명되어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2016년 권선영 교수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의예과 행정 및 교육을 위해 봉사하였고 같은 해 권건영 교수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 김상표 교수가 대한병리학회 대구·경북 지회 대표 및 대한병리학회 신경병리연구회 대표로 선출되어 기관의 위상을 높였다.

2017년 이해원 교수가 임용되었고, 같은 해 8월 이상숙교수와 권건영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2018년 강유나 교수가 의과대학 의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헌신하였다. 2020년 김상표 교수가 대한병리학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어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학회 발전에 힘썼다. 2020년 황일선 교수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및 교육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정혜라 교수가 교수연구지원센터장으로 임용되었다. 2020년 신형찬 교수가 임용되었고, 같은 해 8월 강유나 교수가 경북의대 법의학교실로 이직하였다. 2021년 최미선 교수가 동산병원 연구부장으로 임명되어 병원 연구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1977년 처음으로 이상숙 교수가 전공의로 선발된 이후 2021년 10월 현재까지 23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현재 3명의 전공의가 수련 중이다.

현재 교원 7명, 전공의 3명, 임상병리사 1명, 조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병리학및실습>, <법의학>을 담당하였고 2007학년도부터 임상 교과목 통합강의가 추가되었다. 2014학년도부터 기존 현미경으로 슬라이드를 관찰하던 병리학실습 수업에 virtual microscope system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실습실 외 공간 제약없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학과 4학년 <병리학실습> 임상실습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있어서 병리과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환자 진료에 다학제적 개념을 가지고 더욱 더 면밀히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병리학강의및실습>이 2019학년도부터 의예과 2학년에 기초통합교과목인 <의학기초와질병(2)>, <기초의학통합실습(2)>으로 개편되었다.

대학원교육으로 신경병리학, 신장병리학, 종양병리학, 간병리학, 산부인과병리학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연구

병리학교실은 1983년 전자현미경 도입을 기점으로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한 실험 연구를 통해 외과병리학과 연관된 원저 및 증례보고와 면역조직화학적 기법 및 분자병리학적 방법을 이용한 각종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논문과 학술발표를 수행하였다.

2021년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디지털 병리 기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에 병리학교실 교수 전원이 공동 연구자로 최신 디지털 병리 부분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수의 연구 활동으로 김상표 교수는 단행본 2권, 연구비 6건, 수상 2건, 총 논문 165편, 학술발표 78회 등의 연구업적이 있다. 주요 연구는 종양세포에서 CpG island 메틸화와 연관된 XAGE-1 유전자의 활성화, 산발성 수막종에서 변성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NF2 유전자변이 분석, Hirschsprung's병의 직장 생체검사에서 acetylcholinesterase 조직화학 및 calretinin 면역조직화학을 이용한 진단의 정확도 분석 등이 있다.

최미선 교수는 저역서 5권, 수상 1건, 총 논문 79건의 연구업적이 있으며, 주요 연구는 'Enhancement of docetaxel-induced cytotoxicity by blocking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and cyclooxygenase-2 pathways in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head and neck'(Clin Cancer Res)와, 'Prognostic Significance and Nature of Rhabdoid Features in Renal Cell Carcinoma'(Korean J Pathol)가 있다.

권선영 교수는 저역서 2권, 연구비 3건, 수상 2건, 총 논문 83건, 학술발표 47회, 초청 강연 6회의 연구업적이 있다. 주요 연구는 침윤성 유방암종에서 종양탐식세포의 예후적 바이오마커로의 역할(Journal of Breast Cancer)과 침윤성유방암종의 신경내분비 분화와 호르몬 리셉터 발현 및 생존율 감소에 대한 연구(Histopathology)가 있다.

황일선 교수는 저역서 1권, 연구비 3건, 총 논문 85건, 학술발표 90회의 연구업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수정된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폐선암종의 예후인자에 관한 연구와 비소세포폐암종 환자에서 종양연관대식세포, 혈관 생성, 림프관 생성 인자들의 예후 예측과 관련된 인자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정혜라 교수는 저역서 1건, 연구비 4건, 수상 1건, 총 논문 58건, 학술발표 87건의 연구업적이 있다. 주요 연구로 Kikuchi-Fujimoto disease에서의 면역학적 발현(Histopathology)과 한국에서 악성림프종의 분포연구(Journal of Hematopathology)가 있다.

이혜원 교수는 연구비 1건, 수상 1건, 총 논문 46편, 학술발표 6회의 업적이 있다. 주요 연구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에서 보조 화학방사선 요법의 항암 면역요법 반응성과 연관된 바이오마커의 변형(Journal for Immuno Therapy of Cancer)과 간세포암에서 GPR81 발현의 임상병리학적 의의가 있다.

신형찬 교수는 저역서 1권, 연구비 2건, 연구보고서 1건, 총 논문 24건, 학술발표 9회의 연구업적이 있다. 주요 연구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이 있다.



2017년 8월 <이상숙, 권건영 교수 정년퇴임식>

○분자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박종구	2001. 3. ~ 2009. 1.	주임교수	이윤한	2018. 9. ~ 2020. 8.	주임교수
장병철	2009. 2. ~ 2018. 8.	주임교수	김지인	2020. 9. ~ 현재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종구	2000. 3. ~ 2009. 1.	김지인	2014. 3. ~ 현재
장병철	2005. 3. ~ 현재	이윤한	2016. 3. ~ 현재

교실사

분자의학교실(구. 의학유전공학교실)은 2001년 3월 개설되어 박종구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2005년 3월 장병철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2009년 박종구 교수의 사직으로 장병철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장병철 교수는 현재 비만, 암 관련 유전자, 단백질 탐색 및 기능 규명과 분자 조절제 개발, 그리고 인체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시험 평가 및 대응소재 발굴, 사람 지방줄기세포, PDRN 기반 재생의학 및 세포치료제 개발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2014년 3월 김지인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현재 비만, 신장 허혈, 안지오텐신 II-infusion 동물 모델,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 동물 모델에서 신장과 혈관 기능 이상에 의한 고혈압 발생 기전과 치료 전략에 관해 연구 중이다. 최근에는 비만 동물 모델에서 소장 내의 미생물군집 및 대사체의 변화와 고혈압 발생기전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2016년 3월 이윤한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간암을 주 대상으로 치료용 신약 표적 유전자 발굴, 종양미세환경 내 암 대사와 암 줄기세포 성장 조절 유전자의 신규 기능 규명, 분자 항암제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의예과에 <세포와질병>, <세포의분자적이해>, <유전자의이해와활용>, <인체의이해>, <유기화학과 생명체>, <기초화학의이해>, <과학적사고와추론>, <건강한노화>, <인체의구조와기능>, <인체일반화학>, <인체생물학>이 있다. 의학과에 <동물실험모델을통한질병의이해>, <의과학연구기법및응용>, <마지막까지인간다운삶>, <의료정보학>, <종양학>, <의료윤리>, <의료경영>, <의학연구>가 있다. 교양과목으로 <생체인공지능과미래사회>가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기초의학공통수업, 의학연구방법론, 분자생물학세미나, 인간유전체학, 유전자치료벡터학, 분자치료학세미나, 분자진단학세미나, Advanced Molecular Biology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사 3명, 석사 9명을 배출하였으며 2021년 현재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3명, 석박사통합과정에 1명이 재학하고 있다.

연구

장병철 교수는 비만치료제, 항암제, 신약재창출, 피부(광)노화 개선제, 초미세먼지 인체 유해성 및 대응 소재 개발, 인체 지방조직, 태반, 제대혈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 및 세포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Anti-growth and pro-apoptotic effects of dasatinib on human oral cancer cells through multi-targeted mechanisms' 등이 있다. 김지인 교수는 고지질 식이에 의한 지방조직의 염증화와 고혈압 발생 억제를 위한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 억제제의 이용 연구, myeloid 계통 면역세포의 exocyst component Sec10 결손이 조직으로의 면역세포 침윤과 염증에 의한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전략 연구 등의 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 'Inhibition of HDACs(Histone Deacetylases) ameliorates high-fat diet-induced hypertension through restoration of the MsrA (Methionine Sulfoxide Reductase A)/hydrogen sulfide axis. Hypertension' 등이 있다. 이윤한 교수는 암 생물학, 치료 표적 유전자 규명, 분자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세포주기 촉진인자 Wee1 kinase의 암줄기능 조절 기전 규명 연구, 간암 및 대장암 치료 표적으로서 CALM2 및 RPL17 유전자들의 신규 기능 규명 연구, 암 발생 원인 유전자 WEE1의 신규 기능 규명 및 분자치료법 개발, COP1의 암대사 관련 신규 기능 규명 및 표적 저해제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 'Disruption of the Myc-PDE4B regulatory circuitry impairs B-cell lymphoma survival. Leukemia 2' 등이 있다. 교실 전체 교원은 2021년 현재까지 국내전문학술지에 3편의 논문과 국제전문학술지에 14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봉사

장병철 교수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원, 미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원, 대한비만학회 회원, Oncology Reports Mediators of Inflammation, Biochemistry and Cell Biology, DNA and Cell Bi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 계명대의학술지 편집위원 및 메디폼 동아리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인 교수는 대한신장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약리학회 정회원,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와 Frontiers in Bioscience-Landmark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연구지원센터 의학실험동물실장, 통합의학교육위원회 위원,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윤한 교수는 한국세포생물학회 기획운영위원, 사무총장, 상임고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기획운영위원, 재무운영위원, 한국단백체학회 기획위원장,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보문위원회 위원,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사무총장, 대한암예방학회 학술부위원장,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운영위원, 사업운영위원, 재무운영위원, 편집위원, 총무위원, Journal of Cancer Treatment and Research와 Technology in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0월 앞줄 왼쪽 김지인, 장병철, 이윤한 교수

○ 생리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채의업	1981. 3. ~ 1993. 2.	주임교수	송대규	2012. 3. ~ 2016. 2.	주임교수
박원균	1993. 3. ~ 1996. 12.	주임교수	배재훈	2016. 3. ~ 2018. 2.	주임교수
배재훈	1997. 1. ~ 1998. 2.	주임교수 직무대리	송대규	2018. 3. ~ 2020. 2.	주임교수
박원균	1998. 3. ~ 2008. 2.	주임교수	임승순	2020. 3. ~ 현재	주임교수
배재훈	2008. 3. ~ 2012. 2.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채의업	1981. 3. ~ 1993. 2.	송대규	1995. 5. ~ 현재
박원균	1985. 3. ~ 1988. 2.	임승순	2012. 3. ~ 현재
	1991. 5. ~ 2011. 2.	박재형	2015. 3. ~ 현재
배재훈	1994. 5. ~ 현재		

교실사

생리학교실은 1981년 개설되어 경북의대에 재직하던 채의업 교수가 주임교수로 부임하면서 당시 동산간호전문대학 1층에서 생리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교수 인력 부족으로 영남의대 이석강 교수, 경북의대 박재식, 이원정 교수가 외래교수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1982년 박원균 교수, 1986년 배재훈 교수, 1987년 송대규 교수가 각각 조교로 임명되었다. 1993년 채의업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였고, 1991년 박원균 교수, 1994년 배재훈 교수, 1995년 송대규 교수가 임용되어 연구 및 학생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11년 박원균 교수가 생리학교실에서 의학교육학교실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2010년 임용의 교수는 서울의대 정년퇴임 후 기초교수요원으로 5년 동안 학생 교육에 임하였다.

2012년 임승순 교수, 2015년 박재형 교수가 임용되어 연구 및 학생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21년 엄기상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교수 4명, 연구강사 1명, 임상병리기사 1명, 조교 1명, 박사 후 연구원 4명, 석사 후 연구원 3명, 학사 연구원 1명, 대학원생 3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1981학년도 <생리학> 강의는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 96시간과 실습 96시간을 하다가 2010학년도까지 강의 시간이 점차 증가하여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15주 50시간을,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신경생리학(10시간)을 제외한 부분을 9주 117시간에 걸쳐 강의 및 실습을 하였다. 의학과 2학년 및 3학년에 현재까지 임상의학 통합 강의(8교과목, 42시간)에서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요약 강의하였다.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9학년도 의예과 2학년에 <인체의구조와기능(1),(2),(3)> 및 <기초의학통합실습(1)>을 17주 105시간, 의학과 1학년에 생리학및실습을 18주 8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2020학년도부터는 의예과 1학년에 <인체의물리적이해>를 16시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의예과 2학년에 <인체의구조와기능(1),(2),(3)> 및 <기초의학통합실습(1)>을 18주 29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생리학교실원 제도는 1회 입학생부터 현재 41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학습과 토론 뿐 아니라 실험실습 시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방학을 이용한 연구에도 참여하여 학생연구논문을 전국 학생학술발표대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1990년부터는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이 참여하는 ‘인체생리학’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개정판을 내어 이를 통해 생리학에 대한 지식과 수기의 이해를 증진했고, 현재까지 매년 새롭게 개정된 ‘인체생리학(교문사)’, ‘Guyton & Hall의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등의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에 활용하였다. 실습과목인 <기초의학통합실습(1)>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생리학 실습, 시청각 교재, Problem-Based Learning 및 Team-Based Learning을 활용하여 중요한 생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효과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CPX) 및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s(OSCE) 형식의 실습시험(정맥채혈, 혈압측정, 심전도측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의 실습 항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생리학 기초이론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생리학실습(E-Learning)을 활용하여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 인체의 세밀한 조절 과정을 관찰하고 상황별로 반응하는 인체의 조절 기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학원교육으로 석사과정에서는 의학연구자 및 의학교육자로서 기초자질 양성에 중점을 두고 인체생리학 전반에 걸친 지식 및 실험에 필수적인 원리 및 수기를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박사과정에서는 의학 연구 및 의학교육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생리학 분야의 첨단기법인 분자생물학, 전기생리학의 응용 기술과 생리학의 최신 전문지식을 익혔다. 2006학년도부터는 매주 1회씩 대학원생이 모여 각자가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논문 등을 발표, 토론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사 14명, 석사 26명을 배출하였다.

연구

채의업 교수는 운동부하 및 한랭 자극 시 심혈관계 반응(1981~1984년),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과산화수소의 효과(1983~1986년), 체위 변동에 따른 심혈관계 및 내분비계 반응(1985~2004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박원균 교수는 운동 시 최대산소섭취량과 심박출량(1987~1994년), 폐 이식 실험 견에서 이식 폐의 기능 평가(1993~1996년), 장기간의 두부 하위를 통한 모의 무중력 하에서 심방이노 호르몬의 변동(2000~2004년) 연구를 수행하였다. 배재훈 교수는 신경세포의 상해기전 및 보호 효과에 관한 전기생리학적 기능(1995~2004년), 자궁 근종 세포의 성장억제에 관여하는 세포내 칼슘 신호 조절 기전(2004~2005년), 화학 예방제의 세포 보호 작용 기전 및 세포 내 칼슘 신호 조절 기전(2002~2011년), 미세아교세포 활성화 억제제를 통한 신경세포 보호 물질(2002~2021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송대규 교수는 ATP-민감성 칼륨 통로(1995~2000년), 췌장베타세포와 당뇨병(2001~2010년), 개구리 난자를 이용한 이온채널의 특성(2002~2009년), 알코올 흡수억제제 및 간보호제 개발(2012~2017년), 비만 및 인슐린 감수성 조절 기전(2015~2021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임승순 교수는 대사증후군에서 SREBP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유발 조절 기전(2012~2015년), ER stress에 의한 염증 매개 지방간 형성 기전(2013~2017년), 백색지방세포의 갈색화 및 지방축적 조절 기전(2014~2021년), SREBP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질환 조절 기전(2019~2021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박재형 교수는 신경펩타이드 오렉신을 이용한 대사증후군 예방 및 치료제 개발(2015~2018년),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관계 규명 및 치료제 개발(2016~2019년), 뇌신경계망 3차원 구조 관찰 및 뇌 투명화 방법론(2018~2021년),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의 바이오마커 발굴 및 기전 규명(2019~2021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봉사

채의업 교수는 의과대학장과 대한생리학회장, 한국항공의학협회 및 항공우주의학회 창립 이사로 활동하였다. 박원

균 교수는 뇌연구소장, 대한생리학회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배재훈 교수는 한국커피학회 부회장, 의과대학 동물실험실장, 의학과 학과장, 동산의료원 기획차장, 기획정보처장, 대외협력처장, 경영지원처장, 의과학연구소장, 의과대학장을 역임하고, 대구광역시 인사위원, 한국항공우주의학회 이사 및 학술위원과 대한생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의과학연구소장과 의료인문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송대규 교수는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위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학학단 전문위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보문위원장, 비만매개 질환연구센터장,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의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생리학회 이사 및 한국생리학약리학회지 편집위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의원, 유럽생리학회지 Pflugers Archiv 편집위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의과대학장을 맡고 있다. 임승순 교수는 대한내분비학회 간행위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보문위원회 학술위원 및 기획위원, 한국세포생물학회 사무총장, 의과대학 공동기기실험실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생리학회 기획위원, 학술위원, 대사생리분과장 및 감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편집위원, 한국실험동물학회 편집위원 및 홍보위원,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 전문위원(RB),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과학연구소 간사와 생리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박재형 교수는 대한생리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2월 앞줄 왼쪽 임승순, 송대규, 배재훈, 박재형 교수

○ 생화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곽춘식	1982. 3. ~ 2001. 2.	주임교수	문교철	2007. 3. ~ 2014. 2.	주임교수
김여희	2001. 3. ~ 2007. 2.	주임교수	하은영	2014. 3. ~ 현재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곽춘식	1982. 3. ~ 2008. 2.	하은영	2008. 3. ~ 현재
김여희	1987. 3. ~ 2009. 8.	서지혜	2017. 3. ~ 현재
문교철	1993. 5. ~ 현재		

교실사

생화학교실은 1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개설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전임교원이 없어 경북의대 조준승, 정태호 및 곽춘식 교수가 생화학 강의와 실습 교육을 담당하였다. 1982년 3월 경북의대 생화학교실에 근무 중이던 곽춘식 교수가 임용되었고, 경희의대 조용호 교수가 대학 간 교류 교수로 1년간 근무하였다. 1986년 김여희, 문교철 교수가 조교로 임명되었고, 1987년 김여희 교수가 임용되었다. 초기 교육을 담당하였던 경북의대 조준승, 정태호 교수는 외래교수로 1990년대까지 강의를 하였다.

곽춘식 교수는 의과대학 설립 초기 OCEF 차관 기자재 도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초기 실험기자재로는 원심분리기, 천칭, 분광광도계 등과 약간의 초자기구가 전부였으나, OCEF 차관에 의한 실험기기 도입이 시작되어 전기영동장치, 냉동원심분리기, 크로마토그래프시스템 등 학생 실습 및 교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가 확충되었다.

1993년 문교철 교수가 임용되었다. 2008년 곽춘식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같은 해 하은영 교수가 임용되었다.

2009년 8월 생화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김여희 교수가 지병으로 소천하였다.

2017년 서지혜 교수가 임용되면서 2021년 현재 문교철, 하은영, 서지혜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박사 후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원, 행정, 교육 및 연구 보조가 학생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일반화학 및 유기화학을 포함한 기초과학, 세포의 기능, 세포, 조직 및 기관의 대사 작용, 조직 및 기관 간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생명 현상 등을 교육하고 있다. <생화학및실습>을 담당하였고,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인체의구조와기능(1)>, <대사와세포조절>, <유기화학과생명체>, <기초의학통합실습(1)> 등의 교과목에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분자세포생물학(1)>, <Writing Biomedical Research Papers> 등 연구 지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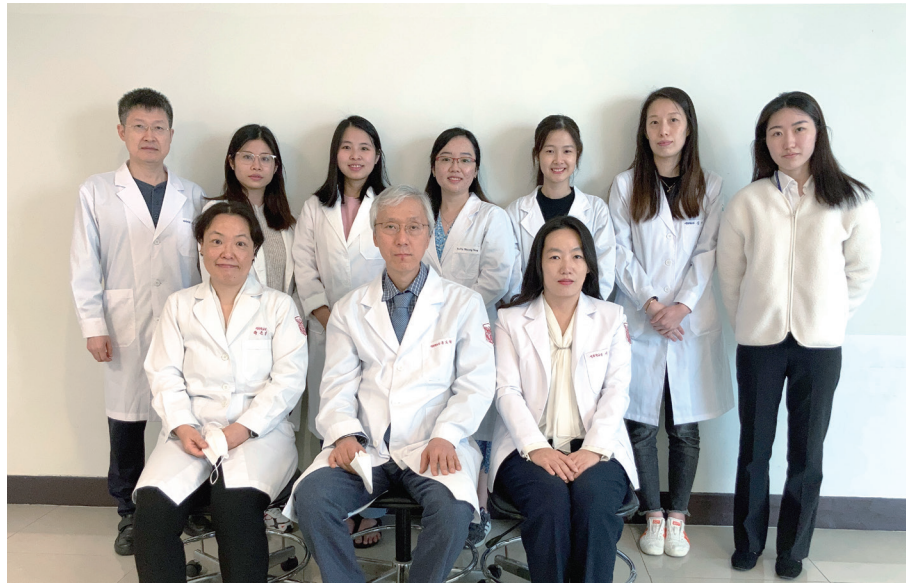
생화학교실은 생화학,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암, 뇌질환과 같은 다양한 인체의 질병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성서캠퍼스 새 병원은 최첨단 연구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학교실과 공동 연구를 통해 환자 샘플을 이용한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사 수술 동물 모델을 이용한 대사질환 기전 규명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연구,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암세포 특이적인 대사과정 규명 연구, 단백질 아세틸화, 탈아세틸화에 의해 조절되는 분자 기전 규명 및 제어 방법 발굴을 통한 암 및 뇌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 대사질환 및 암 발생에 관여하는 일탄소 대사과정 규명 및 기전 연구, 뇌질환에서 Blood-Brain Barrier(BBB) 보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연구분야로는 대사질환과 암에서의 일탄소 대사과정 기능 규명,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BBB 붕괴 기전 규명 및 BBB 보호 방법 개발, 단백질의 아세틸화, 메틸화 등에 의해 조절되는 새로운 분자 활성 기전 규명, 암 세포와 주변 세포들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암화 과정 조절 기전 규명, 암, 뇌질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 및 효능 검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봉사

생화학교실 교수들은 관련 분야 학회 임원, 해외 전문 분야 저널 편집위원, 타 대학 비상임이사, 국책연구과제 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문교철 교수는 태계장학재단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과장, 대학원 의학과 학과장,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정회원, 대한신장학회 정회원, 대한소화기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하은영 교수는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의과대학 공동기기실험실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서지혜 교수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 편집위원, 한국유전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2021년 12월 앞줄 왼쪽 하은영, 문교철, 서지혜 교수

○ 약리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수경	1986. 3. ~ 2009. 8.	주임교수	장정희	2019. 9. ~ 2020. 2.	주임교수
이성용	2009. 9. ~ 2019. 8.	주임교수	이성용	2020. 3. ~ 현재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수경	1985. 3. ~ 2020. 2.	장정희	2011. 3. ~ 현재
이성용	1997. 3. ~ 현재		

교실사

약리학교실은 19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개설되었으며, 전임교원이 임용되기 전에는 경북의대 김종석, 김중영 교수, 영남의대 이광윤 교수가 외래교수로 교육을 담당하였고, 실습교육은 경북의대 약리학교실에서 담당했다. 당시 생리학교실 주임교수였던 채의업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아 교실을 이끌었다. 1985년 3월 교실의 첫 전임교원으로 고려의대를 졸업한 김수경 교수가 임용되었다. 실험 기자재로는 염광도계와 physiograph 및 약간의 학생 실습용 기자재가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 후 1987년초 HPLC 시스템 등이 구비되고 이 기자재로 혈중 및 뇌 조직 내 카테콜아민을 측정하면서 중추신경계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9년 우리대학 5회 졸업생 이성용 교수가 조교로, 1992년 연구강사로, 1997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1992년 우리대학 8회 졸업생 박창교 선생이 조교로, 1995년 연구강사로 임용되었으며, 1997년 군입대로 사직하였고, 현재 건양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1년 서울약대를 졸업한 장정희 교수가 임용되었고, 2020년 김수경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1993년부터 내자 및 외자 도입으로 분자생물학적 연구의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멸균기, 전기영동장치, PCR 시스템, 흡광도 및 형광측정 시스템, 암실, 인큐베이터, 무균시험대, 세포 배양실, 고배율 현미경, 조직절편기, laser Doppler flowmetry,

stereotaxic 장비, 동물행동실험 분석시스템 등을 완비한 분자신경약리학 실험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전 학년에 걸쳐 통합교과목에서 약리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과거 <약리학및실습>의 강의는 72시간, 실습은 48시간이었다.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인체의구조와기능(1),(2),(3)>, <의학기초와질병(3)>, <기초의학통합실습(2)>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강의는 Katzung의 'Basic & Clinical Pharmacology'를 주교재로 사용하며, 대한약리학회에서 편집한 '약리학실습'을 실습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건강한노화>와 <신기술의약품개론>을 신규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 간호학과 개설 당시부터 약리학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편입생의 약리학 수업도 담당하였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및 폭넓은 관련 의학지식을 토대로 약물의 약리작용과 기전, 치료응용, 부작용 및 독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내분비약리학, 독물학, 면역약리학, 생화학적 약리학, 순환기약리학, 신경약리학, 신약의개발 등 총 16개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원의 전문간호사과정 수업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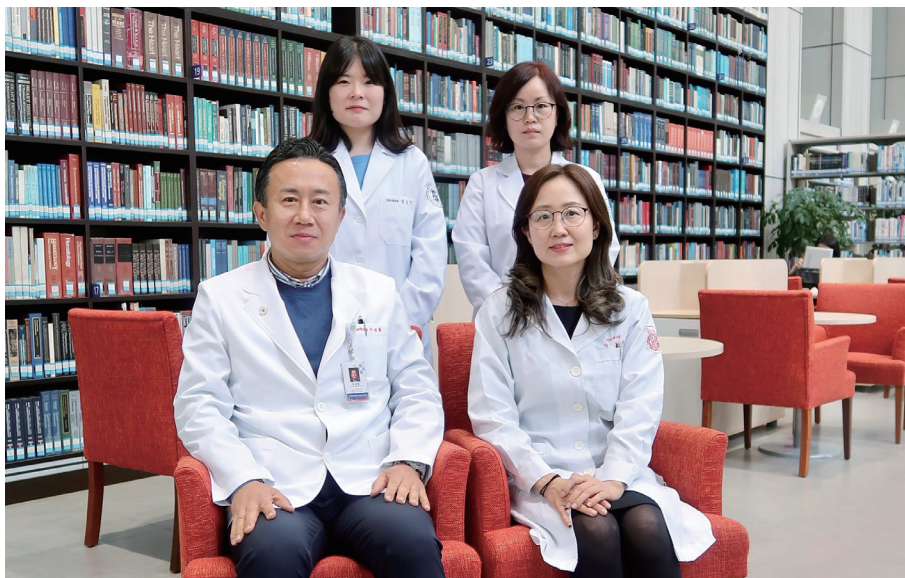
연구

약리학교실은 신경질환에서 신경조직 손상과 보호 기전 연구, 중추신경 약리학 연구, 치매 관련 신경 손상 및 보호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여러 우수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시행하여 in vitro 및 in vivo 뇌졸중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혈성 신경 손상 및 보호 방편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신경세포 상해기전 및 방어기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간질 및 신경 상해로 인한 여러 질환의 발병기전을 알아보며 그 연구 결과를 뇌신경학계 및 약리학계에 발표하고 있다. 간질 뿐만 아니라 허혈성 뇌신경 손상 및 퇴행성 신경질환의 신경세포 손상 기전이 라 할 수 있는 흥분성 신경독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규명하며 이러한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치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경 손상의 치료의 근간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 외 퇴행성 뇌질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신경세포-동물 모델을 활용하여 뇌 기능 변화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 및 치료 후보 물질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분자생물, 약리학적 분석 기술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신규 표적 및 위험인자를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확립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봉사

김수경 교수는 대구공동임상연구윤리위원회 위원과 대구시여의사회 감사로 활동하였으며, 2018년 4월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 표창장을 받았다. 이성용 교수는 뇌연구소장,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 핵심연구원, 국제의료연구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 및 자문위원, 한국뇌신경학회 이사 및 대의원, 경북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약리학회 이사, 회원 위원장 및 학술위원, 한국발달장애학회 대의원, 한국뇌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장비심의위원 및 징계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약리분과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02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대구광역시여의사회 학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장정희 교수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편집위원과 홍보위원,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사업간사 및 이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성전문인력 평가위원, 대경바이오포럼 재무간사,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소식지 편집위원과 국제협력위원, 대한약리학회 대회협력위원 및 국제협력위원회위원, 고려인삼학회 학술위원,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동산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전문간사,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및 Archives Pharmacal Research 국제학술지 부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2월 앞줄 왼쪽 이성용, 장정희 교수

○ 예방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윤능기	1981. 3. ~ 1992. 8.	주임교수	신동훈	2008. 1. ~ 2012. 2.	주임교수
서석권	1992. 9. ~ 2002. 8.	주임교수	이중정	2012. 3. ~ 2016. 2.	주임교수
이충원	2002. 9. ~ 2004. 5.	주임교수	이미영	2016. 3. ~ 2020. 2.	주임교수
신동훈	2004. 6. ~ 2005. 8.	주임교수	김재영	2020. 3. ~ 현재	주임교수
이충원	2005. 9. ~ 2007. 12.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윤능기	1981. 3. ~ 1994. 2.	이미영	2001. 3. ~ 현재
이성관	1983. 3. ~ 1988. 2.	이중정	2001. 9. ~ 현재
서석권	1985. 3. ~ 2003. 8.	정인성	2006. 3. ~ 2020. 4.
이종영	1991. 3. ~ 1993. 2.	은상준	2009. 9. ~ 2011. 8.
이충원	1994. 3. ~ 2007. 12.	김재영	2010. 9. ~ 현재
서영준	1994. 9. ~ 1996. 8.	배상근	2017. 9. ~ 2020. 2.
신동훈	1994. 9. ~ 2020. 2.	우형택	2021. 9. ~ 현재

교실사

예방의학교실은 1981년 개설되었다. 윤능기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1983년 이성관 교수, 1985년 서석권 교수가 임용되었다. 초대 주임교수였던 윤능기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장, 대구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부회장, 건강진단센터소장으로 활동하였다. 1988년 이성관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1991년 이종영 교수가 임용되었다. 1992년 서석권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용되었고, 1993년 이종영 교수는 경북의대로 이직하였다. 1993년 노동부로부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산업보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윤능기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이충원, 신동훈, 서영준 교수가 임용되었다. 이무식 선생은 우리대학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 후 1994년 연구강사로 근무하다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 산업의학연구소로 이직하였다. 1996년 이미영 교수가 연구강사로 임용되었고, 대구암등록소(TCR) 사업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새로 발생하는 암환자를 등록하기 시작하여 2007년 대구·경북지역암등록본부 지정이 되기전까지 사업을 수행하였다. 서석권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대구·경북지회장, 대한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장으로 봉사하였으며, 2001년 대한예방의학회장에 선출되었다. 2001년 이미영, 이중정 교수가 임용되었고, 2002년 이충원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사업에 참여하였다. 2003년 서석권 교수가 정년퇴임하고, 2004년 신동훈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2004년 임현숙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었고, 교실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보건의료정보 정보전략 계획수립 사업, 대구광역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2005년 양진훈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었으며 이충원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2005년 한국유전체역학조사(KoGES) 농촌 기반 코호트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정인성 교수가 임용되었고, 2007년 이충원 교수가 사직하면서, 2008년 신동훈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당시 교실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의 지역사회 국민건강조사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작업안전 모델 시범사업,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9년 은상준 교수, 전미정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었고, 2010년 김재영 교수가 임용되었다. 2009년 심뇌혈관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2012년 이중정 교수가 주임교수로, 2013년 신동훈 교수가 부학장으로, 2014년 최영철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명되었다. 2013년 중앙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 사업에 참여하였고, 2014년 울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산업안전공단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위탁 운영도 시작하였고, 2015년 경상북도 건강생활 톤 육성 컨설팅 사업, 남부권역 화학물질에 의한 암 발생 관리체계 운영사업을 수행하였다. 2016년 이미영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용되었고, 2017년에는 배상근 교수가 임용되었다. 2016년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7년 산업안전공단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분소(달서, 달성) 위탁 운영사업을 수행하였다. 2019년 산업안전공단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였다. 2020년 우형택 교수가 우리대학에서 연구강사로 근무하다 2021년 교수로 임용되었고, 김영애 교수가 기초교수요원으로 임용되었다. 현재 예방의학교실에는 이미영, 이중정, 김재영, 우형택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예방의학은 환경 및 직업의학, 역학 및 의료정보학, 의료 관리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방의학과 관련된 제반 지식을 습득,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담당 교과목으로 <의학연구입문(2)>, <의학기초와질병(2)>, <의료정보학>, <의료인문(3), (4)>, <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 <예방의학실습>, <보건의료법규>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수련 기간 동안 역학, 산업보건, 보건관리 세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학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차는 예방의학의 전반적인 기초지식 습득을 위하여 실험실 기본 기술 습득, 통계 패키지 교육, 임상 교육하고, 2년차는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추어 도시에 산업의학 실무 교육으로 특수건강검진에 참여한다. 3년차는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및 전공과목을 교육한다.

연구

예방의학의 연구 분야는 역학, 산업의학, 보건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학술지 236편, 국제학술지 14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저서 11권을 출간하였다.

1980년대에는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와 금호강 하상의 저질 중에 함유된 중금속의 오염원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1990년대에는 산업의 발달로 산업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기용제에 폭로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연구와 모자보건 관리와 관련된 연구인 영유아 모유 수유 중단, 양상과 모유 수유 중단과 관련된 예측변수를 찾아내는 추적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암등록사업과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병원 종사자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참여하였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위탁 운영 사업 등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미영 교수는 2020년부터 농촌 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 조사를 수행 중이며, 이중정 교수는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울산권역 책임교수를 맡아 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 외 대구광역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의 지원과 평가 연구,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보험재정 효율화 방안, 보건기관 정보화 ISP 수립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재영 교수는 일본 방사능영향연구재단(RERF)과 협력하여 원폭 생존자 코호트에서 방사능 노출

로 인한 각종 암 발생 위험도 연구, 소방청, 국립암센터와 함께 소방공무원 순직 공상 입증지원에 관한 연구, 세계보건기구 연구자들과 함께 장시간 근무와 우울증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형택 교수는 대장암, 위암 등의 암 역학 연구, 암 발생률, 암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등의 지표를 이용한 지역 간 건강 격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봉사

이미영 교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증정 교수는 대구시의 감염병 민간역학조사관, 총괄 방역대응반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 중이며, 의과대학 부학장, 교육부학장으로 대학의 교육체계 개편, 인증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재영 교수는 국내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한 작업자와 주민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위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위원회 위원으로, 동산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대내외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형택 교수는 학생 지도와 각종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1월 왼쪽 우형택, 이미영, 김재영, 김영애, 이증정 교수

○ 의료인문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황진복	2013. 3. ~ 2013. 8.	주임교수	이중정	2019. 9. ~ 2021. 8.	주임교수
신동훈	2013. 9. ~ 2017. 8.	주임교수	배재훈	2021. 9. ~ 현재	주임교수
백원기	2017. 9. ~ 2019. 8.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윤경일	2014. 3. ~ 2020. 2.

교실사

의료인문학교실은 의학의 인간 존중 가치 회복을 목적으로 2013년 1월 개설되었다. 초대 주임교수로 황진복 교수가 임명되었고, 강유나, 임만빈, 정인성, 김대현, 문교철, 하은영, 김윤년, 조원현, 윤경일, 김정범, 백원기, 김동은, 이성용, 이소영 교수가 의료인문 관련 교과목 책임교수로 임명되어 <법의학>, <의학면담>, <글쓰기기초>, <의료정보학>, <행동과학>, <의사학>, <의료경영>, <의학영어>, <의료윤리> 등 의료인문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2013년 9월 신동훈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의예과 및 의학과의 의료인문학 통합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의료인문학교실의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의료정보학교실 윤경일 교수가 2014년 3월 의료인문학교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의료인문 사례 개발 및 적용 등의 연구활동을 이어나갔다.

2015년 의료인문학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K-Circle을 운영하였다.

2017년 9월 백원기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의료인문학교실 독서토론회, 인문학IN문학, 북캉스 등 다양한

인문학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9년 9월 이중정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2020년 2월 윤경일 교수가 사직하였다.

2021년 9월 배재훈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COVID-19로 진행하지 못했던 교실 단위 활동 등을 재개하였고, 학생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인문 교육과정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교과목을 개편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의료인문학교실은 2013학년도 <의학면담>, <의학전공글쓰기> 등 15개 의료인문 교과목을 바탕으로 의료인문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8학년도부터 전 학년에 걸쳐 의료인문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2021학년도 계명인성교육원 및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와 협업을 통해 <더불어사는의사(1), (2), (3)> 교과목을 개발 중이다.

연구

의료인문학 통합교육과정의 개발을 시작으로 통합교육과정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이론 모형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연구해왔다.

의료인문학 통합교육과정 성과 및 평가방안 개발, 국내 의료인문학 교육 현황 분석 및 인성교육 강화방안 개발,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문학 탐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문학이 다양한 학문과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학문 체계와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인문을 통한 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의 관계성 고찰,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서의 죽음과 의학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봉사

의료인문학교실은 매년 의과대학 도서관 내 도서의 띠지를 제작하고 전시하는 ‘인문학IN문학’ 학생활동을 통해 의과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양서를 읽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학 중 하루 7~8시간 정도 자유 독

서와 영화감상 활동으로 이루어진 북캉스 학생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2021년에는 체험학습 후 에세이를 집필하여 환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도 하였다.



2021년 12월 <교실간담회> 이재호, 배재훈 교수

○ 의학교육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박우현	2003. 4. ~ 2005. 2.	주임교수	박원균	2011. 3. ~ 현재	주임교수
이상숙	2005. 3. ~ 2011. 2.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박원균	2011. 3. ~ 현재

교실사

의학교육학은 교육학 이론을 근간으로 의학교육 행위와 현상,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방법 등을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학교실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99년 12월 의학교육학교실이 개설되었다.

박우현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그 뒤를 이어 이상숙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았다.

2011년 3월 박원균 교수가 생리학교실에서 의학교육학교실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2010년 천경희 선생이, 2013년 박혜진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어 교실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의학교육학교실은 의학교육과정 개발과 의료인문 교육에 관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평가, 교수개발프로그램 운영, 학생생활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 효과가 높은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학 전공자와 함께 효과적인 교수법을 도출하고, 교수역량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인성교육실습>, <의사와리더십>, <의료윤리>, <의학과예술>, <공감과의사소통> 등의 교과목 수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인성교육실습>은 대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춘 의사상을 정립하도록 한다. <의사와리더십>은 장래 의사로서 전문직업성을 알고,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책무성을 찾도록 한다. <의료윤리>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를 기반으로 팀기반학습을 시행하여 문제해결력, 도덕적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향상한다. <의학과예술>은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예술적 경험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한다. <공감과의사소통> 수업은 다양한 공감 및 의사소통 관련 사례와 학습활동을 통해 동료 및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에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의학교육학교실은 교육의 설계, 성과, 방법, 평가, 환경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수의 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2010학년도 계명의대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 도출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의학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설계 기반 연구를 중심으로 한 2018~2019년 교과목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 및 개발 연구’를 통해 설계를 기반으로 한 교과목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선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2020학년도 의료인문 교육과정 성과 평가방안 개발’로 의료인문 관련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학교의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찾아보고, 교육과정에서 평가방법이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측정과 연계되는지 검토하였다. 학생 관련 연구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생의 학업 및 생활 관련 실태 조사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실습 포트폴리오 개발 및 개선 연구 또한 지원하였다.

학술논문으로 의학교육 적용 및 교육과정 이론모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15년 ‘융합인재 교육 이론모형 틀에 기반을 둔 통합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이론 모형의 제안’ 연구를 했으며, 2016년 ‘의과대학 통합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하였다. 의과대학생에게 효과적인 수업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인문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윤리 수업모형의 효과’ 연구를 제안하였다. 학생학술논문발표로 의과대학생의 학습전략을 분석하고 심리적 특성, 의과대학생에서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몰입의 관계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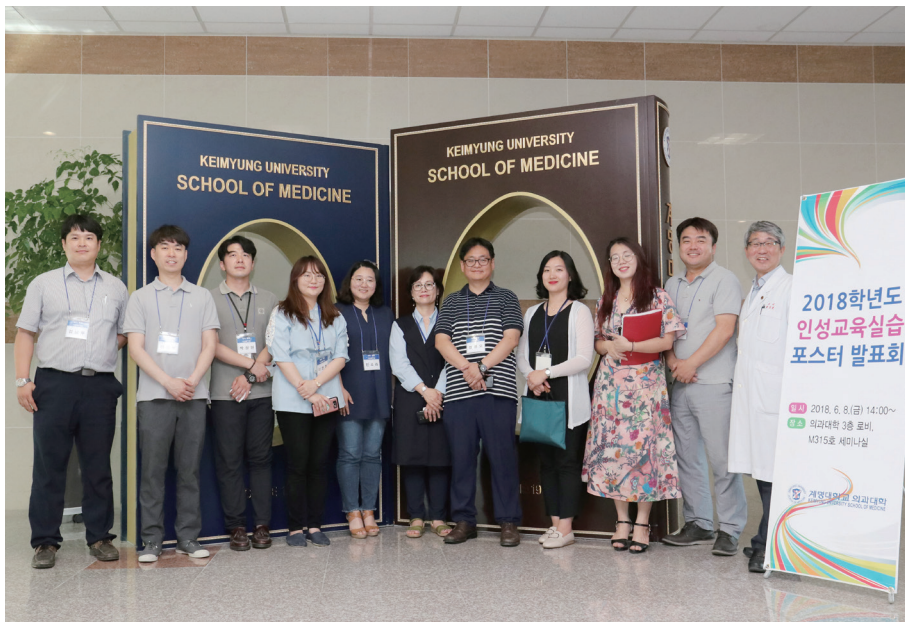
봉사

의학교육학교실은 2013년부터 <인성교육실습> 교과목에서 의예과 1학년의 봉사활동을 지원해왔다. 학생들은 지역사회복지관(가정복지관, 남산기독복지관, 동촌복지관, 황금복지관 등)에서 세대 방문 청소, 복지관 업무 보조, 학습지도,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 후에는 각 복지관의 소개, 주요 활동, 후기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발표하도록 하였다.

Good-Work Project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직장과 사회에서부터 국가와 세계까지 선한 영향을 전파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이 장래 의사로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는 ‘하루 한 번 칭찬하기’, ‘헌혈문화 퍼뜨리기’, ‘소외계층 학습지원’, ‘조깅하며 쓰레기를 주워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플로깅’ 등이 있었다.

또한 2009~2010년에는 이상숙 교수가, 2019~2020년에는 박원균 교수가 한국의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장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의 의학교육에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 박원균 교수는 한국의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인성교육실습 포스터 발표회> 박원균 교수

○ 의학유전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대광	2013. 3. ~ 현재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김대광	2013. 3. ~ 현재

교실사

의학유전학교실은 2013년 3월에 개설되었고, 김대광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의학유전학교실이 개설된 곳은 소수이나 의학유전학 분야의 발달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교실로 개설되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의학유전학과 인체 발생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의학유전학은 유전학과 관련된 기초 이론과 유전적 질환의 진단, 치료, 유전 상담 등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체 발생학, 장기 계통 기관을 형성하는 구조물들의 해부학과 조직학적 특성 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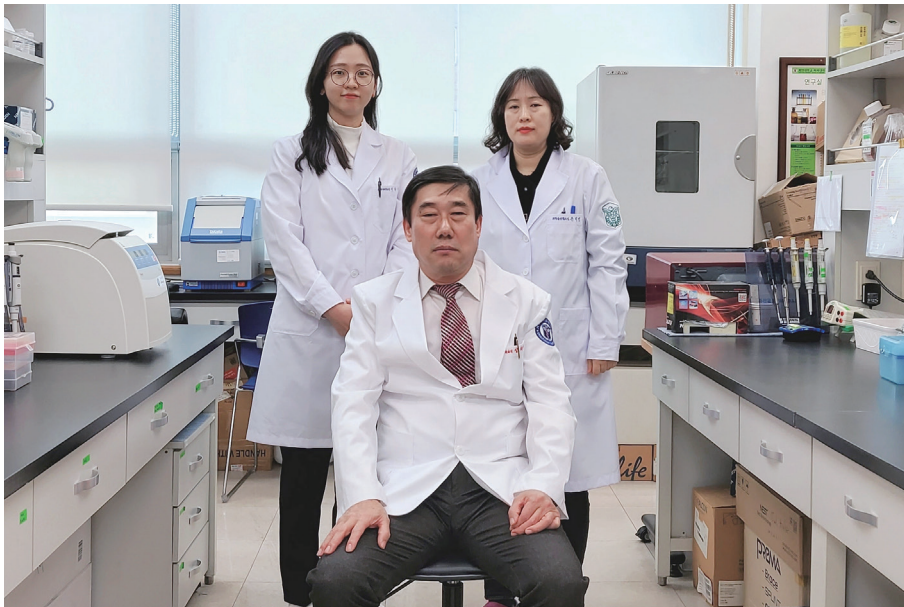
관련 내용을 <인체의구조와기능(1),(2),(3)>, <의학기초와질병(1)>, <기초의학통합실습(2)>, <유전자이해와활용>, <인체의이해>에서 교육하고 있다.

연구

2013년 교실 개설 이후, 김대광 교수는 DNA 다형성과 Telomere length 등 유전적 질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전문학술지 20편, 국외전문학술지 1편, 전국규모학술지 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봉사

김대광 교수는 대한해부학회 이사 및 용어위원회 위원, 대한체질인류학회 이사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계명대학교 업적우수상 수상 및 2021년 계명대학교 산학연구 우수교수에 선정되었다.



2021년 12월 앞줄 김대광 교수

○ 해부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장성익	1982. 9. ~ 1997. 3.	주임교수	김대광	2008. 9. ~ 2012. 8.	주임교수
이인환	1997. 4. ~ 2000. 5.	주임교수	최인장	2012. 9. ~ 2018. 8.	주임교수
최인장	2000. 6. ~ 2008. 8.	주임교수	이재호	2018. 9. ~ 현재	주임교수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장성익	1982. 9. ~ 1999. 2.	김대광	1996. 5. ~ 2013. 2.
최인장	1984. 3. ~ 2019. 8.	이재호	2015. 3. ~ 현재
이인환	1986. 5. ~ 2000. 6.	이현수	2016. 3. ~ 현재

교실사

해부학교실은 1981년 3월 의과대학 개교와 동시에 개설되었고 초대 주임교수로 장성익 교수가 임명되었다. 1984년 최인장 교수가 1986년 이인환 교수가 임명되었다. 1988년 우리대학 졸업생인 김대광 교수와 정용욱 선생이 조교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군입대로 사직하였고, 1991년 김홍태 선생이 조교로 임용되었다. 정용욱 선생과 김홍태 선생은 현재 동국의대와 대구가톨릭대의 해부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성익 교수는 1993년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1998년 대한해부학회장으로 선출되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학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1996년 김대광 교수가 임명되어 근무하다, 2013년 의학유전학교실이 개설되면서 소속이 변경되었다. 최인장 교수는 2011년 대한해부학회장에 선출되었고, 2015년 이재호 교수, 2016년 이현수 교수가 임명되었다.

교실 개설 후 조호철 기사와 손정희 기사가 교실의 업무와 행정을 보조하고 있으며, 조호철 기사는 2018년 정년퇴임하였다. 후임으로 임용된 김종완 기사는 2020년 동의과학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로 임용되어 사직하였고, 현재

는 이나운 기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구조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 바탕을 제공한다.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등의 교과목에서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였고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인체의구조와기능(1),(2),(3)>, <기초의학통합실습(1)> 교과목에서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교과목 강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임상교수와 전공의의 수술 및 술기 향상, 연구 논문을 위한 카데바 해부 연구와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 보건의료계열의 학생들에게 전공 체험학습을 교육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꿈을 가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인체와 해부학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인체에 대해 이해하고 생명의 경외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균형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교과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연구

해부학교실은 카데바 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계측 연구, 변이에 따른 통계적인 데이터를 인구표본의 데이터로 축적하고 교육에 접목하고 있으며, 축적된 인구표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임상에서 수술 및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 결과를 임상 적용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및 치료 기술)으로 전환하는 중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김대광 교수는 2006년 한국인의 귀지 유전자를 분석하여 Nature Genetics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이재호 교수는 2014년 대통령 Post-Doc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최인장 교수는 2016년 대한해부학회 최고상인 한국학술상 으뜸상을 수상하였다.

교실 구성원들은 매년 대한해부학회와 대한체질인류학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우수발표상 수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 1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며 해부학 연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봉사

해부학교실은 본교 입학처와 연계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적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체험 열린대학’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의학과 생명과학 진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학교인 광명학교의 학생들이 해부학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타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해부학실습 교육을 통해 받은 강의료를 매년 대학과 의료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재호 교수는 대한해부학회 학술위원회 간사 및 상임이사, 대한체질인류학회 상임이사, 의학교육평가사업단 기초 의학 종합평가 문항출제위원, Medicine, Translational Cancer Research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장, 태계장학재단 이사, 계명대학교 입학사정관, 대구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수 교수는 대한해부학회 정회원,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기억한다는 것’ 출판 이후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자 특강을 활발하게 있다.



2021년 3월 뒷줄 왼쪽 두번째 최인장 교수 앞줄 왼쪽 두번째 이현수, 이재호 교수

○가정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신동학	1989. 3. ~ 1994. 2.	주임교수 겸 과장	서영성	2005. 3. ~ 2009. 2.	주임교수 겸 과장
배정인	1994. 3. ~ 1995. 4.	주임교수 겸 과장	김대현	2009. 3. ~ 2013.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대현	1995. 5. ~ 1998. 5.	주임교수 겸 과장	서영성	2013. 3. ~ 2017. 2.	주임교수 겸 과장
서영성	1998. 6. ~ 1998. 11.	주임교수 겸 과장	김대현	2017. 3.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김대현	1998. 12. ~ 2005. 2.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신동학	1989. 3. ~ 1994. 2.	김대현	1995. 3. ~ 현재
배철영	1989. 3. ~ 1989. 6.	서영성	1997. 3. ~ 현재
	1991. 3. ~ 1994. 2.	이재혁	2021. 9. ~ 현재

교실사

1980년대 초부터 지역사회 일차진료인 가정의학과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88년 9월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가정의학교실이 개설되었고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의 신동학 교수가 소속을 변경하여 초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89년 3월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였고, 1989년 배철영 교수가 임용되었으나 미국 연수를 위하여 4개월간 근무 후 사직하였다. 1989년 강희철, 1992년 오진석, 1993년 김정희, 1994년 김대현, 하종성, 1995년 서영성, 전종찬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1991년 배철영 교수가 미국에서 노인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다시 임용되어 국내 첫 노인의학 전문의로 노인병 클리닉 운영을 시작하였다. 1994년 배철영 교수가 사직하였고, 마취통증의학

교실 배정인 교수가 제2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95년부터 김대현, 서영성 교수가 번갈아 가며 주임교수 겸 과장을 맡고 있다.

소아청소년과학을 전공한 신동학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장을 역임하고 가정의학 교과서를 감수 출판하는 등 가정의학 도입과 정착에 기여하였다.

김대현 교수는 1994년 연구강사로 근무하다 1995년 교수로 임용되었고, 1998년 일본 오카야마의대와 2015년 일본 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의학교육과 노인의학을 연수하였다. 1995년 금연 진료와 교육을 위해 금연 클리닉을 개설하였고, 2012년 대구에서 국제금연학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서영성 교수는 1995년 연구강사로 근무하다 1997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1999년 비만클리닉을 개설하였고, 2003년 미국 Louisiana State University Pennington Biomedical Research Center 연수를 다녀왔다. 2014년 비만대사수술센터 설립에 기여하였고, 2020년부터 대구동산병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홍승완 교수는 2014년 연구강사로 임명되었고, 현재 임상교수로 건강증진 분야의 연구와 건강증진센터 진료에 기여하고 있다.

이재혁 교수는 2021년 임용되어 대구동산병원의 호스피스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1990학년도부터 <가정의학>을 강의하였고,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건강과환경:가족과직업환경>에서 강의하고 있다. <가정의학실습>에서는 외래 참관, 근거중심의학 실습과 일차의료기관 방문 실습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임상수행훈련, 의료인문학 분야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은 외래와 원내외 임상과를 순환하면서 이루어지며, 주 5회의 집담회와 외래진료와 함께 병실에서 일차 진료에 필요한 학술 지식과 임상경험을 수련하고 있다. 임상 각과의 수련은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원외 파견 교육은 안동성소병원 등 모자병원 또는 자매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가정의학, 임상노인의학, 노화방지의학, 비만학, 담배와 건강, 의학면담 등 교재 편찬에 참여하였고, 매년 국내외 전문학술지와 학술대회에 각각 10편 내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대현 교수는 2017년 대한가정의학회와 2021년 대한임상노인의학회 학술상, 2020년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최우수논문상을 받았으며, 2019년부터 계명의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학술지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봉사

1994년부터 비만, 금연, 건강증진 분야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와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국외 의료 봉사에 참여하였다. 김대현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대경지회장, 국제금연학회장,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물과건강학회장,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원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영성 교수는 대한비만학회 무임소이사, 대한가정의학회 대경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구동산병원장, 계명대학교 보건진료센터장,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1년 12월 앞줄 왼쪽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 홍승완 교수

○ 내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도상희	1957. ~ 1970.	과장	송홍석	2002. 9. ~ 2004.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승국	1974. 7. ~ 1976. 12.	과장	박성배	2004. 9. ~ 2006.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영춘	1977. 1. ~ 1981. 2.	과장	권기영	2006. 9. ~ 2008.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영춘	1981. 3. ~ 1983.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윤년	2008. 9. ~ 2010.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승국	1983. 3. ~ 1990. 4.	주임교수 겸 과장	권기영	2010. 9. ~ 2012. 8.	주임교수 겸 과장
안성훈	1990. 5. ~ 1994. 6.	주임교수 겸 과장	황재석	2012. 9. ~ 2014.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현철	1994. 6. ~ 1996. 8.	주임교수 겸 과장	조광범	2014. 3. ~ 2016.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권배	1996. 9. ~ 1998.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경식	2016. 3. ~ 2018. 2.	주임교수 겸 과장
허정욱	1998. 9. ~ 2000. 8.	주임교수 겸 과장	한성욱	2018. 3. ~ 2020. 2.	주임교수 겸 과장
전영준	2000. 9. ~ 2002. 8.	주임교수 겸 과장	장병국	2020. 3. 1.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승국	1974. 3. ~ 2003. 8.	장병국	2006. 3. ~ 현재
안성훈	1976. 1. ~ 2009. 8.	황은아	2006. 3. ~ 2015. 8.
김현철	1978. 5. ~ 2012. 5.	류성열	2007. 3. ~ 2020. 3.
권영주	1980. 3. ~ 1984. 2.	김상현	2008. 3. ~ 현재
김약호	1980. 3. ~ 1984. 2.	김은수	2009. 3. ~ 2016. 2.
도재욱	1981. 3. ~ 1982. 2.	정치영	2009. 3. ~ 2016. 2.
신현구	1981. 3. ~ 1982. 2.	박형섭	2009. 9. ~ 현재
여운재	1981. 3. ~ 1982. 2.	조윤경	2009. 9. ~ 현재
김원호	1982. 3. ~ 1986. 1.	조호찬	2010. 9. ~ 현재
이정규	1982. 3. ~ 1985. 2.	김진영	2011. 3. ~ 현재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현성택	1982. 5. ~ 1983. 2.	박건욱	2011. 3. ~ 현재
권기영	1983. 3. ~ 1985. 2.	김미경	2011. 9. ~ 현재
	1988. 5. ~ 2019. 2.	윤혁준	2011. 9. ~ 현재
김권배	1983. 3. ~ 2017. 2.	김지민	2013. 3. ~ 현재
송홍석	1983. 3. ~ 2018. 2.	박재석	2014. 3. ~ 현재
김윤년	1984. 3. ~ 2018. 8.	김현아	2014. 9. ~ 현재
허정욱	1984. 3. ~ 2002. 2.	박우영	2015. 3. ~ 현재
전영준	1985. 5. ~ 2016. 2.	이윤석	2015. 3. ~ 2017. 2.
박성배	1986. 3. ~ 2020. 2.	이주엽	2015. 3. ~ 현재
윤덕구	1986. 3. ~ 1992. 2.	손창남	2015. 9. ~ 현재
이인규	1986. 3. ~ 2005. 3.	강성식	2016. 3. ~ 2018. 12.
강영우	1987. 3. ~ 2001. 2.	이유진	2016. 3. ~ 현재
김기식	1987. 3. ~ 2005. 9.	진규복	2016. 3. ~ 현재
박근용	1993. 3. ~ 1999. 8.	김인철	2017. 3. ~ 현재
한승범	1993. 3. ~ 2009. 2.	정창규	2017. 9. ~ 현재
박재호	1997. 3. ~ 2002. 5.	김현정	2018. 3. ~ 현재
황재석	1997. 3. ~ 현재	박순효	2018. 3. ~ 현재
허승호	2001. 3. ~ 현재	백진혁	2018. 3. ~ 현재
김백남	2002. 3. ~ 2004. 2.	이지연	2018. 9. ~ 현재
조광범	2002. 3. ~ 현재	허미화	2018. 9. ~ 현재
한성욱	2002. 3. ~ 2008. 12.	김예림	2019. 3. ~ 현재
	2017. 3. ~ 현재	이철현	2019. 3. ~ 현재
박경식	2003. 3. ~ 2020. 8.	정진욱	2019. 3. ~ 현재
최원일	2003. 3. ~ 2019. 11.	한유진	2019. 3. ~ 현재
한승엽	2003. 3. ~ 현재	황종민	2019. 3. ~ 현재
도주호	2004. 3. ~ 2008. 4.	이강국	2019. 9. ~ 2021. 1.
정우진	2004. 3. ~ 현재	현미리	2019. 9. ~ 현재
김혜순	2005. 3. ~ 현재	권용식	2020. 3. ~ 현재
도영록	2005. 3. ~ 현재	김정석	2020. 3. ~ 현재
박근규	2005. 9. ~ 2011. 2.	신동우	2020. 3. ~ 2022. 2.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형섭	2006. 3. ~ 현재	유지홍	2021. 3. ~ 현재
남창욱	2006. 3. ~ 현재		

교실사

1927년 동산기독병원이 종합병원체제로 전환하면서 처음으로 손인식 과장이 부임하였다. 1940년 일제 강점 시기에는 황용운 과장이, 1947년 해방 후에는 정복득 과장이 근무하였으며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결핵, 나병 등의 만성 전염병 진료를 위해 노력하였다.

1957년 미국 Cleveland Clinic에서 수련을 마친 도상희 과장이 부임 후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기 도입, 국내 최초 방사성 옥소치료, BMR 측정 등 최첨단 의료 장비와 진료를 선보임으로써 진료에 획기적인 이바지를 하였으며 한국 의학계의 선두주자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66년에 고압 산소 치료를 도입하였고, 1967년에는 인공 신장기 1대를 기증받아 국내 혈액 투석의 효시가 되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제세동기를 도입하면서 심폐소생술팀을 조직하였고, 관상동맥 전문치료실도 운영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중앙집중식 의무기록제도를 실시하였다.

1974년 미국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박승국 교수가 임용되면서 위, 직장 내시경 검사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박영춘 교수는 내과 재직 중인 1970년대부터 신경학을 수학하기 위해 1973년 도미하여 뉴욕 브루클린병원에서 내과 1년, 뉴욕 주립대학교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 3년 과정을 수료하였다. 1977년 귀국하여 내과 과장으로 부임하였으며, 1981년 3월 의과대학 설립 후 초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85년 3월 신경과학교실 개설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 후 대학병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문의들의 전공 분야를 나누고 정식 분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4년 9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대사내과 6개 분과로 나누어지면서 내과는 명실공히 각 분과 시대의 장을 열게 되었다. 1997년 3월 류마티스내과, 2002년 3월 감염내과가 개설되었고, 2017년 9월 알레르기내과가 개설되어 현재는 9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내과학교실은 현재 동산병원 전체 진료 업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 내 중심교실로 성장하였고 그동안 교실에서 수련받고 배출된 전문의는 320여 명에 달한다.

교육, 연구 주요 활동

교육

내과학의 교육목표는 학생, 전공의, 전임의 각 단계에서 필수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역량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 존중을 기본으로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각 분야의 첨단 치료법과 임상연구, 중개연구를 통해서 미래 의료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및 전국 더 나아가 세계 의료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연구

내과학교실은 개설 후 많은 전문의, 석사 및 박사를 배출하였다. 교수들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종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내과학교실의 연구 역량 강화에 따라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및 연구비 수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각종 주요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학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1월 <내과 전공의 워크숍>

○감염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백남	2002. 3. ~ 2004. 2.	분과장	류성열	2013. 11. ~ 2020. 2.	분과장
류성열	2007. 3. ~ 2012. 8.	분과장	한성욱	2020. 3. ~ 2020. 8.	분과장
권기영	2012. 9. ~ 2013. 11.	분과장	김현아	2020. 9.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윤덕구	1986. 3. ~ 1992. 2.	김현아	2014. 9. ~ 현재
김백남	2002. 3. ~ 2004. 2.	이지연	2018. 9. ~ 현재
류성열	2007. 3. ~ 2020. 3.	현미리	2019. 9. ~ 현재

교실사

감염내과는 1983년 권기영 교수가 감염병 환자 진료와 의과대학 감염학 강의를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1986년 윤덕구 교수가 임용되어 진료,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다 1992년 사직하였고, 감염학 강의는 여러 분과 교수들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2002년 김백남 교수가 임용되었고, 2년간 근무 후 사직하였다. 2007년 류성열 교수가 삼성서울병원 전임의 수련 후 교수로 임용되었다. 2014년 김현아 교수가 임용되어 신생 분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며 진료 범위를 확장하였다. 타 과로부터 협의의 진료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 선택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제한 항생제 승인 및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 등도 하고 있다.

또한, 신장 이식, 간 이식, 심장 이식과 같이 고형장기 이식 및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면역저하자 감염에 대한 진료 요구가 증가하여 면역저하자 감염에 대한 진료 및 이식 전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이지연 교수와 2019년 현미리 교수가 임용되었고, 2020년 류성열 교수가 사직하였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MERS, 2020년 COVID-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 활동의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COVID-19 집단 감염으로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되는 국가적 재난 위기 가운데 대구동산병원을 소개 후 COVID-19 전담병원으로 앞장설 때 그 중심에서 감염내과 교수진들이 대구동산병원과 동산병원의 감염관리를 진두지휘 하였다. 감염내과는 코호트 병원 내에서의 진료 지침을 설정하고, 직원들의 동선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감염관리 교육 등 교직원들이 COVID-19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내 감염관리 지침 설정 시 자문 역할을 하였다. 연구 영역 또한 확장하여 다양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염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그람 음성균 등 관련 기초 실험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감염(2)> 교과목에서 발열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단적 접근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감염 질환 및 각 질환의 중증도, 감염 원발 장기의 특성에 따른 항생제 선택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또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고형장이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해 면역저하자에게서 나타나는 감염의 특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 성인, 특수 환자군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의 적응증과 부작용, 금기 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임상실습 기간 중 외래 참관, 병동 회진, 협의 진료 참여를 통하여 감염내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임상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CPX 및 증례 발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발열의 원인을 감별하고 감염 질환의 진단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을 교육한다. 다양한 임상 사례를 경험하고, 타과에서의 협의 진료에 참여하여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장기별 감염 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 균혈증 시 항생제 선택의 주의 사항, 면역저하자 진료에서 주의사항 및 패혈증 쇼크 시 경험적 항생제 선택 등 여러 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의학적 배경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감염내과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최근 20년 동안 매년 6~7편 정도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임상에서 경

협할 수 있는 다양한 증례들을 논문으로 보고하였고 감염 질환에 대한 후향적 임상연구들을 시행하여 각종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최근 전세계적인 내성균의 증가 추세에 따라 내성 균주와 관련된 연구와 대장균, 폐렴 막대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등 대표적인 그람 음성균들의 미생물학적, 유전자적 특성 및 생물막에 대한 실험연구도 진행해 오고 있다. 미생물학교실과 함께 병독성 폐렴 막대균의 세포 사멸 및 병독성 기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에 대해 대구동산병원과 동산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일 기관 및 다기관 연구들을 시행하여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또한 새롭게 출시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의 3상 임상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COVID-19 치료제와 관련한 2상, 3상 임상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봉사

권기영 교수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영남지회 부회장 및 회장을 역임하였고, 류성열 교수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영남지회 총무부장,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영남지회 대외협력이사, 대한감염학회 법제이사로 활동하였다. 김현아 교수는 2021년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및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감염내과 수료 기념> 뒷줄 왼쪽 현미리, 세번째 이지연 교수 앞줄 왼쪽 류성열, 네번째 김현아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이인규	1994. 9. ~ 1995. 2.	분과장	김혜순	2009. 4. ~ 2012. 8.	분과장
박근용	1995. 3. ~ 1996. 2.	분과장	조호찬	2012. 9. ~ 2015. 2.	분과장
이인규	1996. 3. ~ 2005. 3.	분과장	김혜순	2015. 3. ~ 2019. 2.	분과장
김혜순	2005. 4 ~ 2008. 2.	분과장	조호찬	2019. 3. ~ 현재	분과장
박근규	2008. 3. ~ 2009. 3.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여운재	1981. 3. ~ 1982. 2.	박근규	2005. 9. ~ 2011.2
김원호	1982. 3. ~ 1986. 1.	조호찬	2010. 9. ~ 현재
이인규	1986. 3. ~ 2005. 3.	김미경	2011. 9. ~ 현재
박근용	1993. 3. ~ 1999. 8.	한유진	2019. 3. ~ 현재
김혜순	2005. 3. ~ 현재.	유지홍	2021. 3. ~ 현재

교실사

1957년 부임한 도상희 내과 과장이 당뇨병 환자와 갑상샘질환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방사성동위원소 측정기를 영국으로부터 도입하였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방사성 옥소치료를 국내최초로 실시하였다. 또한 BMR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갑상샘 기능 이상을 진단하였다. 1969년 도상희 과장이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후 내분비대사 분야 전공자가 없었다가 1981년 여운재 교수가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2년 사직하였고, 1982년 3월에 김원호 교수가 임용되었다. 1983년 내과에 방사성동위원소 측정실이 개설되어 갑상샘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 측정이 활성화되었다.

1986년 1월 김원호 교수가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직하였고, 1986년 3월 임용된 이인규 교수는 1988년 미국 Harvard University 조슬린 당뇨병센터에서 연수하였다. 1994년 분자생물학 실험실을 개설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고, 1995년 3월 박근용 교수가 임용되면서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1999년 8월 박근용 교수가 건양의대로, 2005년 3월 이인규 교수가 경북의대로 이직하였다. 2005년 김혜순 교수와 박근규 교수가 임용되었고, 2010년 9월 조호찬 교수, 2011년 9월 김미경 교수가 임용되었다. 이후 2019년 3월 한유진 교수, 2021년 3월 유지홍 교수가 임용되었다. 김혜순, 박근규, 조호찬 교수가 분과장을 역임하면서 현재까지 분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21년 당뇨병대사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연간 500여 명의 입원환자와 35,000여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 교육간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개별화된 당뇨병 교육을 제공하고, 안저검사실, 갑상샘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실, 골밀도검사실을 함께 운영하여 검사들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교수 5명과 임상교수 1명이 교육, 진료와 연구에 임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1983학년도 처음으로 <내분비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내분비>강의를 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을 통해 진료에 참여하고 이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내분비대사질환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접근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입원, 협진환자 진료, 집담회, 외래진료 참관, 내분비검사 판독 등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초음파 기기를 도입하여 갑상샘 및 경동맥 초음파 교육을 시작하여 내과 전공의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연구

학회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갑상샘, 골대사, 부신, 비만 등의 내분비대사질환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협업하여 연구중심병원 R&D 사업단에 선정되어 대구·경북 유일한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

다. 조호찬 교수가 책임연구자, 유지홍 교수가 간사로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논문 포함 다양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대구·경북 당뇨병내분비대사학회에서 시행하는 소아당뇨캠프에 참석하고 있다. 그 외 당뇨병, 골다공증, 갑상샘질환 등에 대한 시민강좌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2월 <내분비대사내과 전공의 수료 기념> 왼쪽 두번째 한유진, 김미경, 김혜순, 조호찬 교수

○ 류마티스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박재호	1997. 3. ~ 2002. 5.	분과장	김지민	2016. 9. ~ 2017. 11.	분과장
도주호	2004. 1. ~ 2008. 4.	분과장	김상현	2017. 11. ~ 현재	분과장
김상현	2008. 4. ~ 2016. 8.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재호	1997. 3. ~ 2002. 5.	김지민	2013. 3. ~ 현재
도주호	2004. 3. ~ 2008. 4.	손창남	2015. 9. ~ 현재
김상현	2008. 3. ~ 현재		

교실사

류마티스내과는 미국에서 류마티스학을 연수한 박재호 교수가 1997년 임용되었고, 초대 분과장으로서 분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후 도주호, 김상현, 김지민, 손창남 교수가 근무하면서 류마티스내과는 교육, 연구 및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류마티스내과 분과전문의와 석박사를 배출하고, 국내외 학회에서 우수 연제를 발표하는 등 류마티스내과의 국내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또한 2021년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우수 류마티스센터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류마티스내과로 도약하고 있다.

교육, 진료, 연구 및 봉사 주요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알레르기및류마티스>에서 자가면역질환 및 비외상성 관절 질환에 대해 교육하고, 임상실습 및 의학과 4학년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기본적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전임의 교육을 통하여 현재까지 4명의 분과전문의를 배출하였다. 지속적으로 분과 컨퍼런스를 열어 전공의와 교원들이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2022년 1월 제1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류마티스 연수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류마티스 최신 지견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료

진료분야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통풍, 강직성 척추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베체트병, 염증성 근육염, 혈관염 등으로 진료 중인 상당 질환들이 희귀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다. 1997년 편광현미경을 도입하여 결절성 관절염(통풍, 가성통풍)의 진료를 특화하였다. 2009년 관절초음파를 도입하여 관절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절강 내 주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2012년 손톱주름모세혈관현미경을 진료에 도입하여 레이노현상을 가진 환자들의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검사와 처치를 가능한 진료 당일에 시행하여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2017년 고객만족 우수부서로 수상하였다. 현재까지 환자 수 및 과내검사시행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외래환자 수 약 20,000명, 협의진료건수 약 1,600건, 과내검사시행 및 시술처치 건수 27,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연구

류마티스내과는 다양한 임상연구와 자가면역에 대한 기초연구로 Autophagy, RNA, proteomics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다수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 및 국제전문학술지에 2021년 7편, 2020년 5편, 2019년 5편, 2018년 7편, 2017년 7편, 2016년 8편 등 최근 6년간 4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2015

년, 2020년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2016년, 2017년, 2019년 일본류마티스학회 우수초록상 등 여러 수상을 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기본연구,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및 2017년, 2019년 류마티스학연구재단 신진연구비, 2017년 대구광역시의회 사회 동원연구비와 여러 산업체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봉사

김상현 교수는 의과대학 학생과장, 진료협력센터장, 발전기금 사무국장, 대한류마티스학회 교육수련위원, 홍보위원, 편집위원 및 대구시의사회 정책이사로 봉사하였다. 김지민 교수는 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위원, 기초연구위원, 활막염연구회 간사 및 홍보위원, 쇼그렌증후군 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손창남 교수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정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매년 환자 및 시민들을 위한 공개강좌(골드링캠페인)를 열어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2022년 <제1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류마티스 연수강좌> 왼쪽 세번째 김지민, 김상현, 손창남 교수

소화기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안성훈	1994. 9. ~ 1996. 8.	분과장	황재석	2005. 4. ~ 2011. 2.	분과장
허정욱	1996. 9. ~ 1998. 8.	분과장	조광범	2011. 3. ~ 2014. 2.	분과장
안성훈	1998. 9. ~ 2001. 8.	분과장	박경식	2014. 3. ~ 2016. 2.	분과장
허정욱	2001. 9. ~ 2001. 12.	분과장	장병국	2016. 3. ~ 2020. 2.	분과장
박승국	2002. 1. ~ 2003. 3.	분과장	이주엽	2020. 3. ~ 현재	분과장
안성훈	2003. 4. ~ 2005. 3.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승국	1974. 3. ~ 2003. 8.	정우진	2004. 3. ~ 현재
안성훈	1976. 1. ~ 2009. 8.	장병국	2006. 3. ~ 현재
김약호	1980. 3. ~ 1984. 2.	김은수	2009. 3. ~ 2016. 2.
허정욱	1984. 3. ~ 2002. 2.	이주엽	2015. 3. ~ 현재
강영우	1987. 3. ~ 2001. 2.	이윤석	2015. 3. ~ 2017. 2.
황재석	1997. 3. ~ 현재	이유진	2016. 3. ~ 현재
조광범	2002. 3. ~ 현재	신동우	2020. 3. ~ 2022. 2.
박경식	2003. 3. ~ 2020. 8.	김정석	2020. 3. ~ 현재

교실사

소화기내과의 역사는 1959년 개최된 대한내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당시 내과 과장 도상희 선생과 내과 첫 번째

전공의 수료자인 서인희 선생이 발표한 '간 질환과 혈청 transaminase'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부터 rigid type 직장경을 사용하였고 1968년 일본에서 위 카메라를 도입하여 검사를 하였다. 1974년 박승국 교수가 미국에서 소화기 펠로우 과정을 수료하고 내과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소화기내과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1977년 안성훈 교수가 내시경검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1980년 박승국, 김약호 교수가 ERCP와 용종절제술을 시작했다.

1984년 허정욱 교수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와 전대장내시경검사를 안성훈 교수와 같이 수행하고, ERCP를 전담하였고, 1987년 유두괄약근 절개술, 담석제거술 및 담즙 배액술 등의 치료내시경을 시작하였다. 1992년 강영우 교수가 소화관운동검사 및 소화기호기검사실을 개설하였다. 1992년 내시경초음파가 도입되었고, 1997년 황재석 교수가 식도정맥류 결찰요법을 시행하였다. 2001년 강영우 교수의 건양의대 이직, 2002년 허정욱 교수의 사직과 황재석 교수의 국외연수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교실원의 단합과 헌신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황재석 교수가 연수 이후 간암 치료를 위하여 TACE, PEIT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02년 조광범 교수가 임용되어 위장관 내시경검사 및 ERCP를 전담하였고,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을 비롯한 치료내시경 분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3년 박경식 교수가 임용되어 치료내시경 및 소화관 운동검사실을 전담하였다. 동시에 내시경 시술건수의 증가로 인해 내시경검사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2004년 정우진 교수, 2006년 장병국 교수가 임용되어 간질환 진료에 박차를 가하였다. 2009년 김은수 교수가 임용되어 염증성 장 질환 환자 진료에 힘썼다.

2015년 상부위장관 분야에 이주엽 교수, 췌담도 분야에 이윤석 교수, 2016년 하부위장관 분야에 이유진 교수, 2020년 췌담도 분야에 신동우 교수, 하부위장관 분야에 김정석 교수가 임용되어 교육, 진료, 연구에 힘쓰고 있다. 2019년 새 병원 이전 후 내시경 검사실은 규모를 더욱 확장하여 검사실 6실, ERCP 1실, 소화기능검사실, 간초음파 검사실, 내시경초음파 검사실 등을 갖추게 되었고 최신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 대부분의 치료내시경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소화기>강의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시술견학, 증례 발표 및 토의를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입원환자의 임상 교육 및 시술 습득, 내시경 검사 술기 및 해석을 교육하고 있다. 타 과와의 연계된 집담회로는 위암집담회, 간담췌집담회, 대장암집담회가 있다. 또한 매주 소화기내과 자체집담회를 가져 최신 의학 지식과 첨단 의료수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구

1994년 소화기내과 개설 이후 현재까지 총 68명의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를 배출하였다.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최근 5년간 국제전문학술지에 15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다수의 기초 연구비 및 임상 연구비를 수주하는 등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

봉사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췌담도학회 임원진 및 정회원으로, 다수의 학술 및 전문단체의 회장 및 임원, 전문의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문 및 언론 활동 등을 통한 홍보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2월 <소화기내과 수료 기념> 뒷줄 왼쪽 이주엽 교수, 여섯번째 이유진, 이윤석 교수
앞줄 왼쪽 김은수, 정우진, 박경식, 황재석, 조광범, 장병국 교수

○ 신장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현철	1994. 9. ~ 2002. 8.	분과장	박성배	2007. 3. ~ 2014. 2.	분과장
박성배	2002. 9. ~ 2004. 8.	분과장	한승엽	2014. 3. ~ 2016. 2.	분과장
김현철	2004. 9. ~ 2007. 2.	분과장	진규복	2016. 3.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현철	1978. 5. ~ 2012. 5.	진규복	2016. 3. ~ 현재
박성배	1986. 3. ~ 2020. 2.	강성식	2016. 3. ~ 2018. 12.
한승엽	2003. 3. ~ 현재	백진혁	2018. 3. ~ 현재
황은아	2006. 3. ~ 2015. 8.	김예림	2019. 3. ~ 현재
박우영	2015. 3. ~ 현재		

교실사

1967년 내과 과장이었던 도상희 선생이 미국 Cleveland Clinic의 Willem Johan Kolff 박사로부터 인공신장기(Kolff quad coil형) 1대를 기증받으면서 우리 병원에서 최초로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한 것이 국내 민간병원 최초의 혈액투석 치료로 기록되었다.

1979년 1월 혈액투석실을 개설하여 장기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혈액투석실을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관은 서울지역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정도였고 지방에서는 혈액투석실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후 혈액투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새로운 형태의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혈액여과 투석기(HF dialyzer),

환자의 정맥만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혈액 여과 투석법인 지속적 정정맥 혈액 여과법(CVWH)을 1986년 11월 28일 처음 시행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혈액투석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1987년 처음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일 3교대 시행하였고 장기 외래 복막투석(CAPD)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복막투석실, 신장 진료실 등을 갖추고 신장 질환 환자들을 전문화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장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2년부터 중탄산염을 이용한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는 일부 저혈압 혹은 혈액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적혈구생성인자(erythropoietin, EPO)를 투약하게 되면서, 혈액투석실에서의 수혈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2003년 9월 16일 대한신장학회에서 시행하는 말기신부전증 환자 등록사업에서 우리병원에서 등록한 복막투석 환자가 국내병원 중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복막투석 300례 기념회를 했다. 1982년 첫 번째 생체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1994년 첫 번째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하였고, 2016년 신장이식 1,200례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 9월 24일 뇌사 기증 신장이식 500례를 달성하고, 같은 해에 대구·경북 최초로 심장-신장 동시 이식 수술을 성공하여 지역 의료수준을 크게 높였다.

현재 신장내과는 연 40,000건에 가까운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장이식 1,500례를 앞두고 있다.

다양한 신장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신장 조직 검사는 과거 영상학적 도움 없이 시행되다가, 점차 여러 기술 발전을 토대로 현재의 초음파 유도하 신장 조직 검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는 상당한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바탕이 되었다. 1978년 처음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1989년 연간 100건 이상의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 최근에는 연간 200여 건의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신장 조직 검사 건수가 5,200여 건으로 다양한 신장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신장학>강의를 통해 신장질환을 초래하는 원인과 만성콩팥병, 각종 신장과 요로 계통 질환을 진단, 평가, 감별하고 콩팥 기능 대체 요법 및 신장이식에 대해 교육하고 임상실습에서 외래 참관,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참관, 환자 경과 기록 및 시술 전후 진찰 및 증례 발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신장학 전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신장 내과 특수의 만성 콩팥병,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진료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이식 컨퍼런스와 매달 시행하는 병리 집담회를 통해 환자의 임상 증례

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

신장내과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6편의 논문(국제전문학술지 124편)을 발간하였다. 신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자 주도 연구 및 의뢰자 주도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교수진이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승엽 교수는 신장이식과 장기이식의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국내 신장이식의 현황과 성적을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구체 질환 연구를 위한 신생검 환자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구축, 유전성 낭성신질환의 유전적 특성규명을 통한 진단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가려움증이 있는 혈액투석 환자의 새로운 치료제인 CR845, 만성 신장 질환 관련 빈혈의 새로운 치료제인 다프로두스타트, 신장이식 만성 활성 항체 매개 거부반응 치료제로 대두되는 클라자키 주맙 등 신약의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진규복 교수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산화스트레스, 지질대사, 적혈구생성인자 카르바모일화 등의 연구로 신장학 분야의 최고 저널에 연구논문을 투고하였다. 혈액여과투석과 만성콩팥병 무기질골대사장애의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연구하였으며, 만성콩팥병 환자의 빈혈 치료에서 바이오시밀러 약제 개발, 이차성 부갑상샘항진증 치료제 개발 등 신약의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루프스신염, C3 사구체신병증의 신약 임상연구 및 당뇨병성 신증의 치료 등을 연구 중이다.

박우영 교수는 신장이식과 관련하여 거부반응, 기회감염, 종양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신장이식 환자의 장기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뇌사자 신장이식의 예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한 연구성과로 2015년 대한이식학회 젊은 연구자상, 2016년 대한신장학회 젊은 연구자상, 2017년 대한이식학회 우수 초록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 대한이식학회 젊은연구자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백진혁 교수는 2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수술, COVID-19 감염 및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성 신손상에 관한 연구, 신장 이식 후 당뇨, 보체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장이식 환자의 조절T세포 증식과 특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저나트륨혈증의 진단과 치료 근거기반 진료지침에 참여하였다.

김예림 교수는 다양한 신장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 중이며, 국제전문학술지에 5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미국신장학회 및 미국이식학회에서 수차례 구연 발표를 하였다. 대한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2019년 최우수 초록상, 2021년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IgA 신병증의 마이크로비움 연구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수주하였고, 2021년 당뇨병 환자에서의 SGLT2 억제제와 MRA 병합요법에대한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주

제로 대한신장학회 신진연구비를 수주하였다.

봉사

매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성 콩팥병, 복막 투석, 혈액 투석, 신장 이식 등에 대한 시민강좌를 시행하여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계명대학교 신장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 저명 외부연사를 초청, 만성콩팥병의 최신 치료현황과 치료적 접근 등의 최신지견을 교류하고 있다.



2019년 뒷줄 왼쪽 백진혁, 박우영, 박성배 교수, 앞줄 왼쪽 김예림, 진규복, 한승엽 교수

○ 심장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권배	1994. 9. ~ 1996. 8.	분과장	허승호	2007. 3. ~ 2011. 8.	분과장
김기식	1996. 9. ~ 1998. 8.	분과장	남창욱	2011. 9. ~ 2015. 8.	분과장
김권배	1998. 9. ~ 2002. 2.	분과장	김형섭	2015. 9. ~ 2021. 3.	분과장
김기식	2002. 3. ~ 2005. 8.	분과장	윤혁준	2021. 3. ~ 현재	분과장
한성욱	2005. 9. ~ 2007. 2.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권영주	1980. 3. ~ 1984. 2.	김형섭	2006. 3. ~ 현재
김권배	1983. 3. ~ 2017. 2.	박형섭	2009. 9. ~ 현재
김윤년	1984. 3. ~ 2018. 8.	조윤경	2009. 9. ~ 현재
김기식	1987. 3. ~ 2005. 9.	윤혁준	2011. 9. ~ 현재
허승호	2001. 3. ~ 현재	김인철	2017. 3. ~ 현재
한성욱	2002. 3. ~ 2008. 12.	황종민	2019. 3. ~ 현재
	2017. 3. ~ 현재	이철현	2019. 3. ~ 현재
남창욱	2006. 3. ~ 현재	정진욱	2019. 3. ~ 현재

교실사

1980년 권영주 교수가 부임하면서 전문적인 심장병 진료가 시작되었다. 1981년 지역 최초로 이면성 심초음파도를 시행하였고, 1982년에는 심도자술과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1983년 김권배 교수가 임용되었고, 권영

주 교수는 순천향의대로 이직하였다.

1984년 관동맥조영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심질환의 진단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4년 김윤년 교수, 1987년 김기식 교수가 임용되었다.

1990년대부터 허혈성심질환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혹은 이와 연계된 합병증으로 입원하고 있는 등 질병의 추세도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관동맥조영술, 관동맥풍선성형술등이 점차 증가하였고, 1992년 12월 심혈관 전용조영기를 갖춘 독립적인 심도자실을 개설한 후 관상동맥중재시술도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시행된 관동맥조영술은 연간 1,200례 정도이며, 스텐트삽입술도 연간 1,000례 이상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약물에 의존해서 치료하던 부정맥에 대한 도자치료를 선도적으로 시행하였고 2021년에는 도자절제술 5,000례를 달성하였다.

심혈관질환자의 증가와 학문적 요구도의 증가로 교원수도 2000년대 들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 허승호 교수, 2002년 한성욱 교수가 임용되었고, 2005년 김기식 교수는 대구가톨릭의대로 이직하였다. 2006년 남창욱 교수와 김형섭 교수, 2010년 조운경 교수와 박형섭 교수, 2011년 윤혁준 교수, 2017년 김인철 교수, 2018년 이철현 교수와 황종민 교수가 임용되어 고도화된 심장질환 시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구동산병원에는 2019년 정진욱 교수가 임용되어 환자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3월 대구·경북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후로, 2020년에 총 50례의 심장 이식 수술을 시행하여 국내 5위권의 심장 이식 수술 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지역 최초의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성공한 이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령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과적 중재 시술을 통해 기능을 상실한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도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매년 의료계 종사자를 위한 심전도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심질환에 대한 EASY 연수강좌와 2017년부터 중증심장질환에 대한 DAHF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은 <순환기>에서 총론, 기초적인 심장생리, 각론, 심전도 등의 강의를 28시간 하고 있다.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을 통해 순환기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을 교육하고 각종 시술에 참여시키며 증례발표를 통해 각 질병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학생연구원으로 선발하여 국내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며,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1년차는 주로 일반병실에 배치되고 2년차는 응급환자, 3년차는 중환자치료에 참여하게 된다. 심근 경색증, 치명적인 부정맥 등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매주 심초음파도 혹은 전기생리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매주 화요일 심장병과 관련한 여러과와 합동하여 Heart conference를 실시하여 수술이 필요한 환자, 심장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심의 회의를 통하여 전공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연구

최근 10년간 30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다. 허승호 교수는 관상동맥 병변을 평가하기 위한 혈관내 초음파 및 약물 용출 스텐트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고, 한성욱 교수는 심방세동의 약물 치료 및 도자 절제술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남창욱 교수는 압력 철선을 이용하여 관상동맥병변을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김형섭 교수는 심부전 평가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윤혁준 교수는 광간섭 단층촬영을 이용한 혈관평가를, 박형섭 교수는 방사선노출이 없는 도자절제술을, 조윤경 교수는 중등도협착병변에서 다양한 혈관내 장비를 이용한 평가를 연구하고 있다. 김인철 교수는 심장이식 관련 연구를, 이철현 교수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관련 연구를, 황종민 교수는 심장삽입전기장치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봉사

김권배 교수는 동산병원장, 의과대학장,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최장기간의 의료원장 보직을 수행하면서 성서캠퍼스 새 병원 이전 및 정상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독학술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김윤년 교수는 전산차장 보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병원이 국내 어느 병원보다 앞선 전산 처방과 전산의무기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초대 의용공학과장과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장을 역임하였다.

허승호 교수는 동산의료원 연구처장, 의과대학 대외협력과장, 의료혁신실장과 심혈관센터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혈관생리연구회장, 대한심장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성욱 교수는 새 병원 이전 후 동산병원 행정부원장 보직을 수행하면서 선진 병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였다,

남창욱 교수는 비서실장으로서 새 병원 이전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 분지병원 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2018년 <심장내과 수료 기념> 뒷줄 왼쪽 김인철, 조윤경 교수, 네번째 이철현, 박형섭, 윤혁준, 황종민 교수
앞줄 왼쪽 남창욱, 김권배, 김형섭, 허승호, 한성욱 교수

알레르기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정창규	2017. 9.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정창규	2017. 9. ~ 현재

교실사

알레르기내과는 1988년 윤덕구 교수가 감염 및 Allergy내과로 환자 진료 및 전공의 교육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9월 정창규 교수가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전임의 수련 후 임용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단독분과로 신설되었다. 알레르기내과는 비염, 천식, 만성 기침 등의 상하기도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등의 피부 알레르기, 벌독 등의 곤충 알레르기, 식품 및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 증가증, 면역결핍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2017년 개설 후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2021년과 2022년 환자만족도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알레르기내과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알레르기질환의 치료를 위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알레르기 원인을 찾아내고 정확한 진단과 환경관리 및 회피요법, 약물치료, 면역요법을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한 치료 및 다양한 임상과 기초연구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알레르기및류마티스>에서 임상면역학에 대해 교육하고, 임상실습 및 의학과 4학년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입원 및 협진 환자의 진료, 외래진료 참관, 알레르기검사 판독 등을 교육하여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진료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연구

알레르기내과는 만성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의 알레르기질환을 주제로 임상연구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및 국제 알레르기학회에서 다수의 논문과 연구 발표를 하고, 최근 3년간 국내학술지와 국제 전문학술지에 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창규 교수는 2021학년도 연구업적 우수교원(JCR 랭킹)으로 선정되어 의과대학 4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상을 받았다.

봉사

정창규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의 표준진료지침위원회, 대한의학회의 천식 임상진료지침 제정 및 개발위원회, 한국 보건 의료정보원 인증기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학회의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월 가운데 정창규 교수

○ 호흡기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전영준	1994. 9. ~ 2002. 2.	분과장	최원일	2014. 3. ~ 2018. 2.	분과장
한승범	2002. 3. ~ 2008. 10.	분과장	박순호	2018. 3. ~ 현재	분과장
전영준	2008. 11. ~ 2014. 2.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도재욱	1981. 3. ~ 1982. 2.	정치영	2009. 3. ~ 2016. 2.
이정규	1982. 3. ~ 1985. 2.	박재석	2014. 3. ~ 현재
전영준	1985. 5. ~ 2016. 2.	박순호	2018. 3. ~ 현재
한승범	1993. 3. ~ 2009. 2.	김현정	2018. 3. ~ 현재
최원일	2003. 3. ~ 2019. 11.	권용식	2020. 3. ~ 현재

교실사

호흡기내과는 1981년 도재욱 교수가 임용되고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 임용된 이정규 교수는 미국에서 폐기능검사에 대한 단기연수 후 경기관지폐생검을 시행하였다. 1985년에 전영준 교수가 임용되었고, 경기관지폐생검, 기관지폐포세척술과 고해상도 단층촬영(HRCT Scan)이 가능해지면서 폐질환 분야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하였다. 1993년 한승범 교수, 2003년 최원일 교수, 2009년 정치영 교수가 임용되었고, 2009년 한승범 교수, 2016년 정치영 교수, 2019년 최원일 교수가 사직하였다.

2014년 박재석 교수, 2018년 박순호 교수와 김현정 교수, 2020년 권용식 교수가 임용되어 교육, 진료와 연구에 임하고 있다.

호흡기내과는 만성 기침, 가래, 발열, 호흡곤란 같은 다양한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폐종괴 등 여러가지 호흡기계

관련 질환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기능검사, 기관지유발검사, 6분보행검사, 호기산화질소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기관지폐포세척술, 기관지내시경초음파검사를 통한 조직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폐암 환자의 경우 조직학적 진단과 병기설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Tumor Board 및 다학제 진료를 통해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폐암환자의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성서캠퍼스로 병원이 이전한 후, 폐기능검사 8,743건, 6분보행검사 553건을 시행하였으며 호기산화질소검사 1,749건, 기관지내시경검사는 1,095건, 기관지초음파내시경검사는 215건을 시행하였다.

2020년 호흡기검사실에서는 폐기능검사, 기관지유발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총 34,012건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기관지내시경검사는 1,222건, 기관지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검사는 237건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결핵 상담관리실을 담당하며 폐결핵환자의 치료와 관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2월에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COVID-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치료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고, 현재까지 COVID-19 환자들의 진료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호흡기>에서 호흡기 구조, 기도방어기전, 호흡생리학, 흉부방사선학, 폐기능검사, 기도질환, 간질성 폐질환, 직업성폐질환, 폐색전증, 흉곽 및 흉막질환, 폐종양, 급성폐손상, 호흡부전증,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임상실습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증례토의와 병력청취 및 진찰, 폐기능검사 판독, 기관지내시경사 참관 등의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매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의 교수와 의료진이 참여하는 Tumor Board 및 흉부집담회를 통해 전공의 교육을 하고 있다.

연구

폐암의 치료에 있어 분자생물학적 접근, 간질성폐질환에서의 폐암, 각종 새로운 항암제의 치료효과 등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급성폐손상의 기전, 폐색전증의 원인, 기관지천식의 phenotype, 다제내성 폐결핵, 폐렴,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봉사

박순호 교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표창장을 받았으며, 대한폐암학회 간행위원 (2017~2018년)으로 활동하였다. 박재석교수는 동산병원 집중치료센터장으로 활동하였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에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로 활동하였다.



2022년 왼쪽 다섯번째 박재석, 박순호, 권용식, 김현정 교수

○ 혈액종양내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송홍석	1994. 9. ~ 2004. 8.	분과장	권기영	2014. 3. ~ 2017. 2.	분과장
권기영	2004. 9. ~ 2006. 8.	분과장	도영록	2017. 3. ~ 현재	분과장
송홍석	2006. 9. ~ 2014. 2.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신현구	1981. 3. ~ 1982. 2.	도영록	2005. 3. ~ 현재
현성택	1982. 5. ~ 1983. 2.	박건욱	2011. 3. ~ 현재
송홍석	1983. 3. ~ 2018. 2.	김진영	2011. 3. ~ 현재
권기영	1983. 3. ~ 1985. 2.	허미화	2018. 9. ~ 현재
	1988. 5. ~ 2019. 2.	이강국	2019. 9. ~ 2021. 1.

교실사

혈액종양내과는 1981년 3월 신현구 교수가 임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2년 현성택 교수, 1983년 송홍석 교수와 권기영 교수가 임용되었다. 군복무를 위해 사직한 권기영 교수가 1988년 다시 임용되었고, 1992년 미국 Stanford University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술에 대해 연수한 후 고용량 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본격적인 진료 및 연구를 시행하였다.

지역 최초로 다학제진료 및 종양집담회를 운영하였고, 표준 치료 및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임상시험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암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종양내과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을 종합 치료하며, 항암치료는 연간 외래 약 5,600건, 병동 약 12,000건, 임상시험센터에서 약

470건을 시행하고 있다.

혈액내과는 급성 및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악성림프종, 다발골수종의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빈혈과 혈전증, 출혈성질환의 진단과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연간 약 430건의 골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영록 교수가 2007년 일본 Keio University와 2008년 Duke University의 조혈모세포이식 연수 후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을 개설하여, 2011년 1월 처음 이식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00건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였다. 박건욱 교수는 2007년 미국 University of Texas 의 M.D. Anderson Cancer Center 연수를 다녀왔으며, 김진영 교수는 2014년 University of Texas 의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수하면서 종양세포의 항암제 저항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후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겸임교수로 임용되었다.

혈액종양내과는 생명연장에 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암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여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호스피스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1987년에 시작된 동산호스피스는 기독교적 사랑을 바탕으로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설립되었다. 2006년 송홍석 교수가 호스피스실장을 맡은 이후 암센터 교육 및 환자들의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박건욱 교수가 동산병원에서 자문형 호스피스를, 권기영 교수가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혈액종양> 수업을 통해 비 악성 혈액질환과 백혈병을 대표로 하는 악성 혈액질환 외에도 다양한 종양 질환의 원인, 병태 생리, 진단, 평가 치료에 대해 강의 및 Team based learning, Case based learning을 통하여 교육하고 있다. 임상실습에서 주치의제도를 시행하여, 교수와 전공의 지도하에 학생 스스로 1주일 동안 암 환자의 주치의로서 회진에 참석하며, 각 증례에 대한 발표를 시행하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내과 전체집담회와 혈액종양집담회를 통하여 혈액종양질환과 관련된 임상연구 및 치료에 관한 최신 경향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진단능력, 전반적인 치료방법, 임상연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여러 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혈모세포이식 컨퍼런스, 종양학의 최신 지식전달을 위한 종양집담회 및 병리집담회를 통해 환자의 임상 증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진료적 측면과 아울러 여러 국내외학회 및 연수 강좌 참관과 발표 기회를 통해 연구 의욕을 고취하게 하고 있다.

연구

혈액종양내과는 개설 이후 지속적인 임상연구를 해 오고 있다. 무작위배정 제3상 임상연구, 2상, 1상 및 4상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37개의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암정복 과제에 5년간 약 25억의 연구를 수주 하였다.

봉사

송홍석 교수는 동산병원 호스피스실장, 대한암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권기영 교수는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장, 동산병원 호스피스실장, 의과대학 교무과장, 교학부장을 역임하였고, 도영록 교수는 성인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연구회 위원장, 임상종양내과학회 이사 및 사회협력 이사, 대한조혈모세포학회 회원관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건욱 교수는 대한종양내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 대한종양내과학회 부회장,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두경부식도암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진영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지원센터장으로 봉사하였고,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동료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종양내과학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뒷줄 왼쪽 박건욱, 도영록, 권기영, 송홍석 교수 앞줄 왼쪽 두번째 김진영, 허미화 교수

○마취통증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인현	1960. ~ 1966.	과장	김진모	1997. 12. ~ 2004. 2.	주임교수 겸 과장
배완수	1967. ~ 1968.	과장	김애라	2004. 3. ~ 2008. 2.	주임교수 겸 과장
조영례	1968. ~ 1969.	과장	김진모	2008. 3. ~ 2013.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진웅	1972. ~ 1973.	과장	홍지희	2013. 3. ~ 2017. 2.	주임교수 겸 과장
전재규	1973. 3. ~ 1981. 2.	과장	이용철	2017. 3. ~ 2020. 2.	주임교수 겸 과장
전재규	1981. 3. ~ 1991. 2.	주임교수 겸 과장	홍지희	2020. 3. ~ 현재	주임교수
정정길	1991. 3. ~ 1995.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기범	2020. 3. ~ 현재	과장
배정인	1995. 3. ~ 1997. 11.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정정길	1972. 5. ~ 2003. 6.	홍지희	2006. 3. ~ 현재
전재규	1973. 3. ~ 2003. 8.	이용철	2007. 3. ~ 2020. 2.
배정인	1981. 3. ~ 2010. 2.	김세영	2010. 9. ~ 2016. 2.
김애라	1981. 3. ~ 2017. 8.	김현지	2012. 9. ~ 2018. 8.
정상범	1983. 5. ~ 1987. 2.	김현창	2015. 3. ~ 2019. 2.
김진모	1985. 3. ~ 2014. 2.	박기범	2015. 3. ~ 현재
최규택	1983. 3. ~ 1985. 2.	이지원	2016. 3. ~ 2020. 2.
	1988. 5. ~ 1995. 5.	손제도	2017. 3. ~ 2017. 12.
이정구	1991. 3. ~ 2002. 6.	박지훈	2018. 3. ~ 현재
장영호	2001. 3. ~ 2008. 2.	김지섭	2019. 3. ~ 현재

교실사

마취통증의학교실은 1963년 6월 개설되었다. 1965년 전공의 수련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되어, 1968년 첫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1973년 미국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취득한 전재규 교수가 과장으로 부임하여 최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마취 진료를 시행하였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전재규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전문의로 근무하던 정정길 교수와 같은 해 전문의를 취득한 배정인, 김애라 교수도 임용되었다. 당시 개심술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개심술 마취도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신장 이식 수술이 시작되면서 관련 마취 건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1983년부터 정정길 교수가 통증치료실, 배정인 교수가 중환자실, 김애라 교수가 산실을 나누어 담당하였고, 1983년 정상범 교수가 임용되어 소아마취를 담당하였다. 1984년 통증치료실이 정식으로 개설되었고, 김애라 교수가 1985년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산실에서 지속적 경막외 마취에 의한 무통분만을 시작하였다.

1985년 김진모 교수가 임용되어 개심술 마취를 담당하였다. 1987년 정상범 교수가 사직하였고, 1988년 최규택 교수가 임용되어 소아마취를 담당하였다. 산과마취, 신경마취, 심장마취, 통증마취, 소아마취 등으로 교수들의 전문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면서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

1991년 이정구 교수가 임용되어 정정길 교수와 함께 통증치료실을 크게 발전시켰다. 1992년 김진모 교수가 중환자실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가 중환자 관리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4년 지역 최초로 간 이식을 시행하여 임상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최규택 교수가 사직하였고, 2001년 장영호 교수가 임용되어 소아마취 및 심장 마취를 담당하였고, 동물 실험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하였다. 2002년 이정구 교수, 2003년 정정길 교수가 사직하였고, 같은 해 전재규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였다.

2006년 홍지희 교수가 임용되어 C-arm 유도하에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는 등 통증치료실의 최신 경향을 선도하였고, 2007년 이용철 교수가 임용되어 심폐 마취 및 장기 이식 마취를 전담하였다. 2010년 배정인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같은 해 김세영 교수가 임용되면서 급만성 통증 환자의 관리 및 수술 후 통증 조절 분야를 더욱 더 활성화시켰다. 2012년 김현지 교수가 임용되어 소아 마취 및 뇌 신경 마취를 전담하였고, 2014년 김진모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2015년 박기범 교수가 임용되어 통증치료실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김현창 교수가 임용되어 심폐 마취를 담당하였다. 2016년 이지원 교수, 2017년 손제도 교수가 임용되었고, 같은 해 김애라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2018년 박지훈 교수와 2019년 김지섭 교수가 임용되었다. 현재 홍지희, 박기범, 박지훈, 김지섭교수 4명이 근무를 하며 교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심장 이식, 2020년 심장-신장 동시 이식을 지역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지역 의료를 선도하였고, 2019년 4월 15일 성서캠퍼스 새 병원으로 이전하여 통증치료실과 함께, 하이브리드 수술실 1방, 로봇 수술실 3방을 포함한 24개의 최첨단 수술실에서 마취통증 진료를 펼쳐 나가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1981학년도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생리학>에서 전재규 교수와 김진모 교수가 순환호흡생리 분야를 강의하였고, 1988학년도에 개설된 <의료윤리>를 전재규 교수가 담당하였다. <마취통증의학>은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응급과중증치료> 통합교과목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에서 외래 참관, 수술실 참관, 증례 발표, OSCE 실습 등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마취방법의 종류에 따른 약물, 기관내 삽관술 등에 대해 교육하여 응급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적 순환기와 호흡기 계통의 변화 측정 및 관찰 등도 교육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1987년부터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실험 및 임상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연차별 수련 계획 일정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교과서나 저널 발표, 문제 환자 토의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안전한 마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신장이식, 간이식, 심장이식 등의 장기 이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식마취 분야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최신 마취기법 습득 등을 위해 관련 학회에 참여 기회를 주고 있으며, 그 외 더 전문화된 분과 학회, 국제학회 등에도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증치료실에 파견되어 수술 후 통증 관리, 만성통증 환자 통증 관리, 각종 신경 차단법 등을 익히고 있다.

연구

1980년대 마취기와 마취에 필요한 부속 기계를 도입하면서 관련 연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전재규 교수가 ‘척추마취의 임상’, ‘임상 산과마취 1판’, ‘수액요법의 실제 1판’, ‘수액요법의 실제 2판’을 편찬하였고, 김애라 교수는 ‘임상 산과마취 2판’, ‘척추마취의 임상 2판’을 편찬하였다. 전재규 교수는 박지훈 교수와 함께 ‘수액 요법의 실제 3판’을 최근 개정 발간하였다. 교실에서는 최근까지 수십 편의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임상 및 동물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봉사

전재규 교수는 의과대학장, 대한마취과학회 상임학술이사, 대한통증연구학회부회장, 대한마취과학회장, 대한마취과학회 상임이사, 대한통증학회장,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장,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등에 선출되어 폭넓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정정길 교수와 배정인 교수는 각각 대한마취과학회 대구·경북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김진모 교수는 대한중환자학회 이사, 대한마취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 대한중환자학회장, 대한심폐혈관마취학회장, 아시아 심폐혈관마취학회부회장을 맡아 많은 활동을 하였다. 홍지희 교수는 대한통증학회 교육 이사로, 박지훈 교수는 대한소아마취학회 학술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아이티, 카자흐스탄 그리고 베트남 등 세계 수많은 나라에 의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 2월 <전공의 수료 기념>앞줄 왼쪽 홍지희, 이지원, 전재규, 박기범, 박지훈 교수
뒷줄 가운데 김지섭 교수

○ 방사선종양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옥배	1987. 9. ~ 1989. 3.	과장 (직무대리)	김진희	2007. 3. ~ 2020.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영훈	1989. 4. ~ 1990.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진희	2020. 3. ~ 현재	주임교수
김옥배	1990. 3. ~ 2007. 2.	주임교수 겸 과장	변상준	2020. 3. ~ 현재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옥배	1989. 4. ~ 2015. 8.	오영기	2015. 9. ~ 현재
김영훈	1989. 3. ~ 1990. 2.	변상준	2017. 9. ~ 현재
최태진	1988. 3. ~ 2012. 8.	박승규	2019. 3. ~ 현재
김진희	1998. 3. ~ 현재	최은철	2019. 9. ~ 현재

교실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방사선치료는 1959년 방사선과 서철성 과장이 미국에서 방사선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귀국하면서 기증받은 표재치료 장비로 각종 표재성 종양에 방사선치료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2년 방사성 동위원소 라듐 226(226Ra)을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근접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1971년 미국북장로회 선교단체의 기증으로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코발트60(60Co)을 이용한 고에너지 외부방사선 치료기를 도입하였고 외부방사선치료와 근접방사선치료를 겸비한 본격적인 방사선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2년 5월 치료방사선과가 독립된 전문 진료과로 인정받아 분리되었고, 1987년 9월 치료방사선과가 개설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치료방사선과 전용 건물을 건립하고, 최신 치료 장비인 23MV 고에너지 선형가속기, 고선량률 근접방사선치료기, 모의 치료 촬영기, 컴퓨터 치료계획 장비 및 방사선계측 장비들을 다수 도입하여 현대적인 방사선치

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4월 치료방사선과학교실이 개설되어 미국 치료방사선과 전문의인 김영훈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고 1990년 2월 개인 사정으로 도미하였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는 김옥배 교수가 주임교수로 교실을 맡았다. 2003년 방사선종양학교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김진희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오영기 교수는 2008년부터 의학물리학자로 동산병원에 근무하다 2015년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1992년부터 자체 개발한 방사선수술 시스템(Photon Knife)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시행하였다.

1991년 선형가속기 2호기 도입 후 2004년에 이어 2008년에 새로운 고에너지 선형가속기가 교체 도입되었다.

2011년 3월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전신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1년 8월에 래피드아크 치료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온열치료기를 도입하여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에는 MRI 기반의 3차원 근접방사선치료기를 도입하여 더욱 정밀한 근접방사선치료로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 새 병원 개원 시점에는 진료와 치료의 공백이 없는 부서 운영을 통해 병원경영에 큰 도움을 주었고 2019년 우수진료부서상을 수상하였다. 1987년 연간 신환자가 352명이었으며 서서히 증가하여 2020년 연간 신환자 1,000명을 돌파하였다. 2021년 현재 3대의 선형가속기와 3차원 MRI 기반 근접방사선치료기, 2대의 CT-기반 모의 치료기, 최첨단 치료계획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전신 정위적 방사선치료,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영상 유도 및 호흡 동조 방사선치료, 입체 조형 방사선치료, 전신방사선치료와 근접방사선치료를 비롯한 최신의 방사선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김진희, 오영기, 변상준, 박승규, 최은철 교수가 의과대학의 사명과 교육목적에 맞추어 학생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연구와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방사선 생물학, 방사선 물리학, 악성 종양의 병태 생리,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임상방사선종양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1990학년도 <치료방사선과학>강의를 시작하여 치료방사선과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였고, <치료방사선과학실습>을 시작하였다. 2000학년도부터 통합 교과목에서 방사선종양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인체의물리적이해>, <소화기>, <생식및비뇨기>, <혈액종양>, <호흡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실습>에서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전반적인 흐름과 치료의 원리가 되는 생물학, 물리학, 실제 방사선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과 실제 적용에 대하여, 소그룹 강의 및 참관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임상중례 발표를 통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를 적용하는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방사선생물학, 방사선물리학, 양성자치료학 등의 기초학문 성격의 과목과 방사선중추신경계종양학, 방사선두경부종양학, 방사선흉부종양학, 방사선소화기종양학, 방사선부인종양학 등 임상 영역의 과목에 대하여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실험 및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있으며 1989년 최초로 석사과정에 학생이 입학한 이후 현재까지 석사를 9명 배출하였고 박사 수료생 2명을 배출하였다.

연구

방사선종양학교실에서는 임상 방사선종양학뿐만 아니라 방사선생물학 및 방사선물리학 분야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학회 구연 및 포스터 발표와 논문을 통해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조직된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연구위원회를 통한 다기관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여, 2011년부터는 다양한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고, 최근 2022년 1월에는 JAMA Oncology (Impact factor 33)에 무작위 3상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학술대회발표는 198편, 국내학술지에 134편, 국제전문학술지에 13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봉사

김옥배 교수는 의과대학 의학과 학과장, 교학부장, 도서관장, 동산병원 암센터장,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부회장과 대구·경북지회장,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최태진 교수는 동산병원 의공학과장과 한국의학물리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였고, 한국의학물리학자상을 수상하였다. 김진희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연구과장, 동산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부회장, 대구·경북지회장, 이사 및 감사, 대한폐암학회 간행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수련교육이사, 대구기독교사회장과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으로 봉사하였다. 현재 대한암학회 이사, 대한폐암학회 상임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감사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관리위원, 의과대학 안투스 동아리 지도교수로 봉사하고 있다. 오영기 교수는 동산병원 의공학과장을 겸직하였으며, 한국의학물리학회 정책위원장을 거쳐 2020년부터 한국의학물리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변상준 교수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고시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부 총무이사로 봉사하였고, 현재 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박승규 교수는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 간사,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고시위원회 위원, 두경부암

분과위원 및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최은철 교수는 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와 동산병원 임상 시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1년 10월 <선형가속기 도입 후> 왼쪽 최은철, 변상준, 김진희, 오영기, 박승규 교수

비뇨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이성준	1970. 7. ~ 1981. 2.	과장	김천일	2004. 9. ~ 2008.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성준	1981. 3. ~ 1993. 3.	주임교수 겸 과장	박철희	2008. 9. ~ 2012.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광세	1993. 4. ~ 1996.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천일	2012. 9. ~ 2016.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천일	1996. 9. ~ 2000.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철희	2016. 9. ~ 2018.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철희	2000. 9. ~ 2004.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병훈	2018.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이성준	1970. 7. ~ 2002. 2.	장혁수	2006. 3. ~ 2011. 7.
한건호	1981. 3. ~ 1983. 2.	김병훈	2010. 3. ~ 현재
백재승	1982. 3. ~ 1983. 2.	하지용	2014. 3. ~ 현재
김광세	1983. 3. ~ 2007. 8.	정원호	2015. 9. ~ 현재
김법완	1983. 3. ~ 1986. 2.	신태준	2019. 3. ~ 현재
장익현	1984. 3. ~ 1985. 11.	이경섭	2020. 9. ~ 현재
김천일	1986. 3. ~ 2019. 2.	변혜진	2020. 9. ~ 현재
박철희	1988. 3. ~ 2019. 8.		

교실사

이성준 교수가 1970년 7월 미국 뉴욕의 Long Island Hospital에서 비뇨의학과 수련을 마치고 귀국하여 동산기독병원에 부임한 것이 비뇨의학교실의 시초이다. 초대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된 이성준 교수는 방광

암 환자에서 방광전절제술 후 장관을 이용한 요로전환술의 경험을 학회에 보고하였으며 당시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전립선비대증의 경요도전립선절제술, 방광암의 경요도절제술 등을 시행하여 비뇨의학 내시경 수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김광세 교수는 교실 최초 전공의로 수련 후 1975년 3월부터 동산기독병원 부과장으로 근무하다 사직하였으며, 다시 1983년 3월 교수로 임용되었다. 1986년 6월부터 소아비뇨기과의 대가인 Dr. King이 있는 미국 Duke University에서 1년간 연수하였다. 1986년 김천일 교수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이성준 교수와 함께 비뇨기계 종양 및 전립선질환에 대해 연구하였다.

1988년 3월 박철휘 교수가 임용되었고, 12월에 김광세 교수가 미국비뇨기과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는 교실 첫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교실의 업적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9월 이성준 교수가 대한비뇨기암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천일 교수가 1992년 3월 1년간 미국 세인트루이스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전립선암 관련 연수를 하였다. 1992년 8월에는 교실에서 주관하여 제4차 대한비뇨기암 학회를 동대구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9월에 김광세 교수가 제2대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박철휘 교수가 1994년 3월부터 1년간 미국 시애틀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비뇨생식기 종양 관련 연수를 하였다.

1995년 8월에 3세대 체외충격파 쇄석기(Modulith SLX, Storz)를 도입하였고, 김광세 교수는 독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 관련 연수 후 요로결석을 체외충격파 쇄석기로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9월 김천일 교수가 제3대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임명되었고, 2000년 9월에 박철휘 교수가 제4대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02년 2월 이성준 교수가 정년퇴임하였으며 2003년 3월 장혁수 교수가 임상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교수로 임용되었다. 2007년 4월 제20차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를 동산의료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김광세 교수가 정년퇴임 기념 특강을 하였다. 2007년 8월 정년퇴임한 김광세 교수는 2010년까지 임상교수로 근무하였다. 2009년 5월 김병훈 교수가 연구강사로 발령받고, 2010년 3월 교수로 임용되었다. 2011년 7월 장혁수 교수가 퇴직하였다. 또한 Davinci Si 가 도입되어 비뇨의학교실도 로봇수술을 시작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하지용 교수가 임상교수로 발령받았으며, 2013년 2월 국내연수를 위하여 사직하였다. 2013년 8월에 김병훈 교수가 일본 東京慈恵会医科大学에서 한 달간 복강경 전립선 절제술 및 임상에 대한 단기 연수를 하였다. 2014년 3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연구조교수 근무 후 하지용 교수가 임용되었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 후 정원호 교수가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5년 9월 정원호 교수가 임용되었고, 2015년 10월부터 1년간 김병훈 교수는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방광암에 대해 연수를 하였다. 2016년 5월 신태준 교수가 임상강사로 부임하였다.

2016년 12월에 정원호 교수가 일회용 연성 요관경인 LithoVue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요로결석 수술에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3월 변혜진 교수가 임상강사로 부임하고 2017년 7월 하지용 교수가 미국 Wake Forest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에서 1년간 재생의학 관련 연수를 하였다.

2018년 5월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하였고, 9월에 김병훈 교수가 제5대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2월 김천일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고, 2021년 8월까지 임상교수로 근무하였다. 3월에 서울아산병원에서 비뇨기종양 임상교수 과정을 마친 신택준 교수가 임상조교수로 부임하였다. 4월에는 병원 이전과 동시에 Davinci X와 Xi 두 대의 로봇이 도입되어, 비뇨의학과 로봇수술이 증가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박철희 교수가 정년퇴임하고, 2020년 8월까지 임상교수로 근무하였다.

2020년 3월 신택준 교수가 임용되었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배뇨장애 및 요실금 임상교수를 과정을 마친 변혜진 교수가 임상조교수로 부임하였다. 2020년 7월 비뇨의학교실 개설 50주년을 맞아 50년사를 편찬하였으며, 9월 변혜진 교수와 이경섭 교수가 임용되었고 이경섭 교수는 경주동산병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1년 9월 비뇨의학과 로봇수술이 1200례를 달성하였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생식및비뇨기>, <신장>에서 비뇨의학의 전 분야의 기초를 교육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에서는 OSCE 및 실질적인 임상 증례를 통해 환자의 진료 능력 함양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전문분야인 종양, 남성, 소아, 배뇨, 결석 등에 대해 해당 지도전문의의 집중적인 교육으로 창의적인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전공의교육으로 4년 동안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수술의 독자적인 수행 능력을 습득하여 후배 전공의의 교육지도 능력을 함양한다.

연구

비뇨종양분야는 이성준, 김천일 교수, 소아비뇨기분야는 김광세 교수, 여성 및 배뇨장애 관련은 박철희 교수가 담당하였다. 현재는 비뇨종양분야는 김병훈, 신택준 교수, 소아비뇨기분야는 하지용 교수, 요로결석 분야는 정원호 교수, 여성 및 배뇨장애 관련은 변혜진 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봉사

이성준 교수는 의과대학 교학부장, 대한비뇨기과학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1997년 5월에 대한전립선학회를 창립하여 학술대회 및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김광세 교수는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장, 한남비뇨기과학회장, 한일소아비뇨기과학회장 및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교내 보직으로 의학도서관장, 대학원 의학과 학과장을 역임하였다. 김천일 교수는 대한전립선학회장으로 봉사하였고, 박철희 교수는 의학도서관장, 한남비뇨기과학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김병훈 교수는 대한전립선학회 이사, 대한비뇨의학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용 교수는 동산병원 진료지원센터장을 역임하였고,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위원회 위원, 소아비뇨의학회 정보이사, 의과대학 의학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원호 교수는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태준 교수는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변혜진 교수는 대한비뇨의학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경섭 교수는 대한전립선학회,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대한남성과학회 이사, 경주동산병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0년 뒷줄 왼쪽 신태준, 정원호, 하지용, 김천일, 박철희, 김병훈 교수, 앞줄 중간 변혜진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한병두	1956. 3. ~ 1964. 1.	과장	차순도	1998. 9. ~ 2002. 8.	주임교수 겸 과장
서영욱	1964. 2. ~ 1967.	과장	김종인	2002. 9. ~ 2004. 8.	주임교수 겸 과장
노영하	1968. ~ 1970.	과장	윤성도	2004. 9. ~ 2006. 8.	주임교수 겸 과장
권득기	1970. ~ 1971. 8.	과장	이정호	2006. 9. ~ 2010. 8.	주임교수 겸 과장
서영욱	1971. 9. ~ 1981. 2.	과장	조치흠	2010. 9. ~ 2014. 8.	주임교수 겸 과장
서영욱	1981. 3. ~ 1992. 8.	주임교수 겸 과장	권상훈	2014. 9. ~ 2018.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두룡	1992. 9. ~ 1994.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준철	2018.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윤성도	1994. 9. ~ 1998. 8.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서영욱	1964. 2. ~ 1997. 2.	김종인	1992. 3. ~ 2019. 2.
이두룡	1976. 3. ~ 1995. 2.	이정호	1994. 5. ~ 현재
윤성도	1979. 3. ~ 2011. 8.	조치흠	1995. 5. ~ 현재
천대우	1981. 3. ~ 1983. 2.	권상훈	2003. 3. ~ 현재
김택훈	1983. 3. ~ 1994. 2.	박준철	2005. 3. ~ 현재
이태성	1983. 3. ~ 2000. 2.	배진곤	2010. 3. ~ 현재
이 탁	1985. 3. ~ 1992. 2.	신소진	2011. 9. ~ 현재
차순도	1986. 5. ~ 2018. 8.	장태규	2018. 3. ~ 현재
이형중	1991. 3. ~ 1993. 6.	장원규	2019. 3. ~ 현재

교실사

산부인과 진료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는 초대 원장이었던 장인차 선교사, 정길환 선생, 서돈상 선생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해방 이후는 김종직 선생, 한병두 선생, 서영욱 교수로 이어져 왔다. 초대 원장 장인차는 1909년 6월 27일 대구에서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으며 이 수술 이후 병원에 환자가 급격히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동산기독병원 산부인과와 의 연간 환자 통계를 보면 1948년 외래 3,353명, 입원 1,690명이었고, 1951년은 외래 9,023명, 입원 3,75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산기독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한병두 선생이 미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후 귀국하여, 1956년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1964년 사직하였다. 1964년 미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한 서영욱 교수가 산부인과 과장으로 임용되어, 1971년경부터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자궁경부암 근치수술을 시행하여 자궁경부암 환자가 모여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라듐 동위원소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부인암영역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1970년대 초반은 서영욱 교수가 펼친 선진 산부인과 의술이 대구 전역으로 파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산과영역에서는 안장마취, 회음마취, 겸자분만과 정중선 회음절개술의 보편화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 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실력있는 전문의들이 교수로 임용되었고, 산과, 부인과, 내분비 등으로 과의 영역도 세분화되었다. 1983년 이후 진료와 연구를 불임학, 주산기학, 부인종양학으로 교수별로 나누었으며, 전공의를 산실, 산후 병실, 부인과 병실로 나누어 근무하도록 하였다. 1989년 윤성도 교수팀이 기존 자궁경관 무력 교정술에 실패한 환자에게 국내 최초로 개복식 경관 무력증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두룡 교수의 시술로 1991년 5월 대구·경북지역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으며, 이후 난관 복원술 및 시험관아기 시술 등의 난임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대구·경북지역의 많은 난임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2000년대 부인종양클리닉에서는 최신 질 확대경 검사 기기와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한 침단 방사선 치료장비의 도입, 진행된 난소암 치료를 위해 복강내 항암 화학요법 시행 등으로 높은 치료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하는 한국 부인암 등록사업 조사보고서에 전국 상위의 진료실적을 올린 것으로 발표되었고, 국제전문학술지에 10여 편의 논문도 게재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과 환자 수술의 70% 이상이 복강경이나 자궁경을 이용한 내시경으로 시행되고 있어, 외국의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연수를 올 정도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 등 최신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산부인과학교실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로봇수술은 세계로 전수할 정도의 기술이 축적되었다. 지역 최초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아시아 최초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및 세계최초로 단일공 자궁내막암 대동맥 림프절 절

제 수술을 성공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높였다. 산과에서는 기존의 정상분만 위주의 진료에서 탈피하여 2010년 경 태아발육지연, 다태임신, 자궁경부무력증, 전치태반 등의 고위험 산모 진료에 집중하였고, 2014년 보건복지부 지정 <고위험-신생아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되어 영남권 고위험 산모 진료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2020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내분비영역에서는 난소 동결을 포함한 가임력 보존치료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정열을 쏟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생식및비뇨기>에서 산부인과 주요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일차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교육, 연구 및 봉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통합 강의 교과목에 따른 계통별 통합 강의 내에서 주산기학, 생식내분비학, 부인종양학, 비뇨부인과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임상실습에서는 병동 환자 및 외래 환자 참관, 각종 술기 및 수술 참관, 저널 및 증례 발표를 통하여 교육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성 건강을 일생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 분야에 걸친 고도의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산부인과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며,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한다. 임신, 부인과 양성 및 악성질환, 난임, 가임력보존 및 내분비질환, 비뇨부인과질환 등 다양한 여성질환에 대한 최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분과의 전문의들이 분과별로 다양한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부인과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분과별로도 저널 및 증례 발표를 하고 있다. 또한 주산기센터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와의 협진, 부인종양센터의 경우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혈액종양내과 등 타과의 컨퍼런스를 통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고자 하며,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초록과 증례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

산부인과학교실에서는 매년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600여 편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산기학, 생식내분비학, 부인종양학, 비뇨부인과학의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 전문분야

의 학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시경 수술분야에서도 여러 교원의 노력 결과, 최고 수준의 수술 및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생식내분비영역은 1991년 5월 대구·경북지역 최초의 시험관 아기 출생과 2002년 국내 최초로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가임력 보전 후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한 임신, 생존아 출생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산과영역은 2014년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되어,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위험 산모 치료실적을 보이는 등 축적된 역량과 진료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센터와 소아응급의료센터 등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유기적인 협진체계가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정으로 이어졌다. 센터가 지정되면서 고위험 임신부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해졌고, 권역 내 고위험 환자를 자체 수용하여 대구·경북권역의 모성사망률 및 영아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환자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고위험 산모 진료 인프라가 취약한 대구시 이외 지역에서 이송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집중하면서 생겨난 변화라 할 수 있다.

부인암영역은 연간 증례 200~300례를 보일 만큼 많은 부인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연 300례를 넘어섰으며, 부인과 수술의 연간 증례는 2,000례를 넘을 정도로 지역에서 독보적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 로봇수술을 부인암 영역에 도입하였다. 대구시에서도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부인암 수술은 메디시티 대구 우수의료기술로 선정하여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봉사

1970년대는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성과 질병에 대한 무지는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서영옥 교수가 대구시의 후원을 받아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황종동 교수와 공동으로 시내 직업여성 계몽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내에 신부대학을 개설하여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성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입학원서가 당일에 마감될 정도로 당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또한 산과에서는 1995년에 대구에서 최초로 지역사회 주민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임신부 건강교실을 개설하여 1999년까지 12기에 걸쳐 25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임신부 건강교실의 강의는 4주에 걸쳐 임부 건강, 산모 건강, 육아, 모유수유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각 언론매체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병원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암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암검진 서비스에 나섰다. 부인암

센터는 달서구청과 함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까지 자궁경부암, 난소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였다. 부인암센터는 지역민들에게 밀착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암 전문 교수들이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최신치료법에 대해 강의하면서 지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8년 5월 <산부인과학교실 70주년 기념 행사>

○ 성형외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강진성	1974 ~ 1981. 2.	과장	손대구	2004. 3. ~ 2014. 2.	주임교수 겸 과장
강진성	1981. 3. ~ 1994. 5.	주임교수 겸 과장	김준형	2014. 3. ~ 2020. 8.	주임교수 겸 과장
한기환	1994. 6. ~ 2004. 2.	주임교수 겸 과장	최재훈	2020.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강진성	1974. ~ 2001. 2.	최동원	1994. 3. ~ 2000. 3.
하지운	1982. 3. ~ 1985. 5.	손대구	1998. 3. ~ 현재
김성조	1984. 3. ~ 1986. 1.	함희정	2002. 3. ~ 2003. 6.
김덕영	1985. 3. ~ 1986. 2.	김준형	2004. 3. ~ 현재
이동훈	1985. 3. ~ 1987. 11.	최태현	2007. 9. ~ 2009. 2.
백승조	1986. 3. ~ 1987. 2.	박무식	2009. 9. ~ 2010. 9.
한기환	1986. 5. ~ 2019. 8.	최재훈	2014. 3. ~ 현재
전종완	1988. 3. ~ 1988. 12.	정운혁	2019. 3. ~ 현재
송중원	1989. 5. ~ 1996. 9.	조태희	2020. 3. ~ 현재

교실사

성형외과는 강진성 교수에 의해 1974년 한강 이남 최초로 개설되었다. 강진성 교수는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일반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1972년부터 2년간 New York Maimonides Medical Center와 New York State University Kings County Hospital에서 당시 새로운 학문이었던 성형외과를 수련한 후 귀국하였다. 성

형외과 개설 후에는 당시 일반외과와 이비인후과 등에서 행하던 화상처치, 피부이식술, 구순구개열 수술 등을 성형외과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개설 당시의 성형외과 수술은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개별 모낭 이식에 의한 눈썹 성형술, 양막을 이용한 화상 처치법, 욕창의 근피판술, 수지재접합술, 관골골절에서 관골측정기의 이용, 미세동맥문합, 연골 압좌법, 미세 유방재건수술, 인조 귀성형술 구강 내 골연장술, 하악골 외판 절제를 이용한 하안면윤곽성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동결건조 소양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비성형술, 안면거상술, 구순열 교정술, 구개열 교정술, 구순비 교정술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강진성 교수는 20여 년간 교육, 연구 및 진료에 힘을 기울여 성형외과의 토대를 이룩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성형외과학’, ‘최신 성형외과학’ ‘강진성 성형외과학’을 출간하였고, 1990년에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1994년 제2대 주임교수 겸 과장에 한기환 교수가 임명되었다. 한기환 교수는 구순구개열, 두개안면골 성형, 코 성형, 소아성형을 진료하였고,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장,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2004년 제3대 주임교수 겸 과장에 손대구 교수가 임명되었다. 손대구 교수는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세재건 수술, 수부외과, 미용성형을 진료하고 있으며, 대한미세수술학회장을 맡고 있다.

2014년 제4대 주임교수 겸 과장에 김준형 교수가 임명되었다. 김준형 교수는 당뇨병, 만성 창상, 화상, 하지재건을 진료하고 있으며, 당뇨병 전문 클리닉을 설립하여 당뇨병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제5대 주임교수 겸 과장에 최재훈 교수가 임명되었다. 최재훈 교수는 하지재건, 악성종양, 화상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손대구, 김준형, 최재훈, 정운혁, 조태희 교수가 교육, 연구 및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성형외과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임상총론>에서 수부외과, 유방 재건, 눈 성형, 미세수술, 재건성형외과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임상실습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외래 진료 참관, 각종 술기 및 수술참관, 저널 및 증례 발표를 통하여 성형외과 임상진료 업무를 경험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수련 지침에 의거하여 성형외과의사로서 필요한 술기와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연구

교실에서 발표된 논문은 254편으로 그 중 국제전문학술지 논문이 72편이다. 단행본으로는 강진성 교수의 저서인 ‘성형외과학’이 제3판까지 발행되었다. 한기환 교수는 ‘Rhinoplasty: An Atlas of Surgical Techniques’의 한글 번역서와 ‘임상 사진술의 모든 것’을 발간하였다. 또한 교실의 교수들은 ‘구순구개열’, ‘The Art of Aesthetic Surgery’, ‘안성형외과학’, ‘Current Trends in Asian Rhinoplasty: Operation Guide’, ‘Textbook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for Students’, ‘안면부 미용 성형외과수술’ ‘유방성형술’ ‘윤비술’, ‘미용 성형외과학’, ‘성형외과학’, ‘표준성형외과학’, ‘종아리 성형술’, ‘Flaps for microsurgical reconstruction’ ‘수부외과학’ 등의 출간에 참여하였다.

2021년 현재 교실에서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교내외 연구비로, 손대구 교수가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제 부작용 치료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총액 3억원의 중견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김준형 교수가 (주)동구바이오제약과 (주)안트로젠 회사로부터 각각 3년간 총액 1억원과 5천 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서 ALLO-ASC-DFU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대조군 비교, 평행군, 다기관 제3상 임상시험과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대상 자가지방유래 간질혈관분획 주입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 배정, 공개, 표준치료군 비교, 연구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최재훈 교수는 ‘갑상선 호르몬의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를 통한 국소적 전달에 의한 림프부종의 치료’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총액 1억5천 만 원의 기본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정운혁 교수는 ‘안면부 기형환자에서 함몰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히알루론산 필러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료기기개발사업단으로부터 3년간 총액 2억 3천 만 원의 연구비와 ‘구개열 환자에서 구개유합에 영향을 미치는 후성유전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총액 9천 만 원의 생애 첫 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태희 교수는 ‘피하지방의 대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인슐린 감작 기전 규명’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총액 9천 만 원의 생애 첫 연구비와 ‘림프부종의 질병 진행에서 FGF-Myc-Glycolysis 경로의 역할 규명’이라는 주제로 병원으로부터 6년간 총액 3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봉사

강진성 교수는 성형외과학을 정립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1982년부터 8년간 대한성형외과학회 수련고시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성형외과 전문의 수련과 교육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초대 의과대학 교육부장, 의과대학

장, 의무부총장겸 동산의료원장을 역임하여 대학과 병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정년퇴임 후 지오스트(JIOST, Jinsung International Outreach Surgical Team, 진성 해외의료봉사단)를 설립해 10년 이상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하여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10여 개 국가에서 5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되찾아주었다.

한기환 교수는 동산병원장, 경주동산병원장, 의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1980년 후반부터 당시 새로운 학문 분야인 두개안면부 변형 및 기형의 새로운 수술법과 교육에 매진하였다. 또한 매년 해외봉사단을 꾸려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을 방문하여 수백여 명의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손대구 교수는 의과대학 대외협력과장, 동산의료원 연구처장, 비서실장, 대구동산병원장을 역임하였다.

김준형교수는 동산병원 국제의료센터장, 임상연구보호센터장, 교육수련실장, 수술센터장, 동산의료원 감사실장을 역임하였다.



2014년 <성형외과학교실 창립 40주년 기념 동문행사>

○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최정현	1947. 3. ~ 1949. 2.	과장	김준식	2000. 9. ~ 2004.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종무	1949. 3. ~ 1965. 2.	과장	이상락	2004. 9. ~ 2006.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 집	1965. 3. ~ 1968. 2.	과장	김흥식	2006. 9. ~ 2008. 2.	주임교수 겸 과장
신동학	1968. 3. ~ 1972. 2.	과장	김천수	2008. 3. ~ 2018. 2.	주임교수 겸 과장
강진무	1972. 3. ~ 1981. 2.	과장	김천수	2018. 3. ~ 2020. 2.	주임교수
강진무	1981. 3. ~ 1994. 2.	주임교수 겸 과장	최희정	2018. 3. ~ 2020. 2.	과장
권태찬	1994. 3. ~ 1996. 8.	주임교수 겸 과장	최희정	2020. 3.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김흥식	1996. 9. ~ 2000. 8.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강진무	1964. 3. ~ 2000. 2.	이상락	1991. 3. ~ 현재
신동학	1965. 3. ~ 1989. 2.	김명성	1992. 4. ~ 2001. 12.
백인기	1977. 3. ~ 1982. 2.	박근수	1996. 3. ~ 2000. 12.
권영대	1980. 3. ~ 1985. 10.	김천수	2002. 3. ~ 현재
강임주	1981. 3. ~ 1982. 2.	황진복	2003. 3. ~ 2014. 12.
김정주	1981. 3. ~ 1983. 2.	김여향	2005. 3. ~ 2014. 2.
박소경	1981. 3. ~ 1985. 2.	김지윤	2011. 9. ~ 2014. 9.
권태찬	1982. 3. ~ 2015. 8.	최희정	2014. 9. ~ 현재
김신향	1983. 3. ~ 1984. 2.	박재현	2014. 9. ~ 현재
백태원	1984. 3. ~ 1995. 2.	심예지	2015. 3. ~ 현재
김성호	1984. 3. ~ 1988. 2.	김동석	2016. 3. ~ 2018. 6.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흥식	1985. 3. ~ 2017. 8.	최진혁	2016. 9. ~ 2018. 2.
차홍대	1986. 3. ~ 1991. 2.	장효정	2017. 9. ~ 현재
서은숙	1987. 3. ~ 1991. 2.	강석진	2018. 9. ~ 현재
김준식	1990. 9. ~ 2022. 2.	최보금	2019. 9. ~ 2020. 8.

교실사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은 1947년 최정헌 선생이 초대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1949년 박종무 선생이 2대 과장으로 부임하여 외래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확대해 나갔다. 1950년대 후반에 육아상담실 및 어머니교실을 개설하여 예방소아과의 기틀을 마련하고 모성 교육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첫 소아병원인 100병상 규모의 World Vision 소아병원이 건립되어 고아원 순회 진료 및 무료 진료를 활발하게 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였다. 1957년 송창화 선생이 부임하여 박종무 과장과 함께 많은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소아과 전공의 수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때 장근원 선생과 편주식 선생도 함께 근무하였다. 1963년 송창화 선생, 박정열 선생, 신동학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소아과 전문의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송창화 선생은 부과장으로 외래 환자의 진료를 통괄하며 많은 환자를 진료하였다. 1964년 강진무 교수가 전문의 취득 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1965년 김집 선생이 3대 과장으로, 신동학 교수가 부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소아혈관주사의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고 신생아 황달의 교환수혈이 시작되었다. 1966년 박종무 선생이 World Vision 소아병원 Medical Director에 취임하였으며, 강진무 교수가 부과장으로 임명되어 박종무 과장과 함께 소아병원에서 근무하였다. 1968년 신동학 교수가 과장을 맡아 1972년까지 과를 이끌었으며,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조병래와 금동혁 선생이 근무하였다.

1972년 강진무 교수가 과장에 임명되었고, 1975년 미국 연수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소아과 전공의 수련 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제지향식진료기록(POMR)에 입각한 의무기록 작성이 시작되었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다. 소아백혈병 항암요법을 시작하여 많은 환자가 내원하여 치료하였고 소아 백혈병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72년부터 오지섭 선생이 6년, 1977년부터 백인기 교수가 5년, 1980년부터 권영대 교수가 5년, 1981년 강임주 교수가 1년간 근무하였다.

1981년 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신동학, 강진무, 백인기, 권영대, 강임주, 박소경, 김정주 등이 교수로 임용되었다.

1983년 강진무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용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의 분과가 이루어져 신동학 교수가 알레르기학, 강진무 교수가 소아혈액종양학 및 소아감염학, 권영대 교수가 신생아학, 권태찬 교수가 소아심장학, 박소경 교수가 소아영양학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4년 백태원 교수가 소화기학, 김성호 교수가 신장학을 담당하여 진료와 연구에 힘썼다. 1985년 김홍식 교수가 소아혈액종양학, 유전학, 내분비학을 담당하였고, 연수 후 1990년부터 동문회의 지원으로 교실의 연구 활동을 위한 실험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986년 차홍대 교수가 신생아실을 담당하게 되었고, 1987년 권태찬 교수가 소아심장학 연수 후 소아심장질환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동학 교수는 1989년 3월 가정의학교실 신설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0년 김준식 교수가 소아신장학과 소아신경학 분야를 담당하여 난치성 소아 뇌전증의 수술을 위한 연구를 하였고, 2009년 독일 사회아동발달센터에서 연수 후 우리나라의 영유아 검진 사업의 정착과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도구의 표준화사업에 기여하였으며, 반응성 애착 장애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1991년 이상락 교수가 신생아학을 담당하여, 1992년 신생아실을 신축 확장 개관하면서 신생아 환자의 진료를 더욱 활발히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서 신생아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1996년 김홍식 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게 제대혈 이식을 시행하였고, 이후 제대혈 이식과 banking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2000년 2월 40여 년 동안 헌신한 강진무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2002년부터 김천수 교수가 신생아학과 소아감염학을 담당하였고, 2011년 지역 최초로 국가 지정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에 선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산과와 협력하여 전국 처음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되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지정 소아전용응급실을 운영하여 성인과 독립된 공간에서 소아의 전문 진료가 가능하였다. 2014년부터 최희정 교수가 소아심장학, 박재현 교수가 신생아학, 심예지 교수가 소아혈액종양학, 2017년부터 장효정 교수가 소아소화영양학, 강석진 교수가 소아내분비학을 담당하고 있다. 김홍식 교수는 2017년 2월 정년퇴임하였고 이후 대구동산병원에서 현재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2019년 4월 15일 성서캠퍼스 새 병원으로 이전 후, 2019년 5월 8일 병원학교를 개교하여 만성질환을 앓은 환자들의 학업 및 정서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9년 6월 22일 새 병원 개원을 기념하는 소아청소년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동문이 참석하였다.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일반병동 29병상, 소아집중치료실 5병상, 신생아집중치료실 39병상 및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동문은 지금까지 약 210명으로, 1983년부터 체계적인 동문회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21명의 동문이 외래교수로 임명되어 있다. 현재 김현균 동문이 회장을 맡아 친목 도모와 학술 활동 및 교실의 연구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소아 주요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일차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교육, 연구 및 봉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통합 교과목 내에서 <출생과성장>, <신경>, <신장>, <순환기>, <호흡기>, <혈액종양>, <소화기>, <내분비>에서 소아청소년과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임상실습은 병동 환자 및 외래 환자 참관, 각종 술기 및 시술 참관, 저널 및 증례 발표를 통하여 교육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소아청소년과 전 분야에 걸친 고도의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소아청소년 질병과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련기간 동안 신생아,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호흡기알레르기, 소아혈액종양, 소아소화영양, 소아내분비 등 분과별로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컨퍼런스, 분과별 저널 및 증례발표, 타과와의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연구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은 창립 이후 수많은 전문의와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현재까지 교원과 전공의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교수진들은 매년 국내 및 국제학회에 연구활동 발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25 ~ 30편 이상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봉사

강진무 교수는 의학유전연구소장, 의학도서관장을 맡아 봉사하였고, 권태찬 교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의료원 기획정보처장직을 맡아 의료원 100주년 기념사업과 외래 및 병동 renovation 등의 봉사를 하였고, 2008년부터 12년간 새 의료원 건립추진본부장의 중책을 맡아 동산병원과 의과대학 성서캠퍼스 이전을 완수하였다. 김홍식 교수는 의학유전연구소장, IRB 위원장, 대학원 의학과 학과장으로 봉사하였다. 김준식 교수는 의과대학 학생과장, 의

학과 학과장, 교학부장을 맡아 학생들의 교육에 힘썼고, IRB 위원장을 맡아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도왔다. 또한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과 박물관장을 맡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병원의 봉사 활동에 헌신하였다.



2021년 2월 <전공의 수료 기념> 앞줄 왼쪽 장효정, 김천수, 김준식, 권태찬, 최희정, 이상락, 심예지, 강석진 교수

○ 신경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박영춘	1985. 3. ~ 1994. 5.	주임교수 겸 과장	이상도	2007. 9. ~ 2009.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상도	1994. 5. ~ 1996. 5.	주임교수 겸 과장	이 형	2009. 9. ~ 2013. 8.	주임교수 겸 과장
임정근	1996. 6. ~ 1997. 8.	주임교수 겸 과장	조용원	2013. 9. ~ 2017.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상도	1997. 9. ~ 2003. 8.	주임교수 겸 과장	손성일	2017. 9. ~ 2021. 8.	주임교수 겸 과장
임정근	2003. 9. ~ 2007.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현아	2021.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영춘	1977. 7. ~ 2001. 2.	이현아	2006. 3. ~ 현재
서정규	1980. 5. ~ 1990. 9.	조경희	2009. 9. ~ 2011. 8.
이상도	1985. 3. ~ 2012. 2.	김현아	2011. 3. ~ 현재
이동국	1989. 3. ~ 1994. 2.	유수연	2013. 9. ~ 현재
임정근	1994. 3. ~ 2017. 4.	홍정호	2014. 3. ~ 현재
김지언	1998. 3. ~ 2000. 2.	문혜진	2014. 9. ~ 2017. 2.
이 형	2000. 3. ~ 현재	유준상	2017. 3. ~ 2020. 2.
조용원	2001. 3. ~ 현재	석홍열	2017. 9. ~ 현재
정두교	2001. 9. ~ 2003. 2.	김근태	2017. 9. ~ 현재
이 준	2003. 3. ~ 2004. 4.	박형종	2019. 3. ~ 현재
손성일	2004. 9. ~ 현재		

교실사

1982년 8월 대한신경과학회가 창립된 후 1983년 1월 첫 신경과 전문의시험이 시행되었다. 우리대학 신경학 강의는 1982년부터 시행되었고 교실은 1985년에 개설되었다.

신경과학교실을 개설한 박영춘 교수는 동산기독병원 내과 재직 중 신경학을 수학하기 위해 1973년 도미하여 뉴욕 브루클린에서 내과 1년, 뉴욕 주립대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 3년 과정을 수료하고 1977년 귀국하여 동산기독병원 내과 과장으로 부임하였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 후 초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근무하며, 신경학의 교육, 홍보 및 대한신경과학회 창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83년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985년 3월 신경과학교실 초대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정규 교수는 내과학교실에 재직 중 1984년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985년 교실이 개설되면서 신경과학교실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상도 교수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1985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1985년 유경무 선생이 첫 신경과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하였고, 이후 매년 2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들어와 현재까지 총 62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신경과의 개설은 보다 전문적인 신경계질환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신경과학교실은 진료, 연구, 교육에 매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임상과로 성장하였다.

박영춘 교수는 교실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신경과학회, 영호남신경과학회, 대구·경북신경과지회 등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8대 대한신경과학회장으로 피선되어 전국에서 교실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고, 동산병원장, 동산의료원장, 계명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여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정규 교수는 근육말초신경분야를 담당하였으며 1987년 미국 연수 후 최신 근전도검사법을 도입하는 등 교실 발전에 기여하였고, 1990년 경북의대로 이직하여 신경과를 신설하였다. 이상도 교수는 뇌전증분야를 맡아 1992년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뇌전증센터를 개설하고 신경외과와 협력하여 난치성 간질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면서 국내 뇌전증 치료의 전성기를 주도하였다. 또한 제22대 대한신경과학회장으로 피선되어 교실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동국 교수는 1989년 임용되어 근육말초신경분야를 담당하였고, 1994년 대구가톨릭의대로 이직하며 신경과를 신설하였다. 임정근 교수는 1994년 임용되어 근육말초신경분야를 담당하였고, 1997년 캐나다 연수 후 근육말초신경 클리닉을 개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형 교수는 미국 UCLA 신경과학교실 Baloh 교수와 함께 어지럼증 관련 질환을 연구한 후 2000년 임용되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어지럼증클리닉을 운영하며 각종 현훈질환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하였다. 뇌졸중, 어지럼증 및 청력장애에 관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하고 외국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등 교실의 학문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

고, 2010년에 지역 최초의 자율신경클리닉을 개설하여 진료와 연구의 폭을 넓혔다. 또한 2015년 대한민국 의료계의 최고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고, 2020년 대한평형의학회장, 2021년 대한안신경학회장으로 피선되어 교실의 명예를 드높였다. 조용원 교수는 2000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뇌전증센터에서 뇌전증과 수면 질환에 관해 연구하고 2001년 임용되었다. 2002년 수면클리닉을 개설하여 수면질환의 전문적인 진료가 시작되었고, 뇌전증센터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 미국 NIH 연수 후 수면장애를 평가하는 다수의 검사 도구 한글 표준화 작업을 하였고, 하지불안증후군 관련하여 전국 유병률 조사, 병리기전 연구 및 철분주사요법 등의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0년 대한수면연구학회장으로 취임하며 국내 수면의학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손성일 교수는 2004년 임용되어 뇌졸중관련질환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캐나다 켈거리병원 뇌졸중센터에서의 연수 이후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과 협력하여 뇌혈관센터를 운영하며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높은 성과를 내었고,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한 연구와 진료를 하고 있다. 이현아 교수는 2006년 임용되어 치매 및 기억장애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네덜란드 VUMC Alzheimer Center에서 연수 후,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등과 함께 기억장애클리닉을 운영하며 치매분야 각종 국가정책 연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현아 교수는 2011년 임용되어 자율신경계질환 및 어지럼증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 미국 Mayo Clinic 연수 후 다양한 질환에서의 자율신경 기능을 연구하며 자율신경계분야의 수십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유수연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운동장애질환을 연구하고 2013년 임용되어, 파킨슨병 등 이상운동질환의 진료, 보톡스 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정호 교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경계집중치료 분야를 연구하고 2014년 임용되어 뇌졸중 및 신경계중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 미국 텍사스대학교 연수 후 뇌졸중외에 신경계집중 치료에도 힘을 쏟아 2021년 중환자 신경학적 예후 예측 모델 개발 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의료데이터 인공지능사업에 선정되어 중환자 치료의 새로운 학술적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석홍열 교수는 고려대학교병원에서 말초신경 근육질환을 연구하고 2017년 임용되었다. 말초신경근육질환뿐만 아니라 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를 담당하여 신경과의 연구 및 진료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근태 교수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전증분야를 연구하고 2017년 임용되었다. 뇌전증 외에 수면질환 및 중추신경계감염질환도 담당하고 있다. 박형중 교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졸중, 뇌혈관 중재시술 등을 연구하고 2019년 임용되었다. 뇌졸중 외에도 뇌혈관중재시술을 담당하여 신경과에서의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경과학교실은 특수진료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2014년 외래환자 진료실적 통계에서 전국 신경과 중 5위권에 진입하였고, 내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신경과, 신경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과 협조하며 각종 특수진료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신경계질환의 진료와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

1992년 뇌전증센터 설립으로 난치성뇌전증의 치료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의과학연구소에 신경과학 연구부를 설치하여 간질 발작 및 허혈성 뇌졸중의 신경세포 상해기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1996년 뇌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6년 어지러움증 클리닉의 개설로 이석증을 포함한 각종 현훈 질환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뇌졸중센터를 개설하여 뇌졸중 환자에 대한 더욱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가 시작되었다. 2002년 수면 클리닉을 개설하여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 등 수면장애 환자에게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자율신경 클리닉의 개설은 다양한 질환에서 새로운 접근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2019년 성서캠퍼스 새 병원 이전 후 기존의 뇌졸중센터는 뇌혈관센터로 확장, 개편되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신경계>를 통해 임상 각 분야의 세분된 이론 강의 및 실습을 시행하고, <진료역량개발>에서 CPX와 OSCE 수업을 통해 신경학적 기본 이론 배양 및 수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상실습에서는 다양한 검사실과 외래참관 및 환자 진료 등 실질적 임상경험을 제공하여 신경과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의학과 4학년 선택실습 과정에서는 전공의와 교수의 지도하에 좀 더 심도있는 신경과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공의교육으로 연차 당 2명의 전공의가 신경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수련하고 있으며, 저널 미팅, 증례 토의, 스냅 렉처, 신경영상 컨퍼런스 등은 최신지견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52명의 석사와 20명의 박사를 배출하였고, 교실 개설 후 배출된 62명 전문의 중 11명이 현재 교수로 근무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2000년 국내학술지 8편, 국제전문학술지 2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 매년 발표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국내학술지 4편, 국제전문학술지 28편으로 총 32편, 2020년에는 국내학술지 15편, 국

제전문학술지 93편으로 총 9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실적에서도 국내학술지 32편, 국제전문 학술지 205편으로 전국의 신경과학교실 중에서도 최상위권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봉사

신경과학교실의 교수들은 다수의 학술 및 전문단체의 회장과 임원으로 활동하며 신경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영춘 교수는 계명대학교 대학원장, 의무부총장겸 동산의료원장, 의과대학 교학부장, 뇌연구소장, 대한신경과학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상도 교수는 뇌연구소장, 대한신경과학회장, 대한뇌전증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이형 교수는 동산병원 전산차장, 교육수련부장, 부원장, 대한평형의학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신경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안신경의학회장, 뇌연구소장, 의료원 경영전략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용원 교수는 동산병원 교육수련실장, 대한신경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수면연구학회 장으로 활동 중이다. 손성일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 대한뇌졸중학회 대구·경북지회장을 역임하였고, 이현아 교수는 대구광역시의회사회 부학장을 역임하였다.

이외에도 활발한 학회 활동과 다양한 자문 및 언론 활동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및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5월 11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천기념 신경과 심포지엄>

○신경외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인홍	1971. 10. ~ 1981. 2.	과장	손은익	2003. 3. ~ 2009.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인홍	1981. 3. ~ 1990. 4.	주임교수 겸 과장	김인수	2009. 3. ~ 2013.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인홍	1990. 5. ~ 1992. 3.	주임교수	이창영	2013. 3. ~ 2013. 8.	주임교수 겸 과장
임만빈	1990. 5. ~ 1992. 3.	과장	김 엘	2013. 9. ~ 2014. 11.	주임교수 겸 과장
임만빈	1992. 4. ~ 1999.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동원	2014. 12. ~ 2017.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동원	1999. 3. ~ 2003. 2.	주임교수 겸 과장	이창영	2017.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인홍	1971. 10. ~ 2001. 4.	김상열	1993. 5. ~ 1994. 1.
임만빈	1981. 3. ~ 2013. 2.	이창영	2001. 3. ~ 현재
변영우	1982. 3. ~ 1983. 2.	김 엘	2002. 3. ~ 현재
추우홍	1983. 3. ~ 1984. 2.	김인수	2007. 3. ~ 현재
이정교	1985. 3. ~ 1991. 6.	김창현	2012. 9. ~ 현재
김동원	1986. 3. ~ 2018. 2.	이창규	2017. 3. ~ 2021. 2.
손은익	1988. 5. ~ 2017. 6.	권세민	2019. 3. ~ 현재
이장철	1992. 5. ~ 2000. 4.		

교실사

신경외과는 미국 뉴욕대학에서 수련을 마친 송진언 선생이 부임해 1964년 11월 동산기독병원 신경외과를 개설하

고 뇌동맥류 수술을 시작했다. 송진언 선생의 권유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던 김인홍 교수가 1971년 10월 동산기독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부임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1974년 신경외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였고, 1980년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CT를 도입하고 1989년에 MRI를 도입하며 신경외과의 활성화와 선진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임만빈 교수는 1986년 캐나다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연수 후 국내 뇌혈관수술의 한 축을 이루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등 교실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켰다.

1988년 교실에서는 뇌정위기구인 BRW 장치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치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1989년 동물실험실을 개설하여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쥐의 뇌경색 모델 등 실험을 통해 기초연구뿐 아니라, 전공의에게 현미경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동원 교수는 1986년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Hospital for Sick Children에서 소아신경외과 연수 후 소아선천성기형, 소아뇌종양 및 뇌혈관질환 등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소아신경외과 분야를 발전시켰다. 또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성형외과, 소아과와 함께 두개안면골 선천성기형클리닉과 소아뇌종양 클리닉을 각각 개설하여 좋은 치료 성과를 거두었다.

손은익 교수는 1991년 미국 시애틀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연수 후 각성 수술을 통한 뇌전증 수술을 실시하여 국내 뇌전증 수술의 전성기를 주도하였다. 이장철 교수는 척추수술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미국 시애틀 University Washington에서 1년간 말초신경수술분야 연수 후 이를 경험으로 신경외과 교과서인 Youmans Neurological Surgery의 말초신경분야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이창영 교수는 2000년 일본 Tohoku Univeristy와 2004년 미국 Baylor University Endovascular Center에서 연수 후 1세대 뇌혈관 내 수술 전문의로서 입지를 다졌다. 뇌동맥류 coiling, 뇌경색 환자의 stent 등의 경험을 많은 국제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 교실의 위상을 높였다. 김엘 교수는 2006년 미국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에서 뇌 기저 수술분야를 연수 후 두개기저부 수술을 전담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함께 뇌하수체종양질환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김인수 교수는 2005년 포항선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미국 Barrow Neurological Institute에서 척추 분야 연수를 마친 후 교수로 임용되어 미세현미경내시경 디스크수술, 경추 등의 고난도의 수술을 시행하여 척추신경외과 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창현 교수는 2012년 임용되어 뇌혈관분야의 하이브리드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뇌경색 환자의 재개통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창규 교수는 2016년 임용되어 최소침습적 척추 내시경 수술을 우리 병원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척추기형교정 수술을 시작하여 척추신경외과 분야에서 교실의 위상을 높였다. 권세민 교수는 2019년 임용되어 종양내시경 수술을 우리 병원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종양과 관련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21년 사직한 이창규 교수 후임으로, 고용산 교수가 임상

교수로 임용되어 척추종양, 기형, 내시경 수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 뇌동맥류 수술 7,000례를 돌파하며 학회 및 의료원에서 교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신경계>를 통해 신경계질환의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에서 수술실, 외래진료, 입원환자의 진료과정에 참관하여 신경외과적 질환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신경외과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 수기를 습득하여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교육, 연구,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와 함께 Neuroscience conference, 신경과와 해부학교실과 함께 Journal conference, Case conference를 매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고자 교육하고 있다.

연구

2017년부터 김창현 교수를 주축으로 의용공학과와 함께 바이오브레인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며 혈관 내 기구인 Intravascula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영상 가이드 카테터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다수의 특허 출원과 함께 한국연구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과제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 융합 연구에 힘쓰고 있다.

봉사

임만빈 교수는 제9차 한일친선뇌혈관외과학회장을 맡으며 제9차 한일뇌혈관외과학술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의과대학장, 뇌연구소장, 대한신경외과학회장과 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김동원 교수는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 의료선교를 한층 활성화했다.

손은익 교수는 두 차례에 걸쳐 국제간질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우리 병원에서 일본 나가사키의대, 중국 푸단대학

화산병원과 함께 한중일신경외과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긴급 의료구호를 비롯한 매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등의 해외 의료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장미회를 통해 간질환자 무료진료 봉사를 하였다.

이창영 교수는 2013년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보건당국의 초청으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뇌동맥류와 경동맥협착증의 혈관 내 수술법을 교육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타 병원의 뇌혈관 내 수술 교수들을 초청하여 뇌혈관 내 수술에 대한 live surgery를 개최하였다. 현재 동산병원 심뇌혈관센터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학회에서 뇌혈관 외과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인수 교수는 대한신경손상학회장으로 봉사하였고, 현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엘 교수는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이사, 대한뇌종양학회 이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의과대학 교육지원센터장, 임상수행학습실장으로 봉사하였다.



2022년 2월 앞줄 왼쪽 권세민, 김창현, 이창영, 고용산, 김인수 교수

안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한덕기	1966. ~ 1972.	과장	김기산	1996. 11. ~ 2000. 12.	주임교수 겸 과장
오준섭	1972. ~ 1981. 2.	과장	김광수	2001. 1. ~ 2005. 2.	주임교수 겸 과장
오준섭	1981. 3. ~ 1990. 5.	주임교수 겸 과장	이세엽	2005. 3. ~ 2011.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광수	1990. 5. ~ 1991.	주임교수 겸 과장	장성동	2011. 3. ~ 2014. 11.	주임교수 겸 과장
김상진	1991. ~ 1993.	주임교수 겸 과장	김광수	2014. 12. ~ 2015.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기산	1993. ~ 1994. 6.	주임교수 겸 과장	김유철	2015.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김광수	1994. 6. ~ 1996. 10.	주임교수 및 과장			

※ 재임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기간은 연도만 표기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오준섭	1968. ~ 1999. 8.	장성동	2005. 3. ~ 2014. 11.
조윤애	1976. 3. ~ 1983. 8.	김유철	2006. 3. ~ 현재
심일청	1983. 3. ~ 1984. 2.	이종은	2015. 3. ~ 2022. 2
조행임	1985. 3. ~ 1986. 2.	전종화	2015. 9. ~ 현재.
김상진	1985. 3. ~ 1994. 2.	장지혜	2018. 3. ~ 현재
김광수	1986. 3. ~ 2019. 8.	이동철	2018. 3. ~ 현재
김기산	1988. 5. ~ 2000. 12.	강경태	2019. 3. ~ 현재
이세엽	1994. 3. ~ 현재	조순영	2021. 9. ~ 현재
김병규	2001. 3. ~ 2003. 5.		

교실사

1936년부터 안이비인후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다 1966년 안과가 안이비인후과에서 분리되었고, 1966년 한덕기 선생이 초대 과장에 임명되었다. 한덕기 과장은 미국에서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당시 안과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미국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각종 안과 수술을 시술하였다. 1968년 오준섭 교수가 부임하였고 1972년 한덕기 선생이 개원으로 사임하면서 오준섭 교수가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76년 동산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조윤애 교수가 임용되었다.

1980년 당시 동산병원장이었던 백준기 원장과 오준섭 교수가 대구라이온스클럽 D-307지구의 후원으로 한강 이남에서 유일한 안구은행을 개설하였다. 1981년 3월 초대 주임교수 겸 과장에 오준섭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1982년 5월 제48회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계명대학교 시청각교실에서 개최하였다. 1983년 조윤애 교수가 사직하고 고려의대로 이직하였으며, 같은 해 심일청 교수가 임용되어 이듬해까지 근무하다 사직하였다. 1985년 김상진 교수와 조행임 교수가 임용되었고, 조행임 교수가 이듬해 2월 사임하고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6년 김광수 교수가, 1988년에는 김기산 교수가 임용되면서, 진료분야를 나누어 오준섭 교수가 백내장과 녹내장을, 김광수 교수가 망막, 유리체와 포도막을, 김기산 교수가 각막과 백내장을, 김상진 교수가 사시와 소아안과를 맡게 되었다.

1990년 김상진 교수가 미국 University Pittsburg Children Hospital에서 소아사시분야를 연수하였고, 미국 Emory University Eye Center에서 1991년 김광수 교수가 망막, 유리체분야를, 1992년 김기산 교수가 1992년 각막분야를 연수하였다. 1994년 김상진 교수가 아주의대로 이직하였으며, 1994년 이세엽 교수가 임용되어 사시와 소아안과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광수 교수는 199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망막 이식에 관한 연수를 하였으며, 1999년 오준섭 교수는 정년퇴임하였다. 2000년 김기산 교수가 사직 후 개원하였고, 2001년 김병규 교수가 임용되었으나 2003년 사직하였다. 2001년 이세엽 교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Jules Stein Eye Institute에서 소아안과를 연수하였으며, 2005년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봉사하였다. 2003년 장성동 교수가 임용되어 각막과 백내장 분야의 진료 및 연구를 담당하였다. 2004년 김유철 교수가 연구강사를 시작하여 2006년 교수로 임용되어, 망막, 유리체 및 포도막 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장성동 교수는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각막분야를 연수하였고, 2012년 주임교수 겸 과장에 임명되었다. 김유철 교수는 2010년 일본 교토대학에서 단기 연수 후 망막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2014년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에서 망막 분야에 대한 연수를 하였으며, 2015년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다. 2014년 장성동 교수가 사직 후 개원하였으며, 2015년 이종은 교수와 전중화 교수가 임용되어 각각 녹내장분야와 백내장 등과 관련된 분야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였다. 2016년 7월 안이비인후과 80년, 안과 50년 행사를 개최하였고 기념

책자를 발간하였다. 2018년 장지혜 교수와 이동철 교수가 임용되어 각각 유리체, 망막분야와 성형안과, 소아안과분야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였다. 2019년 강경태 교수가 임용되어 유리체, 망막 분야를 담당하였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로 새 병원이 이전하면서 동산병원에는 김광수, 이세엽, 김유철, 전종화, 이종은, 강경태 교수가 대구동산병원에는 장지혜, 이동철 교수가 근무하는 양 병원 안과 시대가 시작되었다. 2019년 김광수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2021년 조순영 교수가 임용되어 사시, 소아안과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안과학>을 강의하였으며,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통합교과목 <인체감각기>를 통해 안과질환의 이론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에서 수술실, 외래진료, 입원환자의 진료과정에 참관하여 안과적질환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석사학위는 1989년 배언희 선생이 첫 학위를 받은 이후 2022년 2월까지 40명 석사를 배출되었고, 박사학위는 1997년 이우석 선생이 첫 학위를 받은 이후 우경호, 전종화, 이동철, 문건, 강경태 선생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의교육으로 1972년 첫 전공의 육강우 선생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총 75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연구

1969년 Oculogyric Crises 논문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국내 및 국제전문학술지에 총 29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지금까지 사시소아안과와 성형안과에서 총 14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7년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 2018년 태준안과 논문상을 받았다. 김유철 교수는 총 11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비디오상, 우수포스터상과 대한안과학회지 우수심사위원상을 받았고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교내에서는 2018학년도 우수업적상, 2020학년도 국제전문학술지분야에서 비사상을 받았다. 또한 2018년 의과대학 동문교수회에서 우수연구업적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2021학년도 동산의료원 최다 국제논문상의 초대 수상자가 되었다. 전종화 교수는 4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2015, 2019년 우수학술상, 2018년에는 세광학술상(은상)을 수상하였다. 이종은 교수는 2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과 우수비디오상을 수상하였다. 장지혜 교수는 임용 후 총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한국망막학회 학술대

회에서 2020년 김유철 교수와 함께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강경태 교수는 임용 후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봉사

오준섭 교수는 수련부장, 행정조정실장, 동산병원장, 동산의료원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안과학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김광수 교수는 대한망막학회 편집이사, 대한안과학회 상임이사, 한국임상시각전기생리학회장 및 한국포도막학회 감사로 봉사하였다. 이세엽 교수는 동산병원 의료질관리실장, 의료원 대외협력처장, 동산병원장, 의과대학장으로 봉사하였고,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장으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산의료원장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김유철 교수는 대한안과학회 수련위원회 위원 및 학술위원, 한국망막학회 학술부이사 및 학술간사로 활동하였고, 현재 대한안과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내에서는 의료원 전산센터장을 맡아 2019년 4월 양병원에 전산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경영전략부처장으로 봉사하였다. 전종화 교수는 한국외안부학회 재무이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한국외안부학회 보험이사 및 동산병원 진료협력센터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 장지혜 교수는 대구동산병원에서 진료부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종은 교수는 한국녹내장학회지 편집위원으로, 이동철 교수는 한국사시소아안과 부총무로 활동하였다. 조순영 교수는 대한안과학회 편집위원 및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2월, 뒷줄 왼쪽 전종화, 조순영, 이종은, 이동철, 강경태 교수, 앞줄 왼쪽 김유철, 이세엽, 장지혜 교수

영상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서철성	1954. 5. ~ 1975. 2.	과장	김 홍	1998. 9. ~ 2001. 10.	주임교수 겸 과장
서수지	1975. 3. ~ 1977. 12.	과장	우성구	2001. 11. ~ 2006.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삼균	1978. 1. ~ 1981. 2.	과장	권중혁	2006. 3. ~ 2010.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삼균	1981. 3. ~ 1983. 10.	주임교수 겸 과장	이성문	2010. 3. ~ 2014. 2.	주임교수 겸 과장
전석길	1983. 11. ~ 1984. 2.	주임교수 겸 과장 직무대리	김영환	2014. 3. ~ 2017. 3.	주임교수 겸 과장
			이희정	2017. 4. ~ 2018. 2.	주임교수 겸 과장
서수지	1984. 3. ~ 1994. 4.	주임교수 겸 과장	이상권	2018. 3. ~ 2020. 2.	주임교수 겸 과장
우성구	1994. 5. ~ 1998.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미정	2020. 3.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삼균	1978. 1. ~ 1983. 10.	백승국	2003. 3. ~ 2005. 2.
전석길	1980. 7. ~ 1995. 11.	김갑철	2003. 3. ~ 2005. 2.
김영식	1983. 3. ~ 1983. 9.	최진수	2004. 3. ~ 2010. 12.
서수지	1984. 3. ~ 2008. 6.	이상권	2004. 3. ~ 현재
우성구	1984. 3. ~ 2016. 2.	김영환	2005. 3. ~ 2017. 3.
김옥배	1984. 5. ~ 1989. 3.	고성민	2005. 3. ~ 2007. 10.
김 홍	1986. 5. ~ 1991. 10.	김미정	2006. 3. ~ 현재
	1993. 9. ~ 2002. 11.	장혁원	2009. 3. ~ 2017. 2.
주양구	1987. 5. ~ 1997. 11.	김시형	2009. 3. ~ 2019. 2.
김정식	1988. 5. ~ 2000. 1.	노병학	2010. 3. ~ 2016. 4.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우영훈	1990. 9. ~ 1993. 2.	여수현	2016. 9. ~ 2018. 8.
이성문	1992. 5. ~ 2017. 4.	이재혁	2019. 3. ~ 현재
이희정	1994. 9. ~ 현재.	문성민	2019. 9. ~ 2021. 8.
손철호	1998. 3. ~ 2008. 2.	이무숙	2019. 9. ~ 현재
이창수	2002. 3 ~ 2003. 1.	김진영	2020. 3. ~ 현재
권중혁	2002. 3. ~ 2019. 8.		

교실사

영상의학교실은 1954년 5월 방사선과로 공식 임상과로 지정되면서 1959년 서철성 과장이 초대 과장으로 부임하여 1975년까지 교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87년 진단방사선과에서 치료방사선과가 분리되었고, 1993년 핵의학과가 분리되었다. 1995년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방사선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20년대에는 기사 김성길 선생이, 1930년대에는 기사 서상훈 선생(서철성 과장 부친)이 근무하였고, 1954년 서철성 과장이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연수 후 초대 과장으로 부임하였다.

1975년 제2대 과장으로 서수지 교수가, 1978년 박삼균 교수가 제3대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방사선과학교실이 개설되면서 초대 주임교수에 박삼균 교수가 임명되어 학생 강의를 시작하였다. 1983년 전석길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고, 1984년 서수지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동산기독병원에 1925년 미국 Victor사 제품 Acme 30 mA 단층촬영기가 설치되었고, 1966년 피키사 Magna scanner로 동위원소 검사를, 3 inch Well 측정기로 갑상샘 기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핵의학과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972년 Profexray 2,000 mA/150 kV를 설치하여 처음으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의 혈관 촬영 장치를 도입하였다.

1988년 국내 최초로 복부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펄스 도플러 초음파기(미국 Acuson사, 전산화 초음파진단기)를 설치하였고, 1989년 지방 최초로 2.0T MRI(한국 금성사, Spectro 20,000)가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내 최초로 3.0T MRI 기기(미국 GE사, Signal VH/I)가 도입되었다. 이어서 2004년 16다중단층촬영기(독일 Siemens사, SOMATOM

Sensation 16), 2005년 디지털 혈관촬영기(미국 GE사, INNOVA 4100), 2006년 64다중단층촬영기(독일 Siemens 사, Somatom Definition flash)와 디지털 혈관촬영기(독일 Siemens사, Axion Artis Dta)가 도입되었다. 2010년 MR(독일 Siemens사, Magnetom Avanto)과 CT(독일 Siemens사, Somatom Definition flash)를 추가 설치되었다. 2019년 성서 새 병원에 3.0T MR 3기(독일 Siemens사, Magnetom Vida 2기, 네덜란드 Philips사 Ingenital 3.0T CX 1기), CT 4기(독일 Siemens사, Somatom Force 1기, Somatom Definition Edge 2기, Somatom Drive 1기), 디지털 혈관촬영기 2기(독일 Siemens사, Artis Zee Q CEILING Artis Zee PURE Biplane), 디지털 유방촬영기 1기(미국 Hologic사, Selenia Dimensions Universal) 등의 최첨단 장비들을 도입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진료 영역에서 양적인 성장을 보면, 1996년 약 213,417건에서 1997년 233,621, 1998년 306,483, 1999년 191,327, 2000년 164,444, 2001년 251,872, 2002년 283,336, 2003년 296,556, 2004년 286,281, 2005년 298,879, 2006년 333,720, 2007년 333,533, 2008년 340,864, 2009년 366,177, 2010년 455,149, 2011년 435,766, 2012년 454,131, 2013년 401,369, 2014년 433,537, 2015년 624,710, 2016년 656,307, 2017년 662,820, 2018년 664,616, 2019년 744,601, 2020년 770,483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괄목할 만한 촬영 건수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세부 전공은 1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뇌 신경계(서수지, 주양구, 손철호, 장혁원 교수), 두경부(서수지, 주양구, 손철호, 이상권 교수), 흉부(서수지, 김정식, 고성민, 노병학 교수), 심장(김진영 교수), 복부(서수지, 우성구, 김홍, 권중혁, 김미정, 김갑철 교수), 비뇨생식기(서수지, 김정식, 손철호, 김시형 교수), 근골격(우영훈, 이성문, 이재혁 교수), 소아(이희정 교수), 유방(우성구, 여수현, 문성민 교수), 중재(전석길, 손철호, 이창수, 백승국, 장혁원, 김영환, 이무숙 교수)로 진료를 담당하여 왔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10개 전공(뇌신경계, 두경부, 흉부, 심장, 복부, 소아, 비뇨생식기, 유방, 근골격, 중재적 방사선학)의 이론은 통합 교과목에 포함되어 교육을 하고 있다. 2주간의 임상실습에서는 담당교수의 지도 하에 영상의학과 영역에서 필요한 실제 수기를 익히고 학생 교육용 X-Ray 파일과 슬라이드 및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며, 각종 집담회 참석과 1례 이상의 증례 발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의학 연구자 및 의학 교육자의 기본자세와 영상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과 영상학적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본 기술을 익히고 여러 가지 영상진단 기기의 이론과 이용법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석사 50명과 박사 3명 배출하였고, 현재 석사과정에 3명이 재학 중이다.

전공의교육으로 1966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여 2021년 현재 77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현재 전공의는 총 4명으로 10개의 세부 전공 분야(뇌신경계, 두경부, 흉부, 심장, 복부, 소아, 비뇨생식기, 유방, 근골격, 중재적 방사선학)로 나누어져 있고, 수련기간은 4년으로 수련기관 및 각 연도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2021년 기준, 복부,흉부 각 9개월, 인터벤션 6개월, 유방 5개월, 두경부, 근골격, 소아 각 4개월, 심혈관 3개월, 비뇨생식기, 핵의학 각 2개월의 수련기간을 배분하고 있다. 매일 교과서 초독회, 주 6회 이상의 임상 각 과와의 Interdepartment Conference, 월 4회의 국내외 최신 문헌 초독회, 교수 강의, 외부강사 초청 강의, 증례 발표 등으로 이론 습득과 실제 임상에서의 진단 및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실기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연구

1967년 서철성 과장의 ‘미만성 중독성 갑상샘종 치료를 위한 방사성 옥소 I-131 투여량 결정에 관한 연구’가 교실의 첫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 후 현재까지 442편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 중 국제전문학술지 80편, 국내전문학술지 362편이며, 학위논문은 53편으로 석사 50편, 박사 3편이다.

학술 활동 및 수상 내역을 보면, 1999년 대한영상의학회 전공의 평가고사에서 이진희 선생이 우수상(수석), 2003년 손철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제13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2004년 이희정 교수가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저술상, 2006년 고성민 교수가 북미방사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 2007년 권중혁 교수가 북미 방사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전시상, 2008년 이성문 교수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 학술대회에서 전시 부문 금상, 2009년 김미정 교수가 유럽소화기방사선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전시상, 2009년 김시형 교수가 제16회 European Society of Urogenital radiology 학술대회에서 전시부분 1등상, 2013년 김시형 교수가 European Society of Radiology에서 International Paper Winner, 2017년 홍정희 선생이 대한영상의학회 전공의 평가고사에서 우수상(수석)을 각각 받았다.

편집 활동으로는, ‘복부영상의학(이희정, 2005년)’, ‘Uroradiology(김시형, 2012)’, ‘Gynecologic Imaging(김시형, 2012)’, ‘소아영상의학(이희정, 2020)’, ‘근골격영상의학(이성문, 2013)’, ‘Pediatric Radiology(이희정, 2014)’, ‘Pediatric Radiology(이무숙, 2014)’ 등의 저서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봉사

서수지 교수는 교학부장, 의과대학장, 동산병원장, 의무부총장겸 동산의료원장, 대한영상의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이성문 교수는 동산의료원 전산차장, 대한근골격영상의학회회장을, 이희정 교수는 대한소아영상의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영상의학의 발전을 위해 고시, 수련, 감사, 학회지 심사 및 편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 동문 회원들은 대구·경북지회의 역대 회장 및 임원단을 역임하여 지역 영상의학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봉사를 해오고 있다.



2022년 2월 <전공의 수료 기념> 뒷줄 왼쪽 두번째 이재혁, 일곱번째 이무숙 교수
앞줄 왼쪽 두번째 김미정, 이상권, 이희정 교수

○ 외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이 철	1950. 8. ~ 1971. 2.	과장	조원현	2003. 3. ~ 2003.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영관	1972. 3. ~ 1972. 6.	과장	배옥석	2003. 9. ~ 2004. 2.	주임교수 겸 과장
강중신	1972. 7. ~ 1981. 2.	과장	조원현	2004. 3. ~ 2005. 2.	주임교수 겸 과장
강중신	1981. 3. ~ 1985. 3.	주임교수 겸 과장	배옥석	2005. 3. ~ 2007.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영관	1985. 4. ~ 1988.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인호	2007. 3. ~ 2010. 9.	주임교수 겸 과장
김유사	1988. 3. ~ 1990. 2.	주임교수 겸 과장	강구정	2010. 10. ~ 2013. 2.	주임교수 겸 과장
강중신	1990. 3. ~ 1991.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형태	2013. 3. ~ 2016.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성대	1991. 9. ~ 1995.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용훈	2016. 3. ~ 2019. 2.	주임교수 겸 과장
정기용	1995. 9. ~ 1999. 8.	주임교수 겸 과장	류승완	2019. 3. ~ 2021. 2.	주임교수 겸 과장
임태진	1999. 9. ~ 2001. 2.	주임교수 겸 과장	강선희	2021. 3.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손수상	2001. 3. ~ 2003. 2.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명단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영관	1968. ~ 1990. 2.	김형태	1998. 3. ~ 2020. 11.
강중신	1972. 7. ~ 1998. 2.	김용훈	2004. 3. ~ 현재
박성대	1977. 6. ~ 2009. 8.	류승완	2004. 3. ~ 현재
조희웅	1981. 3. ~ 1983. 2.	강선희	2006. 3. ~ 현재
도영구	1981. 3. ~ 1983. 7.	조지형	2009. 3. ~ 현재
안우섭	1981. 3. ~ 1985. 3.	백성규	2009. 9. ~ 현재
박우현	1981. 3. ~ 2014. 2.	안근수	2013. 3. ~ 현재
임태진	1981. 5. ~ 2014. 8.	정운경	2013. 3. ~ 현재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손수상	1982. 3. ~ 2014. 8.	정은영	2013. 3. ~ 현재
추연만	1982. 5. ~ 1983. 3.	박익준	2013. 3. ~ 현재
최순옥	1983. 3. ~ 2017. 8.	김태석	2014. 3. ~ 현재
조원현	1983. 5. ~ 2017. 2.	권인규	2015. 3. ~ 2018. 2.
김유사	1983. 8. ~ 2006. 2.	손영길	2015. 3. ~ 현재
정기용	1983. 9. ~ 2006. 10.	이무현	2016. 9. ~ 현재
배옥석	1984. 3. ~ 2017. 2.	노영남	2017. 3. ~ 2021. 12
김인호	1985. 3. ~ 2012. 2.	배성욱	2017. 9. ~ 현재
이종면	1986. 9. ~ 1987. 6.	구은정	2019. 3. ~ 현재
박상균	1991. 3. ~ 1993. 11.	이정우	2021. 3. ~ 현재
강구정	1994. 9. ~ 현재		

교실사

외과는 1905년 독립된 과로서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구한말부터 일제 침략 시기, 해방 전후의 격동기를 거치며 외과의 기초가 다져졌다. 1950년 부임한 이철 선생은 1952년부터 3년간 뉴욕 방햄튼 시립병원에서 일반외과를 수료한 후 귀국하여 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미국에서 습득한 선진 의학지식 및 발전된 술기를 기반으로 동산병원 외과를 발전시키며,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59년 국내에 외과 수련제도가 개설되면서 첫 전공의로 최창록 선생이 수련을 시작하였다.

이철 선생은 1958년 동산병원 최초로 대한외과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국내 최초로 Annals of Surgery(1962년 4월호)에 ‘Cystoscopic visualization of the biliary tract’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shunt 술식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다. 1963년 이철, 최창록 선생은 ‘Percutaneous trans hepatic cholangiography’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내 의료 여건으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1968년 박영관, 최봉락 선생이 부임하였고, 1971년 이철 선생이 사직하면서 박영관 교수가 과장을 맡게 되었다. 1972년에는 최봉락 선생이 사직하면서,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외과 수련과정을 마친 강중신 교수가 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박영관 교수는 흉부외과장이었으나 외과에 함께 근무하였다. 박영관 교수는 1975년 일본 동

경대학교 제2외과에서 암 외과와 장기이식외과를 연수 후 국내 최초로 식도정맥류 출혈 환자에 대한 Sugiura 술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162례의 식도정맥류에 대한 직달수술(non-shunt)을 집도하였다. 이후 신장이식을 위한 동물실험을 거쳐 1982년 첫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전문화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강중신 교수는 국내 최초로 중심정맥삽관술 실시 후 전국적으로 보급하였고,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한 silver nitrate 용액과 크림 등도 소개하여 전문화된 화상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국내 외과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1978년 외과는 바울외과(강중신 과장)와 누가외과(박영관 과장)로 분리하여 약 6년 동안 운영하다가 1984년 통합하였다. 초대 주임교수는 강중신 교수가 맡으면서 1980년대는 대학병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우현, 임태진, 김유사, 정기용, 손수상, 조원현, 최순옥, 배옥석, 김인호 교수가 임용되어 교실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특히 1980년대는 교수들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연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83년 박성대 교수는 미국 Mount Sinai Hospital에서 연수를 하였으며, 박우현 교수는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아동병원에서 연수 후 소아외과 분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1983년 손수상 교수는 일본 동경 암연구회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소화기암 수술에 대해 단기 연수 후 위암 등 소화기 종양 수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85년 임태진 교수는 일본 순천당대학의 수기우라선생에게 간담도질환에 대한 연수 후 박영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식도정맥류출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수술을 받은 162명의 환자 경과를 국제간암간경화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다. 1985년 미국외과학회에서 세계에서 매년 5명을 선정하는 international scholar에 한국인 최초로 선발되어 미국외과학회에서 한국인의 위암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1986년 조원현 교수가 일본 동경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연수 후 박영관 교수와 함께 신장이식을 하였으며, 김유사 교수는 미국 Children Hospital of Los Angeles에서 소아외과 단기 연수를 하였다. 1987년 최순옥 교수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1년간 연수를 하였으며, 1988년 조원현 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스타즐 교수의 장기이식팀에서 연수 후 1994년 지방 최초로 간이식을 성공하였다. 배옥석 교수는 일본 동경도 고마고메도립병원 다카하시 선생과 모리 선생에게 항문, 대장 수술 관련 연수를 하였다. 1989년 박우현 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 Melbourne Royal Children Hospital에서 소아외과를 연수했으며 김인호 교수는 미국 Cleveland Clinic 및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외과 영양 및 담석 질환에 대한 연수 후 국내 외과영양학회의 창립 멤버 및 초대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같은 해 임태진 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간 및 췌장외과에 대한 연수 후 간담췌외과 진료와 연구에 전념하였다. 1991년 배옥석 교수가 영국 University of Glasgow에서 대장암의 분자생물학에 대한 연수를 하였다. 1994년 강구정 교수가 임용되어 경주동산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6년 동산병원 간담췌외과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전 소아외과만 잠시 분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진료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에 따라 1996년부터는 위장관 외과, 간담도외과, 대장항문외과, 유방 및 내분비외과, 이식 및 혈관외과로 나누어 분과 진료가 이루어졌고, 2002년 3월 행정적으로 분과로 분리되었다. 각 분과는 위장관외과 손수상, 김인호 교수, 간담췌장외과 임태진, 강구정 교수, 대장항문외과 박성대, 배옥석 교수, 유방내분비외과 김유사, 정기용 교수, 이식혈관외과 조원현, 김형태 교수, 소아외과 박우현, 최순옥 교수로 구성되었다. 이후 약 10년간 6개 분과로 운영되었다. 2012년 외상외과 분과가 개설되며 손영길 교수가 처음으로 맡았고, 이후 김태현, 이효준 선생이 이어받아 외상 및 외과적 중환자 치료를 발전시켰다. 2019년 이정우 교수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 외상의학 임상강사로 근무 후 우리 병원에 부임하였다. 외과는 2021년 11월 현재 총 7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체 교원 수는 17명이다. 위장관외과 2명, 간담췌외과 4명, 대장항문외과 3명, 유방내분비외과 3명, 이식혈관외과 2명, 소아외과 2명, 외상외과 1명의 교원이 진료, 교육, 연구, 봉사에 힘쓰고 있으며, 2명의 임상조교수와 2명의 연구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2018년 11월 뒷줄 왼쪽 정은영, 안근수, 손영길, 정운경, 김태석, 박의준, 강선희, 조지형 교수
앞줄 왼쪽 김형태, 강구정, 류승완, 배옥석, 김용훈, 백성규 교수

○ 간담췌외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강구정	2002. 3. ~ 2009. 3.	분과장	강구정	2016. 4. ~ 2017. 2.	분과장
김용훈	2009. 3. ~ 2016. 3.	분과장	안근수	2017. 3.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임태진	1981. 5. ~ 2014. 8.	안근수	2013. 3. ~ 현재
강구정	1994. 9. ~ 현재	김태석	2014. 3. ~ 현재
김용훈	2004. 3. ~ 현재		

교실사

간담췌외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분과 진료가 시작되었지만 2002년 행정적 분과 이후 본격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 임태진 교수와 강구정 교수가 분과 이전부터 간담췌분야의 진료에 주력하여 발전의 토대를 만든 가운데, 2004년 김용훈 교수, 2013년 안근수 교수, 2014년 김태석 교수가 임용되었고 같은 해 임태진 교수가 정년퇴임하면서 2021년 현재 4명의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간담췌외과는 간담도 및 췌장 종양 수술과 간이식 등에서 양적 및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최소침습수술 확대, 임상 및 기초중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태진 교수는 1985년 일본 순천당대학 의학부에서 연수 후 본격적으로 간담췌외과 수술을 시작하였다. 강구정 교수는 1997년 교토대학과 나고야대학 단기 연수와 1999년 미국 Duke University에서 1년간 간의 허혈, 재관류 손상 연구를 수행하였고, 안전한 간 절제 수술, 췌십이지장 절제술 및 간이식수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용훈 교수는 2002년 서울아산병원 단기 연수와 2003년 중국 천진 단기 견학을 통해 간이식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7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간이식외과에서 간원세포에서 기원한 줄기세포의 확립과 간세포로의 분화와 증식에 관여하는 인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2016년 안근수 교수가 미국 Mayo Clinic에서 간 담도암 유전체 분석 및 종양 시그널 분석 연구를, 2019년 김태석 교수가 미국 Cleveland Clinic에서 간이식 및 자궁이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임태진 교수가 1992년 최소침습수술의 기본이 되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2021년 현재 약 7,000례를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간담췌질환의 전 부분에서 복강경 수술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김용훈 교수가 처음으로 로봇 수술을 시행한 이후 담낭 절제술, 담도 절제술, 췌장 절제술, 간 절제술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김태석 교수가 임용된 후 간이식 수술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여 98%의 수술 성공률로 2021년 8월 150례를 달성하였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 새 병원 이전 후 진료 및 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2020년 이후 수술 및 연구 관련 업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소화기>, <내분비> 등에서 간담췌외과 질환에 대한 강의와 전공선택으로 의료인문 교과목으로 <의사와문학 그리고 예술>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외과학실습:간담췌외과> 임상실습에서 수술 및 외래 진료 참관, 입원 환자의 진료과정을 참관하여 간담췌외과 질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연구

강구정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두 차례 연구비를 수주하여 ‘정상 및 경화간에서 허혈, 재관류 손상에 관한 실험연구’를 하였고 동시에 의학유전연구소 연구비로 간경화 방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중개 및 임상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강구정 교수와 안근수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및 미국 보건성(NIH) 연구비를 수주하여 ‘간암의 유전체 연구’ 2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안근수 교수는 ‘담도암의 분자생물학적 및 유전체 특성’에 대해 암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 중이며, 김태석 교수와 강구정 교수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를 수주하여 ‘문맥 침범이 있는 간세포암의 치료’에 대한 전국단위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

탕으로 2002년 이후 외과계 최고 저널인 Annals of Surgery에 3편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미국 NIH, Mayo Clinic과 협력 연구로 암 게놈 아틀라스(TCGA) 프로젝트, 담도암 및 췌장암 GWAS study 참가, Pancancer analysis 등 여러 국제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고의 의학잡지 'Cell'과 'Nature'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02년 분과 개설 이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6건의 정부 출연 및 해외 연구과제 수주,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분과에서 모두 8권의 간담체질환 관련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강구정 교수는 '간담체외과 마스터 수술집'에 대표 저자를 맡았다. 또한, 강구정 교수는 연구 활동과 학회 활동을 인정받아 2018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 되었다. 2003년 '나는 외과 의사다'를 출간하여 일반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전공의 수련 지원에서 외면 받고 있는 외과 의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고, 2007년 '수술, 마지막 선택', 2015년 '메이요 평전'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봉사

임태진 교수는 대구·경북외과학회장, 대한내시경북강경외과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강구정 교수는 대구·경북외과 학회장, 한국간담체외과학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김용훈 교수는 동산병원 행정부원장, 안근수 교수는 대구동산병원 기획실장, 김태석 교수는 동산병원 장기이식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임태진 교수 정년퇴임식> 앞줄 왼쪽 김용훈, 임태진, 강구정 교수, 뒷줄 왼쪽 안근수, 김태석 교수

○ 대장항문외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박성대	2002. 3. ~ 2007. 2.	분과장	백성규	2014. 3. ~ 2020. 2.	분과장
배옥석	2007. 3. ~ 2014. 2.	분과장	정운경	2020. 3.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성대	1977. 6. ~ 2009. 8.	정운경	2013. 3. ~ 현재
배옥석	1984. 3. ~ 2017. 2.	배성욱	2017. 9. ~ 현재
백성규	2009. 9. ~ 현재		

교실사

1990년대 후반부터 분과 진료가 시작되었지만 2002년 행정적 분과 이후 본격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 박성대 교수와 배옥석 교수를 주축으로 대장암을 포함한 대장질환 및 항문질환 수술을 하였다. 박성대 교수는 1983년도에 미국 Mount Sinai Hospital에서 대장항문질환에 관한 연수를 하였고, 배옥석 교수는 1988년 일본 도쿄 고마고메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연수를, 1991년 영국 University of Glasgow Beatson Cancer Institute에서 대장암 유전자변이 연구에 대해 연수하였다. 분과 후 박성대 교수는 치핵의 냉동치료, 밴드 결찰술을, 배옥석 교수는 직장암의 자율신경계 보존술과 항문 조임근 보존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박성대 교수가 복강경을 이용한 우반결장술을 우리 병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대장항문외과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복강경 수술 술기를 발전시켜 2021년 현재 대장암 수술의 약 80%를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하고 있다. 배옥석 교수는 2002년 이탈리아 IVREA Colorectal Disease Center에서 항문직장기능질환, 변실금의 치료와 대장질환 복강경 수술에 대해 단기 연수를 하였다. 백성규 교수는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에서 전임의 수

런 후 2006년부터 대장항문외과 전임의로 근무하다 2009년 교수로 임용되었고, 같은 해 박성대 교수는 정년퇴임하였다.

2011년 수술용 로봇이 도입된 이후, 2011년 6월 백성규 교수가 첫 로봇 대장암 수술을 하였고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365례의 로봇 대장암 수술을 하였다. 또한 단일공 로봇 수술 방법을 고안하여 각종 국제전문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국내외 외과 의사들이 단일공 로봇 수술 참관을 위해 우리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백성규 교수가 2012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로봇 대장암 수술에 관해 연수하였다. 정운경 교수는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에서 전임의 과정 수료 후 우리병원에서 1년간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 2013년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배성욱 교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연구조교수로 근무 후, 우리병원에서 3년간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 2017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정운경 교수는 2015년 미국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로봇 대장암 수술 및 직장암에 관해 연수하였으며 배옥석 교수는 2017년 정년퇴임한 후 임상교수로 3년간 근무하고 2020년 퇴임하였다.

2020년 1월 우리 병원 대장항문외과 주최로 SPSS(Single Port Surgery Symposium)을 개최하여 대장항문외과의 높은 수술 술기, 학술적 역량을 국내외 외과의에게 소개하였다.

2002년 이태순 선생이 우리 병원 처음으로 대장항문외과 전임의로 근무하였고, 이후 백성규, 조민미, 백진오, 문소향, 박찬희, 정재엽 선생이 전임의로 근무하였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소화기> 등에서 대장질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외과학실습:대장항문외과> 임상실습에서 수술 및 외래 진료 참관, 입원 환자의 진료과정을 참관하게 하며 대장질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대장암을 포함한 대장질환에 대한 최소침습수술(복강경 및 로봇 수술), 양성 항문질환 치료, 대장내시경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연구

대장암에 대한 단일공 로봇 수술 방법을 고안하여 여러 국제전문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매년 대장암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봉사

배옥석 교수는 중국 연변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동남아시아 봉사단체인 Joyful hand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백성규 교수는 동산병원 응급의료센터장으로 봉사하였고, 현재 의료질관리실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2년 뒷줄 왼쪽 정운경, 백성규, 배성욱 교수, 앞줄 왼쪽 박성대, 배옥석 교수

소아외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유사	1986. 3. ~ 1988. 2.	분과장	정은영	2014. 3. ~ 2021. 8.	분과장
박우현	1988. 3. ~ 2002. 2.	분과장	구은정	2021. 9. ~ 현재	분과장
최순옥	2002. 3. ~ 2014. 2.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우현	1981. 3. ~ 2014. 2.	정은영	2013. 3. ~ 현재
최순옥	1983. 3. ~ 2017. 8.	구은정	2019. 3. ~ 현재

교실사

1986년 3월 소아외과 분과가 시작되었다. 김유사 교수가 첫 분과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 봉사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박우현 교수와 최순옥 교수가 분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소아외과는 1993년 4월부터 1995년 3월까지 병원 행정 조직 개편에서 일반외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었으나, 다시 외과 내 분과로 재개편되었다.

박우현 교수와 최순옥 교수는 외과 수술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고 최신 술식을 도입하여 소아외과를 발전시켰다. 특히 Hirschsprung 질환에서 국내 최초로 항문 직장계측기를 이용한 진단법 및 직장 흡인 생검의 acetylcholinesterase immunohistochemistry 진단 정립을 발표하였다. 또한 선천성 담도 폐쇄증의 조기진단에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진단법으로 ‘Triangular Cord Sign’을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외에도 초음파를 이용한 항문 직장 기형의 진단, 선천성 식도 폐쇄증 수술 시 늑막 외 접근법, 선천성 항문 직장 기형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인 Pena 수술, 장중첩증에서 수압을 이용한 정복법, 소아 고형장기 손상 시 비수술적 요법, 선천성 담도 폐쇄증 치료 방법인 Kasai 수술도 시행하였다. 그동안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 소아외과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 ‘Pediatric Surgery(5th Ed. 1998)’에 인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2002년 행정

적으로 분과로 분리되었다.

2006년 박우현 교수와 최순옥 교수가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되었던 5편의 논문이 ‘Pediatric Surgery(6th Ed, 2006)’에도 계속해 인용되었고, 특히 선천성 담도 폐쇄증의 초음파 진단법인 ‘Triangular Cord Sign’은 ‘Pediatric Surgery(7th Ed, 2020)’에도 실리는 등 최근까지도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

2009년 정은영 교수가 전임의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2012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소아 및 신생아 흉강경 및 복강경 수술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치료 결과를 내고 있다. 2014년 박우현 교수, 2017년 최순옥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였다.

구은정 교수는 우리 병원 전임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임상연구조교수로 근무한 후 2019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 새 병원으로 이전하면서 소아외과는 소아청소년과와 동일한 공간에서 진료하게 되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지역 최초로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선천성 기형의 산전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통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1년 우리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김정석 선생이 전임의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9월 정은영 교수는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Hospital for Sick Children에서 Necrotizing Enterocolitis(NEC)에서 RIC(Remote Ischemic Conditioning)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수 중이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소화기>, <출생과성장> 등에서 소아외과 질환에 대한 강의를 하며 <외과학실습:소아외과> 임상실습에서 수술 및 외래참관, 입원환자 치료 등을 참관하여 소아외과 질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소아외과 질환의 최신 지견, 수술 및 기본적인 관리, 복강경 치료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연구

1996년 선천성 담도 폐쇄증의 조기진단에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진단법, ‘Triangular Cord Sign’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등의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담도폐쇄증을 신생아 감염과 조기에 감별 진단함으로써 담도 폐쇄증

수술 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소아 및 신생아의 내시경 수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소아에서의 위 및 대장 용종에 대한 내시경적 절제, 소아에서의 총담관낭종에 대한 복강경적 치료의 초기경험 등의 연구 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보고하였다. 2021년에 소아 서혜부탈장에서 Laparoscopic totally extraperitoneal ligation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고,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노출과 신생아의 계통별 선천성 기형 발생의 상관관계도 밝혀냈다.

봉사

박우현 교수는 대한소아외과학회장, 의학유전연구소장, 의과대학 교학부장, 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순옥 교수는 대한소아외과학장 맡아 학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정은영 교수는 2014년 탄자니아 무완자의 부간도병원(Bugando Medical Centre)을 방문하여 현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소아외과질환의 수술법 및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구은정 교수는 2006년부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해외 단기의료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진료 봉사를 하였다.



2021년 왼쪽 정은영, 구은정 교수

○ 외상외과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이정우	2021. 3. ~ 현재

교실사

대한외과학회에서 지정한 공식 명칭은 ‘외상중환자외과’이다. 2009년 가장 늦게 개설된 분과이며, 외상과 중환자의 학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과 내 다른 분과들은 2002년에 공식적인 분과로 분리되었으나, 외상외과는 분과가 되지 않았다.

2012년 지역 외상센터 유치를 위해 손영길 교수가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지역 외상센터 유치는 불발되었다.

외상 환자와 외과적 중환자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에서 전임의를 수료한 김태현 선생이 2014년 부임하여 2년간 근무하면서 중환자실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담체외과 전임의를 수료한 이효준 선생이 2016년 부임하여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다가 그해 10월 포항선린병원으로 이직하였다. 대장항문외과에서 정년퇴임한 배옥석 교수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전담 전문의 지정과 맞물려 2018년부터 2년간 중환자실 전담 교수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정우 교수는 우리병원 간담체외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전임의 수련을 받았다. 2020년 우리병원 외상외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 2021년 교수로 임용되어 성서캠퍼스 새 병원의 외과계 중환자실의 전문성과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찬희 선생은 우리병원 대장항문외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에서 전임의로 수련을 받았다. 2021년 우리병원 외상외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아, 외과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외과계 중환자실은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 전문의는 응급실에서 외상 환자와 급성 복증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정형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중환자 간호팀, 집중 영양지원팀 등과의 통합적인 다학제 진료도 시행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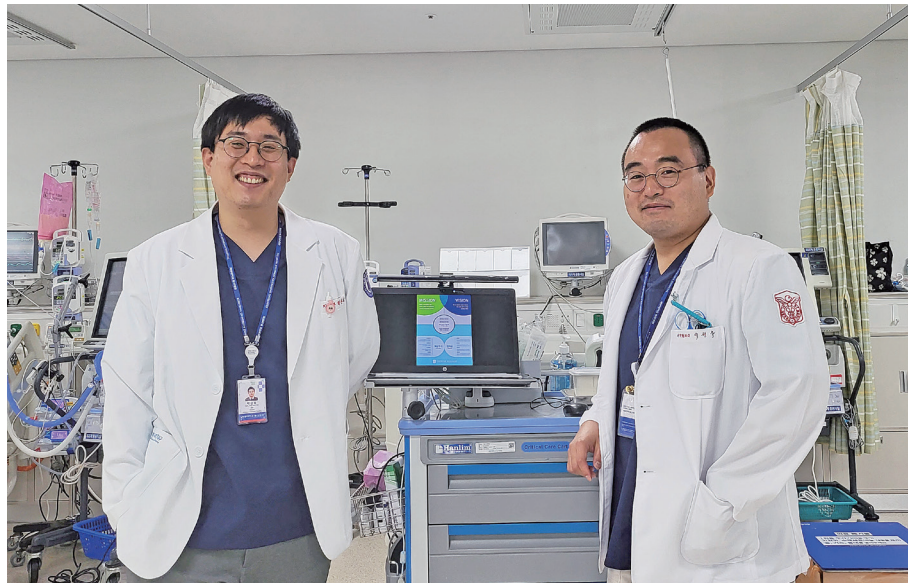
학부교육으로 외과계 중환자 치료와 중증 외상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전공의 교육으로 체계적인 중환자의학 및 외상학을 교육하고 있다.

연구

중환자의학과 중증 외상에 대해 각종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타 병원과의 공동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봉사

이정우 교수는 대한외과학회 외과술기 교육위원회 위원 및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재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월 왼쪽 박찬희, 이정우 교수

○ 위장관외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인호	2002. 3. ~ 2007. 2.	분과장	류승완	2010. 9. ~ 2019. 2.	분과장
류승완	2007. 3. ~ 2009. 8.	분과장	손영길	2019. 3. ~ 2021. 3.	분과장
손수상	2009. 9. ~ 2010. 8.	분과장	류승완	2021. 3.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강중신	1972. 7. ~ 1998. 2.	류승완	2004. 3. ~ 현재
손수상	1982. 3. ~ 2014. 8.	권인규	2015. 3. ~ 2018. 2.
김인호	1985. 3. ~ 2012. 2.	손영길	2015. 3. ~ 현재

교실사

위장관외과는 외과가 분과로 분리되기 이전부터 상부위장관 수술을 담당하는 분과로서 전문성을 표방하였다. 위장관외과의 역사에서 태두이신 강중신 교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중신 교수는 환자에 대한 사랑과 의사의 헌신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TA, GIA, EEA 등과 같은 자동봉합기를 이용한 위장관절제 및 문합술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보급하여 위장관계 수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또한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한 silver nitrate 용액과 크립 등의 보급으로 우리 병원을 전문적인 화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만들었으며, 교실 및 외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1997년 정년퇴임하였다. 손수상 교수는 탁월한 수술 실력과 함께 학회 활동과 병원 경영에도 힘써, 1988년 경주 동산병원장으로 취임하여 흑자경영으로 전환하였으며, 동산병원장, 동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하여 의료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09년 재직교수로는 처음으로 Fletcher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김인호 교수는 1998년 일본 국립암센터에 단기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일본의 섬세한 수술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국내 위암 수술 방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연간 300여례의 위절제 수술을 시행하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특히 미국 Cleveland Clinic 및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연수 후 한국에서 최초로 환자의 영양 관리와 경정맥 영양요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의 창립 구성원, 2010년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으로서 국내의 외과대사영양 연구를 이끌게 되었다. 이는 대사영양분야에서 타 기관보다 앞서나가는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류승완 교수는 2002년 연구장사를 시작하여 2004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2004년 위암 수술에서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운영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2007년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학술대회를 우리병원에서 개최하여, 복강경 수술을 이용한 위절제술 수술을 외과에서 생중계로 처음으로 시연하여 위장관외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다. 또한 대사영양분야에도 관심을 보여, 2009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연수 후, 복강경 위암 수술, 로봇 위암 수술 등 최첨단 수술법 도입하였고, 임상 환자 영양 및 비만대사 수술도 하고 있다. 위장관외과의 역사는 위암수술의 발전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국내 위암수술의 성적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 우수성을 세계학회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병원 위장관외과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전부터 시행한 개복 위절제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 로봇 보조 위절제술로 지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2013년 동산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를 설립하여 비만대사수술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와 내분비내과와 협력하여 이루어진 비만대사수술센터는 2015년부터 Dongsan Obesity and Metabolic Surgery(DOME)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비만대사수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12년 김인호 교수가 대구가톨릭의대로 이직하고 2014년 손수상 교수가 정년퇴임 후, 류승완, 권인규, 손영길 교수가 과를 운영하였다. 그 후 권인규 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직한 후 류승완, 손영길 교수가 현재 위장관외과를 이끌고 있다. 전임의 과정을 개설하여 1999년 박찬진 선생이 위장관외과에서 처음으로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후 박효원, 류승완, 정창욱, 손영길, 이승수, 신현백, 이승형, 권인규 선생이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소화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외과학실습:위장관외과> 임상실습에서 위장관외과 질환에 대한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위암 수술,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영양 관리 분야 등을 교육하고 있다. 위장관외과는 전임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보다 위장관외과의 전문화된 수술을 습득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연구

위암 수술에 있어 자동문합기 사용, 중심정맥삽관술의 국내 첫 실시와 국내 보급,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한 silver nitrate 용액과 크림 보급 등의 과거 연구 업적뿐만 아니라, 복강경 위전절제술에 있어 새로운 문합 방법인 파이 문합법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위암 수술에 관한 다기관 연구와 임상 영양 및 비만 대사 수술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봉사

강중신 교수는 동산의료원장, 대한외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및 학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손수상 교수는 의과대학 교학부장, 동산병원장, 경주동산병원장, 의무부총장겸 동산의료원장, 대한위암학회장,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암학회장, 대한기독병원협회장, 대한삼남외과학회장, 대한외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교류협회 한국-카자흐스탄협회장, 대구시민문화협회의회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김인호 교수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초대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류승완 교수는 의과대학 의학과 학과장, 의료원 전산차장으로 봉사하였고, 현재 경영전략부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동산동 박물관 앞에서, 동산캠퍼스 고별 기념> 윗줄 왼쪽 두번째 손영길, 류승완 교수

○ 유방내분비외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유사	2002. 3. ~ 2006. 2.	분과장	조지형	2010. 3. ~ 2011. 5.	분과장
정기용	2006. 3. ~ 2006. 10.	분과장	강선희	2011. 6. ~ 2015. 5.	분과장
강선희	2006. 11. ~ 2010. 2.	분과장	조지형	2015. 6.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유사	1983. 8. ~ 2006. 2.	조지형	2009. 3. ~ 현재
정기용	1983. 9. ~ 2006. 10.	이무현	2016. 9. ~ 현재
강선희	2006. 3. ~ 현재		

교실사

유방내분비외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분과 진료가 시작되었지만 2002년 행정적인 분과 이후 본격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김유사 교수, 정기용 교수가 유방내분비외과 분야를 담당하였다. 김유사 교수는 2006년에 정년 퇴임 한 후 약 6개월간 명예교수로 근무하다 사직하였고, 정기용 교수는 같은 해 10월 질병으로 작고하였다.

강선희 교수가 2001년 연구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06년 교수로 임용되어 피부 보존 유방 전절제술을 시작하였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외래 시스템 및 수술을 참관하였고, 2010년 미국 New York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 연수를 다녀왔다. 또한, 성형외과 손대구 교수와 협진 하에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 100례를 달성하였다.

권평보 교수는 2007년 영남의대에서 정년퇴임 후 우리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근무를 시작해 4년간 근무 후 사직하였다.

조지형 교수는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외과 전임의 근무 후 2009년 교수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유륜, 겨드랑이 접근법을 이용하여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009년 3월 유방갑상선센터를 개소하여 센터 개소와 더불어 전체 수술 건수는 약 785례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갑상선 암의 수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급증하는 갑상선 암 환자를 고전적 방법 뿐 아니라 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하였고, 로봇을 이용하여 갑상선 절제술을 시작하였다. 2011년 한 해 수술 건수는 874례이며, 외래 검사실에서 시행한 술기는 256례였다. 2012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로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2016년에 로봇을 이용한 구강 접근으로 갑상선 암의 일엽 절제술에 성공하였다. 2018년에 우리병원 수술실에서 2차 병원 전문의를 대상으로 구강접근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라이브 시연하여 우수한 의료 기술을 자랑하였다.

이무현 교수는 국립암센터에서 4년간 근무 후 2016년에 교수로 임용되어, 로봇을 이용한 액와 접근 갑상선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2019년 4월에 성서캠퍼스 새 병원 시대가 시작하면서 유방내분비외과는 유방갑상선센터에서 진료실 3개와 초음파 검사실 및 상담실을 운영하며 진료를 시작하였다. 유방암 다학제 진료의 일환으로 모든 항암제가 필요한 환자를 종양내과와 협진하며, 집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새 병원 이전과 함께 신형 로봇 장비가 추가되어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암 수술이 증가하였고, 이무현, 조지형 교수가 성형외과와 협진하여 로봇을 이용한 유방전 절제술과 유방재건술에 성공하였다. 조지형 교수가 로봇을 이용한 신경추적검사 라이브 수술을 시연하였다. 갑상선암 로봇 수술방법은 유륜, 겨드랑이 접근법을 이용한 갑상선절제술은 감소하고 로봇 구강 접근 갑상선 절제술이 증가하였다. 2021년 유방 및 갑상선의 총수술 건수는 800례 이상, 술기 건수는 600례 이상을 유지했으며 로봇을 이용한 구강접근 갑상선 절제술은 총 500례를 달성하였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생식및비뇨기>, <내분비> 등에서 강의를 하며 <외과학실습:유방내분비외과> 임상실습에서 유방 및 갑상선 질환에 대한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유방 및 갑상선 질환의 최신 지견, 수술 및 수술 전, 후 치료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매주 유방영상집담회 및 Text book reading, 유방 및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술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임의의 경우 외래에서 직접 초음파를 보면서 진단적 영상, 조직학적 검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술 술기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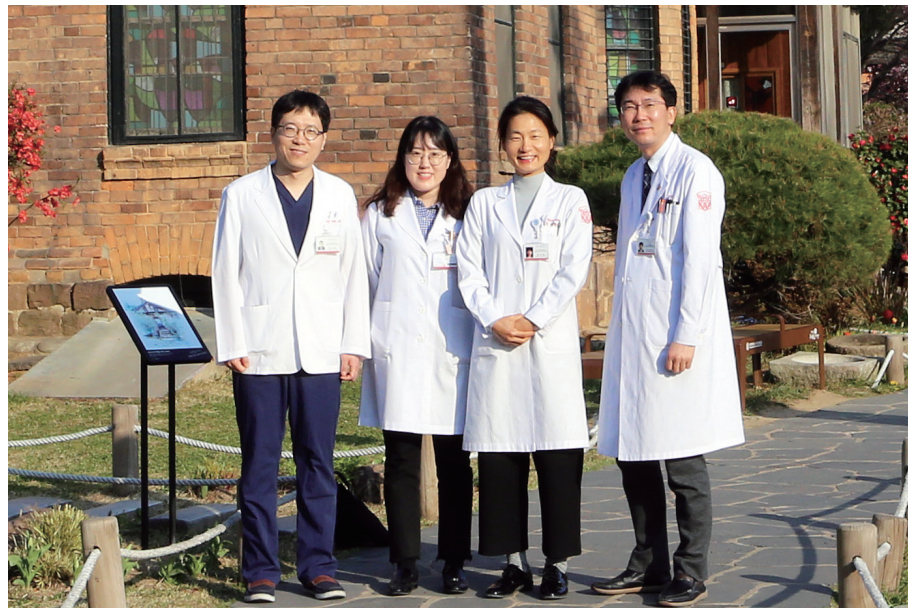
유방갑상선 초음파 및 술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연구

긴 역사를 통해 축적된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유방암의 다학제적인 진료를 통한 임상진료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갑상선암의 내시경 수술법과 구강접근 로봇 갑상선 수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현재 구강접근 및 액와접근을 통한 로봇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단일기관 및 다기관 임상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유방 수술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봉사

강선희 교수는 주임교수 및 과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지형 교수는 동산병원 진료협력센터장 및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재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왼쪽 이무현, 강선희, 조지형 교수

○ 이식혈관외과

역대 분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조원현	2002. 3. ~ 2003. 2.	분과장	조원현	2013. 3. ~ 2016. 9.	분과장
김형태	2003. 3. ~ 2013. 2.	분과장	박의준	2016. 10. ~ 현재	분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조원현	1983. 5. ~ 2017. 2.	박의준	2013. 3. ~ 현재
김형태	1998. 3. ~ 2020. 11.	노영남	2017. 3. ~ 2021. 12.

교실사

이식혈관외과는 1988년부터 질환별로 진료를 실시하며 분과 진료가 시작되었지만 2002년 행정적 분과 이후 본격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 조원현, 김형태 교수를 중심으로 신장 이식, 간 이식 및 혈관질환에 대한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작하였다.

1982년 박영관 교수팀에서 신장 이식을 시작하였고, 조원현 교수가 1986년 일본 동경대학과 1988년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장기 이식에 대한 연수 후 신장 이식의 기초를 다졌다. 김형태 교수가 2001년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이식외과 연수 후 신장 이식과 간 이식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2013년 지역 최초로 신장 이식 1,000례를 달성하였고, 2020년 사직하였다. 2013년 박의준 교수가 혈관질환분야에 임용되어 미국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에서 연수를 하였다. 이식혈관외과는 자체적으로 혈관질환의 검사를 위한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초음파 검사와 혈관 기능 검사 장비를 혈관질환 검사에 도입하였고, 미국 혈관 검사 자격증 소지자가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2017년 조원현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2017년 임용된 노영남 교수는 박의준 교수와 함께 이식혈관외과에서 영상 중재 시술 등을 자체 시행하다가 2022년 사직하였다. 2019년 성서캠퍼스 새 병원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최초로 하

이브리드 수술실이 마련되었고, 현재 80% 이상의 혈관질환을 중재시술 또는 하이브리드 수술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순환기>, <신장> 등 에서 이론 강의를 하고 있으며, <외과학실습:이식혈관외과> 임상실습에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술기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Dry lab을 통하여 실제 microsurgery skill에 대해 교육을 하고, 혈관 기능검사와 혈관 초음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표준화 환자를 통한 vascular ultrasound workshop과 computerized vascular disease senario model을 이용한 endovascular workshop을 각 1회 시행하여 최신 환자 치료기술에 대한 이해 및 술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이식혈관외과는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약 6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고, 국내외 학술회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혈관 중재 시술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봉사

이식혈관외과는 다양한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 동산병원 방문 의료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원현 교수는 긴급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에 관심을 두었다. 2008년 5월 미얀마 사이클론 재난지역 구호 활동, 2009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와 말라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동산병원 장으로 재직 시 한국기아대책과 함께 2005년 파키스탄 지진 동산의료원 구호팀을 파견하였고, 2006년 필리핀 지진 때에는 외상 후 정신장애 치유팀을 파견하는 등 재난 구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아프리카 말라위 중장기 의료선교를 통하여 헌신하였다.

조원현 교수는 2009년부터는 국내의 장기기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기기증 활성화 운동을 위해 201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단법인 생명잇기를 설립해 장기기증

에 관련된 홍보자료, 교육자료 등을 제작하였고,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를 설립해 효과적인 장기기증 운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 현재는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김형태 교수는 동산병원 교육수련부장, 제1진료부원장, 장기이식센터장으로 봉사하였다.

박의준 교수는 2014년 필리핀 타클로반 쓰나미 사태 때 긴급구호팀으로 봉사하였다.



2017년 앞줄 왼쪽 두 번째 조원현, 김형태, 박의준 교수

응급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이동필	1994. 5. ~ 2004. 2.	과장	김성진	2012. 9. ~ 2015. 2.	과장
최우익	2004. 3. ~ 2012. 8.	주임교수 겸 과장	진상찬	2015. 3. ~ 2018. 8.	과장
최우익	2012. 8. ~ 현재	주임교수	전재천	2018. 9. ~ 현재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최우익	2004. 3. ~ 현재	전재천	2018. 3. ~ 현재
김성진	2012. 9. ~ 2015. 11.	이상훈	2019. 3. ~ 현재
이경원	2013. 3. ~ 2014. 1.	김태권	2021. 3. ~ 현재
진상찬	2015. 3 ~ 현재		

교실사

응급의학교실은 동산병원 응급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응급실 개설 초기에는 응급환자를 분류하고 진료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으나, 1960년대 초 전용 공간이 생겨 응급실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응급실 전담 의사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1979년 8월 11일 응급실을 신축하여 이동식 응급 침상이 배치되면서 응급환자 관리, 개선 및 처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응급의료의 중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1995년 응급의학이 하나의 전문과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94년 우리 병원에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었고, 초대 과장으로 미국에서 일반외과와 응급의학을 전공한 이동필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동필 교수는 대구·경북지역 응급의료인협회의 창설에도 기여하였다. 1995년 12월 응급의학교실이 개설되었고 같은 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어, 1999년 2월 최초

의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의과대학에도 응급의학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응급환자 진료에 관한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졌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특성에 따른 중증도 평가, 중증 응급환자 진료, 전문진료체계 네트워크 구성 등 보다 나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성서캠퍼스 새 병원 이전으로 응급의료센터는 보다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 체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2021년 최우익, 진상찬, 전재천, 이상훈, 김태권 교수, 전문의 5명과 각 연차 당 2명의 전공의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약 40,000명의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8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응급의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응급과중증치료>에서 응급의학 총론, 심폐소생술, 외상학, 독성학, 내외과적 응급질환, 신경계, 환경 응급, 응급의료체계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고, <응급의학실습> 임상실습을 통해 일차 진료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기초 교육을 하고 있다.

전공교육으로 수련 기준에 따라 4년간 기본 응급처치 및 응급의학 원리, ACLS, ATLS, 다양한 응급질환 등에 대한 진료 및 술기를 수련한다. 또한 타 과 파견과 집담회를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수련 기간동안 1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연구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 고유량 비강산소요법, 아트로핀 투여, 고압 산소치료 등의 주요 치료와 진단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중독 및 외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봉사

응급의학교실은 대구응급의료추진단 활동을 통해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관련 protocol 정비 등을 위한 활동을 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1월 왼쪽 진상찬, 전재천, 최우익, 김태권, 이상훈 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중강	1975. 6. ~ 1981. 2. 1981. 3. ~ 1993. 3.	과장 주임교수 겸 과장	안병훈	2009. 8. ~ 2015. 8.	주임교수 겸 과장
송달원	1993. 4. ~ 2007. 2.	주임교수 겸 과장	남성일	2015. 9. ~ 2019. 8.	주임교수 겸 과장
안병훈	2007. 3. ~ 2008. 7.	주임교수 겸 과장	여창기	2019. 9. ~ 2021. 8.	주임교수 겸 과장
남성일	2008. 8. ~ 2009. 7.	주임교수 겸 과장	김동은	2021.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 기간	성명	재임 기간
김중강	1975. 6. ~ 2005. 8.	손영탁	1996. 3. ~ 1997. 2.
김경자	1972 ~ 1981. 10.	안병훈	2000. 3. ~ 2015. 11.
임동규	1983. 3. ~ 1984. 2.	남성일	2004. 3. ~ 현재
이상홍	1982. 7. ~ 1984. 4.	여창기	2005. 9. ~ 현재
송달원	1984. 6. ~ 2009. 2.	김동은	2009. 3. ~ 현재
김종훈	1985. 5. ~ 1993. 2.	박순형	2013. 3. ~ 2017. 9.
이승우	1987. 5. ~ 1988. 12.	정종인	2017. 3. ~ 현재
방성혁	1992. 3. ~ 1994. 2.	박종원	2019. 3. ~ 현재
김덕준	1994. 3. ~ 2001. 2.		

교실사

1936년 11월 장원용 선생이 과장으로 부임하며 개설된 동산기독병원 안이비인후과를 모태로 하고 있다. 장원용 선생은 1942년 병원장으로 임명되어 3년간 근무하다 1945년 12월 사직하였으며 1948년 5월 백준기 선생이 과장으로

로 부임하였다. 백준기 선생은 미국 Cleveland Clinic 연수 후 습득한 선진화된 수술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이비인후과의 명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1965년 사임한 백준기 선생은 1978년에 다시 부임하여 1981년까지 근무하였고, 부임한 첫 해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1965년 김정금 선생이 제4대 과장에 임명되었고, 1966년 7월 안이비인후과가 안과와 이비인후과로 분리되었다. 1974년 미국 브루클린 안이비인후과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홍래복 선생이 과장으로 부임하였고, 1975년 김종강 교수가 부임하여 1976년 제6대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교실이 개설되면서 김종강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종강 교수는 1985년 미국 University of Iowa 연수 후, 1986년 11월 난청연구소를 개소하고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2005년 정년퇴임을 하였고 교실의 첫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1986년 전공 분야를 이과학, 비과학, 두경부외과학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김경자, 임동규, 이상홍, 송달원, 김종훈, 이승우, 방성혁 교수 등이 초창기 교실 발전에 이바지했다.

1984년 미국 University of Cincinnati Medical Center에 근무하던 송달원 교수가 임명되었고, 두경부외과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93년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교실 발전에 헌신하였고, 2009년 정년퇴임하였다. 퇴임 후 경주동산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경주동산병원장으로 취임하여 2017년까지 봉사하였다.

김종훈 교수는 1985년 임용되어 이과학분야를 담당하였으며, 1989년 미국 Harvard University 안이과병원에서 연수하였으며, 1993년 사직하였다. 방성혁 교수는 1990년 임용되어 새로 도입된 비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초창기 국내 부비동내시경 수술을 선도하였고 1994년 사직하였다. 김덕준 교수는 1994년 임용되어 이과학분야를 담당하였으며, 1999년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연수 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다 2001년 사직하였다. 안병훈 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연수 후 2000년 비과학분야에 임용되었고, 2007년 주임교수 겸 과장에 임명되었다.

남성일 교수는 2004년 이과학분야, 여창기 교수는 2005년 두경부분야, 김동은 교수는 2009년 비과학분야에 임용되었다. 미국에 있던 홍래복 선생이 귀국 후 2010년 임상교수로 임용되어 2년간 교실을 위해 봉사하였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던 박순형 교수가 2013년 이과학분야에 임용되었다. 2015년 남성일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안병훈 교수가 사직하였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던 정종인 교수가 2017년 비과학분야에 임용되었다. 박순형 교수가 2017년 사직하였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던 박종원 교수가 2019년 두경부분야에 임용되었다. 여창기 교수가 2019년 주임교수 겸 과장에 임명되었고, 김동은 교수가 2021년 주임교수 겸 과장에 임명되어 봉사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이비인후과학>을 담당하였고,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인체감각기> 통합교과목에서 이비인후과질환을 강의하고 있다. <이비인후과학실습> 임상실습에서 이론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집담회와 다양한 연구활동에도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연차별 수련 계획에 따라 이과, 비과, 두경부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래 진료, 수술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정기적인 강의도 시행하고 있다. 증례 토론회, 저널 집담회 등을 통해 최신 지견을 습득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전공의 카데바 워크숍을 통해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였다.

연구

교실 설립 초기 중이수술, 안면신경 수술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청각장애, 측두골골절 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난청연구소 설립 이후에는 난청과 유소아중이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중강 교수는 1998년 대한이비인후과 학술대회에서 ‘삼출성 중이염의 역학 및 병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1999년 제1회 난청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남성일 교수는 2007년부터 인공와우이식술, 두개저외과 수술 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 내이 및 측두골 조직 병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대한두개저외과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또한 어지럼증, 귀 내시경을 이용한 중이 수술 및 두개저 수술, COVID-19 등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다. 박순형 교수는 2013년 대한청각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유연제최우수상을 받았다. 비과영역에서는 1990년대 초반 국내에 드물었던 비내시경 수술 장비가 도입되면서 최신 부비동염 수술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수술법에 관한 연구와 함께 부비동염과 비염의 병인을 밝히기 위한 기초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안병훈 교수는 2007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석당우수논문상을, 2015년에는 대한비과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아울러 기초연구로 호흡 상피세포의 조절 기전과 두경부암 세포주의 세포 사멸 기전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두경부외과 영역에서는 다양한 두경부 고형암과 연관된 염색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송달원 명예교수는 2009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석당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봉사

동산의료선교복지회에서 주관하는 해외 의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오지를 찾아 인술을 펼치는 국내 의료 봉사활동 및 수해 지역 등 재난 시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중강 교수는 유소아 난청 환자의 치료와 재활, 정기적인 청각장애 특수학교 학생 무료진료와 상담을 펼쳤으며, 그 공로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첫 사회봉사상과 원로회원 특별상을 받았다.

송달원 교수는 동산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안병훈 교수는 동산병원 의료질관리장, 대한비과학회 및 대한안면성형 재건학회 상임이사로 봉사하였다. 남성일 교수는 동산의료선교복지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의료 봉사활동에 다수 참여하였다.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교내 업적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COVID-19 대응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다. 또한 동산병원 진료협력센터장, 대구동산병원 기획실장, 대한이과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두개저외과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였고, 현재 대구동산병원 부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여창기 교수는 자랑스런 동산인상 수상과 동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장으로 봉사하였다. 김동은 교수는 쪽방 주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사회봉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과장, 대한수면호흡학회 상임이사로도 봉사하였고, 교내 우수교육상과 업적우수상도 수상하였다.



2021년 앞줄 왼쪽 박종원, 여창기, 김동은, 남성일, 정종인 교수

○재활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편영식	1992. 4. ~ 1992. 6.	과장	서성일	2010. 2. ~ 2011. 2.	주임교수
손승원	1992. 7. ~ 1994. 8.	과장	박재욱	2010. 2. ~ 2011. 2.	과장
박재욱	1994. 9. ~ 1998. 5.	과장	이소영	2011. 3. ~ 2020.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기영	1998. 6. ~ 2006.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소영	2020. 3. ~ 현재	주임교수
이소영	2006. 9. ~ 2010. 1.	주임교수 겸 과장	최용민	2020. 3. ~ 현재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박기영	1998. 3. ~ 2007. 8.	이동규	2012. 9. ~ 2017. 2.
이소영	2004. 3. ~ 현재	최용민	2018. 3. ~ 현재
김두환	2012. 3. ~ 2020. 2.	조장혁	2020. 3. ~ 현재

교실사

재활의학교실은 1962년 6월 조앤 포 선교사에 의해 처음 개설된 물리치료실이 모태가 되었다. 당시는 작은 병실 하나를 이용하여 적외선 램프만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그후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1979년에는 운동치료실, 수치료실, 전기치료실, 작업치료실을 두게 되었다.

1983년 정형외과학교실의 강창수 교수가 물리치료실장을 맡았고, 1990년에 재활의학교실이 개설되었다.

1992년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 정형외과학교실 편영식 교수가 과장직무대리로 임명되었다.

1994년 미국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박재욱 선생이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독립된 진료과로서 기능을 시작

하였다.

1996년 3월 전공의 수련과정을 신설하여 이소영 교수가 1기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1명의 전공의가 선발되어 수련하고 있다. 1998년 박기영 교수가 임용되어 근무하다 2006년에 사직하였고, 우리 병원에서 1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소영 교수가 2004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2008년 미국으로 귀국하였던 박재욱 교수가 다시 부임을 하면서 전공의 수련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김두환 교수와 이동규 교수가 임용되어 근무하다 사직하였고, 현재 이소영, 최용민, 조장혁 교수가 활발하게 교육, 연구, 진료와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재활의학>, <재활의학실습>을 담당하였고,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재활의학>은 <임상총론> 통합교과목에서 재활의학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도덕, 의료윤리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체적 기능을 유지 또는 회복시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2000년 재활의학 전공이 신설되어 다수의 석박사를 배출하여 교실의 연구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교수들은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총 6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봉사

1996년부터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료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소영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애망장애영아원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방문 봉사를 시행하였고, 국민연금공단 장애 판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용민 교수는 의료선교 봉사활동으로 여러 차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지역 내 다수의 노인복지관에서 만성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조장혁 교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정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1년 12월 앞줄 왼쪽 최용민, 이소영, 조장혁, 김경태 교수

정신건강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직기간	직책	성명	재직기간	직책
신경준	1964. 8. ~ 1972. 2	과장	김희철	2004. 9. ~ 2008. 8.	주임교수 겸 과장
하재창	1972. 3. ~ 1981. 2.	과장	김정범	2008. 9. ~ 2014. 8.	주임교수 겸 과장
하재창	1981. 3. ~ 1992. 3.	주임교수 겸 과장	김희철	2014. 9. ~ 2016. 8.	주임교수 겸 과장
박영남	1992. 4. ~ 1996. 8.	주임교수 겸 과장	정성원	2016. 9. ~ 2020. 8.	주임교수 겸 과장
정철호	1996. 9. ~ 2000.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양태	2020. 8.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김정범	2000. 9. ~ 2004. 8.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직 기간	성명	재직 기간
하재창	1972. 3. ~ 1992. 4.	김정범	1992. 9. ~ 현재
신홍식	1974. 5. ~ 1983. 5.	김희철	1996. 3. ~ 현재
박종한	1981. 2. ~ 1995. 8.	정성원	2008. 3. ~ 현재
이은주	1983. 3. ~ 1984. 8.	김양태	2012. 3. ~ 현재
박영남	1984. 7. ~ 2008. 8.	이호준	2020. 3. ~ 현재
정철호	1985. 3. ~ 2019. 2.		

교실사

정신건강의학교실은 1964년 8월 신경정신과로 개설되었으며 초대 과장으로 신경준 과장이 부임하였다. 개설 초기에는 외래 진료만 하였으나, 신경준 과장이 1965년 미국 Kansas Neurology Institution, North Shore Hospital에서 연수 후 폐쇄병동을 운영하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1972년 하재창 교수가 과장으로 부임하여 교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1992년 4월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였다.

1974년 신흥식 교수가 부임하여 조현병 환자의 집단치료 및 야외치료를 시작하였다. 야외치료를 통하여 개방된 공간에서 입원 환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퇴원 환자의 지속적인 집단 치료를 통해 더 쉽게 사회적응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979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우리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서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하재창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81년 박종한 교수가 임용되어 노인정신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또한 대구 최초로 사이코드라마를 환자 치료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1984년 박영남 교수는 미국 Rush Presbyterian St. Luke's Medical Center에서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Loyola University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우리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정신약물학과 정신치료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1985년 정철호 교수가 임명되어 대구·경북 최초로 아동청소년정신분야의 진료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2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서8병동 건물로 이전하면서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증설되었다.

1992년 김정범 교수가 임용되었고 정신치료, 자문정신의학 및 정신신체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8년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황장애 환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공황장애 환자 자조 모임인 '한마음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1998년 5월에는 불안클리닉과 학습장애 클리닉을 개설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1995년 김희철 교수가 연구강사로 근무하다 1996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노인정신의학, 노인성 치매 및 기분장애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시작하였고, 미국 New York University 치매연구센터에서 연수 후 노인정신의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1999년 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서구정신보건센터를 우리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초대 센터장으로 정철호 교수가 위촉되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치료에 매진하였다. 2006년 5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계명대학교 법인건물로 이전하면서 병동을 24병상으로 축소하였다.

2008년 정성원 교수가 임용되어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등 전반적인 정신과 질환에 대해 진료를 하였다. 이후 2018년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ISEN에서 전기경련치료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고 지역 내 최초로 외래 통원수술 센터에서 당일 ECT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후 1대의 기계를 추가 도입하였고, 정식으로 수술방을 배정받아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2년 김양태 교수가 임용되어 중독정신의학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지속하였고, 2015년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산 Wee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정철호 교수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체계적인 위기학생 관리,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 등을 하였다.

2014년부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대구스마일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김정범 교수가 센터장으로 봉사하며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 새 병원 이전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와 병동이 한 공간에 위치하게 되면서, 과거에 따로 분리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들의 입원과정 및 타 과 진료 등이 원활하게 되었다.

2020년 이호준 교수가 임용되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산 Wee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우리 병원이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으로 정성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현재 지역사회 정신의학 교육을 위해 전공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김정범, 김희철, 정성원, 김양태, 이호준 교수와 8명의 전공의가 교실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의료인문: 행동과학>, <정신> 교과목을 통해 정신의학 이론을 교육하고, <정신건강의학실습> 임상 실습에서 정신과 외래 참관, 환자 면담, 안정병동 환자 사례 실습, 응급실 참관, 전기경련치료 참관 등 다양한 임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CPX, OCSE 실습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역량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의학영역의 전문적인 지식, 임상기술, 태도를 갖춘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표로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공의 1년차는 각 정신과 질환에 대한 개념 학습, 신경과적 진찰, 신경학 기초 이론을 학습하며 환자 치료에 적용하며 정신과 진료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를 가진다. 2년차는 응급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중독정신의학, 수면의학, 자문정신의학 등 정신과 세부분야에 대한 학습과 함께 타과 협진의회를 수행하며 다양한 임상사례를 경험한다. 3년차는 노인정신의학, 소아정신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전기경련치료 등 다양한 생물학적 치료에 대

한 이해를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4년차는 전문화된 정신치료에 대한 심화학습과 함께 후배 전공의를 지도하며,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1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또한, 미국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수련 중 연 80회 이상의 원내 컨퍼런스와 다양한 국내학회의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교실은 1969년 전공의 수련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연구

박영남교수는 정신생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정철호 교수는 소아정신의학, 수면정신의학 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다. 김정범 교수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관련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우울증임상연구센터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김희철 교수는 치매 등의 노인정신의학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성원 교수는 조현병, 우울증, 전기경련치료 등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이호준 교수는 소아정신의학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봉사

박영남 교수는 의과대학장, 동산의료원장 등으로 봉사를 하였고, 정철호 교수는 동산병원장과 한국수면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김정범 교수는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사로 위촉되어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지견 확장에 기여하였고, 김희철 교수는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특임이사로 활동하며 기분장애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성원 교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위원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평이사로 활동하는 등 전공의 수련과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의과대학 입학및대외협력실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김양태 교수는 대한중독정신의학회 특임이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평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호준 교수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교실은 1997년 편견해소 캠페인, 1999년 대구 최초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섰다. 2005년 카자흐스탄공화국 알마티 의료선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06년 필리핀 레이테섬의 대형 산사태 현장에서 피해 생존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상담과 위기개입 등 정신치료를 진행하였다. 2011년 울릉도 원격진료에 참여하였고, 2013년 11월부터는 동산 Wee센터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스마일센터를 통한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정신과적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계명대학교 학생 상담 또한 활발히 하고 있으며,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영역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 2월 <전공의 수료 기념> 앞줄 왼쪽 정성원, 김희철, 김양태, 김정범, 이호준 교수

정형외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익동	1963. 4. ~ 1971. 7.	과장	송광순	2000. 9. ~ 2004. 8.	주임교수 겸 과장
강창수	1971. 8. ~ 1981. 2.	과장	강철형	2004. 9. ~ 2008. 9.	주임교수 겸 과장
강창수	1981. 3. ~ 1992. 5.	주임교수 겸 과장	민병우	2008. 9. ~ 2012. 2.	주임교수 겸 과장
편영식	1992. 6. ~ 1996. 8.	주임교수 겸 과장	배기철	2012. 3. ~ 2018. 2.	주임교수 겸 과장
손승원	1996. 9. ~ 2000. 8.	주임교수 겸 과장	조철현	2018. 3.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강창수	1971. 8. ~ 2000. 8.	민병우	1992. 5. ~ 현재
편영식	1974. 5. ~ 2007. 2.	이우율	1994. 3. ~ 1995. 2.
손승원	1981. 3. ~ 2012. 8.	전시현	2002. 3. ~ 2005. 2.
송광순	1984. 3. ~ 1986. 2.	배기철	2005. 9. ~ 현재
	1989. 5. ~ 2020. 2.	조철현	2009. 3. ~ 현재
이재민	1984. 3. ~ 1984. 6.	이경재	2009. 9. ~ 현재
권영철	1985. 3. ~ 1985. 9.	손은석	2012. 9. ~ 현재
성철수	1986. 3. ~ 1987. 9.	이시욱	2016. 3. ~ 현재
고순봉	1987. 5. ~ 1988. 2.	김범수	2020. 3. ~ 현재
강철형	1989. 5. ~ 현재		

교실사

초기 정형외과 환자는 일반외과 의사들이 진료하였으며, 외국에서 선진의료로 연수한 김익동 선생에 의해 1963년 4월에 정형외과가 개설되었다. 1971년 강창수 교수가 제2대 과장으로 부임하고, 1974년 편영식 교수가 부임하면서 체계적인 환자 진료 및 전공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강창수 교수는 미국 연수 후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재치환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강창수, 편영식, 손승원 교수가 임용되어 연구 및 진료가 세분화되었고, 편영식 교수는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된 Harrington Rods, Luque Rods를 이용한 척추 수술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1989년 송광순 교수가 임용되어 소아정형외과 및 족관절 질환을, 강철형 교수가 임용되어 척추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연구를 시작하였다. 강창수 교수는 1974년 비구 골절에 대하여 새로운 강선 고정법을 개발하여 국내외 학회에 발표하였으며, 미국 정형외과 교과서 Rockwood 제3판(1991), 제4판(1992) 및 Marvin Tile 교수의 Pelvis and acetabular fracture 교과서 제2판(1996)에 수술 술기와 함께 인용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1992년 편영식 교수가 제3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 1995년 손승원 교수는 Harvard University, Brigham & Women's Hospital에서 연수 후, 인공슬관절 치환술 및 관절경 진료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6년 손승원 교수가 제4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97년 송광순 교수의 논문이 교실 단독 논문 최초로 Journal of Orthopedic Trauma지에 게재되었고, 1996년과 1997년 2년에 걸쳐 4편의 논문이 제1저자 또는 공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되어, 교실의 학문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대구지역에서 김익동 선생에 이어 강창수 교수가 2번째로 대한정형외과학회장에 피선되어 교실에서 2명의 학회장을 배출함으로써 교실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2000년 송광순 교수가 제5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고, 2004년 강철형 교수가 제6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교실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다.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송광순 교수의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인 '임상 본상'을 수상하였고, 이 논문은 미국 골절학 교과서에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 같은 해에 민병우, 조철현, 이경재 교수는 만례재단 학술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2008년 민병우 교수가 제7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교내 및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교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2년 배기철 교수가 제8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세대로서 중책을 맡아 교실을 발전시켰다. 2013년 10월 26일 성서캠퍼스 의과대학에서 교실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동문회의 적극적 후원과 협조로 성황리에 마쳤다. 2017년 송광순 교수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최고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에 노인골절치료센터를 개소하였고, 지역 최초로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5,000례를 달성하였다. 2018년 교실

주최로 제1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조철현 교수가 제9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 새 병원 이전은 교실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1년 전공의 평가시험에서 교실이 전국 2위를 기록하여 우수한 전공의 수련 및 교육 시스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시욱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었다. 같은 해 이경재 교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시욱 교수는 산학협력 특별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인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CiOS)가 SCI에 등재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CiOS 인용상을 수상하였다. 학문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각 전공분야에서 차별적 우월을 가지기 위하여 전 교수진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한된 인적 자원과 환경에서 현재까지 많은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업적들이 최근 20년간 연구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점차 증가 하는 추세임은 더욱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많은 연구업적들이 수상으로 이어짐으로써 교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연간 외래 환자수가 1964년 5,694명에서 2020년 40,971명으로, 연간 입원 환자수는 1964년 8,746명에서 2020년 29,127명으로, 수술 환자수는 1981년 721명에서 2020년 3,039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최근 40년간 전문의 시험에 100% 합격하는 등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교실 개설 이후 129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동문들은 지역사회에서 각자 사회적 역할을 통해 지역 의료계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지역사회 활동이나 교실에 대한 지원, 협력 및 단결력은 타 대학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근골격계>, <정형외과학실습>을 교육하고 있으며, <진료역량개발>과목에서 CPX와 OSCE 수업을 시행하여 정형외과적 기본 이론 배양 및 수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원교육으로 고관절학, 슬관절학, 소아정형외과학, 척추외과학, 견관절학, 주관절학, 족부족관절학, 외상학, 관절경학, 스포츠의학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61명의 석사와 8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전공의교육으로 고관절, 슬관절, 견주관절, 척추, 족부, 수부, 소아정형, 골절 및 외상, 관절경, 스포츠의학, 인공관절 등의 분야로 세분되며 각 분야별로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과정을 배우게 된다. 교수들과 진료진

이 참여하는 환자증례발표와 각 팀별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공의가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발표하는 Orthopaedic seminar(Anatomy, ICL)와 정형외과 전문의 강의를 매주 실시하여 임상 연구 및 치료에 최신 경향을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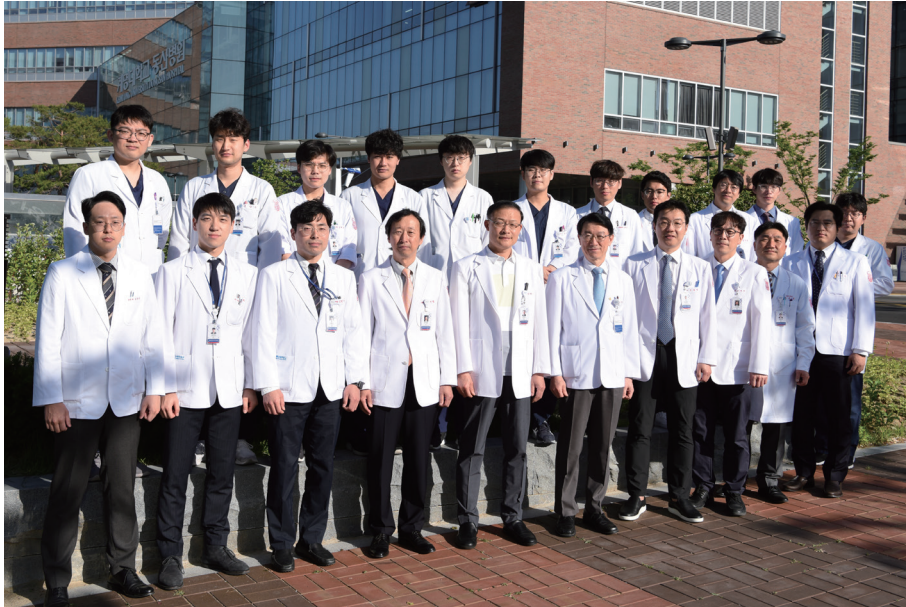
국내외 학회에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간된 논문은 총 600편 이상이다. 2021년 총 29편(국제 22편, 국내 7편), 2020년 총 40편(국제 28편, 국내 12편), 2019년 총 23편(국제 13편, 국내 10편), 2018년 총 25편(국제 19편, 국내 6편), 2017년 총 23편(국제 14편, 국내 9편), 2016년 총 22편(국제 13편, 국내 9편)의 논문을 발간하였다. 그 중 국제전문학술지(SCIE)에 게재된 논문은 2021년 22편, 2020년 24편, 2019년 8편, 2018년 15편, 2017년 10편, 2016년 9편으로 발간된 논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편집활동으로 ‘정형외과학’, ‘고관절학’, ‘골절학’, ‘관절경학’, ‘관절경 외과학’, ‘견관절 주관절학’, ‘Minimally Invasive Total Hip Arthroplasty’, ‘장해판정기준’, ‘스포츠 손상 해부학적 평가’, ‘골다공증 지침서’, ‘증례로 알아보는 어깨 질환 회진근개 파열’, ‘고관절 용어집’ 등 다수의 정형외과 필수 저서의 공동저자로 참여하였다.

봉사

강창수 교수는 의과대학장, 대한고관절학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편영식 교수는 동산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경주동산병원장, 의과대학 교학부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손승원 교수는 대한슬관절학회장, 대한관절경학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송광순 교수는 의학도서관장, 동산병원장,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장 및 대한변형교정골연장학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강철형 교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로 활동하였고, 민병우 교수는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동산병원장,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 대한골절학회장과 대한고관절학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배기철 교수는 동산병원 교육수련실장으로 봉사하였고, 동산병원 진료부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고시 위원 및 이사로 활동 중이다. 조철현 교수는 통증연구소장, 대한골절학회 심사위원과 학술위원,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경재 교수는 대한고관절학회 진료지침위원회와 편집위원, 대한골절학회 및 대한정형외과학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은석 교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심사위원 및 의료평가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시욱 교수는 동산의료원 경영전략처 빅데이터팀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벤처육성사업 PM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범수 교수는 대한골절학회 심

사위원 및 하지골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5월 <병원 이전 개원 기념>

앞줄 왼쪽 두번째 김두한, 김범수, 배기철, 민병우, 송광순, 조철현, 이경재, 손은석, 이시욱 교수

○ 직업환경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서석권	1993. 4. ~ 1998. 3.	과장	정인성	2012. 10. ~ 2016. 8.	과장
이충원	1998. 4. ~ 2004. 5.	과장	이미영	2016. 9. ~ 2020. 2.	과장
신동훈	2004. 6. ~ 2008. 8.	과장	정인성	2020. 3. ~ 2020. 5.	과장
이미영	2008. 9. ~ 2012. 9.	과장	정인성	2020. 6.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정인성	2020. 5. ~ 현재

교실사

직업환경의학교실은 초기에 기초의학교실인 예방의학교실 소속이었다. 1993년 3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음과 동시에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내 산업보건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3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산업보건진료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4년 11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직업 보건을 위한 민간사업 운영기관으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1994년 동산병원 건강관리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1995년 산업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신설되면서 건강관리과에서 산업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6년 산업의학과 첫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학회 명칭이 직업환경의학회로 변경되면서 산업의학과 명칭도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되었다.

2020년 5월 직업환경의학교실이 개설되면서 독립된 임상의학교실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첫 해는 예방의학교실 소속의 이미영 교수가 겸임으로 업무를 담당하다 2021년 3월 겸임이 해제되면서 하제철 선생이 전임의로 임용되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실습>을 교육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건강과환경:가족과직업환경> 통합교과목으로 변경하여 교육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각 연차별 1인의 전공의가 수련 중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전공의 파견 수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3년차 때 역학조사 수련을 위해 1개월간의 파견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

소방공무원 화학적 노출 업무환경 측정 평가(소방청),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 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 조사 사업(질병관리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개선 방안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포항국가산단 건강 피해 예비 타당성 조사(국립환경과학원), 농촌 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 조사 사업(질병관리청) 공동연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생활 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연구조사, 살균제 중장기 건강모니터링 방안 마련 연구와 세정제류 유해성분 독성정보 및 건강영향조사에도 참여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2012년 4월부터 대구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 달성분소와 2017년 달성분소를 추가 개설하였다.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상담, 근골격계 질환 상담, 근무환경 상담, 심리 상담, 직업병 상담 및 업무 관련성 평가 등의 직업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관리하기 위한 직업적 트라우마센터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신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크게 유도하였다.

봉사

교수들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 관련성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질병판정 재심사위원회 위원, 직업보건과 관련된 보건관리자, 관리

감독자 교육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인성 교수는 의과대학 의학정책과장, 교수연구지원센터장과 의학과 학과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교무연구부학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 수련위원 및 수련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2월 앞줄 가운데 정인성 교수

진단검사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노락균	1983. 11. ~ 1984. 12.	과장	전동석	1997. 9. ~ 2005. 8.	주임교수 겸 과장
노락균	1985. 1. ~ 1985. 7.	주임교수 겸 과장	김재룡	2005. 9. ~ 2007.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상숙	1985. 8. ~ 1986. 4.	주임교수 겸 과장	전동석	2007. 9. ~ 2011. 8.	주임교수 겸 과장
김재룡	1986. 5. ~ 1993.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재룡	2011. 9. ~ 2013. 8.	주임교수 겸 과장
전동석	1993. 3. ~ 1994. 2.	주임교수 겸 과장	류남희	2013. 9. ~ 2019. 4.	주임교수 겸 과장
김재룡	1994. 9. ~ 1997. 8.	주임교수 겸 과장	하정숙	2019. 3.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노락균	1985. 1. ~ 1985. 7.	류남희	2006. 3. ~ 현재
김재룡	1986. 5. ~ 2017. 2.	이원목	2014. 3. ~ 2021. 2.
전동석	1986. 5. ~ 2021. 2	김도훈	2017. 3. ~ 현재
전호진	1991. 3. ~ 2001. 1.	박성균	2020. 3. ~ 현재
하정숙	2004. 3. ~ 현재		

교실사

1983년 11월 병리과가 임상병리과와 해부병리과로 분리되면서 노락균 교수가 초대 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84년 해외경제협력기금인 OECF 차관 자금으로 검사 관련 장비가 대거 도입되면서 임상병리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83년 3월 첫 전공의로 홍영애 선생이 수련을 시작하였고, 1985년 1월 임상병리학교실이 개설되어 노락균 교수

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1985년 5월 김재룡 교수와 전동석 교수가 외래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7월 노락균 교수가 사직함에 따라 8월 이상숙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86년 5월 김재룡 교수와 전동석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우리대학 제1회 졸업생 현정애 선생이 2기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하였다. 1987년 홍영애 선생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첫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조직적합성검사(HLA typing)를 실시하여 장기이식 및 친자감별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또한 1987년 전동석 교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 Guillain-Barre 증후군 환자와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에서 혈장 교환요법을 실시하여 국내의 소아 혈장교환요법 근간을 마련하였다.

1990년 황복철 선생과 김영재 선생이 교실 개설 이후 처음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임상병리학 전공으로 입학하였으며, 1991년 박사과정에 현정애, 송경은, 하경임 선생이 입학하였다. 1991년 전효진 교수가 임용되어 각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특수검사 실시가 가능해졌다. 1991년 4월 병원 내에 현혈혈액원이 개설되었고, 이어 염색체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 등의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임상병리검사에 도입하였다. 1993년 김재룡 교수가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임상생화학을, 1994년에는 전동석 교수가 미국 Thomas Jefferson University에서 골수조직판독 혈소판저장 및 조직적합성검사에 대해 연수하였고, 1998년에는 전효진 교수가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간이식의 면역기전에 대해 연수를 하였다. 1998년 최귀전 선생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었고, 2000년 류남희 교수가 연구강사로 임용되어 임상미생물과 분자미생물검사 분야를 담당하였다.

2001년 1월, 불의의 사고로 전효진 교수가 소천하였고, 2001년 하정숙 교수가 연구강사로 임용되었다. 2007년 전동석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08년 하정숙 교수가 미국 Brigham & Women's병원의 세포유전 검사실에서 연수를 하였고, 2010년 류남희 교수가 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재생의학연구소에서 연수를 하였다. 2013년 류남희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고,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하정숙 교수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이원목 교수가 임용되어 임상화학, 진단면역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2017년 김도훈 교수가 임용되어 수혈의학, 진단혈액학, 분자유전학 전문분야를 담당하게 되면서, NGS 검사 셋팅, 유전상담센터 개설 등 교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2017년 김재룡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2019년 4월 성서캠퍼스 새 병원으로 이전 후 검사건수는 980만건을 넘었고, 2020년 박성균 교수가 임용되었다. 2021년 전동석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이원목 교수도 사직하였다. 2021년 김경보 교수가 임상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교실에는 5명의 교수가 담당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소화기>, <감염>, <유전학>, <생식및비뇨기>, <의학기초와질병>, <혈액종양>, <진료역량개발>, <순환기>, <진단과영상>에서 질병의 선별, 진단, 경과, 치료 및 예후 판정 등 진단검사의학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

대학원교육으로 <Research Methodology> 등 질병의 선별, 진단, 경과, 치료예후 판정 등과 관련된 연구방법론을 교육한다. 또한 대학원 종양전문간호사과정과 감염전문간호사과정의 <임상미생물실습>도 강의하고 있다.

전공의교육으로 진단혈액학, 수혈의학, 임상화학, 진단면역학, 임상미생물학, 분자유전학 및 세포유전학, 검사정보학 등의 전문분야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관련된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연구

전공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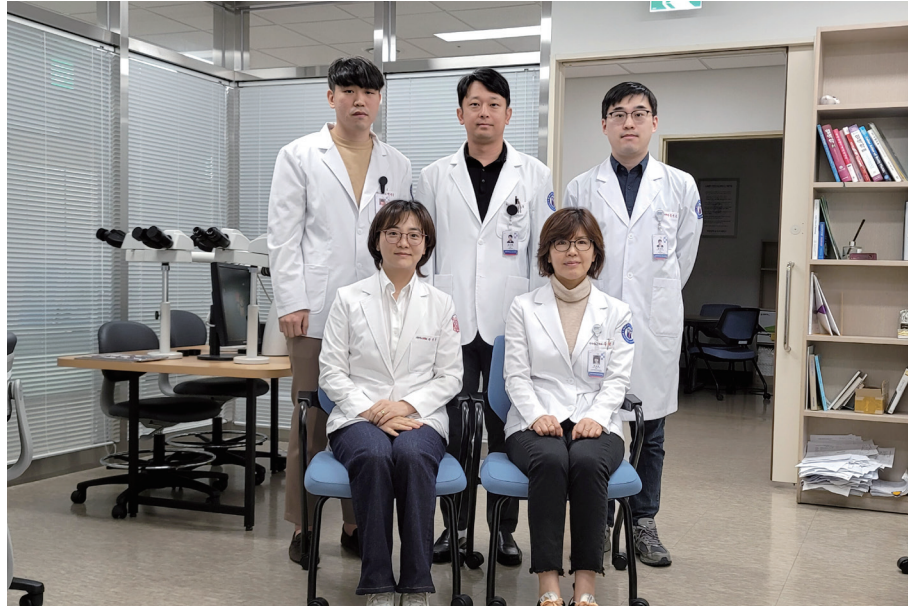
류남희 교수는 COVID-19의 진단검사 가이드라인과 중증 COVID-19 재감염에 대한 연구, 다제내성균 관련 연구 등 총 8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 하정숙 교수는 PML-RARG fusion을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환자에서 발견한 연구를 Leukemia지에 게재하는 등 총 8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

김도훈 교수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BRCA1/2 mutations에 관련된 연구 등 총 2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박성균 교수는 한국인에서 JAK2 46/1 haplotype과 골수증식종양의 관계에 관하여 발표하는 등 총 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봉사

류남희 교수는 의과대학의 의학정책과장과 동산병원의 감염관리센터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수련이사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의 연수 이사, 연구 이사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동산병원 감염관리의사와 국제의료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이사(위원장)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하정숙 교수는 의과대학의 교수연구과장과 교육지원센터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고시이사와 대한진단유전학회 편집이사를 맡고 있다. 김도훈 교수는 의과대학의 교육평가위원회, 학생지원센터 및 학생지도위원

회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진단검사학회 보험위원, 진단유전분과위원회 위원 및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편집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박성균 교수는 동산병원의 수혈관리실장과 감염관리의로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뒷줄 왼쪽 박성균, 김도훈, 김경보 교수 앞줄 왼쪽 하정숙, 류남희 교수

치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김정화	1946. ~ 1947.	과장	박노부	1996. 6. ~ 1997. 3.	주임교수 겸 과장 직무대리
변종수	1947. ~ 1967.	과장	김종배	1997. 4. ~ 2008. 6.	주임교수 겸 과장
박래영	1956. ~ 1958.	과장 직무대리	남기영	2008. 7. ~ 2009. 6.	주임교수 겸 과장 직무대리
서진관	1967. ~ 1976.	과장	김종배	2009. 7. ~ 2010. 9.	주임교수 겸 과장
권학주	1971. ~ 1973.	과장 직무대리	황상희	2010. 10. ~ 2011. 8.	주임교수 겸 과장 직무대리
이용오	1976. ~ 1981. 2.	과장	남기영	2011. 9. ~ 2017. 8.	주임교수 겸 과장
이용오	1981. 3. ~ 1996. 5.	주임교수 겸 과장	황상희	2017.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이용오	1976. 3. ~ 1996. 5.	이용규	1998. 3. ~ 1999. 9.
변상길	1981. 3. ~ 1983. 4.	권대근	2000. 3. ~ 2003. 2.
문선헌	1983. 5. ~ 1993. 12.	남기영	2003. 9. ~ 현재
서해경	1987. 3. ~ 1993. 7.	황상희	2008. 3. ~ 현재
박노부	1994. 9. ~ 1997. 4.	조주연	2014. 9. ~ 현재
박효상	1995. 3. ~ 2003. 2.	신영민	2017. 3. ~ 현재
김종배	1997. 3. ~ 2017. 2.		

교실사

치과는 평양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던 김정화 선생이 부임하면서 1946년 4월 개설되었다. 당시에는 치과 진료대가 1대뿐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1947년 경북대학교 부속병원 치과에서 근무하던 변종수 선생이 우리 병원 치과 기공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치과 기공실이 설치되었다. 변종수 선생은 195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로 수련 연수 후 귀국하여 대구·경북지역 구강악안면외과분야를 선도하였다.

1971년 서진관 선생이 미국 Emory University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연수 후, 치과 보철과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후 귀국하여 구강악안면외과 및 치과 보철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하게 되었다.

1976년 이용오 교수가 부임하였고, 1981년 의과대학 설립 후 교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용오 교수는 1984년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최신 악교정 수술 및 악관절 수술 등에 대한 연수 후 안모 기형 및 악골 기능 장애 환자들을 위한 교육과 진료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93년 5월 세계 최초로 치과 implant 매식시스템을 시작한 스웨덴 Bränemark사의 인공치아 매식 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현대적인 골 유착성 인공치아 매식술을 시행하였다.

이용오, 변상길, 문선훈, 서혜경, 박노부, 박효상, 김종배, 이용규, 권대근 교수가 교실의 발전을 위하여 근무하다 사직하였다.

현재 4명의 교수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남기영 교수는 임플란트, 악안면 보철 등, 황상희 교수는 치아교정 수면무호흡 등을 담당하고 있고, 조주연 교수는 근관치료, 심미수복 등을, 신영민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구강악안면 영역에서의 치아, 골, 근육, 악관절, 점막, 피부 등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의 정상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연관된 외상, 선천성 기형, 감염, 종양 등의 병리학적 문제들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기 위하여 <치과학>을 개설하였다

1983학년도부터 의학과 3학년에서 교육을 시작하였고, 2011학년도부터는 4학년으로 변경되었다. 2021학년도부터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으로 성형외과학, 재활의학과 통합하여 의학과 2학년에서 <임상총론>으로 교육하고 있다. 과거에는 치과 전공의 수련과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수련 관련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는 수련과정이 중단된 상태이다.

연구

현재 국내외 관련 학회에서 각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봉사

동산의료선교복지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국내외 의료 취약 지역에서 치과 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교 보건진료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왼쪽 조주연, 남기영, 황상희, 신영민 교수

○ 피부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송준영	1966. 7. ~ 1981. 2.	과장	조재위	2014. 3. ~ 2014. 8.	주임교수 겸 과장
송준영	1981. 3. ~ 1994. 3.	주임교수 겸 과장	이규석	2014. 9. ~ 2016. 2.	주임교수 겸 과장
이규석	1994. 4. ~ 2003. 2.	주임교수 겸 과장	오병호	2016. 3. ~ 2016. 4.	주임교수 겸 과장
김병천	2003. 3. ~ 2003. 11.	주임교수 겸 과장	김성애	2016. 5.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이규석	2003. 12. ~ 2014. 2.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송준영	1966. 7. ~ 1999. 2.	김창욱	2005. 3. ~ 2006. 12.
서정희	1978. 3. ~ 1983. 2.	조재위	2009. 3. ~ 2014. 8.
이규석	1985. 3. ~ 2016. 2.	오병호	2015. 3. ~ 2017. 10.
박익수	1983. 3. ~ 1985. 2.	류영욱	1999. 3. ~ 2001. 1.
	1988. 5. ~ 1994. 11.		2019. 9. ~ 현재
김병천	1996. 3. ~ 2004. 11.	김성애	2016. 3. ~ 현재

교실사

1966년 7월 대구동산기독병원에 피부과가 개설되어 송준영 교수가 초대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송준영 교수는 197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과 뉴욕대학에서 나병과 진균학에 대한 연수를 하였으며, 1977년에 일본 Sasakawa재단 장학생으로 일본 나병연구소에서 나병 치료 및 관리에 대해 단기 연수를 하였다. 1978년 서정희 교수가 부임하여 1982년까지 약 5년간 근무하였다. 서정희 교수는 1년간 프랑스 파리에 있

는 9대학 Saint - Louis 병원 피부과에서 연수하였다. 이규석 교수는 하와이대학교 공중보건대학, 미국 뉴올리언스 국립 쉰병연구소에서 나병에 대한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칠곡가톨릭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1985년 교수로 임용되었다. 1993년 미국 Thomas Jefferson University에서 분자생물학적인 최신 지견을 연수 후, 피부과학분야에서 분자생물학의 적용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전파하여 국내 피부연구학회 분야에서 교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88년 박의수 교수가 임용되어 약 6년간 근무하였다. 1991년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Sunny Brook Health Science Center에서 당시 주목받는 새로운 연구분야 중 하나였던 사이토카인에 대한 연수 후 다양한 피부 구성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과 피부 조직 내의 세포생물학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역 최초로 dyelaser를 도입하여 혈관종 환자를 레이저로 치료하였으며, 이후 도입된 전신 치료용 광선 치료기기, 이산화탄소 레이저, 냉동 치료기구, Alexandrite 레이저 등이 타 대학병원에 비해 빨리 도입되어 치료 범위 영역을 조기에 확장할 수 있었다.

김병천 교수는 1995년 임용되어 약 8년간 근무하였고, 2000년 미국 New York University에서 피부병리학 연수를 통하여 피부병리학분야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1996년 이규석 교수의 미국 Thomas Jefferson University 연수를 계기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본 히로사키대학교 피부과학교실과 공정식으로 상호 학술 교류 협정을 맺어 학술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1999년 미국 Thomas Jefferson University에서 약 2년간 박사 후 연수과정을 마친 류영욱 교수가 임용되어 교실이 최신 피부과학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나아가는데 기여하다 2001년 사직하였다.

김창욱 교수는 2003년 임용되어 약 3년간 근무 후 2006년 사직하였고, 2004년 경북의대에서 정년퇴임한 정상립 교수가 임상교수로 임용되어 그동안 쌓아온 임상 경험을 토대로 교실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조재위 교수는 2009년 임용되어 약 5년간 근무하였고, 기초의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피부과학의 기초 연구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2010년 피부건강레이저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최초로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갖춘 ‘썬스파’와 상호 연계하여 업그레이드된 미용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다.

오병호 교수는 2015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피부외과학분야 전임의 수료 후 임용되어 피부외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2017년 연세의대로 이직하였다.

2016년 김성애 교수가 임용되어 피부병리, 바이러스성질환, 피부진균증 등이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다.

류영욱 교수가 2019년 다시 임용되어 아토피, 혈관종, 유전성피부질환, 미용시술 등의 진료뿐만 아니라 피부과학 기초연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피부과학>에서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하였으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인체감각기> 통합교과목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피부과학실습>을 통해 외래 참관 및 회진 참여와 각종 특수 검사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소그룹 강의, 증례 발표, CPX를 통해 실제 환자 진료 능력에 대한 임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피부과학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 피부과학 총론, 피부진단학, 피부치료학, 피부면역학 등의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35명의 석사와 23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전공의교육으로 피부질환을 진단하고 치료에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익히고 피부과학과 관련된 기초의학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피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능숙한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수련기간 중에는 각종 학술회의 참석을 통해 피부과학의 최신 경향 파악 및 특정 환자의 임상 증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상 및 기초연구에 참여하여 국내외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현재 4명의 전공의가 수련 중이며, 1978년부터 현재까지 총 46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연구

197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학술지 308편과 국제전문학술지에 70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피부과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교원질 및 분자생물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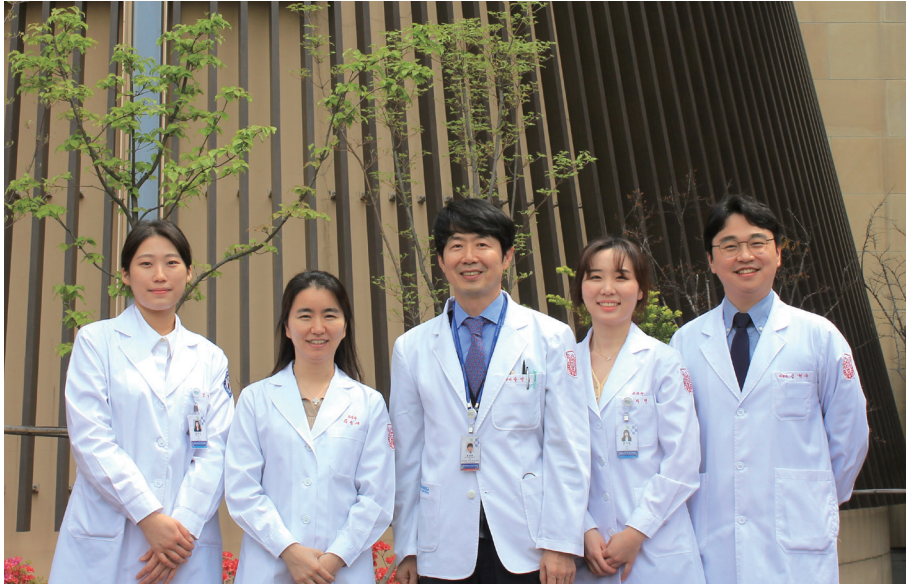
봉사

송준영 교수는 동산간호전문대학장, 동산병원장, 의과대학장, 동산의료원장을 역임하였고, 대한피부과학회장으로 봉사하며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규석 교수는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을 맡아 네팔 카트만두에 네팔 동산특수(피부과)진료소를 개설하며 의료사역

을 시작하였다. 대구지역 피부과 전문의들의 협조와 후원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네팔의 나병 및 피부병 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네팔 풀바리 보건진료소를 개원하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몽골, 필리핀 마닐라와 다구판지역의 의료 봉사활동, 필리핀 누가선교병원 자문 의사 등의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한피부과학회장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다.

류영욱 교수는 의과대학 교무연구부학장, 동산병원 연구부장, 대한피부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으로 봉사하였다.



2021년 9월 왼쪽 두번째 김성애, 류영욱 교수

○ 핵의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전석길	1993. 4. ~ 1995. 12.	과장	원경숙	2010. 9. ~ 2020. 8.	주임교수 겸 과장
전석길	1996. 1. ~ 2010. 8.	주임교수 겸 과장	송봉일	2020. 9.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전석길	1995. 12. ~ 2013. 8.	송봉일	2013. 3. ~ 현재
원경숙	2002. 3. ~ 현재	김해원	2014. 3. ~ 현재

교실사

1959년 미국에서 방사선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귀국한 서철성이 선생이 방사선과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내과 과장 도상희 선생과 함께 방사선과 동위원소 연구실에 갑상선 섭취율 검사 유닛을 설치하였다. 1960년에 국내 최초로 방사성요오드를 갑상샘기능항진증 환자에게 투여하여 훌륭한 치료 효과를 보았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Rectilinear Scanner(Picker Magna Scanner-V)에 의존하여 종이와 펜으로 영상을 찍어내면서 갑상샘 및 간 스캔 등을 위주로 하는 검사가 시작되었다. 1967년에는 Sr-85를 이용한 뼈 스캔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1971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발표하였다. 1972년에 Au-198을 사용하여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골반부 림프 스캔을 시행하였다.

1984년 SPECT(Rota Gamma Camera, Siemens)를 설치하였고, 1992년에는 이중 헤드 감마카메라(Genesys, ADAC)를 도입하였다.

1993년 4월 방사선과에서 분리되어 핵의학과가 신설되면서 전석길 교수가 초대 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95년 12월 핵의학교실이 신설되어 전석길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1995년 이중 헤드 감마카메라(Vertex, ADAC)가 추가로 도입되어 인체의 모든 부위에 대한 기능 평가와 진단에 이용되었다. 1993년 Tc-99m을 이용한 신장 스캔, 1995년 아세타졸아미드를 이용한 뇌혈관의 혈관 반응성 검사, 1998년 감시 림프절 스캔 등을 도입하였고, 2000년 요소 호기 검사를, 2002년에는 I-123을 이용한 파킨슨병의 신경 수용체 검사를 시작하였다. 2002년 원경숙 교수가 임용되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클리닉을 개설하였고, 이후 심근관류 SPECT 등 심장 핵의학분야 검사들도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2005년에는 SPECT(ECAM, Siemens) 2대를 도입하여 심장 및 뇌 질환 검사에 이용하였다. 2007년에는 PET/CT(Discovery STE 16, GE)가 도입되었고, 2009년에 SPECT(Bright view, Philips) 1대, 2010년에 PET/CT(Biograph mCT 64, Siemens) 1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핵의학 검사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0년 원경숙 교수가 제2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었고, 2011년 전석길 교수는 제16대 대한핵의학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제9차 세계핵의학회 주최 등 국내 핵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핵의학회 청봉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송봉일 교수가 임용되었고, 같은 해 8월 전석길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2014년 김해원 교수가 임용되었다.

2017년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심장 전용 SPECT(D-SPECT, SPECTRUM Dynamics Medical)를 설치하였다.

2019년 성서캠퍼스 새 병원 이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디지털 PET/CT(Discovery MI, GE) 및 SPECT/CT (Discovery NMCT 870DR, GE)를 도입하였고, 방사성핵종 입원치료실도 개설하였다. 또한 이전 내분비대사내과 소속의 핵의학 체외검사실을 핵의학과 소속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9월 송봉일 교수가 제3대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임명되어 교실을 이끌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교수 3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6명, 임상병리사 4명, 행정직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1995년 12월 교실 개설에 따라 <핵의학>과 <핵의학실습>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 1997학년도부터 의학과 4학년에 임상실습이 시작되었다.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각 통합 교과목에서 핵의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1997년 핵의학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현재까지 9명의 석사와 4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전공의교육으로 1996년 류종길이 첫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이래 2000년 류종길과 김순, 2010년 김해원, 2013년

최병욱, 2014년 김성훈, 2015년 조일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6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연구

1967년 서철성 선생의 ‘미만성 중독성 갑상선종 치료를 위한 방사성 옥소 I-131 투여량 결정에 관한 연구’가 핵의학 분야의 첫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전석길 교수는 ‘비장 동맥에 선택적으로 투여한 Interleukin-2와 Tc-99m-phytate 혼합물의 생체 내 분포’에 대한 논문으로 1993년 대한핵의학회 Daichi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원경숙 교수는 2002년 임용 후 심근관류 스캔과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PET/CT 도입 후 각종 암을 대상으로 한 F-18 FDG PET/CT 연구를 시작하였다.

송봉일 교수는 2013년 임용 후 위암, 간암, 유방암 및 대장암 환자에서 F-18 FDG PET을 활용한 포도당 대사와 연관된 예후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간암 연구는 다기관 연구를 통하여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2019년 동산의료원 개원 120주년 행사에서 연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해원 교수는 2014년 임용 후 고위험 신생아의 발달장애를 F-18 FDG PET/CT로 예측하는 연구를 통해 대한핵의학회에서 2016년 젊은 연구자상과 2019년 구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만성 뇌 허혈이 알츠하이머병을 발생시키는 기전 규명을 위한 임상 및 동물실험 연구로 2020년 대한핵의학회에서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핵의학 영상의 인공지능 관련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봉사

전석길 교수는 의과대학 학생과장, 대한핵의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원경숙 교수는 대한핵의학회 고시이사과 대경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송봉일 교수는 대한핵의학회 CTN 위원, 정도관리 위원, 고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해원교수는 대한핵의학회 고시위원, 학술 이사보 및 편집위원으로 봉사하였고, 현재 보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연구지원센터 동위원소실험실장과 의예과 학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2년 <새 병원 이전 후> 왼쪽 김해원, 원경숙, 송봉일 교수

○ 흉부외과학교실

역대 주임교수 및 과장

성명	재임기간	직책	성명	재임기간	직책
유영선	1978. 8. ~ 1981. 2.	과장	최세영	2003. 3. ~ 2007. 2.	주임교수 겸 과장
	1981. 3. ~ 1992. 5.	주임교수 겸 과장	박창권	2007. 3. ~ 2009. 2.	주임교수 겸 과장
	1992. 6. ~ 1993. 2.	과장	금동윤	2009. 3. ~ 2013. 2.	주임교수 겸 과장
이광숙	1992. 6. ~ 1993. 2.	과장	박남희	2013. 3. ~ 2017. 2.	주임교수 겸 과장
	1993. 3. ~ 1999.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재현	2017. 3. ~ 2019. 2.	주임교수 겸 과장
박창권	1999. 3. ~ 2003. 2.	주임교수 겸 과장	김재범	2019. 3. ~ 현재	주임교수 겸 과장

전직 및 현직 교수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유영선	1978. 8. ~ 2004. 8.	금동윤	2003. 3. ~ 현재
이길로	1979. 2. ~ 1984. 2.	김재범	2009. 9. ~ 현재
이광숙	1980. 3. ~ 2016. 2.	나찬영	2012. 9. ~ 2019. 5.
박이태	1984. 3. ~ 1987. 4.	김재현	2013. 9. ~ 2022. 2.
박창권	1987. 5. ~ 2020. 2.	장우성	2016. 3. ~ 현재
최세영	1988. 5. ~ 2021. 2.	채민철	2020. 3. ~ 현재
박남희	2002. 3. ~ 현재		

교실사

1978년 8월 유영선 교수가 초대과장으로 임명되면서 흉부외과가 개설되었다. 유영선 교수는 국립의료원에서 수련 과정을 마치고 덴마크의 Arhus 병원 흉부외과에서 연수를 받은 후 국립의료원에 재직하던 중 과장으로 임용되었다.

개설 후 1978년 8월 첫 수술로 식도협착증에 대한 식도재건술이 시행되었으며, 1978년 12월에는 동맥관개존에 대한 교정수술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1980년 7월에는 첫 개심술로 심방중격결손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초창기에 근무한 선생들은 개심술에 필요한 심도자술, 인공심폐기 운영 및 관리, 수술 및 수술 후 환자 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81년 의과대학 설립으로 흉부외과학교실이 개설되었고 유영선 교수가 초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1984년 이후 개심술 전후의 환자관리에 참여하는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함께 하는 심장집담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7년 7월 흉부외과 중환자실이 2병상에서 9병상으로 확장되면서 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전문기사 및 장비를 보강하여 전문적인 집중치료실로 거듭나게 되었다.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수술, 판막성형술례가 증가하면서 개심술은 1982년 10월까지 100례, 1984년 7월까지 500례, 1987년 9월까지 1,000례, 1992년 10월까지 2,000례, 1997년 4월까지 3,000례, 2002년 9월까지 4,000례로 연간 200례 이상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2017년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후 연간 300례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 흉부 파트에서도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증가하여 연간 300례 이상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3월 23일 첫 심장 이식을 성공한 이후 2021년까지 총 59례의 심장 이식을 시행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 18일 좌심실보조장치 삽입수술을 지역 최초로 성공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현재 총 8례를 시행하였다.

2019년 성서캠퍼스 새 병원으로 이전하면서 최신식 시설과 장비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2020년 8월 4일에는 지역 최초로 심장과 신장 동시 이식을 시행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총 7,000례의 개심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국내에서 인정받는 흉부외과학교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교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전문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임상교수로 신현중, 최대용, 윤경찬, 박기성, 이재훈, 이덕현, 서영준, 박훈, 이승현, 노동섭, 김윤석 선생이 근무를 하였고, 현재도 6명의 전임교원이 교육, 연구, 진료와 봉사를 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 주요 활동

교육

학부교육으로 <호흡기>과 <순환기>에서 강의를 하고, <흉부외과학실습>에서 입원 환자의 병록지 작성 요령, 주제 발표, 집담회 참석, 수술 참관, 회진 시 침상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토론회, 발표 등을 통해 학생 평가를 시행하

고 있다.

대학원교육으로 석사 17명과 박사 6명을 배출하였다.

전공의교육으로 응급처치 및 기초적인 환자 관리, 입원 환자의 주치의, 수술 조수, 수술 전후 환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상태 및 처치에 대한 토론으로 침상교육이 있으며, 심혈관집담회 준비 및 참여를 통하여 개심술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흉부집담회에서 일반 흉부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최신 흉부외과 영역에서 주관심사가 되는 질환이나 항목을 설정하여 논문초록회 및 교수 강의 등을 통하여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있다. 현재 2명의 전공의가 수련 중이며, 지금까지 배출한 전문의는 26명이다.

연구

다수의 국내학술지 및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대한흉부외과학회를 포함한 여러 학회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봉사

유영선 교수는 동산병원장을, 최세영 교수는 동산의료원 경영지원처장, 심혈관연구소장, 대구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창권 교수는 대한흉부외과학회 고시위원장, 대구·경북지부회장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금동윤 교수는 동산병원 부원장, 집중치료실장, 응급의료센터장, 동산의료원 경영전략처장, 의과대학 교무과장과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박남희 교수는 동산병원 부원장, 수술센터장, 심혈관센터장, 동산의료원 기획차장, 감사실장, 경영지원처장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김재범 교수는 동산병원 집중치료센터장과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의과대학 교육지원센터 임상수행학습실장,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 고시위원회 위원, 학술위원회 위원, 대한중환자학회 수련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장우성 교수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21년 2월 <최세영교수 퇴직 및 배요한 전공의 수료 기념>

뒷줄 왼쪽 두번째 채민철, 김윤석, 김재현, 장우성 교수 앞줄 왼쪽 금동윤, 최세영, 김재범, 박남희 교수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4

교육

278 의과대학 교육목표 변천사

280 의과대학 교육과정 변화

296 의사국가시험 제도 변화

○ 의과대학 교육목표 변천사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1980년 10월에 설립하였다.

우리 대학은 「진리, 정의,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봉사와 사랑과 희생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의사상을 구현하는데 있다」를 초기 교육목표로 정하였고, 1984년 4월 18일 제19차 교수회의에서 구성된 교육목표 제정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제정하였다.

<교육목표: 1984년 4월 제정>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 의학 교육자, 의학 연구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

1. 학생에게 인술을 연마시키고, 인격도야에 힘쓰며, 주는 사랑(기독교 정신)을 실천케 하고
2. 우리나라의 보건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토록 한다.
3. 이를 위하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수기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새로운 의사상과 의학윤리관을 확립하여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모든 의료 활동에 실천하며, 또한 협동 정신을 발휘하여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의학발전을 위한 독창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자기 지향적 학습자가 되며, 또 졸업 후의 전문적 자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발전에 힘쓰도록 한다.

1996년 2월 3일 교수연수회에서 교육목표의 부분적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목표 개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총장, 이사장, 타 의과대학 교원과 외부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목표 개정안을 완성하였고, 1996년 4월 15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였다.

<교육목표: 1996년 4월 개정>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데 있다.

1.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윤리관을 확립하게 한다.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수기를 습득하게 하여 일차 진료 의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한다.
3.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는 자기평가와 발전에 힘써 향후 의학 연구자와 의학 교육자가 될 자질을 기른다.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과대학 성서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2차 교육목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2월 개정안을 완성하였고, 2010년 4월 19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였다.

<교육목표: 2010년 4월 개정>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밝히는 의사를 양성한다.

1. 진리를 탐구하는 의사
 - 의학적 기본 지식, 수기, 태도를 갖춘 의사
 -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의사
 -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의사
2. 정의를 구현하는 의사
 - 윤리적 소양을 갖춘 의사
 -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사
 - 리더십 있는 의사
3.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
 -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
 -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
 -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

○ 의과대학 교육과정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1979년~1999년 : 교과목 중심(쿼터식)

초기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구분을 통한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1979년 의예과 1학년 입학생은 의예과 2년 과정 83학점, 의학과 4년 과정 174학점을 이수하였고 전체 이수 교육과정은 <표 1>과 같다. 의예과 2년 교육과정은 전문적 의학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교양과목과 기초의학 관련 전문 지식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의학과 1, 2학년 교육과정은 기초의학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하였고, 의학과 2학년 교육과정부터 기초의학과 더불어 <내과학>, <소아과학>, <일반외과학>, <산부인과학> 등 임상의학 교과목을 추가하였다. 의학과 3, 4학년 교육과정은 임상 교과목별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의예과 2년 과정은 학기제로 운영을 하였고, 의학과 4년 과정은 학년제로 쿼터식으로 운영하였다.

1984년 의학과 4학년 교육과정에 증례바탕교육인 <임상병리집담회(Clinico-Pathologic Conference, CPC)>를 처음으로 개설하여 통합적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1989년 가정의학교실, 1990년 재활의학교실, 1995년 핵의학교실과 응급의학교실이 신설되었고,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1998년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의예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표 1. 1979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6년 교육과정표

의예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국어	2	비교해부학및실험	3	유기화학	3	독일어	3
한문	1	유기화학	3	유전학	2	라틴어	3
영어	1.5	물리화학	3	생물학실습	2	세포학	2
영어실습	0.5	국어	2	화학실습	2	포트란	3
체육	1	영어	1.5	물리화학	3	통계학	3
교련	1	영어실습	0.5	철학	2	전자회로	2
일반수학(1)	3	교련	1	국사	3	법학개론	3
기독교개론	1	기독교개론	1	교련(2학년)	1	영어(2)	1
국민윤리	2	심리학	3	기독교윤리	1	교련(2학년)	1
일반화학및실험	3	일반수학(2)	3				
물리학	3						
일반생물학	3						
계	22	계	21	계	19	계	21

의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미생물학	2	기생충학	2	내과학	6	C.P.C.	1
발생학	1	병리학	10	마취과학	2	내과학	8
생리학	8	약리학	6	비뇨기과학	2	마취과학	1
생화학	8	예방의학	6	산부인과학	6	비뇨기과학	1
신경해부학	3	외과총론	1	성형외과학	1	산부인과학	4
조직학	6	정신과학	2	소아과학	6	성형외과학	1
해부학	9	미생물학	6	신경외과학	1	소아과학	4
약리학	2	진단학	2	안과학	2	신경과학	1
기생충학	1	신경과학	2	이비인후과학	2	신경외과학	1
예방의학	2	위장학	2	일반외과학	4	안과학	1
행동과학	1	심장학	2	정형외과학	4	이비인후과학	1
의사학	1			치과학	1	일반외과학	4
정신과학	1			피부과학	3	정신과학	2
생식의학	0			흉부외과학	3	정형외과학	1
				정신과학	1	지역사회의학	2
				방사선과학	2	피부과학	1
				임상병리과학	2	흉부외과학	1
						방사선과학	2
						임상병리과학	2
						응급처치학	1
계	45	계	41	계	48	계	40

2000년대: 교과목 통합(통합교육, 블록식)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은 1994년 의학교육에 대한 권장사항을 발표하였다. 종전에 강조되어 왔던 의학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균형있게 배양하기 위해 태도, 수기, 대인 관계 능력, 임상 판단 능력 등을 동등하게 가르치고, 분석 능력과 능동적 학습 참여를 통해 평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강의시간을 줄이고 토론 학습을 장려하였다. 또한 기초의학-임상의학간의 통합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포괄적인 이해와 접근법을 배우도록 저학년부터 환자와 관련된 임상을 경험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교육과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2000학년도 의학과 1학년부터 블록식 통합강의를 도입하였다. 기초 의학과 임상의학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통합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인체형태학(해부학, 조직학)>, <면역생물학및기생충학(미생물학, 기생충학, 면역학)>,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통합 교과목으로 개설하였다. 9개 과목 총 843시간의 수업 중 강의는 621시간, 실습은 222시간이었다.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계통별 통합 교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의학과 4학년에 외부 의료기관실습으로 <일차의료기관실습>과 <선택실습>을 개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8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의 6년 전체 이수 교육과정은 <표2>와 같다. 2002학년도에는 2000학년도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축소된 기초의학의 수업 보완, 임상실습 주수 축소, 임상수기 실습 강화를 위한 임상수기학 교과목 신설 및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정보학 교과목 신설 등 소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200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반영하면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성이 적은 내용은 독립된 교과목으로 분리하였다. <인체형태학>은 <해부학>과 <조직학>으로, <면역생물학및기생충학>은 <면역학>, <기생충학>과 <미생물학>으로, <혈액-종양학>은 <혈액학>과 <종양학>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과목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연관지어 편성할 수 있는 <환자의이해>와 <진단학> 교과목을 <의학면담>으로 통합하고, <의료윤리>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전체 임상실습 중에서 기본 및 지원과목의 비율을 높여 졸업생이 일차 진료의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교과목의 학점을 늘리고, <일차의료기관실습>을 신설하였다. 특과 임상실습 10개 교과목(<방사선종양학실습>, <신경외과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피부과학실습>, <비뇨기과학실습>, <핵의학실습>, <흉부외과학실습>, <성형외과학실습>, <안과학실습>, <이비인후과학실습>)을 각각 5개 교과목씩 A, B로 나누어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개편하였다. 인성교육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소그룹 토의 방식의 교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료와사회>, <전인의학>, <상보의학>, <의료경영>, <리더십개발>, <의학과 예술>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하였다. 기초의학을 마치고 임

상의학을 시작하기 전에 임상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초의학적 지식을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의학과 1학년에 <기초의학종합평가(P/F)>을 신설하고, 임상의학 강의 및 실습 교육과정이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시험(P/F)을 <임상의학종합평가(P/F)>로 교과목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강의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과도한 사례중심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례중심학습>을 폐지하였고, <이비인후과학>을 2학점에서 1학점으로 줄여 총 학점을 160학점으로 조정하였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교육과정 진행 및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강의시간을 1학점당 20시간을 18시간으로, 임상실습은 1학점당 주당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강의시간의 축소와 과도한 강의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학년도 의학과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의 과대학장협의회에서 제정한 ‘의과대학 학습목표’를 사용하여 각 과목의 학습목표를 재정비하였다.

2010학년도부터는 의학과 1학년에 개설되어 있던 <생리학>, <생화학> 교과목을 의예과 2학년 2학기에 개설하여 일부 기초의학 교과목을 조정하였고, <PBL> 교과목을 의예과 2학년에 개설하였다. 2013학년도에는 의학과 3, 4학년에 <임상의학종합평가(1), (2)> 교과목을 개설하여, 각각 2학점과 5학점을 부여하였고, 4학년에 <임상술기및수행평가> 교과목을 개설하여 2학점을 부여하였다.

2014년에는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설 원칙’과 ‘졸업성과’를 개발하여 의학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수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하였다. 2015학년도부터 학생들이 관심있는 교과목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2주간의 학생인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016학년도에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인턴제도 폐지 검토 등에 대비하여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특과 10개 임상실습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개편하였고, 증가된 5학점은 선택실습 교과목을 5학점에서 2학점으로, <임상의학종합평가(2)> 교과목을 5학점에서 3학점으로 축소하여 학점을 부여하였다. 3학년에서 임상술기 및 수행평가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임상술기및수행평가> 교과목을 신설하여 1학점을 부여하였다.

표 2. 1998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6년 교육과정표

의예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양세미나(1)	1	교양세미나(2)	1	교양세미나(3)	1	교양세미나(4)	1
실용전산(1)	2	기독교의이해	2	생활영어회화	2	물리화학	3
일반물리학및실험	3	실용전산(2)	2	세포학	4	분자생물학	3
일반화학및실험	3	유기화학및실험	3	유전학	3	비교해부학및실험	4
채플(1)	0	일반생물학및실험	3	의공학및실험	3	의료선교학(2)	0
토익(1)	2	일반수학	3	의료선교학(1)	0	의학개론	2
통계학개론	3	채플(2)	0	의학논문작성법	2	의학영어(2)	2
현대사회와기독교	2	토익(2)	2	의학영어(1)	2	인간관계학	2
계열교양(1과목)	3	계열교양(2과목)	6	인성교육실습	0	토폴	2
				계열교양(1과목)	3	행동과학	2
계	19	계	22	계	20	계	21

의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기초의학의 임상적응	2	감염학	2	가정의학	1	가정의학실습	1
면역생물학및기생충학	7	내분비학	2	근골격계학	2	마취과학실습	1
발생학및유전학	2	사례중심학습	2	내과학실습	10	비뇨기과학실습	1
병리학	5	상보의학	2	마취과학	1	선택실습	6
생리학	4	생식및비뇨기학	4	법의학	1	성형외과학실습	1
생화학	5	소화기학	5	산부인과학실습	4	신경과학실습	2
약리학	3	순환기학	4	성형외과학	1	신경외과학실습	1
예방의학(1)	3	신경과학	6	소아과학실습	4	안과학실습	1
의사학	1	신장학	2	안과학	1	예방의학실습	1
인체형태학	8	알러지및류마티스학	1	응급의학	1	응급의학실습	2
채플(1)	0	예방의학(2)	2	이비인후과학	1	이비인후과학실습	1
환자의이해	2	임상의학총론	2	일반외과학실습	6	일차의료기관실습	2
		종양학	2	임상정신의학	3	임상병리학실습	1
		진단학	1	재활의학	1	임상실습평가	2
		채플(2)	0	전인의학	2	재활의학실습	1
		출생과성장	1	치과학	1	정신과학실습	2
		혈액학	2	피부과학	1	정형외과학실습	1
		호흡기학	3	의료정보학	2	종합시험	0
				의료와사회	2	진단방사선과학실습	2
				임상수기학	1	치료방사선과학실습	1
						피부과학실습	1
						해부병리학실습	1
						핵의학실습	1
						흉부외과학실습	1
계	42	계	43	계	46	계	34

※ 의예과 계열교양(제2외국어영역, 자연과학영역, 예체능계영역, 인문과학영역, 한국영역, 사회과학영역)에서 4개 영역 선택 12학점 이수

2018년~현재: 교과목 통합(수평, 수직통합)

이전에 이루어진 기초의학 교육과 임상의학 교육의 통합은 큰 의미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일부 내용들이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그쳐 진정한 ‘통합’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단순한 지식을 전달받는 강의의 형식을 넘어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나 PBL, 팀기반학습(Team Based Learning, TBL), 소규모 토론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평생학습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 의학 연구 방법, 근거중심의학, 수평통합, 수직통합, 미래 의료환경에 맞는 기초와 임상 교육과정 수정 보완 등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2018학년도에 통합과 환자 중심, 핵심과 심화, 성과중심 및 자기 주도의 원칙하에 교과목을 수평뿐 아니라 수직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교육프로그램운영위원회가 총괄하고, 기초, 임상, 의료인문학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초의학교육위원회에서 기초의학-기초의학 간 수평통합, 통합의학교육위원회에서 기초의학-임상 의학 간 수직통합, 의료인문교육위원회에서 의료인문 수업 개선 등의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extended week를 교육과정안에 포함시켜 학습에 대한 평가, 보충학습 등을 통해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2018학년도 의예과 입학생부터 개편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한 의료의 발전과 인류의 안녕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 개발, 진료, 의사소통, 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과 연구라는 6가지의 구체적인 졸업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의학(Phase1), 임상의학(Phase2) 임상실습 (Phase3)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자질 함양을 위해 의료인문, 의학연구 관련 과정도 포함한다.

기초의학 (Phase1)

교육과정의 통합 원리에 따라 기초의학 수평통합과 임상의학 수평통합,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수직통합을 위해 정책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8학년도 의예과 입학생부터 개편된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2018학년도 의예과 1학년 교육과정으로 <인체의이해>, <기초화학의이해>, <세포의분자적이해>가 개설되었다. 2019학년도 의예과 2학년에는 기초의학 수평통합을 통해 <인체의구조와기능(1), (2), (3)>을 개설하여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학기초와질병(1), (2), (3)>을 통해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을 연계시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

표 3. 기초의학 교육과정 개편 현황

2017학년도 이전 의예과 입학생 대상 기초의학 교육과정			2018학년도 이후 의예과 입학생 대상 기초의학 교육과정		
학년	교과목명	학점	학년	교과목명	학점
의예1	인체생물학및실험	3	의예1	기초화학의이해	2
	인체일반화학및실험	3		인체의이해	3
	분자세포생물학(1)	3		세포의분자적이해	3
	의학입문	1		유기화학과생명체	1 (선택)
	의학물리학	3		유전자의이해	
	유기화학	3		인체의물리적이해	
의예2	분자세포생물학(2)	2	의예2	인체의구조와기능(1)	4
	비교해부학및실험	2		인체의구조와기능(2)	4
	의학영어	3		인체의구조와기능(3)	4
	생리학및실험	3		기초의학통합실습(1)	3
	생화학및실험	3		대사와세포조절	4
	해부학및실험	4		의학기초와질병(1)	4
	의학유전학및실험	3		의학기초와질병(2)	4
	문제중심학습(1)	1		의학기초와질병(3)	4
				기초의학통합실습(2)	3
의학1	기생충학	1		기억의신경과학	1 (선택)
	면역학및실험	3	의학1	댄스와건강	
	미생물학및실습	5		미래의의료	
	병리학및실습	4		기초신경	2
	보완대체의학	1			
	생리학및실습	3			
	생화학및실습	3			
	약리학및실습	4			
	조직학및실습	3			
	해부학실습	3			
	문제중심학습(2)	1			

임상의학(Phase2)

졸업 후 일차 진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임상의학을 장기계통별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16학년도부터 블록식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학년도 의예과 입학생부터는 수평과 수직통합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기초의학부터 임상의학까지 연속적으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통합된 교육과정은 < 표 4, 표 5>와 같다.

표 4. 2021학년도 1학기 통합 교육과정 현황

학년	1학기																		방학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의예 1			기초화학의이해 균형교양 2과목, 채플(1), 교양세미나, AcademicEnglish, 대학생활과진로설계, 기독교의이해						인체의이해						의료인문(1):인성교육실습(1)						
의예 2	인체의구조와기능 (1)						인체의 구조와기능 (2)		EW 1	인체의 구조와기능 (2)			인체의구조와기능 (3)						EW 2		
	기초의학통합실습(1) 의료인문(2):의사와리더십 의료인문(2):행동과학 전공선택 의료선교학(1)																				
의학 1	기초신경		감염(1)			진단 : 영상 과 검사		외과 총론	EW 1		호흡기			순환기						EW 2	
	진료역량개발과정(1) 의료인문(3):의학연구입문(2) 의료인문(3):의료윤리(1) 전공선택 채플(3)																				
의학 2	감염(2)		알레르기및 류마티스		혈액종양			출생 과 성장		EW 1	신장		생식및비뇨기						EW 2		
	진료역량개발과정(3) 의료인문(4):의료관리와지역사회(2) 의료인문(4):의료윤리(2) 전공선택 채플(4)																				
의학 3	*이론 수업	가정의학실습,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응급의학실습, 정신과학실습																			
		임상의학종합평가(1), 임상술기및수행평가(1),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전공선택																			
의학 4	마취통증의학실습, 병리학실습, 직업환경의학실습, 신경과학실습, 예방의학실습, 재활의학실습, 진단검사의학실습, 영상의학실습, 선택실습, 일차의료기관실습, 방사선종양학실습, 비뇨의학실습, 신경외과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피부과학실습, 성형외과학실습, 안과학실습, 이비인후과학실습, 핵의학실습, 흉부외과학실습																				
	법의학		보건의료법규			치과학			임상의학종합평가(2)						임상술기및수행평가(2)						

*의학3 이론수업 : 가정의학, 마취통증의학, 성형외과학, 응급의학, 재활의학, 직업환경의학, 환자안전

표 5. 2021학년도 2학기 통합 교육과정 현황

학년	2학기																		방학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의예 1			세포의분자적이해 의료인문(1):과학적사고와추론 의료인문(1):의학입문및체험실습 전공선택 균형교양 3과목, 채플(2), 글로벌시티즌십, Communication English, 계명정신과봉사																
의예 2	대사와세포조절				의학기초와질병(1)				EW 1	의학기초와질병(2)				의학기초와질병(3)				EW 2	
	기초의학통합실습(2)				의료인문(2):의학연구입문(1)				전공선택				의료선교학(2)						
의학 1	소화기(1)		소화기(2)		내분비		EW 1	신경계(실습포함)					기초의학 종합		EW 2				
	진료역량개발과정(2) 의료인문(3):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1) 의료인문(3):진로탐색 전공선택 채플(3)																		
의학 2	근골격계		인체감각기			정신		EW 1	응급과 중증치료		임상총론		건강과환경: 가족과 직업환경		의료 인문 (4) :의학 연구		법 의 학	EW 2	
	진료역량개발과정(4)				의료인문(4):의료면담(1)				전공선택				채플(4)						
의학 3	가정의학실습,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응급의학실습, 정신과학실습																		
	임상의학종합평가(1), 임상술기및수행평가(1)																		
의학 4																			
	임상의학종합평가(2) 임상술기및수행평가(2)																		

임상실습 (Phase 3)

(1) 임상실습 전 교육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의사로서의 직무 범위와 책임, 환자안전, 감염 및 위험환경 예방, 응급실·수술실·집 중치료실에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감염 및 위험환경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환자안전>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과에 특징적인 위험환경에 대한 대처 방법 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 면담 기법 교육을 위한 <의학면담>, 환자-의사관계 교육을 위한 <아름다운죽음>과 <의료윤리>, 2020학년도부터는 <진료역량개발과정>을 개설하여 의학과 1학년부터 기본 술기 및 진료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2) 임상실습

의학과 3학년에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산부인과학>, <가정의학>, <응급의학>, <정신건강의학>을 실습하고 있으며, 의학과 4학년에 그 외 전공과목의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임상실습 내용 및 전공별 술기와 환자군은 임상실습교육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임상실습 교육내용은 단순 관찰 이외에 초진환자 면담, 입원환자 면담, 집담회나 컨퍼런스 참석, 환자진찰, 수술참관 등을 포함한다. 원활한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 임상실습 지침서를 포함한 <임상실습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임상실습 포트폴리오>에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에 필요한 실습지침과 유의사항, 감염관리 지침이 수록되어 있으며, 학생이 반드시 습득하여야 하는 일차진료 수준의 간단한 진단, 치료 및 환자안전 관련 술기인 기본 술기와 실습 중 1회 이상 관찰하여야 하는 진단 또는 치료 술기인 관찰 술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일차진료 수준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임상실습 과별로 알아야 할 흔한 증상, 징후 또는 질병인 필수 환자군이 포함되어 있다<표 6>.

1주의 <일차의료기관실습>과 2주의 <선택실습>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주의 학생인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원하는 과에서 모의 처방, 의무 기록 작성, 환자 수술 및 시술 참관, 환자의 치료 방향 등에 대해 의료진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표 6. 임상실습 교육과정(2021학년도)

의학3						의학4					
실습과명	환자 면담	예진	증례 발표	시술 또는 수술	일차 의료 기관 파견	실습과명	환자 면담	예진	증례 발표	시술 또는 수술	일차 의료 기관 파견
소화기내과	○	-	○	○	○	신경과	○	○	○	○	-
심장내과	○	○	○	○	-	영상의학과	-	-	○	○	-
신장내과	○	○	○	○	-	마취통증의학과	-	-	○	○	-
호흡기내과	○	-	○	○	-	진단검사의학과	○	-	○	○	○
혈액종양내과	○	-	○	○	-	재활의학과	○	-	○	○	-
내분비내과	○	-	○	○	○	병리과	-	-	○	○	-
류마티스 및 알레르기내과	○	-	○	○	○	예방의학과	-	-	○	-	○
감염내과	○	-	○	-	-	직업환경의학과	○	○	○	○	○
위장관외과	○	-	○	○	○	정형외과	○	-	○	○	-
간담체외과	○	-	○	○	-	신경외과	○	-	○	○	-
대장항문외과	○	-	○	○	○	피부과	○	-	○	○	○

표 6. 임상실습 교육과정(2021학년도)

의학3						의학4					
실습과명	환자 면담	예진	증례 발표	시술 또는 수술	일차 의료 기관 파견	실습과명	환자 면담	예진	증례 발표	시술 또는 수술	일차 의료 기관 파견
유방내분비외과	○	-	○	○	-	비뇨의학과	○	-	○	○	-
이식혈관외과	○	-	○	○	-	방사선종양학과	○	○	○	○	-
소아외과	○	-	○	○	-	흉부외과	○	-	○	○	-
응급의학과	○	-	○	○	-	성형외과	○	-	○	○	-
산부인과	○	○	○	○	○	안과	○	-	○	○	-
소아청소년과	○	○	○	○	○	이비인후과	○	-	○	○	-
정신건강의학과	○	○	○	-	○	핵의학과	○	-	○	○	-
가정의학과	○	-	○	-	○						

의료인문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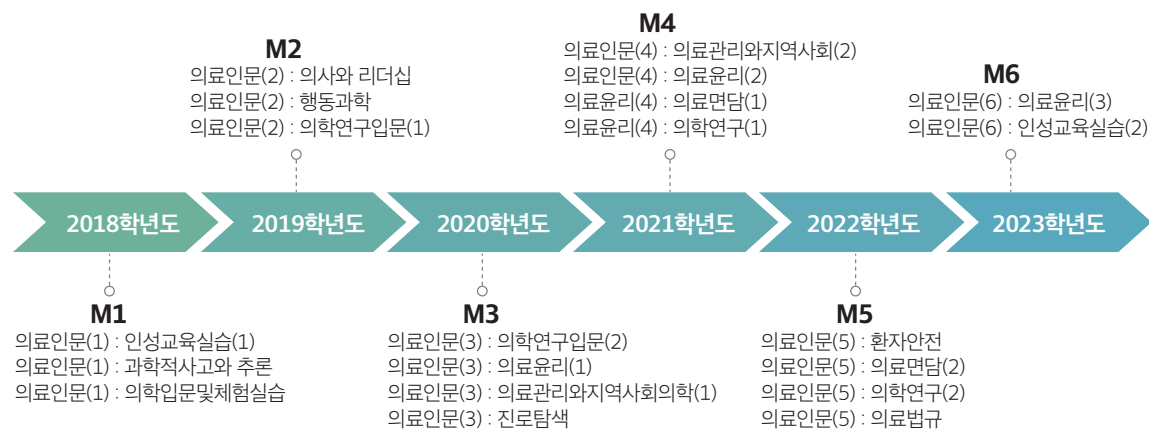
의학교육은 ‘구조 및 과정 중심’ 교육에서 ‘역량·성과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학적 지식 외에도 의사로서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의료윤리>, <의학면담>, <의료법규>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의료인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 단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료인문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2018학년 의예과 입학생부터 개편된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표 7, 그림 1>.

의료인문 교육과정으로는 봉사학습을 위한 <의료인문(1):인성교육실습(1)>,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과학적사고와추론>, 직종 간의 교육(Inter Professional Education)을 위한 <의학입문및체험실습>, 자기개발 및 타인 이해를 위한 <의사와리더십>, 인간행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행동과학>, 의학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및 연구계획서 작성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의학연구입문>, <의학연구>, 환자-의사 관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의료윤리>, 보건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 탐구하는 <진로탐색> 등이 있다.

표 7. 의료인문 교육과정 개편 현황

2017학년도 이전 의예과 입학생 대상 의료인문 교육과정			2018학년도 이후 의예과 입학생 대상 의료인문 교육과정			
학년	교과목명	학점	학년	교과목명	학점	
의예1	-	-	의예1	인성교육실습(1)	1	
				과학적사고와추론	1	
				의학입문및체험실습	2	
의예2	의사와리더십	2	의예2	의료인문(2):의사와리더십	1	
	의사학	1		의료인문(2):행동과학	1	
	의학통계학및실습	2				
	인성교육실습	1				
	행동과학	2	의료인문(2):의학연구입문(1)	1		
의학1	보완대체의학	1	의학1	의료인문(3):의학연구입문(2)	1	
	예방의학및실습	3		의료인문(3):의료윤리(1)	1	
	의료정보학	1		의료인문(3):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1)	1	
	의학면담및실습	2		의료인문(3):진로탐색	1	
의학2	의료윤리	1	의학2	의료인문(4):의료관리와지역사회의학(2)	1	
				의료인문(4):의료윤리(2)	1	
				의료인문(4):의료면담(1)	1	
				의료인문(4):의학연구(1)	1	
의학3	의료경영	1	의학3	의료인문(5):환자안전	1	
	의학과예술			의료인문(5):의료면담(2)	1	
의학4	보건의료법규(의학)	1		의학4	의료인문(5):의료법규	1
					의료인문(5):의학연구(2)	1
의학4	보건의료법규(의학)	1	의학4	의료인문(6):의료윤리(3)	1	
				의료인문(6):인성교육실습(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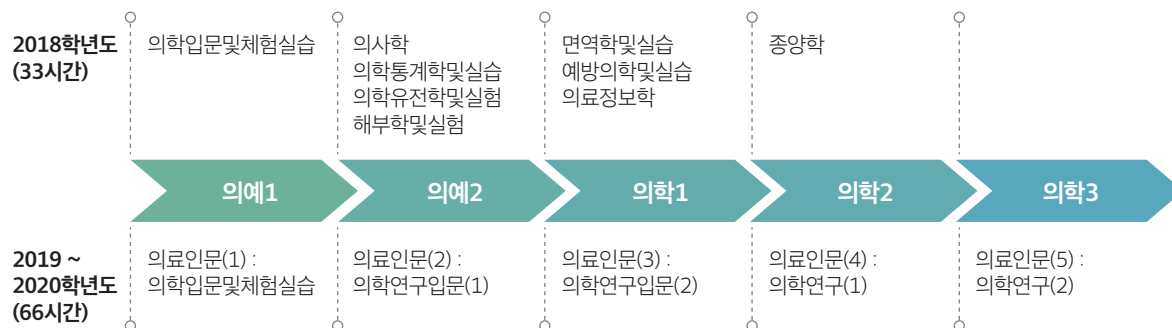
* 계명대학교 필수교양 교과목 제외



< 그림 1.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개편 (2021학년도) >

의학연구 교육과정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 술기를 시행하여,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학 연구 방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8학년도 의예과 입학생부터 의학연구를 의료인문 과정에 포함하여 의예과 2학년부터 매년 1학점으로 교과목을 개설하였다<그림 2>.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실습의 전 교육과정에 걸쳐 해당 교과목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강의계획에 참고문헌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의학 연구의 과정을 이해하고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의 의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과 과정으로 2014학년도부터 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를 시행하여 학생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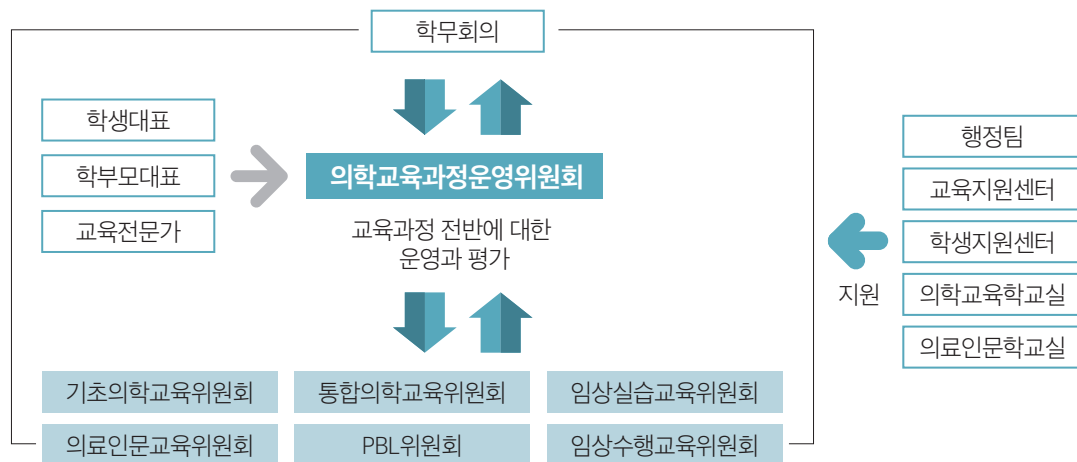


< 그림 2. 의학연구방법에 관한 교육과정 >

의학교육관련 위원회

의학교육 과정은 학생 중심, 성과중심, 연구중심, 통합 등의 방향으로 개편되어 오고 있으며, 의학적 지식 외에도 의사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육과정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 수립, 개발, 평가 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은 의도한 교육 성과를 달성하고,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 과정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학년도까지 교육관련 위원회는 의학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아래 기초의학교육위원회, 통합의학교육위원회, 임상실습교육위원회, 의료인문교육위원회, PBL위원회, 임상수행교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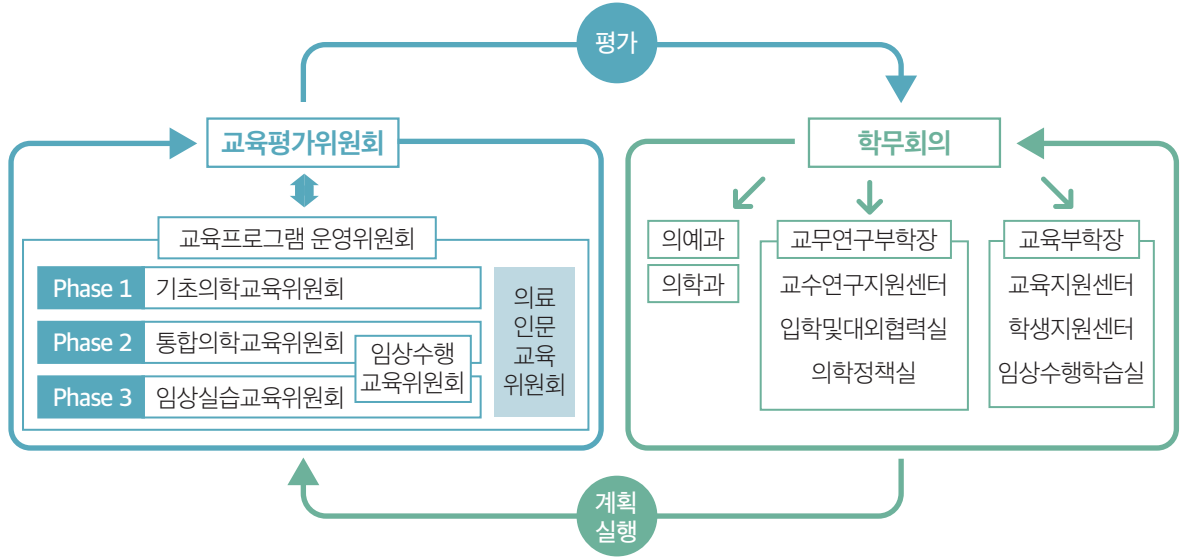


< 그림 3. 교육관련 위원회 >

의학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공정한 관리 및 운영,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내부 및 외부 평가,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 교과목 책임교수와 부책임교수의 선임 및 변경 심의, 의학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비의 주제 선정, 과제 관리, 과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의학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맡고 있었으며, 교육지원센터장, 기초의학교육위원회 위원장, 통합의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실습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수행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료인문교육위원회 위원장, PBL위원회 위원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교육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학무회의에 상정하였다.

2020학년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학교육과정운영위원회 중심의 운영에서 교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운영위원회와 교육 전체 과정의 평가 및 개선을 담당하는 교육평가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그림 4>. 기존의 PBL은 교과목 내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행되면서 2020학년도부터 PBL위원회는 폐지되었다. 2020학년도 개편된 각 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표 8>과 같다.



< 그림 4. 의과대학 교육과정 관리 체계도 (2020학년도~현재) >

표 8. 교육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2020학년도)

위원회명	위원 구성	주요 활동
교육평가 위원회	(위원장)부학장(교무연구), 부학장(교무), 의학정책실장, 교수연구지원센터장, 교육지원센터장, 학생지원센터장, 입학및대외협력실장 (이상 당연직) 포함 총 23명	의과대학 교육의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및 개선하는 등의 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부학장(교육), 통합의학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지원센터장, 기초의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실습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수행교육위원회 위원장, 의료인문교육위원회 위원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이상 당연직) 포함 총 21명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 및 실행 등의 활동
기초의학교육 위원회	(위원장)의예과장, 의학과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의료인문학교실 주임교수 (이상 당연직) 포함 총 21명	기초의학, 통합의학, 임상수행, 임상 실습, 의료인문 관련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
통합의학교육 위원회	(위원장)의학과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의료인문학교실 주임교수 (이상 당연직) 포함 총 43명	
임상수행교육 위원회	(위원장)임상수행학습실장, 의학과장, 교육지원센터장 (이상 당연직) 포함 총 24명	
임상실습교육 위원회	(위원장)의학과장, 임상수행학습실장, 교육지원센터장 (이상 당연직) 포함 총 36명	
의료인문교육 위원회	(위원장)부학장(교육), 의예과장, 의학과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의료인문학교실 주임교수 (이상 당연직) 포함 총 15명	

○ 의사국가시험 제도 변화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제도는 국민의료법 제정(1951년)으로 1952년부터 국가시험으로 새롭게 시행되었다. 1944년 제정된 조선의료령에 따라 시행하던 한지의사의 자격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당시 전쟁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한지의사를 의사로 전부 전환하였다.

그러나 국민의료법에 따라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는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1952년도 제1회부터 1955년도 제4회까지의 의사 국가시험은 보건부장관이, 1956년도 제5회부터 1963년도 제13회까지의 의사 국가시험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직접 시행하였고, 1963년도 제14회부터 1993년도 제56회까지의 의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였으며, 1994년 제57회부터 2022년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여 오고 있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은 1974년에 의사 면허 등록을 갱신함으로써 면허번호를 1호부터 새롭게 부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2년 제1회 의사 국가시험 과목은 내과학, 정신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피부비뇨과학, 산부인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의사법규 중 5과목을 시행하였으며, 우리대학 1회 졸업생이 응시한 제49회 의사국가시험은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신경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방사선과학, 임상병리학, 마취과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으로 응시하였고, 1994년 9월 27일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으로 변경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교과목 형태를 벗어나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학 관계법규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2009년 제74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이 도입되었다. 2009년 9월 23일에 시험이 시작되었고,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회에 한하여 전년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을 인정하고 해 주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대학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예고에 따라 임상수기학 교과목 개설, 임상실습 교육 강화와 OSCE / CPX 시험과 OSCE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임상술기 교육을 위하여 2008년 4월에 동산캠퍼스 2층에 임상수기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공사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 일반비품, 중앙통제실 설비 등 총 4억2천여 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시설로는 총 10개의 Station, 1개의 lecture room과 1개의 중앙통제실 등을 갖추어, CPX/OSCE 시험, 임상수기 특강, 임상실습 시 주요 임상술기 실습을 지원하였다.

2019년 4월 교육병원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의학과 3, 4학년 임상실습이 성서캠퍼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의과대학 4층에 임상수행학습실 13실을 마련하였다.

한 학년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규모로, 앰프 및 녹화 장치, 마이크 시설을 갖추고, 각 학습실에서는 실시간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실습기자재, 장비 및 모형을 충분하게 배치하여 학생들의 임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부터 기존 OMR 시험에서 CBT(Computer Based Test)로 시험 방법이 변경되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의 진행, 채점, 성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시험방식이며, 환자의 진료, 처치, 의료기기 활용, 각종 임상검사 과정 등의 직무내용을 담은 동영상, 환자의 심음, 호흡음 등 동영상, 소리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담은 멀티미디어 문항의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현황

졸업 회수	국시 회수	연 도 별	전국평 균합격 률(%)	응시자수			재학생			졸업생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1	49	1985	89.8	34	33	97.1	34	33	97.1			
2	50	1986	96.6	72	72	100	71	71	100	1	1	100
3	51	1987	98.6	68	68	100	68	68	100	-	-	-
4	52	1988	95.5	71	70	98.6	71	70	98.6	-	-	-
5	53	1989	92.9	90	88	97.8	89	88	98.9	1	-	-
6	54	1990	90.0	96	84	87.5	94	83	88.3	2	1	50
7	55	1991	92.7	97	90	92.8	85	82	96.5	12	8	66.7
8	56	1992	93.0	106	100	94.4	99	94	94.9	7	6	85.7
9	57	1993	97.8	80	79	98.8	74	74	100	6	5	83.3
10	58	1994	97.5	87	87	100	87	87	100	-	-	-
11	59	1995	64.3	83	79	95.3	83	79	95.2	1	-	-
12	60	1996	85.7	69	52	75.5	64	52	81.3	5	-	-
13	61	1997	89.4	88	83	94.3	72	69	95.8	16	14	87.5
14	62	1998	89.5	93	85	91.4	87	81	93.1	6	4	66.7

졸업 회수	국시 회수	연 도 별	전국평 균합격 률(%)	응시자수			재학생			졸업생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15	63	1999	92.9	84	77	91.7	75	71	94.7	9	6	66.7
16	64	2000	93.6	76	71	93.4	69	67	97.1	7	4	57.3
17	65	2001	85.7	92	66	71.7	87	65	74.7	5	1	20
18	66	2002	92.6	108	104	96.3	83	82	98.8	25	22	88
19	67	2003	86.6	80	70	87.5	75	68	90.7	5	2	40
20	68	2004	96.9	96	94	97.9	86	86	100	10	8	80
21	69	2005	93.2	88	86	97.7	86	86	100	2	-	-
22	70	2006	93.2	83	79	95.2	81	77	95.1	2	2	100
23	71	2007	88.5	99	89	89.9	95	86	90.5	4	3	75
24	72	2008	96.5	102	99	97.1	91	91	100	11	8	72.7
25	73	2009	93.6	104	98	94.2	100	98	98	4		-
26	74	2010	92.9	93	89	95.7	88	88	100	5	1	20
27	75	2011	91.7	84	80	95.2	80	80	100	4	-	-
28	76	2012	93.1	82	74	90.2	78	74	94.9	4	-	-
29	77	2013	92.4	80	77	96.3	72	72	100	8	5	62.5
30	78	2014	93.8	77	75	97.4	74	73	98.7	3	2	66.7
31	79	2015	94.6	89	85	95.5	87	84	96.6	2	1	50
32	80	2016	93.5	74	71	96.0	70	69	98.6	4	2	50
33	81	2017	92.8	65	62	95.4	62	61	98.4	3	1	33.3
34	82	2018	95.0	75	74	98.7	72	71	98.6	3	3	100
35	83	2019	94.2	83	83	100	82	82	100	1	1	100
36	84	2020	94.2	80	79	98.8	80	79	98.8			
37	85	2021*		69	68	98.6	65	64	98.5	4	4	100
38	86	2022	95.7	74	71	95.9	72	69	95.8	2	2	100

* 2021년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여 의대 학생들의 동맹 휴학 및 의사국가 시험 실기시험 거부가 있었음.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5

연구

- 300 계명대의 학술지
- 302 의과학연구소
- 304 뇌연구소
- 305 암연구소
- 306 신장연구소
- 307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 309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

○ 계명의대 학술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식 간행물인 계명의대학술지는 1982년 12월에 창간호인 계명의대논문집 제1권 1호를 발간하였다. 이후 1989년 제8권 2호까지는 연 2회 발간하였고, 1990년 제9권 1호부터 1999년 제18권 4호까지는 연 4회 발간, 2000년(제19권)은 연 2회 발간하였으며, 2001년(제20권)부터 계명의대학술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제40권)까지 연 2회(매년 6월 15일, 12월 15일) 발간하여 의과학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익한 종설, 원저, 증례보고, 독자 의견 등에 관한 원고들을 게재하고 있으며, 2021년 제40권 2호까지 총 1,51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계명의대학술지의 영문명은 'Keimyung Medical Journal'이며, 약칭은 'Keimyung Med J'로 사용하고 있다. 학술지는 영어 초록과 함께 한글 혹은 영어로 발행하며, 의료정보학과 의과학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에 기여하고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상 연구, 기초의학 및 간호학을 포함한 모든 보건 의료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2019년 11월 계명의대학술지 선진화 사업 시행으로 온라인으로 논문 투고와 심사가 가능한 전자출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술지는 1982년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https://www.e-kmj.org>에서 Open Access 저널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혁

- 1982년 계명의대논문집 제1권 1호 발간
- 2001년 계명의대학술지로 명칭 변경, 제20권 1호 발간
- 2011년 계명의대학술지 발간 30주년 기념 학술지 새 표제지 도안
- 2015년 계명의대학술지 KoreaMed 등재
- 2020년 계명의대학술지 홈페이지 및 투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
창간호부터 Online 이용 가능(제39권 1호부터 전자출판)
- 2021년 현재까지 전체 40권 발간(논문 1,512편 수록)

학술지편집위원회

계명의대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도서관행위원회라는 명칭으로 1982년 도서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9년 학술지 선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학술지 편집위원회로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대 편집위원장

역대	성명	전공	기간
초대	박영춘	신경과학	1979. 3. ~ 1984. 9.
2대	장성익	해부학	1984. 10. ~ 1986. 6.
3대	강진성	성형외과학	1986. 7. ~ 1987. 1.
4대	강창수	정형외과학	1987. 2. ~ 1989. 3.
5대	서석권	예방의학	1989. 4. ~ 1990. 6.
6대	강진무	소아청소년과학	1990. 6. ~ 1992. 6.
7대	신동학	가정의학	1992. 7. ~ 1994. 2.
8대	김중강	이비인후과학	1994. 3. ~ 1995. 8.
9대	김유사	외과학	1995. 9. ~ 1998. 7.
10대	김광세	비뇨의학	1998. 8. ~ 2001. 2.
11대	주종윤	기생충학	2001. 3. ~ 2004. 2.
12대	김현철	내과학	2005. 3. ~ 2007. 2.
13대	서민호	미생물학	2007. 3. ~ 2009. 1.
14대	한기환	성형외과학	2009. 3. ~ 2009. 9.
15대	김동원	신경외과학	2009. 10. ~ 2011. 2.
16대	박성배	내과학	2011. 3. ~ 2013. 2.
17대	송광순	정형외과학	2013. 3. ~ 2017. 2.
18대	박철희	비뇨의학	2017. 3. ~ 2019. 8.
19대	김대현	가정의학	2019. 9. ~ 현재

편집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김대현	이재호	[내부]	김신, 김예림, 김혜영, 박준철, 이경재, 이미영, 이주엽, 장병철, 정원호, 허윤석, 이태구
		[외부]	박기영, 서동훈, 신용, 이무식, 이상화, 전용현, 조재호, 주종길, 허상택,

○ 의과학연구소

계명대학교 의과학연구소는 각종 질환을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적 견지에서 연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치료에 공헌하기 위하여 1982년 6월 15일에 설립하였다. 의과학연구소는 소장과 간사 그리고 연구부장과 기획부장으로 구성되며, 분자의학 연구부, 유전체 연구부, 소화기학 연구부, 내분비대사 연구부, 감각기관질환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최신 의학 및 질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국내외 교수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 워크숍 및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해마다 기초 및 임상의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요사업

기초의학, 임상의학 및 보건 진료에 관한 연구
 학술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타 연구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산학협동 연구 및 사회 봉사활동
 의학 연구를 위한 연구진 확보
 의학 연구지원금 지급
 국가 연구과제 및 용역을 수탁 할 수 있는 연구여건 조성
 의학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의과학연구소원의 연구비 수탁 실적

2021년 기준 의과대학의 116명 교수가 의과학연구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약 5억 원의 연구비를 수탁했으며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현재 약 25억 원의 연구비를 수탁하였다.

역대 연구소장

소속	성명	기간
생리학교실	채의업	1982. 9. ~ 1985. 1.
예방의학교실	윤능기	1985. 2. ~ 1987. 3.
산부인과학교실	서영욱	1987. 4. ~ 1992. 5.
성형외과학교실	강진성	1992. 6. ~ 1994. 5.
면역학교실	최병길	1994. 6. ~ 1999. 2.
생화학교실	곽춘식	1999. 3. ~ 2001. 2.
피부과학교실	이규석	2001. 3. ~ 2003. 2.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옥배	2003. 3. ~ 2007. 2.
외과학교실	김인호	2007. 3. ~ 2009. 2.
진단검사의학교실	전동석	2009. 3. ~ 2011. 2.
미생물학교실	서민호	2011. 3. ~ 2015. 2.
미생물학교실	서성일	2015. 3. ~ 2017. 2.
생리학교실	배재훈	2017. 3. ~ 2019. 2.
생리학교실	송대규	2019. 3. ~ 2021. 2.
생리학교실	배재훈	2021. 3. ~ 현재

○ 뇌연구소

계명대학교 뇌연구소는 뇌신경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규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기초 및 임상의학적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9년 3월 1일 설립하였다. 뇌연구소는 퇴행성신경질환 연구부, 뇌혈관질환 연구부, 말초신경근육질환 연구부, 정신질환 연구부, 뇌종양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최신 의학 및 질환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 워크숍 및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뇌과학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매년 기초 및 임상의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요사업

- 신경 관련 분야의 기초의학적 연구
- 뇌 관련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법 개발
- 국내 및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 뇌신경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 뇌연구를 위한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역대 연구소장

소속	성명	기간
신경과학교실	박영춘	1999. 3. ~ 2000. 2.
신경외과학교실	임만빈	2000. 3. ~ 2005. 2.
신경과학교실	이상도	2005. 3. ~ 2009. 2.
생리학교실	박원균	2009. 3. ~ 2011. 2.
병리학교실	김상표	2011. 3. ~ 2013. 2.
신경과학교실	임정근	2013. 3. ~ 2015. 2.
정신건강의학교실	김희철	2015. 3. ~ 2017. 2.
신경외과학교실	이창영	2017. 3. ~ 2019. 2.
약리학교실	이성용	2019. 3. ~ 2021. 2.
신경과학교실	이형	2021. 3. ~ 현재

○ 암연구소

계명대학교 암연구소는 암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1996년 3월 1일 의학유전 연구소로 개소하여 2012년 5월 19일 암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암연구소는 기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성공률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초 - 중개 - 임상 연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암 기초, 임상 및 중개연구에 대한 지원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암연구소에서는 교내 암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암연구기법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암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연구 인력 및 기술 지원 사업, 연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저명 연구자들과 발전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연구 국제 심포지엄 및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사업

초청 강연회

국제심포지엄, 암연구기법 워크숍 개최

연구비 지원 사업

연구 인력 및 기술 지원 사업

연구 공간 및 시설 지원

역대 연구소장

소속	성명	기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강진무	1996. 3. ~ 1998. 8.
정신건강의학교실	박영남	1998. 9. ~ 2001. 2.
외과학교실	박우현	2001. 3. ~ 2003. 2.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흥식	2003. 3. ~ 2007. 2.
신경외과학교실	손은익	2007. 3. ~ 2009. 2.
면역학교실	박종욱	2009. 3. ~ 2011. 2.
산부인과학교실	조치흠	2011. 3. ~ 2015. 2.
미생물학교실	백원기	2015. 3. ~ 2017. 2.
내과학교실	박건욱	2017. 3. ~ 2021. 2.
내과학교실	조광범	2021. 3. ~ 현재

○신장연구소

계명대학교 신장연구소는 신장질환에 대한 임상과 기초 연구팀의 상호 협력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신장질환의 발생 기전, 병태생리, 신질환의 예방,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을 통해 환자 진료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연구의 질을 높여 신장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신장연구소는 전해질-대사 연구부, 신장 병리 연구부, 신장질환 연구부, 고혈압 연구부, 투석 연구부, 신장이식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최신 의학 및 질환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움, 워크숍 및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장질환에 관련된 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 매년 기초 및 임상의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요사업

- 신장질환 및 치료법에 대한 동물모형 개발
- 신장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법 개발
- 국내외 저명 신장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 신장질환에 대한 심포지움 및 워크숍 개최
- 신장질환 연구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
- 산학협동 연구 추진
- 신장연구 지원금 지급

역대 연구소장

소속	성명	기간
내과학교실	김현철	2000. 3. ~ 2007. 2.
내과학교실	박성배	2007. 3. ~ 2011. 2.
내과학교실	김현철	2011. 3. ~ 2012. 5.
내과학교실	박성배	2012. 6. ~ 2020. 2.
내과학교실	진규복	2020. 3. ~ 현재

○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2002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초의과학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초의과학 전공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 계획을 공고하였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Medical Research Center, MRC) 선정 시 매년 약 10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어 대학이 발전하는 기폭제가 됨으로써 많은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대학에서는 면역학교실의 박종욱 교수가 교내외 우수교수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대학과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Chronic Disease Research Center, CDR 센터)를 구성하여 기초의과학연구센터에 지원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센터 예비심사, 본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기초의과학연구센터에 선정되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는 2002년에 지정되어 2011년까지 총 9년간 정부출연금 59억, 정부외출연금 49억, 기업체 지원금 3.2억 등 총 10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신약선도물질을 발굴하고 산업화하며, 기초의과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기초의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센터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 연구로 질병 치료후보물질의 검색기반을 구축하였고, 2단계로 High-throughput screening을 통한 질병조절 선도물질을 발굴하고 Target validation을 진행하였다. 3단계로 최적화된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용 신약 선도물질을 발굴하고 생산하였다.

박종욱 교수가 센터장으로 센터의 연구를 총괄하였으며, 서성일, 송대규, 권택규, 박종구 교수가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서성일 교수는 Apoptosis 유발성 항암화학제 개발 및 기전연구를 담당하였고, 권택규 교수는 Cox-2 발현조절을 통한 만성 염증 및 류마치스 관절염 억제제 개발을 연구하였다. 송대규 교수는 비만성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화학제를 연구하였고, 박종구 교수는 Antisense library를 구축하여 질환유전자 발굴과 선도의약품물질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인규, 문교철, 장병철, 백원기, 김상표, 조치흠, 신동훈, 김대광, 배재훈, 이성용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총 15명의 의과대학 교수와 7명의 연구교수, 수십 명의 연구원 및 2개의 바이오 벤처사가 이 연구에 참여하여 국제학술논문 130편, 국내외 특허 출원 8건, 치료의약품 기술이전 1건, 장비구축 130건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설립으로 인해 연구업적이 센터 지정 전에 비해 전체 SCI 논문수가 3배, IF 4 이상 우수 국제논문수가 3.5배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박종구 교수가 2005년에 Nature biotechnology에 게재한 논문으로 당시 Imfact factor는 36.1이다. 이 논문은 large circular antisense를 이용해 유전자를 Knockdown시키는 기술로서 High-throughput functional genomics 연구에 활용되는 중요기술이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기

초의과학연구센터 전체에서 보고된 가장 IF가 높은 논문이며 기초의과학연구센터에서 보고한 최초의 CNS(cell science nature) 논문이다. 권택규 교수는 만성 관절염 및 암 전이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MMP-9의 특이적인 저해제에 대한 연구로 Cancer Research(2003년)와 Oncogene(2004년)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송대규 교수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gallate-ester moiety of (-)-epigallocatechin-3-gallate의 KATP channel activity와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 및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Biochemical Pharmacology(2005년)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2011년에는 박종욱, 백원기 교수가 암세포에서 HIF1에 대한 연구로 Cancer Letter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다. 또한 글루코사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구강편평세포암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8건의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폐길화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주)엔유씨전자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는 국제심포지움 4회, 워크숍 1회 및 연구발표회를 2회 개최하였고, 외부강사 초청세미나 51회와 Lunch Seminar를 29회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교류하였다.

매년 약 12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Confocal Microscope, FACS등 의과대학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 연구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으며, 9년간 총 23명의 의학석사와 13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하였다. 특히 기초의과학자 육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제도를 실시하여 의과대학 학생들이 연구에 참가하였고, MRC 여름캠프와 임상실습과정 중 선택실습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의학과 4년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기초의학 연구활성화와 더불어 기초전공에 대한 동기부여와 정보제공 등의 노력을 통해 총 6명의 MD 출신 기초의과학자를 육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력의 향상과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인력양성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첨단 기초의과학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3년 뒤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Obesity-mediated Disease Research Center, ODR center)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인 Medical Research Center(MRC)로서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2002~2011년)에 이어 2014년에 선정되었다.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는 비만 매개 당뇨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공통 병인 조사, 표적 규명, 프로테옴 및 리피돔 분석, 면역 네트워크 규명 등을 통하여 비만 매개 질환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진단용 바이오칩 개발과 새로운 신약 표적을 발굴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기술 산업화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였다.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년간 정부출연금 70억과 정부외출연금 72억 5,700만원으로 합계 142억 2,57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만/과체중에 의한 면역항상성의 장애와 세포유래 호르몬들(사이토카인, 아디포카인, 지질)의 분비양상의 변화는 비만 매개 질환 발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성 당뇨질환과 심혈관질환에 중요한 비만 매개 호르몬에 초점을 맞추어 센터차원의 유기적 연구를 통해 비만 매개 질환의 병인 규명과 신규 치료표적을 발굴하고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송대규 교수가 센터장으로 센터의 연구를 총괄하였으며, 박종욱, 김지인, 이성용, 권택규, 임승순, 허윤석, 손성일 교수와 나노종합기술원의 이석재 박사가 핵심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35명의 의과대학 교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비만 매개 당뇨질환 연구는 베타세포 기능개선을 통한 비만 매개 당뇨질환 제어 표적과 체중 개선을 통한 비만 매개 당뇨질환 치료 기술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만 매개 심혈관질환 연구는 비만 매개 지방 조직의 염증화에 의한 고혈압 및 동맥경화의 병인과 표적 인자 발현 조절 동물 및 인체 샘플을 이용한 표적 제어 최적화와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만 매개 면역 네트워크 중개연구는 비만과 비만 매개 질환에서 지방 및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 아디포카인, 지질 분비양상 변화, 비만과 비만 매개 질환 병인에 중요한 새로운 호르몬 발굴, 조직 침윤 대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비만 면역 네트워크 장애 등을 연구하였고, 비만 및 비만 매개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진단 바이오칩 개발을 진행하였다.

7년간 총 271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Journal of Pineal Research(2015년), Diabetologia(2015년),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2017년), PNAS(2018년) 등의 수준 높은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휴대용 인슐린 저항성 진단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진단방법을 비롯하여 8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중에 45건이 등록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성과로 기술 이전 6건과 기술실시 2건을 통해 총 기술료 2억 4,65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는 매년 50여 명의 공동연구원과 20여 명의 대학원생들을 고용하여 지역의 의생명과학분야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였다. 비만 자체의 예방 및 치료, 비만 관련 질환들의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의생명과학의 성과를 의용공학과 연결하여 의료기기 분야에도 큰 기여를 이루었다. 또한 의과대학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함께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초의학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들이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가며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젊은 기초의학 연구자를 확보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연구자들이 현재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와 비만매개질환 연구센터의 뒤를 이어 3차 MRC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6

학생

- 312 학생회 활동
- 317 동아리 현황
- 318 동아리 소개
- 325 동아리의 추억

○ 학생회 활동

학생회 조직

1981년 3월 의학과 1회 59명이 진입하면서 구성된 의과대학 학생회는 당시 학도호국단 체제로 시작하여 4대까지 활동을 하였으며, 학도호국단 제도가 폐지되면서 1985년부터 학생 직접선거에 의한 학생회로 변경되었다.

역대 학생회장 명단

연 도	성 명	연 도	성 명
1981	김 성 철	1996	박 만 원
1982	허 찬 욱	1997	이 성 배
1983	신 건 민	1998	김 동 은
1984	배 재 훈	1999	김 도 훈
1985	임 정 근	2000	박 의 준
1986	오 진 석	2001	홍 정 호
1987	최 흥 택	2002	김 인 철
1988	이 동 규	2003	김 현 권
1989	이 승 환		김 호 규
1990	김 민 수	2004	윤 상 호
	송 광 호	2005	김 근 태
1991	허 정 국	2006	임 철 순
1992	서 영 록	2007	진 철
1993	김 준 호	2008	채 한 규
1994	우 윤 구	2009	김 정 규
1995	김 경 천	2010	양 기 욱

연 도	성 명	연 도	성 명
2011	정 수 봉	2017	송 지 훈
2012	최 원 규	2018	박 현 빈
2013~2014	박 지 현	2019	권 현 재
2015	유 등 욱	2020	최 형 우
2016	최 병 찬	2021	지 민 규

학생회 활동

학생회의 주요 활동은 농촌봉사활동, 태극추전, 체육대회, 신입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농촌봉사활동

농촌을 방문하여 진료 활동, 농촌일손돕기, 학습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시행하였으며, 2010학년도 농촌봉사활동에 참가한 신동욱 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봉사활동은 중단되었다.

학년도	활동기간	활동지역	참석인원	주요활동내용
1982	1982. 5. 25.	경북 의성군	9	진료 및 농촌 일손돕기, 학습지도 등
1983	1983. 7. 25.	경북 경주시 감포면	15	
1984	1984. 7. 25. ~ 7. 29.	경북 포항시	25	
1985	1985. 7. 29. ~ 8. 1.	경북 봉화군 재산면	43	
1986	1986. 7. 29. ~ 8. 2.	경북 봉화군 재산면	48	
1988	1988. 8. 1. ~ 8. 4.	경북 봉화군 재산면	41	
1989	1989. 7. 30. ~ 8. 4.	경북 상주시 화북면	52	
1990	1990. 7. 30. ~ 8. 4.	경북 상주시 외서면	60	
	1990. 10. 20. ~ 21.	경북 상주시 외서면	20	
1991	1991. 8. 1. ~ 8. 6.	경북 상주시 외서면	55	
1992	1992. 7. 27. ~ 8. 2.	경북 김천시 조마면	70	
1993	1993. 7. 30. ~ 8. 4.	경북 김천시 증산면	100	

학년도	활동기간	활동지역	참석인원	주요활동내용
1994	1994. 7. 26. ~ 7. 30.	경북 김천시 증산면	80	진료 및 농촌 일손돕기, 학습지도 등
1995	1995. 7. 24. ~ 7. 29.	경북 김천시 증산면	50	
1996	1996. 7. 24. ~ 7. 30.	경북 김천시 조마면	60	
1997	1997. 7. 24. ~ 7. 29.	경북 김천시 증산면	90	
1998	1998. 7. 22. ~ 7. 27.	경북 김천시 부항면	90	
1999	1999. 7. 20. ~ 7. 25.	경북 김천시 부항면	90	
2000	2000. 7. 31. ~ 8. 5.	경북 김천시 부항면	90	
2001	2001. 8. 1. ~ 8. 5.	경북 의성군 춘산면	40	
2002	2002. 7. 29. ~ 8. 2.	경북 의성군 안평면	40	
2003	2003. 7. 20. ~ 7. 24.	경북 의성군 봉양면	70	
2004	2004. 7. 26. ~ 7. 29.	경북 포항시 기계면	80	
2005	2005. 7. 28. ~ 7. 31.	경북 영양군 수비면	80	
2006	2006. 7. 27. ~ 7. 30.	경북 군위군 우보면	80	
2007	2007. 7. 26. ~ 7. 29.	경북 포항시 기계면	70	
2010	2010. 7. 21. ~ 7. 24.	경남 함양군 안의면	75	

태계축전

태계축전은 학생회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다. 태계(笏階)란 험한 돌을 지혜와 의지의 끝로 갈고 다듬어 이 땅에 人間愛에 입각한 醫師像 확립을 위한 무너지지 않는 계단(階)을 쌓고자 함이며, 훗날 계단 그 틈 사이로 역사의 푸른 이끼(笏)가 자랄 때 진리, 정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이 되려 한다는 뜻이다. 태계축전은 1981년 가든 파티로 시작되었으나, 1985년부터 ‘태계축전’이란 이름으로 은혜제, 기초의학교실 전시회, 태계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선배의 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같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엔 옛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처음 의예과 입학 후 대명캠퍼스에서 다른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하기도 하고, 의학과 시절엔 “지하실 아저씨”란 별명으로 불리며 간호대학 건물 지하에서 의대 건물이 빨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던 서글픈 더부살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명의대인들의 마음속엔 모두 참된 의료인이 되겠다는 높은 이상과 꿈이 있었기에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런 꿈을 가지게 해준 계명의대가 벌써 40주년을 맞이한다니 참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80명의 입학 동기들 중 32명만이 졸업할 만큼 의료인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동문들은 그 룩사운드, 독서, 클래식, 테니스 등 여러 동호회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다른 의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서양식 가든파티 개최 등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겐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계기가 된 의대시절 무의촌 봉사활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예비 의료인인 학생 여러분도 의학도로서의 본분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매일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계명의대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별써 3,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였으며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여 최첨단 강의실, 디지털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의학교육정보실, 첨단 임상수행학습실 등으로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은 생명과학과 의학, 약학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의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비움과 채움의 진리를 아시나요?

진리는 단순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을, 친구들을,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늘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즘 시국에 COVID-19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인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명의대 40주년을 축하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제1대 학생회장 김 성 철

○ 후배의 글

COVID-19가 지배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에는 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학생회장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처럼 다양한 행사와 선후배 간의 만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밝았음에도 바이러스는 여전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결국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이어 올해마저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행사의 운영 방식, 기획 방법 등의 전달이 후배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아리 소개식부터 축제까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니 여러 가지 고민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생회 구성원들과 많은 회의를 거치고 전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의견을 받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동아리 소개식과 행사들은 온라인 화상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잘 정리된 발표 자료와 함께 진행하여 많은 신입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비대면으로 진행된 축제는 여러 E-sports 경기들과 난센스 토론, OX 퀴즈 대회와 같이 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과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여 고학년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11월이 되어서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어 적막했던 의과대학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고, 의과대학 4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40년사 편찬위원회 일을 맡게 되었을 때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님께서 해오신 일들과 동아리 활동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지, 또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회장들의 노력과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 40년 전 과거부터 올해까지의 긴 역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리된 자료들을 읽다 보니 많은 선배님이 기초를 만들어 주셨고, 40년의 시간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져 현재의 동아리와 학생회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비대면 행사에서의 어려움처럼 동아리와 학생회의 시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완성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가 선배님들께는 시행착오가 있었을 시절의 재밌는 추억을, 후배님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동아리 현황

연번	동아리명	활동목적	설립연도	지도교수	회원수
1	가톨릭학생반	가톨릭학생회	1981	김정범	26
2	늘부름	그룹사운드	2006	서지혜	52
3	동산 YAMAS	야구	2009	손은석	31
4	메디퐁	탁구	2015	장병철	63
5	메아리	수화봉사	1999	남성일	21
6	벗	학습봉사	1993	김동은	30
7	사랑과 그림	그림	1996	김대현	27
8	산악부	등산	1979	조철현	50
9	아이리스	영화 감상	1999	이현수	41
10	아틀라스	축구	1996	진상찬	66
11	안투스	중창단	1981	김진희	57
12	양상블	연극	1979	하정숙	36
13	열린진료소	의료봉사	1993	황일선	38
14	정의초	신문 발행	1987	-	19
15	탄현회	클래식기타	1981	하지용	40
16	태계	교지 발행	1984	이재호	20
17	파노라마	사진	1979	정은영	51
18	프렐류드	관현악단	1989	강구정/김상현	60
19	CMF	기독교학생회	1980	황재석	33
20	HIPP-SONS	그룹사운드	1979	류영욱	33
21	MENNIS	테니스	1979	이성용	68
22	MESS	농구	1984	조광범	15
23	RION	댄스	2016	박재형	48

○ 동아리 소개

가톨릭학생반

가톨릭학생반은 1981년에 창립된 천주교 종교 동아리이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매 학기 개강 미사와 종강 미사로 마무리한다. 학기 중에는 신입 동아리 회원을 환영하고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선배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친목행사를 하고 있다. 2018년부터 대구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과 간호대학이 포함된 천주교 연합 동아리인 프로비타에 소속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연간 4회 프로비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비타 개강 미사와 종강 미사 외에 각종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비타를 통해 타 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신심을 쌓고 있다.

늘부름

늘부름은 1989년 창립되었다. 초기에는 노동가요를 부르는 동아리였으나, 2006년에 밴드동아리로 변경하여 현재는 자유 감성을 추구하는 혼성 밴드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다. 연간 행사로는 향상 발표회, 신입생 환영 공연, 가을 공연이 있다. 향상 발표회는 의예과 학생 위주로 진행되며, 선배들에게 악기와 합주에 대하여 배우고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행사이다. 신입생 환영 공연은 신입생에 대한 축하는 물론 늘부름 동아리 내에서 선후배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새롭게 회원이 된 '부르미'를 축하하는 행사이다. 가을공연은 주로 의예과와 의학과 2학년까지 회원이 함께 공연하며, 특히 의예과 1학년들이 처음으로 공연을 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동산 YAMAS

동산 YAMAS는 2009년에 창립된 야구동아리로 해부학교실 최인장 교수가 초대 지도교수로 시작하여 2016년까지 지도하였다. 3월 신입생 환영 경기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교내 소운동장에서 정기 훈련을 진행하며,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대구지역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야구부와 연합하여 PBL 리그를 진행하고, 본교 야구 동아리와 친선전을 개최한다. 매년 하계방학 기간에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야구 동아리가 참가하는 예비 의료인 야구대회에 참가한다.

메디퐁

메디퐁은 2015년에 창립된 탁구 동아리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학과 공부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체력 증진도 하며 교우관계 및 선후배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창단되었다. COVID-19 전에는 매월 또는 격월에 한 번씩 모여 교수에게 혹은 선배에게 후배들이 탁구를 배우기도 하고 동기들끼리 혹은 선배와 후배가 함께 탁구 시합을 하며 태계축제에 메디퐁 부스를 열어 탁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메아리

메아리는 1999년 창립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연합동아리로서 수화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종강 교수가 초대 지도교수로 2005년까지 지도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남성일 교수가 지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매주 진행하는 수화 수업 및 분기별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있다.

벗

벗 동아리는 1993년 창립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연합동아리로서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주로 대성보육원, 봄의 집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2020년 COVID-19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2021년 1학기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익프로그램 및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해외아동 교육 및 위생지원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등을 제3세계 해외 아동에게 보내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하였다.

사랑과 그림

사랑과 그림은 1996년 창립되어 그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 등을 서로 의논하고 배워가며, 그림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동아리 주요 행사로 매학년 초에 동아리 회원들이 1년 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의과대학 내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그림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해 교양을 쌓고 있다.

산악부

산악부는 초대 지도교수이신 요산 정재홍 교수의 권유로 1979년 계명의대 산악부(Keimyung University Medical Alpine Club, KUMAC) 동아리가 창립되었다. 처음 창립하였을 때는 의학과 학생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했다. 창립 기념으로 소백산 산행을 갔으며, 이후 소수 정예로 전국의 산을 산행하였고 이후 의예과 학생도 동아리 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 행사로 신입생 환영 산행 행사를 개최하여 신입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배와 후배의 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하계 및 동계방학에 정기 산행을 통해 전국 명산을 산행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동기와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만들고 있다.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영화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 1999년 창립되었다. 선후배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영화 감상 후 토론을 하며,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제 단체관람 등을 하고 있다.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1996년 창립된 축구동아리로 가족같은 분위기로 자유롭게 축구를 즐기는 체강의 체력을 자랑하는 동아리이다. 주요 활동으로 매년 5월에 대구시광역시 의사회가 주최하는 의사회 축구 경기(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의사회축구단 참여), 7월말에 개최하는 전국 의과대학 축구대회(부대경(부산, 대구, 경상도에 소재한 의과대학 10개 경기로 예선 1, 2위를 선발한 후 서울에서 개최하는 본선 참가) 및 10월에 개최하는 대경 축구대회(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동국대학교)에 참가한다.

안투스

안투스는 합창 동아리로 ANTUS는 라틴어 Anima와 Cantus의 합성어로 생명의 소리라는 뜻이다. 1981년 창립되었으며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2학년까지 약 40명의 학생들이 방학 동안 모여 연습하고 해마다 정기공연을 올리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공연 연습은 하계 방학 3주 동안 이뤄지며, 1주차에는 곡의 가사와 음정을 익히고, 2주차에서는 함께 불러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3주차에는 리허설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체적인 공연은 남성, 여성, 혼성으로 각각 이루어진 세 개의 중창과 전 동아리 부원이 4성부를 이루어 함께 부르는 합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여름 정기공연, 봄 신입생 환영 공연을 하고 있다.

앙상블

앙상블은 1979년 창립된 연극동아리로 계명의대의 시작과 함께한 동아리이다. 창립 초기에는 여름공연, 신입생 환영공연, 워크숍 등 1년에 여러 차례 연극을 올렸으나 2008년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신입생 환영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공연 이외에도 퍼포먼스 오브 앙상블, 연극관람 등 다양한 연극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대에 올린 연극 작품은 총 65편으로 하나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극, 코미디, 서스펜스 등 여러 시도를 하였으며 관객들에게도 꾸준하게 호평받고 있다. COVID-19로 2년간 활동하지 못했고, 2022년 1월에 퍼포먼스 오브 앙상블을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열린진료소

열린진료소는 1993년 창립된 의료봉사활동 동아리로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 학교, 선배들의 지원을 받아 매월 격주 토요일 대구광역시 남산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의초

정의초는 의과대학 학보사로 매년 총 4회 신문을 발행한다. 신문을 발행하기 전 의예과 1학년에서 의학과 2학년 초원들이 모여 편집회의를 진행하여 의료계와 사회의 이슈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후 각자 기사화할 주제를 정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을 발행한다. 정의초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의료계의 이슈들을 다른 학우들에게 알리고, 예비의료인으로서 식견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탄현회

탄현회는 1981년 창립된 유서 깊은 동아리로 클래식 기타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 동아리이다. 우리 대학 면역학교실 박종욱 교수가 의학과 1학년 재학 중에 주도하여 창립되었고 40여 년간 명맥을 이어 오고 있으며, 겨울 정기연주회, 여름 소연주회, 향상발표회, MT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태계

태계는 의과대학 교지를 발행하는 동아리로 1984년도에 창간호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이 때로는 시국을 규탄하고 때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외치면서 같은 태계인들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 마음이 책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전반적으로 테마 에세이와 특집, 다양한 기획을 통해 당대 세대와 의학 및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고, 현재까지 34호를 발간하였으며, 현 시대의 문제점과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34호부터는 E-book으로 제작하여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1979년에 창립된 사진동아리이다.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이 이전하기 전에는 흑백 인화가 가능한 암실과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간호대학과 연합으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의과대학 단독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진이 발달하면서 인화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다. 카메라 사용법, 촬영기법 등을 배우고 정기적인 출사를 통하여 촬영한 작품으로 매년 의과대학 축제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프렐류드

프렐류드는 관현악단 동아리로 1989년 창립되어 동산캠퍼스 교내 대강당에서 첫 공연을 하였고, 이후 매년 여름 교내 대강당에서 정기연주회를 했으며 2007년 2월 6일 제17회 정기연주회부터는 수성아트피아,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의 외부 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로 제31회 연주회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연주회를 시도하였다. 프렐류드에서 진행하는 연간 주요 활동으로는 신입생 환영회, 의예과 MT와 전체 MT, 단기 여름 연습, 향상 발표회, 겨울 연습과 정기 연주회 등이 있다. 특히 연주회 프로그램 구성을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졸업생 선배와 지도교수가 직접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CMF

CMF(Christian Medical Fellowship)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을 포함한 예비 기독교의료인의 모임이다. 1979년 의예과 1학년 박해한 학생의 주도로 자발적인 기도모임이 형성되었으며,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령으로 전국 대학교 휴교 사태 때 경희대학교 CMF의 조화영(의학과 2학년), 송미령(의학과 1학년) 학생의 소개로 대구·경북지역 5개 대학(계명대의대, 경북의대, 경북치대, 영남의대, 동국한의대) 이 성경 공부를 통해 한국 CMF(KCMF)와 연결되었다. 1981년 의학과 1학년에 진입하면서 기독교학생반으로 동아리 등록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매주 캠퍼스 모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과 전국 타 대학들과 교류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전국수련회, 의료선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HIPP-SONS

HIPP-SONS은 1979년에 창립된 그룹사운드 동아리로 우리 대학과 그 시작을 함께한 동아리이다. 창립 당시 현재 병리학교실에 재직 중인 김상표 교수를 포함하여 1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동아리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기본적으로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6개 학년이 모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창립 다음 해인 1980년부터 대구시민회관, 계명대학교 노천강당, 동성로 중앙무대 등 다양한 곳에서 공연하였으며 매년 두 차례의 정기공연을 기본으로 하여 대구지역 밴드동아리 연합 공연인 DMRF, 태계인의 밤, 태계 축전 등의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총 7명으로 매니저, 보컬, 베이스, 두 명의 기타, 키보드 그리고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대 기타를 맡은 피부과학교실 류영욱 교수가 지도교수를 하고 있다.

MENNIS

MENNIS는 테니스를 즐기는 동아리로 1979년 의예과 1학년 소병헌 학생을 주축으로 창립되었다. 전국 의과대학 테니스 선수권대회에 거의 매년 참가하였고, 2008년에는 계명대의대, 조선의대, 원광의대, 인제의대 4개의 학교가 우열을 가리는 학명배(4개 대회)를 만들어 참가하였다. 2009년에는 제1회 동창회장배 테니스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는 제43회 전국 의과대학 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복식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차지하였다.

MENNIS 자체 행사로는 MENNIS 홈커밍데이 및 동창회장배, MENNIS배, 학장배, 그리고 예과배 테니스대회가 있으며, 예과배는 의예과 1학년과 2학년만 참가하는 대회로써 MENNIS 유망주 발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MESS

MESS는 1984년에 창립되었으며, Medical snakes의 의미를 가진 농구동아리이다.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을 통해 팀 움직임을 익히고, 패턴을 주로 연습하고, 방학 중에는 2주 정도 집중 연습하며, 평소에는 개인 연습을 통하여 기량을 키운다.

조직적인 연습을 통하여 매년 개최하는 전국 의료인 농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승과 준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우리 대학 3기 선배와 푸른병원의 후원을 받아 매년 개최하는 푸른병원배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재학생 농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졸업생 회원은 OB팀으로 계속 활동하며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RION

RION은 2016년에 창립된 댄스동아리로, 힙합과 방송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에 도전하는 동아리이다. 주된 활동으로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선배들과 팀을 이루거나 같은 학년끼리 팀을 이뤄서 연습하고, 3월에 신입생을 위한 환영 공연을 한다. 다른 활동으로는 대구지역의 영남의대, 경북의대, 대구가톨릭의대의 댄스동아리와 함께 팀을 짜서 공연하는 D-MAD가 있으며 타 의과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분을 쌓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 동아리의 추억

늘부름

34기 박기현(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외과)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자유 감성 밴드’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음악을 좋아하고 열정을 쏟을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파트를 정하고 본인의 능력에 맞게 곡 선정을 합니다. 자유 감성이 모토이기에 곡 선정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여러 곡을 하기 힘들다면 선배들이 일부 커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섞인 팀도 있어 곡의 난이도에 따라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팀에 합류하여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본인만의 무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늘부름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밴드처럼 힘들고 고되게 연습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연습하고 자율적으로 팀원들끼리 시간을 맞춰 합주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으며 팀별로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연습 시간을 조율하여 편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연습하지 않으면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우리들의 공연을 보고 후배들이 동아리에 지원을 결정하는 만큼 공연 연습을 소홀히 하는 회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율성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의논할 수 있으며, 그만큼 공연이 매번 다채롭습니다. 물론 ‘완벽한 공연’을 추구해야겠지만, 늘부름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연’에 조금 더 중점을 둡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공연에 와서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학업을 잊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공연 후 술자리도 분위기가 좋고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졸업 후에도 동아리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아리에 속해 있을 때도 매년 많은 선배님이 뒤풀이에 참석하여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뒤풀이 자리 덕에 아직도 많은 선후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벋

36기 박소현(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저는 ‘벋’동아리에서 현재 ‘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전에는 ‘대성보육원’이라고 불렸던 시설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봉사를 하였습니다. 같은 학번의 친구 2명과 함께 각자의 담당 학생을 상대로 일대일 과외를 하였으며 의예과 1학년부터 의예과 2학년까지 약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학생을 만나러 왕복 1시간 30분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의 짧은 수업 시간 동안 그마저도 담당 학생의 고민 상담, 연애 상담을 하며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아 사실상 교육봉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당 학생들은 성인이 되었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 여유가 되면 일 년에 한두 번씩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과도 친하게 지냈었는데, 봉사활동 종료 이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학생과 최근 연락이 닿아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동안 마음 쓰이는 소문만이 들리던 한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매우 낮은 모습이 되어 있었으나 나름대로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저와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오던 한 친구는 취직 선물로 저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가끔 방황의 길로 빠져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고, 이리저리 세상을 둘러보다 원래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 새로운 모습으로 불쑥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선생과 학생으로 만난 관계가 허물어지며 독립되고 온전한 하나의 삶으로써 그 친구들을 응원하는 모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과 5~6살의 나이 차 덕분에일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던 과거의 제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의미했는가를 자주 깨달으며, 저와의 관계가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벋’이라는 동아리에서 저는 실제 활동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동아리 회장직만 유지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후배들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였고, 현재 COVID-19로 인해 더욱더 봉사활동이 어려워져 안타까운 마음이 크나 언젠가 동아리 후배들이 저와 같은 좋은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멀리서나마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산악부

1기 이경섭(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산악부는 회원 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선후배 간의 우의가 다른 동아리에 비해 월등합니다. 지금까지 OB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산악회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산악부를 창립하고 갔던 소백산 등산과 1987년 설악산 등산입니다.

YB는 이미 설악산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 저와 엄대섭(2기) 선생이 오색(설악산 약수터)을 통해서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서 YB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후배 사랑하는 마음에 대구에서 양주를 사고 오색에서 삼겹살을 잔뜩 사서 등산을 시작하려는데 입산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때가 태풍 셀마가 왔던 때였습니다. 후배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엄대섭 선생과 눈으로 사인을 주고는 냅다 산을 향해 뛰었습니다. 설마 따라오겠나 싶은 생각에 그랬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등산 코스를 잃어버려 여름에 그렇게 떨 일은 앞으로 아마 없을 정도로 추위에 떨며 거의 기다시피 올라가다 보니 죽음의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이빨싸’ 돌아갈 수도 없고, 난 전공의 2년 차라 그나마 체력이 괜찮았는데 엄대섭 선생은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한 끝에 중청봉 산장에 도착해서 보니 후배들은 없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미리 와 있던 산꾼들이 따뜻한 쌀 국물 주는 것을 받아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마도 후배들이 희운각(설악산 대피소)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려갔더니 역시나 그곳에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설마 선배들이 오겠느냐고 생각한 듯합니다. 산행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는 한잔 걸쳤는지 불그스레한 얼굴로 놀라면서 우리를 맞이하였습니다. 서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산악부의 우의를 다졌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3개의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첫째로 의과대학 학생답게 충실하게 공부하자, 그다음은 멋진 연애를 해보자, 마지막으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나 하자였는데 바로 등산입니다. 산악부 출신답게 요즘도 심심치 않게 산에 다니며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산악부 활동을 통해 꽤 괜찮은 취미활동을 해보길 바라며 아름다운 산을 사랑하는 후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후배들과 하계든 동계든 같이 산행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앙상블

3기 오진석(예림가정의학과의원)

1980년대 의대 연극반의 ‘라떼’는 조명이 없어서 다른 연극회에 조명을 빌리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학교에 건의해서 행정실에서 동산캠퍼스 강당에 조명을 설치하는 데 연극반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어설프었습니다. 1984년도에는 ‘각하와 호랑나비’라는 작품을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려는데 제목에 단지 ‘각하’라는 단어가 있다고 공연을 못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용은 사회비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봄에 워크숍 공연을 하고, 가을에는 정기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 방학을 모두 연극 연습하면서 보냈으며, 연습이 잘 안되면 막걸리도 마시면서 등장인물 성격분석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학년별 역할 분담은 없었고, 연출한 학생이 다음 해에는 연기도 했었습니다. 또 공연을 학교 내에서만 하지는 않고 교내 공연이 끝나면 대구 시내 공연장을 빌려서 연극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작품에서 여러 배역을 맡았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역은 의예과 1학년 때 ‘그림자를 찾습니다.’의 ‘광대’ 역할과 의학과 2학년 때의 부조리 연극 해럴드 핀터 작 ‘풍경’에서의 ‘더프’ 역할입니다. ‘풍경’은 그 당시 지적 풍토 중의 하나인 실존주의 작품이라서 관객들이 대부분 즐겼던 작품이었습니다. 의학과 3학년 때는 ‘한씨 연대기’에서 단역인 ‘서학준’ 역을 맡았는데 이 작품이 우리 연극반의 기념비적인 작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나 지금이나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꾸준히 찾아서 무대에 올리는 데에 감흥을 느낍니다. 시대를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찾고, 동시대인의 마음을 빛내 줄 수 있는 작품을 연습해서 꾸준히 공연하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정의초

7기 손창용(부강외과의원)

학생 시절을 보낸 후 졸업생이 되고 선후배 동문이 되어 세상이라는 벽과 마주치는 개인은 자신이 걸어온 모교의 위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냈던 순간들은 개인적인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나를 규정짓는 잣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교인 계명의대라는 존재적 가치가 상승하면 할수록, 나의 위상도 제고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나의 행위도 학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서로 조율하고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주체로서의 의미도 재학생이나 졸업생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계명의대가 보낸 4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나이 먹음이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큼 살아온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학교와 동문의 발전을 견인해 온 수많은 선후배들이 있었고, 그 고마운 노력의 어깨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발전해 온 것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발전을 위한 수많은 흔적 중의 하나가 바로 계명의대 학보사 '정의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의초라는 조직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의과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아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었던 30년 전 1987년에는 대학 전체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들도 경쟁적으로 신문사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나 대학의 민주화 정보들을 공유했었습니다. 우리 계명의대 내에서도 신문사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정 단과대학, 그것도 시간을 쪼개 살아야 하는 의과대학에서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학보사의 조직을 구성하고 신문을 만들며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문을 만들고 사회과학 지식의 토대 위에 내용을 구성하며 스스로 성장을 느끼는 과정들은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공평했고, 한눈을 팔고 외도하는 의대학생을 행운의 여신이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성적 저하가 현실로 다가왔고, 선배님과 교수님들의 냉소와 개인의 장래 문제를 가지고 옥박지르던 장면들은 아직도 뇌리에서 잊히지 않을 불행한 기억입니다.

학창 시절에 정의초의 초대 기자와 편집장을 지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값지고, 스스로 가치에 만족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시련만큼 혹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후배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초는 서로서로 보듬어 준다는 믿음이 없이는 지탱하기가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형제 같은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전국의 단과대학 학보사는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보기도 힘든데, 우리 계명의대만이 싹을 틔우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튼튼한 모습으로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명의대의 분명한 자랑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의과대학을 통하여 전문가적 자질을 익히는 것은 의학도로서 당연한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문지식의 외피만 두른 의사는 전문가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양이 없거나 매사에 무지하다면 이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기 능력을 치부나 다른 목적으로 변질시켰을 때 환자 개인과 사회에 주는 엄청난 피해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목표가 불명료한 사회에서 배운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물리적 균형이 아닌 시대정신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균형점을 찾아가며 끊임없는 소통하는 열린 심성의 의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행위하고 건설하며, 일정한 형태로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생각들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정의초가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모순과 싸워나가는 사랑하는 정의초의 장한 후배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첫 눈길을 걷는 마음으로, 선명하게 각인된 나의 흔적으로 인해 누구나 알아보고 길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계명의대인 모두가 깊고 훌륭한 발자국을 후배들에게 남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렐류드

9기 신근식(유알성형외과의원)

1987년 의예과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동기인 정영민을 만났습니다. 둘 다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고 정영민은 음대 진학을 고민했을 정도로 연주실력이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의예과 예술제 때 하이든과 슈만의 세레나데를 바이올린 이중주로 연주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 당시 의학과 1학년이던 85학번 김성종 선배님(플루트와 리코더 연주)이 연락해서 만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동아리 창립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87학번 정강욱, 전세진이 합류하고 7기 정현정 선배도 동참해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종 선배님이 정형외과 손승원 교수님이 첼로를 하신 것을 알고 지도교수로 모셨습니다. 직접 동아리에 가입은 하지 않으셨지만 3기 유민규 선배, 5기 이성용 선배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동아리 이름을 정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영민, 전세진, 정강욱, 신근식 넷이서 동아리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단테, 심포니, 하모니 등 음악에 관련된 용어는 다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정강욱이 프렐류드가 어떠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고 본 곡에 들어가기 전 전주곡이라는 의미가 아마추어인 우리와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공연을 준비하던 때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같이 창립 연주회를 준비한 회원들이었다면 누구나가 꿈을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창립 연주회 때 차재영 지휘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곡들을 연주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영화 스팅의 OST인 ‘The entertainer’입니다. 빠르고 신나는 곡을 연주할 때 신이 나듯이 연습할 때도 회원 모두 신나게 연습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연습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연주회 당일 동산캠퍼스 의대 강당에서 리허설하는데 자꾸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되었다 다시 불이 들어오고 정전되었다 다시 불이 들어오고... 연주회를 준비하는 처지에서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봐도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하는 수 없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양초를 준비하고 연주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연주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고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The entertainer’를 열심히 신나게 연주하는 와중에 갑자기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아무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곡은 더 신나게 연주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연주에 맞춰 박수로 장단을 맞추며 화답했고 30여 초가 지났을 무렵 다시 불이 들어왔고 멋지게 연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연주회 뒤풀이에서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일을 회상하면 재밌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후배들에게 무용담처럼 그때 일을 들려주게 되었네요. 그때 차재영 지휘자님이 뒤풀이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회원들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깜깜한데 연주는 계속되고 혼자 지휘하다가 아무도 못 볼 것 같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지금껏 잘해 온 후배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고 짧은 날의 시간은 소중하고 보석 같습니다. 부디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악기 하나 취미로 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는 동아리 활동하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싶을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말로 전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CMF

10기 한동호(선교사)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제가 계명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고 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CMF에 가입한 후에 본격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말씀 적용한 것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통해 제 신앙은 조금씩 자라났고 앞으로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선교 대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의료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 선교의 정신이 살아 있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인턴과 내과 수련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같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WEC 국제 선교회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2년간 타 문화 훈련과 더불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예멘에서 만 7년, 요르단에서 현재 6년째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현지 정부 병원에서 NGO 사역을 하며 현지의 의사, 간호사들을 돕고 무료 진료소를 통해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과 장애인들에게 의료라는 사랑의 도구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멘 내전이 발발하였을 때 103일간 현지에서 고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많은 동역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예멘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지로 56년의 역사를 지닌 요르단의 마프락시에 있는 안누르 호흡기 결핵 병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 5일간 외래 진료하고 입원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는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지만 병원 내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CMF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MENNIS

3기 이성용(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MENNIS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40년 동안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운동 동아리로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계명의대에서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의대생들에게 전인적 측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합니다.

MENNIS는 Medical Tennis의 줄임말로 의대생에게 부족하기 쉬운 체력을 채워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며 빡빡한 학업 일정으로 소통이나 교제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땀 흘리며 심신을 단련하여 의대생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운동과 달리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이므로 의대생과 의사 세계에서 다양하게 부합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트에서 짬을 내어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어서 학업으로 인해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의대생에게 유익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명 의대의 동아리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동아리 중 하나로 규모로나 분위기로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테니스를 통해 선후배와 동기들 간에 친분과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멘니서(Menniser)들은 매년 전국 규모와 지역 규모 대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계명 의대를 대표하여 타고 의대생들과 시합하고 학교를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전국 1, 2위를 여러 차례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기성세대가 된 후에도 각종 의사 테니스 대회에서 타고 출신을 다시 만나게 되고 친목을 다지게 됨은 MENNIS 구성원이 가지는 특권(?)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매우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졸업 후에도 OB 들이 테니스 모임을 지속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재학생들과도 운동을 통해 소통하는 등 소중한 동아리라 자부합니다. 졸업 후 학교를 떠난 뒤에도 MENNIS라는 인연으로 서로 친분의 정을 쌓아갈 때는 MENNIS 일원으로 더욱 자부심을 느낍니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40년 역사의 MENNIS를 돌이켜보면 동아리 출신이자 지도교수로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억거리는 많으나 그중에서도 기억나는 것은 의예과 시절에 학교시설이 미비한 가운데(1983년도 캠퍼스에는 백은관 건물만 있었음), 현재 성서캠퍼스의 동영관 내지 소운동장 위치쯤에 클레이 코트 5면이 있었습니다. 이 코트에서 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선배와 동기들이 모여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덕분에 얼굴이 하얗게 될 날이 없었습니다. 코트가 5면이다 보니 코트 관리하시는 아저씨께서 힘들어하셨는데 코트 관리할 때 MENNIS 구성원들이 자주 도와드리고 근처 구멍가게에서 노가리를 구워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던 것도 자그마한 추억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의학과 시절 동산캠퍼스(동산병원) 안에 있는 사택 지역에 하드 코트가 한 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차장으로 쓰다가 지금은 더 이상 코트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메니서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고하신 Dr. Howard Moffett께서 테니스 코트 바로 앞 사택에서 거주하셨는데 그분의 취미가 테니스였습니다. 그래서 MENNIS 구성원들이 테니스를 통해 선생님과 자주 접할 기회를 얻었는데 Moffett 선생님의 삶의 철학과 동산병원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 지역의료에 대한 동산병원의 역할과 책무에 관해서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메니서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산캠퍼스의 옛 코트를 지나 바로 앞에 있는 Moffett 선생님 부부의 묘비를 접할 때마다, 같이 운동하고 말씀 나누던 시간이 진한 그리움으로 물려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동산캠퍼스의 사택 테니스장을 복원하여 Moffett 선생님을 추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MENNIS의 매력이라면 의대생으로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겸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부에 찌들어 여유가 부족한 마음이나 약해진 몸을 잘 추스를 수 있는 수단이 테니스라고 여겨지며 다른 운동과 달리 학생으로서 접근성이 좋으며 틈을 내어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상으로는 학업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운동도 꾸준히 해서 테니스 고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와 함께 열심히 운동하길 바라며 의사로서 기성세대가 된 후라도 성숙한 인품을 지닌 의료인으로서 지속해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ENNIS 구성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MESS

33기 진효준(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재활의학과)

저는 2011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10년간 MESS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 MESS OB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MESS는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인 농구 동아리입니다. 팀 스포츠이다 보니 COVID-19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 팀 연습을 하고 방학 때마다 농구 대회에 참가하고 전지훈련도 다녔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대회에서는 우승과 준우승을 많이 했고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지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OB 팀으로 같이 활동하며 전국 농구대회에 참가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지역사회 농구팀과 연습경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한 지가 5년째이지만 아직도 학생 때 전국대회 4강에서 상대 팀의 말도 안 되는 3점 성공률 때문에 아쉽게 떨어졌던 기억이나 의학과 4학년 마지막 대회 때 햄스트링을 다쳐서 경기를 못 뛰어서 아쉬웠던 기억 등등,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히 남아 있을 정도로 MESS는 즐거웠던 학창 시절 추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 동아리의 자랑이지만 또 하나의 팀으로서의 MESS도 큰 자랑입니다. 다른 동아리들에 비해 연습량도 많고 방학 때도 꾸준히 대회를 나가다 보니 각자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팀으로 같이 버텨가며 6년간 지내다 보니 단순한 선후배 보다는 정말 친한 형, 동생이 되어있는 MESS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전공의 4년 차에게 마치 친한 형에게 하듯 농담하는 학생 후배들은 우리 동아리가 아니고서는 보기 힘든 장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무엇을 하던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사교활동이건 열심히 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크게 생각 안 나고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MESS 선배로서 MESS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남는 게 있냐고 묻는다면 ‘농구든 사람이든 남는 게 있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ESS 활동뿐만 아니라 의대생으로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실력 있는 의사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ESS 파이팅!!”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7

국제교류

338 교원 국외연수

340 국외연수 교원 명단

348 학생 국제교류 활동

교원 국외연수

우리 대학은 교원들에게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최신지견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 및 의료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원 국외연수 현황

학년도	기간별 연수 교원 수				계
	1년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981			2		2
1982	2	1			3
1983	1	2			3
1984		2	2	1	5
1985		2	3		5
1986	1	3	3		7
1987	2	4	3	2	11
1988	4	2	1	1	8
1989	7	1	3	2	13
1990	10				10
1991	8				8
1992	11	1			12
1993	5		1	1	7
1994	6				6
1995	3		1		4
1996	8			1	9
1997	5				5
1998	3	1			4
1999	6				6
2000	6				6
2001	5				5
2002	5			2	7

학년도	기간별 연수 교원 수				계
	1년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003	1	1			2
2004	5	1			6
2005	5				5
2006	6	1			7
2007	7				7
2008	9				9
2009	10	1			11
2010	9	2	1		12
2011	3	1			4
2012	5		1		6
2013	6			2	8
2014	5	1	1		7
2015	5	1	1		7
2016	7				7
2017	4				4
2018	4				4
2019	5	1			6
2020	2	1			3
2021	1				1

○ 국외연수 교원 명단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1981	마취통증의학	정정길	미국	1981. 6. 1.	Univertsity of Chicago
	정형외과학	편영식	미국	1981. 3. 1. ~ 1981. 6. 30.	Mount Sinai Hospital
1982	산부인과학	이두룡	미국	1982. 2. 1. ~ 1982. 10. 3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외과학	안우섭	일본	1982. 6. 1. ~ 1983. 5. 31.	Tohoku University
	성형외과학	하지운	미국	1982. 6. 1. ~ 1983. 5. 31.	New York University
1983	외과학	박성대	미국	1983. 1. 1. ~ 1983. 6. 30.	Mount Sinai Hospital
	외과학	박우현	미국	1983. 3. 1. ~ 1984. 2. 28.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내과학	김현철	미국	1983. 9. 1. ~ 1984. 2. 28.	Cornell University
1984	소아청소년과학	권영대	미국	1984. 3. 1. ~ 1984. 8. 31.	University of Wisconsin
	치과학	이용오	미국	1984. 6. 1. ~ 1984. 8. 31.	University of Minnesota
	흉부외과학	이광숙	미국	1984. 10. 1. ~ 1985. 8. 31.	Mayo Clinic
	산부인과학	윤성도	미국	1984. 12. 1. ~ 1985. 2. 28.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병리학	장은숙	일본	1984. 12. 7. ~ 1985. 2. 7.	동방대학교
1985	외과학	임태진	일본	1985. 4. 1. ~ 1985. 7. 31.	Juntendo University
	외과학	조원현	일본	1985. 5. 1. ~ 1985. 8. 31.	University of Tokyo
	해부학	최인장	일본	1985. 10. 1. ~ 1986. 3. 31.	University of Hyogo
	산부인과학	이두룡	미국	1985. 10. 1. ~ 1986. 3. 31.	Mount Sinai Hospital
	이비인후과학	김중강	미국	1985. 10. 20. ~ 1986. 2. 29.	University of Iowa
1986	신경외과학	임만빈	캐나다	1986. 4. 17. ~ 1987. 3. 5.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소아청소년과학	권태찬	미국	1986. 6. 7. ~ 1986. 12. 11.	Harvard University
	비뇨의학	김광세	미국	1986. 6. 10. ~ 1987. 5. 30.	Duke University
	해부학	장성익	독일	1986. 7. 1. ~ 1986. 9. 30.	University of Heidelberg
	외과학	김유사	미국	1986. 8. 1. ~ 1986. 10. 31.	Children Hospital of Los Angeles
	산부인과학	김택훈	미국	1986. 10. 1. ~ 1986. 12. 31.	Rush University
	외과학	손수상	미국	1986. 12. 1. ~ 1988. 6. 30.	Emory University
1987	방사선종양학	김옥배	미국	1987. 3. 11. ~ 1987. 6. 4.	University of Chicago
	성형외과학	강진성	독일/스웨덴	1987. 3. 24. ~ 1987. 8. 31.	Homburg School of Medicine Uppsala University
	신경과학	서정규	미국	1987. 4. 1. ~ 1988. 3. 31.	University of Iowa
	산부인과학	이태성	미국	1987. 5. 1. ~ 1987. 10. 31.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마취통증의학	전재규	일본	1987. 5. 15. ~ 1987. 8. 16.	Nagoya University
	흉부외과학	이광숙	일본	1987. 7. 1. ~ 1987. 12. 31.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1987	외과학	최순옥	미국	1987. 10. 15. ~ 1988. 10. 13.	University of Michigan
	정신건강의학	박종한	미국	1988. 1. 12. ~ 1988. 7. 26.	University of Michigan
	외과학	배옥석	일본	1988. 1. 28. ~ 1988. 4. 22.	Tokyo Metropolitan Komagome Hospital
	정형외과학	편영식	미국	1988. 1. 12. ~ 1988. 7. 26.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핵의학	전석길	미국	1988. 2. 15. ~ 1988. 6. 29.	Cleveland Clinic, Ohio
1988	신경외과학	이정교	미국	1988. 3. 1. ~ 1989. 2. 28.	Harvard University
	산부인과학	윤성도	미국	1988. 3. 28. ~ 1988. 6. 14.	Saint Louis University
	피부과학	이규석	미국	1988. 5. 1. ~ 1989. 4. 29.	Thomas Jefferson University
	마취통증의학	정정길	덴마크	1988. 5. 25. ~ 1988. 10. 8.	덴마크의과대학
	내과학	김현철	미국	1988. 6. 1. ~ 1989. 5. 30.	Cornell University
	외과학	조원현	미국	1988. 7. 1. ~ 1988. 12. 31.	Pittsburg State University
	내과학	송홍석	미국	1988. 9. 1. ~ 1989. 2. 28.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정신건강의학	하재창	미국	1988. 12. 1. ~ 1989. 11. 30.	University of Georgia
1989	소아청소년과학	김흥식	미국	1989. 3. 1. ~ 1990. 2. 28.	Emory University
	내과학	윤덕구	미국	1989. 4. 20. ~ 1990. 4. 19.	University of Kentucky
	내과학	김권배	미국	1989. 5. 1. ~ 1990. 4. 30.	Northwestern University
	신경외과학	김동원	캐나다	1989. 8. 1. ~ 1990. 7. 30.	Hospital for Sick Children
	산부인과학	이탁	미국	1989. 8. 7. ~ 1989. 11. 6.	Emory University
	외과학	김인호	미국	1989. 9. 1. ~ 1990. 2. 28.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외과학	박우현	오스트레일리아	1989. 9. 1. ~ 1990. 8. 31.	Melbourne Royal Children Hospital
	산부인과학	윤성도	오스트레일리아	1989. 9. 1. ~ 1989. 10. 31.	New South Wales University
	마취통증의학	김진모	미국	1989. 10. 4. ~ 1990. 2. 28.	University of Illinois
	외과학	임태진	미국	1989. 11. 1. ~ 1990. 10.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생화학	김여희	일본	1989. 11. 15. ~ 1990. 2. 14.	Nagasaki University
	생리학	채의업	미국	1989. 12. 15. ~ 1990. 2. 15.	New York University
	이비인후과학	김종훈	미국	1990. 1. 1. ~ 1990. 12. 31.	Harvard University
	산부인과학	차순도	미국	1990. 3. 1. ~ 1991. 2. 28.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성형외과학	한기환	미국	1990. 6. 1. ~ 1991. 5. 30.	Harvard University
1990	내과학	김윤년	미국	1990. 7. 1. ~ 1991. 6. 30.	Michigan University
	안과학	김상진	미국	1990. 7. 1. ~ 1991. 6. 30.	Pittsburg Children Hospital
	병리학	이상숙	미국	1990. 8. 1. ~ 1991. 7. 31.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내과학	강영우	미국	1990. 10. 1. ~ 1991. 9. 30.	Mayo Clinic
	소아청소년과학	백태원	미국	1990. 11. 1. ~ 1991. 10. 30.	New York University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1990	해부학	이인환	미국	1990. 12. 1. ~ 1991. 11. 30.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흉부외과학	박창권	미국	1991. 1. 1. ~ 1991. 12. 31.	University of Washington
	마취통증의학	김애라	미국	1991. 2. 1. ~ 1992. 1. 31.	University of Pittsburgh
1991	산부인과학	김택훈	미국	1991. 3. 1. ~ 1992. 2. 28.	University of Iowa
	신경과학	이상도	미국	1991. 5. 1. ~ 1992. 4. 30.	University of Wisconsin
	외과학	배옥석	영국	1991. 7. 1. ~ 1992. 6. 30.	University of Glasgow
	신경외과학	손은익	미국	1991. 7. 1. ~ 1992. 6. 30.	University of Washington
	안과학	김광수	미국	1991. 7. 1. ~ 1992. 6. 30.	Emory University
	피부과학	박익수	캐나다	1991. 7. 1. ~ 1992. 6. 30.	University of Toronto
	내과학	전영준	미국	1991. 10. 1. ~ 1992. 9. 30.	Emory University
	영상의학	주양구	일본	1992. 1. 1. ~ 1992. 12. 31.	Kumamoto University
	산부인과학	이태성	미국	1992. 3. 1. ~ 1993. 2. 28.	National Cancer Institute
1992	비뇨의학	김천일	미국	1992. 4. 1. ~ 1993. 3. 31.	University of Washington
	마취통증의학	최규택	미국	1992. 5. 1. ~ 1993. 4. 3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약리학	김수경	미국	1992. 6. 1. ~ 1993. 5. 31.	University of Minnesota
	내과학	박성배	일본	1992. 6. 15. ~ 1992. 12. 15.	University of Tokyo
	안과학	김기산	미국	1992. 7. 1. ~ 1993. 6. 30.	Emory University
	병리학	권건영	미국	1992. 8. 1. ~ 1993. 7. 31.	Mayo Clinic
	영상의학	우성구	미국	1992. 8. 1. ~ 1993. 7. 31.	Thomas Jefferson University
	정신건강의학	정철호	미국	1992. 9. 1. ~ 1993. 8. 31.	Columbia University
	정형외과학	송광순	미국	1992. 9. 1. ~ 1993. 8. 31.	Shriners Children's
	흉부외과학	최세영	미국	1992. 9. 1. ~ 1993. 8. 31.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내과학	권기영	미국	1992. 10. 1 ~ 1993. 9. 30.	Stanford University
	성형외과학	송중원	미국	1993. 3. 1. ~ 1994. 2. 28.	University of Alabama
1993	내과학	김기식	미국	1993. 5. 1. ~ 1994. 4. 30.	University of Alabama
	피부과학	이규석	미국	1993. 5. 1. ~ 1993. 8. 31.	Thomas Jefferson University
	진단검사의학	김재룡	미국	1993. 6. 1. ~ 1994. 5. 31.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정형외과학	강철형	미국	1993. 9. 1. ~ 1994. 8. 31.	Medical Center New Jersey
	외과학	임태진	오스트레일리아	1993. 9. 1. ~ 1993. 10. 31.	New South Wales University
	방사선종양학	김옥배	미국	1994. 2. 1. ~ 1995. 1. 31.	Henry Ford Hospital
	병리학	박관규	미국	1994. 4. 1. ~ 1995. 3. 31.	University of Virginia
1994	비뇨의학	박철희	미국	1994. 4. 1. ~ 1995. 3. 31.	University of Washington
	영상의학	김정식	미국	1994. 7. 1. ~ 1995. 6. 30.	University of Texas
	소아청소년과학	김준식	미국	1994. 9. 1. ~ 1995. 8. 31.	University of Georgia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1994	진단검사의학	전동석	미국	1994. 9. 1. ~ 1995. 8. 31.	Thomas Jefferson University
	내과학	이인규	미국	1995. 2. 1. ~ 1996. 1. 31.	Harvard University
1995	미생물학	서민호	미국	1995. 3. 1. ~ 1996. 2. 28.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산부인과학	김종인	미국	1995. 3. 1. ~ 1996. 2. 28.	Baylor University
	정형외과학	손승원	미국	1995. 3. 15. ~ 1995. 6. 30.	Brigham & Women's Hospital
	마취통증의학	이정구	일본	1995. 9. 1. ~ 1996. 8. 31.	Nagasaki University
1996	신경과학	이상도	뉴질랜드	1996. 6. 15. ~ 1997. 6. 14.	University of Otago
	신경외과학	손은익	미국	1996. 7. 1. ~ 1996. 8. 31.	University of Washington
	생화학	문교철	미국	1996. 7. 1. ~ 1997. 6. 30.	University of Tennessee
	면역학	박종욱	미국	1996. 9. 1. ~ 1997. 8. 31.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신경외과학	이장철	미국	1996. 10. 1. ~ 1997. 9. 30.	University of Washington
	안과학	김광수	미국	1996. 11. 1. ~ 1997. 10. 31.	University of Washington
	정형외과학	민병우	미국	1996. 12. 16. ~ 1997. 12. 1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영상의학	이희정	미국	1996. 12. 16. ~ 1997. 12. 1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의학교육학	박원균	미국	1997. 2. 1. ~ 1998. 1. 31.	Colorado State University
1997	정신건강의학	김정범	캐나다	1997. 3. 1 ~ 1998. 2. 28.	University of Toronto
	미생물학	서성일	미국	1997. 9. 1. ~ 1998. 8.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소아청소년과학	이상락	미국	1997. 9. 1. ~ 1998. 8. 31.	University of Chicago
	신경과학	임정근	캐나다	1997. 9. 1. ~ 1998. 8. 31.	Vancouver Hospital
	진단검사의학	전효진	미국	1998. 2. 1. ~ 1999. 1. 31.	University of Pittsburgh
1998	생리학	배재훈	캐나다	1998. 3. 1. ~ 1999. 2. 28.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예방의학	이충원	미국	1998. 3. 16. ~ 1999. 3. 15.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가정의학	김대현	일본	1998. 6. 1. ~ 1998. 11. 30.	Okayama University
	병리학	김상표	미국	1998. 8. 1. ~ 1999. 7. 31.	Duke University
1999	성형외과학	최동원	미국	1999. 3. 1. ~ 2000. 2. 28.	University of Washington
	이비인후과학	김덕준	미국	1999. 5. 1. ~ 2000. 4. 30.	University of Minnesota
	외과학	강구정	미국	1999. 7. 1. ~ 2000. 6. 30.	Duke University
	생리학	송대규	영국	1999. 9. 1. ~ 2001. 8. 31.	University of Oxford
	영상의학	이성문	미국	1999. 10. 6. ~ 2000. 10. 5.	Henry Ford Hospital
	산부인과학	조치흠	미국	2000. 2. 1. ~ 2001. 1. 31.	Emory University
2000	생화학	문교철	미국	2000. 7. 1. ~ 2001. 6. 3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병리학	이상숙	미국	2000. 9. 1. ~ 2001. 8. 31.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내과학	한승범	미국	2000. 12. 14. ~ 2001. 12. 13.	University of Colorado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2000	피부과학	김병천	미국	2001. 1. 1. ~ 2001. 12. 31.	New York University
	내과학	황재석	미국	2001. 1. 1. ~ 2001. 12. 31.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예방의학	신동훈	미국	2001. 2. 10. ~ 2003. 2. 9.	Cornell University
2001	외과학	김형태	미국	2001. 7. 1. ~ 2002. 6. 30.	University of Wisconsin
	안과학	이세엽	미국	2001. 7. 1. ~ 2002. 6. 30.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방사선종양학	김진희	미국	2001. 7. 1. ~ 2002. 6. 30.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정신건강의학	김희철	미국	2001. 8. 1. ~ 2002. 7. 31.	New York University
	치과학	박효상	미국	2001. 11. 9. ~ 2002. 11. 8.	Oklahoma State University
2002	약리학	이성용	미국	2002. 6. 1. ~ 2004. 5. 31.	Harvard Medical School
	성형외과학	손대구	미국	2002. 8. 5. ~ 2003. 8. 4.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외과학	배옥석	이탈리아	2002. 9. 9. ~ 2002. 10. 30.	IVREA Colorectal Center
	신경외과학	손은익	미국	2002. 10. 1. ~ 2002. 12. 14.	Henry Ford Hospital
	의학유전학	김대광	미국	2002. 11. 1. ~ 2004. 6. 15.	Emory University
	영상의학	손철호	캐나다	2003. 1. 1. ~ 2003. 12. 31.	University of Calgary
2003	가정의학	서영성	미국	2003. 1. 20. ~ 2004. 1. 19.	Louisiana State University
	미생물학	백원기	미국	2003. 3. 1. ~ 2005. 2. 28.	Harvard Medical School
	외과학	조원현	미국	2003. 9. 1. ~ 2004. 2. 28.	Duke University
2004	예방의학	이충원	미국	2004. 5. 28. ~ 2005. 5. 27.	University of Iowa
	병리학	권건영	미국	2004. 8. 1. ~ 2005. 7. 31.	Baylor University
	신경외과학	이창영	미국	2004. 8. 1. ~ 2005. 7. 31.	Baylor University
	신경과학	조용원	미국	2004. 8. 16. ~ 2005. 8. 15.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내과학	김권배	미국	2004. 8. 11. ~ 2005. 2. 10.	Stanford University
	내과학	허승호	미국	2005. 2. 1. ~ 2006. 7. 31.	Stanford University
2005	내과학	조광범	미국	2005. 3. 1. ~ 2006. 2. 28.	Indiana University
	신경외과학	김엘	미국	2005. 7. 4. ~ 2006. 7. 3.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마취통증의학	장영호	미국	2005. 8. 22. ~ 2006. 12. 2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예방의학	이미영	미국	2006. 2. 6. ~ 2008. 2. 5.	Yale University
	핵의학	원경숙	미국	2006. 2. 25. ~ 2007. 2. 24.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2006	흉부외과학	금동윤	미국	2006. 3. 1. ~ 2007. 2. 28.	Harvard University
	내과학	박경식	미국	2006. 8. 1. ~ 2008. 1. 31.	University of Nevada
	재활의학	박기영	미국	2006. 8. 28. ~ 2007. 8. 27.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산부인과학	권상훈	미국	2006. 9. 1. ~ 2007. 8. 31.	Georgetown University
	성형외과학	한기환	대만	2006. 9. 1. ~ 2007. 2. 28.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병리학	김상표	미국	2007. 2. 20. ~ 2008. 2. 19.	University of Virginia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2006	소아청소년과학	김천수	미국	2007. 2. 26. ~ 2008. 2. 25.	University of Virginia
2007	영상의학	최진수	미국	2007. 3. 1. ~ 2008. 2. 28.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신경과학	이형	캐나다	2007. 5. 1. ~ 2008. 4. 3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외과학	김용훈	미국	2007. 6. 14. ~ 2008. 6. 1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내과학	한성욱	미국	2007. 6. 25. ~ 2008. 12. 24.	Indiana University
	흉부외과학	박남희	미국	2007. 7. 25. ~ 2008. 7. 24.	Forum Health
	내과학	한승엽	미국	2007. 8. 20. ~ 2009. 2. 19.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미생물학	서성일	미국	2008. 2. 25. ~ 2009. 2. 24.	University of Maryland
2008	예방의학	이중정	미국	2008. 3. 1. ~ 2009. 2. 2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내과학	정우진	미국	2008. 3. 1. ~ 2009. 8. 31.	Harvard University
	내과학	최원일	미국	2008. 3. 17. ~ 2009. 9. 16.	Harvard University
	치과학	김종배	미국	2008. 7. 1. ~ 2009. 6. 30.	University of Michigan
	영상의학	김영환	미국	2008. 7. 1. ~ 2009. 6. 30.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이비인후과학	안병훈	미국	2008. 8. 1. ~ 2009. 7. 3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내과학	도영록	미국	2008. 9. 1. ~ 2009. 8. 31.	Duke University
	진단검사의학	하정숙	미국	2008. 9. 1. ~ 2010. 2. 28.	Brigham & Women's Hospital
	병리학	권선영	미국	2009. 2. 12. ~ 2010. 2. 11.	Georgetown University
	외과학	강구정	미국	2009. 3. 23. ~ 2009. 9. 22.	Mayo Clinic
2009	내과학	장병국	미국	2009. 8. 1. ~ 2011. 1. 31.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직업환경의학	정인성	미국	2009. 8. 17. ~ 2011. 1.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내과학	남창욱	미국	2009. 8. 17. ~ 2011. 1. 31.	Stanford University
	산부인과학	박준철	미국	2009. 8. 24. ~ 2010. 8. 23.	Rosalind Franklin University
	안과학	장성동	미국	2009. 8. 24. ~ 2010. 8. 23.	Johns Hopkins University Medical Institutions
	외과학	류승완	미국	2009. 9. 1. ~ 2010. 8. 3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소아청소년과학	김준식	독일	2009. 9. 1. ~ 2010. 8. 31.	Kinderzentrum München
	신경과학	손성일	캐나다	2009. 9. 1. ~ 2010. 8. 31.	University of Calgary
	성형외과학	김준형	미국	2010. 1. 12. ~ 2011. 1. 11.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재활의학	이소영	미국	2010. 1. 12. ~ 2011. 1. 11.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2010	내과학	황은아	벨기에	2010. 3. 1. ~ 2010. 8. 31.	Ghent University
	외과학	강선희	미국	2010. 3. 1. ~ 2011. 2. 28.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이비인후과학	남성일	미국	2010. 3. 1. ~ 2011. 2. 28.	Harvard University
	내과학	박근규	미국	2010. 8. 1. ~ 2011. 7.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정형외과학	배기철	미국	2010. 8. 1. ~ 2011. 7. 31.	Florida Orthopaedic Institute
	영상의학	김미정	미국	2010. 8. 1. ~ 2011. 7. 3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2010	병리학	강유나	미국	2010. 9. 1. ~ 2011. 8. 31.	Mayo Clinic
	마취통증의학	이용철	미국	2010. 9. 1. ~ 2011. 8.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진단검사의학	류남희	미국	2010. 9. 1. ~ 2012. 2. 28.	Wake Forest University
	치과학	남기영	미국	2010. 9. 1. ~ 2011. 8. 31.	University of Minnesota
	안과학	김광수	미국	2010. 10. 1. ~ 2011. 3. 31.	University of Louisville
	외과학	김형태	미국	2011. 1. 1. ~ 2011. 3. 31.	University of Minnesota
2011	내과학	황재석	미국	2011. 3. 1. ~ 2012. 2. 28.	Georgetown University
	정신건강의학	정성원	미국	2011. 8. 1. ~ 2012. 7. 31.	Duke University
	마취통증의학	홍지희	미국	2011. 8. 1. ~ 2012. 7. 31.	Duke University
	이비인후과학	여창기	미국	2012. 1. 1. ~ 2012. 6. 30.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2012	소아청소년과학	황진복	일본	2012. 4. 1. ~ 2012. 6. 30.	Juntend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내과학	류성열	미국	2012. 8. 1. ~ 2013. 7. 31.	Mayo Clinic
	내과학	김혜순	미국	2012. 9. 1. ~ 2013. 8. 3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외과학	백성규	미국	2012. 9. 1. ~ 2013. 8. 3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외과학	조지형	미국	2012. 9. 1. ~ 2013. 8.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정형외과학	조철현	미국	2012. 9. 1. ~ 2013. 8. 31.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2013	내과학	조윤경	네덜란드	2013. 4. 1. ~ 2014. 3. 31.	Erasmus MC
	신경외과학	손은익	일본	2013. 4. 1. ~ 2013. 5. 31.	National Nagasaki Medical Center
	영상의학	장혁원	미국	2013. 8. 1. ~ 2014. 7. 31.	Duke University
	산부인과학	배진곤	미국	2013. 8. 1. ~ 2014. 7. 31.	University Kansas Medical Center
	신경과학	이현아	네덜란드	2013. 9. 1. ~ 2014. 8. 31.	VUMC Alzheimer Center
	내과학	정치영	미국	2013. 9. 1. ~ 2014. 8. 31.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정형외과학	이경재	미국	2013. 9. 1. ~ 2014. 8. 31.	Stanford University
	소아청소년과학	김지윤	미국	2013. 9. 1. ~ 2013. 10. 31.	NYU Langone Medical Center
2014	내과학	김진영	미국	2014. 3. 1. ~ 2015. 8. 31.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내과학	김형섭	미국	2014. 4. 1. ~ 2015. 3. 31.	Duke University
	약리학	김수경	미국	2014. 5. 1. ~ 2014. 7. 31.	University of Minnesota
	안과학	김유철	미국	2014. 8. 1. ~ 2015. 7. 31.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영상의학	노병학	미국	2014. 8. 1. ~ 2015. 7. 31.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산부인과학	조치흠	미국	2014. 9. 1. ~ 2015. 2. 28.	Stanford University
	마취통증의학	김세영	캐나다	2014. 9. 1. ~ 2015. 8. 31.	University of Toronto
2015	정신건강의학	김정범	미국	2015. 6. 1. ~ 2015. 11. 30.	Rhode Island Hospital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산부인과학	신소진	미국	2015. 7. 1. ~ 2016. 6. 30.	Stanford University

학년도	소속교실	성명	연수국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2015	외과학	박익준	미국	2015. 9. 1. ~ 2016. 8. 31.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외과학	정운경	미국	2015. 9. 1. ~ 2016. 8. 31.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내과학	김윤년	미국	2015. 9. 15. ~ 2015. 12. 15.	Virginia Tech
	병리학	정혜라	미국	2015. 10. 8. ~ 2016. 10. 7.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비뇨의학	김병훈	미국	2015. 10. 8. ~ 2016. 10. 7.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2016	신경과학	김현아	미국	2016. 3. 1. ~ 2017. 6. 30.	Mayo Clinic
	외과학	안근수	미국	2016. 3. 1. ~ 2017. 2. 28.	Mayo Clinic
	이비인후과학	김동은	미국	2016. 3. 1. ~ 2017. 2. 28.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핵의학	송봉일	미국	2016. 9. 1. ~ 2017. 8. 31.	University of Pittsburgh
	내과학	김상현	미국	2016. 9. 1. ~ 2017. 8.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내과학	김미경	미국	2016. 9. 1. ~ 2017. 8. 31.	Sanford Burnham Prebys Medical Discovery Institute
	정형외과학	손은석	미국	2016. 9. 15. ~ 2017. 9. 14.	Emory University
2017	예방의학	김재영	일본	2017. 3. 1. ~ 2019. 2. 28.	Radiation Effect Research Foundation
	면역학	김신	미국	2017. 5. 8. ~ 2019. 2. 28.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비뇨의학	하지용	미국	2017. 8. 1. ~ 2018. 7. 31.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신경과학	홍정호	미국	2017. 9. 1. ~ 2019. 1. 31.	McGovern Medical School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Houston
2018	생리학	임승순	미국	2018. 8. 1. ~ 2019. 7. 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내과학	김지민	미국	2018. 8. 21. ~ 2019. 8. 2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병리학	황일선	미국	2018. 9. 1. ~ 2019. 8. 31.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분자의학	장병철	미국	2018. 9. 1. ~ 2019. 8. 31.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9	병리학	최미선	일본	2019. 9. 9. ~ 2020. 7. 10.	Show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내과학	윤혁준	미국	2019. 8. 1. ~ 2020. 12. 3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외과학	김태석	미국	2019. 8. 12. ~ 2020. 8. 11.	Cleveland Clinic, Ohio
	성형외과학	최재훈	미국	2019. 8. 1. ~ 2020. 7. 31.	University of Chicago
	치과학	조주연	미국	2019. 8. 21. ~ 2021. 2. 20.	The Ohio State University
	응급의학	진상찬	미국	2019. 9. 1. ~ 2020. 8. 31.	The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2020	생리학	박재형	미국	2020. 3. 1. ~ 2020. 9. 2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약리학	장정희	미국	2020. 3. 1. ~ 2021. 6. 30.	University of Washington
	내과학	손창남	뉴질랜드	2020. 3. 1. ~ 2021. 2. 28.	University of Auckland
2021	외과학	정은영	캐나다	2021. 8. 16. ~ 2022. 8. 15.	University of Toronto

○ 학생 국제교류 활동

우리 대학은 국제교류를 위해 입학 및 대외협력실을 두고 있으며,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는 본부 국제처, 의료원 대외협력처, 의과대학 입학 및 대외협력실이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학생 교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상실습과 관련된 외국 대학의 교류는 입학 및 대외협력실장과 의학과장이 담당하고 행정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상실습 교류는 의학과 4학년 1학기 선택실습 기간 중에 주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 12월 18일 계명대학교와 일본 후쿠오카대학교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외국과의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일본 후쿠오카 의과대학과 임상실습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여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 심포지움을 우리 대학 및 후쿠오카 의과대학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또한 선택실습 기간에 학생들이 국외의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실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선택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세계의대생 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의 분과 중 하나인 교환학생 위원회(SCOPE: 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Exchange)에 가입하여 매년 임상실습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 호혜 원칙에 의거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실습 교육을 받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도 외국 의과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 2021학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COVID-19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계명대의대-후쿠오카의대 임상실습 교류 현황

구분	학년도	기간	참석교직원	참석학생
계명대의과대학	2006	2006. 1. 22. ~ 2. 4.(2주)	서성일, 임태진, 정우진 송성광, 이진욱	박진욱, 박원재, 이동철, 이현호, 이호영 임재찬, 윤상호, 유정영, 채은혜
	2007	2007. 1. 14. ~ 1. 27.(2주)	서성일, 조치흠, 송대규 임정근, 최삼희	곽재훈, 손성민, 안영준, 정창규 조민철
	2008	2008. 6. 15. ~ 6. 28.(2주)	김현철, 배재훈, 황진복 김희철, 김진희, 조희락	김동혁, 김동욱, 김리브가, 김한별, 서영훈 이종훈, 정지현, 최형근, 하소영
	2009	신종플루로 프로그램 미시행		
	2010	2010. 6. 13. ~ 6. 26.(2주)	금동윤, 이종정, 백원기 김대광, 이상숙, 이미영	김민재, 민경근, 박소현, 손민기, 이유현 이혁호, 이혜영, 최영민, 최희경
	2011	2011. 6. 12. ~ 6. 25.(2주)	김대광, 정우진, 금동윤 하정숙	김성철, 김경보, 김수현, 김정규, 민영기 박명순, 박지현, 예희욱, 이동윤, 주현수
	2012	2012. 6. 24. ~ 7. 7.(2주)	허승호, 김진영, 박경식 김병훈	고범준, 구태원, 김재현, 김현아, 박영주 연창진, 양기욱, 이성민, 이창민, 한정엽
	2013	2013. 6. 23. ~ 7. 6.(2주)	김상현, 김준형, 김상표 정성원	구경림, 김병관, 김세진, 박준희, 신혜림 어필선, 이재민, 장세현, 정무희, 최은주
	2014	2014. 6. 22. ~ 7. 5.(2주)	정성원, 황진복, 김상현 김병훈	김정석, 김지룡, 박석재, 박재형, 오승은 이유진, 이홍원, 정진웅, 허원석
	2015	2015. 5. 16. ~ 5. 17.	교류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2015	2015. 6. 14. ~ 6. 27.(2주)	김준형, 이소영, 김상현 김신, 정태강	권혁준, 김나을, 김동석, 김소현, 김종성 김지영, 문호빈, 박정황, 신소정, 황은택
	2016	2016. 6. 20. ~ 7. 2.(2주)	백원기, 황일선, 정성원 장정희	김동희, 김수철, 김윤상, 김정준, 박경식 박효진, 윤나리, 이다경, 임정택, 장기봉 문광호(대학원생)
	2017	2017. 6. 18. ~ 7. 1.(2주)	이세엽, 정성원, 류승완 박남희, 박재현	강재철, 권혜수, 김동훈, 김영훈, 박성은 우승빈, 유석찬, 이상훈, 이주현, 이현화
	2018	2018. 6. 24. ~ 7. 7.(2주)	김재범, 민병우, 이재호 백원기	김인기, 박강희, 박종문, 송준민, 우내환 이상찬, 이서현, 이정민, 최영해, 최지원
	2019	2019. 6. 16. ~ 6. 28.	정성원, 김진영, 이재호 서성일, 장영욱	김민지, 김재호, 김지현, 박현빈, 박소현 서민지, 오정은, 임현규, 전준현, 허세녕 권혁준(대학원생)
	2020	COVID-19로 프로그램 미시행		
	2021	COVID-19로 프로그램 미시행		

구분	학년도	기간	참석교직원	참석학생
후쿠오카대학교 의과대학	2006	2006. 5. 7. ~ 5. 13.(1주)	5명	10명
	2007	2007. 5. 6. ~ 5. 12.(1주)	4명	5명
	2008	2008. 5. 11. ~ 5. 17.(1주)	4명	10명
	2009	신종플루로 프로그램 미시행		
	2010	2010. 5. 9. ~ 5. 22.(2주)	4명	10명
	2011	2011. 5. 8. ~ 5. 21.(2주)	4명	8명
	2012	2012. 5. 6. ~ 5. 19.(2주)	4명	10명
	2013	2013. 5. 12. ~ 5. 25.(2주)	4명	10명
	2014	2014. 5. 11. ~ 5. 24.(2주)	4명	7명
	2015	2015. 5. 10. ~ 5. 23. (2주)	4명	8명
		2015. 6. 20. ~ 6. 21.	교류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2016	2016. 5. 9. ~ 5. 21.(2주)	4명	10명(대학원생 1명 포함)
	2017	북한 핵관련으로 미시행		
	2018	2018. 5. 13. ~ 5. 26.(2주)	4명	10명(대학원생 1명 포함)
	2019	2019. 4. 11. ~ 4. 12.	새병원 이전 봉헌식 참석(학장 외 2명)	
		2019. 5. 12. ~ 5. 15.	2명	7명(대학원생) 학부생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프로그램 미참여
	2020	COVID-19로 프로그램 미시행		
	2021	COVID-19로 프로그램 미시행		

국외 선택실습 현황

학년도	실습기관	국가	성명	실습기간
2006	Tissue Genem Ine	미국	장태규	2007. 1. 9. ~ 2. 3.
	Mother Teresa Center	인도	김양태, 노유리, 손원수	
	Stellenbosch Hospital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	권근용, 손광국, 정지원 최용민, 최주환	
2007	Mahaska Hospital	미국	장효정	2008. 1. 8. ~ 2. 3.
	Mount Sinai Hospital	미국	김태현, 박진희	
	Yale University Hospital	미국	조진민	
	Bugando Medical Center	탄자니아	강석진, 변상준, 송윤석 이재혁, 한순용	
2008	Mother Teresa Center	인도	류한원, 이강국	2008. 6. 16. ~ 27.
	Pantan Hospital	네팔	김선연, 박용석, 조의성 정여진	
2009	Sawa Hospital	일본	박승현, 최원혁	2009. 6. 15 ~ 26.
	Mount Sinai Hospital	미국	류정엽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	미국	김형동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미국	김온진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미국	신예니	
2010	Iowa Univeristy	미국	김준식, 김환, 정남경	2010. 6. 21. ~ 7. 9.
	Kangpongson Bible School Clinic	캄보디아	김진영, 박성균, 여영도	
	Mount Sinai Hospital	미국	윤빛내리, 전승식	
2011	Kaiser Foundation Hospital	미국	박정섭, 현지원	2011. 6. 13. ~ 7. 8.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미국	여운탁	
2012	Dr. Bosman and Partmers	미국	노창인, 서요한, 정재엽 황순곤	2012. 6. 24. ~ 7. 20.
2013	Harvard Medical School	미국	구현담	2013. 6. 24. ~ 7. 19.
	University Hospital Zurich	스위스	김혜연	
2014	Hospital Pediartico Y Cardiocontro Infantil William Soler	쿠바	이왕규, 정영은, 천수민 현제민	2014. 6. 23. ~ 7. 18.
	Ocean Luke Hospital, Rillongwe	말라위	윤제섭	
2015	Malteser Krankenhaus Seliger Gerhard Bohn	독일	배기호, 배효은, 백민주 이로지	2015. 6. 22. ~ 7. 17.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미국	성주영	
	National Jewish Health	미국	하수영	

학년도	실습기관	국가	성명	실습기간
2016	Face line Cambodia Battambang Provincial Referral Hospital	캄보디아	김민기, 김혜성, 윤석주 이효진	2016. 6. 20. ~ 7. 1.
2017	Hebron Medical Center	캄보디아	배현준, 서유미, 안수진 이기욱, 양현찬	2017. 6. 19. ~ 6. 30.
2019	MCM General Hospital	에티오피아	김주현, 임채성, 최진영	2019. 6. 17. ~ 6. 28.
	Battambang Provincial Referral Hospital	캄보디아	서지덕	

SCOPE 참여 현황

학년도	성명	국가명	실습기관	기간
2014	신소정	핀란드	University of Helsinki Central Hospital	2015. 1. 1. ~ 1. 30.
	이은지	러시아	Moscow Clinical Scientific Center	
	박근휘	멕시코	Universidad Autonoma De Nvevo Leon	2014. 12. 23. ~ 2015. 1. 15.
2015	박경식	폴란드	University Clinical Centre in Gda	2016. 1. 4. ~ 1. 31.
	진효준	대만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김수철	폴란드	Medical University of Lodz	
2016	이남현	핀란드	University of Helsinki Central Hospital	2017. 1. 2. ~ 1. 27.
	최현지	프랑스	CHU Brabois	
	김재훈	캐나다	University of Calgary Hospital	
	이나현	프랑스	Creteil, Henri Mondor	
2017	정애나	캐나다	University of Calgary Hospital	2018. 1. 2. ~ 1. 19.
	엄현종	오스트리아	Vienna General Hospital (AKH)	
	윤지민	체코	Second Faculty of Medicine, Charles University	

* 2018, 2019학년도에는 학사일정으로 우리대학 학생이 국외로 실습을 나가지 않았음.

* 2020, 2021학년도 COVID-19로 미시행

* SCOPE(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Exchange)

우리 대학 SCOPE 교육 현황

학년도	성명	국가명	실습과	실습기간
2014	Krzysztof Hieronim	폴란드	소아청소년과/소아외과	2014. 8. 4. ~ 8. 29.
	Dheker Turki	튀니지	산부인과	
	Pyshkina Naedezhda	러시아	신경과	
2015	Nora Langenstueck	독일	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2015. 8. 3. ~ 8. 28.
	Eduardo Rodriguez de la Cruz	스페인	소아청소년과/심장내과	
	Lorenzo Perez Sanchez	스페인	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	
2016	Carmen Gallego Cortes	스페인	위장관외과/응급의학과	2016. 8. 1. ~ 8. 26.
	Laura Girardi	이탈리아	위장관외과/응급의학과	
	Rebecka Wahlbery	스웨덴	심장내과/신경과	
2017	Violeta Echeverria Martin	스페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2017. 7. 3. ~ 7. 28.
	Mai Phuong Phamova	체코	흉부외과/이식혈관외과	
	Nicole Polcarova	체코	위장관외과/신경외과	
2018	Anniina Kananen	핀란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2018. 7. 2. ~ 7. 27.
	Valerija Mosenko	리투아니아	흉부외과/이식혈관외과	
	Lucie Belfinova	체코	위장관외과/신경외과	
2019	Wang Wei-Chen	대만	성형외과	2019. 7. 1. ~ 7. 26.
	Gisc Tudor	루마니아	성형외과	
	Galvosas Mindaugas	리투아니아	신경과	

* 2020, 2021학년도는 COVID-19로 미시행

* SCOPE(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Exchang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8

동창회

- 356 역대 동창회장
- 357 동창회 활동
- 363 동창회 회칙
- 366 동창회 행사

○ 역대 동창회장

1대

박종욱(1기)
1985. 3.~1987. 2.



2대

김상표(1기)
1987. 3.~1988. 2.



3대

이경섭(1기)
1988. 3.~1990. 5.



4대

하찬욱(1기)
1990. 6.~1992. 4.



5대

이충원(1기)
1992. 5.~1993. 4.



6대

권용철(1기)
1993. 5.~1995. 4.



7대

김덕만(2기)
1995. 5.~1997. 4.



8대

곽호순(2기)
1997. 5.~1999. 4.



9대

이승현(2기)
1999. 5.~2003. 4.



10대

백두현(1기)
2003. 5.~2007. 4.



11대

박동만(3기)
2007. 5.~2009. 1.



12대

백종민(3기)
2009. 2.~2012. 5.



13 · 14대

이영국(4기)
2012. 6.~2016. 1.



15 · 16대

이원기(4기)
2016. 2.~2020. 1.



17대

오희종(2기)
2020. 2.~현재



○ 동창회 활동

연혁 및 역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는 1985년 2월 제1회 졸업생들이 동창회 발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위원으로는 조일주, 최현욱, 류종환, 박종욱, 허찬욱, 이충원, 권용철이 선정되었다. 1985년 3월 25일에 동창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동창회장으로 박종욱(1회) 회원이 취임하였다. 동창회가 발족하고 1986년 3월 제1회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동창회 회칙을 제정하고 정재홍 박사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이후 1987년부터 제2대 동창회장으로 김상표(1회) 회원이 취임하였고 2021년 제17대 동창회장으로 오희중(2회) 회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임원 구성은 동창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사 12명, 고문 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9월 22일 동창회의 의결을 거쳐 동창회 기금 3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태계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2003년 4월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내에 동창회를 사무실 개소하였으며 5월에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2010년 1월 의과대학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동창회 사무실도 의과대학 M405호로 이전하였다. 동창회는 매년 정기총회 1회, 평의원 회의 다수회, 임원회의 매월 1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경조사 및 동정을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동창회비 납부 회원에 한하여 동산의료원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 활동도 임원을 중심으로 동창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창회 행사

재학생 동반행사

동창회장배 동반대회

2013년부터 재학생들과 선배들과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매년 동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의예과 1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동창회원과 재학생 130여 명이 참석한다. 동창회 선배들과 조를 이루어 동반을 하고 게임, 식사 등을 하며 선후배 간 교감하며 하나되는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동문한마당

의과대학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며, 각 졸업 기수가 맡아 준비 및 진행하는 전통 있는 행사이다. 의과대학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이며 매년 기수별로 행사진행 방식이 달라 흥미롭고 기대되는 행사이며, 현재 16기까지 진행하여 21회 개최하였다.

동창회장배 테니스대회

2003년부터 매년 가을에 재학생 테니스 동아리와 함께 하는 행사로 테니스 동아리 선후배들이 함께 경기하며 배우고 화합하는 행사이다.

4학년 의사국가시험 격려방문

의사국가시험을 치르는 의학과 4학년 후배들을 위하여 매년 12월 의사국가시험 격려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동창회장 및 동창회 임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4학년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합격 기원 떡과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힘을 북돋아 주는 행사이다.

학위수여식 동창회장상 수여

의과대학 동창회장상을 제정하여 매년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재학기간 중 학교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생에게 동창회장이 직접 동창회장상을 수여한다.

동창회원 행사

태계인의 밤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의과대학 동창회 행사 중 가장 무게감 있고 핵심적인 행사이다. 정기총회에서는 동창회 1년간의 재무, 행사, 회원 동정 등 동창회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신입회장을 선출한다. 신입회원 환영회는 그 해 졸업하여 신입회원이 된 새내기 회원들을 환영하고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자리이다. 2부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장기자랑 및 초대 공연, 초대 강연을 마련하여 좀 더 편안하고 동창회원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졸업생 모교 방문의 날 행사

졸업 25주년이 되는 졸업 기수별로 순차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며 그 해 해당하는 기수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학교 투어와 은사님들을 초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며 화합하는 행사이다. 주최 기수에 따라 행사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금을 통해 발전기금을 쾌척하며 모교와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선후배 간의 화합을 위해 2007년 처음으로 열린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행사는 기수별 또는 선후배 간 조를 편성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골프 스포츠 특성상 봄 또는 가을에 개최하며, 현재 12회까지 개최하였다.

동창회 장학기금

1인 1구좌 기금

2013년 13대 이영국 동창회장이 1인 1구좌 운동이라는 취지로 설립한 장학기금이다. 최소 1구좌(=1만 원)부터 신청 가능한 장학기금으로 현재 340여 명의 동창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으로 매월 신청한 계좌 수만큼 기금이 납부된다.

모금된 기금은 1999년에 설립된 태계장학재단 기금에 1인 1구좌 기금으로 기부하여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향후에는 모금액을 태계장학재단으로 기부하지 않고 학교로 직접 기부하여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런 기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나아가 우수학생 유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은 기금이다.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원)	31,760,000	31,760,000	38,480,000	38,480,000	37,970,000	37,390,000	37,260,000

계명의대 동문 GLOBAL ACE 장학회 장학금

계명의대 동문 GLOBAL ACE 장학회(회장 백두현 회원, 1회)는 이영국 전 동창회장의 제안으로 발족하였으며, 2014년부터 모교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장학금을 모금하여 모교에 기부하고 있다. 이영국 회원(13대 동창회장), 이원기 회원(15대 동창회장) 등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장학금 기금 총액은 289,000,000원이며,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연도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원)	연도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원)
2015	20	38,000,000	2019	16	32,000,000
2016	27	50,000,000	2020	23	38,000,000
2017	25	46,000,000	2021	21	26,000,000
2018	31	56,000,000			

태계장학재단

태계장학재단은 의과대학 동창회의 의결에 따라 1999년 9월 22일 동창회 기금 300,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하였다. 초대 및 2대 이사장은 당해 동창회장인 이승현 회원(2회)이 겸임하였으며, 3대, 4대 이사장은 당해 동창회장인 백두현 회원(1회)이 겸임하였다.

2007년 5대 이사장부터 동창회장과 태계장학재단 이사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대부터 현재 12대 이사장은 문교철 회원이 이사장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이사장 문교철, 이사 이성용, 이재호, 이현아, 정성원, 진규복, 황일선, 감사는 남성일, 김진영 회원이 수고하고 있다.

설립 후 동창회의 1인 1구좌 기부와 졸업생 모교 방문의 행사를 통한 장학기금 기부 등으로 연간 약 50,000,000원의 기부를 통해 기본재산을 866,000,000원으로 확충하였으며, 기본재산 이자로 매년 15,000,000~20,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0년 6명의 학생에게 12,700,000원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2021년까지 301명의 학생에게 총 375,292,000원을 지급하였다.

연도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원)	연도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원)
2000	6	12,700,000	2011	11	16,950,000
2001	20	20,000,000	2012	13	20,647,000
2002	15	15,000,000	2013	14	21,147,000
2003	15	15,000,000	2014	11	16,746,000
2004	15	15,000,000	2015	10	13,808,000
2005	16	16,000,000	2016	11	14,774,000
2006	16	16,000,000	2017	7	12,000,000
2007	19	19,000,000	2018	12	16,000,000
2008	15	21,000,000	2019	16	16,000,000
2009	19	24,500,000	2020	15	18,500,000
2010	12	17,520,000	2021	13	17,000,000

의과대학 동문교수회 장학금

의과대학 동문교수회 장학금은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모교 출신 교수로 구성된 교수회에서 매월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2003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여 의학과 각 학년 성적 차석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도까지 장학금 지급 총액은 209,096,000원이다.

연도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원)	연도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원)
2003	4	10,000,000	2013	4	11,364,000
2004	4	10,000,000	2014	4	11,364,000
2005	4	10,000,000	2015	4	11,364,000
2006	4	10,000,000	2016	4	11,364,000
2007	4	10,000,000	2017	4	11,364,000
2008	4	11,364,000	2018	4	11,364,000
2009	4	11,364,000	2019	4	11,364,000
2010	8	11,364,000	2020	4	11,364,000
2011	4	11,364,000	2021	4	11,364,000
2012	4	11,364,000			

삼성안과장학금

우리 대학 2회 졸업생인 삼성안과의원장 이승현 회원이 2002년부터 매년 30,000,000원씩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이 중 10,000,000원은 교수연구비로, 10,000,000원은 교육용 기자재 구입, 10,000,000원은 장학금으로 집행하였으며, 2021년 8월 발전기금 600,000,000원을 완납하였다. 집행내역으로는 학생 장학금으로 매년 의과대학생 1명당 1,000,000원씩 10명에게 지급하여, 2021년까지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삼성안과연구비로 1과제당 5,000,000원씩 지급하여 40개의 연구과제에 지원하였다.

동창회 모교 발전기금 납부

우리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모교 및 동산의료원에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금액은 약 55억여 원으로 동문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모교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 동창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한다.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 친목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 회지 및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4. 장학에 관한 사항
5. 강연회, 연구회의 개최 및 의학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두며 대구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종별)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생으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모교의 교직원 및 교직을 역임한 자
 2. 본 대학의 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하거나 수련과정을 마친 자
 3. 본 대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자신의 신상상의 변동사항을 동창회에 연락할 의무가 있다.

제8조(임원의 종별)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약간명
4. 상임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9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회장대행 수행은 수석부회장이 우선하고, 이후는 졸업순위로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를 처리한다.
- ④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제13조(회의의 종별)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전체 이사회, 상임이사회 등으로 한다.

제14조(회의의 소집) 총회는 이상 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칙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제17조(전체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8조(전체 이사회의 종별) 전체 이사회는 정기 전체 이사회 및 임시 전체 이사회로 하고 정기 전체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전체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전체 이사회의 임무) 전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 목적과 사업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4.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 5. 특별회원 및 준회원 자격 심의

제20조(전체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전체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상임 이사회의 구성)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2조(상임 이사회의 임무)

- ① 상임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기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수입된 사항
 3.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상임이사는 총무, 기획, 사업, 장학, 재무, 정보, 조직, 학술, 간행 및 홍보 등 업무를 분담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상임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상임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동창회 발전 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비)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연회비의 증감은 총회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1. 개원의 : 100,000원
2. 봉직의 : 100,000원
3. 평생기금 : 500,000원

제26조(회비의 감면) 근무회원은 그 회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회원 중 노령, 무직, 질병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회의의 결의로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8조(기타) 본회의 미비점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 동창회의 의결로 한다.
2.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2007. 1. 27.)로 효력을 갖는다.
3.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2018. 2. 3.)로 효력을 갖는다.
4.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2019. 3. 15.)로 효력을 갖는다.
5.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2020. 2. 1.)로 효력을 갖는다.

동창회 행사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동창회장배 테니스대회



동문한마당



등반대회



동창회 태계인의 밤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동창회 의사국가시험 격려방문



1기 동기회 모교방문



2기 동기회 모교방문



3기 동기회 모교방문



4기 동기회 모교방문



5기 동기회 모교방문



6기 동기회 모교방문



7기 동기회 모교방문



8기 동기회 모교방문



9기 동기회 모교방문



10기 동기회 모교방문



11기 동기회 모교방문



12기 동기회 모교방문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09

에세이

- 370 의과대학의 과거 에세이
- 373 의과대학의 현재 에세이
- 377 의과대학의 미래 에세이
- 381 동문 에세이

○ 의과대학의 과거 에세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과거에 대한 나의 단상

1기 졸업생 김상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제19, 20대 학장



신장내과 김예립 선생님으로부터 의과대학 40년사에 실릴 “의과대학의 과거”에 대한 에세이 형식의 원고를 요청받았다. 사실 부담은 되었지만, 후배 교수님이 정중하게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머릿속으로 원고를 어떻게 작성할까 막연히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시점이 되어 무엇이랴도 기술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쫓기는 닭처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내가 경험했던 의과대학의 과거를 학생시절에서부터 교수가 되는 시점까지 무의식 생각을 의식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 해마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1979년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의술을 펼치고 있는 동산병원을 모태로 하는 계명대학교 이공대학 의예과에 1기로 입학하였다. 입학 후 신입생 OT 등은 이공대학 선배 학생들이 정성껏 친절하게 해 주었던 기억이 나며 그 후 의예과 수업은 대명캠퍼스 대학원 건물(현 아담스관) 1층 101호실에서 하였다. 그 당시에 화학과 김의탁 교수님께서 학과장으로 수고하셨고 수학과와 신용태 교수님, 작고하신 한문학과와 이원주 교수님 등이 수업 지도를 해주셨다. 의예과 2년간의 학교생활은 아름다운 추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격변기로 많은 일이 있었다.

의예과 첫 1년간은 대학원 건물 앞 계단에서 정문으로 왕래하는 학생들 구경하기, 강의실 부근 잔디밭에서 모여 게임 하기, 정문 앞 다방에서 미팅하기, 부근 당구장에서 당구 치기, 학과 페스티벌에 파트너 동반하여 참석하기, 동아리 활동하기 등등 의예과 시절의 젊은 청춘을 만끽하였다. 또한 본교 탈춤반, 연극반 등의 동아리에도 우리 과 학우들이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일화 한가지는 그 시절에 대구·경북지역의 의대 중 메디컬사운드가 경북의대에 유일하여 타 대학의 학과 페스티벌에 초청연주를 하곤 하였는데 우리 의대에서도 그룹사운드를 만들자는 의견이 갑자기 교련 수업 시간 중에 수렴되어 의기투합한 몇몇이서 의대 동아리 HIPP-SONS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의예과 1학년은 고등학교 시절에서 대학생이 되면서 소위 해방감을 즐기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

1979년 10.26 사건의 정치적인 격변으로 인하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전면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1980년도에도 민주화 투쟁을 위해 학생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비상계엄으로 의예과 2학년 수업은 거의 할 수 없었다. 대명 캠퍼스 정문에는 장갑차와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으며 학생들이 모여 정문 앞에서 시위하면 최루탄을 발사하여 눈이 매워 눈물을 많이 흘린 기억이 나고 그때 주된 구호는 “호헌철폐 독재 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였다. 그 시절 하나의 일화는 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수업은 하지 않고 데모를 한다고 편지를 주었던 학과의 형이 시위를 구경하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모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형은 부친의 노력으로 퇴소할 수 있었지만, 그 때에는 시위 주위에만 있어도 연행하여 잡아가는 무법의 시대였다. 결국 의예과 2학년은 수업을 할 수 없어 모든 과목에 과제만을 제출하여 학점을 받아 모두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이나 그때에나 학생들은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 같다.

1981년 의학과 1학년 수업은 동산캠퍼스 의과대학 교사가 완공되지 않아 동산간호전문대학 교사 1층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다. 여러 시설이 열악하였는데 특히 cadaver 해부 실습은 강의실 바로 건너편 실습실에서 진행되어 포르말린 냄새를 많이 맡았던 기억과 함께 땀땀이 시험 준비를 위해 cadaver와 함께 밤샘 공부를 열심히 하곤 했었다.

기초의학 수업은 경북의대 교수님들이 많이 출강하여 수업해 주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이 생화학이었다. 강의를 문 열고 들어올 때 정태호 교수님은 머리부터 먼저 들어오시고 반대로 조준승 교수님은 배부터 먼저 들어와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웃고 기억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 조교로 활동하시던 서민호 교수님, 이인환 교수님, 박원균 교수님 등이 우리 대학으로 부임하여 학생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1982년 의학과 2학년 때에 의과대학 교사가 완공되어 새 건물에서 의대 생활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동산캠퍼스 의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일부 흑역사 중의 하나는 의학과 2학년 때에 선배랍시고 새로 진입한 의학과 1학년 후배들에게 진입식과 환영회 등에서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 요즘도 한 번씩 후배 교수들과 모임을 하면 후배 교수들에게 그때의 일로 혼나곤 한다(사실 나는 주축멤버는 아니었다). 이때 입사한 최삼희 팀장님이 학생들과 친하여 많은 학생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고 지금까지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니 실로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졸업생과 학생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 있으니 이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 후 임상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업의 분량은 많아졌으나 요령이 생겨 의과대학에 잘 적응하였고 임상 교수님들이 기초 교수님들보다 여러 면에서 호탕하고 관대하셨다. 작고하신 강중신 교수님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해지거나 졸음이 오면 칠판을 세게 치면서 고함을 쳐서 학생들의 잠을 깨우면서 강의하셨고, 전재규 교수님은 강의의 요점인 $BP = \text{cardiac output} \times \text{peripheral resistance}$ 를 수차례 반복하셔서 아직까지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을 정도의 명강의였다. 또한 서영욱 교수님도 여성 생리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와 비교해서 강의하시며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유도하신 훌륭한 강의였다. 그 외에 모든 교수님이 계명대의 학생에 대한 열정으로 지도하신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다.

임상실습이 시작되면서 동산병원 각 과를 돌며 실습에 임하였고 치료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간호사, 전공의,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태도와 술기 및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실습은 소화기내과의 간경화증 환자분이 식도정맥류 파열로 응급실로 와서 김병준 내과 전공의 선생님과 함께 환자에게 Sengstaken-Blakemore tube를 꼽고 바이탈이 좋지 않아 밤새도록 지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계명대의 1기는 입학 당시에는 정원이 80명이었지만 졸업은 35명만 하였다. 교수님들이 계명대의 1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유급을 많이 시켜 정예 학생들만 양성하였다. 그 결과로 1985년 의사국가시험에서 1명만 탈락하고 34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97.1%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계명대의 1기 동기들은 비장한 각오로 칠곡의 모처에 모여 함께 합숙하며 국가시험 대비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때 추억들은 요즈음에도 동기회를 하면 한 번씩 회자되곤 한다.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시절을 거쳐 1992년에 계명대의 병리학교실 전임강사로 모교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의과대학 성서캠퍼스 이전과 새 동산병원 건립이 늘 화두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전과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공수표만 남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 의과대학부터 먼저 성서캠퍼스 이전을 이룩하였으며 2019년 4월 우여곡절 끝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여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제 정년을 약 3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계명대의 과거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내 생각이 한계가 있다 보니 잘못 기술되거나 미흡한 점이 많을 줄 믿는다. 다만, 에세이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약간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교 의과대학과 함께한 기간이 33년이지만 항상 교육과 연구 및 봉사에 부족함을 느끼고 나를 있게 해 준 모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과 동산병원에 충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 의과대학의 현재 에세이



2기 졸업생 배재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제22대 학장

우리 의과대학의 현재를 볼 때 여러 가지의 사항 중에서 대학의 중심인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든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한 의료의 발전과 인류의 안녕에 기여한다.’는 사명 아래 ‘생명 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을 비전으로 두고 있다. 교육 체계적으로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밝히는 의사를 양성한다.’는 교육목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의사’, ‘정의를 구현하는 의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를 양성하고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의과대학은 2010년 2월에 성서캠퍼스에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우수한 최첨단의 환경을 갖춘 교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으며, 의용공학과를 신설하여 의학, 생명과학 및 약학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30년 동안의 동산캠퍼스에서 많은 추억을 뒤로하고 신축 교사로 이전하여 공간적인 협소함과 교육 환경적인 제한점 등이 많이 해소되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성서캠퍼스에서 봉사와 사랑의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으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전인적 의료지식인 배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첨단강의실,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학생실습실, 임상수행학습실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의학도서관에는 학술잡지, 시청각 자료 등 10만여 장서가 소장되어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자저널 6,000여 종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영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예과 학생들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대명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성서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의학과 학생들은 1982년 7월에 동산캠퍼스에 의과대학 교사가 준공되어 1~4학년이 교육을 받았으며,

2010년 2월에는 성서캠퍼스에 현재의 의과대학 교사가 준공되어 의예과 및 의학과 1~2학년 학생이 교육받았다. 2019년 4월에 교육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성서캠퍼스에 준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의학과 3~4학년이 비로소 합류하면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교육이 한 울타리 내에서 완전체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학생들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현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으며, 생명과학과 의학, 약학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대한민국 의학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임상의학 교육이 의학과 2~4학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편성되었지만, 임상실습 교육 강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이 되었고 현재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되면서 의학과 1~2학년에 임상의학 이론 교과목이 편성되어 10여년간 임상교수님들이 강의를 위해 동산캠퍼스에서 성서캠퍼스로 오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모두가 우수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니 교수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였다고 회고된다.

현재 의과대학의 인적 구성은 의예과 156명, 의학과는 292명으로 전체 44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휴학생 22명 제외). 우리 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의예과 2년 + 의학과 4년]의 기존 학제를 고수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 우리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이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현재 교수로 임용되는 단계에 왔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의학 교실에 33명, 임상의학 교실에 175명의 정년트랙 교수님들이 불철주야 교육과 연구 및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와 교육을 위해 기초교수요원과, 교육과 진료를 위해 임상 교수요원 약 100명이 비정년트랙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9월에 발표된 전국 35개 의과대학 중에서 우리 의과대학은 재학생 1인당 지원하는 장학금이 전국에서 13번째로 지역에서는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41개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국제전문학술지(SCI급)에 발표한 학술논문 실적은 12번째로 위치하였다. 그 동안 성서캠퍼스로 새 병원을 준공하여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실제적으로 진료 부분에 교수님들의 노력을 강조해 왔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우수한 결과이다. 하지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이전으로 진료 실적으로는 전국 TOP10 진입 목표에 거의 달성된 상태에서 머지않아서 진료 실적에 걸맞은 연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985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여 2022학년도까지 38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의사국가시험에 수차례에 걸쳐서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 의학의 명문으로 발돋움하였다. 현재 우리 의과대학은 2,99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경향 각지에서 발군의 실력과 탁월한 인성으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복지 정책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시스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 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아 우리 대학은 2005년 2월에 의과대학 인정평가 ‘완전 인정’을 받은 이후 계속된 노력으로 역량을 향상하면서 개선하고 있다. 평가의 기준이 초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학생 복지를 중점으로 실시하였지만, 점차 교육과정과 학생 및 교육평가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로 확대 심화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점차 복잡해지고 심층적인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4년)을 받았다.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의학교육 평가기준(ASK 2019)은 국제적 표준에 의한 의학교육을 요구하는 단계에 왔으며, 각 대학은 사전에 많은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명시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는 정도이다. 우리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단계의 인증을 받았지만, 일부 미흡한 점들을 계속 보완하여 향후의 평가에서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과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초기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과 교수들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노력에 더하여 동산의료원과 졸업 동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의과대학의 운영과 학생 교육 환경의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2020년의 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소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과정에 전대미문의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생하였다. 늘 해왔던 대면 수업과 실습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과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수업은 전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야 했었고, 사전에 강의 영상을 녹화하여 교수 학습지원시스템에 탑재하였으며 실습도 꼭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해부학실습은 몇 번에 걸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임상실습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2주일 동안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다. 매일 달라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장단을 중심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수시로 긴급 학무회의를 열어서 묘책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차츰 비대면 수업 체계가 안정화를 찾아가 무렵인 2020년 8월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철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 진료 도입 등 정부의 4가지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학과 4학년들은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의예과와 의학과 1~3학년 학생들은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다짐하였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학생 대표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하였지만, 학생들의 순수한 의지에 변화가 없었으며, 원래 계획된 의학과 4학년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전국적으로 극소수의 학생들만 응시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치러졌고, 준비 기간이 짧

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학생들과 교수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우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로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순식간에 지나쳐 버린 사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하였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의과대학은 혼란한 시기에 혹여 놓치고 지나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해야겠다. 우리 의과대학의 명성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지역에 단연코 우뚝 서는 대학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전체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이룩할 것이다.

○ 의과대학의 미래 에세이



3기 졸업생 송대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제23대 학장

2021년은 계명의대와 동산병원에 참 의미 있는 해이다. 우리 의과대학이 2010년 2월에 성서캠퍼스로 이전 한 지 10년이 되고, 1981년 의학과 1학년 진입으로 개교 40주년을 맞는 해인가 하면, 1년간의 코로나19 방역 후 한숨을 돌리기 시작한 해, 그리고 무엇보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으로서는 2015년 10월 1일 수립되었던 ‘미션&비전 2020’이 COVID-19로 1년 연기 되어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의 성취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의료원의 미션은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전인적 치유를 통해 인류 행복에 기여하고 의료 발전을 선도한다”이다. 이는 비전의 상위개념으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이므로 가급적 지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비전은 미션이라는 절대적 목적을 가지고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 의료원은 현재 최소 5~10년 앞을 내다보며 중장기전략으로서 ‘2025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비전의 모든 내용은 미션의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목표와 방법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2015년 계획된 ‘비전 2020’을 반추해 보면 진료 No. 1, 미래 100년, 신뢰 ∞ 라는 슬로건 아래 ‘2020, 국내 Top10 의료원’이었다. 현시점에서 ‘비전2020’의 구체적 각 지표의 달성 현황을 수치로 보면 약 47.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목표를 워낙 높게 잡아서인지 많은 것을 상향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조사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국 진료비 청구액 순위를 보면 전국 상급 병원 45개 중 (서울 14개, 경기 8개)에서 14위, 의과대학 SCI 논문 게재 편수나 학생 장학금 지급 순위는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12~13위로 나타난다. 순위만으로 보면 Top10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수 연구비 수주실적은 전국 17위 정도로 좀 더 분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제 새로운 동산의료원 중장기 미래 비전은 ‘메디컬 프런티어 정신을 바탕으로 진료, 교육, 연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료원’, 의과대학의 미래 비전은 ‘생명 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진다. 이제부터는 국내 몇 위를 지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며, 그 가능성

은 있는 것인가? 진료, 교육, 연구의 미래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우리의 현재를 이루어 내신 우리의 선각자들, 스승, 선배들의 메디컬 프런티어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면에서 일류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게 어렵다면, 앞서가는 국내외 기관들의 선진 문물(?)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 상황에 맞게 가공하는 민첩성이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즉, 열린 개방된 마음으로 전국화 나아가 국제화된 병원, 의과대학을 지향하여야겠다. 여기에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꼭 같이 가야 우리의 생존이 보장될 것이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인류를 향해 빛을 비추는 박애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의료원의 존재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닌 제삼자가 보는 우리 의료원의 존재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비전의 “생명 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도 이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의학교육방법이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해서 개발되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과 교수들의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뛰어난 학생들을 뛰어난 교육여건을 통해 뛰어난 실력의 의사로 만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인문학적 소양마저 갖춘 개방형의 전문 의료인들로 이루어진 의료원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즉, 의과대학생 선발 전형기 준부터 6년의 학부 과정, 의대 졸업 후 전공의 과정, 전문의 수료 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병원과 학교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훌륭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 하는 병원과 대학을 만드는 데 필수적 요소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인기 있고 돈이 되는 곳에 우수한 인재들은 몰리는 법이다. 내가 의사면허증을 취득했을 때 전국의 의사 수는 인구 5,500만 명 이상에 3만 명 남짓이었다. 그러므로 의사면허증만 획득하면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개인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지금은 의사 수가 14만 명을 향해 가며, 인구는 나날이 줄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과 인구 감소율을 함께 고려하면 2028년 이후는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도 어떤 직군보다도 의사라는 직업은 존경받고 성공의 상징이 되는 직업의 하나는 맞다. 현재까지는 의사를 찾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인구는 줄지만, 의사가 필요한 고령 인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로 인한 웰빙에 대한 욕구, 조기 검진 시스템의 발달 등이 수요를 계속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이익은 총매출의 약 5~7% 정도의 수익률로 본다. 이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천만 원 벌면 50~70만 원이 현재 병원 의료 부분 순수익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병원은 이미 의료 외 수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에 정년 제한이 없는 의사들은 매년 증가하고, 또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면허증을 딴 한의사, 약사들

까지 금단의 영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즉, 준비가 없이 현실에 만족한다면 얼마 머지않은 미래에 곧 위기의 순간이 닥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력과 재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사립 의대 입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안다면 그쪽으로 계획하여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끼리, 또는 병원 간의 경쟁이 심화할수록 약한 쪽부터 약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입학하려 하여 등록금이 유지되고, 병원 수입이 지금처럼만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은 일차진료 의사로 맞춤형 의사를 계속 양성하면서 교직원 월급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만 있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1/3 이상이 산다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병원, 그리고 지방 국립대 병원의 급속한 변화를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우리 학생들, 전공의들, 우리 제자들이 상대적인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미래가 두려워지는 것이다. 우리 의과대학이 지금 어떤 미래를 예상하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제자들과 우리 대학병원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지금도 의과 1, 2학년 중 반수하는 휴학생이 상당하다. 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저들 나름으로 예측하고, 더 낮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떠냐에 따라 이 상황은 심해질 수도 있고 악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

계명의대가 2010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하고, 2019년 동산병원까지 이전할 때 우리의 선배, 스승들은 그들의 후배,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공간적으로나마 확장성의 미래가 보이는 새로운 시설들을 부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스스로의 월급 인상은 자제하고 그들의 환경은 낙후됨을 감수하며 한 푼 두 푼 절약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린 그들보다 더 나은 현재를 보게 되었고, 과거보다 확실히 좋은 시설에서 좀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미래의 제자, 후배들에게 우뚝 선 위상의 의과대학과 병원을 물려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여건 속에서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는 수도권의 거대한 병원들과 의과대학들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뒤처지지 않고 추격하여야 하며, 우리 뒤를 추격해 오는 병원들과 의과대학들에 어떻게 하여야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인가? 앞서가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뒤처진 그들을 보면 어떤 말을 조언 해주고 싶은가?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은 우리의 미션과 비전에 모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실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수익만으로는 앞으로 지역 대학병원이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식음료 매장이거나 장례식장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물론 지속적인 병상의 확충, 스타 진료 교수의 탄생과 그런 스타 교수의 추가 초빙이 무엇보다 의료 수익 분야에서 중요하므로 진료 분야에서 지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더하여 의학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의학 기술 창조와 유망 제약회사들과의 공

동 협력 연구가 대학병원의 미래 먹거리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싶어 한다. 즉 의사 과학자(MD / PhD)를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MD 기초의학자, MD 전문의만으로 이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진정 MD+전문의+기초의학박사를 모두 획득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의대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이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하고, 병원은 이런 인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에서 장려하는 의사 과학자 양성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학생, 교수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의학연구력을 올리고, 기술이전 또는 벤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연구 지원이 활성화 되는 순방향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기에서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 긍정적 순환 고리는 깨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윈윈하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공정(fairness)이라는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다른 것들에 밀려 비교적 약한 정의(justice)이었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이므로, 미래 세대와의 교감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도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졸업 동문의 학교와 병원에 대한 사랑이다. 선도적 대학병원인지 그렇지 않은 대학병원인지를 알려면 소식지의 일면에 동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부금 소식의 비중이 어느 정도 나를 보면 된다. 동문의 관심을 끌 수 없는 병원과 의과대학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은 동문의 사랑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실천하면, 즉 방법을 알기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목표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우리끼리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 상급 병원 또는 의과대학의 전국 10위권? 5위권? 대략 상급 병원 요양 급여 청구액을 기준하면 각각 1.2배와 2~2.5배 더 증가시켜야 하고, 교수 일인당 논문 수나 학생 일인 당 장학금 규모로는 우리보다 각각 1.2배와 1.5배 정도 수준이다. 교수 일인 당 연구비 수주는 각각 2배와 5배 더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머물지 결정해야 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렇듯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렇게 많은 밀알을 현재 우린 가지고 있는데 그 미래는 오죽하랴. 잠재적 능력이 탁월한 수재들의 미래를 우리가 회피하였을 때, 미래 우리들이 받을 비난이 두렵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할 것임을 나는 믿는다.

황무지를 개척하듯, 한 알의 밀알이 되어



1기 이호석

성서한마음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1979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해이다. 나로서는 의과대학에 합격한 해이며 국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받은 충격이 오래 남았던 해이다.

그 당시 신생 의과대학이라 고민도 많았지만 개척자 정신으로 입학했다. 다들 그러했겠지만 예과 때는 여느 대학생처럼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대학의 낭만을 즐겼다. 그러다 예과가 끝날 무렵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곳저곳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본과에 관한 정보(?)를 모았으며 마침내 서문시장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본과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역사가 깊은 대형 병원은 있었지만 미처 강의실 준비가 안 되어 간호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악명(?) 높은 수업이 시작되었다. 1년 동안 간호대학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눈칫밥을 먹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사랑의 싹이 피듯이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썸썸(?)이 있었으니 더부살이의 후유증(?)인 지 알 길은 없으나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만나 백년해로를 한 모 씨도 있었다.

그 당시 교수님들은 길들이지 않은 거친 야생마를 조련하듯 우리를 다그치고 압박했다. 지구상에 있는 시험이란 시험 종류는 그때 다 겪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런 스파르타식 교육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미해지기도 했다. 특히 악명 높은 해부학 시험 때 한 학생은 뼈를 들고 설명하는데 팔을 덜덜 떨어 뼈와 탁자가 부딪히며 타악기 소리를 내기도 했다.

1회로 출발하여 처음 가는 길이었기에 교수님께서도 사명감에 불탔고, 우리는 그 사명감에 부응하지 못해 허우적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었다. 일부는 인생의 낭만을 즐기느라 지각생 동기도 생겼다.

본과 1년이 지나갈 무렵 거리에 낙엽이 보이고 다시 봄 향기가 느껴질 즈음 새로 지은 의과대학으로 이전하여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듯이 교수님과 1회 동기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국시 합격률 97%라는 결과를 얻어 전국 1위로 피날레를 장식했으니 그때의 감회가 아직도 가슴을 뜨겁게 한다.

공부한 지 벌써 40년이나 지나다 보니 굵직한 사건은 기억이 나도 자잘한 일들은 기억하기에도 힘들어 가물거리는 기억을 더듬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글을 쓴다. 오랜 세월 동안 1회 졸업생 동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모교가 발전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과 경주동산병원으로 발전하여 감개가 무량하다. 1기생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이 부럽고, 개교 40주년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길 기원한다. 그 당시 병아리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준 간호대학과 간호대학생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나의 의대시절



1기 전창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1979년 3월, 계명대 대명캠퍼스 대학원 건물로 등교하였다. 정문을 지나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건물, 1층이 강의실이었고 강의실 뒤쪽에 창이 나 있어 쉽게 강의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 예과 시절을 보내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다. 봄날의 대명캠퍼스는 젊은이들의 분주한 몸놀림과 함께 생명이 피어올랐다.

빈 강의 시간에는 어김없이 벤치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안 구내식당에 자주 갔는데, 음식보다는 느긋하게 자리 잡고 앉아 얘기하는 재미가 쏠쏠하였다. 전체 동아리인 서예반에 가입하였고, 빈 시간에는 붓글씨를 익혔다. 1기라 선배가 없었는데 동아리에 들어오니 선배도 있고, 후배도 생겼다. 동아리를 통해 학교 분위기도 알게 되고 여학생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공부하고, 캠퍼스 쏘다니고, 붓글씨 쓰고, 노닥거리고, 그런 평화로운 시절이 이어지던 예과 2년, 데모가 시작되었다. 급우들 중 몇몇은 선두에서 데모하다 뒤편 데모대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민주화의 열풍은 거세졌지만 마침내 계엄이 선포되었고, 예과 2년의 반을 덮어버렸다. 계엄이 종료된 후에는 미루어진 교과과정과 본과 진입 고사 등으로 남은 기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동산동으로 무대를 옮기고 정재홍 학장님의 훈시를 시작으로 본과 생활이 펼쳐졌다. 골학을 필두로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되었다. 들어오시는 교수님마다 분위기가 어찌나 살벌한지 저절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간호대 건물 1층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강의실 1개, 해부학 실습실 1개 정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캠퍼스, 노천강당, 벤치, 야외식당..., 이 모든 것은 사라졌다. 낭만의 예과 시절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루 8시간 녹음하면서 수업 듣고, 암기하고, 골학 구두 사이시름 치고,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치렀다. 중간고사 후 시내를 나와 보니 딴 세상에 내가 온 것 같았다. 벌써 초여름에 가까운 봄인데 나는 아직 겨울이었다. 중간고사 후 필

기한 노트를 보니 예과 2년간의 노트 분량을 벌써 넘어버렸다. 그렇게 본과 생활이 이어졌다. ‘골 때리는 골학’, ‘조지키는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등 어마어마한 분량의 수업을 들으며 두꺼운 원서를 뒤적거렸다.

셋방살이 1년이 지나고 신축 의대 건물로 입주하였다. 강의실은 넓어지고 개인 캐비닛, 도서관, 휴게실, 지하 식당도 생기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학습량은 늘어만 갔다. 임상 과목을 배우면서 이제 의사가 되어간다는 기쁨도 들었지만, 일단은 다 외워야 했다. 인체가 그렇게 생겼고 병리 기전이 그렇고, 세균이 그렇고 치료제가 그러했다. 도서관이 생기고 자리가 많아 마음대로 책을 두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수업, 필기, 암기, 시험을 반복하다가 PK 실습을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의사와 같은 가운을 입고 병실을 다니니 겁은 나지만 신나기도 하였다. 소아과에서 보호자들이 환자 상태에 대해 자주 물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렸다가, 전공의 선생님으로부터 호되게 야단맞았다. 보호자를 컨트롤 해두었는데 우리가 다 망쳤다고. 환자 증례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암기하였던 내용들이 연결됨을 느꼈다. 어설픈 지식이지만 환자들에게 설명해줄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PK 실습 돌다가 땀땀이치는 것은 실습의 백미이기도 했지만 모두 성공할 수는 없었다.

모든 본과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본격적인 국시 준비에 들어갔다. 의대에서도 1기는 무조건 100% 합격해야 한다고 많은 관심을 쏟았다. 100% 합격을 위하여 우리들은 3개월의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칠곡 부근에 여관을 구해서 전원이 입소하였다. 책상이 없어 중고 식탁을 구입하여 방마다 들여놓았다. 3개월간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자고 하였는데 체중이 불어나는 것도 몰랐다. 국시 전날, 투숙한 신라 호텔서 시간이 모자라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비상금을 다 날리고 시험을 치렀다. 시험 당일, 쉬는 시간마다 정리한 국시집을 훑어가며 총정리가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결국 시험 당일 총정리가 끝난 셈이다. 마침내 우리는 100% 합격을 이루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교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축하받고….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33명만 남아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낙제하지 않기 위해, 100% 합격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낙오해도 우리는 1회이기에 숙명적으로 받아들기만 하였다.

나의 본과 시절은 솔직히 공부만 생각하고 공부만 한 것 같다. 그때 했던 공부 습관은 전공의 시절, 그리고 교수로 이어져 공부하는 것이 가장 편한 일이 되었다. 원서 읽던 습관은 전공의 시절에도 계속되어 서울대 전공의와 토론하며 서울대의 환상을 지울 수 있었다.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지만 짧은 시절 공부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수련이요 자신의 완성이다.

그리운 어머니의 강, 태계여!



2기 곽호순

곽호순병원

어머니의 강, 태계로 돌아오다

나는 지금 40년이란 세월의 파도를 헤치고 그리운 어머니의 강을 찾아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고 있습니다. 내 몸은 은빛 비늘로 덮이고 내 등에는 물결을 닮은 늘씬한 지느러미가 돌아 40년 동안 넓은 태평양을 헤엄쳐 다니다 이제 그리운 어머니의 강을 찾아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내 어머니의 강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4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길러 준 어머니의 강인 태계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애써 회상 하려고 끙끙대지 않아도 40년 동안 끊어짐 없이 생각들이 이어져 와, 마치 어제 일인 듯 쉽게 생각들을 여기에 풀어 놓습니다. 이제 내가 품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강에 포근히 안기고 싶습니다.

계명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할 하다

1980년 나는 계명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의 대학 생활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정열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꿈 많고 이마 푸른 80학번 새내기 대학 1학년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름 큰 꿈을 안고 입학한 대학 생활은 나를 조금은 들뜨게 하였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예과 입학생 80명 중 내 출석 번호는 2번이었습니다. 당시 출석 번호는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정해져 있었고 나는 내 이름 덕분에 2번이 되었습니다. 출석 번호 2번인 나는 지각이 많았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함 씨 성을 쓰는 친구와 잠시 짝을 내어 당구장에서 놀다가 수업시간에 쫓겨 급히 교실로 뛰어 들어가면 내 이름은 벌써 지나갔고 내 친구 이름은 아직 불리어지지 않았을 때도 더러 있어서 조금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학 1학년 새내기의 새로운 인생을 즐기기에 그깟 지각 몇 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멋진 대학 생활을 꿈꾸는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 꿈은 곧 군사 정권 아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80학번의 잔인한 5월

그 힘들고 두렵다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통과이레도 무사히 지나가고 이제 막 꿈에 찬 대학 생활을 시작할 무렵인 그해 5월이었습니다. 그 한해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이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학 입학시험에 ‘유신’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안심하던 그때 이후 1980년 5.18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가 바로 나의 대학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어두운 봄날이었으나 철없던 우리는 그 어둠을 잘 몰랐습니다. 1980년은 시국의 메케한 최루탄 냄새가 진동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최루탄 가스에 맞서고 투쟁하면서 대학 1학년 새내기 시절을 반납했던 우리는 참 불행한 학년이 분명 합니다. 이제 막 슬기롭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할 바로 그 어느 봄날, 학교 앞에는 처음 보는 검고 큰 무쇠 덩어리 탱크가 거인처럼 턱 버티고 서 있었고 학교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지랑이 아른대던 학교 캠퍼스는 총칼을 든 군인들의 군화발에 점령당하였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진 것이죠.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었습니다. 미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80학번 우리들은 그 봄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시위에 참가해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다음날 바로 군대에 끌려가 부모마저도 자식이 군대 간 사실을 모르기도 했다는 소문이 떠돌던 그런 시간의 물살에 우리는 떠밀려 흘러갔습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제적을 당하다

언제 학교 문이 열릴지를 모르는 우리 청춘들은 낮에는 최루탄 연기 속에서 투쟁을 하다 체포조인 백골단을 피하려 골목 안 막걸리 집으로 피신하였고, 야간 통행금지에는 고작 심야 음악다방으로 스며들어 맛도 모르던 커피 한잔의 쓴맛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폐교령이 약 4개월 이상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 갈 수 없었던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일이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학교 문이 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시간은 흘러갔고 학교 문은 열렸습니다. 비로소 학교는 열렸지만..., 나는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내가 제적을 당한 이유는 시국의 아픔에 떨치고 일어나 맹렬한 투쟁을 하다 당한 것이 아니라, 참 기막힌 사연이 있었지요. 나는 국가 유공자 자녀여서 등록금 내는 기간이 일반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1980년 그해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될 수 없었고 등록금 내라는 공고도 언제 날지 알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해 10월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필요하던 대학 1학년인 나는 그 슬픔에 빈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며 장례를 치루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기간에 등록금 공고가 학교 게시판에 붙었었다고 합니다. 나는 공고를 보지 못했고 등록금 미납인 나는 자동적으로 제적을 당했나 봅니다. 그동안 닫혔던 문을 다시 연 학교생활에서 출석부에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학교 행정부를 찾아갔고 내가 제적생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는 순간 큰 벽 앞에 선 듯 아득하였으며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계명대학을 떠나야 할 운명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일희 총장님 덕에 제적을 면하다.

이런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을 지루하게 나열하는 이유는, 당시 총장이셨던 신일희 총장님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제적 문제로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용기를 내어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 사정을 설명 했습니다. 총장님은 충분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라며 담당자와 같이 의논하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훗날 들은 얘기로는 교육부까지 보고된 사항이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총장님의 도움 덕분에 되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학적을 회복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어머니의 강이 되고 내가 그 강에서 헤엄치고 커 갈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총장님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도록 그 도움의 빚을 아직도 갚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아들들

‘Hipp-Sons(히포크라테스의 아들들)!!’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시작된 계명의대 그룹사운드 ‘힙슨즈’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사정권에 의한 휴교령 후에 다시 찾은 캠퍼스는 늦은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와 대학 가요제 대상 곡인 ‘나 어떡해’를 길거리 레코드 가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따라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생들은 그룹사운드라는 음악 그룹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흥내 내고 동경했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며 기타를 치고 목소리 터져라 하드락을 품어내고 허공을 향해 드럼 스틱을 휘두르던 멋진 그룹사운드들이 기존의 대학들에는 다들 존재했습니다. 우리 계명의대는 당시 막 역사를 만들어 나가던 처음의 발걸음이라 모든 서클 활동들이 다 시작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과 대학에도 그룹사운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학생들의 음악 수준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코드 하나 제대로 짚을 줄 아는 이가 드물었었고 피아노 건반 한 번 두드려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 열정 하나만큼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북이 찢어져라 정열적으로 드럼을 쳤던 친구는 지금은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고 선 굵은 베이스 기타를 맡았던 힘 좋은 친구는 산부인과 원장으로, 기타를 치던 친구는 해부병리학 교수로, 건반을 맡았던 키 큰 친구는 미생물학 교수로, 뒷일을 다 도맡아 하던 매니저 친구는 외과 의사로 지금은 다들 자랑스러운 전문가 길을 걷고 있죠. 나는 리더 싱어를 맡았고 나 역시 정신과 의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시절 악보 하나 없고 변변한 지도자도 하나 없던 시절이지만 우리들은 젊음의 정열 하나로 뭉쳤습니다. 같이 땀굴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며 한 곡씩 완성 해내던 그 보람은 아름다웠던 젊음의 기억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40년이 흘렀네요. 아직 우리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힙슨즈 활동에서는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습니다. 당시 젊은 청춘들은 그룹사운드가 젊음의 표현 무대였고 그렇게 멋있어 보였고 또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미친 해방구 역할을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마추어였지만 열심히 같이 땀굴었습니다. 당시 학교 안에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밴드

에게 연습실을 제공해 줄 공간은 없었습니다.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따따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습니다. 다른 그룹들에 비교해서 실력도 많이 뒤졌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몇 번의 연주회 후에는 많은 아쉬움은 남았지만 ‘하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억 속에는 공부보다 연주 연습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당연히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연극반 ‘양상블’

양상블은 우리 계명고대 연극반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연극반원이었습니다. 내가 연극반을 할 때는 ‘의예과 연극반’이라고 불렸습니다. 양상블은 그 훗날 후배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당시 ‘의예과 종합 예술제’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축제를 치러내야 했습니다. 이 종합 예술제에 연극이 빠질 수 없었지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연극을 하는 학생은 의식을 가진 학생이라는 등식이 은근히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연극은 시대의 아픔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이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대에 올렸던 작품은 제목이 ‘불면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

이 ‘불면증 환자들’이라는 희곡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문학도의 꿈을 꾸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문학도가 되고 싶었던 고등학생이 어떻게 의과대학을 들어 왔는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늦가을 어느 날 나는 경주에서 열린 백일장에 참가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는 결석 중이었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문과 지망생과 이과 지망생을 가리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흐름은 이과 지망생이 더 많았습니다. “기술을 배우자 기술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 아래 이과를 7개 반, 문과를 3개 반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날 결석한 학생은 당연히 이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취향과는 달리 이과 지망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진로가 결정되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지 ‘학원’이라는 곳에서 현상 문예를 실시했는데 내가 쓴 희곡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희곡 제목이 바로 ‘불면증 환자들’입니다. 등장인물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의과대학생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 정신과 의사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 제목이 나의 길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내 고등학교 시절의 아득한 과거가 소환된 이유는 바로 이 ‘불면증 환자들’이라는 희곡 작품이 의예과 종합예술제 무대 위로 올려 졌던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연극반 선배를 찾아갔고 주눅거리며 이 불면증 환자들이라는 작품을 보였고, 그리고 무대화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 1회 의예과 연극의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였으며 제 2회는 ‘불면증 환자들’이었으니 내 이름 석 자가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듯한 착각에 아직도 혼자

서 뿌듯해 합니다. 우리들은 의예과 종합 예술제를 열어야 했습니다. 이 단과 축제는 오롯이 입학생 80명인 우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작은 학생 숫자로써 여러 공연에 겹치기 출연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우리들은 힘들었으나 행복했고 신났고 그해 가을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훗날 양상블은 의식 있는 뜨거운 후배들의 활약으로 훌륭하게 거듭나서 너무 좋았고 부족한 선배로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라일락꽃을 본 적이 없다

당시 대명캠페스는 아름답기로 유명했으나 나는 교정에 핀 라일락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벚꽃 필 무렵부터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면 라일락이 질 때까지 시험을 치러야 하니 예과 2년간은 봄 햇살 한 번 못 봤다고 너스레를 떨고 싶습니다. 웬 시험은 그리 많은지, 시험 치고 돌아 서면 또 시험이고 하루에도 몇 과목의 시험을 쳐야 할 경우도 있었으니 계절을 찾아 즐기는 것은 나에게서는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한해 유급이 되는 그런 (끔찍한) 학칙을 가진 학번입니다. 해서 많은 과목들 중에 작은 것이라도 놓칠까 늘 두려움 속에서 지낸 학번입니다. 그러니 계절이 우리에게서 잘 맞지 않았고 옷이 우리에게서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도 더러 준비 안 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꿈을 꿉니다. 남자들에게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제일 악몽이라는데 내겐 준비 안 된 시험을 치는 꿈이 제일 악몽입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일어나면 꿈이라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많습니다.

재시는 기본이고 삼시는 선택이다

이 지긋지긋하고 징그러운 시험은 본과에서는 더 했습니다. 당시 우리들 사이에서 “재시는 기본이고 삼시는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늘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 모범생이라면 시험에 늘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나와 어울리는 친구들은 그런 모범생 부류는 아니었나 봅니다. 하루에 세 과목 정도의 시험을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준비가 덜 된 과목은 재시를 기대하며 나머지 과목을 위해 희생(?)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랬던지 시험 후에는 항상 재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대표가 제일 열심히 해야 하고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재시험 허락을 잘 받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에게 때로는 읍소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음주 가부로..., 과대표단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재시험 공고는 교실에도 붙이지만, 단골 당구장, 단골 다방에도 붙였습니다. 그래야 공고를 본 적 없다고 불만스러워하는 학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역시 재시험을 자주 치렀습니다. 방학인데도 시험 준비 한다고 늘 바쁜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얘야, 다른 집 아이들은 방학이라는데 너는 방학이 없니?”라고 물으셔서 입장 곤란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장학금 대상자 선발 시험을 치르는 중입니다.” 어머니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정색으로 제게 물으시는 겁니다. “애야, 재시가 뭐니?”

스프링 노트로 나타난 구세주

그때 시험 성적은 얼마나 자료를 잘 확보하느냐와 정비례했습니다. 당시 본과 수업은 하루 8시간씩 그리고 토요일에도 오전 수업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 빈틈없는 수업 시간이었지만 더러 청춘을 즐기려 수업을 땡땡이치기도 했던 ‘우리’에게는 수업 빠지지 않고 교수님 기침 소리까지 필기하며 게다가 글씨체까지 예쁜 한 여학생의 노트가 생명줄이었습니다.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스프링으로 갈피를 엮은 노트를 여러 권 사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그녀에게 바치는 것이 큰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간의 용돈을 거두었습니다. 왜냐면 자료 복사를 하기 위해 페이지를 넘길 때 스프링 노트가 제일 편했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가져다 바친 우리들에게만 복사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트는 전설이었고 우리들을 구제해준 구세주였습니다.

출석 번호 1번의 비애

나의 출석번호는 2번이었으나 곧 1번이 되었습니다. 1번이던 ‘강’ 씨 성을 쓰는 여학생이 한해 학교를 쉬는 바람에 제가 줄지에 1번이 되었습니다. 1번은 힘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각도 많을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큰 곤란은 제 출석을 대리해 줄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번의 대리출석은 들킬 위험성도 높은 데다가 교수님들은 출석을 부르실 때 1번은 꼭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에 시험감독 교수님들은 거의 항상 1번 책상 앞에서 신문을 보시거나 정답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까지 하셨으니, 어찌 그 뒤 시험 치는 악몽을 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시험은 1등 하는 학생에게도 공포였나 봅니다. 1등 하는 학생도 나에게 와서 “오늘 시험 무슨 문제 나올 것 같아요?”라고 더러 묻기도 했으니까요. 1등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다행히 비교적 강한 ‘멘탈’로 잘 견뎌냈나 봅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다

의대에 입학 후 지금까지 나는 시험에 임할 때 꼭 지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그 피바람 부는 유급의 칼날에서 나를 지켜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 울돌목 전투에서 왜병들이 급한 물살에 휘말려 들기까지 기다렸다는 심정으로 나는 시험 때 끝나는 종을 칠 때까지 꼭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12척의 배로 큰일을 해내신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부족한 준비로 이 많은 시험을 치르는 나로서는 이 전략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왜냐면 준비 많이 한 학생들은 일찍 답안지를 내고 복

도에서 서성이며 정답을 서로 맞춰 보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귀를 한껏 열고 복도의 말에 집중하는 나에게 뜻밖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먹을 수 있었죠. 그 덕에 몇몇 시험들은 재시를 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내 아들에게도 넌지시 전해준 시험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교정에 나무와 꽃을 심다

내 추억은 다시 의예과 시절로 돌아옵니다. 나는 대명캠퍼스에 많은 나무와 꽃들을 심었다고 자부합니다. 내가 특별히 ‘나무와 꽃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캠퍼스를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근로 장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 어울려 놀러 다니는 학생들을 등 뒤로 하고 학교에서 작업하시는 인부 아저씨들과 서로 리어카를 밀고 끌며 교정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꽃 심고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당시 이 근로 장학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과장님을 찾았을 때 “의예과 학생이 공부할 시간도 없을 텐데…?”라며 만류하시던 교수님께, 형편의 어려움과 공부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근로의 신성함(?)을 역설했던 덕분인지 다행히 ‘근로 장학생’의 자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독하시던 아저씨들이 얼마나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시던지 리어카 끌고 교정 이곳저곳을 짹짹 누볐습니다. 한번은 좋아하던 미술대학 여학생과 마주했는데 다행히 새마을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내 빨개진 얼굴을 못 봤으리라 추측합니다. 1980년대 대명캠퍼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에는 방과 후 리어카 끌고 교정을 누비던 근로 장학생의 노고도 일부 갈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고맙겠습니다. 훗날 더러 찾은 그 곳에서 내가 심었던 나무들과 꽃들을 보면서 혼자 흐뭇해하고 뿌듯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소변볼 때 꼭 정조준

드디어 본과에 진입했습니다. 유급의 칼날을 피해 비로소 1982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동산병원과의 합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에 우리들은 마음 졸였지만 훌륭히 잘 진행되어 우리는 동산병원 캠퍼스로 올 수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거대한 의과대학을 상상했으나 이게 어쩐 일! 의과대학 건물은 막 1, 2층 공사가 끝나고 3층, 4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니 변변한 화장실 하나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강의를 나온 강사 선생님의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이 학교는 참 이상합니다. 소변볼 때 정조준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바지에 다 튕니다.” 임시 화장실의 남자 소변기가 PVC 파이프로 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빗대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대의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 성서캠퍼스의 의과대학 건물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웅장함과 넉넉함 그리고 그 첨단 편의함은 세계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아마 최고 수준이 아닐까 추측 합니다. 이런 훌륭한 건물을 지어주신 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동산동 동산병원 캠퍼스의 언덕 위 막 짓기 시작했던 건물이었음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계명대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꿈이 한 층씩 높아졌으며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가는 계단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학생과 대퇴 골두(Femur Head)

본과생이 되고 나니 공부에 대한 부담은 더 했습니다. 본과 1학년에게 공부의 꽃은 아마 ‘골학’과 ‘해부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과 1학년에 진입하기 전부터 각 고등학교 동문 선배들에게 ‘골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선배들이 각각 시간을 나누어 맡아 본과에 진입할 후배들을 여관방에 몰아넣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어렵다던 골학을 가르쳤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잘 이해하지 못한 후배가 ‘남산 폭격 자세’로 벌을 받고 한쪽에서는 어려운 해부학 용어를 외운다고 중얼거리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며 나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모습이 정이었고 사랑이었고 동료 의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만, 그때 그랬습니다. 동문에 따라서는 골학에 사용될 진 뼈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진 뼈는 귀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공부가 안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동문은 그 진 뼈를 구하기 위해서 동문 선배 고향마을에 임자 없는 무덤을 늦은 밤 파헤쳐 그 뼈를 구해서 후배들을 가르쳤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시절입니다. 당시 본과 1학년은 정신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늘 멍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반 해리 상태’ 아닐까 추측 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보는 영어 교재, 처음 듣는 의학용어, 처음 보는 실험 도구 게다가 숨 쉴 틈 없는 수업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예쁜 여학생은 책가방에 골학 공부하던 대퇴부 진 뼈를 넣고 버스를 탔나 봅니다. 멍한 상태로 버스를 탔겠지요, 본과 1학년이니깐요. 사람이 봄비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 친절히 그 여학생 가방을 들어줬답니다. 그리고는 곧 아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 여학생을 쳐다보았답니다. 그 대퇴부 뼈의 머리 부분이 열린 가방 사이로 비집고 툭 튀어나왔단가요? 아연실색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멍한 표정의 여학생은 태연히 그 대퇴부 골두를 가방 속으로 수습하고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여학생은 교수가 되었고 지금 그녀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렸습니다.

살아 있는 두개골

골학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잘 드는 칼로 무를 자르듯 쉽게 학점을 날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골학 시험 중 ‘구두테스트’는 교수님 앞에서 해부학 용어 외운 것을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줄줄 외어야 통과할 수 있었는데 우황청심환 몇 개가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교수님 앞에서 해부학 용어를 외우고 있었는데 내가 들고 있던 두개골과 턱뼈가 서로 부딪혀 딱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하던 나도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린 탓이지요. “학생은 두개골이 살아 있는 것 같아, 그래 통과!”

88올림픽과 VIP석

해부학 사체 실습 때의 추억입니다. 같은 조 한 여학생과 함께 다음 날 있을 ‘땡 시험’ 준비로 열심히 사체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귀가하고 그 여학생과 나만 지하 사체 실습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겼나 봅니다. 작은 불을 켜 놓고 공부 중이었는데 순찰하던 경비아저씨가 문을 잠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메아리만 돌려 줄 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 해부학 실습실은 낮에라도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체들은 줄지어 테이블 위에 누워 있고 우리 둘은 지쳐 테이블 밑에 쏙그려 앉아서 ‘이제는 이 사체들과 밤을 새우겠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테이블에 올라가서 잘까...’라고 생각을 고쳐먹을 즈음 다행히 문은 열렸고 허겁지겁 나온 우리는 이른 봄날 새벽 차가운 바람 속을 뚫고 말없이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찬바람 속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앞으로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구나’라고. 제법 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슬며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88올림픽이 열린다고 다들 기뻐하던 시절이었고 내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88년도에는 나는 의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88올림픽 VIP석에 내 자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결국 88올림픽 개막식은 TV로도 못 보고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 그때의 예감이 맞은 것이지요. VIP석은 무슨, 88올림픽이 열린던 그날 나는 저녁도 굶었습니다.

일 잔 일 점

비가 오면 온다고, 날이 좋으면 좋다고, 하여튼 핑계로 때 되면 모이던 학사 주점 골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를 가던 일단은 부족한 안주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당시 안주라야 변변치 않았던 시절, 제일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안주발만 죽이는 (용돈 부족한) 후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몇 가지 주도가 있습니다. ‘일 잔 일 점: 꼭 한 잔 마신 후 안주를 한 점 집는다.’ ‘후래삼배: 늦게 참석한 자는 급하게 석 잔을 들이켜야 먼저 온 친구들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얼추 맞아 들어간다.’ ‘지부지처: 자기가 부어서 자기가 먹는다. 남이 나의 빈 잔에 술을 따라 주기를 기대 하지 말라’ 일단 마시고 나면 술값 계산의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은 탓에 결국 막걸리 집 이모에게 사정해서 외상을 할 수 밖에요. 그때 정표로 책을 잡습니다. 이때 주점 이모는 꼭 영어로 된 원서 서적을 잡습니다. 당시 원서 서적이래야 백 퍼 복사판인데 책 값 보다 술값이 훨씬 더 비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대생의 가오’로 기어이 술값은 갚고야 말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요. 어떤 이는 레지던트 고년차 될 때까지 학생 때의 술값을 다 못 갚았으나 주점 이모는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훈훈한 미담도 전해집니다.

마라톤 타자기

이 술값을 갚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몇 번의 경험을 하신 후에 학습화되어 지갑을 순순히 열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좋은 우리는 그에 대응하여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학교 교재비’라고 따로 서류를 만들어 마라톤 타자기로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기계 글씨를 박아 아버지께 조용히 들이밀었습니다. 손 글씨가 아니라 기계 활자에 부모님들의 의심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도 오래가지 못했으나 또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고 어떡하든 외상값은 갚아졌습니다. 통계학 시험을 치른 후에 우리들은 늘 학사 주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통계학 시험에 사용했던 전자계산기를 술상 위에다 모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면 그 전자계산기들을 술값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중 몇몇은 통계학 재시험을 치러야만 하고 재시험을 위해서는 전자계산기가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 전자계산기를 찾아오고, 말하자면 재시험 치는 학생들이 술을 사게 되는 나름 상호 부조 정신이었습니다. 술값이 아까우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었지요. 학사 주점 외상을 하는데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골목 제일 안 가게부터 외상을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모르고 골목 입구 가게부터 외상을 깔면 그 골목을 아예 들어서지를 못하게 되니 아쉬울 때 다른 가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누를 범합니다. 조심해야 할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학사주점 얘기가 제법 길어지니 ‘늘 술집만 다녔나 보다’라고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만,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시 비는 시간에만 다녔음을 밝힙니다.

졸업여행과 부곡하와이

부모님들과 용돈을 사이에 둔 배틀은 진화했나 봅니다. 본과 4학년 제주도 졸업여행 때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어느 동기 아버지 한 분이 막 제주도로 출발하려는 부산의 부두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태타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미 졸업 여행비를 넉넉히 받아쓰고는 실제 여행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제주도로 출발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어 부두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는 화난 모습으로 뒤돌아 가시고, 그 시간 그 아들은 ‘부곡하와이’라는 온천장에서 몇 장의 알리바이용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얘기는 전해지지 않으나 그 아버지의 대노하심으로 봐서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성장해 갔고 그리고 그 시절은 아름다웠습니다.

의대생의 자존심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

본과 생활은 기 · 승 · 전 · 수업, 기 · 승 · 전 · 시험 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토요일 4시간 수업을 하고 그리고는 시험이었습니다(나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많은 교수님이 그 많은 과목을 가르치시고 그 많은 어려운 시험 문제는 누가 출제하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서 밝혔던 대로 12척의 배로 끝까지 기다려 승리를 이끈 성웅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그 많은 시험들을 버티어 왔습니다. 당시 학장님을 맡으셨던 교수님이 계셨고 특

별히 그 열성은 대단하셨고 결국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분은 늘 교문 앞에 서서 우리를 훈계 하시고 옷매무새를 지적하시고 자세를 가르치시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의대생으로서의 자세와 자존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르치시기를 잊지 않으셨던 교수님. 당시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까다롭게 구시는 것 같아 싫었는데 참 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훗날 나도 어쩌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당시 그 분이 보여 주셨던 제자 사랑하는 그 열정은 절반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 고마움을 아직 다 갚지 못한 이 못난 제자를 용서 하소서.

꼬리 없는 사나이

신생 의과대학이어서 앞으로 훌륭한 대학으로 하나하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셨던 교수님들의 그 열정과 가르침과 사랑 덕분에 우리들은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신생 의과대학이라는 이유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중히 여기고 그 덕(?)에 또 많은 동기들이 유급을 당하는 아픈 이별이 많았습니다. 입학 동기 80명 중에 졸업은 약 5, 6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유급의 칼날이 무서웠습니다. 우리 중 유독 한 친구에게 ‘꼬리 없는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의 성적 이하로는 대부분 유급을 맞았기 때문에 그도 꼬리의 일부가 잘려 나간 것이 아닐까 해서 그런 별명이 붙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초창기 의과대학이라 유급의 바람은 살벌했고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는 유급의 공포에 성적 발표 때까지 가슴 두근대며 견뎌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의사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자랑스러운 신문의 기사를 얻을 수 있었나 봅니다. 우리들을 의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의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PK 실습

어설프지만 꿈에 그리던 흰 가운을 입고 대학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과 3학년이 되면 시작하는 소위 ‘PK 실습’이었습니다. PK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던 우리들은 처음엔 신났습니다. 그러나 3일 정도 지나서는 다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들은 교과서대로 아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PK 실습 때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회진 시 교수님 옆자리를 허락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써 주셨습니다. 학생 중에 앞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지고 몸집이 우람하던 친구는 회진 후에 갑자기 찾아온 환자 보호자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다음날 있을 수술에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환자 가족이 귀한 선물을 들고 그 학생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 학생의 외모와 회진 때 과장님 옆자리에 거룩하게 서 있던 모습을 보고는 부 과장 정도 되리라 짐작했을 것입니다. 학생인 것을 알고는 얼마나 허탈해하던지 그 모습이 아직 선합니다.

환자는 교과서대로 아파 주지 않는다

응급실 실습 때의 좌충우돌은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은 밤늦게 갑작스러운 하복부 통증과 오심, 구토를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아온 18세 가량의 청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어머니가 부축하여 응급실로 왔었고 바쁜 응급실에서 우선 PK에게 병력 청취를 먼저 하라는 오더가 났습니다. 나는 응급실 차트를 들고 호기롭게 그 환자에게 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촉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 친구가 있나요?” 아픈 얼굴에도 너무 황당한 질문인지 그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없는 데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나는 배운 대로 더 깊은 질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성관계를 하신 적이 있나 해서요. 이런 증상에는 꼭 확인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아, 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질문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하복부 통증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 당연히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당당했습니다. 곁에 지키고 있던 어머니도 심각하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아니지?” 그 소녀는 그 고운 눈망울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턴 선생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인턴 선생님은 소녀를 진찰하면서 다시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런 일 없다고 다시 곤혹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증상을 다 확인하고 정리한 그 인턴 선생님은 그날 당직 외과 전공의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외과 전공의는 눈꺼풀이 반쯤 내려 온 모습으로 응급실로 내려와서 이 소녀를 다시 진찰하고는 또 물었습니다. “혹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나요?” 그 소녀와 어머니는 세 번째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외과 의사는 산부인과에 의뢰하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소녀를 진찰하기 위해 슬리퍼 끌며 내려 왔던 산부인과 전공의 선생님의 마지막 그 질문에 그만 그 소녀는 아픈 것 보다 더 난처하고 곤란해서 울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화가 난 어머니는 “이 병원 의사들은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나 보지!”라며 흥분하는 모습을 뒤로 하고 나는 슬그머니 응급실을 빠져 나왔습니다. 내 뒷머리를 누가 낚아챌 것 같은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빨리 해서 그 곤란한 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교과서대로 물어봤을 뿐인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자장면은 맛있었다

PK의 눈에 비친 응급실은 생사를 좌우로 나누는 곳 같았습니다. 그 바쁜 응급실 일에는 PK들 손도 가끔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한번은 가까운 곳에서 버스끼리 부딪히는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 한꺼번에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나는 우선 급한 대로 환자들이 소리치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말없이 가만히 조용히 건디는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한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교과

서에도 없는 큰 것을 배웠습니다. ‘시끄러운 환자는 결코 중한 환자가 아니다.’ 그 난리를 치면서 밥때를 놓친 나는 잠시 잠을 내어 배달되어 온 자장면 그릇을 들고 조용히 인턴 선생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구석진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급히 자장면 한 그릇을 해치우고 흔적 없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내 눈에 침대 위 하얀색 시트에 쌓여 있는 주검이 보였습니다. 방금 숨을 거둔 환자의 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어진 그 시신 발치 아래에서 자장면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과 함께한 만찬이었고 무서웠지만 그러나 불어 터진 그 자장면은 참 맛있었습니다.

교지편집위원회

당시 우리들은 험한 별판에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숲을 헤치고 덩굴을 걷어 내며 발이 빠지는 늪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동료들의 어깨를 서로 기대어 가면서 그렇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후배들이 걸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들이 떼는 발걸음이 다 역사가 될 것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있었습니다. 험한 돌을 갈고 다듬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계단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1983년 가을이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대표하는 교지가 필요했었고 학교 측에 그 필요성을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교지를 창간하기를 허락받고 ‘교지 편집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교지 편집 위원회’ 그 이름은 거룩했지만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모든 경비를 학교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측에 사정하여 겨우 얻은 편집실이라는 공간은 7층 동물 실험실 한 구석이었고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임시 칸막이로 공간을 막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크게 써 붙여 두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물 실험실에는 예민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서 소음을 내면 안 되고 또한 난방도 많이 할 수 없는 곳이며 동물들 냄새로 힘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손발이 얼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추위를 견디며 교지 창간을 위한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멋진 교지를 만들 것이라고 학교 측에 큰 소리 땡땡 치고 ‘편집비’며 ‘인쇄비’를 학교에서 제공받기로 약속 해 놓은 상태이니 나는 그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 친구를 찾아가 편집을 도와주기를 부탁하여 마음을 얻었고 능력 있는 후배들 몇을 직접 찾아가 협박 반 애원 반으로 다행히 동참을 약속받았습니다. 드디어 ‘교지 창간호 편집 위원’이 구성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창간호를 만들면 된다, 만들면 된다… 만들면 된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길은 절벽이고 가슴은 막막했습니다. 큰소리로 장담하며 자신만만했던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불안해지고 자신감 없어지고 신뢰감 떨어지는지… 나는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 추운 날, 당시 학장님이 예고 없이 편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활발한 토의와 자료 수집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편집실을 기대하셨는지, 텅 빈 곳에서 혼자 멍하게 앉아 있는 나를 보시고는 허탈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시고

내 어깨를 한 번 툭 쳐 주시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는 사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많은 사람과 했던 약속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작은 교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앞으로 우리 계명의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막중했고 영원하여야 했습니다. 그 의미와 깊이와 뜻이 남 달라야 하고 우리들이 기꺼이 부르고 또 남들에게 불리어져서도 자랑스러워야 할 이름이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찾으려고 없는 돈에 현상공모까지 하였으나 쉽게 얻어지지 않는었습니다.

‘태계(苔階)’를 얻다

그해 겨울 어느 눈 오는 밤. 그날은 유난히 추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힘없이 같이 편집 일을 하기로 했던 친구의 하숙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둘이는 말없이 눈 오는 창밖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계명의대는 신생 의과대학이고 앞으로 역사와 전통을 쌓아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높은 곳을 향해서 큰 발 걸음들이 이어질 텐데…”라는 생각에 도달했고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밟아 가는 디딤돌이 필요할 것이다. 그 디딤돌이 될 계단을 우리 손으로 쌓고 그 계단 하나하나가 이어지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고 분명 우리보다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그 길을 밟고 오르면 세월은 흘러 그 틈새에 푸른 이끼가 끼일 것이다. 친구여 어떤가!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라면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이름을 만들자. 찾아보자. 그것이 바로 계명의대인의 이름이 될 것이다.” 당장 두 사람은 국어 대사전을 펴 놓고 그런 이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이름 “태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국어 대사전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끼가 낀 계단’이라는 뜻의 ‘태계(苔階)’라는 명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태계’라는 이름을 처음 만난 순간 가볍지 않았고 낯설지 않았으며 거만하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태계’는 우리를 대표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 태계란 이름이 자랑스럽게 불리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질 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유난히 춥고 쓸쓸했던 그 날이었지만, ‘태계’라는 이름을 선물처럼 안고 들뜬 마음으로 눈길을 밟으며 돌아오던 길은 잊을 수 없습니다. 눈 덮인 친구 하숙집 돌계단을 내려오면서 창간호를 추진할 힘을 얻었고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앞으로 태계가 불리어 질 많은 날들을 상상하면서 늦은 밤 편집실로 숨어들어 갔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은 편집실이었지만 마음속에 맴도는 ‘태계’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빨리 풀어내고 싶어 작은 촛불을 켜고 “태계란 험한 돌을 지혜와 의지의 끌로 갈고 다듬어…”로 시작하는 명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태계’를 얻었습니다. 그 후 창간호의 편집일은 추진력을 받아 조금씩 진행이 되었고 동료들이 응원해 주고 후배들이 뒤를 받쳐 주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창간에는 당연히 어려움은 있었지요. 학교 측과 편집비, 인쇄비를 교섭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취재 경험 없는 어설픈 르포 기사들, 편집

의 미숙함, 편집 위원들 밥 값 걱정 등 수월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창간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는 일이었고 결국 태계 창간호는 만들어졌습니다. 창간호를 만들 인쇄소 선정도 학교와 같은 재단인 경북 인쇄소로 제한되어 있었고 종이 질이나 컬러 비율도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드디어 1984년 6월 태계 창간호가 탄생했습니다.

태계는 길이다

태계는 돌계단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작은 손으로 험한 돌을 깎고 다듬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길이 되려 함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더 나은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밟고 올라가면 역사는 흐를 것이고 처음 깎은 돌계단 틈 사이로 역사의 푸른 이끼가 자랄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한 길이었고 가야 할 길이었고 후배들이 따라 올 길이었으므로, 우리는 소홀하지 않아야 했고 비틀거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태계는 처음에 작은 돌계단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40년이 지난 역사가 그 푸른 이끼를 드리우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길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 길을 놓던 우리들은 이제 역사의 푸른 이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이 튼튼한 돌계단은 또 다른 역사로 이어지고 그 길을 걷는 태계인들은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태계의 명제

40년의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 왔지만 이제 어머니의 강, 태계에서 이렇게 내 기억을 풀어 놓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편히 깃들려고 합니다.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 뜻을 세우던 진리만은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태계의 명제를 이 곳에다 새깁니다.

< 苔階(태계)의 命題(명제) >

苔階(태계)란,
 험한 돌을 지혜와 의지의 끌로 갈고 다듬어
 이 땅에 人間愛(인간애)에 입각한 醫師像(의사상) 확립을 위한
 무너지지 않는 계단(階)을 쌓고자 함이며,
 훗날, 계단 그 틈사이로
 歷史(역사)의 푸른 이끼(苔)가 자랄 때
 진리와 정의, 사랑을 실현 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이 되려 함이다.

Anima cantus -영혼의 노래

3기 김광인

안동제통의원



1980년 안동 촌놈이 호기롭게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 Y대 의대에 도전했다. 국·영·수 실력만 믿고 수도권 의대에 도전하였으나 낮은 예비고사 성적이 발목을 잡았다. 보기 좋게 낙방하고 집안 형편상 재수는 힘들다는 아버님의 엄명 하에 후기 S대 공대에 입학하였다.

집안 눈치를 보며 틈틈이 재수준비를 하는 중 하늘이 도와 1학기 말 6월 중순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씨가 고맙게 전국 대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어 노량진 대성학원에서 반수의 길로 들어섰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실력이 느는 듯했으나 다음 해 본 고사는 없어지고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역시나 예비고사 성적은 단 5점 오르는데 그쳤다. 대부분 성적이 올라 SKY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위로를 뒤로하고 대구 계명대 의대로 진로가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대구 계명대 대명 캠퍼스에서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의예과 내에는 많은 써클이 있었으나 교회에 다니던 나는 비슷한 성향을 지닌 친구들과 계명대 음악 써클인 GLEE 합창단에 들어갔다. 타 대학에 다니는 예쁜 여학생들도 만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니 꿈만 같았다. 마침 음악대학이 우리 예과 강의실 부근에 있어서 음악 수업 도강을 들어갔다가 음대 교수님으로부터 여학생 보러 왔냐는 핀잔도 들곤 했다. 그러나 합창단 생활은 음악 수준도 높고 공연도 다니곤 해서 음악적 소양을 많이 키울 수 있어서 마냥 좋았다.

의예과 2학기가 되어서 새로 과 대표를 뽑는다고 하여 대학물을 먼저 좀 먹었다는 호기와 재수생 출신 친구들의 부추김에 힘입어 용감히 과 대표 선거에 나가서 쟁쟁한 대구 친구들을 누르고 과 대표에 선출되었다. 2학기 의예과 예술발표회를 준비하는데 남성중창을 넣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같이 GLEE 합창단을 하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남성중창단을 만들었다. 소프라노 이형직, 박정호, 알토 박현찬, 권경익, 테너 김광인, 박찬훈 베이스 조성수, 황재석 지휘자 조성범, 반주자 권치환 등 수업이 비는 틈틈이 음악대학 빈 피아노 연습실을 찾아서 중창 연습을 하였다. 엄격한 지휘자의 스파르타식 연습에 힘이 들고 서로의 의견 충돌 때문에 다투기도 했지만, 실력은 날로 향상 되었다. 드

디어 예술발표회 당일에 까만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 모두같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불렀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환호하는 학우들과 관중들의 반응을 보니 대성공 만세였다. 중창단원 열 명의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내친김에 모두들 의기투합하여 의예과 중창단을 만들자고 하였고 중창단 이름은 박찬훈이 제안하여 라틴어 anima (영혼) cantus(노래) - ‘영혼의 노래’라는 뜻으로 ANTUS로 정하였다. 의과대학 음악 씨클 ANTUS는 이렇게 탄생되었다. 그 후 결혼식 축하 무대, 캠프 워크, 미군 교회 예배 방문 등 우리를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가서 남성중창 화음의 참맛을 보여주었다. 1982년 예과 2학년 여름 계명대학 본대 음악 축제에 남성중창으로 경연에 참가하였다 그 당시 계명대 내에는 노래 잘하는 학우들이 무척 많았다. 여성중창, 남성 보컬 트리오, 솔로 가수 등 많은 팀이 출전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우리 ANTUS의 출전 곡은 “아! 목동아”였다. 한여름 밤 어스름푸레한 무대 조명을 등지고 서로 반짝이는 눈망울로 싸인을 맞추며 가슴의 소리를 불어내었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짜마다 울려 나오고 ~~~~~

경연이 끝나고 입상 팀을 발표하는 순간 금상, 은상 두 팀이 남았다. 아나운서의 외침, 은상에 의예과 중창단 ANTUS——. 야호~~~~

모두들 얼마나 흥분하고 신이 났던지…. 그 후 후배들이 들어와서 ANTUS는 남녀 혼성 중창단으로 바뀌었으며 매년 가을 음악 발표회를 하며 씨클 활동을 하고 있다. 의대 본과에 들어가서는 학업 때문에 씨클 활동을 잘 하지는 못하였으나 중창단 명목으로 친구들과 틈틈이 무대에 서며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세월이 흘러 전공의 군대생활 봉직의를 거치며 노래는 잊고 지냈다. 그러다 고향 안동에서 안동 제통의원으로 통증 의학과 병원을 개원하여 지내던 중 안동시 의사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안동시 의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하던 중 잊고 지냈던 노래가 생각났다. 노래를 좋아하는 선후배 개업의들을 섭외하여 안동시 의사회 중창단을 다시 금 창립하였다. 그해 가을 10월 중창단 자선 음악 발표회를 목표로 하고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진료 후 2시간씩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가을 성공리에 공연을 마치고 모여진 자선금으로 노인정, 복지관 등을 찾으며 노래와 함께 자선활동을 이어갔다. 그 후 8회까지 공연을 하고 연습에 지친 단원들의 요구에 중창단의 활동은 휴가 중이다.

지금도 늦은 오후 진료를 하다가 지치면 진료실 창가에 앉아 40년 전 대명캠퍼스 노천강당 무대를 떠올리며 ‘아! 목동아’를 읊조려 본다. 젊은 청춘의 힘이 휘몰아치던 그 여름밤의 무대가 눈앞에 생생하다.

이처럼 운명처럼 ANTUS는 영혼의 노래로 나의 의사 생활을 즐겁게 신나게 멋있게 이어주고 있다.

하루하루 설렘으로 즐겁게 살아가기를



3기 이원석

창조피부과의원

1981년 의예과 시절 대명캠퍼스에서의 2년간의 시절이 아련하게 그립기도 합니다. 대학원 앞 벤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마셨던 커피믹스 한 잔, 짜이네 분식점, 단과대학 간 체육대회, 학점 묵숨줄(?)을 쥐고 있는 특정 교수님들의 위세(?) 속에서도 강의실과 당구장, 바둑 두는 단골 다방, 막걸리 주점, 테니스장 등에서 보낸 눈부신 청춘 시절이 옛 그제 같습니다. 동산병원 본과 시절엔 짧은 역사를 지닌 학교의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교수, 학생회, 재학생 모두 내심 걱정과 불안감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태계 회보, 신문 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종 동아리 활동이 모든 게 처음 시작할 때 전통과 이전 발자취 없이 시행하기엔 많은 헌신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몇몇은 교수로서, 행정가로서, 문예인, 철인 3종, 예술 분야, 봉사활동, 의료기기 제조 등 각 분야에서 보람된 일을 찾아서 멋진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묵묵히 열심히 진료에 전념하는 동기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그립습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개원한 지 근 28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에 피부과 개원의 학회에 참여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 나이보다 젊은 선배 의사들을 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이유로 학회에 나오시나 솔직히 이해가 안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젊은 의사로서의 잘못된 판단을 미안해하며, 제 자신이 열심히 학회에 참여하여 배우며 오랫동안 도움 주는 의사가 되려 합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감사하게도 나의 능력 보다는 염치없이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을 만나보면 평온하고 온유한 마음이 얼굴에 묻어나는, 신실한 믿음의 빛이 상대방에게 비치는, 내 친구 누구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이더군요.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던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란 직업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이 무엇에 진정 행복함을 느끼는 건지, 또한 그 행복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고민하고 찾아내어 하루하루 설렘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해 끼치지 않으며 남이 봤을 때 좋은 삶보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삶이 낫지 않을까요? 칭찬에도 들뜸이 없고, 비난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며, 걸어 가보지 않은 길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기회가 오면, 당당히 선택하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의과대학시절을 기억하며

4기 김진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1982년, 104명의 신입생들이 계명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다. 각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발전하여 온 동산병원이 있는 계명의대 입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나는 주저함이 없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계명대학교가 성서캠퍼스로 이전했고 의과대학도 최신식 건물로 지어져 2010년도에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오랜 숙원이었던 새 병원건립도 2019년에는 완성되었다. 이렇듯 동산병원의 확대 개원을 통해 계명대학교는 계속 발전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병원을 이 지역에 허락하신 한국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음이 틀림없다.

돌이켜보면 82학번인 우리는 대명캠퍼스에서 의예과 1학년, 성서캠퍼스에서 의예과 2학년, 동산병원이 있는 동산캠퍼스에서 4년의 의과대학공부를 마친, 세 캠퍼스 모두에서 공부를 한 유일한 학번이었다. 아름다운 대명캠퍼스에서 꿈 많던 의예과 1학년으로 지내다가 새로 지은 이공대학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광활한 성서캠퍼스로 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시외버스를 타고 다녔던 의예과 2학년 시절은 쉽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면 신발이 진흙탕물에 빠졌고, 근처에 문화시설이라곤 거의 없어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캠퍼스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렇게 38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절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다소 여유롭던 의예과 생활을 지나고 본과로 가기 전, 겨울방학 동안 그룹으로 인체의 뼈를 들고 배우던 골학 공부, 고귀한 기증인의 인체를 통해 배우던 해부학 실습, 현미경을 누비며 땡시험(?) 치던 병리학실습, 생화학, 생리, 약리학 등 기초의학 공부를 하던 본과 1학년에는 넘치는 공부량에 의과대학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를 바쁜 시간 중에도 고민했었다. 연휴 뒤에는 어김없이 시험이 있어서 연휴를 고스란히 공부에 할애 한 시간들이었다. 바쁜 중에 즐기던 동아리 활동들은 탈출구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의대생 동아리 CMF에서 인도해 준 신앙의 길은 지금도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다. 의과대학 도서관 가까이

있던 제일교회에 주일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다.

교수님들의 가르침도 많았지만 동기와 선배들로부터 받은 도움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장학금 유지를 위해 공부에 몰입한 탓에 소홀했던 동기들에 대한 배려는 미안함으로 남아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덕분에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이다. 2013년 5월, 의과대학 졸업 25주년 홈커밍에서 동기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의젓하고 당당하게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감사했다. 이제 기독 정신으로 설립한 계명대학을 졸업한 모든 분들이 복음을 믿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나의 학창시절을 추억하면서



4기 유한목

유한마취통증의학과의원

나는 1982년 봄에 계명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다. 우리 대학의 후문에 있었던 심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먼 곳으로 가서 대학 생활의 자유와 꿈을 꿀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토요일 4교시에 졸다가 가끔씩 죽비로 법사(스님이 아니라)님께 어깨를 맞았던 불교 학교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대학으로 입학했다. 대학을 입학한 후 연애도 하고, 그냥 잘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우연하게 기독교가 궁금해서 가입하게 된 기독교 동아리(그 당시는 서클이라고 했다)와 철학 수업을 들은 후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나의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갑자기 진지해졌다. ‘나는 왜 공부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였던 의과대학의 김대광 교수는 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장학금 받아야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의예과보다 철학과와 신학과 수업을 윤주영 친구와 함께 청강하고 같이 다녔다. 우연하게 밤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폴 티리히(Paul Tillich)’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 폴 티리히 제자인 계명대 신학과 신유길 교수님의 강의는 내 인생을 바꾸었고, 목요 철학 교실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불꽃처럼 살다 간 전해린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와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였다. 20대 청년은 이런 질문을 안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40년간 치열하게 살았다. 어언 40년이 지나서 이제 한 달 후면 60대가 된다. 까만 머리 총각은 이제 흰 머리가 더 많다. 인생은 참 짧다. 이 지구별 여행을 마치기 전에 나의 사명을 찾아서 오늘도 길을 나선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낙타의 삶을 거부하고 사자의 삶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초인을 갈망한 니체처럼 그리고 절대 자유와 깨달음을 얻은 부처와 예수를 따라서 내 삶을 살고 싶다.

시 한 편을 소개한다.

티벳에서 <이 성선>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꿈꾼다

설산

갠지스 강의 발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생의 꽃 봉우리로 오른다

그러나

그 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짐을 지고 이 고생이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늘 20살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82학번으로 입학한 나의 동기들의 삶에 건투를 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묘비명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니코스 카잔자스키의 묘비명으로 다음과 같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두 번째는 전 서울대학교 소화기학 정현채 교수님의 묘비명을 소개한다.(아직 생존하고 있음)

‘우리는 모두 무제한 여권을 가진 시간 여행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과 즐거움이 함께 했던 인생수업을 마치고

본향으로 복귀합니다.’

환대



5기 손기철

전인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과 1학년을 마무리한 저는 1983년 12월 말 전라남도 목포에서 뱃길로 6시간 떨어진 추자도라는 섬으로 아버지와 낚시를 갔었습니다. 감성돔이라는 당시에는 몹시 귀한 고기를 잡으러 떠나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낚시를 하던 중 새해를 맞아 그곳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러한 외딴 성당에서 꼭 필요한 사제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심어진 그 생각은 졸업할 무렵까지 자라나 인턴 대신 신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마친 후 가톨릭 신학대학으로 입학하게 되어 동기들이 각과 전문의로 멋지게 비상하던 1999년에 천주교 사제로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환자분들을 진료할 기회는 없었지만 십수 년 간 병원행정 직무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곤 합니다. 먼 길을 가는 이들이 지치고 배고파 찾아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 반기는 ‘환대’라는 뜻을 지닌 ‘hospitality’에서 나온 hospital 이라는 말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루가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러한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당해 초주검이 된 환자를 아무 연고도 없던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로 드레싱을 하고 응급 차량이라 할 만한 나귀에 태워 hotel에서 치료를 이어가게 해 줍니다. 오늘날 병원의 원형을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역시 그러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음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보곤 합니다.

되돌아보면 흙먼지 날리던 성서캠퍼스 앞 개천에서 실습용 개구리 잡던 시절이 선연히 떠오릅니다. 논밭을 헤치고 겨우 잡은 개구리를 삶아 가느다란 뼈에 실을 이어 각 명칭을 고이 붙였던 밤도 기억납니다. 동산캠퍼스 지하 해부

학 실습실을 드나들며 맡았던 포르말린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필기를 제대로 못 해서 늘 시험기간 언저리에 지하 상가 복사집을 드나들고, 날밤을 새우다 강의실 의자에 웅크리고 잠들었어도 결과는 시원찮았던, 끝없는 허들도 떠옵니다. 그래도 묵묵히 함께 해준 친구들 덕분에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명의대를 졸업한 천주교 사제인 병원 행정가로서 일해 오는 동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사제로서 병원 미션에 얼마나 충실한지, 행정가로서 병원경영을 위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답 없는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병원에서 잔뿌리를 내리도록 젊은 시절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많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계명의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후배님들~^^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 고이 키우셔서 의사로서 만나시게 될 환자들에게 따뜻한 hospitality를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그리움과 설렘

6기 문성희

IPN Medical Group/Eltham Melbourne Australia



2004년 4월 11일 동이 났다. 나는 밤새 애간장을 태우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부스스한 눈으로 세수는 하는 등 마는 등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아이들을 뒤로한 채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멜번 시내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가 달려간 곳은 전날 임상 실기시험(호주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쳤던 ‘로얄 멜번 아동 병원’이었다. 그 병원 로비에 시험 결과 공고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나의 수험 번호를 발견한 순간 난 울음을 터트렸고 한참을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남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연신 흘쩍거리고 있었다.

USMLE 성적이 여기 호주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 영어시험은 물론 필기시험까지 새로 치러야 했었다. 학창 시절에 해주는 밥 먹고 공부에만 신경 쓰던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곳 낯선 환경에서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순간순간의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기억들이 뇌리 속을 스치며 내 눈물샘을 자극했다. 하지만 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눈물도 마르기 전에 일찌감치 체감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좋게도 수련병원에 임용이 되어 전공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수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 중 1년을 자진해서 응급의학 수련을 받았다. 왜냐면 남편이 그동안 애들을 돌보기 위해 동생한테 치과를 맡기고 한시적으로 머물러야만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기간에 수련을 끝내야만 했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로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 단번에 표가 난다’면서 어느 주부들처럼 투덜거렸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곤 한다. 태어나서 내고향 청도와 대구 외에는 가본 데도 별로 없고, 길 잃어버릴까 봐 서울 가기도 겁내던 전형적인 촌 아가씨였던 나. 외국 생활에 유년기부터 관심이 많았던 남편 덕분(?)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떨결에 나오긴 했지만, 친구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던 나한테는 모든 게 낯설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결코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더욱이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짧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인과의 교제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다.

내가 학창 시절부터 켈 싫어했던, 내 성적을 다 깎아 먹은 영어가 물귀신처럼 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줄을 꿈에서라도 상상이나 했었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외국 생활을 갈망하던 남편은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고 주로 한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고, 정작 외국 생활에 관심조차 없던 나는 우여곡절 끝에 fellowship 시험도 마치고 지금은 내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가정의로 일하고 있다.

가정의로 일하던 첫 몇 년간은 외국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규제로 인해 저녁 시간에만 일을 해야 했었다. 그래서 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던 아이들을 막 사춘기로 접어드는 예민한 시기에 저희들끼리 덩그러니 내팽개쳐놓고 저녁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다.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 지금은 나의 좋은 친구들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버릇처럼 시간이 나면 타임머신을 타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곤 한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내 손에는 빗바랜 졸업앨범이 펼쳐져 있고 나는 회상에 잠기곤 한다. 예과 때부터 영희와 승은이랑 유난히 같이 붙어 다니곤 했다. 언젠가 예과 2학년 막 하숙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다. 뜨거운 보일러 방바닥 때문에 발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이차 감염으로 아프고 발등이 붓기 시작했다. 아직 의학 지식에는 문외한이었던 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아픈 걸 꼭 참고만 있었는데, 영희가 수업 없는 시간을 이용해 성서캠퍼스에서 시내버스로 한 시간 거리인 동구에 있는 언니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지금까지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맘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싶다. 영희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

승은이는 나에게 있어 참 특별한 친구였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6년 동안 힘든 일 기쁜 일들을 많이 공유했었고, 같은 ANTUS 중창반이라 여름방학이면 공연 연습 때문에 거의 매일 만나곤 했었다. 세월이 지나서 짝을 못 찾아 평생 독신녀가 될 뻔(?) 할 수도 있었던 나는 승은이 어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을 일찍 떠나버릴 줄이야. 내가 떠나오기 이틀 전 시내에서 만나 석별의 정을 나눈 게 아직도 눈에 선한데... 너무 보고 싶다. 승은아!

이렇게 '그리움'이 많은 나에게 얼마 전부터 그 그리움이 '설렘'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게 될 여행이 마치 추석이나 설날에 새 옷을 사서 머리맡에 개켜놓고 잠을 청하던 어린 시절의 그 들뜬 맘이라고 나할까?

'설렘'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희망이 담겨져 있어 나는 그 '설렘'이라는 우리말이 너무 좋다. 오늘의 이 설렘은 10년, 20년이 지난 뒤 또 하나의 그리움이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설렘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추억을 맞이하러가겠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에도 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설렘들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젊은 날의 에피소드 원

6기 백승호

명안과의원



그래, 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젊다는 것 말고는 가진 것 하나도 없던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시험공부 한다고 벼락치기 하면서 끙끙대던 때만 빼고 말이다. 본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였던 것 같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재시자 명단이 교실 게시판에 쪽 걸렸다. 혹시나 하고 봤다가 역시나 재시가 걸렸던 어느 날이었다. 기억하겠지만 재시는 보통 첫 수업 전 7시쯤 아침 일찍이 있었다. 나는 다행히 다음 날 신경외과 재시를 겨우 저공비행으로 피하고 술이 먹고 싶어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6층 의과대학 도서관에 가보니 이런, 이영주 학생이 열심히 다음 날 재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주야, 술 한 잔하러 가자. 오늘 내가 살게” “아냐, 널 재시라서 공부해야 된다.” “야 임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나. 오늘 내가 산다니깐. 내가 언제 술 사더냐? 가자 딱 한잔만 하자. 그라고 쪽 훑어보면 된다. 알콜이 좀 들어가야 달달하이 공부가 되지. 짜식이 다 알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영주 학생을 30분 가까이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꼬드겨서 우린 경대 축제를 구경하러 갔었다. 거기서 먹었던 막사(막걸리+사이다)가 어찌나 입에 짹짹 달라붙던지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새벽 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때서야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시험 준비하러 가야겠다며 황급히 일어서던 영주를 “그래, 시험 잘 쳐래이.”라며 보내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 보니 벌써 와서 재시를 쳤어야 했던 영주가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시험 시작 30분이 지난 7시 반쯤에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헐레벌떡 교실에 들어온 이영주가 시험지를 받아서 한참을 보고만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한마디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라. “백승호 이 x새끼”

물론 이영주는 신경외과 삼시를 쳤다. 며칠 후 방사선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재시를 치게 된 나는 의과대학 도서관을 피해서 대명동 도서관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 누군가 내 어깨를 톡 치는 게 아닌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영주가 썩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한참 찾았다 아이가 가자. 내가 한잔 살게.” “응? 그래 알았다” 그길로 끌려간 나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고 물론 삼시를 쳐야 했다. “에구 에구.”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



6기 여준기
여준기내과의원

할배, 우리 할배는 좀 엄하신 편이었다. 일가 어른들에게까지 불호령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였으니. 나 역시 할배 밑에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긴 곰방대를 무셨고 갓을 쓰셨고 사랑방에 늘 거처하셨다. 예의를 중하게 여기셔서 손님이 오시면 일부러 불러서 절하게 하셨고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다음 만나면 꼭 절 해라 라는 당부 말씀까지. 길 가다가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절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웠다. 어느 날부터는 저 멀리 오시는 모습이 보이면 먼 길로 돌아서 오기도 했었다. 대학 다니면서 간혹 고향 집에 가는 날이면 늘 나를 불러서 여러 가지 물으신다.

의학과 2학년 다닐 때, 나를 찾으시기에 사랑으로 건너가니 거기 좀 앉으라고 하셨다. “그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고” 하신다. “예, 약리학도 배우고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배웁니다.” 하니, “그러면 생리학이란 무엇인고?” 하신다. 당황해서 대답하였다. “예, 인체의 온갖 장기와 조직 구조물들의 작용 원리와 기능의 원리에 관해서 배웁니다.” 하니, “그래, 그러면 병리학은 뭐 하는 공부고?” 하신다. “예, 그것은 병이 생기는 이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나는 대로 답하였다. 땀이 났다. 잘 모르고 또 많은 양을 외우고 시험치고 또 새로 진도 나가고. 그러기에 바빠 무엇을 공부하나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 할배의 나에 대한 관심이었고 나의 성취를 위한 배려였었다.

선배님들 말씀으로 의학과 2학년때는 병리학이 죽여준다 한다. 공부할 것이 많다는 의미였을 테지. 마침 나는 병리학 교실원이 되었다. 병리학 교실원 방이 따로 있었고 병리학 실습 시간에 조교 선생님을 도와 무언가를 하곤 했다. 당시 전자현미경실이 따로 있었고 엄하시기로 소문난 정재홍 교수님께서 늘 그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 궁금했으나 소심한 나는 감히 연구실에 들어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멀리 계신다고 느꼈었다. 어느 날 정재홍 교수님이 교실원을 식사에 초대 하셨다. 보통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집으로 오라 하셨다. 친구 집에서 밥도 먹곤

하였지만 그렇게 집으로 초대받기가 처음이었고, 또 그것도 대화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교수님 집으로....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큰 시험을 앞둔 듯이 좀 긴장되고 그랬다. 사모님이 마중 나오시고 교수님께서 일일이 다 소개시켜 주셨다. 사모님께서 준비한 음식은 말 그대로 진수성찬이었다. 성주 분식에서 먹던 라면 혹은 라면 밥이 주식이었던 내게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은 그냥 그림인 듯 느껴졌다.

정재홍 교수님, 말씀을 천천히 하신다. 그리고 명료하고 참 이치에 맞고 또 가만히 듣다 보면 재미난다. 식사 중 이런 저런 이야기 있었다. 자네들 흑룡강, 쑹화강 이런 이야기 들어 보았나 하신다. 만주 땅 기차 타고 갔다는, 또 산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긴장해 있던 나는 궁금했으나 잘 여쭙지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했다. 참 바보 같았다. 어리바리했던 나,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여쭙어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요즘 역사책, 기행문 등 접하면서 왜 그때 그러지 못 했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내 얇은 지식으로 감히 여쭙지 못하고 듣기만 했었다. 하루 저녁 식사시간. 짧은 시간이었으나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교수님의 그 웃음과 다정함을 잊지 못했다. 학교 다니면서 정신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내던 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이는 느낌도 들었다. 마음이 얹혔던 나로서 그날의 식사 초대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었다. 다들 그랬을 테지. 정신없고 바쁜 날들을 보냈었다. 89년 9월인가! 의과대학 시절이 끝나갈 무렵, 히말라야, 계명대학교 등반대 히말라야 등반 인솔 책임으로 떠나신 정재홍 교수님께서 허망하게 주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눈물이 난 것은 아니었는데 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고령이었음에도 산악인으로서 멈추지 않았던 선생님의 삶. 그리고 의학도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선배님으로서의 치열한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까지 보여 주신 선생님의 삶을 생각하고 속이 울컥했다.

한동안 잊고 지냈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돌이켜 생각하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많은 분의 관심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사한 마음에 글을 쓰다가 한참을 그렇게 멍하게 앉아있었다.

어리바리하고 속없던 나. 글을 마무리하려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 또 적는다. 의예과 시절 동기 친구가 봄바람이 들었는지 예쁜 여학생을 보았는데 말도 못해봤다. 어떻게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연결될 수 있게 해 달란다. 속맥이었던 나는 당황했다. 33번 버스 타고 성서까지 온단다. 인문대학 다닌다고, 어느 날 면데서 길가는 그 여학생을 발견하고는 내 옆구리를 찌신다. “그래! 시험 끝나고 내 어떻게 해보게!” 그랬다. 그렇게 한동안 내가 시달리다가 언제 부턴가 이 친구 관심이 다른 데로 가고 나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소심했던 나는 한 번 말 걸어보지도 못했으나 아직도 그 여학생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모자란 데가 많았다.

나의 지도교수님, 임만빈 은사님을 회고하며.



7기 김성미

마음과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홈커밍데이 행사를 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입학 후 흐른 세월이 자그마치 30년입니다. 이 많은 세월을 우리가 정말 지나온 것인가요.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연락되지 않던 동기와 소식이 닿았고 은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시 뵈게 되었습니다. 은사님의 인자한 주름살과 은빛 머리칼은 더 친근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했습니다. 학문과 개인적 성취의 정점을 넘어서 관용과 나눔의 위치에 계신 모두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경외과 임만빈 교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임 교수님은 저의 의대생 시절 지도교수님이셨습니다. 내과 의사인 김영국 동기, 한빛안과 김종욱 동기, 서대구병원 원장 서인엽 동기 4명은 교수님의 지도학생이었습니다. 본과 1학년 때 처음으로 교수님 방으로 인사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소독약 냄새가 매캐한 병원의 긴 복도를 지나서 교수님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습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교수님은 은빛 신사의 머릿결을 가지셨고 두툼한 안경너머 두 눈은 더 작아보여서 엄청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첫마디에 그런 긴장감이 이내 녹아버렸습니다. 구수한 충청도 말투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소박함으로 촌놈 4명을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셔서 학문이나 수술 분야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고 계실 때였습니다. 합천에서 대구로 온 영국이에게 “넌 축구 잘 하는구나. 공 잘 차게 생겼네!” 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주신 근사한 저녁 식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대구 귀빈 예식장 근처에 있던 일식집으로 초대해주셨습니다. 2층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아담한 다다미방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기모노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일본 여인이 부채를 든 그림이 있었고 은은한 조명에 우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으로 가 본 고급 일식집 분위기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종류의 요리와 사시미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사케를 시키시고 술 마실 줄 아냐고 물으셨고, 영국이는 잘 마신다고 대답해서 몇 잔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정

하셨고 공부에 치인 우리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본과 3학년 때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하려면 지도교수님의 도장을 받아서 휴학계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휴학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제게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았고 지루해진 게 휴학의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 앞에서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얼마나 시건방지고 엉터리였는지 낫이 뜨거워집니다. 선생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성미, 내년에 꼭 다시 보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를 설득하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방황하는 여학생의 마음을 헤아려주신 듯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고요하게 진심으로 격려해주셨고 저의 독특함과 다름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봐주셨습니다. 복학하고 정신과 전공의를 하면서도 언제나 자랑스러운 은사님이었습니다.

2016년 4월 홈커밍데이 준비를 위해 임만빈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 분은 폐암 말기 상태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고 혼자 걷기도 버거워했습니다. 입학 30주년 뜻있는 행사에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댁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모님께서 모시고 나오셨고 힘겨워 보였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워하셨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홈커밍 행사에 참석은 할 수 없지만 선생님의 육성 메시지를 녹음해서 인사말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준비해 오신 인사말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선생님의 아픈 모습에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헤어지면서, 행사 장면을 영상에 담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등이 조금 굽은 선생님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홈커밍데이 행사도 하기 전에 교수님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교수님의 육성 메시지는 남아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준영 교수님께서는 ‘나는 고쳐주고 당신은 떠났다.’고 하시며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6년이 흘러 우리는 무심히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는 세상을 조롱하듯 오르락내리락 힘을 과시합니다. 누군가는 병을 얻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혼으로 불행해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 어느 날, 짹짹하게 맑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민트색 하늘이 갑자기 위로로 다가와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선생님, 의사의 길에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고, 나무 같이 의지가 되어주셨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40주년 즈음에 계명의대



7기 류영욱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우리 계명의대 7기 졸업생은 지금부터 36년 전 1985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의과대학은 의학과부터 소속되기에 신입생은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소속이었다. 우리가 다녀야 할 곳도 시내에서 가까운 대명동에 있는 예쁜 캠퍼스가 아니라 대구의 서쪽 맨 끝 변두리에 있는 성서캠퍼스였다. 처음 와보고는 대부분의 동기가 그렇게 느꼈을 듯이 나도 적잖이 실망했다.

시내버스 종점으로 주위가 완전 자연 그 자체인 산과 들, 논과 밭이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보이는 건물이라곤 단출하게 3개 동이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캠퍼스였다. 지금은 50 중반을 넘긴 나이가 되니 이러한 자연이 더 좋긴 하지만 스무 살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갈 리가 만무했다. 2년 과정만 지나면 시내에 있는 동산캠퍼스로 옮겨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며 생활했던 기억이 난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2021년 성서캠퍼스는 당시에 비하면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했다. 시내에 있던 모든 단과대학이 들어서 큰 캠퍼스로 변모하였고, 2010년에 의과대학은 동산캠퍼스에서 성서캠퍼스로 옮겨 왔다. 특히 2019년에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 동산병원까지 이곳으로 옮겨와 지금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

나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영광스럽게 모교에서 의과대학 교수와 동산병원 진료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개원의로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6년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오늘까지 대학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의대 교수와 개원 의사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 둘을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 단정하긴 힘들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모교로 돌아왔는데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지며 나한테 더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보아 아직

까지는 지금 생활이 더 맞는 거 같다. 이유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한번씩 캠퍼스 안을 걸어 본다. 의예과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이곳에서 이젠 흰머리가 희끗한 모습으로 명상하며 걷다 보면 감개가 새로울 때가 무척이나 많다. 옛날 어릴 때 살던 고향을 찾아가 걸어보는 느낌과 비슷할 거 같다. 걷다 보면 없어진 건물도 있고, 논밭과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서관이며 많은 단과대학 건물을 보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건물이 헐려 버렸는데, 학생회관 옆 식당 밑에 의예과 밴드 동아리 연습실이 있었다. 의예과 2년의 시간을 대부분 거기서 지낼 만큼 애착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통로 때문인지 없어져 버린 걸 보니 아쉬움이 든다.

예전에 운동장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인문대 옆의 공간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1985년도 인문대 중문학과 체육대회에 흥을 돋우러 당시 의과대학 소속 밴드의 활동대로서 참석하여 연주했다. 마지막 뒤풀이 때 술기운에 이성 줄을 놓은 몇몇 학형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고 어찌다 보니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시 수적으로 열세였던 우리는 싸움이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도망치기에 바빴다. 나중에 집에 가야 하는데도 버스 정류장이 달랑 하나뿐이어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무리들 때문에 한참을 못 가고 쫓면서 숨어 있다가 마지막 차를 타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함께 생활했던 우리 학번 동기들이랑 같이 한번 여기를 걸어본다면 교정에 잠들어 있는 많은 추억이 피어날 것 같다. 의예과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 학번 동기들이 겪었던, 지금도 마음 아픈 사연이 하나 생각난다. 그 당시 의예과는 교양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도 공업 수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등은 교양이라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의 과목이었다. 적지 않은 동기 학생들이 의예과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의학 교육이 시작되는 의과대학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한해 더 재수강을 해야 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제 나도 정년이 10년 남짓 남은 중견 교수이자 의대 학사행정에 참여하여 부학장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교육자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니 그 당시에 그런 과목으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물론 지금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똑같은 기준으로 35년 전의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스무 살의 꽃다운 청춘들이 너무나 약한 명분 때문에 감당하기 벅찼던 시련을 겪었다는 게 아직까지도 유감이다.

이글의 청탁을 받고 난 후 우연히 정리 중에 우리 동기들 의예과 수료 여행 사진을 보게 되었다. 지금 보니 그때 나

이가 현재 우리 자식들의 나이보다도 더 어릴 때인 만큼 무척 젊고 생생하고 예뻐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여서 적잖이 놀랐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동기회에서 서로서로 만나곤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조금씩 늙어가나 싶었는데, 과거의 사진을 보니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도 그만큼 늙어 버렸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 가슴이 멍해지며 숙연해 졌다.

계명의대의 역사가 시작 된 지 이제 40주년을 맞았고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으로 발전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반면에 그만큼 역사가 쌓이는 만큼 여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다고 생각하니 인생무상이다. 나는 앞으로 우리의 계명의대가 훌륭한 의대로 계속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인생의 종반에 이르렀을 때 한때 여기에 몸담았던 것에 큰 자부심과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국에 40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최근 의학 교육에도 교육학이 도입되어 예전에 우리들이 받았던 도제식에 가까운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대학은 이제 없다. 의학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 후학들에게 기본적인 의학 교육도 중요하고 향후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헤쳐 나갈 능력도 길러주어야 하기에 잘 짜인 의과대학 교육과정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현재 많은 교수진이 노력하고 있고 학생도 잘 따라와 주고 있다. 뜻깊은 40주년을 자축하여 기념하고, 앞으로 발전해가는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하는 계명의대가 되기를 마음깊이 바란다. 입학한 지 36년 이 지난 우리 7회 동기들은 선배의 입장에서 이들이 잘 커나가 우리 대학을 더 발전시킬 인재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과대학 동아리, 91년도 상반기 학생회장 활동



8기 김민수

창원 숨편한내과의원

저는 의대 8기로 입학하고 동산병원에서 내과 전문의와 호흡기 전임의를 거쳐 창원파티마병원에서 10년간 호흡기 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도부터 창원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은 작년부터 미국에서 대학원을 시작해 학업과 연구에 정신없이 바쁜 아들과 올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딸에게 그동안 자세히 얘기하지 못한 저의 대학 생활이 앞으로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1986년 학력고사를 마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부친의 권유(?)로 서울 S대학교 공대를 지원했으나 낙방 후 후기로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의과대학에 입학한 저는 학과 공부보다는 동아리 생활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현재 앙상블인 의대 연극반에서 본과 1학년까지 매번 방학이 되면 연기자로서 “한씨연대기”, “일요일의 불청객”, “정의의 사람들”, “The good doctor” 등 지금은 잘 다루지 않는 무거운 주제의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습 중간에 MT로 함께 여행한 소백산의 겨울 눈 천지와 남해 금산 앞바다의 겨울바람, 그리고 공연 후 갖는 종파티의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극반 동아리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모 선배님으로부터 당시 운동권의 필독서인 “전태일 평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을 읽으면서 사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진보적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학생회(SCA)에 들어가서 타 대학생들과 연합 활동을 하였고, 반정부 시위대로 참여하면서 혹시 전경들이 다칠까 봐 돌을 살살 던졌던 기억들, 그리고 YMCA에서 야학 교사를 하면서 젊은 노동자들과 어울렸던 경험은 아직까지 뇌리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동아리 생활과 여름방학이면 매년 갔던 농촌봉사활동으로 학과 공부에 소홀하게 되어 의학과에 올라가서는 학업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은 지금 아내가 된, 의예과 때 과 페스티벌에서 만난 친구의 파트너를 사귀면서 또 의학과 2학년

말경에 여러 동아리의 추대(?)로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회기 변경으로 임기 6개월의 학생회를 나름 즐겁게 꾸려나가다가 임기 마지막에 겪게 된, 고 강경대 학우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서 계명대학교 전체의 수업 거부와 의과대학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호적인 교수님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수업 복귀를 요구하고 학생들도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서로 반목하게 되어 결국 많은 후유증을 남긴 채 수업 복귀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 당국에 운동권(?)으로 찍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경험을 뒤로 하고 의학과 3학년 후반기부터는 공부에만 전념하였고 임상실습과 국가시험, 인턴, 결혼과 공중보건의, 그리고 레지던트, fellow를 거치면서 병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집과 직장에만 생활이 한정되어 지내다가 8년 전 개업한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 연극반 선배들과 정기적인 골프 모임으로 만나게 되고 SCA 멤버들과도 독서 모임을 하고, 내과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현재 경남개원내과의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남짓 살았지만 여러 가치 있는 경험의 대부분을 대학 시절에 하였고, 현재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도 대학 때 만난 사람들이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대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식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시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학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또 전문가인 의사로서의 지식과 소양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환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도 가지기를 기대하고, 요즘도 옛 시절을 그리면서 자주 듣는 정태춘, 박은옥의 “92년 장마, 종로에서”(우리는 동성로에서) 곡을 듣기를 추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나의 긴 대학 생활, 끝나지 않은 고민

8기 허정국

구미 큰나무정형외과의원

의예과 2학년 2학기 물리학 기말시험에 난 늦었다. 시험 시작 십 분 전이라 서둘러 자연관 건물 모퉁이를 돌아가다, 창밖에서 동기들이 가득 찬 강의실 안을 보았다. 그 안은 시험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난 왠지 슬픈 미시 감에 사로잡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시험장 강의실 창밖에 선 채로 결시를 하고 말았다. 물리학의 과락으로 나의 길고 긴 학창 시절이 시작되었다.

몇 달을 거슬러 그 해 1987년 6월에, 알고 있던 세계는 이미 무너졌고 나의 사춘기도 끝이 났다.

그러나 찾아온 것은 어떤 희미한 확신도 신념도 아닌 혼란의 아노미뿐이었다. 호헌은 철폐되었으나 독재는 타도되지 못하여 오히려 쿠데타 신군부는 승인받게 되었고 버젓이 한국 정치의 한 축이 되었으니, 난 그만 최루탄 날리는 길에서 방향을 잃었다.

1988년 봄, 의예과 87학번 후배들이 전방 군사 훈련 입소를 거부하며 대명캠퍼스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마침 전국적으로 몰아친 대학교 학내 민주화 운동과 만나 의예과 주도로 대학 본관 점거까지 이어졌다.

불과 의예과 2학년들이 아무런 선배의 지원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 1학년을 데리고 초유의 이런 사건을 저지를 때까지는 말할 것도 없이 내부적인 난상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이야 어떻게 되든 할 일은 해야 하니 87년의 경험으로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본관 행정실로 점거해 들어갈 때 당황하면서 어이없어 하던 간부급 직원의 표정이 아마 학교 당국의 심정이었으리라.

뒤이어 합류한 총학생회와 함께 사학 비리 척결, 총장 직선제,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내걸고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시 의예과 2학년 거의 모두가 단식 투쟁을 했었다. (그때의 총장님이 여전히 지금의 총장님이라는 건 난해한 현실이다.) 수업 거부 상태였으니 우리는 매일 대명동 교내를 행진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한 여학생이 단식으로 탈진해 동산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고, 하소연하거나 나무라는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난처한 상황의 빈도가 조금씩 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숙한 우리로서는 생각보다 버거운 투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시 의예과의 숙소로 간주된 카펫 깔린 총장실에서 우리는 모색하고 서로 위로하며 많은 밤을 새웠다. 이러한 한 달 이상의 긴 싸움은 절반의 성공으로 마감되었지만, 각자 깨어난 자기의식 속에 작은 불씨로 살아, 이후 수년 간 일부는 더욱 전위적인 학생 운동으로 이어지고 일부는 노래패, 놀이패, 학보사, 의료연구회 등을 비롯한 의대의 대표적인 진보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난리를 겪고 진입한 본과에서 강렬한 나의 첫 기억은 아름답게도 마땅히 해부학 실습실이었어야 했으나 불행히도 선배들의 군기 작업이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선배들의 고성에 황망하게 다들 책상 위에 꿇어 앉던 중, 나는 어쩔 줄 몰라 머뭇거리다가 태도 불량으로 지목 당해 몽둥이로 맞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고교 동아리에서 이미 겪었던 폭언과 매질에 대한 향수조차 느낄 만큼 익숙했던 나였지만 대학에서의 폭력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고 그로 인한 인지 부조화는 일 년 내내 이겨내기 어려웠다. 이승환 선배의 학생회에 막내로 들어가 상주 여름 농활을 같이 하며 선배, 동기, 후배와 우정어린 땀을 섞고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았고, 안투스에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불러댔지만 결국 2학년 초에 휴학을 하게 되었고 어찌어찌하여 당시 막 창간되었던 한겨레 신문사 만촌동 지국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새벽마다 만나는 조선일보 꼬맹이랑 오토바이를 달리며, 신문 접어 2층 베란다 현관에 던지기, 1층 대문 밑으로 깔아 던지기 경쟁하던 시절이었다. 배달이 끝나면 경리 아가씨가 끓여 준 라면을 먹고 클래식이 흐르는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하는 맛에 학교 생각은 까마득히 멀어지고 있던 무렵 어느 비 오던 날, 마지막 배달처인 신일 전문대 교정을 달리다가 젖은 도로 방지턱에 미끄러져 오토바이가 넘어진 일이 생겼다. 반경 5미터에 흩뿌려진 신문을 등고하던 학생들이 주워다 주며 마치 ‘힘내세요’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데, 그 젖은 종이 몽치를 들고 나도 학생이었다는 낯선 기억을 떠올렸다.

이듬해 다시 2학년이 된 나는 총장실을 접거했던 뜻 맞는 친구들과 학생회장에 출마했다. 그 해 1991년도는 간호학과가 90학번을 1기로 의과대학에 편입되어 의대 학생회가 두 개의 학과를 아우르는 새로운 상황이었다.

이 전까지는 의학과 2학년의 주류 학번이 학생회장을 역임하여 사실상 의학과 2학년 대표에 다름없었지만 달라진 상황에서는 간호학과 학우가 비중 있는 유권자가 되었기에, 관련된 생소한 공약 개발과 간호학과 강의실 유세도 중요한 선거 운동이 되었다. 다른 그룹으로 출마한 후배이자 동급생들과 경선하는 전례 없는 복학생의 입장이 곤혹스러웠지만 의료연구회 주관 후보 토론회, 등하교 유세 등을 거치며, 아마도 의대 사상 가장 열띤 선거를 나름의 간절함으로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우리 학생회가 추구했던 가치는 공동체적 시민 의식이었고 그 방향은 연대였다. 의대 울타리 밖은 정치와 사회 문화가 요동치고 있는데, 의학도로서, 미래의 의료인으로서의 시민 공동체적 소양은 거의 요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한 출발점이었다.

그 실천으로, 내부적으로는 의대 문화라는 미명으로서 용인되어오던 선후배 간 학내 폭력을 근절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학우들의 일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동아리실과 휴게실 식당 공간을 정비하였고, 가든파티로 불리우던 대학 축제 등의 여러 행사들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대동제로 바꾸려 시도하였다. 단편적 기억으로 대동제 때, 당시 가격으로 이천만 원이 넘는 디지털 영사기를 대여해서 영화제를 열었는데 예산을 아끼려 우리 간부들이 공사장 비계를

빌려와 밤늦게까지 야외 무대와 스크린을 세운 일이 떠오른다. 이 스크린이 밤사이 바람에 무너져 또 밤새 복구했던 일은 우리에게 건축학적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외부적으로 계명대 여타 계열 단대와 함께 한 간호학과 신입생 경주 OT를 비롯하여, 타 대학 보건 의료계열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대구 경북 보건 의료계열 대학 협의체(간호학과 포함 대구 3개 대학 의대, 영남대와 효성여대 약학대)도 만들어 내었다.

우리 학생회의 마지막 사업은 이 협의체로서 5개 대학이 함께 이루어낸 연합 농촌 활동이었다. 간부 두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상황을 점검해야 할 만큼 넓은 지역에서 각 대학에서 온 많은 학우들이 낮엔 밭 메고 매일 밤 보건 의료의 전망을 토의하던 보람 찬 날들이었다. 농민회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이틀을 먹고도 남아서 별식으로 먹었던 풍요로운 날들이기도 했다. 여느 종합 대학의 농활을 넘어서는 인원과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해당 성주 지역 농민회와의 공동 작업과 주민의 환대는 참여한 모든 학우 각자에게 뜻깊게 새겨졌으리라 믿으며, 협의체의 각 대학 학생회에게는 임기 중 가장 보람찬 사업으로 평가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이자면 임기가 끝난 3학년 2학기에도 난 아직 의사가 될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고 그리하여 다시 휴학하게 되고 다음 해 복학하여 졸업한 후 모교 동산병원에서 인턴의를 수행하던 중 수련의 선배에게 거친 폭행을 당하고 회의를 느껴 수련 부장 교수님께 정중히 사표를 전하고서야 나의 학창 시절이 진정 끝났다.

나의 긴 학창 시절을 정리하면서 떠오른 수많은 친구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생회를 같이 한 정순재, 류진균, 김주성, 김용훈, 김형수, 이정은에게는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지난 해 공공 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의대생 투쟁 소식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을 때 우리 동창회 단톡방에서 후배들을 자식 걱정하듯 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도 잊고 지내던 학창 시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대학 시절 찍은 가족 사진 속에 서 있는 젊은 나는 왕성한 고전적 자유주의자였으나 그 사진 속에 앉아있는 아버지보다 더 늙어버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소심한 소확행 속, 나의 정신적 퇴행을 오히려 즐기며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강자가 약자에게 무자비한 공정을 요구하는 메마른 신자유주의를 호흡하고 먹고 마시면서도, 그 매트릭스 안에서 난 아무것도 모른 채 하며 눈 감고 있지 않은가. 누구도 내게 나무랄 이 없는 나이가 되어 스스로 채찍을 들지 않으면 살아있다 말하기 어려우리라 반성해 본다.

검증 없이 쓴 글이라 오류가 많이 있더라도 그저 소설이라 감히 양해 구하며, 개인사를 통해 공적인 학생회의 활동을 소회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오도하거나 폄훼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모교의 빛나는 모습을 남기는 기념비에 얼룩이 될까 주저되기도 하지만 여기가 종착지가 될 수는 없음에 다가올 미래를 기약하는 이정표로써 나의 기억을 제술한다.

그리운 학창 시절과 사람들

9기 송광호

송광호의원



난 1987년도에 입학했다.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다. 대명캠퍼스에서 성서캠퍼스로 이전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성서캠퍼스 주위로는 변변한 건물도 없어서 간이 천막 분식점에서 과 친구들과 라면, 떡볶이를 사 먹곤 했었고, 당구를 치려면 두류 네거리까지 버스를 타고 나와야 했었다. 주변에서 자취생활 했던 동료나 선배들은 그때 등록금으로 학교 다니지 말고 자취방 찾아가던 그 무덤길, 발길을 사들길 하는 뻔한 후회의 한탄을 해대곤 한다.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서 50사단으로 1주일간 군사훈련을 갔었다. 의무적으로 숙제처럼 부과된 과 여학생의 한 통 위문편지를 받았다. 별 감동도 없는..., 그래도 그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싶어 몇 번을 읽곤 했었다. 받은 위문편지 숫자가 곧 인기투표와 같은 것이었다. 맘에 두고 있던 여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답답하고 힘든 일과도 즐거웠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씨클은 연극반에 들었다. 연극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으면서, 선배들 얘기 들으면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다. 선배 명령으로 시내 극단에서 하던 전국 연극제 출품작에 동네 사람 6번으로 엑스트라 출연하기도 했었다. 며칠을 대명동 노천강당과 시민회관을 오가며 연습을 쫓아 다녔었다. 다행히 대구 대표작으로 뽑혀 전국 연극제 본선에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엑스트라였던 나까지 전국 연극제에 같이 가자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물론, 학업 때문에 따라갈 입장도 아니었지만... 연극을 마치고 종파티에 끼어서 저녁 얻어먹고 그걸로 나의 프로 극단 생활도 끝이었다. 지금도 좀 궁금하긴 하다. 그때 내가 했던 동네 사람 6번은 사라졌을까? 아님, 현지에서 다시 잠깐 구했을까?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대구 시내에 있던 YMCA에서 3개월간 근로청소년 야학 영어 선생질도 했었다. 가난하여 제대로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야학 교실을 열어 몇 가지 과목을 가르치는 목적이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YMCA에서 간사를 맡았던 선배들이 노동자들 의식, 사상 교육을 할 목적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당시 YMCA 건물 뒤편에는 막걸리 집 ‘곡주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가끔 야학 선생질을 했던 경북대 사범대 선배들과 어울렸었다, 남자 선배 1명, 여자 선배 3명이었다. 당시 예과 1학년 때라서 여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을까? 내가 술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알았지만 설마 여자보다 술을 못 먹을까 싶었다. 호기롭게 여 선배 한 명과 술 대적 시합을 했고 곧 나의 선입견은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그 선배는 그날 무섭게 말술을 먹었고 기분 좋게 웃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설움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같이 술 대적을 했던 그 선배의 결혼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직업도 명확하지 않은 문화 운동을 하는 나이 차이도 많은 남자 선배하고의 결혼식이었는데, 가벼운 한복을 입고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다. 여선배의 부모님이 많이 섭섭해한다는 얘기를 언뜻 하객들의 대화에서 들었다.

자신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당당히 결혼식장을 걷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은데... 아빠는 예쁘고 똑똑한 딸을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할 것인가? 그런 기회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멍청한 남자에게 줘 버리다니... 그 선배는 지금은 그때 일을 후회할까? 아님, 아직도 그게 최선이였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용돈이 궁하던 때여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과 동기 2명이랑 1학년 겨울 방학 때 대명캠퍼스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도 했었다. 3명의 투자금을 모아 함께 칠성시장에 가서 고구마 굽는 기계를 사고 고구마도 한 상자 사서 큰 꿈을 안고 장사를 시작했던 것 같다. 기술도 없고 싸구려 고구마 통의 성능도 좋지 않아서 고구마를 맛있게 구워 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한다고 우리가 파는 고구마에는 젓가락 구멍이 뚫려 나 있었다. 도서관을 찾은 낮 익은 과 선배를 만나면 반가워하며 강매를 했었다. 식사 시간에도 고구마를 누가 들고 갈까, 손님이 올까 불안해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을 배달시켜 추운 맨바닥에서 먹곤 했었다. 보름 정도 했을까? 도저히 수지타산도 안 맞고 우리 고구마를 사 먹는 고객에게도 미안한 맘이 들어서 장사를 접기로 했다. 고구마 통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골목에 몰래 버리고 3명이 분식집에서 밥 사 먹고 당구 한번 치니까 보름간의 수익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었다. 돈을 번다는 게 생각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도 일을 했었다. 앞산 쪽, 남구 쪽이었던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선배의 지령이었다. YMCA에서 알던 선배였는데 노동운동 경험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취업을 하라는 거였다. 여름방학 때였다.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도 없었지만 선배 말에 떠밀려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당시 야학에 다녔던 노동자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의 도색 부였다. 손상된 부위를 기술자가 소위 빠다 칠 하고 나면 보조인 내가 열심히 사포질하고 반듯해지면 그 위에 기술자가 도색을 하는 것이었다. 가끔 차 바닥도 녹 방지를 위함인지 정

체불명의 검은 액체로 스프레이 칠하는 일도 했었다. 가끔 차주들이 깨끗이 칠해달라고 담배 1, 2갑을 몰래 건네주기도 하였다. 내가 이런 뇌물에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고 속으로 그랬지만 아무래도 신경은 좀 더 쓰였었다.

여름 땡벌에 물 적서가면서 사포질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전적으로 이게 내일은 아니었기에, 잠시 머무는 정류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비판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일은 했었던 것 같다. 나는 대학생이라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러 왔다고 얘기했다. 도색 부에 있던 총각 기술자 형님도 생각난다. 외모는 좀 거칠어 보였지만 정직하고 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첫날 멋모르는 나에게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공짜로 사 주었었다. 사업장 주변 식당은 원래 그렇게 음식이 맛있는가? 아님, 직원들을 위해 따로 밥을 장만하는가?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다. 그 형님은 사무실에 경리로 있던 여직원과 사귀는 것 같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 같이 결혼해서 어딘가에서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 며칠을 일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지나 학교가 개강했다. 난 집에서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가 아닌 정비소로 출근했다. 부모님은 물론 몰랐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땡벌을 피해 차 밑 그늘에서 혼자 까먹었다.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학습 커리큘럼도 없는, 그야말로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황당한 마음도 들고 해서 개강 1주일 뒤에 학교로 복귀를 했다. 지금 생각해도 왜 현장에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학교까지 결석해가면서... 스스로 깨우치라고 나에게 화두를 던진 건가? 1주일 늦었지만 학교로 돌아오니 좋았다. 내가 있을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나를 안정되게 해줬다. 급여는 한 달을 못 채우고 나와서 이것저것 제하고 13만 원 받은 것 같다. 적은 액수였다.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한 노동치고는...

내가 입학하던 1987년도엔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학교가 휴강하는 날이 많았고 대명캠퍼스는 최루탄 가스가 난무했다. 그 당시는 왜 휴강에 강력하게 찬성표를 던지고 등록금 인상에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을까? 지금 되돌아보면 사회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마음은 순수했다고 핑계를 늘어놓지만...

공보의 첫 월급으로 180만 원을 집사람에게 안겼을 때 그 기뻐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13평 좁고 허름한 관사 아파트였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었던 것 같다. 그 당시보다 버는 돈은 몇 배가 늘었지만, 그때만큼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다. 자본의 많고 적음으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려 하지 말고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으로 함부로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한다. 요즘도 가끔 주위에 그런 제스처를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 일지도...

학창 시절 잠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림다.

87학번의 기억



9기 이병철

의성 해안병원

지금도 나는 동기나 후배들 사이에 빨갱이로 불린다. 물론 비난이나 비아냥거림은 아니다. 우리의 대학 초년이 요동치던 역동적인 역사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왔고, 그 흔적들이 지금의 별명이 되어 남은 것이다. 입학 첫해인 1987년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그 해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강한 인상을 남겼고,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했다.

성서캠퍼스 백은관 301호 강의실에서 동기들과 인사 한번 나눈 뒤로는 줄곧 강의실보다는 길거리에서 동기들을 봤다. 동성로 육교 밑에서 수고한다며 주먹밥을 돌리던 아주머니와 빌딩 창문 너머로 두루마리 휴지를 잘라 꽃가루처럼 뿌리며 함성을 쏟아내던 넥타이를 맨 샐러리맨들. 그때는 모두가 모든 것을 나누었던 때였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격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했는지 지금은 그 느낌조차 가물거리지만, 나의 대학 생활의 초년은 그런 기억들로 채색되어 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부르짖으며 마치 내가 아니면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설쳐대며 동성로를 헤매고 다녔다. 그렇게 4.13 호헌선언을 시작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6.10 항쟁을 거치며 뜨거운 한 해를 보낸 나는 그해 말이던 1987년 12월 16일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다. 초등학교 선생조차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신경을 써야 했던 시절, 무사히 선거가 끝났다는 안도감을 안고 술자리를 가졌던 아버지는 시골 관사의 부실한 난방설비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돌아가시고 다음 날 쿠데타 군인이 다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21년 10월 27일, 오늘 나는 쉼을 훌쩍 넘긴 중년이 되어 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무게감이 한결 가벼워졌다고는 해도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버지의 34번째 기일을 한 달여 남긴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대통령이 되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 그게 벌써 34년 전의 일이라니... 그 한 해 동안의 뜨거운 열정과 아픈 좌

절이 가슴 한구석에서 오랜 흉터처럼 오버랩된다.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어서 철없던 시절의 나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다. 어떤 이들은 그 시대의 우리를 젊은 혈기와 치기 어린 영웅심으로 기억하고, 어떤 이들은 역사적 사명감으로 기억할 것이다. 서로가 옳다고 우기면서 많이도 소란스러웠던 날들이다. 대의에 동참하지 않은 이기주의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철딱서니 없는 영웅주의자라고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다. 개인적으로도 딱히 하나로만 표현할 수는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남아 있는 날들이다.

하지만, 결국 1987년은 행복한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과거들을 떠올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술자리에서 가볍게 한 말들로 인해, 낯선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히 누리는 자유들이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대학 초년생이었고, 박종철이 죽고, 이한열이 죽고, 아버지가 나를 떠난 그해가 1987년이였다. 비록 정치군인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그 해가 마감되기는 했지만, 198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그 결실을 누리며 살고 있다.

400년 이상 역사를 이어가는 의과대학이 되길.



10기 정우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의과대학 40년사를 기념하는 글을 적고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자니 10회 신입생 때로 돌아간 듯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30대를 벗어나 40대에 접어드는 순간 상당히 복잡한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제한된 인간사와는 달리 영속될 의과대학 역사에서 40년의 시점은 이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다. 부디 400년 이상의 역사를 써 내려가며 인류에 이바지하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1988년 80명의 인원이 10회 신입생으로 의예과에 진입하였다. 당시 88올림픽이 열리던 해이어서 '88학번'은 상당히 주목받는 신입생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배님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하다. 처음으로 신입생들이 자연관(지금의 백은관) 강의실에 모두 모였을 때 각자의 이름이 불리던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 친구들과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공유할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성서캠퍼스로 불리던 곳이 건물이라곤 달랑 세 개밖에 없으며 식당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남쪽으로는 넓디넓은 푸르른 논이 펼쳐져 있던 곳이란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환경조차 선배님들이 경험했던 환경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전설에 무척이나 흐뭇해하기도 했다. 의예과를 보냈던 2년의 기간 동안, 가을 무렵 하늘거리던 길가의 코스모스와 안개가 자욱했던 이른 아침의 캠퍼스, 하나둘 늘어나던 학교 건물과 숙취 후에 요동치던 버스 속에서 울렁거리던 속을 풀어주던 고춧가루를 잔뜩 머금은 학생회관의 300원짜리 우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990년부터 동산동에서 이루어진 의학과 시절은 비로소 전문 의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기였다. 지하 2층의 좁고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던 실습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최종 수업이 종료된 후 의학 발전을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한 기증자에 대해 기도으로써 감사를 표현했던 해부학 수업에서부터 교실원이었던 관계로 PCR 실습을 무제한 허용해 주

셨던 생화학 수업을 거쳐 의학과 2학년 임상 과목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조교의 역할을 일부 담당했던 교실원들에게 각 기초 교실에서 허용해 주셨던 혜택은 개인적으로 임상의로서 기초 의학에 관한 관심을 키워 주어 추후 의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력이 되었다. 의학과 3학년이었던 어느 날 풀 먹인 가운의 소매를 손가락을 밀어 넣어 펼친 후 처음으로 입었던 흰색 가운은 ‘이제 진짜 의사가 되는구나’라는 떨리는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타 병원과 달랐던 풀 먹인 뽕뽕한 흰색 가운과 붉은색 이름표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특색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시절의 흰 가운은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1994년 인턴 시절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동기들은 각자의 희망에 따라 각 병원으로 나뉘어서 갔고, 이후 각자의 전공에 따라 또 한 번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서 점점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간헐적인 모임들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 5월 11일 졸업 25주년을 기념하여 성서캠퍼스에 새로이 개원한 동산병원에서 10회 신입생들의 홈커밍데이 행사를 하게 되었다.

성서 동산병원 개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1899년 이 땅에 의료의 길을 연 선교사님들의 희생 위에서 새로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 년의 역사를 열고자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여러 교수님과 선후배님들의 노고로 무사히 이전 · 개원 작업을 마친 후 새 병원 건물에서 열린 첫 홈커밍데이 행사는 우리들을 의사의 길로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50여 명의 동기가 모여 그야말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의 반가움 속에서 미처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둘째 날에는 동해안에서 식사와 운동 등으로 시간을 공유하며 행여나 누군가와와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만남을 가졌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기억의 공간들은 대구 · 경북지역의 코로나 1차 대유행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고 2021년 후반기인 현재까지 코로나 4차 유행 이후 서울경기지역의 환자를 포함하여 전국의 환자 치료를 위해 쓰이고 있다. 우리의 추억의 공간들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이 땅에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동산캠퍼스에서는 제2의 새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 기억의 공간이 이후 어떠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자못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친구들이여, 10여 년쯤 후 동산캠퍼스에 제2의 새 병원이 세워질 때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잊히지 않도록 뭘 해야 할지 고민합시다. 그날까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일의 가치를 일깨워준 대학생활

11기 이인환

대학에 다닐 때 8월 말은 탄현 정기연주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팸플릿이 오고, 포스터가 나오면 이리저리 나누고 전해 주고, 여기저기 벽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초대장처럼 의대의 모든 선생님에게 팸플릿을 보냈습니다, 다른 대학의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도 찾아가서 전달했습니다, 시내의 바오로 악기사 출입문에도 자랑스럽게 포스터를 붙였지요. 그때 선배들은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경비실에도, 미화원들에게도 찾아가서 팸플릿을 한 부씩 전해드리도록 일러 주었지요.

경비원들도 미화원들도 의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가슴 한편에 자부심을 갖고 근무한다고 선배들은 말하였습니다. 의학 지식으로 지도하는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보살핀다고 할까요. 당신들의 업무도 훗날 의사가 될 학생들의 교육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학생들 모두를 알고 있을 거라는 말도 했지요. 사실 탄현 정기연주회가 있는 날에 경비원들도 미화원들도 과로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업무 외에 피곤한 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강당 사용, 에어컨 가동과 청소 등의 문제로 우리가 부탁하고 도움받을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초대할게요. 와서 격려해 주세요. - 이런 인사를 하도록 후배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팸플릿을 전해 드렸는지 알 수 없으나, 아쉽게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해에 걸쳐 전해졌지요. 스무 살의 나는 처세술처럼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중요한 걸 깨달았지요. 누구나 공익과 가치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명감이란 걸 갖고 일하고 있는지? 성취감으로 퇴근하는 날은 있었지만, 보람을 느낀 날은 드물지 않았던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존중할 때, 내가 맡은 일도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웠지요. 돌아보니 20대에 대학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이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태계인으로



12기 박찬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흉부외과

저는 90학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12회 졸업생 박찬범입니다. 저는 3형제 중 둘째입니다. 형님은 88학번 10회 졸업생이며, 동생은 94학번 16회 졸업생으로 저희 3형제는 모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동기생과 결혼하여 저희 집안에는 계명의대 졸업생이 4명이 있습니다. 형님은 대구에서 개업해 계시고 동생은 서울에서 개업하고, 제수씨는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 2월 졸업한 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턴을 마치고 1년간 안양에 있는 안과병원에서 근무한 후 1998년 3월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가 다 힘들지만, 저의 흉부외과 전공의 시절도 역시 매우 힘들었으며, 특히 연차별로 전공의가 없는 흉부외과 전공의 생활은 어렵고 외로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전공의는 4년간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대전성모병원 네군데 병원을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 4~6개월의 근무 후에는 매번 짐을 싸서 이사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전공의 생활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차가 되었을 때 타 학교 출신인 저는 미래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였고, 교수님들의 권유에 따라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전임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성바오로병원에서 전임의 2년 차 시절을 보냈고 이후 전임강사 대우를 거쳐, 2005년 전임강사 발령을 받고 정식 전임교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조교수로 진급을 하였고 2009년 3월에는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있는 Mayo Clinic에서 1년간 연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인천성모병원으로 이동하였으며, 2016년에는 정교수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고도 없이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왔던 1996년 겨울, 다행히도 함께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동기 안병용 선생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타지 생활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음 수련원에서의 오리엔

테이션 시간, 자기소개를 비롯한 여러 시간 중 저는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작고 비쩍 마른 촌놈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다른 분들이 계명의대를 비롯한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저 역시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처음에는 어머니께 전화할 때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울먹였었고, 대구에 내려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따뜻하게 반겨주던 대구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내려가는 횟수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 가면 성서캠퍼스에 가서 의예과 시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동산병원 근처를 지나면서 의학과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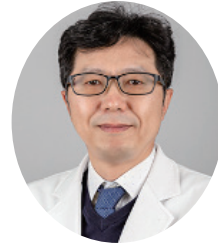
1996년 졸업 이후 25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알 수 없게 흘러갔고,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공의가 부족한 흉부외과 의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저는 태계인임을 잊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의 방

13기 이건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진료 중 오랜만에 반가운 동기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로 안부를 묻다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 기고문 요청을 받고 잠시 옛 생각에 잠겨봤다. 1991년 입학 때부터 1997년 졸업 때까지, 많은 일들과 얼굴들이 떠오른다. 의과대학 6년은 나에게 무슨 추억을 남겼으며,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의 나로 만들었을까?

의사로서, 교수로서 일하면서 그 원초는 의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솔직히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연속되는 시험은 학창 시절과는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냥 적당하게 한 것 같다. 기억에 남는 것은 몇몇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쿼터 시험 때마다 시험 전에 짧은 여행을 다녀온 거다. 쿼터 시험 1~2주 전쯤 1박 2일 정도로 머리로 식히고, 열심히 공부해보자는 취지 아래 다녔던 것 같다. 여행 중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하지만 다녀온 후에 밀려오는 후회. 공부를 해야 했는데, 여행이라니.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공부에 매몰되어 있던 시기여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잠깐의 시간이나마 공부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새로운 지식을 채우리라.

요즘도 한 번씩 큰 업무가 있을 때나 머리가 복잡할 때면 잠깐 동안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진다. 음악을 들으면서, 멍하게 있으면서.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본교에서, 타지에서 교수 생활을 하거나 개원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이 바쁜 일상으로 자주 연락하거나 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 한쪽에는 그때 그 기억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 예전에는 만화방도 한 번씩 가고 했던 것 같다. 1~2시간 동안 열심히 만화책에 몰두하다 보면 이전의 우울한 기분, 잡생각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안 좋은 기억을 잊기 위해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 같다. 요즘도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만화카페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비록 들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나에게도 또 하나의 아련한 추억의 공간이다.

동아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때는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보기와는 달리 클래식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던 것 같다. 탄현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본다. 조용하고 기품 있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는 처음 들어갔을 때 조용한 이미지에 걸맞은 분위기였다. 많은 동기와 함께 탄현회에 들어갔고 우리들은 이전의 분위기와 많이 다른 분위기로 탄현회를 이끈 것 같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술도 좋아하던 그 친구들, 택근, 현수, 용석, 석재, 은아 그리고 나. 방학 때마다 공연 준비를 한다고 모여서 연습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시간이 흘러 재주도 없던 내가 지휘를 맞으면서 생긴 일화들, 정기연주회 때 합주곡 연주 중 시작은 같이했으나 마무리는 제각각이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또 하나의 추억은 탁구이다. 지금과는 달리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그때, 열심히 탁구를 했다. 시간이 될 때, 시험공부하면서 짬짬이. 내기도 많이 하고, 의과대학 시험에 출전해서 등수에도 들고. 그때의 기분으로 지금도 간혹 탁구를 한다. 예전의 몸은 아니지만, 옛 추억과 함께.

지금은 의과대학이 옮겨갔지만, 그때의 강의실, 건물, 병원 생각이 난다. 그때의 선배들과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 졸업한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어디인가에 남아있는 추억의 방이 있다. 지천명에 다다른 나이에 옛 추억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듯 지금처럼 미래에도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할 것이다. 그 시절 같이 지냈던 이들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추억하며, 미래의 길에서 또 다시 만나 새로운 추억을 남기고 싶다.

진정한 의사의 길을 생각하며

14기 박상준

제니스연합내과의원



지난 대학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학번은 의예과에서 본과로 올라갈 때 유급하는 학생 없이 다 올라간 유일한 학번이었다. 14기 동기들과는 마음도 잘 맞고 잘 뭉쳤다. 졸업하고도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는 등 여전히 가깝게 지낸다. 의로운 의사가 되자며 ‘의인회’라고 이름도 붙였었는데 지금은 의사 인간들 모임이라고 서로 농담을 하기도 한다.

의예과 때는 ‘힙스즈’라는 그룹사운드 활동하며 음악 한다고 바쁘고,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본과에 가서는 늘 강의, 공부, 시험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느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었다.

처음부터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경북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서 한 학기 정도를 다녔는데 적응을 잘 못했다. 그런 나를 보고 의대를 다니던 친한 친구들이 재수해서 의대로 오라고 했다. 공대에서도 적응을 못하는데 의대에 간다고 달라지겠냐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로 다시 시험을 치기로 했다. 생각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하향 안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계명대학교가 끝났다. 지금은 달서구로 이전했지만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남산동에 영남고등학교가 있었다. 동산병원과도 가까워 오가면서 늘 병원 옆으로 지나다니곤 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는데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입학을 하고 보니 선배들도 동기들도 다 좋았다. 본과 때는 공부했던 것 말고는 별 다른 기억이 없지만 의예과 때는 늘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놀았었다. 주로 대명동에서 많이 놀았는데 성서에서도 자주 술을 마셨다. 성서캠퍼스 뒤쪽으로 작은 슈퍼 옆에 할머니가 파전과 막걸리를 팔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술을 마셨다. 늦게까지 술

을 마시다 막차를 놓친 적도 많다. 남자 7명이 죽전 네거리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택시를 탔던 적도 있고 지나가던 트럭까지 붙잡고 사정해도 안 돼서 내당동까지 걸어왔던 적도 있다. 또 한 번은 해부학 수업 때 비교 해부 한다고 개구리와 뱀을 한 마리씩 잡아 오라고 했는데 수십 마리를 잡아 성서 지역 개구리를 완전 초토화시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추억이었던 것 같다

해마다 의대 축제 때에 콘서트를 하는데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내내 학교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곤 했다. 그때 탈춤 반 친구들도 가깝게 지냈었다. 여름방학 동안 연습한다고 땀 흘리며 고생했기 때문에 더 친해진 것 같다. 그때 거의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탈춤 추던 친구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의대에는 동아리들이 꽤 많았었다.

본과를 마치고 동산병원에서 인턴을 했다. 그때는 충분히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다들 동산병원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서 경쟁이 치열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일이 많았는지 진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다.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다 보니 오죽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인턴에게 시킨다’라며 안 되는 일은 동산병원 인턴에게 시키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인턴을 하면서 별의별 것을 다 배우고 고생했지만, 그런 것들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웬만큼 힘든 일이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우리 학교 출신 의사들은 개원하면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고 성공하는 편이다. 계대 출신 의사가 개원하면 다른 병원들이 긴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잡초 같은 끈질긴 면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선배 때부터 보수적인 틀을 깨뜨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면서 생긴 학풍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더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 바란다. 부모님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만난 흉부외과의 조정준 의사 같은 후배는 옆에서 봐도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매우 칭찬하고 싶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하는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돈만 보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진정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사는 나의 천직, 어릴 적 꾸었던 꿈 이루어



14기 이명갑

경산중앙병원 응급의학과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싫었다. 공부만 하는 게 싫어서 사회 운동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학교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다. 한번은 꼴찌로 올라간 적도 있다. 본과 2학년부터 3학년으로 올라갈 때인데 의대 신문사 편집장 하면서 다른 데에 관심이 좀 많았었다. 그래도 다행히 유급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다. 당시에는 정원 80명 중에 반 정도만 제때 졸업했다. 본과 때는 과 대표를 했었는데 80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졸업여행을 갔었다. 그때 여행 내내 술을 마셨던 기억도 난다.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것은 무언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서이다. 응급실에서 환자 보는 것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좋다. 힘들다기보다는 역동적으로 느껴지고 보람도 크다. 또 힘든 만큼 확실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점도 좋다. 그런데 감염병이 이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다.

당시 응급의학과는 레지던트를 한 명밖에 안 뽑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까지 통틀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나 혼자였다. 지금은 140여 명이 되지만 그때는 초기여서 전국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31명에 불과했다. 인턴 때 다른 친구들은 응급의학과에 관심도 없었고 어차피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될 거니까 남들 보다는 여유를 부렸던 것 같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경북에 공중보건의 자리가 하나 났다. 당시 31명 중 10명이 군대를 가는데 경북은 손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경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울릉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섬은 정말 좋았다. 경치도 좋고 한 달 살기에는 좋았다. 그런데 11월이 되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다음 해에는 무조건 섬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곳에는 첫눈이 내리면 초등학교 아이들과 새로 부임한 공중보건 의만 눈사람을 만든다. 동네 주민들은 눈에 관심 갖기는커녕 눈 쓸기에도 바쁘다. 나도 첫눈 내렸을 때 눈사람 만들

고 그다음부터는 안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의사가 되고 싶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누가 쓰러져서 의사를 찾으려면 급하게 나서서 도와주는 장면을 볼 때면 참으로 멋있게 느껴졌다. 다행히 아직은 그런 위급 상황에 부딪친 적은 한 번도 없다. 남들은 어릴 때 대통령이 되겠다든가 과학자가 되겠다든 등 여러 꿈을 꾸고 또 자라면서 꿈이 바뀌기도 하는데 한 번도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바뀐 적이 없다. 어릴 적부터 꿈꾸던 것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당시에는 공부하는 게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할 걸’ 이란 생각이 든다. 환자를 보다보면 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때 가르쳐줄 때 조금 더 열심히 듣고 공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에서도 의학 지식 말고 인성 교육도 하고 학생을 뽑을 때도 성적만 볼 것이 아니라 인성이 바르고 좋은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

사람 사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듯이 의사 집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전체 13만 명의 의사들 중에는 대부분 이 의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정직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버는데 극히 일부에서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를 하거나 일탈을 하는 의사들이 있다. 소수의 의사들로 인해서 전체 의사가 욕을 먹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하지만 나 또한 그 집단에 속해 있다 보니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후배들도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진 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과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돈을 생각 안할 수는 없겠지만 돈을 쫓아가면 불만이 생기게 된다.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나 또한 혈기왕성하던 때에는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맞서서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앞장서서 나서기도 했었다. 이제는 그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역할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있다. 내가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되돌려 주면서 살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중한 가족과 삶을 선물해 준 계명의대



15기 원동철
예담성형외과의원

29년 전 고3. 난 의대에 갈 생각이 없었다. 의사가 된다는 꿈을 꾸 적도 없었다. 국민학교 여름방학 때 제일 싫어하던 숙제가 곤충채집이었고, 개구리, 지렁이는 만져본 일도 없었으며, 피를 보면 머리가 아득해지는 내가 의대라니?

많은 누나와 함께 자란 덕에 옷에 관심이 더 많았고 뭔가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가져서인지 의상학과를 졸업해서 의상디자이너가 되는 비밀스러운 꿈이 있었을 뿐이었다. 놀림감이 될까 두려워 친한 친구한테도, 당연히 부모님께도 나만의 원대한 꿈은 비밀이었고 원서 쓸 즈음에 나름 충분한 성적을 무기로 터트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서 내는 첫날 아침 부모님은 친히 학교를 방문하시고 여기 계명대 의예과에 원서를 내고 홀연히 사라지셨다. 당시 1992년은 학력고사가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해였으며, 그 다음해부터 수학능력시험으로 제도가 바뀌는 터라 한 해 후배들은 이미 수능시험을 준비했었고, 우리는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해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수많은 협박을 받아온 이유로 진로에 대한 반항 한 번 못하고 시험을 쳤고 또 다행스럽게 합격하게 되었다.

성서는 내가 꿈꾸던 캠퍼스는 아니었다. 흙을 신고 돌아다니는 덤프트럭의 흙먼지와 황량한 별판에는 묘목 몇 개가 전부였고 영화에서 보고 기대하던 넓은 교정에 푸르른 잔디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눈이 펼쳐진 교문 앞에선 참외와 수박 파는 트럭이 전부였다. 그나마 언덕 넘어 작은 동네 파산동의 막걸리 집이 유흥의 전부였다. 중고등학교 때의 구속된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예과 2년 간의 자유로운 생활에서 고3까지의 성실함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고 그 누구보다도 나태하게 들어간 본과에서 본격적으로 부적응자의 삶을 시작했다. 여름 골학 중 합숙소 이탈을 시작으로 본과 1학년 2쿼터가 지난 시점에 나태함은 정점을 찍었고, 주위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신경생리학은 날 죽도록 힘들게 했던 걸로 기억된다.

일찍이 고3 때 해야 했던 진로 선택의 문제를 뒤늦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정한 사춘기가 아

니었나 싶다. 본격적으로 수업도 빠지기 시작했고 아침 교문 앞에서도 등교를 안 하는 비행 청년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과 1학년 3쿼터를 떠돌아 다니다 보니 출석수가 모자라 유급할 지경에 몰리기까지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힘든 학창 시절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즐기기 시작했다. 시험 기간 중 몽정으로 황급히 집에 가서 속옷을 갈아입고 오던 친구, 날 가르치면서 자기가 공부하던 친구, 엎드려 자고 있으면 편하게 일 년간 폭 자고 내년에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날 자극해 주던 고마운 친구의 충고와 가벼운 결핵을 겪으면서 내 목표는 점점 명확해져 갔고 단단해졌다.

그렇게 정신없이 난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다. 디자이너가 되고자 했던 꿈이 절반은 이뤄진 듯하다. 섬유 원단을 분필로 디자인하는 게 아닌 피부를 수술용 잉크로 디자인하게 되었고, 큰 가위가 아닌 15번 블레이드로 재단하며 재봉틀이 아닌 니들 홀더를 잡고 바느질을 한다는 차이일 뿐이다. 의료윤리로 정신 무장을 해야 하며 약하고 소중한 환자의 피부에 예리한 칼을 댈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서 참을 수 있다.

또한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에 반해 1년 반을 기다려 소개받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20기 후배이자 아내도 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선물해 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

마흔 살 된 계명의대, 선도적인 역할 하기 바라

16기 황일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계명의대 40주년을 맞아 지난 학교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았다. 당시에는 의예과 2년은 성서캠퍼스에서 보내고 의학과 4년은 동산캠퍼스에서 보냈다. 우리는 의학과를 그냥 본과라고 불렀다.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건 바로 본과 첫 수업 날이다. 본과에서는 한 학년이 한 강의실에서 계속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첫날 자리를 잡으면 그게 지정석이 되다시피 했다. 그렇다 보니 모두 서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 나 또한 첫날 새벽 5시에 학교에 갔었다. 그런데 강의실에는 이미 80~90% 학생들이 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했었다.

1주일 정도를 그렇게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수업을 받게 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처럼 고정된다. 그리고 나면 안 좋은 자리만 남게 된다. 당시 강의실이 지하 1층이었는데 창문이 있는 쪽은 외풍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몹시 추웠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는 늘 비어 있곤 했다. 늦게 오더라도 앞자리에 앉고 싶으면 추위도 그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다들 따뜻한 곳에서 수업받기를 원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 병리학 수업을 듣는데 그 과목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또 유급이 많이 되는 과목이었다. 시험 문제가 특별히 어렵다기 보다는 다루는 범위가 무척 광범위했다. 시험 시간 내내 답안을 작성해도 다 못 적어낼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아는 내용인데도 다 못 적어서 우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어떤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올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적어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A3 크기의 시험지를 한 10장쯤 주는데 문제는 한 면에 하나 정도였다. 10장의 시험지에 앞뒤로 2시간 동안 답안을 적어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채웠는지도 모르겠다. 커닝이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기생충 과목 교수님이시다.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교수님이 좀 독특해서 남학생들은 항상 넥타이를 매고 수업을 들어야 했다. 넥타이를 안 매고 온 학생은 강의실을 나가라고까지 하셨다. 그래서 항상 로커에 넥타이를 넣어두었다가 매야 했는데 막상 티셔츠를 입고 오면 넥타이를 못 매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3학년 때는 임상 수업을 시작했다. 임상 수업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셨는데 수업 진행 속도가 무척 빨라서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나면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다. 3, 4학년이 되면 웬만해서는 과락으로 유급하는 일이 없는데 1, 2학년 때는 유급을 많이 했다.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 학번의 경우 80명이 같이 입학했는데 같이 졸업한 학생은 50명이 채 안 됐다. 6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50~60% 정도였으니 그때는 공부하는 것도 제때 졸업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던 것 같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4학년 때 국가시험을 앞두고는 해인사 쪽에 있는 한 호텔에 단체로 들어가서 보름 정도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 그곳에는 TV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집중도 잘 되어서 열심히 했었다.

하지만 줄곧 공부만 했던 것은 아니다. 의예과 때는 축제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글 쓰고 편집하던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 동아리인 ‘열린 진료소’ 활동도 했었다. 친구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같이 하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4학년 졸업 때까지 활동했다. 남산동에 있는 남산 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진료소를 열어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드리는 일이었다.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서 힘들지는 않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안 나오기도 하는 등 인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조금 힘들기도 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약 포장 기계를 샀었다. 그전에는 학생들이 일일이 약을 포장지에 싸던 것을 기계로 하면 한 번에 쌀 수 있어 사람이 적을 때는 편하게 할 수 있었다. 기계가 좀 무거운 편이었는데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친구와 같이 직접 교동까지 가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던 게 기억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을 직접 포장지에 싸는 것 자체도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을 텐데 약 싸는 기계를 산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수도 40여 개가 된다. 그중에서도 우리 학교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해서, 우리 학교의 위상이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배들에게도 모든 일에 좀 더 도전적으로 해나가라고 조언하고 싶다.

우리의 힘은 작지 않다

17기 김신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건강증진센터



스물셋, 지정 성별(태어나면서 확인되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인, 부모 등에 의해 인증받아 타인으로부터 지정 받은 성별) 여성인 그는 자신보다 더 조심스럽고 정중하지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던 부모님과 함께 내원했다.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줄곧 남성이었으며 이차성징에 의해 변화된 몸을 볼 수 없어 샤워도 불을 켜고 하지 못했고 학교를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오는 지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되었다. 거식증과 반복되는 자해, 자살 시도로 사회적 관계는 모두 단절되고 일상의 유지도 힘든 상태가 되어 대구의 모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었으며 성별 불쾌감(sexual dysphoria)으로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트랜지션 호르몬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서도 외곽에 있는 우리 의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의사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부모님들은 “이게 잘하는 것인지…”라며 말꼬리를 흐리셨다. 호르몬 치료의 적응증,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나는 얼마든지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휴직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당사자는 단호했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게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럴 땐 환자의 처지를 이해하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는 당신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해 온 당신의 몸을 남성화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치료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비롯한 혈액검사로 확인해 갈 것이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주, 흡연을 멀리하는 ‘바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며 설명하고 당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아울러 부모님에게도 ‘안전한 치료를 진행할 것이며 트랜지션이 반드시 수술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를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본인이 원했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예도 없지 않다. 자녀분이 생물학적 성별과 지향하는 성별이 다른 것으로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는 상태라면 치료를

시작하고 해나가면서 가장 적절한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한다.

결국 환자는 대구에서부터 소중히 가져온 진단서, 심리 분석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고 호르몬 치료 전 혈액검사(환자는 오후 4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복이었다. '그래야 하루라도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후 돌아갔다. 일주일 후 외래에서 혈액검사 결과상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금연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수적이다. 다음 예약일까지 꼭 더 건강해져서 오셔야 한다'는 반복되는 잔소리를 상기된 얼굴로 들으며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귀가했다.

2주 후 어머니와 함께 온 환자는 아직 별다른 변화를 모르겠다고 했으나 치료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웃었다. 핏기 없이 우울하던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 같았고 진료 시간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일상을 이야기하고 한 달 동안 맞을 호르몬 주사제를 처방받아 갔다. 다행히도 대구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두었기에 정기 검사를 해가며 서울까지 걸음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호르몬 주사로 인해 건강에 해가 오는 것이 가장 걱정이지만 건강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한 것에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셨다.

만 17세 지정 성별 남성인 탈 가정 청소년이 보호 시설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내원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핑크색 립스틱을 어색하게 바른 환자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처음 만나는 의사의 질문에 꼭 필요한 대답만 작은 소리로 겨우 했다. 이어지는 진료 도중 본인의 목소리를 다른 이에게 듣게 하는 것이나 스스로 듣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다. 등교나 교우와의 관계 유지 등 학교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가정 폭력도 있었던 것 같았으며 결국 탈 가정 하면서 부모님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근무 형태가 다른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며 뷔페식당 조리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트랜지션을 위한 비용을 벌고 싶었으나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도 빠듯하였고 치료는 꼭 받고 싶어 지원받을 곳을 스스로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경우였다. 아르바이트 시간에 쫓겼으나 예약 시간은 꼭 지켰고 늘 초췌한 모습이었다. 간혹 쉬는 날은 잠을 조금이나마 보충하는 듯했고 화장과 머리 단장에 좀 더 신경 썼던 눈치였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서서히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목소리가 조금 가늘고 높게 변하면서 미소도, 이야기도 조금씩 많아졌다. 한겨울 북쪽 도시의 한파에 모두 두툼하고 긴 패딩으로 몸을 감싸고 다닐 때 겨우 늦가을에나 입을법한 점퍼를 입고 다니면서도, 룸메이트가 별안간 거처를 옮겨버려 홀로 고시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힘든 일이 생겨도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한 번도 진료를 빼먹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돈을 모아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이 되었다.

2018년 여름부터 나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의원에서 트랜스젠더들의 트랜지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그곳에서 나는 트랜지션을 처음 시작하는 십 대 환자부터 수십 년째 호르몬 치료를 지속해 온 60대 환자까지 다양한 경우의 환자 치료를 시작,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났다.

의학과 시절 정신과 수업 시간에 배운 것 보다 TV에서 본 하리수 씨로 더 확실하게 떠오르던 트랜스젠더. 그들은 지정 성별과 스스로 지향하는 성별이 달라 성별 불쾌감이 지속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정 성별에 따른 성역할 수행 압박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었다.

간혹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정 성별과는 전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채 살아간다. 언제부터 본인이 지향하는 성별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은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마치 시스젠더(타고난 지정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 하는 성별 정체성이 동일 혹은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 여성이나 남성에게 언제부터 스스로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 느껴졌느냐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만난 분들도 수술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수술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아예 수술할 생각은 없는 사람도 있었으며 트랜스젠더 중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본인이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와 경제적 상황,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볼 때, 트랜스젠더는 1980년대부터 DSM 성적 지향 장애, 성 정체성 장애라는 용어로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DSM-V에서는 출생 시의 정신적인 성(Gender)과 생물학적인 성(지정 성별, Sex)에 대해 심각한 불쾌감, 불일치를 느끼는 상태를, 정신의학적 질환이 아닌, 따로 분리된 분류로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용어로 도입한 상태이며 ICD-11과 함께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은 (정신과적) 질병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는 고유의 증상인 성별 불쾌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을 일단 다수에 속하는 지정 성별, 지향 성별 일치의 남성과 여성이 아님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고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2021년 초반에 있었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성 신입생 거부 사태,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두 가지 사건은 이 사회가 트랜스젠더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로 여기고 강하게 거부하는 현실을 뚜렷이 보여준다.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지향하는 성별로 살기에 어려운 장애들은 너무나 많다.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하고 일상엔 지향하는 성별로 살고 있으나 성별 정정을 해 주는 법원의 ‘허락’ 문턱을 넘기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상의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는 취업도 어려우며 신용 보증을 하여야 하는 경제 활동도 난관이 많다.

트랜스젠더들 중 지정 성별이 남성인 MtF(Male to Female, 성적 지향이 여성인 생물학적 남성)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이 너무나 곤욕스러워 외출 전부터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도, 원활한 배뇨를 하지 못해 잦은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예도 많다. 그것은 FtM(Female to Mal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화장실은 물론 학교, 직장에서도 차별과 신체적, 심

리적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가정에서조차 외면당하거나 쫓겨나곤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에도 어려움이 많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호르몬 치료를 한다는 것만으로 서울에 있는 이 작은 의원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병원을 지역에서 찾을 수가 없던 트랜스젠더 환자들이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소문하여 찾아오고 있었다. 간혹 다른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 왔다는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받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대로 된 의사의 진료가 없이 코디네이터의 스케줄대로 주사만 주야장천 맞으며 필요한 혈액검사나 검진은 들어 보지도 못한 경우가 흔했다.

사실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는 정규 의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치료받는 중의 환자들의 상태는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투약 조절 중인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검진으로 합병증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랜스젠더 환자들은 수술 이전에는 지정 성별에 필요한 정기 검진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흔했고 수술 이후에는 바뀐 성별의 경우 필요한 추적 검사와 검진이 어려웠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 검사도 하기 전 수술을 거부당한 만성 편도염 환자는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만 했고 일단 병원에서 접수하는 순간부터 반복되는 성별 확인과 진료실에서 겪는 의사의 태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오늘날 의사들은 날이 다르고 달이 다르게 변화하는 의료지식을 지속해서 습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는데, 이는 우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의사 개개인의 능력이 되고 자아실현이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을 위한 치료도 다른 급·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관리 못지않게 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호르몬 치료가 환자 본인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나 변태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증된 다양한 상태 중 하나이며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천식처럼 일상적인 주의에 더해 약물 치료로 심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호르몬 치료를 받고 정기 검사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일반화된다면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벽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트랜스젠더 환자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트랜스젠더들이 포함된 이 사회가 함께 건강해짐은 물론이다. 오랫동안 천형으로 여겨지며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격리되어 오다가 병의 전염 경로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난 질환들이 많다.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혐오로부터 환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의료계와 의사의 큰 역할이었다.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시작은 앞으로 또 다른 변희수 하사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크고 고귀한 힘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17기 성민현

S신경외과의원

2020년 2월, 대구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을 때,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뉴스에서 고생하시는 동산의료원 의료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한없이 부족한 나를 의사로 살게 해 준 고마운 인연이고 늘 자랑스러운 모교다. 내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95학번, 계명대의 합격이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자주 아프셔서 의사를 꿈꾼 적도 있었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책 읽기가 유일한 낙이었던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없는 집에 출세할 길은 ‘법대 아니면 의대’라고 굳게 믿었던 세대로 내가 문과에 가면 법대에 갈 리 없다 싶으셨던지, 담임 선생님께 이과에 배정해 주십사 몇 번을 학교에 오셨더랬다. 나는 수학 시간에 엎어져 자는 걸로 반항했는데, 결국 고3 수학 성적이 바닥을 쳐서 요새 말하는 ‘의·치·한·약·수’ 어디에도 원서 쓸 곳이 없었다. 그런데 ’94학년도 수능시험이 처음 시행되며 두 번을 시험 치는 것이 입시 대혼란을 겪자, ’95학년도는 수능을 한 번 보는 대신 본고사(논술)가 생겼다. 나는 국어논술시험에 사활을 걸었고, 모두에게 낯선 입시제도가 내게 행운의 여신이 되었다. 요즘은 예전의 입시제도가 단순하게 여겨질 만큼 복잡하고 자꾸만 바뀌는 데다 전국 최상위 성적 학생들이 의대에 집결하니, 고3 자녀를 둔 엄마인 나는 계명의대 후배들이 어벤져스처럼 위대해 보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데다, 용암 수능이라 불릴 만치 수능시험마저 어려웠다. 합격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미래의 22학번 계명의대 후배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예과 시절은 재미난 추억들이 꽤 많았다. 우선 성서캠퍼스가 정말 넓고 이뻐서 동기들과 수업 사이 이동하며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문학의 이해와 같은 흥미로운 교양수업도 가끔 있었다. 나랑 못지않게 피부색이 까만 남자 동기가 나란히 앉아 있으니 교수님께서 거기만 조명이 꺼졌냐는 농담을 건네셨을 때의 부끄러움(덕분인지 동기와 꽤 친하게 지냈다), 물리 교수님께서 너처럼 수업 때 대놓고 뻘어 자는 여대생은 처음이라 하셔서 총 맞나 했는데 D 학점을 주셨을 때의 안도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동아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의예과 때 연극을 해야 한다는 말에 등 떠밀려 편집부 ‘태계’를 했는데, 덕분에 마음씨 따뜻하고 멋진 선배님들을 만나 아낌없는 후배 사랑을 받으며 본과에 가서도 삭막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본과는 선배님들과 온몸의 뼈를 들고 이름을 외우는 첫날부터 멘붕이 왔다. 의대에 올 정도면 대부분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지만, 공부량이 너무 많고 어려워 서로 돕지 않으면 참으로 버티기 어렵다.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 한 전우마냥 몇 년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고생하다 보면 어느샌가 가족같이 익숙하고 소중한 사이가 되어, 성인이 되어 만난 친구들도 능히 김부가 된다.

마침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병원에서 유일하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법을 아는 능력자, 인턴이 되어 일주일에 평균 100시간 넘게 일하며 과가 바뀔 때마다 생전 처음 하는 업무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다 보면, 어지간한 건 참아내는 인내심, 뒤통수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평생의 선물로 얻는다.

두 번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된 것이다. 나는 자식의 진로에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엄마의 교육관에 반하여 아이들을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스스로 행복하게끔 기다려주며 자유롭게 키우고자 했는데, 막상 입시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여러 부모가 이끌어 줄 부분이 필요했는데 내가 무책임한 엄마는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몰아세운다고 여겼던 엄마의 열정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늘 강철처럼 강했던 엄마는, 언젠가부터 내가 오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아이처럼 기뻐하며 마치 딸처럼 내게 투정을 부렸다. 작년 봄부터 이어진 코로나에 집에만 계시며 갈수록 쇠약해져 조마조마하던 겨울을 지나, 올해는 기분도 몸도 좋아지셨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날에 엄마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긴 여행을 떠났고, 나는 갑작스러운 엄마와의 이별이 아직도 너무나 낯설다.

인턴을 마칠 무렵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했을 때 ‘쉬면 의사를 안 할 것 같으니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많이 섭섭했지만, 순순히 따랐었다. 이후로도 지금껏 한 번도 쉬는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더라면 올해야말로 일을 쉬고 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겠다 싶다. 나이든 부모를 어여뻐 여겨 자주 안부를 묻고, 자식에게 바치는 정성의 백만분의 일이라도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름진 얼굴을 오래 보기를 바란다.

시험문제가 헛갈릴 때 고치고 나서 종종 후회하는데,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기도 하니 욕심이 앞서서 그러는 수가 더러 있다. 살다 보면 매번 선택의 순간이 오고, 그때는 최선인 것 같았는데 지나면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욕심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늘 성공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나만 불행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의 기회뿐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이 내 삶의 소중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와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할지 모르겠으나, 매사에 감사하고 후회를 적게 하는 선택을 하여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며, 내 삶 속에 더없이 소중한 의과대학 시절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엄마를 추억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80주년, 120주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빛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을 추억하며



18기 김도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재직 중인 김도훈 입니다. 학생회의 인연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을 기념하여 학창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 받았습니다. 청주라는 외딴곳에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지만, 요즘같이 글과 소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족을 더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40주년을 축하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컴퓨터 전원을 올립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 옛날 사람이지요? 40대 초반만 해도 라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거부한다고 해서 쿨한 아아(Ice Americano)나 열정적인 뜨아(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뻔뻔한 거죠. 이왕 뻔뻔하게 옛날이야기 하기로 했으니 대학 시절과 조금 더 옛이야기까지 거슬러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힐링’입니다. 의대가 어떻게 힐링일까? 궁금하실 듯하여 나름 힘들었던 초중고 시절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병, 비만, 집단 괴롭힘,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의사가 된 지금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 다음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두통, 알러지 비염 / 천식, 과민성장증후군 그리고 무기력증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머릿속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돌아다니며 눈과 전, 측, 후두엽을 강타했고, 항상 아랫배가 아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처였습니다. 게다가 호흡곤란과 상기도 감염이 비일비재해서 체육 시간은 항상 열외였습니다. 동네 내과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고 주사를 많이 맞아 엉덩이에 주사를 못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런 케어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비만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덩치는 컸고, 항상 지방세포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기

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국민학교(라떼는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체육 시간 신문기자가 학교에 찾아와서 저랑 저보다 조금 더 큰 친구 둘을 불러 나무 아래서 사진 찍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학교에서 가장 뚱뚱한 두 명을 찾아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저와 그 친구를 추천(?)했고, 그 덕에 어린이 신문에 얼굴이 실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비만은 중·고등학교 때도 지속됩니다.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대로 살면 죽는다.” 죽는다는 협박을 받았지만 지조를 지켜 살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비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절정을 찍었습니다. 체중 썰 때, 측정 단위를 바꾸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집단 괴롭힘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키 순서로 자리 배정을 하니 가장 뒷자리에 저 포함 남자 4명이 같이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뚱뚱한 내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배도 튀어나오고, 옆구리도 튀어나오고 남자인데 가슴도 튀어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제 몸을 주무르고 만지고 놀렸지요. 3명이 따로, 때로 함께 무던히도 괴롭혔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반응을 즐기면서 더욱 만지더라구요. 화를 내면 친구가 장난치는데 화를 낸다고 못한 놈 취급을 했습니다. 괴롭힘이 6개월을 넘어가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죽을까?’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야기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구들과끼리 장난친 거라고, 그런 것도 못 견디면 나약하고 못한 놈이라고 하더군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겁이 많아서였을까요? 일 년 후 그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었지만, 남은 상처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픈 날도 줄고, 친한 친구도 생기고, 바깥 활동도 하였지요. 하지만 아직 시련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고2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니 어머니가 바빠 병원으로 가시더군요.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며,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도 숨을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즘에야 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하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시지만,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허기가 지고 잠이 오더라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리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에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 또 울었지요. 지금 살아 계셨다면 같이 즐겼을 취미가 많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쉽네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타고난 노안과 비만으로 동기들이 장수생으로 착각한 적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배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당시 의과대학은 엄격한 분위기와 경직된 위계 질서로 유명했지요. 입학식도 하기 전,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와 국X 삼계탕으로 끌고 가더군요. 선배들의 이름과 기

수가 적힌 종이를 주더니 갑자기 외우라 하고, 못 외우니 술 먹이고, 머리 박고 또 외우고, 안 되면 또 술 먹이고 머리 박고 외우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았지만 계속하니 되더군요. 힘든 첫 대면이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선배들이 잘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찐한 만남을 시작으로 대학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강렬한 첫 경험 때문인지 힘들었던 대면식도(95학번 선배들이 쪽 앉아있는 대형 강당에서 생목으로 고함을 치는 행사였지요,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소집하는 전학(시답잖은 이유로 집에 못 가고 2~3시간씩 모여 있었지요)도 할 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회는 한두 달에 한번은 꼭 했고, 그때마다 술 먹고 기합 받느라 힘들었지만 나름 즐겁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기합 시간이 지나면 소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왈카하게 떠들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범할 소지가 많은 그 당시 분위기가 전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동문 선후배 사이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깊숙이 서로의 삶에 관여하려 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관여의 이면에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그런 관계에서 치유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좋은 선배들은 그런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95학번의 속 깊은 희철 형, 촌데레 상업 형, 엔터테이너 화섭 형, 그리고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에서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광수 형 모두 눈에 선합니다. 94학번의 천사 근수 형, 93학번의 매너남 경재형도 기억나네요. 이들의 배려로 메마른 제 마음이 촉촉할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을 뺄 수 없지요. 모두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같은 실험 조를 한 여학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는 소위 대구 사투리로 아주 '낭창' 했습니다. 민X이 누나, 키 큰 병X이, 그리고 엄근진 허당인 저 이렇게 모인 조이다 보니 그 여학생이 매번 앞장서서 챙기고 이끌고 마무리 지어야 했지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 눈치만 보던 비둘기 해부를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앞장섰던 기억이 납니다. (저 지금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당시에 친구는 앞으로 6년간 유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겠지요? 그 이후로도 그 친구는 커피 친구, 때로 술친구가 되어 주었고 힘든 순간 거울이 필요할 때 나를 가감 없이 비춰주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96학번 미경이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엉뚱 까칠한 매력을 보여 주었던 종백 형, 그냥 좋았던 준민이, 술 약한 나 대신 4개 대학 학생회장과 대작하여 연탄재처럼 산화한 영환이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판짓 하느라 공부와 친하지 않은 나를 끌고 다니며 국가시험라는 언덕을 넘게 해준 용진 형과 승현 형 모두 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잘생긴 순섭이 형과 멋있는 윤형이 형도 기억나네요. 동기들의 배려와 마음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많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불킥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학생회 선거 유세 차 후배들을 불러놓고,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야단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웃긴 거지요. 표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해를 구해

야 할 마당에 유권자를 협박(?)하다니. 당시 분위기로 개연성이 아예 없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양식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지금이나마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또 동문 후배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냥 잘한다 고맙다고 할 일밖에 없는 후배들이었는데, 고등학교가 같았다는 이유로 뭘 그리 가르치려 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 개성 강한 97학번 2명과 순둥해서 힘들었던 98학번 1명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느끼는 이러한 감정 역시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한 원동력임을 잘 알기에 반성하며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옛날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목은 병은 모두 털어냈고, 체중은 잘(?) 조절하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는 단단해졌고, 아버지의 부재는 제가 아버지가 됨으로써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흉부외과 교수로써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며, 폐암을 수술합니다. 외래에서 암 생존자들을 보살피고, 더 나은 병원과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학창 시절의 저는 많이 부족했고, 거칠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그리고 선후배와 동기들은 저를 모자라다 내치지 않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 뭉을 할 수 있게 해준 시작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영광의 세월임이 틀림없지만, 대구를 떠나있는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가진 능력과 이론 업적이 대단하고, 뛰어난 구성원이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올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라는 지역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뉴 노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실은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다는 것, 비대면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지역적 한계는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40년이 영광스럽기 위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지역적 한계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서있는 그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봅시다. 세상의 중심에서 내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저도 즐겁게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컴퓨터 속에 남아있는 그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며

19기 박의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학창 시절 기억을 더듬어 가니, 그리운 동기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른다. 어떤 기억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도 하고, 어느 기억들은 희미하게 지워져 버렸다.

지난 일을 글로 쓰려니 걱정이 앞선다. 글재주가 없음은 차치하고, 기억의 왜곡이 우려된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서로의 기억은 다를 수 있을 텐데, 내 기억이 왜곡된 것은 아닐지 하는 우려다.

기억보다는 사실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뭔가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책장을 뒤적거려 보았으나 아쉽게도 쓸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먼지 쌓인 다이어리를 털어 그 시절 끄적거린 글들을 읽어보았다. 여러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 시절 생각들을 읽어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지냈었구나 대견한 생각도 들었다. 그나마, 다이어리의 글들은 너무 개인적인지라 그대로 의과대학 40년사에 함께 담은 만한 이야기는 찾아낼 수 없었다.

컴퓨터를 켜다. 나를 지난 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백업해 두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지난 파일들을 찾아 들어갔다.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컴퓨터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다행이도 "내컴퓨터>...>과거>의과대학>a drive"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USB나 cloud를 쓰지만, 그 시절 같이 지난 친구들은 "A-drive"가 뭔지 금방 기억할 것 같다. 학창 시절 작성했던 여러가지 문서들을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 들고 다녔고, 내 a drive폴더는 그것들을 백업해 둔 폴더였다. 집에 컴퓨터도 부족하고, 프린터는 더더욱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컴퓨터로 작성한 파일은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와서 학교 전산실이나 복사실에서 출력하곤 했던 기억이다. 레포트 출력은 전산실 공용프린터에 연결된 인쇄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인쇄를 했다. 출력이 잘 안된다고 몇 번 '인쇄' 버튼을 누르면 뒤늦게 몇 부가 인쇄되어 나오면서 아까운 종이와 함께 커피 몇 잔이 함께 날아가 속이 쓰렸던 기억

이 난다. “A drive”, PK 실습 때 PPT file을 만들어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와서 컴퓨터의 A-drive에 넣어서 발표했다. 잘될 때가 많았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게 안 될 때가 많았다. 컴퓨터에 넣었던 디스크가 기계적 결함으로 끼어서 작동을 안 하기도 했다. 가끔은 플로피 디스크 오류가 생겨, 밤새 준비한 발표를 제대로 못 하고 당황했던 기억도 있다.

여하튼, 컴퓨터에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작성했던 문건들이 조각조각 들어 있었다. MT 기획안, 축제 기획안들이 있었다. 물론,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아마, 그즈음 의과대학을 다닌 학생들에게는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일련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을 듯하다. 2000년 늦은 봄에 시작된 사태는 학생파업, 전체 학생 자퇴서 투쟁으로 이어졌다. 우리 학교는 당시 강경노선을 펴던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의과대학 500여 명이 모두 자발적 자퇴서를 써서 전국의 자퇴서 투쟁을 이끌었다. 그날로부터 가두시위, 치유정원에서 시작한 천막농성, 지역 집회, 전국 집회가 이어졌다. 투쟁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룰 내용은 아니다. 다만, 우리 의과대학 동기, 선·후배들의 의약분업의 문제를 알리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열정과 행동력은 전국적 투쟁의 원동력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그해 겨울 밀린 수업과 시험으로 겨울 방학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한 학기의 과정을 겨우내 추운 강의실에서 미뤄둔 수업을 해야만 했다. 또한, 정말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자들을 지키고, 환자를 지켜내고자 응급실과 병실을 지켜주신 교수님들, 그리고도 겨울 내도록 수업을 해 주신 교수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서야 다시금 깨닫는다.

새내기로 입학해서 선배들과 함께한 신입생 환영회, 봄날 햇불 마당에서의 태극축전과 은혜제, 여러 차례 함께한 MT며, 앞서 언급한 긴 여름날의 투쟁의 기간들이며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기억들을 글로 쓰기에는 내 기억은 너무 흐릿하고, 필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주 만나는 친구도 있지만, 어렵풋해져 가는 친구들도 있다.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 사진을 구했다. 반가운 친구들의 얼굴이 이제 다시 떠오른다. 흐려져 가는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 난다.

나의 뿌리, 계명의대



20기 백진오

푸른병원 화상외과

안녕하십니까? 계명의대 20기 백진오입니다. 동기들 선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며 의학 공부에 매진하던 때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좋은 추억들이지만, 당시는 학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등등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늘 함께 곁에서 이끌어주고 독려해주던 동기 선후배들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한두 번은 꼭 챙겨서 만남을 가졌던 동기 모임도 코로나 때문에 2년여 동안 못했습니다. 이런 저런 동기들 또는 동문들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의사로서 나아가면서 나의 뿌리인 계명의대에 대해 늘 새로이 가슴에 그리움을 담습니다.

나의 의사로서의 기초를 닦아 주셨던 은사님들, 무서웠지만 뒤로는 따스했던 선배들 언제나 든든했던 후배들... 모두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모여 굴러가서 계명의대라는 큰 산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란 생각을 합니다. 의학을 비롯한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두각을 나타내는 동문들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유했던 계명의대 동산병원의 설립이념과 그 동안 모든 동문들께서 쌓아오신 훌륭한 가치관들이 누누이 축적되어 비로소 세상을 밝게 비추는 <계명>의 오롯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이러한 우리 모두의 힘이 보태어지고 또 뭉쳐져서 훗날 이 세상을 바꾸는 더 큰 힘으로 자라나리라 확신합니다.

나 하나하나가 계명의대이고 또 계명의대가 또 다른 나의 이름이 된다는 생각. 매 순간 임상에서 환자를 대하면서 나의 한 마디 말과 나의 작은 기술 등등 모든 것에서 이런 생각이 배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계명의대인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지금 우리 계명의대인에게 필요하고 또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속에 언제나 계명의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새기고 모두 함께 뭉쳐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계명의대 주춧돌의 푸른 이끼가 되기를



20기 홍정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안녕하십니까?

18대 학생회장, 계명의대 20기 홍정호입니다.

우리 20기 동기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추억을 모아 글을 쓰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렵네요. 글을 의뢰 받고 고민을 하다가 혼자만의 왜곡된 추억만 기록할 것 같아 일단, 의학과 4학년 대표였던 백진오에게도 부탁해서 글을 하나 받았습시다. 그리고 저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글을 써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20기는 단합에 있어서는 참 모범이 되었던 기수인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에 때도 많은 동기가 남아 힘을 실어주었고, 다양한 행사와 각종 놀이에도 ‘진심’이었고, 각각의 동아리 공연에도 많은 친구가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의 아픔도 즐거움도 같이 나누었고, 서로서로의 모임에도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저희 20기는 쿼터제가 아닌 블록 수업을 통해 매주 시험을 친 결과 반복 학습이 잘 되지 않았고 학장님과 학장단 교수님들께서 의학과 4학년 때 성적으로 의사국가시험 응시에 제한을 두기로 하셨는데 (아마 단합해서 노는 것에 진심인 지라 공부는 잘하지 못했나 봅니다. ^^), 저희 모두 과거 의과대학 5층 강당에 모여 시험 거부(?)를 하고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학장님께 부탁드린 일입니다. 물론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로 도움을 주겠다는 맹세를 하고 나서 말이죠. 이후 서로의 노력과 도움으로 당당하게 국시 100%를 이루었을 때 저희 20기들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서로를 축하해주었습니다. 이후 의사면허 수여식 때 그 기쁨이란……

당시 학장님이셨던 박우현 학장님, 의학과 4학년 담임이셨던 김상표 교수님, 함께 제주도 졸업여행의 추억을 남겨 주신 서성일 교수님…… 말쑥꾸러기였던 저희 20기를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한층 더 성숙시켜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생회 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직도 마음 한 켠에 남아 있는 18대 학생회의,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기도 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학생회를 하면서 참 많이 외쳤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밖으로 축제를 키워 치유정원과 햇불 잔디에서 외부인들과 함께한 태계축제, 해부학 수업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납골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 대외정책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의과대학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며 학장단 교수님들과 소통했던 추억들, 햇불 잔디에서 각각의 지도교수님들과 지도학생들이 함께한 은혜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름을 다 적지 못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한 우리 학생회 동기들에게 다시금 보고 싶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친구들아~

끝으로 앞으로 10년 뒤 50주년, 60년 뒤 100주년이라는 긴 역사의 터널 속에서 20기들의 소중한 추억과 발자취들이, 향후 더욱 더 발전해나갈 우리 계명의대에 주춧돌이 될 태계(이끼 낀 계단)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20기 동기들 조만간 봅시다.

저공비행과 고공비행 사이에서



21기 김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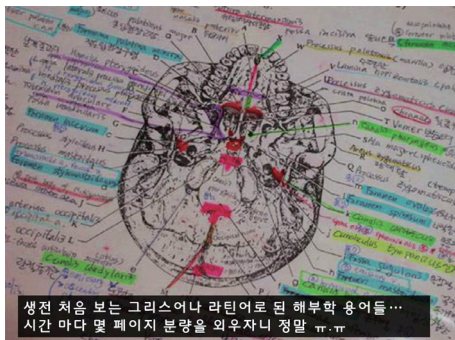
행복한재활의학과의원

정말 뇌용량 자체가 차원이 다른 녀석들은 고공비행, 요령껏 적당히 공부하는 녀석들은 저공비행,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의과대학 본과 시절의 이야기다.

의예과 2년의 과정을 마치고 본과로 올라 왔다.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의예과에서는 교양과목도 있고 성실하게 리포트도 써야 하는데 남학생들은 대부분 본과 가면 못 노니까 고등학생 때 못해 본 동아리 활동이나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니 성적이 훌륭하게 나오기 어렵고 여학생들은 그래도 꾸준히 공부도 하고 알뜰하게 리포트도 쓰고 하니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편이다. 나도 아르바이트 하라, 아기랑 놀아주라, 교회 생활 하라, 정신 없는 중에도 내공이 있었던지 본과 진입 성적은 괜찮았다.

진짜 무대인 본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말 그대로 정신이 없었다. 본과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여관방에 본과 진입생들은 고등학교 동문별로 공부를 한다. 골학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메모리 게임이었다. 주로 고대 그리스어가 어원인 해부학 용어들을 외워야 하는데 시간당 30~50가지 정도를 외우고 선배들이 내주는 쪽지 시험을 치고, 또 외우고 쪽지 시험치고 하는 것을 무한 반복한다. 잘못 외우면 몇 날 며칠 잠도 안 재워가며 계속하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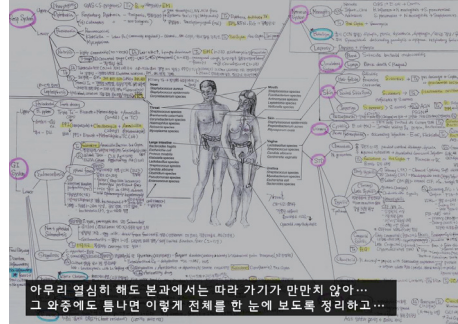


생전 처음 보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해부학 용어들...
시간 마다 몇 페이지 분량을 외우자니 정말 ㅠ..ㅠ

막상 본과 1학년에서 해부학 수업을 해보니 예과에서 좋은 성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죽자고 공부해도 10등 안에 들기도 어려웠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조감도로 보듯 조망하고 세부적인 것을 외우는 스타일인데 의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한 다음 외우는 게 어디 가당한 일인가! 좀 이해하려고 들면 그 엄청난 양에 늘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마구마구 일단 외우고 봐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도 시간이 날 때면 전체 내용을 한 장에 꼼꼼히 정리하여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는데 의대에서는 ‘야마’ 혹은 ‘죽보’라고 부른다. 이 죽보를 완성하고 나면 시험이 코앞이라 확실하게 외우기가 어려웠다. 아래 그림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리한 신체 부위별 정상 세균과 병원성 세균을 한 눈에 보기 위해 정리한 미생물학 죽보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한 눈에 다 보고 외워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기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내 죽보를 복사해서는 하루아침에 후다닥 외우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었다. 어떤 친구는 책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을 복사하듯 답안지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는 녀석들도 있었다. 우리 그런 녀석들을 복사기라 불렀다. 어쨌든 본과에서 장학금 욕심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웠다. 그래도 틈이 나면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나눠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습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회나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은 곧바로 정리해서 병원 매뉴얼에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자료로 쓰는 것이 일종의 취미생활처럼 되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길 건너편에는 100년의 병원 역사를 훌쩍 뛰어넘는 수백 년 된 재래시장이 있다. 바로 서문시장인데 수업이 끝나고 짬이 나면 노점에서 파는 순대를 사 먹으러 가끔씩 가곤 했다. 그러면 순대와 함께 간이나

다른 내장을 같이 찢어 주시면서 아지매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재밌게 장난을 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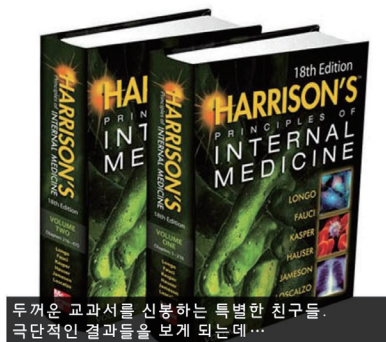
“이거는 스킨 인테스틴, 이거는 알지? 리버, 요놈은 키드니...”

하시면서 순대와 부위별 내장을 해부학 교수님들이 설명하듯 영어로 얘기하시는데 목에는 수건을 하나 두르고 손에 목장갑과 비닐장갑을 끼고 장기를 들어 올리며 웃으시면서 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정겨운지...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좀 좋아지셨으려나...

시험 치기 전날은 거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밤을 새곤 했는데 새벽 두 세시 경이면 어김없이 허기를 못 견디고 길 건너 서문시장 포장마차를 찾는다. 포장마차에서는 우리 학생 주머니 사정에서 먹을 만한 거라곤 라면 뿐이다. 친구들과 라면을 시켜서 후루룩 후루룩 먹고 나면 얼마나 포만감과 함께 작은 행복이 밀려오는지... 사실 따뜻한 라면 국물을 같이 먹고 나면 외워야 할 분량 뿐만 아니라 졸음과 싸워야 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작은 포만감과 행복감에 넘 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본과에서 가끔씩 특이한 친구들이 있다. 우린 대부분 기출문제들을 정리해 둔 것을 먼저 확실하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다른 내용을 참고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교과서를 보고 이해하려는 친구들이 있었다. 드물지만 한 학년에 꼭 한 명씩은 그런 친구가 있는 편이다. Harrison이라는 내과학 교과서를 붙잡고 밤낮 수도승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듯 경건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한다.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는 정말 분량이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다. 그리고 교과서가 한 권 만이 아니다 보니 교과서를 다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은 교과서에 폭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시험에서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탈락을 거듭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간신히 통과한다. 이런 친구들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 번 시험에서 탈락하다가 학교를 마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교 정규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거의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정말 무사히 과정을 마치고 학문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친구를 보면 존경스럽고 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친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저공비행”이란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굳이 그렇게 시험 점수가 고공비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땅에 처박지 않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시험을 그렇게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pi.\pi$ ‘어차피 수련할 때 또다시 배워야 하는데 최소한 알 것만 알고 지나가자’는 이 친구들의 처세가 때론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나는 저공이고 고공이고 따질 필요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만 시험을 지나갈 수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는 뇌의 용량이 차고 넘치는 녀석들의 이야기로만 알고 웃고 지나갔다.

지금 돌아보면 의과대학 학생 시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다면 의사로 살아가는데 무지무지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통증, 재활,

스포츠, 족부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 외에는 상당 부분 잊어버렸다. 하지만 매년 학회에서 새로운 내용을 접하고 집에 와서 다시 깊이 찾아보려고 들면 어김없이 대부분 의대생 시절에 배운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 있다.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생화학, 유전학 등등 모든 분야가 잘 짜인 모자이크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배울 당시는 이 많은 것들을 외워서 언제 써먹을까 싶은 때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그 많은 양을 다 외우고 평생 간직할 수는 없더라도 배운 기억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때가 되어 필요하면 다시 찾아볼 때 낯설지 않고 쉽게 접근하게 된다.

어찌어찌 한 번도 탈락 없이 본과 3학년까지 무사히 올라왔다. 이제는 PK(Poly Klinik) 실습이다. 클리닉이 Clinic이 아니고 왜 Klinik이냐고 물었더니 독일어에서 따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이론을 다 배우고 나면 직접 진료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술실이라든가 중환자실 등 정말 현장에서 생생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선생님들 바로 한 발 짝 뒤에서 따라가면서 다 보게 된다. 비록 학생 신분이지만 흰 가운을 입고 교수님들이랑 전공의 선생님들 뒤를 쫓쫓 따라다니면서 비로소 “아! 내가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의학 드라마에서 교수님들이 회진할 때 우르루 뒤에서 몰려다니는 흰 가운을 입은 뭔가 좀 어색한 사람들의 무리가 주로 PK 실습 학생들이다. 환자들을 직접 마주 대하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했다. 나는 처음 시작은 멋모르고 시작한 길이였지만 이제는 정말 이 길이 태초부터 준비된 내 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개원한 지 10년, 사랑하는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루 하루를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 나는 오늘도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살고 있다. PK실습 때 이 길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길이라는 느낌은 현실 속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세기말부터, 미래가 된 오늘까지, 그리고 과거가 될 오늘을 바라보며

21기 박병규
효성여성병원



1999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21기로서, 예과 1학년에 입학하게 된 날이, 지금도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 3학년에 수능을 보고, 이후 합격 통지를 받은 후 대학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하며 긴장하던 - 지금 보면 어린이의 설렘이지만 - 세상을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흥분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기억된다. 당시 1999년은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기념적이며 역사적인 년도였다. 1000년에 한 번 온다는 세기말 마지막 해. 앞의 자리가 영원히 바뀐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Y2K를 통한 전산망의 대 혼란이 올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1999년 7월 세계 멸망설, 그리고 모 종교의 휴거설까지 나돌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면서도 흥분되던 한 해였다.

당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여 미성년자를 벗어난 예과 1학년 새내기에게 무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이 있었겠는가. 그저, 술을 마실 수 있음을 뿌듯해하며, 마치 주량이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고 증명할 수 있을 거란, 그 누구도 입 밖에 내뱉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생각하는 남아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뿌듯이 품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도 그러하기에 단언할 수 있지만, 사실 주량이 많진 않았다. 하지만 그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품고, 토할 때까지 마시던 나날이었다. 어쩌면 당시 황황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세계 멸망이나, 휴거론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멸망 전 확실하게 놓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노는 것도 놀아 본 자들만이 잘 놀 줄 알며, 당시 남중 · 남고를 거치며 공부만 한 내가 술, PC방, 보드게임 등의 소소한 취미 외 다르게 논 것도 없지만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나,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에서 누구나 알듯이, 당시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고,

Y2K는 큰 문제없이 넘겼으며, 세상은 흘러갔다. 2000년이 되어, 새천년이 밝았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야 했고, 본과 가면 이제 공부만 한다고 놀지 못하니 예과 2학년 때 더더욱 맹렬하게 놀아야 된다는 치기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나와는 달리 급변하고 있었다. 그저 내가 그 시절을 느끼지 못했을 뿐. 당시 기지개를 펴던 인터넷 환경은 ADSL로 그전까지 전화 모뎀을 통해 이루어지던 느린 속도에서, 동영상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 물론 시간은 엄청 걸렸다 - 빨라졌으며, 이제 막 태동하던 핸드폰 시장은 삼성 애니콜 듀얼 폴더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으며, 롯데는 2% 부족할 때라는 광고 멘트로 콜라 · 사이다라는 전통 음료에서 탈피한 새로운 음료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서태지는 솔로 앨범을 내어 “울트라맨이아”를 불렀으며, 본 조비는 ‘It's my life’라는 희대의 명곡을 히트시켰다. 송강호, 이병헌, 이영애라는 훗날 한국 영화계의 대배우들이 총출동한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가 극장가를 점령했으며,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세계적 감독 봉준호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가 개봉한 해였다. 지금 와서 보면 놀라운 해였지만 당시의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예과 2년이 지나, 본과로 들어가게 되었다. 2001년. 드디어 성서를 떠나 동산동 동산병원 의과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다. 본과 1학년, 본과생의 시작이었다. 동문에서는 골학을 하며 온갖 뼈 이름을 외우게 하였고, 당시 극 초장기였던 쿼터 - 블록제의 전환기로 인해, 본과 입성과 동시에 주야장천 해부학만 하던 시기였다. 자기 관리가 잘 되거나 머리가 좋거나 요령이 좋은 친구들은 공부와 일을 양립하며 모든 것을 충실히 하였지만, 나는 그 어느 쪽에도 들지 못하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저 당장 주말에 있을 쪽지 시험에 버거워할 뿐이었다.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급변하는 의대 외 세상은, 다음(daum.net)이 창업(1999)하였고, 롯데가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쇼핑몰을 론칭(2000)하였고, 9.11테러가 일어나(2001) 세상이 그 이전과 이후로, 역사의 분기가 일어났지만, 그저 남의 이야기 같기만 했던 때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벌어지며, 붉은 악마의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였다. 당시 본 2였던 우리는 응원이나 시험공부나 -사실 응원을 빙자한 술자리였지만- 라는 희대의 고민 속에서 많은 이들이 월드컵의 열기에 몸을 맡겼다. ‘이것만 응원하고 공부해야지’ 하던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들은, 조별 예선, 16강 진출, 8강을 넘어 4강까지 가는 미친 기염을 토하였다. 당시 이쯤에서 지겠지, 이거 지면 완전 공부해야지 하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던 우리들은 계속 이겨 나가는 붉은 악마들에 기뻐하며 당혹스러워하였고, 당시 교수님께 부탁하여 시험을 연기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가 월드컵의 광기에 흠뻑 취했던 때였다.

본과 3학년이 되어, PK를 시작했을 때, 그간 교실에서 책으로만 보던 책상물림이 아닌, 실제 임상을 접한다는 떨림

을 아직도 기억한다. 물론 PK가 별거 아니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멍하니 서 있다 온 것이 전부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신선하고 떨리는 시기였다. 물론 세계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베트남전 이후 최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국 영화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올드 보이, 살인의 추억 등이 나오며 문화계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으며, 스타크레프트라는 전무후무한 게임의 게임 리그가 MBC 스타리그와 온게임넷 스타리그로 절정을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TV에서는 대장금과 야인시대라는 두고두고 회자할 명작들을 선보였으며, 임창정은 소주 한잔이란 명곡을 선보였다. 대구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최악의 한해이기도 했다. 이후 법의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더욱더 슬펐던 사건이고 비극이었다. 그러한 한 해였다.

2004년이 되어, 드디어 6년에 걸친 의과 생활의 마지막, 본 4가 되었다. 마이너 PK를 하고, 이후 국가시험 공부를 위해 저마다 스터디를 하며 보냈다. 2004년도 역시, 만만찮게 한국사에 한 획을 긋던 굵직한 사건이 넘쳤지만, 국시 합격 그 하나 외에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던 때이기도 했다. 수석외 합격자는 모두 차석이라 주장하는 국시에 나 또한 차석이라 주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던 의사 면허를 얻게 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김선일 피살 사건, 행정 수도 이전 논란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판결까지, 다시 생각해봐도 격변의 한 가운데였던 한 해였다. 한국을 넘어 보자면, 일본에 겨울연가가, 중국과 대만에 대장금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류가 시작된 한 해였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당시의 나는 체감하지 못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후 나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경험을 겪었다. 대구를 떠나, 미국에서 반년 정도 지냈고, 군의관 3년 생활을 하며, 영천, 일산, 파주에서 복무했었다. 서울에서 제법 살다, 부산으로 내려갔었다.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지금은 대구로 다시 돌아왔다. 많은 것이 변화하였고, 그보다 적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 모교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동산캠퍼스에서 성서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동산병원의 영원한 상징과도 같던 동산동 동산병원은, 성서 동산병원으로 많은 부분이 옮겨갔다. 나의 고등학교 모교는 남고에서 남녀 공학이 되었으며, 이제 2021년 기준, 신입생의 기수는 43기가 되었다. 수많은 은사님은 정년퇴임을 하셨고, 같이 술 마시며 젊음의 치기를 부리던 선배와 동기들이 대학에서 스텝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중이다. 나 또한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이렇게 선배이자 후배로서 40주년 기고문을 쓰고 있다. 많은 감회가 든다.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도,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하였음을 느끼고, 추억과 회한이 몰려온다.

이토록 많은 시간이 흐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실 밖에 남지 않았다. 1999년, 입학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술만 마시며 지냈지만, 그래도 나는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더 발전된 시대, 사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모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더욱 명성을 뽐내고 있을 모교에 공헌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의 진보를 누릴 것이라 생각했다. 세상은 발전했다. 과거의 내가 생각하던 정의롭고 SF적 상상력이 이루어진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절 생각도 못 했던 변화가, 미래가 바로 지금이 되었다. 당시 그 어떤 컴퓨터보다 뛰어난 성능의, 심지어 달 착륙을 한 아폴로 19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손 안 스마트폰이 되어 있고, 자율주행은 2단계가 상용화되었고 5단계의 실용화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인터넷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져 있으며, 인공지능은 향후 100년 안에는 인간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바둑에서 이세돌을 꺾었다. 학회와 콘퍼런스는 화상 회의가 일상이 되었으며, 오culus 등의 VR 기술은 이제 단순한 게임기를 넘어서 학습, 회의, 연구, 계발 등 수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기술은 아직은 개념뿐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미래로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대혁신의 시대 한중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어 서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위는 움직인다. 내가 꿈꾸었던, 우리가 바랬던 세상은 멀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혹자는 되려 멀어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뒤로 밀려난 것인지 차이는 있을지언정, 움직인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할 것이다. 실제 갈 수 있을지는 미래의 내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과거 생각만 했던, 나의 역사를 함께하고, 나를 있게 만들어주었던 모교의 발전을 함께하고 싶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에 추억을 함께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분도 계실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산 분도 계실 것이고, 현실에 휩쓸려 간 분도 계실 것이다. 난 어느 쪽이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지금의 내가 낼 것이 아니다. 아니었더라도 좋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변한다면, 할 수 있다.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모교의 발전 또한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통해서건, 재능 기부를 통해서건, 심지어 나의 발전 자체가 계명대 출신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 학교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도 말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가?

앞서 내가 적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과거를 둘러보자. 1998년 구글이 창립되었다. 지금의 구글은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이자 IT 업계의 거두이자, 시가 총액 기준 세계 4위의 기업이다. 1999년 다음이 창립되었다. 비록 카카오와 합병으로 이룬 성과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작을 낸 봉준호는 지금 세계에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거장이다. 2001년, 911테러의 상

흔을 아직 세계는 치유하지 못하였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는 한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다. 2003년, ‘올드 보이’와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된 한국 콘텐츠의 힘은 점차 커져갔으며, 이로 인해 2004년, ‘겨울연가’와 ‘대장금’으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켰다. 누가 당시 지금 그러리라 생각했던가. 하지만 지금은 그러하다. 지금의 나와 이 글을 읽어주는 분도, 미래에는 어떨는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발전하고, 모교와 함께 빛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기를 나는 바라며 나아갈 것이고,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당신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라떼는 말이지 그랬어



22기 홍서운
인성신경과의원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그해, 00학번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세기보다 21세기가 익숙한 지금, 과거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의과대학 40주년을 맞아 짧게 적어 봅니다.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 라는 우스갯소리가 어울리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콘텐싱 보일러가 더 잘 어울리는 유지태 배우님이 그 시절 대명동과 성서 계대에서 영화를 찍었고(영화 동감 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대명동 계대와 성서 계대 그리고 동산동 본과가 있었어’라고...

1학년 여름 방학 때 큰 사회적 이슈였던 의약분업과 의료과업을 했던, 옛날 일들이 있습니다. 1주일마다 열심히 시험 치고 비워내던 본과 1학년 시절, 영원할 것 같던 그 함성과 열기의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을 보냈습니다. 축구 때문인지, 해부를 마친 용기인지 우리는 연속 몇 주간의 생화학 시험을 미루는 애국심과 단합을 보여줬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달라진 2002년 태극전사의 모습만큼 오래된 일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듬어 본 기억은 이제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여러 추억을 불러옵니다. 지금은 없어진 햇불 잔디, 죄송하지만 솔직히 지루했던 5층 강당의 채플 시간, 학년마다 바뀌지만 틀린 그림 찾기 같았던 본과 강의실들, 환한 백열등 아래에 고개 숙인 검은 머리들로 채운 열람실, 밥과 라면 냄새의 지하 1층, 시험 기간에 흑사당하는 복사실의 복사기, 갓 구운 빵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방금 복사한 ‘아마’, 과제보다 카트라이더를 더 많이 했던 1층의 컴퓨터실... ‘라떼는 말이지 그랬어’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 최선을 다 했던 과거의 계대 의대생인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의사가 적었지만 진짜 의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의사는 많은데 직업, 일로 하는 의사가 많다는 누군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시절 친했던 사람들, 6년 내내 보았던 동기들, 선배님들, 존경하는 교수님들,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진짜 의사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극히 개인적인 글을 마칩니다.

Every week on Friday



23기 이종철

척답병원 관절클리닉

성서 예과 생활을 마치고 본과생이 되면서 바뀐 가장 큰 점 중의 하나는 그 주에 배운 과목들을 매주 토요일 아침에 바로 시험을 친다는 것이었다. 예과 때는 기본적으로 특정 과목의 F 학점만 면하면 본과 진급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본과에 들어오면서 특정 과목에 과락이 확정되는 경우 학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유급으로 인한 휴학에 접어 드는 경우가 있어서, 본과 생활은 매주 매주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그리고 매년 누군가는 그 살얼음판 아래로 실제로 빠지기도 했다.

수요일, 좀 더 여유가 있는 주는 목요일 오후쯤에서야 의과대학 지하에 있던 복사실을 어슬렁거리며, 이번에는 누구 필기가 보기가 좋게 정리가 잘 되어있나를 살펴보고, 복사본을 한 부 구매해서 공부를 하려고 슬며시 폼을 잡아본다. 하지만 이내 곧 누군가가 “야! 복사실에 새로운 자료 떴다!” 하면 ‘아~ 공부할 게 또 늘었구나...’ 한숨을 쉬며 복사실로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그렇게 찾아간 복사실에는 나의 표정과는 대비된 늘 웃고 있던 행복한 아주머니의 표정. 그때는 웃고 있던 아주머니의 표정이 왜 그렇게도 알뜰던지. 하긴 그때는 복사실에서 아이유가 “나는요~ 오빠가~ 좋은걸~♪” 하고 노래를 부르며 족보 집을 팔고 있었어도 알미워 보였겠지.

준비된 족보 집을 가지고 히포크라테스도 감탄해 마지않을 오만가지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을 동원하여 각막에, 또 대뇌 피질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할 의학 지식을 살짝 묻힌다. 이때는 눈을 크게 깜빡여서도, 머리카락을 털어서도 안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시험시간이 다 되어 올라간 의과대학 강당에서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나의 기억에 일시적으로 머물던 눈곱만큼의 지식들을 답안지에 빠르게 쏟아붓는 생활이 매주 이어졌다. 그리고 몇몇 선택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헤어날 수 없었던 재시. 재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Base-up. Base-up 해주시는 교수님 thumbs up!

이렇게 매주 토요일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조바심 나던 순간에도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요일 저녁 식사

였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항상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뭘 그래 열심히 하나~ 밥이나 먹고 하자!” 하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려 지하상가 건너 길에 있던 ○○ 감자탕 집에 가곤 했다. 그 감자탕 집에는 아주 친절한 주인아저씨와 터프한(?) 주인아주머니, 그리고 누가 봐도 억지로 일하러 끌려 나온 투명스러운 아들이 있었다. 매주 한 두 번씩 가는 식당이지만 언밸런스한 가족의 묘한 조화가 항상 나와 우리 친구들에게는 생소하게, 혹은 재미나게 느껴졌었다. 감자탕 혹은 비빔밥을 시켜놓고 금요일 온게임넷에서 방송하던 스타크래프트 중계방송을 보면서 우리들보다는 몇 배는 게임을 잘하는 임요환, 홍진호에게 이런저런 훈수를 두며 잠시나마 내일 있을 시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내일도 이렇게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시험을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식당으로 가려면 지하상가를 지나가야 했는데, 거기에는 딱 우리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약사가 한 명 있었다. 젊은 나이에 번듯하게 자기 앞으로 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안경 끼고 멀끔하게 잘생긴 그 약사를 우리 모두 부러워했다. 어쩌면 그의 경제력이나 외모를 부러워했던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그의 상황이 부러웠을지도 모른다.

“아~! 인생 뭐 한다고 이렇게 매주 불금에 놀지도 못하고 시험 준비 한다고 이러고 있나~? 형! 지금 시내에는 젊은 남자 여자 애들 다 쏘주 먹고 맥주 먹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동기 동생은 이미 마흔 줄에 접어들어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어느덧 아들 둘을 두어 삼부자가 되었다. 그때의 금요일에는 나도, 내 친구들도 모두 젊은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금요일 저녁. 나, 그리고 오랜 친구 우리 모두 그 기억 속 여전히 젊은 아이들로 돌아간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태계인이 되기를



24기 김근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근태입니다. 저는 그 이름도 산뜻한 산소(O2) 학번입니다. 계명의대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어느덧 20년째네요. 결코 짧지 않은 의과대학 40년에는 우리가 모두 저마다의 한 조각을 남겼다고 생각하며,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의 형태로 계명의대를 만들어온 여러 선·후배들과 친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함께 시작한 6년의 의과대학 생활을 돌아보면, 희로애락이 가득한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학번의 101명 중에서 현역이 12명이었던 02학번의 특성상, 현역인 저는 학교에서 언제나 형들과 누나들에게 사랑받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무얼 이루었냐고 물어보면 딱히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 생활 시작과 함께 한 2002년 월드컵의 붉은 물결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2005년 2학기부터 2006년 1학기까지 의과대학 학생회장이 되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학교와 사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영양군 수비면 산속으로 떠났던 농활, 미세먼지 하나 없던 계명대 대운동장에서 대구의 4개 의과대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던 일, 비가 억수처럼 내리던 날에 천막 아래에서 함께한 축제 마지막 날은 아련한 추억입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의사가 되기 전에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마도 지금의 제가 의료 외에도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치러낸 행사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까지 찢렁했던 은혜제에서 햇불 잔디를 짝 채울 정도로 많은 교수님과 지도 학생들이 모였던 것은 학생회의 편지를 직접 전달한 후배들이 만든 것이고, 계명대학교의 타 단과대학과의 교류, 전국의대생연합 총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등의 대외 활동은 선

배들이 만들어놓은 토대가 없었다면 생각도 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 모든 학생회 활동들도, 사실은 학생회 부장들이 일해준 것이기에 이 추억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계명의대입니다.

그 시절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명의대 학생일 적에는, 단합과 강압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전통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던 학풍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생, 즉 의사가 될 사람이라는 선민의식과 선배라는 심리적 우위를 사용한 여러 가지 악습과 폐단은 저와 같은 시대를 지낸 이들의 빛나는 20대를 망쳐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 잊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시대의 한 페이지입니다. 수십 년 전의 선배들과 지금의 재학생들이 똑같은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모교를 아끼는 마음은 비슷할 것입니다. 불혹을 넘기는 계명의대의 역사에는,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배로부터 이어받아 후배에게 전수하는 지식이나 가치, 또는 기억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꺼내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불편하거나 슬픈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들도 잊지 않고 곱씹어서 결국은 우리 모교인 계명의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미래는 지나간 40년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과대학 6년, 어쩌면 수련 과정을 합쳐 11년에서 13년 동안 익숙한 사람들과 지냅니다. 그래서 흔히 스스로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오랜 세월 때문에 전통이나 추억이라고 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만, 일반적 사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경직된 사고를 공유하여 왜곡된 문화나 인습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상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끊임없이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계명의대의 미래에 꽃길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차곡차곡 쌓은 태계(苔階)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쉬이 무너지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온갖 희로애락이 뒤죽박죽된 그 시절을 함께 한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Figure. 제22대 학생회 일동

앞줄: (왼쪽부터) 권성걸, 손성민, 김동진, 정재원, 박진현

뒷줄: (왼쪽부터) 서태규, 정택영, 곽민호, 김근태



의과대학과 함께한 젊은 나날들

24기 정남기

상주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



어느덧 벌써 2021년도 2달도 채 남지 않은 늦가을의 새벽이다. 제법 쌀쌀하고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넘어온다. 무심코 창밖을 보니 하늘은 어찌나 맑은지... 요새는 하늘이 참 좋다. 참 푸르러서 무심코 계속 쳐다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요새 하늘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의과대학이 40주년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니 문득 나이가 40이면 불혹이라는데 나 또한 말만 많아지고 겁만 많아지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내년이면 의과대학 들어온 지 20년, 벌써 생의 반을 의대생으로 또 의사로 사는 요새는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하루하루 일과 육아와 씨름하다 보면 이제는 새로 만들어가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옛 향수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두 어린 애기들을 보면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던 중 의과대학 교수인 친구의 회고록을 한번 써보자는 말에 의과대학 시절 추억의 서랍장을 열어본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을 그때 우리는 2평 남짓한 컨테이너 안에서 밴드부 활동에 빠져 있었다.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이 의대가 좋다고 해서 들어와서 멋도 모르고 시작한 예과 생활과 대구라는 낯선 곳에서 시작한 대학 생활은 힘들었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얼마 가지 않았다. 선배들이 절대 들지 말라던 동아리 두 곳 중 하나인 밴드부에 덜컥 들어버린 것이다. 밴드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지만, 실력이 부족해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으나 보컬이 없어 혈안이 된 선배들과 동기들 덕분에 hipp-sons 라는 동아리 생활의 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재밌어서 좋아서 한다지만 그때는 선배들이 무서워서 반 강제적으로 연습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실력은 쑥쑥 늘었고, 무사히 첫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비록 동기들 대부분이었고 의과대학 단과대학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우린 실력파였기 때문에 관객들이 많지 않았지만, 무대에 서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치러진 악기 인수식, 정말이지 겨울에 남들은 다 여자친구 만들고 여행 가는데 심지어 매니저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남자 6명이 모여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라니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술도 많이 마셨다. 원래 술을 잘 못 하는 몸이었지만 먹으니까 술은 점점 늘어났고 점차 실력파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보며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었다.

추운 겨울을 좁은 컨테이너에서 함께 보내고 어느새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유니버시아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구에 있는 네 곳의 학교 밴드 동아리를 초청해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학교만 본대 밴드부 불참으로 단과대학 동아리인 우리가 참가하게 되었다. 나름 열심히 해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공연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공연이겠거니’ 하고 준비했다. 하지만 당일 무대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니 그곳은 당시 최고 핫플레이스인 신축 대구역 앞 롯데백화점 앞이었다. 지금이야 대구역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범한 곳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곳은 신축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다른 밴드들은 정말이지 실력이 쟁쟁했고 마지막 finale는 록의 대부 중 하나이신 김종서 씨였다. 관중도 어림잡아 천명 가까이 되어 보였다. 멘트도 의상도 준비가 부족했던 우리는 멘붕 상태였지만 그래도 준비한 것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연주했고 다행히 우리의 실력 이상(?)을 발휘하여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비록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초대 손님으로 오셔서 제일 앞줄에 계시던 김종서 씨의 환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누군가 한번 무대에 오르면 그걸 잊지 못해 공연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더니 그 열렬한 환호와 박수는 그 당시 밴드부의 최고 포상이었다. 이십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박수와 환호가 들리는 듯하다. 단지 아쉬운 건 조금만 더 준비하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정도랄까. 그 후, 몇 년 전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때의 감동을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 너무 나간 것일까? 그래도 추억은 추억대로 좋다.

비록 뻣뻣한 일상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아련해진다. 비록 좁아서 누울 자리도 없던 낡은 컨테이너 연습실, 그나마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지만, 그때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요즘 생활이 힘들고 진료에 치이고 환자에 치이고 심지어 역병까지 창궐해 모든 것이 힘들지라도 21살의 젊은 나날들은 내 안에서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때의 열정과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청춘을 고이 간직하면서 고독한 진료를 해나가고 있다.

사실 요즘 의사들은 어느샌가 기득권으로 분류되어 적대를 받고 있다. 또한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도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뜨거운 청춘이 있었고 추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틀린 이야기일까? 세상이 우리를 빼돌게 보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평판이 되고 내가 나온 의과대학의 명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필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 의사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각자 부정하더라도 의과대학 출신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모교의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모여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 아울러 우리의 젊은 날을 함께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인 의과대학의 40년을 축하해본다.

2007 농촌봉사활동 by 계명대학교의과대학



25기 임철순

척탑병원 관절클리닉

매우 더운, 아니 거기예다가 습한 여름으로 기억된다. 2007년 여름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여름이었다. 장마가 물러 갔음에도 태풍의 영향이었으려나? 왜 흐리고 습했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우비를 입고 일을 했다는 것이다. 기억의 왜곡이 있을까 겁이 나지만 03학번 2007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농촌 봉사활동을 추억해본다.

그렇다. 본과 3학년의 여름 방학, 생각해보면 본과생의 방학은 그리 길지 않았고, 휴식을 하는 친구, 여행을 하는 친구, 다가올 PK실습에 들뜬 친구들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방학 전부터 공지한 대로 우리는 경상북도 군위 우보면으로 농촌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오정운 교목님이 도와주셔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정하고 열린 진료소 및 봉사하시는 선배 의사선생님들과 날짜를 맞췄다.

처음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면장님을 만나고, 우보초등학교에 부탁해서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강당을 이용하여 잠 자리를 만들고, 학생회 임원들은 창고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의대생들 중에는 분명 시골 출신도 있었다. 03학번 서XX 학우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농활은 '내게 맡겨라'라고 하면서 들떠 있었고, 또 다른 서XX 학우와 이XX 학우는 밤새 도록 후배들과 논다고 즐거워 했었었지... 공부만 하고 지내던 온실 속 화초 같던 의대생들은 아마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여튼 저마다의 목적과 봉사심으로 참가했을 거다. 물론 나는 총책임자로 사고만 안 나길 빌었다.

처음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예과 학우들, 본과 1학년, 2학년 몇몇 학우들(공부한다고 바빴을 텐데 분명 놀러 온 친구들이었을 것이라...)과 함께 신고식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총 6개조로 약 40명 가량이 참가하여 우로 주변 정리, 논밭 배수구 보강 작업(비가 많이 와서 그랬었다), 잡초 뽑기, 밭에 약 치기 등 여러 일을 했으나 정말 황당했던 건 여름은 그렇게 농번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의대생들이 뭘 알았을까만은 다행히 많은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지거나 배수구 정리라는 힘든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일을 마치고 밤에 직접 밥을 해 먹으며, ‘와! 정말 힘들다.’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식사 이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의대생들이 맨날 하는 ‘술 먹고 게임 하기’ 행사(?)를 했다. 아니 좀 전까지 피곤하다던 친구들은 어디 가고 장기 자랑부터 구석에서 ‘부어라 마셔라’라고 외치는 그룹까지...

솔직히 책임자인 난 밤 11시가 되어가자 슬슬 내일 일이 겹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6시 기상하여 다시 일을 함에도 아무도 별 탈 없이 숙취 없이 일하는 걸 보고 계명대 의대생은 역시 대단하다고 느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고된 일과 업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 일을 하다 보니 반찬 가져다 주시는 할머니들이 손잡고 고맙다고 할 때 기분이 좋았다. 특히 여학우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인기도 좋았다. 마지막 날 반팔에 반바지, 밀짚모자를 쓴 학생들은 의료 봉사 활동을 위해 방문한 봉사 버스와 선배님들의 하얀 가운을 휴먼지 속에서 뉘 놓고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 라고 다들 느끼지 않았을까? 마침내 의료 봉사는 지역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 임상경험이 없던 예과생부터 꼬꼬마 본과 1, 2, 3학년들도 옆에서 거들고 안내 하면서 뿌듯하게 마무리 되었다.

글재주가 없어서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련한 학생 때의 추억 중에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다 같이 모여 노래 부르고 밥해 먹고 했던 모습들이다. 같이 참여해준 학우들 후배님들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이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고마웠다. 아마 우보면에서도 우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의대생으로서 뜨거운 햇살 아래의 노동, 즐거운 추억, 그리고 봉사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농촌봉사활동은 현재는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없어진 걸로 안다. 하지만 그때의 뜨거웠던 의대생들의 청춘은 아직도 맘속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좁은 진료실에서 수술실에서 가끔 매너리즘에 빠지는 나는 그때의 우리가, 그때의 열정이 너무 그립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파이팅!

책과 뇌의 앙상블



26기 신예니

제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문학(Neuro-Literature)

바야흐로 “지식의 통합”인 통섭의 시대를 맞아 다학제간 연구가 한창이다. “신경 접두사(neuro-prefix)”의 열풍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신경과학에 주목한다. 다학제 연구는 학문의 융합을 통해 서로에 대한 풍부하고 입체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이점이 있다.

1681년 무렵 신경학(neurology)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신경해부학, 신경생물학, 신경과학, 신경 정치학 등의 많은 학문이 배태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 및 신경과학 분야에서 뇌 영상을 활용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1983년 뇌 영상(neuroimag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신경 언어학, 신경 철학, 신경 법학, 신경 공학, 신경 윤리학, 신경마케팅, 신경 인류학 등 그야말로 “신경-시대의 붐(boom)”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뇌 영상의 과장된 주장 및 맹신에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CT나 MRI 등의 뇌 스캔(scan)이 사실상 ‘뇌 스캠(scam,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부터 neuromania(뉴로 매니아, 신경광), neurohubris(거만한 신경학), neurohype(신경학 사기꾼), neurobollocks(가짜 신경학) 등의 비난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신경문학의 입장에서 미국의 문학비평가 노만 홀랜드의 지적대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산’에 이르는 터널을 만든다면 한쪽은 신경과학적 접근, 그리고 다른 쪽은 인문과학적 접근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식이다. 문학과 뇌, 일견 상이하고 무관해 보이는 두 학제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흥미롭게도 여러 학제 간 융합이 진행되면서, 일찍이 미국 우수 대학 영문학과에서는 신경과학적 비평과 분석, 인지심리학적 비평이 이루어져 작품의 이해를 도와 왔고, 역으로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교 등의 의과대학에서는 문학과 예술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의과대학생들의 문학 읽기, 글쓰기, 문학과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계발에 매진하고 있다.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혹은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기에 이러한 접목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일까.

뇌, 우주를 품다

별의 연결은 뉴런의 연결과 흡사하다. 은하에는 별이 2,500억 개 정도,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각자가 공평하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뇌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존재하고, 하나의 뉴런은 1개에서 1,000개 정도의 뉴런과 연결되니 시냅스의 수는 우주 공간의 별의 연결보다도 많고, KTX보다도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인간은 노화하지만,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 있어 새로운 경험과 행동에 따라 뇌가 변화하고 젊음을 유지하도록 한다. 뇌의 신경망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가지의 신경 연결이 형성된다. 재생은 신경 접화를 의미하는데, 전기·화학적 정보 전달이 가속화되고, 기존 연결은 재생·강화되며, 새로운 뉴런이 성장하도록 자극한다. 새로운 체험이 뇌의 신경 집합체를 활성화해, 표리부동과는 다른 의미에서 “겉 다르고 속 다르게”, 다시 말해 겉모습은 노화되더라도 뇌와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뉴로빅은 신경세포를 의미하는 뉴런(neuron)과 유산소운동인 에어로빅(aerobics)의 합성어로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정신 작업을 의미한다. 코넬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샬리 사텔은 뇌를 “양쪽 귀 사이 위치한 3파운드(1.4kg 정도)의 우주”라고 하였다. 그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결을 시도하고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우주와 뇌가 서로 닮아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서,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색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신경문학의 관점에서 ‘무엇을’ 읽을까, 그리고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소설과 비소설, 대중소설을 읽을 때 뇌의 활성화에 차이가 있고, 하나의 소설을 읽더라도 독서 방법에 따라 뇌의 활성 부위가 달라진다. 뇌의 연결성을 증가시키고, 마음 이론(theory of mind)과 공감,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과는 주로 문학작품을 읽을 때 나타난다. 독서 능력에 따른 차이도 있어, 초급 독자의 경우에는 언어 이해에 필수적인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어휘 분석에 관여하는 두정측두엽이 주로 작용하지만, 숙련된 독서 단계에 이르면 감정, 기억, 운동 영역의 연합이 두드러진다. 줄거리 파악을 넘어서서 그 흐름에 의식을 맡기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알아차려 공감할 뿐 아니라, 활자화된 오감과 운동 관련 표현들은 거울 뉴런의 작용으로 독자의 실제 체험이 되는 시뮬레이션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시카고 러쉬 대학병원 로버트 윌슨에 따르면 독서나 글쓰기 같은 적극적인 지적·정신적 활동은 과거 경험이었든 현재 진행 중이든 모두 인지기능을 향상하게 한다. 그는 노인 294명을 대상으로 인지 활성화의 수준을 평가했

고,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5.8년간 매년 장기기억, 작업기억, 시공간 능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평생 독서, 글쓰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노년기에 인지 저하가 천천히 나타났고,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독서 경험이나 인지 활동에의 노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늦게라도 인지적 노력과 활동을 시작하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메리언 올프는 독서를 “작가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지혜가 시작”되는 행위로 정의한다.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세계를 무궁무진하게 확장해 연결하는 이 행위는 과연 뇌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신경 점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방향으로 회로가 이어지는 앙상블을 이룬다. 어느 하나가 주도적인 활성화로 지휘한다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연결되어 빈틈을 메우고, 상상력을 채우고, 정서적 · 인지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써 독자는 재(再)경험은 물론 선(先) 경험도 가능하여 타인의 마음 이해에 이르게 된다. 독서 과정에 작용하는 뇌 부위는 마음 이론이나 공감에 작용하는 뇌 부위와 다르지 않다. 특히 소설은 정서적 · 인지적 마음 이론을 통해 타인 이해, 공감, 사회 정보의 이해와 사회 추론 능력을 배가시키며, 주의 지속 시간(attention span) 즉 집중력도 강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인차나 성별 차는 있지만, 책 읽기 작업은 곧 마음 읽기 작업이기도 하다. 영국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순수의 전조」 초입에서 이렇게 말한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
And eternity in an hour(한 알의 모래알에서 세계를 보고 /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 그대 손바닥에 무한을
실어 /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그는 상상력의 힘을, 작은 모래알에서도 세계를 볼 수 있는 무한과 영원의 관점을 이야기하였다. 우리에게 책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앤 라몛의 표현대로, “이 작고 납작하고 단단한 네모진 종이가 여러분에게 노래하고, 여러분을 편안히 진정시켜 주며 때로는 흥분시키기도 하는 세계를, 또 그 너머 또 다른 세계를 펼쳐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당신 앞에 놓인 한 권의 책이 섬을 주고, 희망과 기쁨을 전달하고, 좋은 의미의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색다르게” 살아갈 무대를 펼쳐준다. 힘겨웠던 하루의 삶에, 이 소식이 잔잔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 P.S. “책과 뇌의 앙상블”을 연주하게 해주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과 동산병원, 그리고 그곳에 발길과 손길이 닿았던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음의 고향, 앙상블



27기 김효진

동산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매년 각 동아리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환영 공연을 준비한다.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동아리 활동 없이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연극동아리 ‘앙상블’ 공연 날 마음이 바뀌었다. ‘늦깎이 입학생을 딱히 환영해줄 동아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과는 달리 앙상블에는 다수생 선배들이 많았고, 뒤풀이나 참석해보라는 말에 따라갔다가 사람 좋아 보이는 모습에 코가 꺾여버렸다. ‘앙상블’에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연기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소 수행 불안(performance anxiety)이 높았기에 연극무대에 서는 것은 꿈도 꾀본 적이 없었고, 기필코 스태프만 하겠다고 마음먹고 동아리에 들어갔다.

예과 1학년 말, 그렇게 스태프로서 첫 공연을 마쳤다. 한 달가량 다 같이 모여 서로 합을 맞추고, 마침내 완성품을 보던 그날,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그렇게 2007년에는 ‘택시드리벌’의 ‘화이’로, 2008년에는 ‘사랑에 관한 다섯 가지 소묘’에서 전라도 아줌마와 경상도 할머니 역할로 무대에 서게 되었다. 그때 그 많은 대사들을 어떻게 다 외웠을까. 청심환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무대에 설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한 달 동안 매일 같이 5층 강당에 모여 참 즐거웠다. 대본에 형형색색 색칠하고, 까맣게 메모하며 참으로 열심이었다. 연출 선배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서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또 가끔 선배들이 쏘는 피자는 얼마나 맛있었던가. 2008년, 공연 시작 5분쯤 흐른 초반부에 한 후배가 대사를 잊어버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정말 이대로 공연을 접어야 하나 생각했다. ‘○○아, 그 아찔했던 순간 기억하니?’ 잠깐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날의 공연도 성공리에 마

무리했다. 2시간 동안 관객과 호흡하고, 막이 내려간 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 기분은 공연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맛에 배우들이 무대를 떠나지 못하나 보다. 공연 뒤풀이에서 우린 ‘부어라, 마셔라’ 그날의 감흥을 마음껏 즐겼다. 그 뒤로도 한 달을 공연 없이 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 다시 연습하러 모여야 할 것 같은 느낌.

공연 이외에도 앙상블 활동을 하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고, 참 감사했다. 그때 우린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이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오랜만에 그날의 공연 영상을 보고 동아리 카페에도 다시 들어가 봤다. 잊고 지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 오랜만에 보는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님들, 다들 안녕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나중에 홈커밍 공연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때의 우리는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다. 한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고향, 앙상블’, 그곳은 나에게 그런 곳이었음이 다시금 떠올랐다.

2009년 호흡기 내과의 추억



28기 김수호
시티병원 신경외과

2009년 의학과 2학년 때였다. 엄청난 양의 수업을 듣고 그 많은 양을 공부해서 근근이 시험을 치며 넘어가던 시절이다. 사실 나는 우등생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고, 술과 게임에 빠져있었다. 절대 유급만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험 기간에는 꽤 진지하게 공부에 임했었지만, 꽤 높은 확률로 재시를 치며 헤쳐 나가고 있던 터에, 호흡기 내과의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었고, 호흡기라는 과목이 상당히 흥미로우며 이해가 잘 가는 과목이란 생각이 들었다. PFT 결과를 보며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며 쉽게 느껴졌다. 수많은 폐 질환들의 X-ray와 CT 사진을 보며 ‘아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며 혼자 득도한 듯한 느낌도 들었다.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진 상태로 호흡기 시험을 맞이하였다. 시험문제를 받았을 때 여느 과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한껏 나를 고조시켰다.

‘오! 이거 내가 공부한 건데’, ‘오호! 이 문제는 이런 함정을 파 놓고 문제를 내셨구먼! 이 정도는 파악 가능하지!’ 시험이 끝날 무렵 나는 직감했다.

‘아, 이번 시험은 재시를 맞을 수가 없구먼! 간만에 1차로 시험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을 맞이하면 되겠네.’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끝나고 난 후 친구들과 모여 몇 번은 뭐가 답이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답이 되었느냐에 대한 토론이 의학과 2학년 강의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나와 친한 무리 또한 이에 벗어나지 않았다. 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몸짓과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에이-이건 이게 답이지. 이건 이래이래 되니까 이게 답이야.” 하며 친구들에게 이번 재시는 절대 걸리지 않을 것임을 표현했다. 하지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내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 대세에서 어긋나고 있었다. 하지만 난 자신 있었다. 친구들과의 대조에서 내 답이 모두 틀린 답이라고 할지라도 재시는 면할 수 있을 점수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다. 왜냐? 대조해보지도 않을 만큼의 단순 단답형식의 문제는 모두 맞았을 거니까!! 친구들에게 이 시험을 재시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재시 치면 ‘넌, 참 공부 안 하는 녀석이구나.’ 하며 그렇게 큰소리를 치고 재시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무시했었다. 나의 이 호언장담에 친구들의 낙담한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대망의 시험 결과 발표 날이 되었다. 총대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험 점수가 50점 미만인 분들에게 우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재시 쳐야 하고, 추후에 추가로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은 재시를 칠지 그대로 점수 가지고 갈지 선택권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은 50점 미만으로 재시 선택권이 없는 분들입니다.’

“띠링~ 50점 미만 재시 대상자입니다.”

문자를 받았을 때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장난을 예과 2학년 때도 당한 적이 있었으니까. 한껏 웃으며 아직도 이런 장난을 치냐며 친구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표정은 거의 환호성을 지르기 직전이었다.

“ㅋㅋㅋㅋㅋㅋ아니 그렇게 재시는 없다고 그마이 그러더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레전드네ㅋㅋㅋㅋㅋㅋ십년짜리 놀림감이다ㅋㅋㅋㅋㅋㅋ”

“이 형 일부러 웃기려고 그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분명 다 아는 문제였는데?? 아니, 그 아리송하던 문제들 말고 뭘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거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오답을 찍었던 말인가? 약 10분 정도의 현실 부정과 반박 후 총대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다 난 50점 미만 재시 필수자였던 것이다. 이후 나에게 PTSD(Post pulmonary Test Stress Disorder)로 새로이 명명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도 친구들 사이에 회자되곤 한다. 내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때면 친한 동기들의 ‘호흡기 재시 느낌 나는데?’ 이 한마디에 언제나 냉정을 되찾으며 내가 지금 혹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뭔가에 씌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학생회 활동의 추억과 계명의대



28기 김정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응급의학과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명의대 40년사를 기념하는 책에 부족한 제 글이 실리게 되어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영광입니다.

때는, 2006년 2월 28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우리 동기들과의 공식적인 인연이 시작된 날입니다. 언제부터 이어진 전통인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꾸준히 있었던 대면식 날입니다. 아마도 대면식을 겪었던 모든 선후배님은 첫 행사이니만큼 강력한 추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예과 1학년 신입생과 의예과 2학년 선배님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단상 위로 올라가, 학번과 출신 고등학교, 졸업 연도를 소개하고, 종이상자에서 무작위로 질문지를 하나 골라 그에 답하는 형태였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무대 위의 한 명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있는 힘껏 큰 목소리로 소개해야 해서 목소리가 작은 학우들은 다시 하라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아 힘들었을 것입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예과생들 외에 본과 1학년 이상의 선배들은 원하는 인원만 참석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엄숙하고 고압적인 분위기였지만, 한 명 한 명 사람 구경하는 재미, 그리고 의도치 않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꽤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군대 내무반에서 예능을 보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는 마침 교수님 자제분들이 후배로 많이 들어와서, 대면식 같은 행사는 신입생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면식이라는 행사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판단해 교수님들의 지시와는 다르게 대면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과 달리 엄숙한 분위기도 조성하지 않았고, 큰소리로 소개하는 것과 달리 무대 위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편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끄럼을 많

이 타는 성격만 아니라면 그리 힘들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전, 오후 그렇게 대면식을 마치고, 저녁에는 뷔페와 술이 함께 제공되는 브로이하우스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꽤 유행을 타던 업종이었는데 현재는 많이 없어졌더군요. 행사장에는 테이블별로 지역 동문, 고교 동문의 이름을 써 붙이고 모두 자기가 속한 테이블에서 충분히 식사를 곁들인 음주를 한 이후에, 테이블을 순회하듯이 인사를 다니던 행사였습니다. 대면식 때와는 다르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취기가 올라 격하게 환영해주는 선배들이 많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선배들과 동기들의 망가진 모습도 많이 구경하고, 한동안은 대면식과 대면식 뒤풀이 얘기로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6년간 같은 동기들과 생활했고, 어느 학과보다도 학교에서 학우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시끌벅적한 일화를 포함해 큰 일화까지, 총망라하자면 책을 하나 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과 때 동기들 6명이 자전거를 타고 후쿠오카에 가서 10일간 노숙 여행을 했던 기억 등등 큰 에피소드가 많지만, 계명대학교 40주년 책에 쓰이는 만큼, 역대 학생회장의 일원으로써 학생회 때의 추억을 위주로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힙슨을 했던 우리 힙슨 28대 친구들은 본과 2학년이 되면 학생회를 같이 하자고 미리 의기투합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혈기왕성한 나이였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권력을 잡아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행사에 늘 1번으로 투입되어 힘든 일에 다 앞장서고, 축제 같은 행사에는 도우미로 항상 차출되었던 기억 때문인지 나중에 우리가 선배가 되면 우리가 주최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예과 때부터 나중에 학생회 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던 터라, 다른 학우와 학생회 자리를 두고 경선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9년 여름께부터 학생회 활동이 시작되었고, 가장 첫 행사는 농활이었습니다. 본과에 올라오고 나서는 MT도 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 아쉬웠는데, 그나마 여름마다 가던 농활도 2008년엔 개최되지 않아 너무 아쉬웠기에 농활을 부활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2006년 제가 신입생 때는 계명대 의대생들의 농활을 대구MBC에서 촬영을 나와서 거의 주연급으로 출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재밌었고, 농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농활은 현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 학생들이 조를 이뤄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학교의 강당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박 3일, 혹은 3박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한 조씩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고 오전, 오후 각각 조별로 파견되어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조별 활동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아주 하드코어 한 일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삼시세끼의 확대판이라고나 할까요? 일정 중에는 동산병원 의료선교팀에서 의료봉사도 나와 지역사회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홍보하는 역

할도 있었습니다.

농활 장소를 섭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9살까지 나고 자란, 나의 할머니 댁이 있는 고향, 초등학교를 장소로 잡아 섭외했고, 마침 아버지가 계신 지역 농협의 협조도 받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해 행사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이장 회의 때 일손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나, 한두 타임 정도 더 노는 시간을 만들어서 즐겁게 해 주었어야 했는데 일만 너무 한 탓에 참가해준 학생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고, 다 추억이라 지금은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학생회 첫 번째 행사를 마치고 교학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0년에 학교가 성서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주제는 당연히 이전할 학교 문제였고, 동산에 남겨질 우리가 교수님들을 상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의 행사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요구사항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의자가 강의실에 고정되어 있어 체형에 따라 앞뒤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결정이 끝난 상황이라 이것은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구장에 골대가 정식 골대가 아니라 림과 백보드만 벽에 붙어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골대 뒷공간이 없고, 무엇보다 레이업 슛을 하기 힘들다는 농구부 학생의 지적 ㅋㅋ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내 의견을 덧붙였고, 이 의견은 수렴되어 현재의 정식 골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농구 골대를 볼 때마다 내심 흐뭇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복사실. 지금에서야 말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나처럼 평균 이하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복사실을 통해 공급되는 필기 천사(학번에서 필기 제일 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자료나, 기출문제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복사실 사장의 노하우가 없이는 만들어지기도 힘들었습니다. 성서로 이전하면서 복사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자 교수님들께서는 다른 학과 학생들처럼 멀리 있는 복사실을 이용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너무나 중요한 복사실임을 알고 있던 터라 동아리방의 한 공간을 어렵사리 꺾어 내어 복사실도 이전시켰습니다. 사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용도가 상당했기에 복사실 사장님께서도 고마워하셨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같이 와 준 복사실에 상당히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학간담회 이후의 일정은 본과 진입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본과 진급이 확정된 예과 2학년 후배들과 학생회, 그리고 조교로 참가하는 본과 1학년이 참가 대상이었습니다. 색다른 장소를 찾아보고자 여러 곳은 검색해보았는데, 현재처럼 인터넷 이용이 활발하지 않아 정보의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그곳 중 한 군데가 거제도에 있는 학생수련원이었고, 사전답사를 위해 학생회 기획국장을 맡고 있던 현재 신경외과 권 모 선생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학생회가 가진 유일한 차였기에 작은 차였지만(라비타) 아주 즐겁게 5명이나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시속 80km만 넘으면 우측 앞바퀴가 덜덜거리는 현상이 있었고, 불안함을 호소했지만, 조심성이 부족했던 차주

의 성격 탓에 거의 200km가 넘게 덜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달려갔습니다. 장소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영 불안해져, 지나가던 카센터에서 점검받았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며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 매우 놀라는 표정이셨습니다. 타이어 휠이 손상이 있어 계속 탔으면 타이어가 분리되었을 거라고 해 임시 타이어로 교환하고 올 때는 천천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제도 장소는 너무 멀다는 학생처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급히 우리가 진입 OT 때 왔던 덕유산 인근 수련원을 섭외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학교가 성서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동산 캠퍼스에는 본과 3학년이고 학생회장도 있지만, 가장 레벨이 낮은 우리 06학번 동기만 남았습니다. 학교 이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계명아트센터에서 큰 음악회가 열리고, 거대한 영화에 학교 홍보 동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나를 포함해 가위바위보에서 진 몇 명의 학생회 임원이 같이 촬영에 임했고, 내 얼굴이 거의 IMAX 급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ㅎㅎ

학교가 성서로 이전 하는 만큼, 이제 의과대학도 성서캠퍼스의 일원으로써 본교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재하는 회의나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덕분에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2010년 초, 겨울방학을 맞이해 새로 꾸려진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확대 간부 수련회”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학생회 친구들, 학생회가 될 후배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고, 그 후에는 간부 수련회라는 명목으로 학생회장들과 본교 교수님들과 함께 본교의 지원을 받아 호주로 약 5일간의 연수(?)를 갔던 기억도 납니다. 공짜 여행이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ㅎㅎ

그렇게 봄이 찾아왔고, 축제에 앞서 6개 학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신설된 의용공학과 학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도 의과대학 소속이며 우리가 의과대학 학생회였기에 그 학생들도 함께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자주 찾아가 격려했지만, 워낙 단출한 인원엔 1학년들만 참가해 적잖이 소외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회 활동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행사인 축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소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주최를 해야 할 학생회와 행사를 해야 할 성서캠퍼스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에 빗대 보자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데 올림픽 위원들이 모두 부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우리의 수족이 되어 줄 내년 학생회를 미리 뽑아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일임하고, 자연스레 학생회를 넘겨줄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학생회를 이어받을 후배들이 뽑히고, 역할을 분담해 주면서 많

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년처럼 행사를 진행했던 메인 무대(과거 동산 캠퍼스에는 잔디밭과 무대가 있는 햇불 잔디가 있었지만)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쓸 만한 장소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사이에 넓은 광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과 일정을 맞춰 축제를 같이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축제를 할 때 상대방이 불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리하여 간호대 학생회장과 조율을 해 보았으나 그쪽에서도 독자 진행에 대한 의지가 강해 우리끼리 진행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중앙광장을 주 무대로 쓰기 위해서는 간호대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 직접 간호대학 장님을 찾아뵈었고, 간호대학장님의 시간을 맞춰서 PK 실습이 끝나고 찾아뵈기란 꽤 어려웠습니다. 대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축제를 진행할 만한 장소가 여기뿐이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차피 시끄러운 행사는 밤에만 잠시 진행될 것이고, 낮에는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마음 홀가분하게 축제 진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이 변해 있어서 콘텐츠를 바꾸려는 시도 보다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넓고 쾌적하게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장소 섭외가 어렵진 않았으나, 축제를 진행하는 자와 축제를 즐기는 자가 모두 어색했을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한 곳에서 진행된 축제였기에, 학생이나 교수님이나 모두 으레 어디로 가면 언제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측하고 움직였을 텐데,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도 마찬가지여서 의사소통이나 진행에 있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전의 햇불 잔디보다는 훨씬 큰 광장에, 전보다 훨씬 큰 무대를 꾸미고, 거대 현수막과 함께 축제를 시작했을 때는 마치 올림픽 개막식이라고 된 양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축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개원하신 선배님들 위주로 후원금을 모으는 의미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성서에서 하는 첫 축제이니만큼, 잘 해보자는 의욕에 앞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후원금을 모아 주셨고, 전보다 훨씬 풍족하고 성대한 축제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주최해야 할 학생회는 동산 캠퍼스의 병원에서 실습해야 하고, 장소는 성서에 있고, 만나서 회의할 시간도 너무나 부족했기에 더욱 다채로운 축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축제 마지막 날은 타과 학생회장들도 많이 놀러 와 주었고, 둘 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아쉽지만, 계명대 댄스동아리와 치어리더 팀에서 찬조 공연을 해줬던 것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였습니다. 가요제 대상은 <<지아 - 술 한잔해요>> 라는 노래를 불렀던 의용공학과 1학년 학생이 탔는데, 신설 학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정말 노래를 매우 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축제를 즐기는 입장에 있었을 때는 며칠간 나사 풀린 것처럼 놀기만 하면 돼서 너무 재미있었는데, 주최하는 처지가 되어보니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 즐길 틈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매일 밤 열심히 놀던 공간을 정리하고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누구보다 일찍 나와 점검하고 실행하고, 회식하는 걸 지켜보는 자영업자의 마음이 이러할까 싶었습니다. 다시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지만, 이 역시 참가한 학생들이 즐거웠다면 그래도 그걸로 만족합니다.

별다른 것 없는 학생회 활동이었지만, 학교가 이전하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의용공학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 30년 만에 크게 변화했던 그 중심에서 보냈던 학생회 시절이라 할 일도 무척 많았고, 그만큼 정신없이 보냈고, 확실히 추억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0년, 100년 계속 무궁무진하게 학교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 중간중간에 있을 변화에 우리보다 더욱 똑똑한 후배들이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학교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과거에 있었던 재미있는 행사(성향에 따라 싫기도 했겠지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들의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세대들은 그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 즐거운 학창 시절 보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의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산캠퍼스에서 다시 성서캠퍼스로



29기 양기욱

울산 제니스병원

먼저 본교의 졸업생으로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기념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이를 계기로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난날 학창 시절의 추억을 꺼내 보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학번은 다른 선배님들과 달리 조금 특이한 캠퍼스 생활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캠퍼스에 있었는데 무엇이 그리 특이했다는 말인가? 바로 우리 학번은 ‘동산캠퍼스’에서 본과 1학년을 보내고, 다시 ‘성서캠퍼스’에서 본과 2학년을 보낸 유일한 학번이었다. 이에 나는 동산캠퍼스에서의 본과 1학년 시절과 성서에서의 본과 2학년 시절을 회상해보려고 한다.

성서캠퍼스에서 예과를 보내고 처음으로 낯선 동산캠퍼스로 들어와 본과 1학년 수업을 시작한 첫날이었다.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번의 교우들 대부분이 자리에 남아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 당시 다 같이 남아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곧잘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한 캔씩 마셨는데, 그때 느꼈던 맥주의 시원함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이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가장 잘 풀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나는 평소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시험 기간엔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밤새워 공부를 이어갔다. 시험 직 전까지 강당에서도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 글자라도 더 기억하려고,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다.

그렇게 본과 1학년을 동산캠퍼스에서 공부하고, 다시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 이전이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해부학 교실원’으로서 의과대학 이사를 조금씩 도우며 보탬이 되고자 했다. 동산캠퍼스 해부학 실습실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성서캠퍼스 해부학 실습실로 시신 냉동고를 옮기던 날이 떠오른다. 힘들게 냉동고 이전을 마친 후 실습실 앞 농구장에서 다 같이 농구를 하고, 자장면을 참 맛있게도 먹으며 마무리했던 그날도 기억 한편에 또렷이 자리 잡고 있다.

방학이 끝나고 성서캠퍼스에서 시작된 본과 2학년의 첫 수업 시간엔 다양한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주시던 교수님들의 어색해하시던 모습도 선하게 기억된다. 동산캠퍼스에서의 판서 수업 시간도 나쁠 건 없었지만, 신기한 기기들을 활용해 진행되는 수업이 마냥 신기했다.

본과 1학년 때야말로 정말 많이 공부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아주 짧은 생각이었다. 본과 2학년은 1학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방대한 학습량을 소화해 나가야 했다. 하루가 멀다고 동기들과 밤을 지새우며 공부한 순간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 다시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면 아마 못 할 것이다.

성서캠퍼스로 옮기고 대학 생활 중 맞는 첫 ‘축제’ 때, 우리 학번은 간호대학과 축제를 함께 하게 되었다. 처음이라 그런지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축제였지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함께해서인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다른 과보다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한편, 행정실 앞 3층에 마련된 공터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진행했던 ‘은혜제’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때 어떤 교수님께서 역대 참가했던 은혜제 중 음식이 제일 맛있었다고 칭찬해주셔서 뿌듯했던 모습도 추억해본다.

설렘 가득했던 축제 시즌도 지나고 2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더욱 치열하게 공부를 이어갔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그 끝자락이 어디쯤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본과 2학년 생활도 어느덧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인생에 있어 극히 짧은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나는 값진 그 시간을 뒤로한 채, 동기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실습생이 되기 위해 동산캠퍼스로 복귀하였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했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영광이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지난 과거 의과대학 생활의 기억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어 감사드린다. 나의 글이 동산동과 성서에서 나와 같이 공부하고 실습했던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조금이나마 각자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었으면 한다.

찬란했던 우리의 대학 시절

29기 이성민

군의원



예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본과에 올라오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그 힘들었던 입시를 마치고 여기까지 왔건만, 기대와 달리 본과의 공부는 그걸 아주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더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 힘든 시간을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고 이겨내야만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보다 더 큰 과제였다.

시험을 하나 끝내면 쉴 틈 없이 바로 이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만 했다. 시험 전날도 모자라 당일 아침까지 강의 룩과 기출문제들을 꺼내 놓고,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공부했지만, 시험지를 마주하면 좌절이 더 컸던 그런 시기였다. 매번 시험 성적이 나올 때까지 유급을 걱정했고, 무사히 통과하면 대입 합격 때처럼 기뻐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러한 나날도 실습이 시작되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된 것처럼, 나도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

만만치 않은 해부학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된 인체에 관한 공부는 수술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장기와 혈관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이 되었다. 또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되새기며 하루하루 밤을 지새워 공부한 이론들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량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과 과정을 거쳤기에 지식과 경험이 몸에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실습을 하며 현장에서 생생한 지식을 쌓던 나에게 의대 생활 중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기가 찾아왔다. 바로 친한 동기들과 현직에 몸담고 계신 선배님들의 병원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는 선택 실습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재활전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어르신들이 증상이 호전되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외진 바닷가에 있는 보건소에서 동네 주민분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며 진료하던 선배님의 열정 어린 모습도 느낄 수 있었다. 환자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진료를 보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래 또한 조금이나마 그릴 수 있었다. 작고 아담한 보건소 바로 옆에 있던 식당에서 오리백숙을 먹었던 아련한 추억 덕분에, 그때 갔던 바닷가의 식당은 지금도 지날 때마다 꼭 들르는 추억이 가득한 식당이 되었다.

누구나 의과대학 생활을 하며 남게 된 뼈저리도록 힘든 기억들과 즐거움 가득한 추억이 있기 마련이다. 이 글을 써 내려가며 내 기억 속 깊이 자리한 대학 시절의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와 우리를 있게 해준 계명대학교가 1년 1년이 모여 벌써 40주년이 되었다고 한다. 나뿐만이 아닌 우리 학교의 선후배님들이 간직한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곧 이번 40주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글에 담긴 나의 예과, 본과, 실습생 때의 아련한 추억들을 통해 나의 동기 그리고 선후배님들도 각자 대학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소원하며, 40주년 기념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우리의 그 찬란했던, 아련하기만 한 기억을 모두가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는 바이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하고 함께 위로해요



30기 이준범

공중보건의

6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80명 남짓한 곳에 동아리는 왜 이리 많은지. 거기다 지도라인, 교실원, 고등학교 동문회. 참 많은 모임과 행사, 열심히도 했습니다. 수능 치고 바로 들어와서 '현역 남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 일들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단체보다 개인의 일을 중요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 때문에 동기들에게 서운해하기도, 동기들을 서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상했을 동기들에게 저의 반성하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벌써 계명의대가 4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40년의 역사 속에서 6년을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졸업한 지도 8년이 되어 가네요. 그동안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많은 동기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우리 동기 단톡방에 경사도 꼭 알려달라고 말씀 드렸건만 서로 연락 안 한 지 오래돼서 미안한 마음에 잘 안 올려 주시더라고요. 단톡방에 위로의 말이 오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축하의 말이 더 많이 오갔으면 합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우리의 졸업 10주년에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거 같아요. 수봉이 형과 아주 먼 미래지만 그때는 모여야겠지? 라고만 얘기한 상태인데 꼭 한번 모였으면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다들 24년도 2월 쯤에는 중요한 약속 잡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길 바라고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모두 단톡방에 부끄러워 말고 알려주세요! 함께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30기 정수봉

계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친구를 이야기한다. 의아하게도 우리는, 아니 적어도 나는 이런 ‘친구’라는 단어에 고등학교 친구보다도, 고향 친구보다도, 대학교를 함께 다닌 동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난 사이에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고 하던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나에게 단순한 동기, 선후배를 넘은 친구들과 형, 누나, 동생들을 만들어 주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 달려왔기 때문이기도, 그때의 나이 자체에서 오는 그리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 친구들이 있다. 심지어 우리 중 다수는 사회생활의 시작까지도 함께 보냈다. 20대를 오롯이 함께한 그대들과 친한 친구라고 느끼는 것이 나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많이 기쁘기도, 화나기도, 슬프기도, 행복하기도 했던 6년이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희노애락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추억들이 떠오른다. 대면식, 예과 엠티, 친구들과의 여행, 동아리 공연, 본과 진입 오티, 축제, 졸업여행까지 큼직한 행사들과, 소소하게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 동기들만이 아니라, 선배들과도, 후배들과도 함께하고 있음이, 서로 애정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이 만들어 준 선물은 아니었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내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속해있지 않기로 결정된 날이 생각한다. 나의 20대가 부정되는 기분이었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우리의 울타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전공의를 다른 병원에서 홀로 하면서 계명대학교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기도 했다. 1년 차 그 바쁜 와중에 저녁에 와서 새벽에 올라가는 일정이 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선후배들이 모여 있는 동산병원을 방문했던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어딘가를 방문한다고 우리가 함께 있음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각자의 길을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나아가고 있으리라. 선배님들도, 후배님들도, 무엇보다 우리 동기들도. 공간적인 함께함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느낌은 평생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생뚱맞은 연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그냥 오래 전이니까.', '예전에 그랬지.'라는 이유로 잊혀지는 것이 너무 슬프다.

사실 아직도 핸드폰에 연락도 못할, 이제는 서로 기억하는지도 애매한 선후배들의 연락처가 땀곡하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각자가 되고 있는 지금도 각자 존재의 의미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함께였기에 존재했던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슬슬 동기와 선후배 많은 분이 결혼을 한다. 많은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그간 연락 안 한 지 오래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결혼하기도 한다. 연락을 받지 못한 선배, 후배, 동기의 결혼식을 우연찮게 알게 되어 축의금을 보낸 적이 있다. 최근에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내 기억 속의 선배는, 후배는, 동기는 아직 그 자리에 있기에. 서로의 존재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각자의 기억 속에 있더라도, 없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청춘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지만, 추억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에게 “웃픈” 기억이었던 학생회



31기 권진경
군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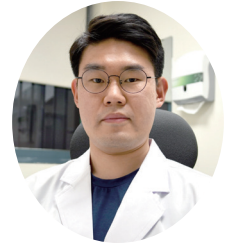
우리는 의과대학을 다니게 됨으로써 다른 학생들보다 긴 6년이라는 학창 시절을 가지게 된다. 다른 과들보다 평균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도 많고 그 양도 많고, 실습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의 절반 정도는 다 같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있거나 강의 후 밤늦도록 정리하고 외우던 기억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긴 학창 시절로 인하여 여유 시간이 생기기에 친구들과 이곳저곳 어울려 다니거나, 학기 중에 돈을 모아서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많은 추억이 생기게 된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내 학창 시절 인상적인 활동 하나를 꼽아달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의과대학 학생회 활동을 가장 우선으로 꼽을 것 같다. 나는 어린 시절 적극적이거나 외향적으로 일하거나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연히 예과 1학년 때 추천을 받고 2학기 과 대표를 하게 되었고 과 대표 일을 하다가 예과 학생회장 후보를 모집하던 중, 후보가 나오지 않자 동기들의 은근한 권유와 압박(?)에 훌쩍 넘어가 예과 학생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대학생 이전에 대표라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급 반장 1번 정도가 전부였던 나에게 학생회는 새롭고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정한 예산 집행, 효율적인 장소 및 업체 섭외, 장소 물색 등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나에게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낯설었다. 다행히 학생회 임원단 학우들은 다들 좋은 친구들이어서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었으며 함께 일하면서 동기들이지만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만 꼽아보자면 예과생 신입생 환영회 및 MT 진행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의 차이가 있었지만 다들 21~22살의 아직은 파릇파릇하고 경험이 일천한 학생들이었기에 수백 명이 모이는 신입생 환영회 및 MT를 진행하는데 미숙한 점도 많았고, 선후배들과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았으며 행사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과도 잘 맞지 않아서 한 장의 글로는 전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충돌이 있었다. 그래도 임원단 전원이 합심하여 행사를 진행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어 무사히 행사들을 마쳤으며 MT 마지막 행사 후 뒤풀이 때 임원단 중 일부는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라 눈물을 보일 정도였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생회 내용만 써봐도 1, 2장으로는 다 써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추억이 쌓여 있다. 당시에는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압박과 선배님들의 좋은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앞서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고문을 작성하면서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동기들과 대화하면서 당시 추억을 얘기하며 떠올려 보기도 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을 보기도 하고, 졸업 이후 처음 앨범을 꺼내 보기도 하면서 돌아보니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즐거웠던 기억 위주로 질게 남아있었다. 이제는 내게 “웃픈” 기억보다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학생회 활동의 추억들이기에, 누군가 내 학창 시절 학생회 때 기억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이젠 단순히 인상적인 기억이 아닌 내게 큰 의미를 지닌 “즐거운” 기억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답이 없는 세상 - 영화 추천서



31기 최원규

공중보건의

나뭇잎이 떨어져 가고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본과 4학년들은 6년간의 의대 일정을 마무리하는 의사국가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COVID-19가 유행하는 시국에 힘들게 실습 및 학사과정을 마친 의학과 4학년 후배들이 시험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당시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수년 전 내가 의사국가시험을 볼 때 느꼈던 긴장감과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오면서 느꼈던 허탈감을 새삼스럽게 상기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의사국가시험이나 전문의 시험 공부에 재미있진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학습량과 급박한 시간 속에서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긴장감과 허탈함이 사람을 더욱 지치고 주눅 들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나마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동기들과 실기시험 방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보낸 시간이 있어 이런 중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정답과 오답으로 구성된 문제를 벗어나 동기들과 함께 역할극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면서 의지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실기시험을 마치고 다시 관계 속 해석이 배제된 주어진 텍스트에 간혀 오답들을 걸핍시켜 가는 과정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영화 ‘일 포스티노’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순박한 청년 마리오 루폴로가 사는 이탈리아 시골의 한적한 섬에 어느 날 칠레의 대표적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가 정치적 망명을 오게 되면서 시작된다.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배달부로 취직하면서 네루다를 통해 시와 은유를 배우게 된다. 이후 마리오는 사랑하는 여인인 베아트리카 루소를 위해, 이후에는 칠레로 돌아가 이탈리아를 그리워하는 네루다에게 자신의 고향 속 풍경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에는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고향과 고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인이 된다. 네루다의 표현을 빌리면 마리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은유의 힘을 믿으며 언어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되찾았다. 이전에는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주변 환경들을 시인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독립된 자의식을 지닌 시인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마리오의 ‘시란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라고 말

한다. 시인은 흩어져 있는 낱말들을 한데 모아 주관대로 서술하였지만 우리는 한 편의 시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지닐 수 있다. 한 가지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 이상 독자들은 작가의 담론에 참여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결핍을 채워나가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라고 했다. 이는 다름이 없이는 조화로울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답의 결핍이 지속되면 영화 ‘아비정전’에 나오는 새처럼 현실에 발을 닿지 못한 채 고립되거나 아니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풀의 으스러진 ‘오른 손목’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졸업 이후 마지막으로 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나도 의사가 되었다’라며 올바른 정답을 알고 있고 이를 가지고 문제해결 또한 잘할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떼어 텍스트 속 정답에만 매몰된 신규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간을 지나 알게 되면서 당시를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의사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의사가 되고 나서도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던지 이후 오답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단일한 의미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 영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동아리를 추억하며

32기 조인수
군의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편찬위원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에 과연 내가 동기들을 대표하여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동아리에 쏟아 부은 시간이 제일 많아서 이에 대해 적어봅니다

나는 농구 동아리(MESS)와 밴드 동아리(Hipp-sons)에 가입하였습니다. 두 동아리 중에서 농구 동아리가 학창시절에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현재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농구 동아리를 가입하고 예과 1학년 초반에는 신입생이 그렇듯 정신없이 연습에 나가고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예과 1학년 여름방학에 농구부 선배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잃어 동아리가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이후 고학년 선배들은 동아리에서 멀어졌고 동아리가 존재의 위기에 있었으나 당시 의학과 1학년을 주축으로 다시 팀을 재건하여, 예전의 동아리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농구를 단순히 재밌게만 하는 동아리였다면, 이후에는 대회 우승을 위해 조직적으로 연습하는 진짜 농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며, 지치고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고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필요했기에 힘들었지만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농구가 몸으로 부딪히는 구기 종목이다 보니 함께 운동했던 멤버들은 6년, 8년, 10년 차이 나는 선후배라도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한 개 학년만 차이 나도 예절을 차려야 되는 다른 동아리와는 확실히 달랐고 그러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졸업생, 재학생,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과 함께 농구를 할 때면 즐겁게 합을 맞추고 편한 분위기로 경기를 합니다. 또한 대회에 나가서 이루는 성과 때문에 매년 방학 때 힘이 들어도 연습을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의 동아리 활동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추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인생에 치여 힘들 때 언제나 머릿속에서 꺼내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구에 흠뻑 빠져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준 동기, 후배, 선배, 코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적다 보니 두서없이 하고 싶은 말만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군의관으로서 철책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니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 글을 읽을 지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 때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 번 밖에 없는 학창 시절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꽉 채우는 후회 없는 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 물론, 공부는 필수입니다. 언제나 모두의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33기 유동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의학과

의예과 1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1년 동안 열심히 놀기만 한 예과생들이 오랜만에 굳은 머리를 굴리며 좌절감을 겪는 시간이다. 바로, 사나흘 동안 숙소에서 합숙하며 뼈에 관해서 공부하는 골학이다. 동문 선배들은 파트를 나눠 맡아 가르치고 후배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을 문제를 낸다. 인원이 많은 대형 동문과 다르게 소수 동문은 마음 맞는 동문끼리 모인다.

나도 소수 동문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문에 섞여 골학을 배웠다. 다른 동문과 비교해 길지도, 짧지도 않은 2박 3일의 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은 좋았다. 의예과 1학년 때는 배우지 못한 진짜 의대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썩 나쁘지 않았고 마치 동기들끼리 2박 3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두꺼운 책 한 권을 받고 선배들의 수업과 시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갔다. 그놈이 그놈 같아서 구분도 안 되는 수많은 단어가 쏟아지면서 머리에 쥐가 났다. 수일 같은 수 시간이 지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구세주가 등장했다. 동기들이 응원을 온 것이다. 골학의 꽃은 응원이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다. 평소에 자주 교류가 없었던 동기도 베프처럼 느껴질 정도로 동기들의 응원은 너무 반갑고 큰 힘이 되었다. 꿀맛 같은 휴식과 간식 시간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리고 일과는 힘들었을지라도 마치고 난 후 골학 동지들과 게임과 함께 가볍게 맥주 한잔하며 하루의 마무리를 즐겁게 끝냈다. 며칠 동안 반복되는 재시 삼시 사시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함께 동고동락한 골학 동지들, 그리고 지칠 때마다 응원을 와준 동기들이었다.

40주년을 맞이해 기념 책자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글을 쓰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의과대학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의과대학의 대표 슬로건이 떠올랐다. 힘든 의대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인 동기들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골학이 생각났다. 골학을 경험했던 모든 선배, 동기, 후배들이 바쁜 생활에 잠시 잊고 있던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을 한 번 더 되새기며 추억을 떠올려 보기를, 그리고 COVID-19로 인해 골학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후배들이 다시 예전처럼 골학이라는 좋은 전통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2017년, 여름이었다.



34기 최병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우리 학번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밤을 새우며 학기 혹은 학년이 끝날 때 항상 종강 파티를 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는 없었지만 몇몇 친구들은 과음하기도 했고 자질구레한 문제가 발생하곤 했었다. 하지만 그런 일마저도 재미있는 술안주였고 놀림거리였는데 본과 3, 4학년 PK 실습을 하면서 조별로 다니게 되고 각각의 일정이 생기고 나니 그런 일들이 줄어들어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본과 4학년 여름이 지나면 PK 실습을 다 끝내고 본격적으로 국가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더더욱 친구들과 접촉이 줄어들었고 학번 내에서는 본과 4학년 초반부터 졸업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간혹 나왔었다. “새삼스럽게 무슨 졸업 여행이냐”, “누군가 추진해주면 가볼 만할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여행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였던 터라 졸업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별로 하지 않았다.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여름이 되면서 졸업여행에 대한 학번의 열망은 조금씩 커졌고 과비와 참가자들의 사비를 모아서 학교의 지원 없이 졸업여행을 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 이상 총대단은 교수님들과 상의해보았지만, 당연히 여지없이 “No”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지만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이 곧이곧대로 말을 들을 리 없었고 학교의 공식적인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는 교수님들의 염려를 허락삼아서 1박 2일 코스로 경주로 가는 졸업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졸업여행이라고 해도 거창할 필요는 없었다. 잠시 공부 스트레스, 앞으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놀러 가는 여행이었다. 아침부터 마트에 가서 술과 고기,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버스에 싣고 경주로 출발했고 펜션에 도착하자 각자 짐부터 풀어놓았다. 여학우들은 여학우 나름대로 준비해온 코스가 있어서 단체로 다시 나가서 침

성대, 안압지를 둘러보고 꽃 구경도 하고 카페에서 수도도 떨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남학우들은 워터파크에 가서 피서했다. 몇몇 친구들은 펜션에 남아서 낮잠도 자고 저녁에 있을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다.

낮 동안 즐겁게 놀고 나니 저녁에는 술과 고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상자에 담긴 소주와 맥주는 마트에서 살 때부터 우리를 설레게 했는데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샀다고 생각했지만 밤새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한 잔씩 한 잔씩 기울이다 보니 술은 어느새 바닥을 보였다. 술을 먹으면서 약간의 별책을 동반한 게임도 했었고 특별한 건 없었지만 정말 재밌는 술자리를 보냈다. 시끄러운 실내를 피해 잠시 밖에 나와서는 친구들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다음날 날이 밝아선 초췌한 모습으로 해장하고 다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아쉬움 없이 아주 재밌게 놀았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들었다. 당연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사고는 없었고, 모두 무사히 졸업여행을 다녀왔고, 이후로는 친구들 모두 열심히 국가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엄청난 공부량에 치이고, 수많은 시험에 치이고, PK 조별 실습 그리고 곧 학생 신분을 벗어난다는 불안감에 치였던 본과 4학년에게 2017년 여름 졸업여행은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2017년, 여름이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주년을 기념하며



35기 송지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과

동문 선배님, 후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2월 우리 학교를 졸업한 35기 송지훈입니다. 현재는 동산병원 내과 2년 차로 수련 중입니다. 각 기수마다의 ‘우리 때’에 있었던 이야기, 학창 시절 추억과 관련된 자유 기고들을 모아 함께 공유하는 기념 집을 발간한다니, 재학시절 학생회장으로서 조금이나마 학교 관련 일을 했던 이력이 있어, 저도 ‘저희 때’의 이야기를 잠시 쓰려고 합니다. 의과대학 학생이 공부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또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있었던 일들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할 수도 있겠으나, 기념집을 제작하면서 대동(大同)한 부분에서 동문으로서 느끼는 무언가를, 소이(小異)한 부분에서 다양성을 함께 느낄 수 있어 그 뜻이 깊습니다.

‘저희 때’ 있었던 일 중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가뭇게는, 당시 코인이 유행하여 버스 안에서 떠들던 기억도 남는데, 더욱 격했던 시기를 보내셨던 선배님들과 비교되지 않지만, 정책에 관해 관심 없다가 살던 의대생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사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에서 교육 및 참여를 독려하며, 우리 학교도 꽤 높았던 참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전공의가 된 후, 파업까지 이어질 때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에게 당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대협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서울에서나 관계있는 일, 회비 건어서 ‘무슨 무슨’ 일하는 집단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 ‘무슨 무슨’ 일을 위해 회의 의장이나 집행부를 분리 선출하고, 분기별로 회칙을 개정하고, 정부 인사와 간담회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 감사 등을 회의 시마다 뭉텅이로 기록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 눈여겨보고, 본교 학생회 회칙개정 등 현대적인 조직으로 적응하려고 했었습니다.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마다 흥미롭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대구 이외 소재에서 얼마나 신입생이 입학했느냐일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며 의사면허 취득을 위해 외부에서 지방 사립 의과대학까지 유학

을 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우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의대 입학 후 못 의대생들처럼, 밤에는 모여서 이슬을 마시고, 낮에는 재충전하며 동기들의 필기를 구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필기라는 것은 수업 전 교재를 받았다가, 필사, 재구성하여 동기 전체에게 재배포하던 형식으로, 분기별 학번별 몇 천만 원 규모의 종이가 사용되던,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지만, 무겁고, 찾기 어렵고, 2010년대 중반에 걸맞지 않아 다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친구에게 물어가며, 이 아날로그 산업을 디지털화하는데 노력했었는데, 이때부터 다른 학교와 우리 학교와 다른 점이나 우리 학교의 가치에 관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타과생, 타 의대생과 이야기하고 나면, 문제의식, 시대 의식, 목표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로 묻고는 했는데, 알고 보니 입학 때부터 누누이 ‘우리 학교는 선교사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지방 사립 의대’라고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나라나 기업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만, 생판 모르는 선교사가 와서 우리 지역에 베풀어준 사랑이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고, 이는 단지 지역사회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지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 내과에 지원하여 수련을 시작하였고, 일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잇기 쉽지만, 몸이 고되고 지칠 때 그때의 의지와 가르침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며칠 전에는 사랑하는 타과 동기 한 명이 다른 꿈을 위해, 레지던트 수련을 그만두었습니다. 의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대로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봉사하리라 믿어, 그의 길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중북부 인구 10만의 도시에 세계 최고의 병원이 있다고도 하며, 한 대학 동문회의 연구지원으로 역사에 남을 약을 만들어 이름으로 기리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은혜를 주신 분들과 은사님들, 선배님이 쌓아 주신 ‘태계’에서도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 이번 40주년이 새로운 미래의 한 단계 계단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이번 역은 강창, 강창역입니다



35기 어효신

대구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2013년 2월. 부폰 꿈과 함께 도착한 지하철 2호선 강창역에는 호기심 어린, 살짝은 경계하는 눈동자를 열심히 굴리던 우리가 있었다. 강창역에서 존슨홀까지 열심히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던 나는 당시에, 완전한 이방인에서 필수불가결한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그 수많은 사람이 바로 내 앞과 옆과 뒤에 가득하던 생각에 조금 현기증이 일었다. 그 공기는 처음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며 새 친구를 사귄 때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모든 이들을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같은 공간 안에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함께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참말로 복잡해졌던 것은 나만의 너무 거창한 생각이었을까. 어찌 되었건 우리는 이렇게 처음 만났고, 서둘러 얼굴과 이름부터 익히며 우리 각자의 세상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유쾌하고 뜻이 잘 모였던 것 같다. 한번은 우리가 예과 1학년이던 체육대회 날이었다. 지금이야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엔 체육대회에 빠질 수 없던 것이 막걸리였는데, 본과 2학년 선배들과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우리 동기들은 하프 타임에 막걸리 1병씩을 원샷하고 비틀거리다 4대 1로 패배하기도 했었다. 열심히 붓고 마시다 보니 아직 제 주량을 아는 놈이 반도 되지 않던 우리 스무 살의 패기 때문이었는지,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는지, 어떤 경기에서 이겨서 그런 것인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그날 우리는 말하자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정을 부렸다. 우리 기수에서 매 경기 참가에 지각하기 일쑤였고, 굉장히 시끄러워 대회 진행에 어려움을 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우리는 선배들에게 호되게 혼나기도 했지만, 우리의 잘못을 심각하게 반성하는 동기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거의 유급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힘들었던 본과 시절, 우리는 유급이라는 커다란 백상아리에 맞서는 정ერი 떼와도 같았다. 모든 족보는 힘을 모아 공유했고,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는 동기라도 있으면 집으로 달려가서 깨우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애국’에 비견되는 ‘동기애’에서 비롯된 것

이었을 터이다. 의사가 되어가는 중요한 장애물들을 하나 둘 우리는 그렇게 넘어갔고, 시간은 막힘없이 흘러 어느덧 지금에 와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정차역이었다.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다 강창역에 잠깐 내려 얻은 그 모든 경험과 사랑, 행복의 시간들, 그리고 평생 이어갈 우리 80여 명의 인연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40년이 넘어간 의과대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두 이 환승역에 멈추어서서 서로의 세상을 교차시키고 환한 얼굴로 각자의 다음 역을 향하고 있다. 항상 온 마음 담은 응원을 보내며, 언젠가 만날 또 다른 정차역에서 모두 함께 웃으며 마주하길 기도한다.

빵배리(Panperitonitis)의 기억

35기 정현석

군의원



다른 선후배, 동기 분들이 학창 시절에 관해 거국적이고 뜻깊은 이야기를 써주셔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추억을 곁들여 이 지면에 쓰고자 합니다.

8-9년 전, 예과 1학년 따사로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성서에서 자취하며 생활할 때이고 방학을 맞이하여 밴드연습실에서 즐거이 합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주 따사로운 날 해부학 실습 카데바를 옮기는 일에 동원되어 동기들과 힘을 쓰며 땀을 흘렸던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최인장 교수님께서 닭볶음탕과 백숙을 점심으로 거하게 사주셨고 후일도 생각지 않은 채 많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연습실로 돌아간 오후 2시경 일은 시작됐습니다. 하복부가 전무후무하게 아팠고 단순히 똥배로 생각했던 저는 학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으나 5분이 지나도 변기 물은 투명하게, 아무 배설물도 없었고 통증은 사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무지하게도 자취방에 ‘좀 누워 있으면 낫겠지’하고는 학교 앞 자취방까지 기어갔고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2-3걸음 걷고 숨을 몰아쉬며 걸어 30분 걸려 도착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서는 통증이 거기서 더 악화하여 119에 전화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급품 기다리는 난민과 같이 자취방 1층 입구에 나와서 주저앉아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근처 병원으로만 가 달라 했고 계명대역 근처 성서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혼미하게 누워 응급실로 들어갔고 단편적인 것들만 기억이 납니다. 응급실 알바를 하시는 선생님이 배를 꼭꼭 눌러볼 때 널빤지처럼 배에 딱딱하게 힘이 들어갔던 것(그것이 abdominal guarding 이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명은 장염이었던 것. CT를 찍던 중 오심이 생기면 손을 들라 하여 손을 들고 30초는 있었으나, 유리 격벽 뒤에서 어찌지 하는 표정으로 관찰하던 기사님이, CT 기기가 머리를 벗어난 순간 제가 붉은 양념과 함께 닭 한 마리를 게워내니 나라 잃은 표정으로 잔해물을 바라보던 것.

입원해서는 동기들에게 장염이라고 ‘곧 돌아간다’ 연락하고는 계속 누워 지냈습니다. 통증은 경감되었으나 몸을 일

으키기 힘든 정도로 지속되었고, ‘나아지겠지’라는 그릇된 희망에 찬 생각으로 2~3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담당 병동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며 큰 병원 전원을 가야 된다고 하였고 이때 동산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산병원 응급실에 병든 닭처럼 실려 갔고 보호자가 필수인지라 어머니가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동산병원에 도착해서는 많은 것들이 명쾌해졌습니다. 진단은 충수돌기염이 터져 생긴 복막염이 되었고, 외과로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후 delayed appendectomy 가 치료 계획이 되었습니다. 입원하여 이틀째에 열이 무척 올라 오한이 심해서 다 큰 아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태는 차츰 호전되었고 PK 실습 선배들이 병실에 찾아와 약간의 위로와 함께 압통, 반발 압통, McBurney point를 제 배에 실습하며 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동기들이 병문안을 왔을 땐, 배에 힘이 들어가면 통증이 심하니 제발 웃기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서로 상황이 우스워 깔깔대며 통증 가득한 웃음으로 병실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과에서 처방 주신 경정맥 항생제와 어머니의 보살핌이 상태를 호전시켜 보름 후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 복귀해서도 그 통증을 잊을 수 없어 금주와 규칙적인 항생제 복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의 기억은 그토록 강렬치 않아서인지 아주 흐릿합니다. 수술은 걱정과 다르게 ‘수술 이제 들어가나요?’라고 물으니 끝나서 병실이었고 지금 확인해보니 복강경이 들어간 자리는 기억만큼이나 흐릿하게 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인턴 응급실 둘 때에 압통, 반발 압통, 복부 가당은 자신 있게 차팅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를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끔 대구에 가거나 동기를 보고 술 한잔을 하게 되어 옛 이야기를 꺼내면 즐거운 감상에 젖게 됩니다. 한 페이지에 담은 투병일기를 쓰게 되었을 때도 그때 생각이 나 실실 웃으면서 썼습니다. 지금도 몸서리 칠만큼 아팠으나 그보다 즐거웠던 학창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여 편찮으시더라도 즐거운 기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두를 위하여



36기 박현빈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제가 한때 군인이었던 시절, 심란함이 20대의 초반의 의무인 듯 한참 동안 마음이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대부분의 군필 독자분들은 제게 보낼 비웃음이 남아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겠지만 그 시절 저는 큰 사회의 부속이 되면서 미미해져만 가는 존재의 의미 따위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4년 3월, 나이 스물다섯에 수능을 다시 치고 예과 1학년이 되었던 저는 스스로가 세상에 둘도 없는 구슬픈 사연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는데, 실은 신입생들이 모여있는 강당에 저와 똑같이 사연 많은, 수능, 재수, 삼수, 빨테안경, 독서실 같은 단어로 빚어진 친구들이 온 천지라는 것을 그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무수히 많은 짝꿍이들을 본 것과 같았던 그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 시험 기간 4층 주차장 쪽 문을 열고 나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병리학, 해부학, 뮌뮌학... 외우지 못한 의학용어만큼 낮은 5월의 푸른 밤이 벽돌색 건물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도시의 붉은 불빛에 검게 기대선 저녁 산의 이마 위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고개를 땅에서 들자마자, 주차장 유리문을 열고 조금 걸어 나오자마자, 참으로 푸른 밤이라고 생각하자마자, 제 귓전으로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담은 채로, 아직도 남아 있는 너의 향기.’

저도 모르게 저는 그 노래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무슨 일이었던지, 노천강당인가, 콘크리트로 대충 지어진 길로 보였던 원형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우리의 시험 기간은 늘 다른 학과의 축제 기간입니다. 그 축제의 가운데 광장에는 키가 작은 사내 하나가 통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서 있습니다. 흔하디흔한 김광석 노래를 자기만의 목소리로 불러보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떨렸던지.

세상에, 그날 원형극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던 걸까요. 그 속에서 나만의 목소리를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지켜 내는 것만 큼이나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 스스로가 싫어질 만큼 제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를 겨우 다시 찾아가면서 학창 시절은 끝나 갔습니다.

지금도 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는 그날 저녁이 떠오릅니다. 열심히 살다 가도 내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는 흔하디흔한 노래라도, 흔한 인생이더라도, 일단 고개를 들고 걸어 보는 것으로, 노래를 불러나 보는 것으로. 힘든 시험 기간 가운데서 다른 학과의 축제라도 기웃거릴 수 있었으니 참 좋았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별처럼 꿈작 못 한 채 공부하고 일하고 반짝이는 모두가 그저 작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화푸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37기 권현재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어느덧, 본과 3학년이 되어서 실습을 돌게 되었던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도중 문득 예전을 추억해 보았다.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해 그 초심을 상기시켜 보았다.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오고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WHO'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 박사님의 삶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의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의술을 행하셨던 그의 삶에 말 그대로 매료되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오후의 귀갓길이었으나 그 초심은 다시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다. 때마침 2년 전 키르기스스탄 의료봉사에 함께 갔었던 대구시 의사회에서 베트남 의료봉사에 관해 들었으며 의료봉사를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베트남에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이전의 의료봉사를 추억해 보았다. 2년 전의 키르기스스탄의 의료봉사는 그 어떤 의료봉사 보다 나에게 생각할 점을 많이 남겼었다. 과연 의사가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떤 분과를 해야 실용적으로 의료봉사에서 유용성이 높고 보람찰까? 라는 미래의 의사로서의 의문부터 봉사란 무엇인가? 지속적이지 못한 봉사는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있을까? 메디 시티 대구 홍보와 의료 봉사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일까? 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많이 가졌었다. 그때 당시의 나는 정말 많이 고민했고 결국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한 채로 학업에 치여 살았다. 그 유보되었던 가치의 판단은 이번 봉사를 다녀와서 어떻게 변하고 이번 봉사에서는 어떠한 답을 찾게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봉사 첫날과 둘째 날 화푸 보건소에 의료봉사를 갔었다. 나는 아직 의사면허가 없는 학생이기에 환자지원 업무를 보았다. 그래도 의과대학 학생이기에 어떤 주소로 내원하였는지에 관해서 물었고 몇 가지 문진을 하였다. 역시나 언어의 장벽은 높고 높았다. 통역이 있어도 역시 다른 나라의 언어와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러한 진료를 보기는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환자가 다양한 주소로 내원하였다. 그중에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고 이렇게 의료봉사를 와야지만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많은 환자가 수정체가 육안상

으로도 하얗게 보일 정도로 진행된 백내장으로 내원하였고 거대한 통풍결절을 가진 환자도 있었다.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세상에 의문이 든다. 나와 저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살지만, 그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가?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일까? 라는 생각에 빠졌다. 나는 종교는 없지만, '신이 있으면 왜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원래 부조리 한 것이다.'라는 말은 그저 합리화에 불과하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면 그러한 부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위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모됐음에도 왜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기아와 의료 빈민층이 존재할까? 범지구적인 기후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책의 실패인가? 아니면 비리가 존재하였을까? 무수한 질문을 만드는 산파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나의 다짐만이 있을 뿐이다.

영상의학과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견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을 보고 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지원하셨나요? 라고 질문했다. 그 선생님의 답은 투철한 인류애라고 하셨다. 투철한 인류애! 투철한 인류애라는 단어를 문자가 아닌 인간의 구어로 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그 말은 나를 또다시 아득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수한 그 의문에 대한 작은 답의 씨앗이 되었다. 수많은 의문의 명쾌한 답은 되지 못했지만 작은 해답의 명분은 인류애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번 봉사에서 내가 찾은 작은 답은 인류애였다.

바다



38기 권수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F가 두 개면 학사경고장이 날아온다는 걸 굳이 받아봐서 알았다. 그래도 86명 중 80등이길래 꼴찌는 아니구나 안심했는데 6명은 휴학이란다. 꼴에 대학생 새내기라고 머리는 또 노랗게 물들었던 첫 여름방학, 교수님 방문을 두드려 겨우 DO를 받고서 싱글벙글했다. 대학교라는 곳에서 처음 받은 학점은 시력보다 낮았다.

그야말로 무서울 것이 없었다. 학교 수업은 예사로 빠졌고, 미세한 세포 수용체와 유전자를 배우는 수업은 영 흥미가 없었다. ‘야마’조차 안 보고 시험을 치는 사람이 나왔다.

처음에는 진짜로 유급이 무서워서 공부했다. 야마는 나의 구원자였다. 칠성장어 무악어류, 쥐말고래, 오리씨 마이크... 전능하신 교수님과 인자하신 베이스 업이 굶어살피신 덕에 60등으로 20등이 올랐다. 유급은 가까스로 피했다. 그다음 학기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더니 40등. 그다음은 20등. 그다음은 장학금을 받았다. 아슬아슬 저공 비행하다 유려한 비행운을 그리며 높이 올라가다 보니 은근한 기대감이 생겨 공부하는 데 열을 올렸다.

등수가 오르면서 성과가 나는 속도는 더뎠다. 내가 맹탕 놀 적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차근차근 쌓아온 지식에서 오는 차이가 욕심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하릴없이 내 머리를 닦았다. 나는 왜 같은 수업을 들어도 바로 이해되지 않을까, 나는 밥 먹는 시간을 줄여 공부하는데 왜 못할까,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나는 어느새 집착하고 있었다.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강박은 치위도 치위도 생기는 방구석의 머리카락처럼 늘 머릿속에 맴돌았다. 강박 행동을 통한 강박 사고의 해소는 욕심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주었다.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양치하는 시간을 줄이고,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고 집에 있던 가장 작은 바지가 헐렁해졌다.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면역력이 떨어
져야 생긴다는 기회감염에 걸렸을 때 사실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병원 가면 공부 1시간 못하는데 어찌지?’
생각했다.

시험이 끝나고 오래간만에 푹 쉴 수 있었던 어느 주말, 치열한 경주를 끝낸 경주마에게 각설탕을 주듯 내게 보상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없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먹고 싶은 것도 없었고 가고 싶은 곳도 없었다. 침대
속에서 하루 종일 뭘 좀 먹어볼 지 배달 어플을 뒤적이다 잠들기를 반복했고, 결국 대충 라면을 끓여 먹었다.

대낮에 술을 퍼마시고 수업다운 수업도 듣지 않았던 예과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재미있었는데. 그땐 기타도 치고 싶었고, 춤도 추고 싶었고, 테니스도 치고 싶어서 동아리를 네 개나 들었다. 꽃이 피
거나 낙엽이 지면 훌쩍 여행도 떠났다. 동기들의 기숙사에 숨어들어 수박화채를 해 먹었고, 교과서는 안 읽었어도
소설책을 돌려 읽으며 감성에 빠져 살았다.

내가 뭘 어떻게 놀아야, 어떻게 쉬어야 행복하고 즐거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문득 외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때의 나는 인간의 사회적인 습성과 영혼의 건강한 휴식을 구분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 내가 혼자라서 외로운 줄 알
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실없는 이야기와 사람들의 알팍한 미소에 매달려 잠시 웃고 떠들고 나면 어
느새 또다시 기분 나쁜 우울감이 나를 스멀스멀 덮쳤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기 싫지만, 누구라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
다는 막연한 외로움은 밤마다 찾아왔다.

나는 그걸 바다라고 불렀다. 망망대해 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다 한없이 가라앉게 되는 바다. 순간순
간 밀려들어 압도당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바다. 그러나 에너지를 충전해 딛고 일어설 홈그라운드도 없는데 근본적
인 외로움이 해소될 리 만무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이토록 움아매고 있는지 몰랐다. 나를 좀 먹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됐다.

그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소설책을
읽던 사람이 부러웠고, 길거리에 핀 꽃을 보고 웃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보다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당연히 너무나 부러웠다. 세상은 어느새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생전 제대로 연락도 잘 안 하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하는 소리에 그냥 울음이 터졌다. 엄마는 수학

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영영 울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쯤, 온종일 정말로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쯤, 혼자 우는 것이 외로워질 때쯤 학기가 끝났고 나는 이때까지 받았던 것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다. 늘 ‘천상계’에 상주하던 친구들에겐 무난한 성적이었지만 뭐 나는 나름대로 뿌듯했다.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것은 PK 실습을 하며 여유가 생기고부터였다. 이따금 사례 발표 하나하나에 손을 떨며 밤을 새우는 일이 있었어도 집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 이상 좋아하는 일 없이 살기 싫었다.

하루에 4시간을 넘게 자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었는데, 온종일 자도 큰일 안 나더라. 이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얼마나 울었던가. 어떻게든 나보다 나은 점을 굳이 찾아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왜 그렇게 반복했을까. 돌이켜 보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을 알면서 완벽한 사람이고 싶어했기에 그토록 괴로웠던 것 같다.

첫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다시 많이 생겼다. 온종일 유튜브만 보며 놀다 부라부라 리포트를 쓰기도 했다. 게으름의 대가로 비워지는 박카스 병에 괴로워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무한한 시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럽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기 시작했다. 그냥 부럽다.

여전히 이따금 우울한 기분이나 자책감이 밀려온다. 달라진 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친 풍량이 오면 그냥 나를 집어삼키도록 둔다는 것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행복해질 만한 일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맥주 한 캔 하며 영화를 보고, 고양이를 만진다. 그렇게 검고 깊은 바다에서 몸에 힘을 풀고 느긋하게 유명하고 있노라면 꽤 괜찮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언제든지 바다에서 조난할 수 있다. 그러나 허우적거릴수록 오히려 늪처럼 빠져든다. 힘을 빼야 물 위로 뜬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영혼을 달랠 때다.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팔다리를 짓지 않고 가만있어도 물은 흐르고 있다. 그동안 내가 헤엄쳐 왔던 반동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맥주 한 캔 훌쩍이며 밤하늘에 별을 세다 보면 분명 어느새 다시 달릴 수 있을 테다. 언젠가 심해에 갇힐, 혹은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이 무사히 헤어 나오기 위해 본인의 맥주를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십 대를 함께한 소중한 인연들



38기 신서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하버드대학교 성인 개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인간관계이다.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 관찰해온 결과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만드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사회적 연결이라고 밝혀졌다. 여기서 사회적 연결이란 단순히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관계의 질이 핵심이다. 바람직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 노화에 따른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더 건강했고, 기억력도 더 좋았다고 한다.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빠르게 돌아가는 의과대학에서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 밤을 새워서나마 한 문제라도 더 봐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를 챙기는 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친밀한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건 어렵פות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천은 또 다른 문제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친구 70여 명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다.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싫든 계속 봐야 하는 동기들.

부끄럽지만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70여 명이 6년 동안 한 교실에서 동고동락하는 게 내키지 않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싫어 교양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일부러 전공과 관련 없는 책만 읽었다. 방학 때마다 해외로 나다니기도 했다. 밖으로만 돌다 정신을 차려보면 수백 장의 강의록을 마주해야 했다. 막막했다. 그럴 때마다 어느새 다가와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동기들이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언젠가부터는 나도 옆자리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다.

지난 6년간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 격동의 시기였다. 본1 때, 예과가 1년으로 줄어들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본2 때,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하였다. 두 달 만에 '성서대장' 자리를 내어놓아야 했다. 본3 때

는 코로나19와 의과대학 동맹 휴학을 겪었다. 기대하던 pk 실습은 계속 연기되었고, 동아리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다 자가격리를 했고 공공의료 이슈와 함께 의료계의 미래도 불확실해졌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같은 상황에서 주변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강창역 빌라에 모여 고민을 털어놓고 한탄할 수 있는 동기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누군가는 진급하기 위해, 누군가는 원하는 과를 전공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학문적 성취를 위해 달려왔다. 각자 목적은 달랐지만, 그 과정에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함께였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과 잠바를 맞춰 입고 찍었던 단체 사진, 두근두근 첫 동아리 공연을 보러 와서 응원해 준 친구들, 첫 카테바 실습을 하던 날 맡았던 포르말린 냄새, 숙연하고도 감사했던 해부제, 야식을 시켜 먹고 PBL실에서 쪽잠을 자며 공부하던 수많은 밤들, 시험 당일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던 한술도시락 치킨마요, 밤새우고 시험 치느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중강 파티에 가서 마셨던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소맥, 잔뜩 긴장하고 들어간 수술방에서 마주한 생명 탄생의 순간과 그 경이로움, 교수님 은퇴 소식에 아쉬워 눈물짓는 환자분을 위로하시던 따뜻한 교수님, 그 뒤에서 나도 몰래 훔쳐던 눈물, 케이스 발표하고 들은 칭찬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 좋던 날,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받고 졸업사진 찍던 날, 국시 실기시험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같이 울고 웃었던 조원들, 기차 타고 서울까지 실기 치러 올라가던 날…….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끝도 없다. 모든 순간 내 옆에는 동기들이 있었다. 이십 대의 절반 이상을 보낸 이곳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랑을, 인생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잊지 못할 것이다. 돌아오는 3월부터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된다. 이 친구들과 함께 성장할 미래도 더욱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의학 그 이상을 가르쳐주신 은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 많은 인연들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대들이 있기에 행복했고, 행복하며, 행복할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39기 지민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이 동기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6년간 서로 매일 얼굴을 보며 지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입학 후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는 서로간의 어색함을 풀기 위한 신입생 발표회였습니다. 여러 조로 나뉘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곡으로 춤을 췄는데 어색함으로 시작했던 춤 연습에서 조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게 되어서, 가발까지 구하기 위해 다 같이 시내도 나가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 덕분인지 발표회에서 1등을 하게 되어 상금으로 조원들끼리 맛집 탐방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인지 신기하게도 이때 췄던 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신입생 첫 고민은 동아리 선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동아리가 있었고 좋은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표하더라도 여러 선배님이 저녁을 사주시면서 동아리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말씀해주시곤 했습니다. 또한 동아리 설명을 위해 만났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는 의과대학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학 후 2달여 간은 선배와의 밥 약속 그리고 다양한 행사와 동기들과의 식사 자리로 인해 정신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는 여러 동기와 여행도 많이 다녀왔는데 모든 여행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부터 멀리는 호주, 유럽까지 다양한 곳을 다양한 동기들과 함께한 것은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학교를 다니며 가장 ভাল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유럽의 경우는 처음으로 동기들과 떠난 여행이자, 저 자신의 첫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에 익숙하지 않았던 동기들과 엄청난 추진력으로 빠르게 일정을 짜다 보니 과한 욕심이 반영된 스케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착한 당일부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다녔기에 영국의 유명 뮤지컬 공연과 파리 센강 유람선에서처럼 잠시 앉는 일정에선 다 같이 꾸벅꾸벅 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행은 여행 자체의 설렘과 동기들과의 첫 여행이라는 즐거움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피곤함조차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신입생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시험 때보다 더 신중하게 기념품을 사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여유로움과 즐거운 2년의 시간은 금방 가버렸고, 악명 높은 본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과의 시작을 상징하는 해부학 실습을 처음으로 하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엄숙한 분위기와 평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카데바의 모습으로 인해 묘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잡은 메스로 실습을 시작할 때는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부 실습이 끝나고는 방학 때 해부제를 진행하였는데,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보면서 처음으로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고마운 사람들로 인해 같이 헤쳐 나갈 수 있었던 본과 생활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열정이 담긴 필기를 공유해 준 많은 동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단순한 필기 이상으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는 친구, 깔끔하게 정리된 표를 만들어 준 친구 등 서로서로 위하는 마음들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선의가 있었기에 본과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4층 PBL실과 2층 열람실에서 시험 전날 모두 모여 공부하던 추억도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봐야 할 강의록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동기들과 야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사소한 대화들은 왜 이렇게 또 재밌던지... 야식을 핑계로 서로의 학교생활, 스포츠 이야기,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그 당시 했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련한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쓰다 보니 입학 당시에는 한없이 높아 보이던 본과 3학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 온 자신이 조금은 대견해지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본과 3학년에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워졌습니다.

고등학교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 같이 지냈고, 비슷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 동기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주제들에 대해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힘든 시간에는 옆에 있는 동기들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의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점 외에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과대학 생활은 큰 행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은 1년간도 많은 추억을 쌓으며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추억을 만들어 준 나의 의과대학 생활



39기 최준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보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열아홉의 어느 날이었는데도 문득 겁이 났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 년 뒤에 덜컥 어른이 되어 책임져야 할 것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불안해서 하루 종일 고민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6년의 의과대학 생활 중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업까지 일 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만에 캠퍼스를 걷다가 이제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보다 어리다는 것이 갑자기 실감이 나서 혼자 잠깐 웃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일을 말하기에 앞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나무계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으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최소 18학번 이상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졌지만, 한 때는 모두의 등하곶길을 책임지던 나무계단, 처음에는 이 길도 못 찾아서 첫 오리엔테이션부터 헤매서 늦게 도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양수업을 들으러 갈 때면 건물 위치도 잘 몰라서 캠퍼스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켜면서 다녔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던 대표적인 교양수업을 꼽자면 '비주얼 미디어의 이해', '생명 감수성 인큐베이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기로 소문이 났고, 의대 건물과도 가까이 있어서 선배 때부터 대대손손 족보로 내려오는, 인기가 치열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캠퍼스가 워낙 넓은지라 가끔 동쪽 끝에 있는 건물에서 하는 수업을 잘못 신청한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광경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양을 듣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점심을 먹고, 꼭 단체 사진을 남기곤 했습니다.

새내기들의 로망 중 하나인 학과 잠바를 처음 맞췄던 날도 있습니다. 옷을 받았을 때는 이미 4월 말이라서 잠바를 입고 다니기엔 많이 더운 날씨였는데도 그 사실보다는 신기함과 설렘이 더 커서 모두가 기념사진을 몇 장씩이나 찍고 하루 종일 잠바를 꼬박꼬박 입고 벚꽃을 보러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잘 입지 않게 된 옷인데 지금 그날을 생각하니 우리가 제법 귀여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연 빼놓을 수 없는 학교 축제도 있습니다. 싸이가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들떠 있다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지정석이 있는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우리 의과대학만 자리가 없어서 쫓겨났던 서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번 위의 선배 몇 분이 용케 자리를 잡아서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나가는 길에 아는 척을 하니까 선배들 쪽으로 시선이 쏠려서 선배들마저 쫓겨났던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그냥 맨 뒤에서 서서 공연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공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공부한 내용보다는 밤을 새우면서 있었던 소소한 추억들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임상 수행학습실로 이름이 바뀐 4층 PBL실에 시험 전이면 다들 머리를 싸매고 하나둘씩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배고프다고 하면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다들 배고프다고 하면서 배달 어플을 켜서 야식 시켜 먹고는 입으로는 죽는 소리를 내면서도 다들 나름 착실하게 다시 공부하러 가곤 하는 게 짝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약리학 같이 암기가 중요한 과목은 전날에 다른 동기들의 PBL방을 순회하면서 암기법을 물어보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은 날은 복도에 있는 소파에서 쪽잠을 잤고, 도무지 잠을 잘 만한 상태가 아니면 그대로 꼬박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이때 알게 된 사실은 계절에 상관없이 새는 새벽 다섯 시부터 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소리가 들려와서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시험이 성큼 앞으로 다가와 있는 다섯 시 언저리라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기는 새소리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어찌어찌 아침 첫 시험을 친 후에는 미리 신청해둔 아침 도시락을 먹거나 편의점에 가서 빈속을 채웠고, 가끔 속이 말이 아닐 때는 국밥을 시켜 속을 달래곤 했습니다. 밤을 너무 많이 새면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밥이 안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우에게 있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 첫 번째는 새 병원의 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BC와 AD로 기원을 구분한다면, 강창의 학생들은 BH(Before Hospital)와 AH(After Hospital)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식당이라고는 길 건너편에 있는 국밥집밖에 없던 강창역에 여러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왔을 때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차가 없어서 어떤 친구들은 용산역에 있는 홈플러스까지 공차를 마시러 원정을 떠나기도 했고, 대실역에 처음 공차가 생긴 날에도 단체로 버블티를 마시러 몰려갔었는데 이제는 병원 내부와 주변에 여러 가게가 생기면서 막상 병원에 공차가 생겨도 잘 가지 않게 되네요. 그리고 원래는 본과 3학년부터 동산동에서 실습을 도니까 본과 2학년을 ‘성서대장’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내심 우리 학번이 성서대장이 될 날을 기다렸는데 새 병원이 생기면서 그걸 못 해본 것이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 코로나의 유행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학교생활이 어쩔 수 없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사태가 안정화되어 후배들도 우리처럼 더 추억을 쌓을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10

졸업생 현황

526 대학원 의학과 졸업생 현황

527 의과대학 졸업생 현황

528 의과대학 졸업생 명단

○ 대학원 의학과 졸업생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1986	19		
1987	24		
1988	25		
1989	44		
1990	36	11	
1991	48	11	1
1992	33	10	
1993	37	24	1
1994	44	15	1
1995	31	8	
1996	42	25	
1997	38	13	
1998	39	14	
1999	33	33	
2000	31	22	
2001	44	24	5
2002	29	26	5
2003	30	20	1
2004	33	11	2

학년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2005	39	22	
2006	34	11	1
2007	40	21	
2008	47	10	
2009	39	17	
2010	42	15	
2011	44	13	
2012	43	13	
2013	47	20	
2014	47	12	
2015	47	13	
2016	29	10	
2017	39	9	
2018	25	9	
2019	24	7	
2020	34	6	
2021	12	6	
계	1,292	481	17

※ 2021학년도 전기졸업자 인원

○ 의과대학 졸업생 현황

(단위 : 명)

졸업회수	졸업일자	남	여	계
1	1985-2-19	30	4	34
2	1986-2-18	56	15	71
3	1987-2-17	63	5	68
4	1988-2-25	65	6	71
5	1989-2-21	74	15	89
6	1990-2-20	77	17	94
7	1991-2-19	67	18	85
8	1992-2-20	81	18	99
9	1993-2-23	55	19	74
10	1994-2-22	72	15	87
11	1995-2-21	65	18	83
12	1996-2-22	47	17	64
13	1997-2-18	56	16	72
14	1998-2-17	70	18	88
15	1999-2-23	57	18	75
16	2000-2-22	56	13	69
17	2001-2-21	59	28	87
18	2002-2-19	68	15	83
19	2003-2-19	52	24	76
20	2004-2-19	61	25	86

졸업회수	졸업일자	남	여	계
21	2005-2-16	64	23	87
22	2006-2-22	42	39	81
23	2007-2-22	75	21	96
24	2008-2-19	70	21	91
25	2009-2-17	56	44	100
26	2010-2-19	59	29	88
27	2011-2-15	58	22	80
28	2012-2-16	59	19	78
29	2013-2-19	55	17	72
30	2014-2-20	47	27	74
31	2015-2-24	59	28	87
32	2016-2-23	44	26	70
33	2017-2-21	42	20	62
34	2018-2-20	43	29	72
35	2019-2-19	54	28	82
36	2020-2-18	61	22	83
37	2021-2-18	38	29	67
38	2022-2-17	43	28	71
계		2,200	796	2,996

4회(1988년 2월)

강문규	구은수	권영대	김광인	김광태	김대광	김대영	김동근	김명한	김무수	김석주
김승환	김진희	김창남	김천수	김철기	김형태	김희철	류태선	류태영	문광섭	민경오
박근수	박기원	박인우	박철균	백종민	서병욱	서석구	서영숙	서인옥	손대구	손성민
손영탁	손철호	손형석	신무진	심재화	예춘호	오남훈	오대식	오진석	윤승영	이동수
이상영	이상훈	이석규	이시우	이영국	이용희	이운우	이원기	이준희	이진경	이진표
이춘식	장 원	장성진	전재훈	정강호	정용욱	정재봉	조승제	조창훈	지병준	채성수
최예환	최호철	홍성주	황복철	황진수						

5회(1989년 2월)

강봉수	강영찬	강호태	권세영	김경례	김경환	김광열	김동진	김수희	김영환	김원기
김재숙	김재형	김정혜	김정희	김중기	김진연	김학균	김 호	김희수	남계윤	노용지
노주형	박성열	박성학	박손원	박순은	박용일	박일영	배두진	백현우	서영성	서준용
석미자	성근환	소창성	손경태	손국진	손태익	송혜영	안병훈	안은주	안형우	엄정심
오성광	오춘석	우경호	유민규	이계현	이금희	이기원	이미은	이상곤	이상성	이상옥
이성용	이수기	이승훈	이우석	이은우	이일세	이재호	이종화	이주환	이창영	이 형
이현주	이호준	장경화	정건식	정덕영	정태일	정태호	조남규	조병종	조용수	조진태
최대용	최윤애	최은주	최창훈	최홍택	추원호	한동훈	한승묵	한창엽	홍재락	황미영
황석영										

6회(1990년 2월)

강규현	강선욱	강수희	권삼욱	권육환	김대훈	김동석	김선구	김성봉	김성식	김수정
김순우	김승기	김신욱	김연규	김영두	김영현	김우정	김인정	김일태	김태우	김학준
김홍란	남상길	류동수	류형국	문성희	박건욱	박기현	박달수	박상만	박세출	박세형
박세환	박진상	박찬진	박찬홍	배정만	백승호	백운일	백원기	손규철	손기철	손수호
신원승	양숙경	여준기	오광열	우현경	윤경찬	윤성희	윤철희	이강현	이기창	이길호
이동규	이무식	이미영	이상학	이상호	이상희	이선희	이성환	이승은	이영주	이영희
이우세	이원두	이익재	이종석	이준영	이태휘	이항림	이현철	임춘근	임태형	장성렬
장태영	장현수	장혜성	정용식	조성완	조용원	채진호	최경혜	최계정	최용식	최종경
하태민	한영미	허규찬	허승호	허정숙	홍일태					

7회(1991년 2월)

강승구	강홍원	경기욱	곽은수	곽정호	김거환	김경렬	김경홍	김덕성	김동근	김선경
김성종	김성희	김영국	김용한	김은혁	김종욱	김주현	김중석	김지혜	김진승	김판조
김현일	김현균	김홍태	남미영	노영호	류영욱	박경아	박미옥	박선호	박성규	박영수
박정구	박준희	배기훈	배장호	백지선	서영우	손창용	송동식	송진아	신복귀	안효춘
여신정	여준규	오은경	오재홍	우철주	원태경	유성근	윤영호	윤주혜	이기식	이만우
이문희	이상준	이승환	이정섭	이종석	이태희	이황희	임병일	임상인	장성욱	장영현
장영호	전우진	정윤성	정은영	정종원	정해전	정현정	조영승	주혜선	최성대	최원일
최은석	최종호	추중엽	한경민	한태웅	홍영준	황경규	황광렬			

8회(1992년 2월)

강미경	강재구	강준호	공민호	공수득	곽민전	구성희	권두영	권진경	권호준	김강현
김경찬	김경희	김경희	김근태	김근호	김기홍	김덕재	김덕희	김동락	김민수	김성미
김양경	김영수	김우석	김은경	김은아	김인주	김 엘	김종필	김진호	김홍선	남수윤
노영철	노우환	도건호	도현우	맹종수	문화식	박기락	박남희	박수진	박정권	박제락
박종완	박종원	박종천	박준성	박종규	박창교	박창희	박효원	배중식	배지연	서원교
손성일	손정호	송호준	신종현	안병성	안상욱	안 협	엄종국	원영준	윤용진	윤제현
이경수	이경철	이규완	이덕영	이동화	이무용	이상현	이수찬	이은영	이정형	이창수
이후선	임정원	장선영	장영식	장종억	전영숙	정성원	정영호	정철재	조광범	조두희
조봉기	조정현	조준형	조진선	최영규	최종청	하성윤	하혁수	한명석	한성욱	한재수

9회(1993년 2월)

강경우	강미정	강주호	공병구	구재모	권상훈	김광현	김기영	김덕상	김상규	김선아
김성수	김수연	김영선	김영한	김우현	김윤주	김태현	김현미	김현진	김호규	김홍동
김희준	나영두	노태연	도영록	박기성	박상민	박순옥	박은지	박정엽	박정은	박정희
박정희	박종형	박준모	박찬향	박필상	배광주	배상환	배재익	석중호	석진호	손보성
송진화	신근식	신동우	신문석	신영호	신주용	양선희	유병대	유영상	이경환	이동희
이선미	이성환	이승규	이에이	이종훈	이창윤	이태희	이한영	임종섭	장종운	전세진
전시현	전지민	조영래	채한수	최봉기	최승곤	한승엽	황종욱			

10회(1994년 2월)

강맹호	강보승	강석선	강원재	공두식	구건희	구본식	구자현	권순대	권오현	김경록
김금원	김기영	김기태	김대한	김병완	김성렬	김성욱	김영훈	김왕식	김용훈	김인석
김재범	김재현	김종철	김준형	남성일	남종윤	도주호	류승완	류혜정	박기철	박영규
박용진	박은희	박재석	박재홍	박지애	박진용	박찬상	박효진	배기철	배수정	백인식
서인엽	서진천	성기호	손병길	송광호	안영호	예지원	오미희	유한목	윤태숙	은명희
이근양	이도영	이동욱	이동형	이병태	이성억	이성하	이소영	이원식	이정은	이정호
이주영	이지옥	이창우	이호원	이환곤	임중재	장국진	장영우	정순재	정영민	정우진
정형일	조영록	조윤정	지성우	지홍련	천범수	최우익	하태원	한동호	현대우	

11회(1995년 2월)

강영훈	공명희	곽진영	구광모	구은실	권기민	권오창	김강도	김미정	김병상	김상일
김선례	김수정	김완태	김은지	김은진	김재명	김재일	김재홍	김정진	김지수	김진홍
김창욱	김태연	김형수	김 훈	남경원	남윤덕	도영민	류종걸	박소영	박원태	박정래
박준형	박지순	백종우	서상혁	서영록	서영조	서은영	서창균	송완희	송윤호	신병권
신영식	신이철	신재혁	안지섭	양호준	엄중호	오두환	우상규	유현욱	윤재식	윤태승
이대웅	이상수	이상직	이상혁	이정현	이진희	이현주	임정수	장병국	장재정	전재우
정명현	정재혁	정창욱	정현수	조영욱	조진만	조 준	최기영	최승호	최재혁	최환석
하연옥	하형근	한성혜	허 윤	허정국	황윤지					

12회(1996년 2월)

강계월	강선희	권기연	권태우	김기숙	김미정	김병극	김유철	김종민	김종현	김주성
김준호	김창덕	남창욱	류경환	류진균	박근규	박대희	박섿별	박 석	박수영	박진휘
박찬범	박철진	박희진	배병진	배태욱	안병용	안재현	엄진원	윤상미	윤수정	이건우
이기태	이리라	이복수	이성열	이은하	이인환	이장준	이정돈	이준석	이지민	이철희
이홍철	장상섭	전영준	정강욱	정경은	정용덕	정인성	조상민	조재위	주현창	주현철
진현승	차규동	최미선	최병규	최윤정	최종환	하정숙	하태현	형철호		

13회(1997년 2월)

곽지연	곽진호	권선영	권오국	김기환	김기훈	김대동	김두진	김상준	김상현	김선동
김성열	김영우	김유정	김은하	김재범	김택수	김현승	김현철	김형식	김혜순	남동윤
남석윤	노도균	류성열	박경대	박 익	박종강	박지민	박진석	박찬휘	박태규	배종문
백성규	백철민	변희원	성정훈	손규리	손 숙	안윤정	오창훈	우동화	윤규옥	이건호
이상윤	이선우	이영수	이영재	이원우	이충윤	이 철	이현아	이홍석	장성준	전재홍
조미현	조소희	조수현	최대해	최동하	최우석	최종현	최태현	최호순	하근우	하태원
한성욱	홍정석	황병주	황은아	황중수	황준영					

14회(1998년 2월)

권택근	권혜진	김경천	김경훈	김광덕	김동현	김동환	김보경	김성훈	김연철	김원연
김은주	김재홍	김정현	김중훈	김지욱	김지훈	김찬우	김태완	김태윤	김태종	김현수
김현정	김현지	김현철	도홍직	류대형	류석현	문점용	문준호	박병주	박순호	박종욱
박주영	박진아	박혜원	박훈표	방규만	배수희	서우종	서은정	손원경	손진식	신기석
신승진	신요식	심현진	오영상	우성욱	우윤구	윤정환	이명갑	이병철	이상열	이승은
이승현	이재덕	이재훈	이진형	이 혁	이혁구	이현덕	이현웅	이화평	장용석	장한정
장혁수	장혁원	장현록	전상훈	전석재	정경윤	정성원	정수진	조도연	조영석	조재용
조지형	조철현	조현민	조호찬	진규복	채현동	한혜숙	허재웅	홍승아	홍지희	황성은

15회(1999년 2월)

강민경	강상수	강호경	권정화	권혁우	김광일	김명호	김성진	김영철	김영호	김인수
김재웅	김지훈	김철용	김철호	김현진	노혜정	도석영	박경아	박만원	박세관	박세원
박인옥	박재현	박종수	박진옥	박철한	배진곤	서수진	서연경	서윤희	서정열	설정호
손수길	손용훈	손유동	송석영	송인혁	신경화	신원호	신호철	심숙영	안영주	안재석
양세호	원동철	윤재은	윤태현	윤희준	윤호근	이경재	이동환	이동훈	이민석	이병철
이석근	이성춘	이승동	이승희	이영국	이용철	이종욱	이주협	이지현	장재식	장희영
전민혁	전용준	정유진	정혜령	정희웅	조민미	조일권	채선애	최영일		

16회(2000년 2월)

견중기	곽재영	구본호	권인협	권종희	김동일	김미선	김성두	김성재	김세영	김순섭
김영민	김은덕	김인규	김재철	김재홍	김정우	김종근	김해유	김현경	김혜림	도경록
박상원	박선영	박성철	박수경	박우영	박재우	박찬도	박형섭	박형주	방정훈	서영준
성영희	신현백	신홍관	안근수	이규원	이덕현	이동석	이동호	이상원	이성배	이영석
이정훈	이정훈	이현기	임주현	전덕호	정수원	정은영	정은정	조현우	주하경	진경순
진현석	최승욱	최연구	최영기	최원정	최창동	최혁재	최혁한	한규철	한명옥	함주연
허재훈	황일선	황준모								

17회(2001년 2월)

강보영	강완남	곽충환	권시내	기세영	김남영	김동은	김동현	김명진	김명훈	김민석
김병건	김병훈	김승범	김신애	김영현	김유진	김주용	김준우	김지영	김진환	김현아
김희경	김희운	남복희	박무식	박미선	박석열	박재은	박정택	박 훈	배상록	백수진
변준철	서용우	성민현	성영옥	손형빈	송춘영	신소진	신용억	심지훈	심진영	안기백
안지영	양윤석	오규현	은광수	이보영	이상엽	이상협	이선하	이성문	이성혁	이승재
이인우	이정민	이정윤	이종준	이종현	이종협	이준혁	이춘화	이한민	이현진	이화섭
정성훈	정승연	정영철	정운경	정혜라	조영록	조윤경	조인욱	조장혁	조주연	조혁진
조희철	주억식	최선윤	최영주	최종원	하전유	허레나	홍윤석	홍채근	황병윤	

18회(2002년 2월)

강병준	곽병곤	구남균	구현서	김가영	김균무	김도형	김도훈	김미경	김민정	김범조
김병건	김용진	김우열	김정엽	김종기	김종철	김지수	김진영	김태열	김태우	김현진
도종욱	문병철	문재성	박다사로	박문호	박사격	박선미	박수정	박연호	박재홍	박준혁
박지현	박지희	박진석	박창욱	박호중	서민애	서창덕	석준민	성남주	손동진	신형용
심종백	안순섭	양종원	엄상일	여경기	오수령	윤성우	이무숙	이민재	이병희	이승준
이승진	이승현	이영환	이재봉	이정은	이종욱	이준엽	이해정	이 혁	이현건	임종렬
장석환	전용수	전효근	정명철	정선욱	정성모	정성엽	정현태	조현진	주명돈	진종문
차한욱	탁기홍	현지원	홍석표	황재연	황혜진					

19회(2003년 2월)

강현희	곽동윤	곽완섭	구도엽	권영기	권용욱	권태현	권혁준	김교일	김다미	김동춘
김미혜	김보경	김성운	김숙현	김은용	김정은	김종형	김준식	김태진	남경범	남영진
마정현	문 건	박기훈	박병욱	박상우	박상준	박예리	박익준	박혜령	배기윤	배병구
배정호	백인엽	서민교	서상범	서영민	서은지	서혁준	손수민	손준석	송정윤	송현정
신현정	신홍원	심은정	양승준	여의동	여혜민	유영아	윤정수	윤태경	이광희	이상규
이선경	이성근	이영란	이윤희	이제원	이지은	이효준	장영윤	장종훈	전용준	정영진
정종현	조성대	조유미	조운근	조현욱	최보식	최성환	최재일	최 준	황대성	

20회(2004년 2월)

김남경	김동구	김미조	김상억	김상엽	김성현	김 신	김옥길	김지영	김진한	김철연
김태현	김현정	남승균	남우현	노동섭	노세균	류대걸	류성주	류혜경	민보람	박노수
박성범	박성호	박성호	박순형	박재석	박정훈	박태준	박혜란	방인국	배수영	백진오
사공협	서보병	석정훈	소규섭	손관협	손민수	손준호	송지현	심상우	안성우	오쌍용
오은경	오정섭	유경탁	유지혜	유호정	윤민근	윤석환	윤수경	윤희정	이경인	이광희
이동열	이동현	이은복	이원목	이재훈	이주엽	이지은	임재범	장미현	장범순	장윤영
장주연	장지혜	장현석	전동환	전종화	전현준	정지선	정진이	정희준	진상찬	최 고
최상윤	최숙정	최우혁	최종익	최창학	최혜경	태창원	하지용	홍정호		

21회(2005년 2월)

구민본	구성현	권두현	권승호	권재현	김경식	김경호	김대현	김상진	김선영	김신기
김윤석	김윤정	김이선	김인철	김인환	김정은	김정훈	김정훈	김주민	김주연	김지혜
김진한	김채선	김태화	김해원	김해택	김현실	김현태	김형종	나건엽	마현진	민병권
박병규	박상준	박승용	박영도	박우영	박은수	박재현	박정훈	박종훈	박지영	서혜진
성혜정	송준휘	안은정	양시모	여현정	오건명	오유진	우승연	원기범	이동주	이동철
이명하	이무현	이상민	이선희	이승형	이시민	이제호	이주영	이창석	이창원	이호준
임민식	장성원	장아문	장은정	장지연	전소윤	전재천	정명기	정원호	정윤태	정은지
제갈부범	최원복	최재혁	최재혁	최희철	팽정욱	한윤진	허기환	허성재	홍권호	

22회(2006년 2월)

강경지	강기훈	강문주	강민철	강성식	권태형	권혜경	김기용	김문선	김민수	김수진
김연수	김영민	김은오	김은하	김지애	김지윤	김현아	김호규	김효선	나호인	도윤경
민정아	박동진	박명일	박승암	박원일	박재형	박준범	박지혜	박혜인	서경원	소교옥
손제도	신동우	신혜아	양준규	엄인경	엄창호	오현정	윤정림	윤혜정	은종우	이동길
이명희	이미정	이민지	이수영	이수진	이순정	이시욱	이연주	이영석	이영암	이우근
이원배	이유진	이재훈	이정민	이종은	이주형	이형기	임윤아	정의홍	정재욱	정재훈
정진욱	정홍식	조지영	조현구	채진녕	최경식	최규식	최정식	최창렬	최혜진	하유진
함지연	홍서윤	홍아름	황지영							

23회(2007년 2월)

강건욱	강무균	강현준	강희도	고재이	곽광진	구현정	권근용	권상원	권재은	김규원
김대식	김도훈	김동후	김성애	김양태	김우근	김우연	김인열	김인환	김종엽	김주환
김지훈	김현권	김현우	노민수	노유리	박상진	박선경	박원재	박윤호	박재영	박재형
박진욱	배귀현	백인환	범유미	서인철	손광국	손원수	손지현	신덕용	신재홍	신정훈
신제욱	신흥일	안지연	여상목	여수현	오택근	유정영	윤경화	윤상호	이동철	이동하
이문기	이보은	이석모	이선영	이성윤	이수희	이영욱	이영훈	이원복	이유미	이재근
이재관	이재호	이종철	이진석	이태현	이현호	이호영	이희대	임동균	임재찬	장인식
장태규	장형규	정석진	정승곤	정지원	조재현	조현포	진현철	차영화	채은혜	최상영
최왕용	최용민	최주환	최진혁	추호준	탁희종	홍승완	황성기			

24회(2008년 2월)

강석진	고효빈	공시은	곽민호	곽재훈	권성걸	권준일	김강석	김교욱	김근태	김대진
김동진	김명훈	김무현	김문택	김상진	김연백	김재희	김주영	김진석	김진호	김태현
박경선	박극규	박기화	박병수	박정민	박진현	박진희	반영은	배한준	변상준	서영은
서익권	서재신	서태규	소인태	손대식	손성민	송윤석	신동환	신민식	신상우	신택준
안동섭	안영준	양병욱	오민주	오요한	이동열	이 립	이미경	이상민	이서령	이은주
이재혁	이정민	이진철	이태영	이혜원	임수영	임영재	장기준	장효정	정가원	정광영
정광현	정규진	정남기	정민우	정승환	정운혁	정재원	정창규	정택영	조민철	조순영
조용준	조준연	조진민	주형욱	최병욱	최보금	최은성	최주희	최준국	최준용	하복용
한순용	한승범	허원석								

25회(2009년 2월)

고미선	고영주	권순성	권용식	기혜민	김기훈	김동욱	김동혁	김리브가	김민수	김범수
김선연	김성미	김성훈	김소연	김영환	김윤영	김은미	김정민	김준우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진경	김찬순	김태권	김한별	김효선	김효준	류은비	류한원	문소향	박민주
박병주	박상준	박승규	박용석	박재찬	박종원	박주민	박창현	박현석	박혜민	변정길
서빛나라	서영훈	서원준	서현일	신승목	신재현	안경남	유희은	윤가현	윤규호	이강국
이경락	이동윤	이병찬	이윤정	이재희	이정우	이종표	이종훈	이주현	이지원	이지은
이진용	이치훈	임성아	임정혁	임철순	임현지	장세연	장원규	정나영	정성민	정승은
정여진	정주혜	정지현	정혜원	조범근	조외성	조요한	주정기	진민지	채민철	천미경
최리화	최문석	최병희	최상웅	최재혁	최종환	최형근	하소영	하지윤	한소은	한주희
허은영										

26회(2010년 2월)

강경태	강태환	고웅진	곽태웅	구본민	권보라	김경훈	김광렬	김동완	김두한	김승수
김예림	김온진	김윤정	김지섭	김지아	김지영	김태섭	김 현	김형동	김형석	김형주
김홍열	노현진	노홍식	류정엽	문도창	문성민	박기홍	박민규	박승현	박정흠	박지은
박태홍	배강남	배정은	서민영	서상경	성민규	손경래	손병두	손시훈	송유관	신선미
신예니	신현호	엄혜상	우성민	유정섭	윤상돈	이가현	이상현	이상훈	이성호	이수진
이영민	이영인	이재필	이제상	이지민	이지연	이진욱	임수정	전성우	정이원	정지광
정진우	정 철	정혜진	조난희	조우중	조 일	조태희	조현식	진 철	천관우	최선주
최성원	최원혁	최은영	최은철	최재혁	추지윤	한민희	한상윤	한유진	허미화	홍규표

27회(2011년 2월)

강동우	강정하	강진두	경동수	고용국	김규희	김민구	김민성	김민수	김민재	김병우
김성묵	김시현	김아련	김영남	김준식	김진영	김태환	김현주	김현중	김 환	김환용
김효진	도민영	민경근	박병훈	박상균	박성균	박소현	박진성	배종엽	석경진	손민기
송 강	안영환	안진영	양보라	엄상현	여영도	옥주희	우병우	윤빛내리	이규민	이동영
이상민	이서인	이용필	이유대	이유현	이은비	이진형	이창엽	이태한	이현주	이혁호
이혜영	장원영	장효원	전승식	전종혁	전지예	정남경	정상협	정윤교	조병욱	조정훈
조주완	주 완	채승환	채한규	천신혜	최영민	최정훈	최희경	추동민	한 길	허광렬
현미리	홍성호	홍인경								

28회(2012년 2월)

강민성	강승일	권민용	권준서	김경보	김경태	김민선	김상은	김성철	김수현	김수호
김원우	김인혁	김장일	김정규	김종만	김종현	김현석	김효동	노지현	민동훈	민영기
박명순	박소영	박우람	박정섭	박정호	박지현	박태영	박하연	배진홍	변혜진	서민구
서승현	서충교	손정우	송창호	신소영	신현민	신혜린	양지혜	엄기상	여운탁	여유진
예희욱	오상훈	우인호	유광재	윤성기	윤태빈	이기수	이나현	이동윤	이송한	이승규
이용호	이주환	이지민	이태인	임경환	임상훈	장혜준	장호준	정선민	정수원	정진운
정혜윤	정혜인	조우엽	조형준	주현수	최경호	최두영	최세명	최아영	최은미	최진국
현지원										

29회(2013년 2월)

강동혁	강샛별	강신찬	고범준	고용산	구태원	권미리	김동후	김래영	김문연	김민극
김민정	김서영	김선민	김유환	김윤겸	김재현	김정효	김현아	김형규	노민철	노옥준
노창인	류다정	박명수	박민우	박소은	박승범	박영주	박원일	박진우	방승필	배재홍
백기욱	백원석	백인엽	서경환	서영은	서요한	서지원	손혜민	송경섭	신동하	안병찬
양기욱	양희진	연창진	오대명	오정휴	이강욱	이규원	이성민	이수용	이승윤	이영석
이원범	이재욱	이제훈	이종원	이찬희	이창민	이현지	이현희	정난이	정재균	정재엽
정진호	조현재	최성환	한정엽	홍정희	황순곤					

30회(2014년 2월)

강아영	강인모	고성준	구경림	구현담	권 명	권오현	김가은	김병관	김세진	김영무
김윤수	김재호	김태기	김태훈	김하정	김한준	김혜연	남소혜	노경민	노성윤	류원선
박종훈	박준희	박지은	박현선	박혜진	배지수	백승철	서문영	신경인	신성욱	신재명
신주희	신혜림	어필선	유시경	윤성환	윤수범	윤재성	은승완	이규민	이동현	이석주
이수민	이수진	이용호	이원호	이재민	이재용	이재윤	이정엽	이준범	이지민	이현주
임일규	장세현	정무희	정민경	정소영	정수봉	정유철	정은희	정하송	조은솜	조재인
주리히	차중근	채승병	최은주	피재철	한준희	홍슬기	황성하			

31회(2015년 2월)

강문영	강종연	강현욱	강혜인	고시연	구민재	권대혁	권진경	금희연	기현주	김다예
김단비	김렬우	김미애	김민경	김보미	김사홍	김상백	김성민	김영호	김유리	김유민
김인혜	김재열	김정석	김지룡	김현재	나상수	나우철	남승협	남여경	노승욱	문광호
민현진	박석재	박소윤	박승원	박은결	박재형	박재휘	박준완	배병수	배홍균	백승재
변기현	서준형	서지영	서현지	성유진	송진언	신성희	신창민	안 규	오승은	우성문
유종훈	윤제섭	윤현강	이남훈	이동현	이동훈	이상준	이성원	이수영	이예림	이왕규
이유진	이재준	이홍원	장용혁	장윤경	정영은	정영하	정재호	정진웅	제호영	조근범
조성민	주채린	천수민	최남현	최원규	최지욱	최형욱	허원석	현제민	황윤철	

32회(2016년 2월)

곽아브라함	권혁준	김나영	김나율	김동건	김동석	김동언	김동한	김동현	김병현	김소현
김영제	김우태	김원식	김원오	김정원	김종성	김지영	김지윤	문호빈	박근우	박근휘
박민기	박정식	박정황	박종욱	박지웅	박지현	박한일	방경혜	배기호	배요한	배효은
백민주	서동욱	성주영	성지윤	손혁준	신소정	안태훈	이로지	이민진	이소연	이승원
이연희	이영환	이웅희	이유정	이은지	이찬희	이충엽	이현지	이희정	임동훈	장기영
정원동	정현경	조윤재	조은영	조인수	조주영	조호성	최문영	최준현	최지아	최지훈
하수영	하진경	황성문	황은택							

33회(2017년 2월)

김경민	김규범	김동희	김민기	김민형	김선규	김성규	김수철	김영진	김예슬	김윤상
김정준	김준형	김지현	김태우	김혜성	김효원	문현석	박경식	박도영	박로희	박지훈
박효진	배건택	배민정	백청신	성준훈	송광원	신석원	신성민	신혜경	심재환	안재홍
안혜찬	양예지	오현승	유동욱	유창민	윤기태	윤나리	윤문열	윤석주	이다경	이성원
이수연	이숙민	이재혁	이재형	이중훈	이현록	이혜원	이효진	임수빈	임정택	장기봉
전영준	지승민	진효준	최수진	최윤정	최재영	하나정				

34회(2018년 2월)

강다연	강재철	권용남	권혜수	김도환	김동환	김민성	김영훈	김재곤	김재훈	김지한
김현욱	김형준	박기현	박성은	박시홍	박은우	박지민	박진희	박철민	배상섭	배현준
백운영	백지혜	서유미	손지영	송민지	안 건	안수진	양성준	양현찬	여혜인	우승빈
유석찬	유예진	윤재신	윤지원	이건영	이기욱	이나현	이남현	이누리	이덕우	이명진
이상훈	이석윤	이여진	이인규	이재경	이재영	이주현	이현우	이현지	이현진	이현호
이현화	이호우	이효상	임상우	장세원	전예은	정유훈	정하경	제유리	조은택	지호태
최민수	최병찬	최소희	최현지	홍태창	홍현기					

35회(2019년 2월)

강동진	강성우	강희주	고강민	공수민	곽지영	구상우	권민재	권세은	권수빈	김가기
김경의	김경효	김근석	김다해	김동준	김성은	김세일	김승주	김영욱	김영훈	김요한
김인기	김하빈	김현지	류혜승	박강희	박병권	박성찬	박재석	박종문	박형남	배유빈
변석호	성무현	송우진	송준민	송지훈	신성진	신승훈	신호주	심진우	안형준	양재석
어효신	엄현종	오수현	우내환	윤정현	윤지민	윤현준	이강희	이동원	이상찬	이서현
이세은	이승준	이원준	이정민	이준기	이지원	이철호	이하영	이현준	임동현	임현아
장대장	장윤영	전유나	정애나	정영석	정현석	제현지	조민경	조성우	조웅래	조정준
조혜진	최세규	최영해	최우혁	최지원						

36회(2020년 2월)

강규민	강혜빈	권이윤	권형석	김근영	김다현	김대영	김동주	김민규	김민준	김민지
김민현	김용성	김유라	김재권	김재호	김정엽	김정훈	김주현	김준년	김준희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영	김한주	노현택	도혜윤	류승민	류지은	문민형	문지환	문채운
박상욱	박소현	박종민	박준억	박현빈	방성조	배성현	서경재	서민지	서지덕	손명준
송상정	신나일	신승환	신재욱	신창용	심정보	엄세빈	오성택	오정은	오지인	유승연
윤미진	윤희정	이동민	이준우	이지원	이지윤	이진형	이현진	임채성	임현규	장태훈
전광욱	전재형	전준현	전형동	정병강	정영준	정지현	정현구	제갈준용	조우형	조현정
조흥래	최계훈	최진영	한혜지	허세병	황윤태					

37회(2021년 2월)

강상규	강지연	강혜윤	고홍규	곽동현	권경민	권동환	권지홍	권현재	기민정	김곤수
김도경	김민석	김세윤	김여빈	김채은	김태근	김현아	김휘진	도은정	모정욱	박 준
박준범	박지원	백지현	서보성	서지민	서호성	송경아	신기홍	신 비	신유진	신재민
신채영	오기령	오혜인	유민우	유영서	윤성우	윤지현	이민규	이수영	이영래	이영민
이예서	이윤미	이윤민	이재만	이정양	이준혁	임채민	장승민	전설민	정연지	정용준
정용훈	정재윤	정재호	정하녕	조영창	조찬희	최재선	하선영	한보영	홍동의	홍준식
홍한비										

38회(2022년 2월)

강지훈	곽동조	권수진	김록현	김민석	김민수	김성록	김요진	김재현	김지영	나원호
남지호	노현석	류정기	박민기	박범순	박성경	박세빈	박시영	박준영	박지수	박창래
박현곤	박효진	방승재	배수빈	서경재	서연우	서용성	손상우	손수민	손희정	송재운
신서연	양정은	양지원	양현빈	오지혜	윤혜수	이기령	이도현	이동욱	이영섭	이원진
이유진	이정진	이지훈	이찬호	이태림	임기훈	장기문	전유라	정명근	정성진	정승원
정은아	정현규	제원모	조영관	조우윤	조정연	조효정	조희원	진유환	진효진	최영진
최영환	최형우	홍수범	홍승환	황영석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1-2021

발행일	초판1쇄 인쇄 2022년 2월 14일 초판1쇄 발행 2022년 2월 28일
지은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펴낸곳	동아문화사
펴낸이	박창용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65길 11-9(장기동)
전화번호	053-252-9060
팩스	053-257-5446
ISBN	979-

비매품

© 2022.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수록된 사진 및 작품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할 수 없습니다.

